경상북도 종합계획

(2012~2020)

2012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제 출 문

경상북도지사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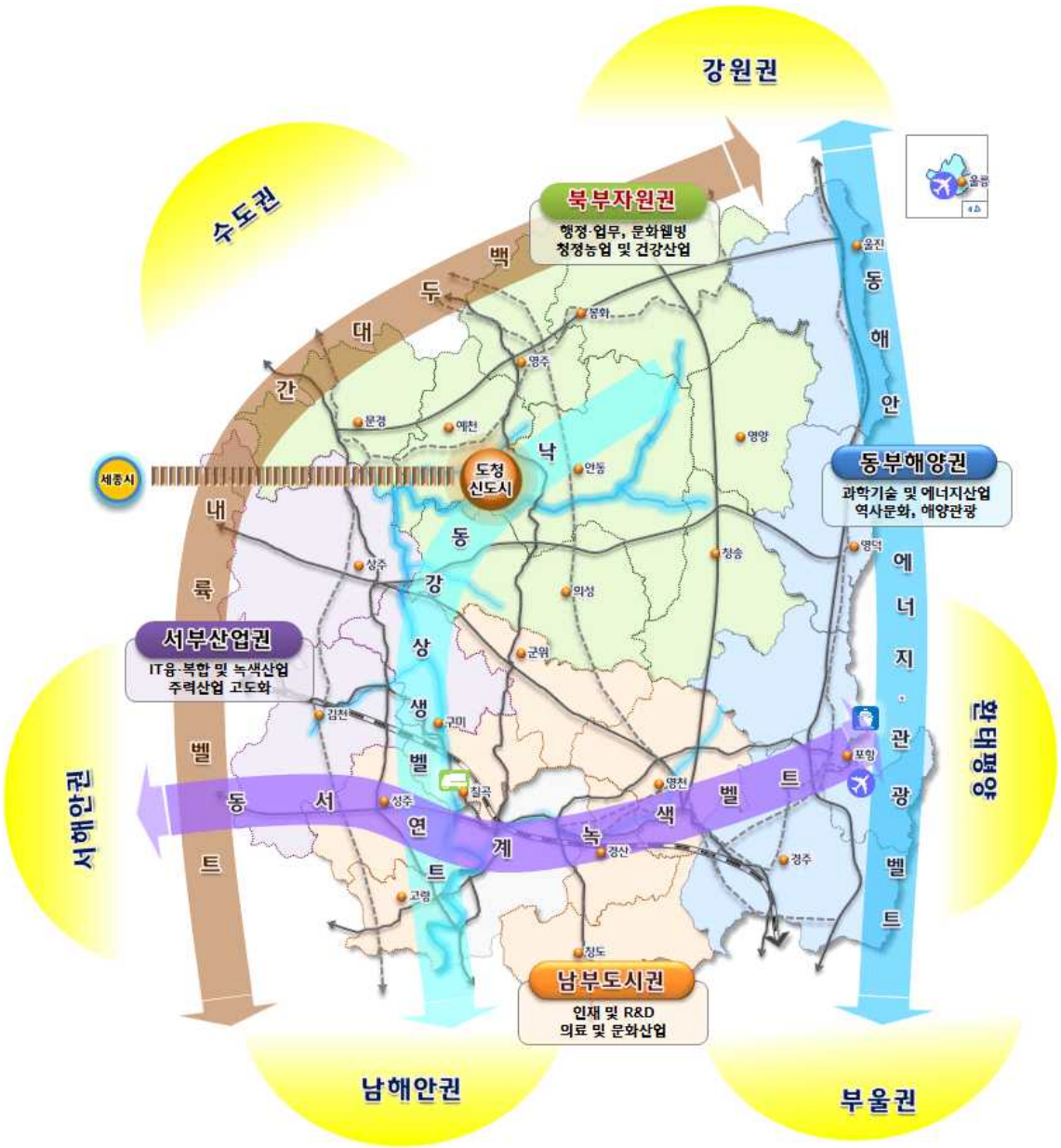
이 보고서를 귀 도에서 우리 연구원에 의뢰한「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2.

대구경북연구원

원 장 이 성 근

경상북도 종합발전계획도
(2012~2020)



목 차

제1편 계획의 기조

제1장 계획의 개요	3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5
제2장 경북의 여건 및 전망	11
제1절 현황 및 특성	11
제2절 관련계획 검토	41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현행 도종합계획 평가	51
제4절 주민의식 조사	63
제5절 경북의 현안문제 및 과제	73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79
제1절 계획의 기본전제	79
제2절 비전 및 목표	81
제3절 추진전략	82
제2장 계획지표의 설정	84
제1절 인구 지표	84
제2절 기타 지표	87
제3장 공간구조의 설정	88
제1절 발전축 설정	88
제2절 생활권 설정	91

제3편 부문별 추진계획

제1장 네트워크형 도시개발 및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 101
제1절 지역개발 101
제2절 농어촌 정주기반 109

제2장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녹색기술·산업 육성 119
제1절 농림수산업 119
제2절 제조업 143
제3절 서비스업 169

제3장 강·산·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180
제1절 문화기반 180
제2절 관광기반 197

제4장 사통팔달 녹색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확충 218
제1절 교통 218
제2절 물류 234
제3절 정보인프라 243

제5장 쾌적한 생활 및 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259
제1절 주택 259
제2절 상·하수도 274
제3절 보건·의료 289
제4절 사회복지 302
제5절 교육·체육 330

제6장 녹색성장지향형 지역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345
제1절 토지이용 345
제2절 수자원 358
제3절 해양자원 369
제4절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386

제7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관리 및 재해안전지역 구현 411
제1절 환경 411
제2절 경관 427
제3절 안전과 방재 444

제4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재정계획 469
제1절 행정계획 469
제2절 재정계획 479

제2장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491
제1절 투자계획 491
제2절 재원조달계획 493

제5편 시·군별 발전방향

제1장 북부자원권 519
제2장 동부해양권 535
제3장 서부산업권 545
제4장 남부도시권 551

부 록 567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과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의 비교

표목차

<표 1-1> 도 종합계획 수립 연혁 ····· 6
<표 1-2> 기상 현황 ····· 13
<표 1-3> 강수량 현황 ····· 14
<표 1-4> 해안선 및 도서 현황 ····· 15
<표 1-5> 하천 현황 ····· 15
<표 1-6> 전국대비 인구규모 변화추이 ····· 16
<표 1-7> 시 · 군별 인구추이 ····· 17
<표 1-8> 경북 북부권 인구추이 ····· 17
<표 1-9> 도시화율 ····· 18
<표 1-10> 인구밀도 ····· 18
<표 1-11>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 19
<표 1-12> 인구이동 ····· 20
<표 1-13>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 21
<표 1-14>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22
<표 1-15> 도시지역내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 23
<표 1-16> 비도시지역내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 24
<표 1-17> 지역내총생산 추이 ····· 25
<표 1-18> 업종별 제조업 생산액 추이 ····· 26
<표 1-19> 산업단지 현황 ····· 27
<표 1-20> 도로 현황 ····· 28
<표 1-21> 고속도로망 체계 ····· 29
<표 1-22> 철도 현황 ····· 30
<표 1-23> 공항시설 현황 ····· 31
<표 1-24> 항만시설 현황 ····· 32
<표 1-25> 문화재 현황 ····· 34
<표 1-26> 관광사업체 현황 ····· 35
<표 1-27> 문화기반시설 현황 ····· 36
<표 1-28> 대기오염 추이 ····· 38
<표 1-29> 지역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 ····· 40
<표 1-30> 3대 문화권 10대 발전 전략 ····· 47
<표 1-31> 선도사업 및 전략사업 ····· 47
<표 1-32> 경북의 낙동강 보 현황과 특성 ····· 56
<표 1-33> 계획지표 달성도 ····· 62

<표 2-1> 경북 장래인구 추정 ····· 84
<표 2-2> 연령별 인구 배분 ····· 86
<표 2-3> 도시인구 배분지표 ····· 86

<표 2-4> 위계별 생활권의 구성 ····· 93

<표 3-1> 농촌의 아동 및 노년인구 현황 ····· 109
<표 3-2> 교육시설 현황(행정리 내) ····· 111
<표 3-3> 의료시설 현황(행정리 내) ····· 111
<표 3-4> 경북 농가인구 및 농가수 변화 ····· 119
<표 3-5> 경북 농경지 면적 변화 ····· 120
<표 3-6> 경북 경지규모별 농가 구조변화 ····· 121
<표 3-7> 경북 호당 농업자본 변화 ····· 121
<표 3-8> 경북 농가소득 변화 ····· 122
<표 3-9> 경북 농업총수입 추이 ····· 122
<표 3-10> 경북 가축사육 두수 변화 ····· 123
<표 3-11> 경북 품목별 재배면적 현황 ····· 123
<표 3-12> 경북 시·군별 지역농업 특징 ····· 124
<표 3-13> 경북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 125
<표 3-14> 경북 유통시설 변화 ····· 125
<표 3-15> 경북 식품제조 · 가공업체수 및 종업원 현황 ····· 126
<표 3-16> 경북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 126
<표 3-17> 경북 임가 및 임가인구 변화 ····· 127
<표 3-18> 임업형태별 임가 현황 ····· 127
<표 3-19> 소유형태별 임야면적 현황 ····· 128
<표 3-20> 경북 어가 및 어업인구 변화 추이 ····· 129
<표 3-21> 경북 어종별 어획량 변화 추이 ····· 130
<표 3-22> 수산물가공품 생산고 ····· 130
<표 3-23> 경북 전략산업 집적지 현황 ····· 143
<표 3-24> 전략산업별 주요 지표 변화추이 ····· 144
<표 3-25> 경북 전자 · 정보기기산업 현황 ····· 145
<표 3-26> 경북 전자 · 정보기기산업분류별 현황 ····· 145
<표 3-27> 경북 생물한방산업 현황 ····· 146
<표 3-28> 대경권 선도산업의 전국대비비중 및 입지계수 ····· 148
<표 3-29> 대경권 의료기기산업 현황 ····· 148
<표 3-30> 대경권 실용로봇산업 현황 ····· 149
<표 3-31> 대경권 태양광산업 현황 ····· 150
<표 3-32> 대경권 연료전지산업 현황 ····· 150
<표 3-33> 경북 원자력 현황 ····· 151
<표 3-34> 경북 섬유산업의 지역별 특화기반 구축 현황 ····· 152
<표 3-35> 경북지역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 152
<표 3-36> 경북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현황 ····· 153

<표 3-37> 경북 연구인력 현황 ····· 154
<표 3-38> 경북 연구기관 현황 ····· 154
<표 3-39> 경북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 현황 ····· 155
<표 3-40> 경북 연구개발성과(특허 등록) 현황 ····· 155
<표 3-41> 경북 국가산업단지 현황 ····· 156
<표 3-42> 경북 서비스산업 업종별 현황 ····· 169
<표 3-43> 경북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 170
<표 3-44> 경북 예금은행 점포수 추이 ····· 171
<표 3-45> 경북 금융기관 저축성 예금 및 어음 부도율 ····· 171
<표 3-46> 경북 시장 및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 ····· 171
<표 3-47> 공공예술단 현황 ····· 181
<표 3-48> 시 · 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 182
<표 3-49> 경북의 축제 · 이벤트 현황 ····· 183
<표 3-50> 경북의 주요 문화관광축제 ····· 184
<표 3-51> 문화예술행사 관람 현황 ····· 185
<표 3-52>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 185
<표 3-53> 창작 · 발표 경험 및 향후 창작 발표 의향 ····· 186
<표 3-54>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 188
<표 3-55> 공연법 개정 주요 내용 ····· 189
<표 3-56> 문화예술 향유 · 창조활동 기회 제고 사업 및 내용 ····· 194
<표 3-57> 지역사회 중심 문화예술공급기반 구축사업 및 내용 ····· 195
<표 3-58> 문화예술 정보 · 자원에의 접근성 제고사업 및 내용 ····· 196
<표 3-59> Gyeongbuk 20 투어루트(안) ····· 210
<표 3-60> 경북 연도별 도로 현황 ····· 218
<표 3-61> 경북 시 · 군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현황 ····· 219
<표 3-62> 경북 시 · 군부 지방도 현황 ····· 219
<표 3-63>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 및 증가 추이 ····· 220
<표 3-64> 포항 공항시설 현황 ····· 221
<표 3-65> 포항항 부두시설 현황(신항 · 구항) ····· 222
<표 3-66> 포항항 부두시설 현황(영일만항) ····· 222
<표 3-67> 해외 기후변화관련 법제정 사례 ····· 223
<표 3-68> 대구광역권 통행목적별 통행량 추이분석 ····· 226
<표 3-69> 경북의 주요 도로사업계획 ····· 229
<표 3-70> 경북의 주요 철도사업계획 ····· 231
<표 3-71> 경북의 주요 공항관련계획 ····· 233
<표 3-72> 주요도시별 운수업 현황 ····· 234
<표 3-73> 주요도시별 운수업 비용 및 자산 현황 ····· 235
<표 3-74> 경북 운송산업별 종사자 및 급여액 추이 ····· 235

<표 3-75> 전국 내륙물류기지 현황 ····· 236
<표 3-76> 경북 화물터미널 현황 ····· 237
<표 3-77> 국내 지역별 정보화 이용율 ····· 243
<표 3-78> 인터넷 활용 부문 ····· 244
<표 3-79> 국내 지역별 사업체 PC보유 현황 ····· 245
<표 3-80> 국내 지역별 사업체 홈페이지 보유 현황 ····· 245
<표 3-81> 국내 지역별 사업체 네트워크 구축 현황 ····· 246
<표 3-82> 국내 지역별 사업체 인터넷 이용 현황 ····· 246
<표 3-83> 국내 지역별 사업체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 ····· 247
<표 3-84> 경북 정보화 예산 현황(당초) ····· 248
<표 3-85> 개인별 PC보급 현황 ····· 248
<표 3-86> 경북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 ····· 249
<표 3-87> 경북 정보화 관련 자치법규 현황 ····· 250
<표 3-88> 가구 분포 현황 ····· 259
<표 3-89> 광역 지자체별 평균 가구원수 추이 ····· 260
<표 3-90> 지자체별 1인가구 비율 추이 ····· 260
<표 3-91> 광역 지자체별 1인가구 연령 ····· 261
<표 3-92> 광역 지자체별 1인가구 거처유형 ····· 262
<표 3-93> 지역별 주택보급률 ····· 263
<표 3-94> 광역 지자체별 일반가구 거처 유형 ····· 264
<표 3-95> 광역 지자체별 일반가구 사용방수 ····· 264
<표 3-96> 경상북도 시군별 빈집 현황 ····· 265
<표 3-97> 경북 상수도의 수원별 취수현황 ····· 274
<표 3-98> 경북 상수도 급수 보급률 변화 ····· 275
<표 3-99> 경북 시·군별 상수도 급수 보급률 변화 ····· 275
<표 3-100> 경북 상수도 유수율 변화 ····· 276
<표 3-101> 경북 상수도 누수율 변화 ····· 277
<표 3-102> 경북 1인1일급수량 변화 ····· 278
<표 3-103> 경북 하수관거 보급률 변화 ····· 279
<표 3-104> 경북 공공하수처리 보급률 변화 ····· 280
<표 3-105> 경북 고도처리 보급률 변천 ····· 280
<표 3-106> 주요 사인별 표준화 사망률 ····· 289
<표 3-107> 흡연 현황 ····· 290
<표 3-108> 음주 현황 ····· 290
<표 3-109> 운동 및 신체활동 현황 ····· 291
<표 3-110> 비만 및 체중조절 현황 ····· 291
<표 3-111> 정신건강 현황(만 19세 이상) ····· 292
<표 3-112> 경북 보건시설 현황 ····· 292

<표 3-113> 경북 보건소 · 보건지소 전문 인력 현황 ····· 293
<표 3-114> 경북 시 지역 보건기관 인력 현황 ····· 293
<표 3-115> 의료기관 현황 ····· 294
<표 3-116> 의료인 현황 ····· 294
<표 3-117>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개요 ····· 298
<표 3-118> 경북 저소득인구 현황 ····· 302
<표 3-119> 경북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 302
<표 3-120> 경북 저소득층관련 복지기관 현황 ····· 303
<표 3-121> 경북 노인 추이와 현황 ····· 304
<표 3-122> 경북 노인복지시설 현황 ····· 304
<표 3-123> 경북 장애인 등록현황 ····· 306
<표 3-124> 경북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 307
<표 3-125> 경북 아동 · 청소년인구 현황과 추이 ····· 307
<표 3-126> 경북 아동 · 청소년인구 연령별 현황 ····· 307
<표 3-127> 경북 아동 · 청소년 인구이동 추이(1995~2010년) ····· 308
<표 3-128> 경북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 308
<표 3-129> 경북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 309
<표 3-130> 경북 소년 · 소녀가장 현황 ····· 309
<표 3-131> 경북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 310
<표 3-132> 경북 여성인구 및 비중 ····· 311
<표 3-133> 경상북도 연령별 여성인구 ····· 311
<표 3-134> 여성 경제활동인구 현황 ····· 312
<표 3-135> 경북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 312
<표 3-136> 경북 여성복지시설 현황 ····· 314
<표 3-137> 경북 가족구조의 변화 ····· 314
<표 3-138> 경북 어린이집 현황 ····· 315
<표 3-139> 경북 외국인주민 현황 ····· 316
<표 3-140> 다문화지원기관 · 단체 현황 ····· 316
<표 3-141> 경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이 ····· 317
<표 3-142> 경북 학교 및 학생 현황과 추이 ····· 330
<표 3-143> 8개 도지역 소규모 학교 현황 ····· 331
<표 3-144> 9개 도 평균과 경북 방과후학교 현황 비교 ····· 332
<표 3-145> 16개 시 · 도별 고교 진학률 및 취업률 현황 ····· 332
<표 3-146> 평생교육기관 수 ····· 333
<표 3-147> 평생교육기관 학생 · 학습자 현황 ····· 334
<표 3-148> 공공체육시설 현황 ····· 335
<표 3-149> 신고 및 등록체육시설 현황 ····· 336
<표 3-150>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추이 ····· 345

<표 3-151> 시 · 군별 토지이용 변화율 ····· 346
<표 3-152> 도시계획 결정 용도지역 변화율 ····· 348
<표 3-153>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변화 추이 ····· 348
<표 3-154> 도시개발 추진 현황 ····· 349
<표 3-155> 경북 산업단지 추진 현황 ····· 350
<표 3-156> 토지수급 전망 ····· 353
<표 3-157> 하천 현황 개요 ····· 358
<표 3-158> 경북 주요하천별 현황 ····· 359
<표 3-159> 경북 댐 현황 ····· 360
<표 3-160> '경북 물산업 육성계획' 주요내용 ····· 368
<표 3-161> 해양심층수의 특성 ····· 371
<표 3-162> 해양심층수 이용분야 ····· 371
<표 3-163> 연안으로부터의 수심별 거리 ····· 372
<표 3-164> 경북 해양심층수의 수질 특성 ····· 372
<표 3-165> 경북 해양심층수 개발 현황 ····· 373
<표 3-166> 경북 최종에너지소비 추이 ····· 386
<표 3-167> 경북 석탄소비 추이 ····· 387
<표 3-168> 경북 석유소비 추이 ····· 387
<표 3-169> 경북 전력소비 추이 ····· 388
<표 3-170> 경북 도시가스 공급량 ····· 389
<표 3-171> 경북 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이 ····· 389
<표 3-172> 경북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 ····· 390
<표 3-173> 경북 발전설비 세부 현황 ····· 390
<표 3-174> 경북 신재생에너지설비 현황 ····· 391
<표 3-175> 경북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 392
<표 3-176> 경북 광종별 광구 현황 ····· 393
<표 3-177> 주요 광산물 생산 현황 ····· 393
<표 3-178> 경관권역 설정 및 미래상 ····· 433
<표 3-179> 경관권역별 특화방향 ····· 433
<표 3-180> 경관축 설정 ····· 434
<표 3-181> 경관축별 특화방향 ····· 434
<표 3-182> 경관거점별 특화방향 ····· 435
<표 3-183> 백두대간 특정경관 관리방향 ····· 436
<표 3-184> 동해안 특정경관 관리방향 ····· 437
<표 3-185> 경북 풍수해 발생 추이 ····· 444
<표 3-186> 경북 재난사고 발생 현황 ····· 445
<표 3-187> 경북 화재발생 현황 ····· 446
<표 3-188>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 446

<표 3-189> 경북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 447
<표 3-190> 경북 산불발생 현황 ····· 448
<표 3-191> 경북 산불의 발생원인 ····· 448
<표 3-192> 경북 재난사고 인명 및 피해액 현황 ····· 449
<표 3-193> 경북 소방장비(차량) 현황 ····· 450
<표 3-194> 방재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 454
<표 3-195> 방재행정체제 및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 455
<표 3-196> 재난관리 분야 특수 전문교육(소방방재청) ····· 464
<표 3-197> 시민단체 체계화 및 활성화 사업 내용 ····· 465
<표 3-198>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단체 ····· 465

<표 4-1> 본청의 기구변동(과급이상의 신설) ····· 470
<표 4-2> 공무원 현황 ····· 470
<표 4-3>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와 추이 ····· 480
<표 4-4> 기능별 세출 결산 규모와 추이(일반회계) ····· 480
<표 4-5> 부문별 투자계획 ····· 492
<표 4-6> 부문별 · 재원별 투자계획 ····· 493

그림목차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 7
<그림 1-2> 경북의 입지 ····· 11
<그림 1-3> 시 · 군별 노령인구비율 ····· 20
<그림 1-4> 경북의 고속도로망 ····· 29
<그림 1-5> 국내항공수송(포항공항) ····· 31
<그림 1-6> 상 · 하수도 보급률 추이 ····· 32
<그림 1-7> 시 · 군별 상 · 하수도 보급률 ····· 33
<그림 1-8> 인터넷 보급률 ····· 37
<그림 1-9> 인터넷 이용률 ····· 37
<그림 1-10> 1인 1일당 물소비량 변화추이 ····· 39
<그림 1-11>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 41
<그림 1-12> 대경권 비전 및 발전방향 ····· 42
<그림 1-13> 목표 및 추진전략 ····· 43
<그림 1-14>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도 ····· 44
<그림 1-15> 목표 및 기본전략 ····· 45
<그림 1-16> 대경권의 2대 초광역축 & 4대 경제권 ····· 45
<그림 1-17> 3대 문화권 비전과 목표 ····· 46
<그림 1-18> 관광경북의 비전 ····· 49
<그림 1-19> 4대 관광권역 ····· 49
<그림 1-20> 가구별 전체인구대비 구성비 추이 ····· 51
<그림 1-21> U-city 개념도 ····· 52
<그림 1-22> 2050년 미국의 미래상(Mega City Region) ····· 54
<그림 1-23> 낙동강 살리기 사업 내용 및 경북 구간 현황도 ····· 55
<그림 1-24> 도청이전신도시 조감도 ····· 57
<그림 1-25> 대경권 선도산업 ····· 58
<그림 1-26> 백두대간벨트 특화발전구상도 ····· 58
<그림 1-27> 경북의 정주 만족도 ····· 63
<그림 1-28> 경상북도 정주성 ····· 64
<그림 1-29> 경북에서의 정주 희망 이유 ····· 64
<그림 1-30>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희망 이유 및 이주 희망 지역 ····· 65
<그림 1-31> 경북의 발전 잠재력 ····· 65
<그림 1-32> 경상북도 발전 장애요인 ····· 66
<그림 1-33> 경상북도 미래상(발전방향) ····· 67
<그림 1-34> 경북의 발전을 이끌 가장 중요한 전략 ····· 67
<그림 1-35> 경북의 발전을 이끌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 ····· 68
<그림 1-36> 경북의 향후 중심 육성 산업 ····· 68

<그림 1-37> 경북의 관심 정책 분야 ····· 69
<그림 1-38> 2020년 경북 미래상의 캐치프레이즈 ····· 69
<그림 1-39> 산업 · 경제 분야 주요 정책방향 ····· 70
<그림 1-40> 지역개발 분야 주요 정책방향 ····· 70
<그림 1-41> 문화 · 관광 분야 주요 정책방향 ····· 71
<그림 1-42> 광역 인프라 분야 주요 정책방향 ····· 71
<그림 1-43> 복지 및 생활환경 분야 주요 정책방향 ····· 72
<그림 1-44> 과제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 74
<그림 1-45> 계획 과제 도출 ····· 75

<그림 2-1> 계획의 기본방향 ····· 80
<그림 2-2> 2020년 경북의 비전과 목표 ····· 81
<그림 2-3> 2020년 경북발전 공간 구도 ····· 89
<그림 2-4> 3대 초광역축 ····· 90
<그림 2-5> 4대 지역발전축 ····· 90
<그림 2-6> 도시의 위계와 생활권 체계도 ····· 91
<그림 2-7> 생활권 설정 ····· 92
<그림 2-8> 북부자원권 공간발전 구상 ····· 95
<그림 2-9> 동부해양권 공간발전 구상 ····· 96
<그림 2-10> 서부산업권 공간발전 구상 ····· 97
<그림 2-11> 남부도시권 공간발전 구상 및 도시별 특화기능 ····· 98

<그림 3-1> 도시화율 ····· 101
<그림 3-2> 지역개발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105
<그림 3-3> 광역협력 구축 체계 ····· 107
<그림 3-4> 농가인구 및 65세 이상 농가인구 추세 ····· 109
<그림 3-5> 경북의 귀농 · 귀촌 가구수 및 전국대비 비중 ····· 110
<그림 3-6> 농어촌정주기반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114
<그림 3-7> 경북 농업총수입, 농작물수입, 축산물수입 변동추이 ····· 122
<그림 3-8> 농림수산업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138
<그림 3-9> 기업부문 문제점 ····· 159
<그림 3-10> R&D 부문 문제점 ····· 159
<그림 3-11> 인력 부문 문제점 ····· 159
<그림 3-12> 네트워크 부문 문제점 ····· 159
<그림 3-13> 제조업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163
<그림 3-14> 대경권 선도전략산업의 포토폴리오형 산업생태계 ····· 165
<그림 3-15> 서비스업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177
<그림 3-16> 전문예술법인 · 단체 현황 ····· 180

<그림 3-17>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 190
<그림 3-18> 문화기반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192
<그림 3-19> 관광기반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203
<그림 3-20> 4대 관광권역 설정 ····· 204
<그림 3-21> 경북 철도노선 현황도 ····· 220
<그림 3-22> 경북 공항 및 항만 분포도 ····· 221
<그림 3-23> 포항항의 연혁 및 위치 ····· 222
<그림 3-24> 광역경제권 추진전략 ····· 224
<그림 3-25> 교통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227
<그림 3-26> 경북 주요 도로망 추진현황 ····· 228
<그림 3-27> 경북의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계획 ····· 230
<그림 3-28> 경북의 주요 철도사업계획도 ····· 232
<그림 3-29> 경북 공항사업계획 ····· 233
<그림 3-30> 내륙물류기지 배치도 ····· 236
<그림 3-31>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물류표준화 ····· 237
<그림 3-32>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 개념도 ····· 238
<그림 3-33> ICD 운영시스템 개념도 ····· 239
<그림 3-34> 물류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240
<그림 3-35>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체계 ····· 241
<그림 3-36>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개념도 ····· 241
<그림 3-37> 경북 정보화 조직도 ····· 247
<그림 3-38> 정보인프라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256
<그림 3-39> 체계적인 주택유형의 공급 (도청이전신도시) ····· 268
<그림 3-40> 김천 · 구미 역세권과의 연계도 ····· 268
<그림 3-41> 주택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269
<그림 3-42> 전국 광역시도 물수요관리 성과평가 결과 ····· 279
<그림 3-43> 상 · 하수도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285
<그림 3-44>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 모식도 ····· 288
<그림 3-45> 보건 · 의료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295
<그림 3-46> 시 · 군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 305
<그림 3-47> 시 · 군별 경로당 현황 ····· 305
<그림 3-48> 장애인시설 분포도 ····· 306
<그림 3-49> 여성관련시설 분포도 ····· 313
<그림 3-50> 사회복지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319
<그림 3-51> 교육 · 체육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338
<그림 3-52> 전국 및 경북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 ····· 347
<그림 3-53> 토지이용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354
<그림 3-54> 낙동강 수계현황도(댐 포함) ····· 360

<그림 3-55> 낙동강 가동보 현황 ····· 362
<그림 3-56> 물산업 개념 ····· 363
<그림 3-57> 수자원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365
<그림 3-58> 권역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367
<그림 3-59> 해양관련 연구기관 현황 ····· 369
<그림 3-60> 경북 해양심층수개발 기본계획 ····· 373
<그림 3-61> 온배수 배출경로 ····· 374
<그림 3-62> 해양자원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381
<그림 3-63> 지역간 자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안) ····· 385
<그림 3-64> 에너지자원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396
<그림 3-65> 울릉도 · 독도 녹색섬 조성 구상(안) ····· 401
<그림 3-66> 환경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418
<그림 3-67> 폐기물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체계도 ····· 426
<그림 3-68> 경관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432
<그림 3-69> 경관거점 설정 ····· 435
<그림 3-70> 낙동강뱃길조성사업 구상 ····· 438
<그림 3-71> 백두대간 경관도로사업 구상 ····· 439
<그림 3-72> 대가야역사경관지구 경관 구상 ····· 440
<그림 3-73> 도청이전신도시 녹지경관축 구상도 ····· 441
<그림 3-74>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재난위험도 ····· 453
<그림 3-75> 안전 · 방재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456
<그림 3-76> 통합재난관리 구축 체계 개요도 ····· 459

<그림 4-1>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변화 방향 ····· 471
<그림 4-2> 행정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475
<그림 4-3>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 483
<그림 4-4> 재정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485

제1편 계획의 기조

제1장 계획의 개요

제2장 경북의 여건 및 전망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1장

계획의 개요

제1절 계획의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과 필요성

가. 배경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확정

○ 2011년 1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이 확정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고, 시·군 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수정 필요

중앙의 지침에 따른 지역단위의 종합계획 수정 필요

○ 국토종합계획의 국토전략 및 정책방향을 이어받으면서 지역마다의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여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는 계획 수립 필요

나. 필요성

지역의 대내외적 여건 변화로 지역계획 보완 필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내·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음.

-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세계화와 지방화, 아시아·태평양시대의 전개 등 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새롭게 질서가 재편
- 지방분권화의 가속화,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내 변수들 등장

○ 현행 도종합계획 수립 이후 대내·외 사회경제적 환경 및 정책환경이 변하여 이에 대응한 지역계획의 필요성 대두

- 경북혁신도시 건설,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4대강 및 백두대간 개발, 3대문화권 개발 등을 계기로 경북이 재도약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업그레이드 계획 필요

국가 및 지역단위 계획 간 연계성 확보 필요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제3차 관광개발기본계획」,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등 경북장기발전계획과 관련되는 국가단위 상위계획 및 지역단위 법정계획 등의 수립·수정에 따라 계획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보완 필요

2. 계획의 목적

국토종합계획과 연계한 경북도 발전방향 제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제시된 정책과 사업을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화시키며, 국토공간의 U자형 개발축 설정,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국토공간 변화 등 국가발전 정책과 수요 등을 분석·검토하여 향후 경북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비전을 제시함.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지향하고 있는 정책방향을 수용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유지함.

여건 변화에 대응한 특색 있는 지역계획 수립

○ 세계화·지식정보화 추세에 부응하여 환동해 경제권의 부상과 남북관계 변화 등에 따른 국제·지역 간 협력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독자적이며 특색 있는 계획을 수립함.

경북의 내부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역발전 도모

○ 경북이 보유한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전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하고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

제2절 계획의 성격 및 범위

1. 계획의 성격 및 역할

가. 계획의 성격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계획

○ 본 계획은 국가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국가정책의 능동적 수용을 위해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초광역개발권계획』등 상위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의 골격을 수렴하여 지역차원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계획

○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국토종합계획은 도종합계획에 대한 지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도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을 도 단위에서 구체화한 계획

국토종합계획에 대응한 지역·부문별 계획

○ 국토종합계획에서 다루지 못한 도차원의 정책과 사업을 포함하여 지역의 정치·사회·문화 등 각종 부문계획을 담는 계획

하위계획의 지침 제공 계획

○ 군계획, 도시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개발방향과 지침이 되고 민간부문에 대해 개발방향과 투자방향을 제시하고 유도하는 계획

▷ 목적별 : 다목적·다기능적 종합계획

▷ 대상별 : 종합계획

▷ 기간별 : 장기계획(10년)

▷ 지역별 : 도 단위 계획

▷ 법정별 : 법적 계획(국토기본법 제13조)

나. 계획의 역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지침서

○ 도종합계획은 지역주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미래 비전 제시

○ 도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전략, 사업제시를 통하여 도정과 시·군의 부문별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본방향과 지침을 제공

시·군 종합계획의 지침서

○ 시·군종합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 성격을 가지며, 시·군종합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

○ 도내 시·군의 발전방향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수립

국가계획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지침서

○ 국가정책(국토종합개발계획,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등)인 상위계획에 따른 지역적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을 강화

○ 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수립,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재원확보, 투자계획 등 구체적 작성을 통해 실현가능성을 제고

〈표 1-1〉 도 종합계획 수립 연혁

구 분	제1차 계획	제2차 계획	제3차 계획	제3차 수정계획
기 간	1982~1991	1992~2001	2000~2020	2008~2020
상위계획 관 계	제2차 국토종합계획 (1982-1991)	제3차 국토종합계획 (1992-2001)	제4차 국토종합계획 (2000-202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2006-2020)
수립지역	-	수도권, 제주도 제외한 7개 도	수도권, 제주도 제외한 7개 도	수도권, 제주도 제외한 7개 도
경상북도 종합계획	-	경상북도종합계획 (1992-2001)	경상북도종합계획 (2001-2020)	경상북도종합계획 (2008-2020)
계획내용	생활환경형성 산업진흥기반 확충 자원이용 · 교통 · 통신체계 확립	도시 농어촌 정비 교통통신망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개선 관광 및 위락시설 개발 등	산업 · 기술경쟁력 강화 선진생활 · 복지환경조성 자연환경 보전 · 관리 국제교류 활성화	도시 및 농산어촌 개발 교통통신망 구축 산업 · 기술경쟁력 강화 및 환경보전관리 지역자원, 문화 · 관광자원 개발

주 : 2011년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도종합계획 수정계획(2012-2020) 수립

2. 계획의 범위 및 수립체계

가. 계획의 범위

시간적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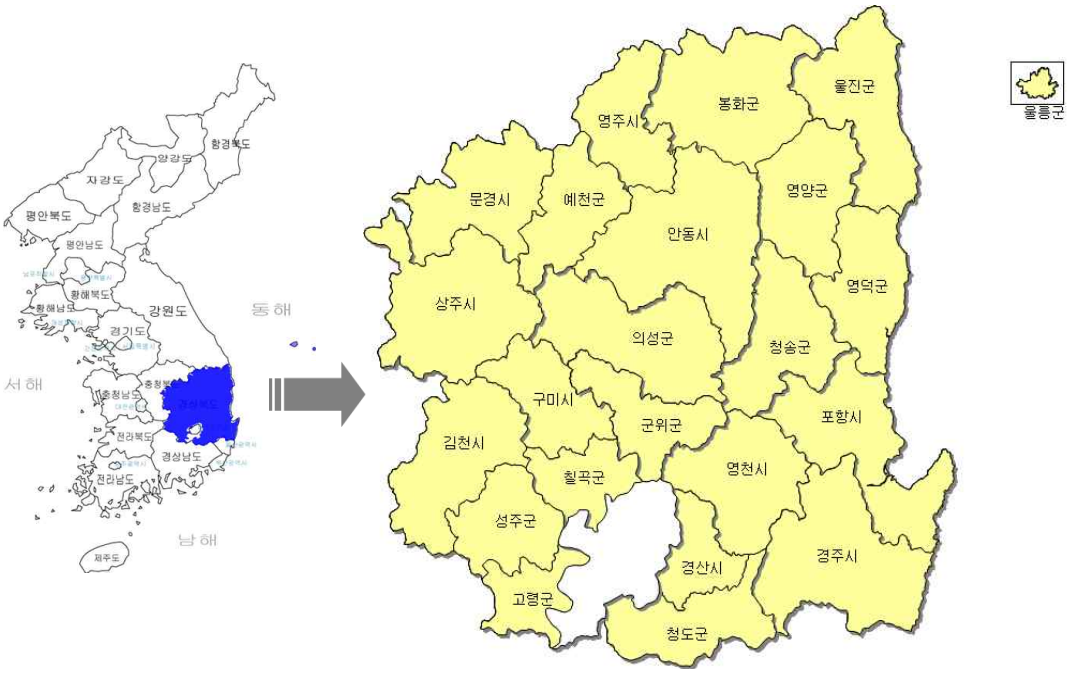
○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2~2020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설정함.

○ 기준년도는 2010년을 원칙으로 하며 목표연도는 2020년으로 함.

공간적 범위

○ 경북 전역 23개 시·군(10시 13군)에 19,028㎢를 계획 대상구역으로 함.

-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10개 시)
-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진, 울릉(13개 군)



<그림 1-1> 과업의 공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 목적, 성격 및 범위
- 도의 여건 및 전망

○ 계획의 기본방향

- 비전 및 목표
- 계획지표 및 공간구조 설정
- 추진전략

○ 부문별 세부추진계획

- 지역개발
- 지역산업
- 문화·관광기반
- 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
- 생활환경
- 지역자원
- 환경 및 경관
- 안전 및 방재
- 계획의 집행과 관리

○ 시·군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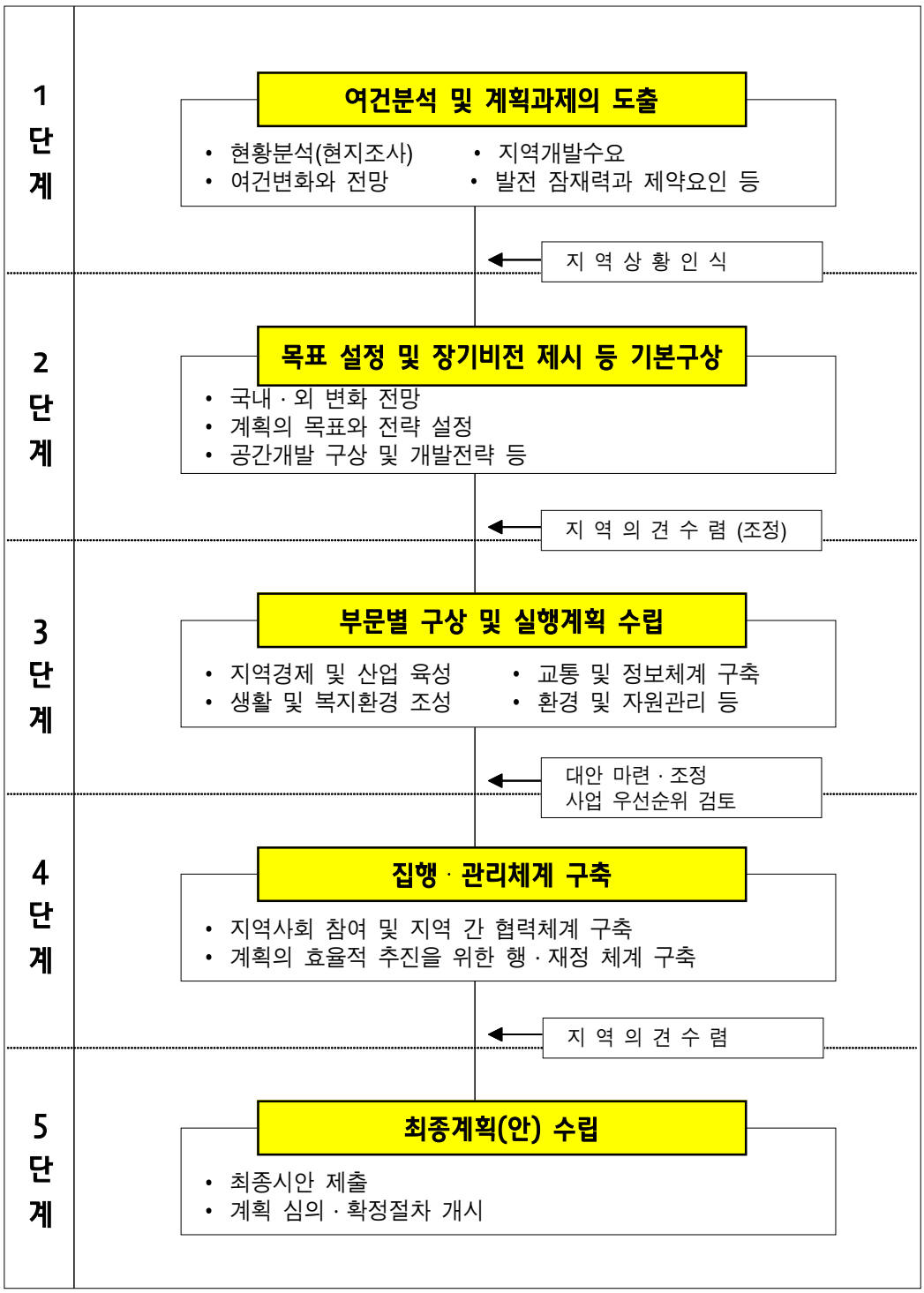
▷ 시간적 범위 : 2012~2020년(9년 간)

▷ 공간적 범위 : 경북 행정구역 전체(19,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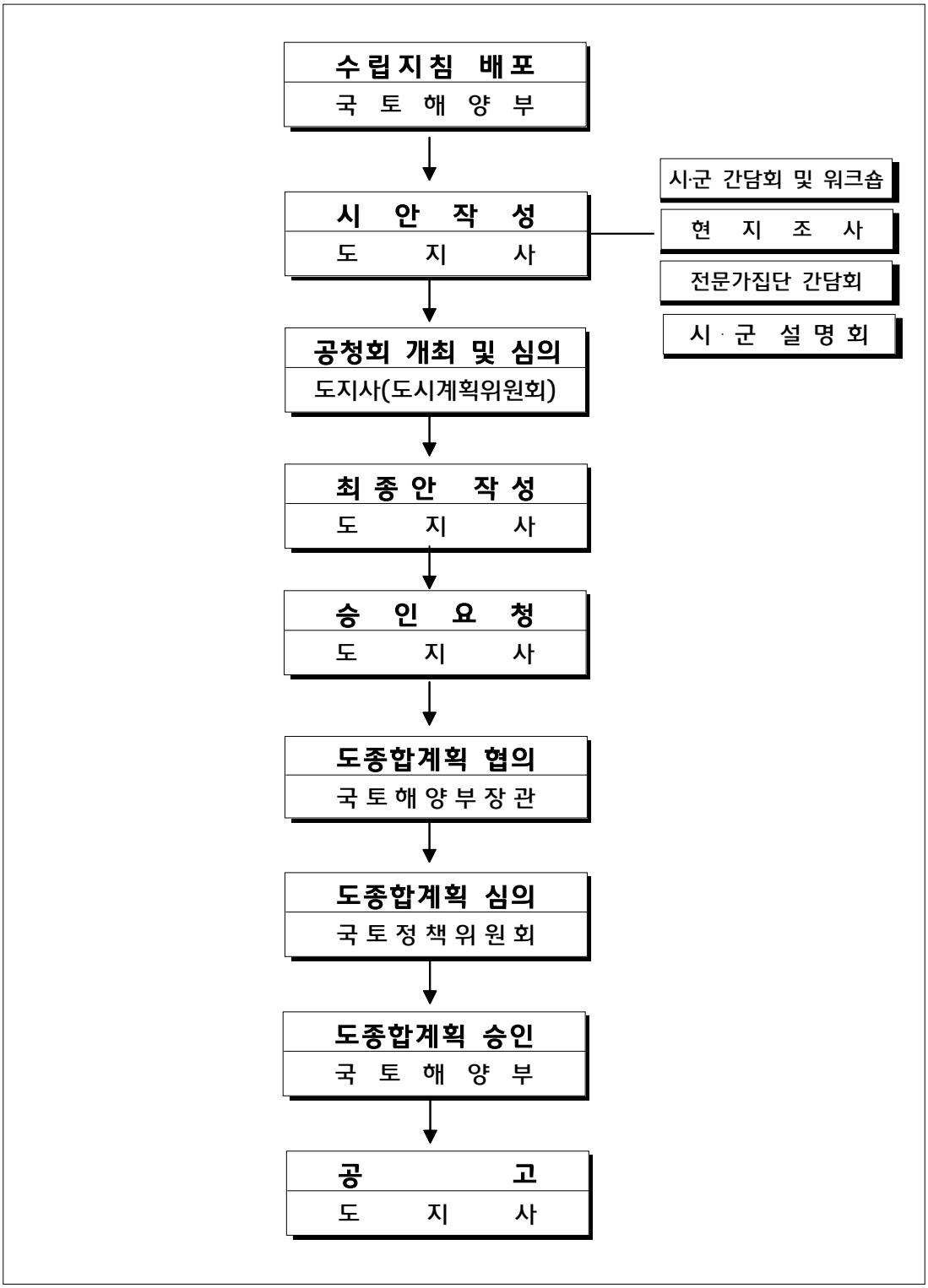
▷ 내용적 범위 : 현황 분석과 계획과제 도출, 계획의 목표와 전략, 계획의 기본구상, 부문별 추진계획, 집행과 관리, 시·군별 발전방향 등을 포함

나. 계획의 수립체계

계획의 접근방법



계획의 심의·확정절차


수립지침 배포
국토해양부
시안 작성
도지사
시·군 간담회 및 워크숍
현지조사
전문가집단 간담회
시·군 설명회
공청회 개최 및 심의
도지사(도시계획위원회)
최종안 작성
도지사
승인요청
도지사
도종합계획 협의
국토해양부장관
도종합계획 심의
국토정책위원회
도종합계획 승인
국토해양부
공고
도지사

2장

경북의 여건 및 전망

제1절 현황 및 특성

1. 입지여건

위치 및 면적

○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한반도의 등줄기 부분을 이루는 태백산맥이 해안에 급히 닿아 북에서 남으로 뻗고, 북서쪽에는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이 강원, 충북, 전북과의 도 경계를 따라 동북에서 서남으로 달리고 있음.

○ 경도 131°52′(극동: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동도))~127°48′(극서: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위도 35°34′(극남: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37°33′(극북: 울릉군 북면 천부리(관음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 경북의 위치
  - 최북단 : 울릉군 북면 천부리(관음도)
  - 최남단 : 청도군 청도읍 초현리
  - 최서단 : 상주시 화북면 운흥리
  - 최동단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동도)
- 경북의 길이
  - 동서간 452.8㎞, 남북간 348.5㎞
  - 해안선 427.89㎞
- 면적: 19,028㎢(남한 면적의 약 19%)
  - 관할 행정구역 : 10개 시, 13개 군
- 연강수량 : 700~1,600㎜

〈그림 1-2〉 경북의 입지

○ 포항에서 북동쪽으로 262㎞ 해상에 위치한 울릉군 소재 독도는 동경 131°52′22″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하며,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하면 경북의 형상은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공간적 중심은 의성군임.

○ 총면적은 2010년 현재 19,028㎢로서 남한 면적의 약 19%를 차지하여 타 도의 면적 대비 가장 넓음.

- 시·군별로는 안동시가 1,522㎢로서 가장 면적이 넓고, 울릉군이 73㎢로서 가장 좁음.

○ 국토의 '환동해축(부산~포항~동해~원산~청진~나진 · 선봉)'과 '군산~포항축'의 거점으로 영남권의 물류집단 거점 및 환동해권 물류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그 잠재성이 매우 큼.

지형 및 지세

○ 동쪽에는 한반도 백두대간의 줄기를 이루는 태백산맥이 해안을 따라 북에서 남으로 뻗어 있고, 북서쪽에는 태백산맥에서 갈라져 나온 소백산맥이 강원, 충북, 전북과의 도계를 따라 동북에서 서남으로 달리고 있음. 그 사이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13개 시·군을 거쳐 남해로 흘러가고 있음.

○ 대체로 산지가 많고, 대부분이 낙동강 상류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평균 고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높은 편임. 특히 북부와 서부의 높고 험준한 소백산맥이 낙동강 유역의 광활한 평야를 병풍처럼 둘러치고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달리 대륙세력의 침입을 막기에 용이하였음.

○ 경남과의 접경지대인 남쪽에는 고헌산(1,032m), 문복산(1,041m), 운문산(1,200m), 비슬산(1,084m) 등의 여러 지괴분지(地壞盆地)가 가로놓여 경북은 하나의 큰 분지를 이루고 있음.

○ 100m 이하의 낮은 지역은 전체의 약 15%로 남한에서는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지방 다음으로 좁고, 100~500m의 낮은 산 지역은 약 64%로 충청북도 지방과 같이 가장 넓은 편이며, 500~1,000m의 중간 높이를 가지는 산지는 19%, 1,000m 이상의 높은 산이 있는 지역은 2% 안팎을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지형적 특성은 교통상 장애로 작용하여 남북간 소통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축으로 중앙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중부내륙권고속도로가 개통 및 계획되면서 남북 간 교류 활성화와 충청·강원·경북의 3도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교류·협력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음.

○ 영·호남 지역 간의 교류는 소백산맥의 장벽에 의해서 오랫동안 폐쇄되어 있었으나, 1964년 경부고속도로와 1973년의 남해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남해안을 따라 동서 교통로가 열린데 이어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영호남 간의 오랜 장벽이 뚫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구~광주 간의 거리를 2시간 30분대로 좁힐 수 있게 되었음.

2. 자연환경

기후

○ 내륙지방에 위치한 대륙성 기후대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비교적 연교차와 일교차가 심한 편임. 최근 5년 간 기온은 14~15℃를 맴돌고 있음.(이하 대구기상대 기준)

○ '10년의 경우에는 연중 최고기온이 36.5℃, 최저기온이 -10.0℃로서 기온차가 36.5℃나 되는 등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한서의 차가 심하게 나타남.

〈표 1-2〉 기상 현황

구 분	기 온(℃)			상대습도 (%)	일조시간 (시)	풍속 (m/s)
	평 균	최 고	최 저			
2005년	14.2	36.2	-11.1	55.0	2,364.3	2.5
2006년	14.6	37.2	-10.1	58.1	2,092.7	2.4
2007년	15.0	36.4	-5.1	59.0	2,045.4	2.3
2008년	14.6	36.2	-8.5	57.0	2,180.7	2.2
2009년	14.8	35.3	-10.5	54.0	2,161.2	2.2
2010년	14.4	36.5	-10.0	53.8	2,081.1	2.1

주 : 대구기상대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풍향은 북서풍이 주풍향이며, 계절별로 겨울철에는 만주와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고, 여름철에는 남태평양 저기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음.

○ 최근 5년 간 평균풍속은 초속 2.3로서 비교적 순풍이지만 여름에 태풍이 발생하였을 때와 겨울에 강한 시베리아 고기압이 이동할 때는 최대 풍속 9.0~17.1m/sec의 강한 바람이 붐.

○ 내륙지방 특성상 덥고 비가 적게 오는 편이며, 최근 5년 간 연평균 강수량은 800~1,400mm로 연간격차가 큼.

○ 소백산맥의 도계를 따라 1,000~1,100mm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특히 포항, 경주, 의성, 청송, 영양, 울진 등은 연간 1,000mm이하의 강수량을 나타내는 소우지역임.

〈표 1-3〉 강수량 현황

시·군	강수량 (㎜)	시·군	강수량 (㎜)	시·군	강수량 (㎜)
포항시	927.4	문경시	1,227.5	고령군	1,016.2
경주시	946.4	경산시	1,204.5	성주군	1,369.6
김천시	1,230.5	군위군	1,010.5	칠곡군	1,310.0
안동시	1,012.8	의성군	738.0	예천군	761.1
구미시	1,153.5	청송군	875.5	봉화군	861.2
영주시	1,236.3	영양군	811.2	울진군	784.9
영천시	1,033.2	영덕군	903.8	울릉군	1,448.3
상주시	1,160.4	청도군	1,198.2	경북	1,053.1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해안

○ 해안선은 동해안을 따라 321.36㎞가 펼쳐져 있고, 도서부를 포함하면 해안선은 총연장 427.89㎞에 달함.

○ 도서는 유인도가 4개, 무인도가 45개이며, 울릉도 주변에 46개가 분포되어 있음.

〈표 1-4〉 해안선 및 도서 현황

구 분	해안선 (㎞)	도서현황					
		도서 수			면 적 (㎢)	세 대	인 구 (명)
		소계	유인도	무인도			
계	427.89	49	4	45	72.87	5,252	10,701
포항시	162.07	-	-	-	-	-	-
경주시	36.10	3	-	3	0.01	-	-
영덕군	64.09	-	-	-	-	-	-
울진군	101.20	-	-	-	-	-	-
울릉군	64.43	46	4	42	72.86	5,252	10,701

주 : 해안선인 경우 도서 포함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하천

○ 하천은 낙동강 수계를 따라 총 3,681개소 총연장 11,480㎞에 달하며, 이 가운데 국가하천은 430㎞, 지방하천은 4,203㎞에 달함.

○ 하천 가운데 개수가 필요한 하천 연장은 총 16,656㎞이고, 개수된 하천연장은 8,527㎞에 달함. 하천유형별 개수율은 국가하천이 100.0%에 육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습적인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지방하천은 75.6%의 개수율을 나타냄.

○ 근래 하천의 수질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효율적인 물관리 대책이 요구되고 있음.

〈표 1-5〉 하천 현황

구 분	총연장 (㎞)	요 개 수(㎞)			
		소계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11,480	16,445	8,747	7,698	53.2
국가하천	430	475	470	5	98.9
지방하천	4,199	4,754	3,653	1,101	76.8
기타	6,851	11,216	4,624	6,592	41.2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2

3. 인문환경

인구규모 및 변화추이

○ 경북의 인구는 ’95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00년 이후부터는 다시 감소 및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음. ’95년 2,672천명 수준에서 ’00년 2,716천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05년 2,595천으로 다소 감소하다 ’10년 2,575천명으로 약간 증가하였음.

○ ’10년 말 현재 경북의 인구는 2,575천명으로 전국인구 47,991천명 중 5.3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전국대비 경북인구 비중의 추이는 ’95년 6.00%에서 ’00년 5.91%, ’05년 5.52%, ’10년 5.37%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 간(’05~’10) 경북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25%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국의 연평균인구증가율은 0.50%로 경북과 전국의 격차는 계속 커지고 있음.

〈표 1-6〉 전국대비 인구규모 변화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95~’00	’00~’05	’05~’10
전 국	44,553,710	45,985,289	47,041,434	47,990,761	0.63	0.46	0.40
경 북	2,672,498	2,716,218	2,594,719	2,575,370	0.33	▽0.91	▽0.15
전국비중	6.00	5.91	5.52	5.37	-	-	-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인구총조사」

○ 시·군별 인구추이를 보면, 시부의 경우 포항과 구미의 인구 성장과 대구시 인근도시(경산, 영천) 및 상주(’86년), 문경(’95년: 구 점촌시는 ’86년), 경산(’89년)의 시 승격에 따른 인구 유입에 의해 ’90년 1,157천명에서 ’00년 2,130명으로 증가추세를 보였음. 그러나 ’05년 2,074천명으로 감소하였다가 ’10년 2,082명으로 다시 증가세를 보임.

○ 반면, 군부의 인구는 계속 감소세에 있음. 특히 면부는 ’95년 달성군의 대구시 편입과 도·농통합으로 인하여 10군이 시로 편입되어 그 감소세가 더욱 증대됨.

〈표 1-7〉 시·군별 인구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경 북	2,860,109	100.0	2,672,498	100.0	2,716,218	100.0	2,594,719	100.0	2,575,370	100.0
시 부	1,157,123	40.5	2,061,410	77.1	2,130,208	78.4	2,074,492	80.0	2,082,239	80.9
군 부	1,609,189	56.3	611,088	22.9	586,010	21.6	520,227	20.0	493,131	19.1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인구총조사」

○ 경북 북부권은 최근 10년 간('00~'10) 연평균증가율이 -3.25%로 경북(-0.37%)보다 8배 가량 높아 인구감소가 매우 심각함.

〈표 1-8〉 경북 북부권 인구추이

(단위 : 명,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00~'10)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경 북	2,672,498	100.0	2,716,218	100.0	2,594,719	100.0	2,575,370	100.0	▽0.37
북부권	957,915	33.4	884,706	30.6	785,472	28.1	688,160	26.7	▽3.25

주 : 외국인 제외. 북부권은 안동시, 영주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을 말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인구총조사」

도시인구

○ 경북의 도시화율은 '10년 현재 76.1%로 전국 평균 도시화율('10년 90.7%)에는 미치지 못해 아직은 낮은 편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경북의 도시화율은 '95년 65.9%, '00년 69.58%, '05년 73.5%, '10년 76.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도시화는 계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경북의 최근 10년 간 연평균증가율은 -0.53%인데 비해, 농촌인구의 연평균증가율은 -2.91%로 나타나 농촌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표 1-9〉 도시화율

(단위 : 명,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0~'10)
경 북	2,672,498	2,716,218	2,594,719	2,575,370	▽0.53
도시인구	1,761,720	1,888,851	1,906,061	1,959,452	0.37
동부	1,268,103	1,313,657	1,354,113	1,383,756	0.52
읍부	493,617	575,194	551,948	575,696	0.01
농촌 인구	910,778	827,367	688,658	615,918	▽2.91
도시화율	65.9	69.5	73.5	76.1	-

주 : 외국인 제외, 농촌인구는 면부 인구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인구총조사」

인구밀도

○ 인구밀도에 있어 '10년 전국이 485.6명/㎢이고, 경북은 136.6명/㎢로서 과소현상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전국의 인구밀도는 '95년 449.4명/㎢에서 '10년 485.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경북의 인구밀도는 '95년 140.7명/㎢에서 '10년 136.6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0〉 인구밀도

(단위 : 명/㎢)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 국	449.4	463.9	474.5	485.6
서울특별시	16,889.3	16,342.2	16,221.0	16,188.9
부산광역시	5,093.1	4,820.4	4,609.4	4,452.3
대구광역시	2,766.1	2,801.0	2,786.5	2,767.4
인천광역시	2,417.0	2,566.2	2,546.3	2,587.5
광주광역시	2,508.8	2,697.8	2,827.5	2,945.6
대전광역시	2,356.3	2,534.5	2,673.0	2,781.2
울산광역시	-	960.4	992.5	1,022.3
경기도	756.3	886.4	1,028.1	1,119.3
강원도	88.7	89.7	88.2	88.2
충청북도	187.9	197.3	196.5	203.4
충청남도	206.7	214.9	219.7	235.0
전라북도	236.0	234.9	221.5	220.3
전라남도	173.5	166.6	150.7	142.2
경상북도	140.7	143.2	137.1	136.6
경상남도	332.5	283.2	290.5	300.0
제주도	273.9	278.0	287.8	287.7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인구밀도(인구주택총조사기준)」

인구구조

○ 경북의 인구구조(2010년)는 15세 미만 인구가 15.0%로 전국의 16.2%에 비하여 다소 낮은 반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16.7%로 전국의 11.3%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표 1-11〉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단위 : 명,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계	44,553,710	2,672,498	45,985,289	2,716,218	47,041,434	2,594,719	47,990,761	2,575,370
15세 미만	10,235,504	570,322	9,638,756	530,273	8,986,128	459,153	7,786,973	385,192
	(23.0)	(21.3)	(21.0)	(19.5)	(19.1)	(17.7)	(16.2)	(15.0)
15~64세	31,677,592	1,844,959	32,972,859	1,871,633	33,690,088	1,761,146	34,779,121	1,759,695
	(71.1)	(69.0)	(71.7)	(68.9	(71.6)	(67.9)	(72.5)	(68.3)
65세 이상	2,640,205	257,188	3,371,806	314,068	4,365,218	374,420	5,424,667	430,483
	(5.9)	(9.6)	(7.3)	(11.6)	(9.3)	(14.4)	(11.3)	(1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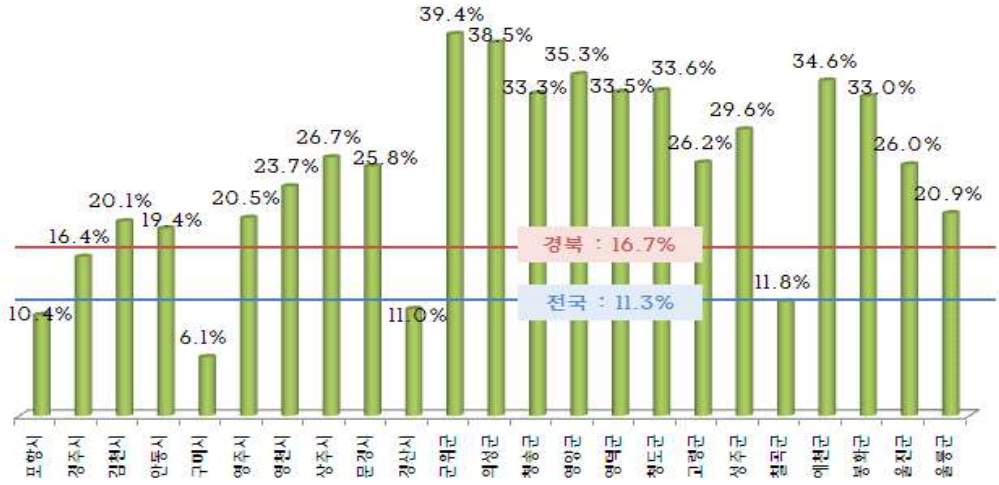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인구총조사」

○ 전국 및 경북 모두 15세 미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음.

○ 경북의 2010년 노령인구비율은 16.7%로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전국 평균 11.3%보다 훨씬 높아 노령화가 매우 심한 지역임을 알 수 있음.

○ 시·군별 노인인구비율을 살펴보면. 구미(6.1%)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7%를 상회하고 있고, 포항(10.4%), 경산(11.0%), 칠곡군(11.8%)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14%를 상회하고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시·군이 20%를 상회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 특히, 군위군(39.4%), 의성군(38.5%), 영양군(35.3%), 예천군(34.6%), 청도군(33.6%), 영덕군(33.5%), 청송군(33.3%),봉화군(33.0%)은 30%를 상회하고 있어 노령화가 매우 심각함.



주 : 외국인 제외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인구총조사」

〈그림 1-3〉 시 · 군별 노령인구비율

인구이동

○ 최근 5년 간 경북의 인구이동을 살펴보면, 총 이동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타 시·도로 유출되는 인구는 유입되는 인구보다 많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순이동은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동률도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표 1-12〉 인구이동

(단위 : 명, %)

구 분	총이동		시·도간		시·도내	순이동	이동률
	전입	전출	전입	전출			
2006년	391,486	394,805	152,921	156,240	238,565	-3,319	-0.12
2007년	380,925	395,536	142,120	156,731	238,805	-14,611	-0.54
2008년	363,297	377,397	133,964	148,064	229,333	-14,100	-0.52
2009년	367,244	375,551	139,228	147,535	228,016	-8,307	-0.31
2010년	354,575	358,127	136,933	140,485	217,642	-3.552	-0.1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4. 토지이용

지목별 토지이용 실태

○ 전체 면적 중에서 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은 805.8㎢로 4.2%를 차지하고 있고, 비도시적 토지이용면적은 16,950.8㎢로 89.1%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1,271.4㎢(6.7%)는 유원지, 사적지, 묘지, 구거 등의 기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음.

○ 도시적 토지이용은 도로용지(371.8㎢), 대지(293.4㎢), 공장용지(84.5㎢), 학교용지(30.8㎢), 공원·체육용지(25.3㎢) 순으로 많음.

○ 비도시적 토지이용은 임야(13,683.7㎢), 답(1,805.5㎢), 전(1,262.8㎢), 과수원(146.1㎢), 목장용지(52.8㎢)의 순으로 많음. 특히, 임야는 전체 면적의 71.9%를 차지하고 있음.

○ 도시적 토지이용비중은 경산시(11.0%)가 가장 높고, 영양군(1.5%)이 가장 낮음. 군부 중에서는 칠곡군(6.6%)의 도시적 토지이용비중이 가장 높음.

○ 비도시적 토지이용비중은 영양군(95.3%)이 가장 높고, 구미시(78.6%)가 가장 낮음. 시부 중에서는 문경시(92.0%)의 비도시적 토지이용비중이 가장 높음.

용도별 토지이용 실태

○ 경북 도시지역은 1,727.2㎢로 전체 면적의 9.0%, 비도시지역은 17,278.3㎢로 91.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3〉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 분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미지정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면적	1,727.7	4,597.6	11,517.9	1,162.8	122.9
비중	9.0	24.0	60.2	6.1	0.6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표 1-14〉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구 분	총면적	도시적 토지이용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도로용지	공원체육용지
경 북	19,028.0	805.8	293.4	84.5	30.8	371.8	25.3
포항시	1,128.8	81.9	31.5	20.1	2.8	26.0	1.5
경주시	1,324.4	80.6	28.1	10.7	3.0	32.2	6.6
김천시	1,009.2	42.7	16.3	3.3	1.6	21.0	0.5
안동시	1,521.6	52.4	19.5	1.7	2.5	25.7	3.0
구미시	615.5	59.4	20.5	13.9	2.6	19.6	2.8
영주시	669.0	32.3	12.3	1.9	1.2	16.6	0.4
영천시	920.6	41.9	14.9	4.9	1.2	20.3	0.7
상주시	1,254.9	53.5	20.7	2.0	1.9	26.9	2.0
문경시	911.6	33.7	13.3	1.4	1.0	17.1	0.9
경산시	411.7	45.3	15.3	7.9	5.4	14.9	1.8
군위군	614.2	17.5	6.4	0.7	0.4	9.9	0.1
의성군	1,175.8	35.2	13.5	1.2	1.3	19.1	0.1
청송군	844.9	15.3	6.5	0.1	0.6	8.1	0.1
영양군	815.1	12.5	4.1	0.1	0.4	7.8	0.1
영덕군	741.1	17.7	7.2	0.5	0.6	9.2	0.2
청도군	693.9	24.4	9.9	0.7	0.5	13.1	0.2
고령군	384.1	18.7	6.0	2.6	0.4	9.2	0.5
성주군	616.1	26.4	9.2	2.8	0.5	13.8	0.0
칠곡군	450.9	29.6	9.6	5.0	0.8	11.4	2.7
예천군	660.9	34.3	12.3	0.5	0.7	19.9	0.9
봉화군	1,201.4	26.2	8.0	0.5	0.6	17.1	0.1
울진군	989.2	21.9	7.3	1.8	0.7	11.8	0.3
울릉군	72.9	2.3	0.9	0.0	0.1	1.2	0.0

구 분		비도시적토지이용					기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경 북	16,950.8	1,262.8	1,805.5	146.1	52.8	13,683.7	1,271.4
포항시	974.5	62.7	110.1	5.4	1.8	794.5	72.4
경주시	1,147.9	72.4	165.6	4.0	9.1	896.9	95.9
김천시	903.3	68.2	119.3	12.8	3.6	699.4	63.3
안동시	1,309.4	125.5	95.4	13.7	3.6	1,071.2	159.8
구미시	483.7	38.6	94.1	3.7	1.7	345.6	72.4
영주시	597.7	68.5	74.7	10.3	2.3	441.8	39.0
영천시	810.3	56.3	97.7	18.1	2.6	635.6	68.4
상주시	1,115.1	85.7	182.7	7.8	5.2	833.6	86.3
문경시	838.7	56.9	68.3	5.3	2.3	705.8	39.2
경산시	330.3	30.4	58.0	6.8	1.8	233.3	36.2
군위군	556.4	35.7	44.3	10.5	1.6	464.2	40.4
의성군	1,061.5	78.5	135.3	10.9	2.3	834.5	79.2
청송군	790.8	57.1	31.2	9.8	1.8	690.9	38.8
영양군	777.1	54.7	21.3	0.9	0.9	699.3	25.6
영덕군	686.2	33.5	45.8	3.1	0.7	603.2	37.2
청도군	623.4	38.2	67.2	6.9	1.2	510.0	46.1
고령군	320.0	19.8	52.4	0.5	1.4	245.9	45.4
성주군	546.4	38.4	89.2	2.3	1.6	415.0	43.3
칠곡군	379.6	25.2	50.4	2.9	0.9	300.2	41.7
예천군	564.0	81.0	111.3	2.6	3.2	365.9	62.7
봉화군	1,136.5	87.7	46.0	7.6	2.4	992.7	38.7
울진군	930.0	35.6	44.6	0.1	0.9	848.8	37.3
울릉군	68.2	12.3	0.5	0.0	0.0	55.4	2.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면적은 총 1,727.7㎢로서 경북 전체 면적(19,028㎢)의 9.1%를 차지하고 있음.

○ 용도지역별로 보면 녹지지역이 1,374.0㎢(79.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주거지역이 160.5㎢(9.3%), 공업지역이 128.6㎢(7.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주거지역 가운데 전용주거지역은 0.2㎢뿐이고, 대부분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상업지역은 주로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이 1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도 각각 75.1%, 11.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5〉 도시지역내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 분	합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경 북	1,727.7	100.0	160.5	100.0	25.4	100.0	128.6	100.0	1,374.0	100.0
시 부	1,372.3	79.4	120.5	75.1	20.6	81.3	114.8	89.3	1,077.1	78.4
포항시	291.6	16.9	103.3	64.4	5.0	19.6	36.6	28.5	212.8	15.5
경주시	456.9	26.4	3.8	2.3	2.9	11.4	20.9	16.3	411.3	29.9
김천시	61.5	3.6	2.3	1.4	1.6	6.4	3.9	3.1	42.2	3.1
안동시	72.8	4.2	1.5	0.9	1.5	6.0	1.9	1.5	57.4	4.2
구미시	185.7	10.7	3.5	2.2	3.5	13.7	29.5	23.0	126.8	9.2
영주시	50.1	2.9	1.3	0.8	1.3	5.2	3.0	2.4	37.5	2.7
영천시	56.9	3.3	0.9	0.6	0.9	3.5	7.7	6.0	39.6	2.9
상주시	50.3	2.9	1.1	0.7	1.1	4.5	2.5	1.9	37.9	2.8
문경시	37.9	2.2	1.2	0.8	1.2	4.8	2.9	2.3	27.0	2.0
경산시	108.7	6.3	1.6	1.0	1.6	6.2	5.8	4.5	84.7	6.2
군 부	355.4	20.6	40.0	24.9	4.7	18.7	13.7	10.7	296.9	21.6
군위군	7.4	0.4	1.0	0.6	0.1	0.5	0.2	0.2	6.1	0.4
의성군	32.6	1.9	3.9	2.4	0.5	2.0	1.0	0.8	27.2	2.0
청송군	6.2	0.4	1.6	1.0	0.3	1.2	0.0	0.0	4.3	0.3
영양군	11.5	0.7	1.3	0.8	0.3	1.1	0.1	0.1	9.8	0.7
영덕군	15.0	0.9	3.2	2.0	0.7	2.6	0.3	0.3	10.7	0.8
청도군	21.2	1.2	2.2	1.4	0.3	1.2	0.2	0.2	18.4	1.3
고령군	30.5	1.8	2.9	1.8	0.1	0.6	1.8	1.4	25.7	1.9
성주군	9.6	0.6	1.9	1.2	0.2	0.7	1.0	0.8	6.6	0.5
칠곡군	148.1	8.6	10.8	6.7	0.6	2.5	5.8	4.5	130.9	9.5
예천군	12.4	0.7	3.2	2.0	0.4	1.7	0.3	0.3	8.5	0.6
봉화군	9.3	0.5	1.7	1.1	0.2	0.8	0.1	0.1	7.3	0.5
울진군	44.1	2.6	5.9	3.7	0.9	3.4	2.8	2.2	34.5	2.5
울릉군	7.6	0.4	0.5	0.3	0.1	0.3	0.1	0.1	6.9	0.5

주 : 미지정은 제외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0

○ 비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면적은 총 17,278.3㎢로서 경북 전체 면적(19,028㎢)의 90.8%를 차지하고 있음.

○ 용도지역별로 보면 농림지역이 11,517.9㎢(66.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계획관리지역 2,197.2㎢(12.7%), 보전관리지역 1,780.5㎢(10.3%), 자연환경보전지역 1,162.8㎢(6.7%), 생산관리지역 619.9㎢(3.6%)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1-16〉 비도시지역내 용도별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

구 분	합 계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경북	17,278.3	100.0	2,197.2	100.0	619.9	100.0	1,780.5	100.0	11,517.9	100.0	1,162.8	100.0
시 부	8,390.4	48.6	1,155.6	52.6	366.2	59.1	879.9	49.4	5,260.8	45.7	728.0	62.6
포항시	836.3	4.8	93.6	4.3	44.8	7.2	81.3	4.6	589.5	5.1	27.0	2.3
경주시	866.8	5.0	97.3	4.4	33.3	5.4	91.9	5.2	608.3	5.3	36.0	3.1
김천시	946.9	5.5	152.9	7.0	56.6	9.1	102.5	5.8	633.8	5.5	1.1	0.1
안동시	1,448.1	8.4	197.3	9.0	96.3	15.5	109.0	6.1	803.4	7.0	242.1	20.8
구미시	430.6	2.5	63.8	2.9	8.8	1.4	62.8	3.5	265.2	2.3	30.1	2.6
영주시	618.8	3.6	104.2	4.7	23.8	3.8	125.5	7.0	194.3	1.7	171.0	14.7
영천시	861.3	5.0	123.8	5.6	4.3	0.7	74.6	4.2	593.1	5.1	65.6	5.6
상주시	1,204.4	7.0	155.7	7.1	54.3	8.8	125.2	7.0	813.0	7.1	56.2	4.8
문경시	874.1	5.1	116.4	5.3	32.2	5.2	72.4	4.1	564.2	4.9	88.9	7.6
경산시	303.1	1.8	50.6	2.3	11.9	1.9	34.7	1.9	196.0	1.7	10.0	0.9
군 부	8,887.9	51.4	1,041.6	47.4	253.8	40.9	900.6	50.6	6,257.1	54.3	434.9	37.4
군위군	606.7	3.5	83.2	3.8	8.7	1.4	62.4	3.5	429.2	3.7	23.3	2.0
의성군	1,143.2	6.6	144.6	6.6	52.7	8.5	117.6	6.6	824.2	7.2	4.1	0.4
청송군	840.9	4.9	91.0	4.1	16.7	2.7	85.4	4.8	573.3	5.0	74.5	6.4
영양군	803.6	4.7	47.9	2.2	7.8	1.3	71.3	4.0	676.2	5.9	0.5	0.0
영덕군	726.2	4.2	65.3	3.0	17.3	2.8	53.5	3.0	521.7	4.5	68.4	5.9
청도군	675.4	3.9	79.7	3.6	16.1	2.6	75.5	4.2	450.3	3.9	53.7	4.6
고령군	353.5	2.0	40.7	1.9	2.2	0.4	51.1	2.9	258.3	2.2	1.2	0.1
성주군	606.5	3.5	108.4	4.9	30.8	5.0	67.3	3.8	367.3	3.2	32.7	2.8
칠곡군	295.4	1.7	54.4	2.5	7.1	1.1	42.7	2.4	152.9	1.3	38.4	3.3
예천군	642.6	3.7	132.8	6.0	46.2	7.4	127.6	7.2	335.4	2.9	0.6	0.1
봉화군	1,191.7	6.9	114.8	5.2	40.7	6.6	71.6	4.0	894.2	7.8	70.4	6.1
울진군	937.1	5.4	71.6	3.3	7.5	1.2	67.4	3.8	747.3	6.5	43.3	3.7
울릉군	65.0	0.4	7.2	0.3	-	0.0	7.1	0.4	26.9	0.2	23.8	2.0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0

5. 지역경제

지역내총생산(GRDP)

○ 경북의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현재 '05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68조 8천9백억원,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액은 25,610천원에 이르고 있으며, 전국대비 비중은 총생산액인 경우 6.5%, 1인당 총생산액은 1.22배를 차지하고 있음.

○ '05년 경북의 지역내총생산은 '00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대하였으나, 이를 전국비중과 비교해 볼 때, '95년에 6.0%, '00년에 6.6%, '05년에는 7.1%로 조금씩 증가하다가 '10년에는 6.5%로 감소하였음.

○ 경북의 2010년 수출규모는 44,937백만불로, 전국 총수출의 9.6%를 차지하며, '00년 이후 수출규모의 연평균증가율은 11.1%로 나타나 전국(10.5%)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7〉 지역내총생산 추이

(단위 : 10억원, 천원, 백만불,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00~'10)
전국	지역내 총생산	573,504	691,468	869,305	1,064,815	4.4
	1인당 GDP	12,506	14,486	17,820	21,079	3.8
	수 출 규 모	125,058	172,268	284,419	466,383	10.5
경북	지역내 총생산	34,127	45,333	61,757	68,890	4.3
	1인당 GRDP	12,319	16,207	22,971	25,610	4.7
	수 출 규 모	8,156	15,653	38,709	44,937	11.1
경북/전국	지역내 총생산	6.0	6.6	7.1	6.5	-
	1인당 GRDP	98.5	111.9	128.9	121.5	-
	수 출 규 모	6.5	9.1	13.6	9.6	-

주 : 지역내총생산은 시장가격, 2005년 기준년가격임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 및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업종별 생산액 추이

○ 경북의 제조업 생산액은 2009년 현재 133조 5,420억원으로 전국의 11.9%를 차지하고 있음. 경북의 제조업 생산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8.8%에서 2000년 10.6%, 2005년 11.9%로 계속 증가하였으나, 최근 보합세를 보이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전기·전자(48.4%)와 철강(22.8%)이 70%를 상회하고 있으며, 목재·종이(0.7%)의 비중이 가장 낮음.

○ 경북의 제조업 생산액은 최근 9년간('00~'09년) 연평균증가율 9.3%를 보이고 있어 전국 연평균증가율 7.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나타냄.

○ 업종별로는 섬유·의복(-5.8%)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양의 증가율을 보임. 특히, 운송·장비(16.8%)의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고, 이어 전기·전자(13.7%), 철강(10.1%), 기계(9.9%) 등의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1-18〉 업종별 제조업 생산액 추이

(단위: 10억,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0~'09)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생산액	구성비	
전국	364,821	100	564,834	100	851,789	100	1,121,973	100	7.9
경북	32,266	8.8*	59,827	10.6*	101,744	11.9*	133,542	11.9*	9.3
음식료	1,441	4.5	1,752	2.9	2,702	2.7	3,358	2.5	7.5
섬유 · 의복	3,485	10.8	5,564	9.3	3,711	3.6	3,241	2.4	▽5.8
목재 · 종이	491	1.5	601	1	866	0.9	912	0.7	4.7
석유 · 화학	2,688	8.3	3,586	6	5,022	4.9	5,963	4.5	5.8
비금속소재	1,807	5.6	2,895	4.8	3,446	3.4	4,646	3.5	5.4
철강	7,741	24	12,817	21.4	24,025	23.6	30,401	22.8	10.1
기계	891	2.8	1,284	2.1	3,170	3.1	3,007	2.3	9.9
전기 · 전자	7,614	23.6	20,399	34.1	46,200	45.4	64,681	48.4	13.7
운송 · 장비	24	0.1	98	0.2	4,113	4	395	0.3	16.8
기타제조업	6,083	18.9	10,831	18.1	7,846	7.7	16,938	12.7	5.1

주: *는 경북생산액의 전국 비중이며, 2009년 자료는 10인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함
자료: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산업단지 조성 현황

○ ’11년 현재 경북에는 국가산업단지 6개, 일반산업단지 51개, 농공단지 62개가 조성되어, 전국(915개)의 13.0%를 차지함.

○ 이들 산업단지의 지정면적은 국가산업단지 84,291천㎡, 일반산업단지 39,288천㎡, 농공단지 10,273천㎡이며, 전국(1,341,259천㎡)의 10.0%를 차지하고 있음.

○ 그리고 분양률은 국가산업단지 98.6%, 일반산업단지 85.1%, 농공단지 98.9%이며, 농공단지를 제외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의 분양률은 전국에 비해 낮은 편임.

○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구미 3개소, 포항 2개소, 경주 1개소가 있으며, 포항국가산업단지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약 8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일반산업단지는 포항, 경주, 고령, 칠곡, 영주, 영천, 김천, 경산 등 여러 시·군에 지정되어 있고, 포항의 포항철강일반산업단지, 영일만일반산업단지 및 포항테크노파크가 약 40% 가까운 면적을 차지함.

○ 농공단지 또한 일반산업단지와 같이 여러 시·군에 지정되어 있으며, 시·군 중 영주, 상주 및 김천의 농공단지가 약 1/3에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표 1-19〉 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

구 분		단지수	지정면적	분 양 현 황			분양률[1]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국가	전국	40	802,650	251,394	249,813	1,581	99.4
	경북	6 [2]	84,291	30,160	29,749	411	98.6
일반	전국	447	470,418	146,185	135,817	10,368	92.9
	경북	51	39,288	14,223	12,107	2,116	85.1
도시첨단	전국	6	745	151	81	70	53.6
	경북	-	-	-	-	-	-
농공	전국	422	67,446	46,062	44,606	1,456	96.8
	경북	62	10,273	7,134	7,057	77	98.9

주 : 1) 분양대상용지 중 분양된 면적의 비율
2) 월성전원, 구미국가(1단지), 구미국가(2-4단지, 확장단지), 구미하이테크밸리, 포항국가, 포항블루벨리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1.1분기

6. 사회간접시설

도로

○ 2010년 현재 경북의 도로 포장율은 73.2%로 전국 평균(79.8%)에 못 미치고 있음.

○ 경북은 16개 시도 중 강원도(72.0%), 전남(72.5%), 전북(72.7%)에 이어 4번째로 도로 포장율이 낮음.

〈표 1-20〉 도로 현황

(단위 : ㎞, %)

구 분	합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전 국	105,565	79.8	3,859	100.0	13,812	97.6	18,878	99.4	18,180	82.4	27,005	68.5	23,830	56.0
서 울	8,145	100.0	25	100.0	172	100.0	7,934	100.0	14	-	-	-	-	-
부 산	3,020	96.9	52	100.0	100	100.0	2,709	97.8	30	100.0	-	-	130	75.6
대 구	2,436	98.9	97	100.0	108	100.0	2,073	100.0	15	100.0	-	-	143	82.0
인 천	2,476	91.1	100	100.0	77	97.7	1,767	99.1	63	55.0	-	-	470	62.9
광 주	1,621	99.0	26	100.0	87	100.0	1,508	98.9	0	0.0	-	-	-	-
대 전	1,899	99.7	76	100.0	84	100.0	1,703	100.0	36	82.2	-	-	-	-
울 산	1,720	96.8	63	100.0	175	91.9	1,185	98.2	17	100.0	-	-	280	93.1
경 기	13,390	84.8	611	100.0	1,584	97.8	-	-	2,750	81.4	7,368	84.1	1,077	70.5
강 원	9,742	72.0	339	100.0	1,948	98.0	-	-	1,621	87.6	2,765	56.4	3,069	58.2
충 북	6,699	73.3	315	100.0	954	100.0	-	-	1,464	94.4	1,538	74.0	2,428	68.3
충 남	7,844	74.9	449	100.0	1,323	95.1	-	-	1,801	80.8	1,838	58.7	2,433	72.4
전 북	7,970	72.7	413	100.0	1,421	97.4	-	-	1,903	79.7	1,993	66.8	2,240	51.3
전 남	10,267	72.5	271	100.0	2,012	95.1	-	-	2,293	73.1	2,309	55.2	3,382	68.3
경 북	**12,404**	**73.2**	**535**	**100.0**	**2,223**	**99.6**	**-**	**-**	**3,009**	**82.8**	**2,782**	**53.9**	**3,854**	**60.8**
경 남	12,726	68.7	488	100.0	1,546	97.5	-	-	2,411	81.4	4,846	60.7	3,435	53.6
제 주	3,206	83.9	-	100.0	-	-	-	-	753	92.5	1,565	93.3	888	60.0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도로현황」

고속도로

○ 경북을 통과하는 고속도로는 8개 노선이 있음.

○ 남북방향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와 민자고속도로인 대구부산고속도로가 있음.

○ 동서방향으로는 당진상주고속도로, 새만금포항고속도로, 무안광주·88올림픽고속도로, 대구-포항간 고속도로가 있음.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고속도로 노선안내)

〈그림 1-4〉 경북의 고속도로망

○ 그러나 동해안과 내륙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이 취약한 편임.

〈표 1-21〉 고속도로망 체계

고속도로	기·종점	연장
경부고속도로	부산 금정구 ~ 서울 서초구	416.05㎞
중부내륙고속도로	경남 마산 내서읍 ~ 강원 철원	340.1㎞
중앙고속도로	경남 김해 ~ 강원 철원	432.8㎞
당진상주고속도로	충남 당진 당진읍 ~ 경북 상주	171.0㎞
새만금포항고속도로	전북 새만금 ~ 경북 포항 연일읍	242.7㎞
무안광주 · 88올림픽고속도로	전남 무안 망운면 ~ 대구 달성 옥포면	223.2㎞
대구부산고속도로	경남 김해 대동면 ~ 대구 동구 용계동	81.1㎞

자료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고속도로 노선안내」

철도

○ 경북을 통과하는 주요 철도노선은 7개 노선이 있음.

○ 남북방향으로는 경부고속선, 경부선, 경북선, 문경선, 동해남부선, 중앙선, 영동선이 있고, 동서방향으로는 대구선, 괴동선의 노선이 있음.

○ 그 외 영천삼각선과 북영주삼각선이 있음.

〈표 1-22〉 철도 현황

(단위 : 개, 천명, km)

노 선	구 간	역수	영업		철도
			여객	화물	
경부고속선	서울 ~ 부산	2	223.6	-	223.6
경부선	서울 ~ 부산	88	441.7	439.9	441.7
경북선	김천 ~ 영주	10	115.2	115.2	115.2
문경선	점촌 ~ 문경	3	22.3	22.3	22.3
대구선	가천 ~ 영천	5	29.0	29.0	29.0
동해남부선	부산진 ~ 포항	31	145.8	145.8	145.8
괴동선	효자 ~ 괴동	1	5.6	5.6	5.6
중앙선	청량리 ~ 경주	79	381.6	381.6	381.6
영천삼각선	북영천(대구선) ~ 북영천(중앙선)	-	1.8	1.8	1.8
영동선	영주 ~ 강릉	33	193.6	193.6	193.6
북영주삼각선	북영주(중앙선) ~ 북영주(영동선)	-	-	0.7	0.7

주 : 노선 연장이 짧거나 노선간 역이 없는 단순 연결 노선도 포함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 통계연보」, 2010

항공

○ 포항공항은 경북 유일의 공항시설로서 1970년 3월 대한항공이 포항~서울노선을 개설하였고, 2011년 현재 대한항공이 포항~김포 노선을, 아시아나항공이 포항~김포와 포항~제주 노선을 운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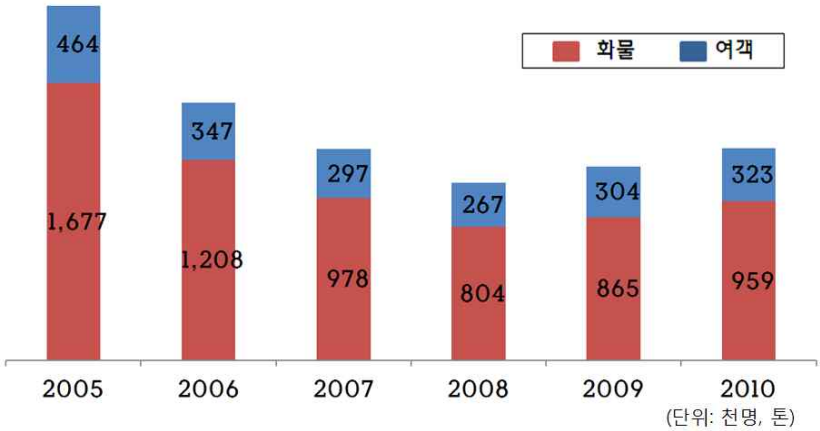
○ 포항공항의 항공수송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여객의 비중은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화물의 비중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울진비행장은 연간 200여명의 사업용 조종사를 양성하는 민간 비행교육훈련원으로 사용되고 있음.

〈표 1-23〉 공항시설 현황

구 분		포항공항
시설현황	부지(㎡)	4,035,563
	활주로(m)	2,133×45
	계류장(㎡)	32,617
	여객터미널(㎡)	11,707
	주차장(㎡)	18,661
	화물터미널(㎡)	-
처리능력	운항횟수(회/년)	100,000
	동시주기(대)	5
	여객(만명)	385
	동시주차(대)	550
	화물(만톤)	-
	운항항공기	B-737
	최저착륙시정	2,000m
운항현황 (2009)	운항실적(편)	3,746
	여객(명/년)	304,372
	화물(톤/년)	865

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정보마당, 「전국 공항별 시설능력 및 운영현황」, 2009.12.31.기준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0

〈그림 1-5〉 국내항공수송(포항공항)

항만

○ 경북에는 무역항인 포항항 1개소와 연안항인 구룡포항, 후포항, 울릉항의 3개소가 있음. 특히, 포항항은 제3차 전국 항만기본계획(2011~2020)에 의하면 제철산업 지원으로 특성화함으로써 수출입 물류비를 최소화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 연안항은 주로 어선이 이용하며, 주요 화물은 수산물이 대부분임. 특히 후포항은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의 기점으로 이용되고 있음.

〈표 1-24〉 항만시설 현황

구 분		안 벽 (m)	방파제 (m)	물양장 (m)	접안능력 (척)	일반창고		야적장	
						면적(㎡)	수용능력(톤)	면적(㎡)	수용능력(톤)
무역항	포항항	11,062	12,052	2,981	53	26,109	60,614	971,735	2,742,000
연안항	구룡포	1,476	1,090	727	13	-	-	55,869	117,000
	후포	260	1,919	1,087	2	-	-	53,504	112,000
	울릉	280	1,348	571	2	-	-	12,502	25,129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 통계연보」, 2010

상·하수도

○ 경북의 상수도 보급률은 2005년 77.7%에서 2010년 현재 84.9%로 조금 증가하였으나, 전국(94.1%)에 비해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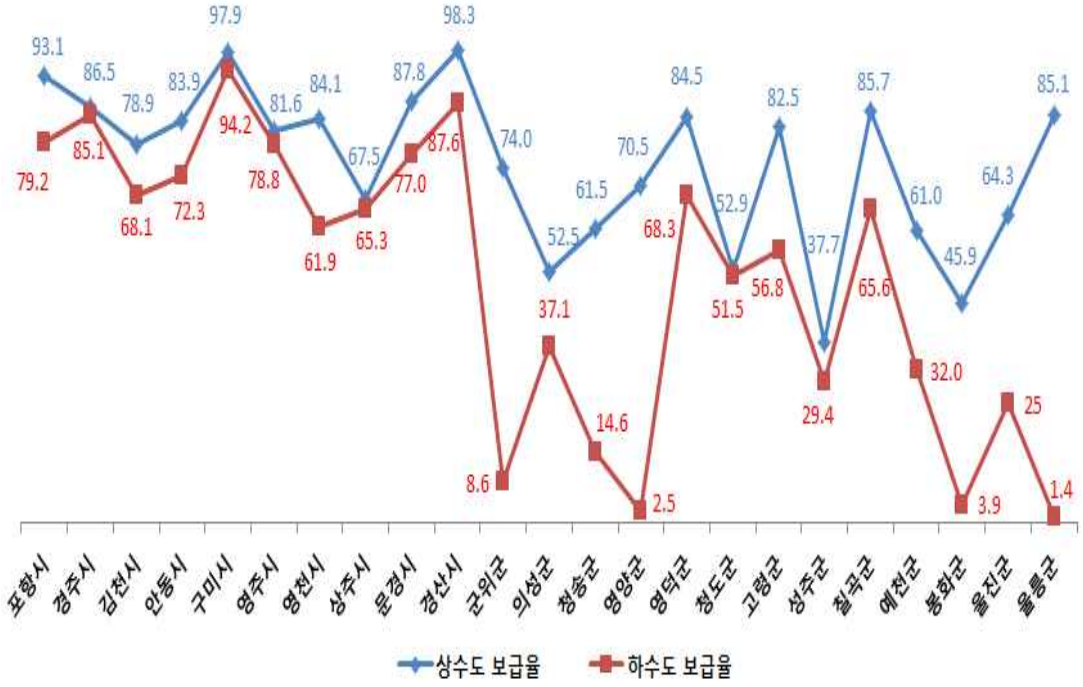
○ 한편, 하수도 보급률은 2005년 60.7%에서 2010년 72.3%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9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환경부, 「2011상수도통계」 ; 환경부, 「2011하수도통계」

〈그림 1-6〉 상 · 하수도 보급률 추이

○ 경북의 시·군별 상수도 보급률을 살펴보면, 구미시(98.1%)와 경산시(97.7%)만 전국(94.6%)보다 높고, 그 외 21개 시·군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성주군(41.1%), 의성군(55.2%), 봉화군(46.7%), 청도군(56.1%)은 50%에 머물고 있는 실정임.

○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에 있어서는 경북의 23개 시·군 중 유일하게 구미시(94.2%)만이 전국(9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울릉군(1.4%), 영양군(2.5%), 봉화군(3.9%)과 군위군(8.6%)은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그림 1-7〉 시 · 군별 상 · 하수도 보급률

7. 문화·관광자원

문화재

○ 경북도의 문화재는 총 1,871개이며 이 중에서 국보는 55점, 보물 302점, 사적 및 명승 115점, 천연기념물 63개, 중요민속자료 73개, 중요무형문화재는 12개이며, 지방지정문화재는 664개, 문화재자료는 561개, 등록문화재는 26개가 있음.

○ 시·군별로는 경주시가 315개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어 안동시가 294개를 보유하고 있음.

○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으로는 경주 석굴암과 불국사(1995년 12월), 경주역사유적지구(2000년 12월, 5개 지구 52점), 한국의 역사마을 : 하회와 양동(2010년 7월)이 있음. 그리고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2010년 기준 6만여장 보관)의 추가등록을 추진 중에 있음.

〈표 1-25〉 문화재 현황

(단위 : 개)

구 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및 명승	천연 기념물	중요민속 자료	중요무형 문화재			
경 북	1,871	620	55	302	115	63	73	12	664	561	26
포항시	62	15	1	6	2	3	1	2	22	23	2
경주시	315	214	32	83	78	3	16	2	56	43	2
김천시	53	17	1	15	-	1	-	-	17	18	1
안동시	294	81	5	39	3	7	25	2	136	76	1
구미시	78	14	1	7	3	2	1	-	33	31	-
영주시	126	40	7	23	5	3	2	-	43	43	-
영천시	81	24	1	18	-	1	4	-	41	13	3
상주시	88	20	-	17	1	2	-	-	42	24	2
문경시	72	20	1	10	3	2	2	2	28	21	3
경산시	32	13	-	6	3	2	1	1	10	9	-
군위군	31	5	1	3	1	-	-	-	11	14	1
의성군	50	9	1	5	-	2	1	-	23	18	-
청송군	42	9	-	1	1	4	3	-	14	19	-
영양군	55	8	1	2	-	4	1	-	17	29	1
영덕군	72	5	-	2	-	1	2	-	24	42	1
청도군	73	26	-	18	-	6	2	-	29	16	2
고령군	27	9	-	3	5	-	1	-	10	8	-
성주군	67	10	-	5	2	1	1	1	33	24	-
칠곡군	23	8	-	6	1	1	-	-	7	6	2
예천군	83	31	-	20	3	3	3	2	26	26	-
봉화군	94	19	1	9	3	1	5	-	30	43	2
울진군	35	13	2	4	1	6	-	-	10	10	2
울릉군	18	10	-	-	-	8	2	-	2	5	1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관광시설

○ 2010년 현재 관광사업체수는 총 681개로, 2006년의 515개에 비해 32.2% 증가하였음. 관광사업체 중 여행업이 약 75.6%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관광편의시설업(10.7%), 관광숙박업(9.4%)의 순으로 많음.

○ 여행업은 국내 276개, 국외 225개, 일반 14개로, 국내 여행업의 비

중이 높으며, 시·군별로는 포항, 경주, 구미의 여행업 비중이 높음.

○ 관광숙박업은 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으로 구분되며, 호텔업이 50개, 휴양콘도미니엄업이 14개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호텔업의 경우 대부분이 관광호텔업으로, 한국전통호텔업이 1개임. 경주와 구미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경주시(10개), 울진군(2개), 상주시/문경시(각각 1개)에 소재하고 있음.

○ 관광객이용시설업은 총 15개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0개, 전문휴양업은 3개, 종합휴양업과 자동차야영장업이 각각 1개임. 특히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은 모두 경주에 소재하고 있음.

○ 국제회의업은 경산에 1개가 있고, 카지노업은 경주에 1개가 있음.

○ 유원시설업은 총 13개로, 일반유원시설업 6개, 기타유원시설업 4개, 종합유원시설업 3개임. 특히 일반유원시설업은 주로 경주시(3개)에 소재하고 있음.

○ 관광편의시설업은 총 73개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15개, 관광식당업 24개, 관광펜션업 28개, 관광유흥음식점업 5개, 시내순환관광업 1개임.

○ 특히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주로 칠곡군(3개)에 소재하며, 관광식당업은 주로 구미시(9개)에, 그리고 관광펜션업은 포항시(19개)에 소재하고 있음.

〈표 1-26〉 관광사업체 현황

(단위 : 개)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여행업	372	385	386	444	451	515
관광숙박업	66	60	61	61	59	64
관광객이용시설업	11	11	12	11	12	15
국제회의업	-	-	-	-	-	1
카지노업	1	1	1	1	1	-
유원시설업	11	12	11	14	14	13
관광편의시설업	45	46	47	43	43	73
합계	506	515	518	574	580	681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문화기반시설

○ 2010년 현재 경북의 문화기반시설은 전국의 8.4%수준으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문화욕구수준 상승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 따라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 과제로 대두됨.

〈표 1-27〉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전국	1,979	100.0	759	100.0	655	100.0	145	100.0	195	100.0	228	100.0
서울	278	14.0	101	13.3	105	16.0	32	22.1	15	7.7	25	11.0
부산	66	3.3	30	4.0	12	1.8	4	2.8	7	3.6	13	5.7
대구	53	2.7	26	3.4	9	1.4	2	1.4	8	4.1	8	3.5
인천	66	3.3	26	3.4	22	3.4	5	3.4	5	2.6	8	3.5
광주	41	2.1	16	2.1	8	1.2	6	4.1	6	3.1	5	2.2
대전	48	2.4	22	2.9	15	2.3	4	2.8	2	1.0	5	2.2
울산	26	1.3	11	1.4	7	1.1	-	0.0	3	1.5	5	2.2
경기	360	18.2	163	21.5	109	16.6	31	21.4	26	13.3	31	13.6
강원	156	7.9	47	6.2	66	10.1	8	5.5	17	8.7	18	7.9
충북	101	5.1	32	4.2	39	6.0	6	4.1	12	6.2	12	5.3
충남	129	6.5	51	6.7	40	6.1	6	4.1	15	7.7	17	7.5
전북	109	5.5	45	5.9	30	4.6	3	2.1	17	8.7	14	6.1
전남	142	7.2	57	7.5	35	5.3	12	8.3	16	8.2	22	9.6
경북	**167**	**8.4**	**58**	**7.6**	**57**	**8.7**	**6**	**4.1**	**23**	**11.8**	**23**	**10.1**
경남	147	7.4	53	7.0	50	7.6	7	4.8	17	8.7	20	8.8
제주	90	4.5	21	2.8	51	7.8	13	9.0	3	1.5	2	0.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1

8. 지식정보화

인터넷 보급

○ 인터넷 보급률(2009년 현재)은 67.1%로, 전국 평균(77.9%) 및 9개도 지역 평균(73.0%)보다 낮은 수준이며, 16개 시도 중 전남(66.6%)에 이어 2번째로 낮음.

○ 지역의 미흡한 인터넷 보급은 지역간 정보화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

주 : 당해연도 1/2분기 자료이며, 도부는 9개 도 지역을 말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지역별 가구 (유선)인터넷 가능여부」

〈그림 1-8〉 인터넷 보급률

인터넷 이용

○ 2010년 현재 경북의 인터넷 이용률은 68.4%로, 전국 평균(75.7%) 및 9개도 지역 평균(72.3%)보다 낮은 수준이며, 16개 시·도 중 전남(67.8%)에 이어 2번째로 낮음.

○ 2003년 전국과의 격차는 2.8%p였으나, 2010년에는 7.3%p로 격차가 계속 커지고 있어 정보격차에 의한 사회문화적 불평등이 증대될 우려가 큼.

주 : 당해연도 1/2분기 자료이며, 도부는 9개 도 지역을 말함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지역별 인터넷 이용률」

〈그림 1-9〉 인터넷 이용률

9. 환경

대기

○ 대기 중 아황산가스(SO2)의 오염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자동차 증가 및 연료사용 증가로 인하여 이산화질소(NO2)·오존(O3)·미세먼지(PM10) 등의 오염은 지속되는 추세임.

○ 대단위 공업단지가 위치한 포항과 구미의 대기오염도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편임.

○ 향후 오존경보제확대 실시, 오염 모니터링 시스템 등 대기환경 감시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임.

〈표 1-28〉 대기오염 추이

구분	측정소	이산화질소 (NO2, ppm)	오존 (O3, ppm)	미세먼지 (PM10, ㎍/㎥)	아황산가스 (SO2, ppm)	일산화탄소 (CO, ppm)
연평균	환경기준치	0.050/년	0.060/8시간	70/년	0.020/년	9.0/8시간
2000년	포항	0.028	0.026	45	0.008	0.7
	구미	0.024	0.016	52	0.006	0.6
	김천	0.016	0.021	-	0.005	0.6
	경주	0.019	0.021	50	0.008	1.0
	안동	0.019	0.018	48	0.008	0.9
	영주	-	-	-	-	-
2005년	포항	0.023	0.027	61	0.009	0.7
	구미	0.029	0.025	53	0.007	0.9
	김천	0.023	0.032	46	0.008	0.9
	경주	0.021	0.022	50	0.004	0.7
	안동	0.025	0.021	51	0.008	1.2
	영주	0.015	0.019	51	0.007	0.9
2010년	포항	0.015	0.025	51	0.004	0.5
	구미	0.017	0.025	42	0.004	0.5
	김천	0.013	0.026	49	0.003	0.5
	경주	0.020	0.020	47	0.004	0.3
	안동	0.017	0.022	42	0.004	0.4
	영주	0.013	0.025	47	0.011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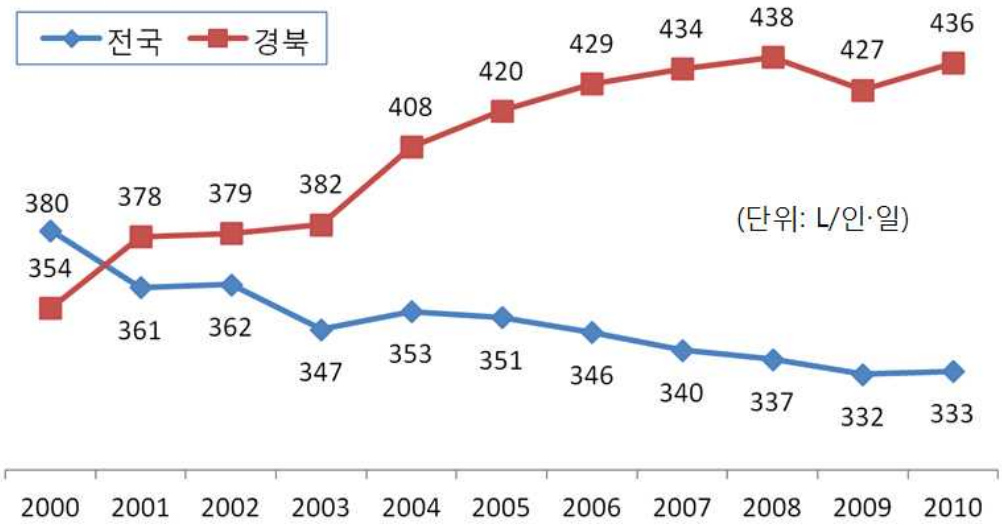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보」, 각년도

수자원

○ 2010년 현재 경북의 1인 1일당 물소비량은 436L이며, 전국은 333L로, 경북이 전국보다 103L를 더 소비하고 있음.

○ 그러나 2000년 기준 경북의 1인 1일당 물소비량은 354L로 전국(380L)보다 낮았음.

○ 2000년대 들어 경북의 물소비량은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이는 반면, 전국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1

〈그림 1-10〉 1인 1일당 물소비량 변화추이

수질

○ 경북 소재 공단의 폐수발생량(2009년 현재)은 375,938㎥/일로 전국의 1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수방류량은 331,222㎥/일로 전국의 17.0%를 차지하고 있음.

○ 공단별 폐수 발생 및 방류 현황을 살펴보면, 구미공단의 폐수발생량은 215,059㎥/일이고, 포항철강공단의 폐수발생량은 149,234㎥/일임. 이들 공단의 폐수발생량은 경북의 96.9%를, 전국의 15.0%를 차지하고 있음.

○ 구미공단의 폐수방류량은 180,436㎥/일이고, 포항철강공단의 폐수

방류량은 140,105㎥/일임. 이들 두 공단의 폐수방류량은 경북의 96.8%를, 전국의 16.1%를 차지하고 있음.

○ 경북의 대표적 공단인 구미공단과 포항철강공간은 폐수발생량보다 폐수방류량 비중이 높아 보다 친환경적인 산업단지 환경 구축이 필요함.

〈표 1-29〉 지역별 폐수발생량 및 방류량 현황

구 분	폐수발생량		폐수방류량	
	㎥/일	%	㎥/일	%
전국	2,425,839	100.0	1,990,326	100.0
서울	114	-	98	-
부산	78,908	3.0	76,288	4.0
대구	146,909	6.0	137,996	7.0
인천	9,023	0.0	7,820	0.0
광주	12,940	1.0	11,501	1.0
대전	12,619	1.0	12,444	1.0
울산	301,783	12.0	284,645	14.0
경기	50,583	2.0	44,070	2.0
강원	11,161	1.0	10,951	1.0
충북	67,282	3.0	65,027	3.0
충남	164,638	7.0	159,605	8.0
전북	113,263	5.0	81,624	4.0
전남	107,134	4.0	101,238	5.0
경북	375,938	16.0	331,222	17.0
경남	82,411	3.0	56,965	3.0
기타	891,133	37.0	608,832	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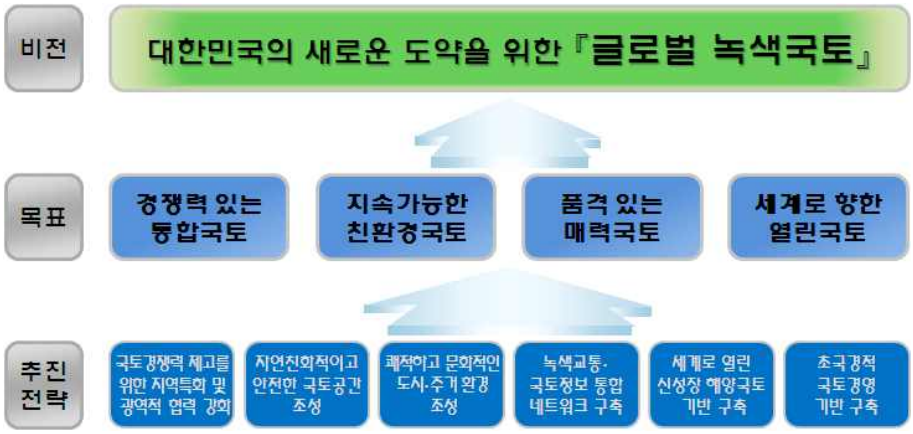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 2011

제2절 관련계획 검토

1. 국가 관련계획

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비전 및 목표



국토공간구조 형성 기본방향

○ 대외적으로는 초광역개발권을 중심으로 개방형 국토발전축을 형성하여 초국경적 교류·협력기반 강화

○ 대내적으로는 5+2 광역경제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 육성,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의 자립적 발전 유도

〈그림 1-11〉 국토형성의 기본골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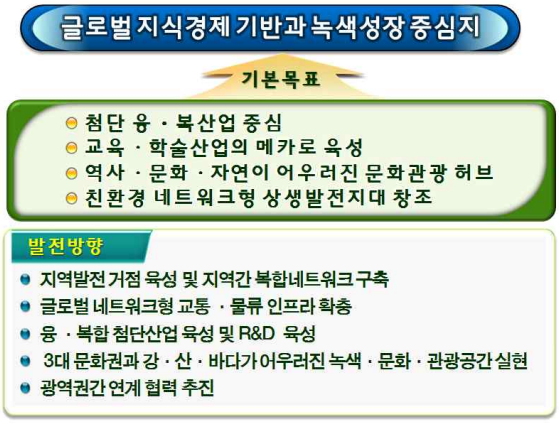
대경권의 비전 및 기본목표

○ 비전으로 '글로벌 지식경제기반과 녹생성장 중심지'를 설정하고 4대 기본목표로 첨단 융복합산업 중심, 교육·학술 산업의 메카 육성, 역사·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문화관광 허브, 친환경 네트워크형 상생발전지대 창조를 제시

경북의 발전방향

○ 지역발전 부문

- 첨단산업도시권(구미·김천)은 IT기반 신산업밸리 구축 및 대구대도시권과 연계 강화
- 동해안권(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은 과학·에너지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



<그림 1-12> 대경권 비전 및 발전방향

- 도청신도시권은 경북의 행정중심도시로서 북부지역의 거점기능 수행

○ 교통·물류 부문

-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지역에 대해 국가기간교통망 조기 확충
- 대구~포항 간의 직결철도망 건설, 동해남부선 및 중앙선 철도 복선화, 영일만항 및 인입철도 적기 건설,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추진 및 사동항 2단계 공사 조기 착수 등

○ 산업 부문

- 주력산업 첨단화 및 강소형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거점화를 위한 산업벨트 조성
-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산업 중심의 신성장동력 창출
- 대경권 산업발전을 선도하는 R&D 거점 및 인력 양성

○ 문화·관광 부문

- 대도시축, 역사·해양축, 백두대간축, 낙동강 축의 4대 관광축 설정
- 낙동강·금호강의 수변 및 경관거점 지역에 친환경 수변생태공간을 조성하여 문화와 생태자원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
- 경주·동해안권은 신라문화와 동해안·낙동정맥의 해양·생태자원을 연계하여 역사문화와 해양·산림자원에 기반한 관광휴양벨트로 육성
- 안동, 영주 등 경북북부지역은 풍부한 유교문화자원과 백두대간 천혜의 생태자원을 연계하여 녹색산업의 허브로 육성

○ 연계 협력 부문

- 영남권 모바일 융복합산업벨트, 동해안 에너지·관광벨트 등 지역 선도산업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광역권간 연계 추진

- 문화·관광자원의 광역적 이용 및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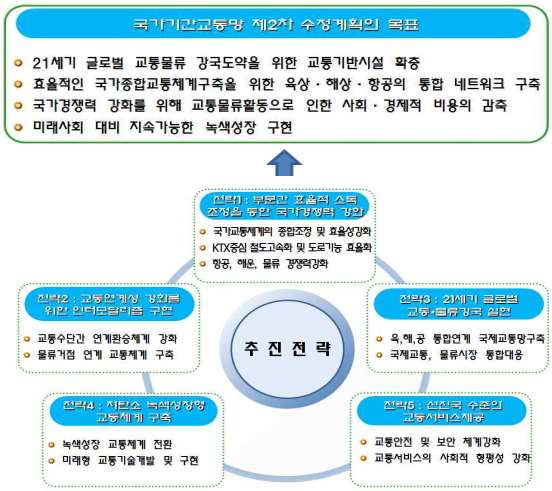
나.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2차 수정계획(2001~2020)

목표

○ 계획의 목표로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도약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확충

○ 효율적인 국가종합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육상·해상·항공교통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통혼잡비용·물류비용·교통사고비용 등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



〈그림 1-13〉 목표 및 추진전략

○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구현

하반기 추진전략(2011~2020)

○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 국가교통체계의 종합조정 및 효율성 강화, KTX 중심 철도고속화 및 도로기능 효율화, 항공·해운·물류 경쟁력 강화

○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 구현

- 교통수단간 연계환승체계 강화, 물류거점 연계교통체계 구축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 실현

- 육·해·공 통합연계 국제교통망 구축, 국제 교통·물류시장 통합대응

○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 구축

- 녹색성장 교통체계 전환, 미래형 교통기술 개발 및 구현

○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 및 보안 체계 강화, 교통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 강화

<그림 1-14>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도

2. 경북 관련계획

가. 대경광역경제권 발전계획(2009~2013)

비전 및 목표

○ 대경권의 발전비전을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 기반의 녹색성장 중심지대 : Global Greentopia DG!”로 설정하고, 발전 비전에 따라 녹색성장 기반 구축, 지식기반산업 융복합화, 지역 간 상생 네트워킹, 한국 속 한국관광 구현의 4대 목표 설정

〈그림 1-15〉 목표 및 기본전략

2대 초광역축 & 4대 경제권 설정

○ 낙동강축과 동해안축의 2대 초광역축과 생태·문화권, 첨단산업도시권, 과학·에너지산업권, 중추도시권의 4대 경제권 설정

〈그림 1-16〉 대경권의 2대 초광역축 & 4대 경제권

대경권 발전역량 및 경쟁력 강화방안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특화분야별 경쟁력 강화 : 그린에너지산업, IT융·복합산업
- 대구경북 전략산업 공동 육성
- 인력양성 경쟁력 강화 : 대학, 기술인력, 교육환경
-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 R&D 역량지원, 과학기술문화 저변 확대
- 발전거점 육성 : 중추도시 활력 창출, 네트워크도시 기능 강화
- 교통·물류망 확충 : 세계로 열린 교통망, 순화교통체계
- 문화·관광 육성 : 자원이용 효율화
- 광역권간 연계 협력 & 규제 완화

나.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2009~2018)

비전 및 목표

-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의 관광비전은 「역사와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韓)문화관광의 본향」으로 설정
- 비전과 4대 목표 실현을 위한 발전전략은 '문화창조형 관광자원 개발', '지속가능형 관광기반 조성', '지역선도형 집행기반 구축'으로 구상

〈그림 1-17〉 3대 문화권 비전과 목표

〈표 1-30〉 3대 문화권 10대 발전 전략

문화창조형 관광자원개발 (지역장소성 구현)	지속가능형 관광기반조성 (관광지속성 제고)	지역선도형 집행기반 구축 (계획 실효성 확보)
• 3대문화권의 역사문화원형 보존 • 역사를 담아내는 문화향유공간 구현 • 현대사회와 공존하는 역사문화계승 • 생태문화의 지속가능한 관광활용 제고 • 자연과 문화가 깃든 역사 이야기 연계	• 접근성이 우수한 관광지 대조성 • 자연과 조화된 관광개발 실현 • 지역과 상생하는 발전체계 구축	• 선진형 지역관광 거버넌스 구축 • 지속적 관리운영 지원체계 마련

〈표 1-31〉 선도사업 및 전략사업

선도사업 (9)	세계유교·선비문화 공원, 한국문화테마파크,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과 연계자원 개발, 낙동강 이야기 나라, 삼국유사 가온누리, 달성·팔공역사공원, 녹색문화상생벨트,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전략사업 (29)	신라 본(本) 역사지움, 초전지 역사로드, 무섬지리 문화경관, 무흘구곡 경관가도, 누정 휴(休) 문화누리, 유림 문학유토피아, 서라벌 연희테마단지, 태평성대 경상감영, 수토(守土) 문화나라,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음식디미방, 선성현 문화단지, 동의(東醫) 참 누리원,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신라 금속공예지국, 달성습지 탐방나루,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금강송 에코리움,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산촌문화누림터, 솔누리 느림보세상, 비봉산 푸른 문화길, 낙동강 역사 너울길, 동해안 연안 녹색길,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신라문화 탐방 바닷길

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2009~2011)

4대강 살리기 사업개요

○ 비전 : 생명이 깨어나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

○ 목표 :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국토 재창조,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전략

- 사후대책에서 벗어나 사전예방 종합대책 수립
- IT·ET·GT기술을 선도하는 첨단 수변 네트워크 구축
- 친수 선진화로 세계적 녹색국가 발돋움
- 지역주민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제외지(하천부지) 중심의 하천정비사업

○ 사업구분

- 본 사업 :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시행
- 직접 연계사업 :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국토해양부 :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지방하천 정비
- 농림수산식품부 : 금수강촌 만들기, 4대강 상류유역 산림 정비 등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 행정안전부 : 4대강에 직접 유입되는 소하천 정비
- 지식경제부·방송통신위원회 : 신재생에너지 생산, IT 접목 산업 등

낙동강 살리기 사업내용

물 확보	• 낙단보 등 7개 명품보 조성 (용수 확보 5.92억㎥) • 농업용 저수지 30개소 증고 (용수 확보 0.7억㎥) • 3개 댐 건설 (2.4억㎥)
홍수방어	• 퇴적토 준설 (3.4억㎥) • 노후제방 보강(380㎞) • 신규댐 건설(2개) • 안동-임하댐 연결(1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폐수처리장(74개), 마을 하수도(226개) • 비점오염원 관리 : 빗물 저류시설, 생태 유수지(23개) • 생태하천 조성(407㎞) • 지천(13개) 및 도심하천(1개) 복원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길(665㎞)
지역발전	• 지방하천 정비 (148개소, 862㎞)

라. 제5차 경북권 관광개발계획(2011~2016)

비전 및 목표

○ 경북관광의 미래상에 따른 비전을 '전통과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국 대표 문화관광지대'로 설정

○ 목표는 글로벌 수준의 명품 관광자원개발, 누구나 공감하는 관광브랜드 창조,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일자리 창출, 문화·생태 융합형 Fun 콘텐츠 발굴 등 4대 개발목표를 설정

〈그림 1-18〉 관광경북의 비전

6대 추진전략

○ 머무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3대 문화권 글로벌화

○ 시대 흐름을 대비한 관광(단)지 리노베이션

○ 재미와 감동을 주는 소프트 관광콘텐츠 개발

○ 新관광트렌드를 선도하는 경북관광 브랜드 발굴

○ 지역특화산업 융·복합형 관광비즈니스 육성

○ 관광경북 실현을 위한 초광역 관광클러스터 구축

관광권역

○ 백두대간 전통관광권, 낙동강 수변관광권, 동해안 역사관광권, 대도시 여가관광권으로 구분

- 백두대간 전통관광권 : 백두대간 + 유교문화 + 낙동강
- 낙동강 수변관광권 : 낙동강 + 산업시설 + 유교문화 + 교통 접근성

〈그림 1-19〉 4대 관광권역

- 동해안 역사관광권 : 동해안 + 신라문화 + 낙동정맥 + 울릉·독도
- 대도시 여가관광권 : 레저활동 + 산악자원 + 대구(도시자원)

마. 낙동강 그랜드 마스터플랜(2011~2020)

5대 목표

○ 내륙 분지형 폐쇄구조에서 수계 연속형 개방구조로 개조하는 **'열린 낙동강'**

○ 낙동강 생태계를 보전·복원하는 **'살아 숨쉬는 낙동강'**

○ 한국다움을 구현하는 **'품격 있는 낙동강'**

○ 고유의 자연·문화경관을 가꾸어가는 **'아름다운 낙동강'**

○ 지속적 관리와 지역 활성화로 경북의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낙동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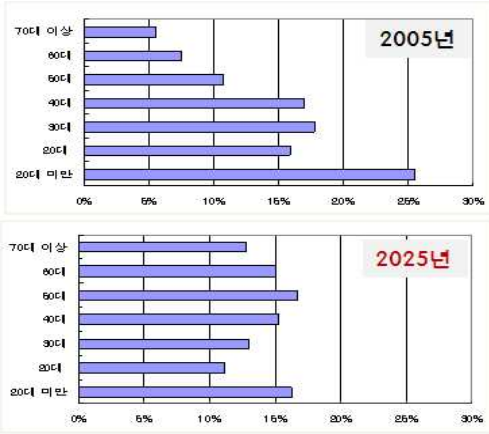
10대 전략 및 40가지 실행방안

공간	1	강 중심의 공간구조 재편	2	낙동강 워터프론트 조성
	• 강 중심의 거점 조성 • 코리도 조닝(Corridor Zoning) • 개방수면의 활용 • 낙동강 그린웨이(Greenway)		• 기성 수변도시 재생 • 워터프론트 신도시 개발 • 낙동수향(洛東水鄕) • 7개소 명품보 조성, 일교일경(一橋一景)	
환경·생태계	3	유역적 접근방법 도입	4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보완
	• 소유역권 지정, 유역관리 • Watershed Initiative • 본류와 지천의 연계 • 다용도 이용모듈의 적용		• 지천 합류부 • 대체습지 조성 • 생물서식처 조성	
역사·문화	5	낙동강의 역사성 회복	6	전통문화의 계승
	• 구곡의 역사성, 나루터 복원(주막 연계) • 역사문화 탐방로, 누와 정 이용 활성화		• 수변입지 전통음식거리 • 전통수변 문화프로그램 • 낙동강 스토리텔링	
경관	7	낙동강변 경관 조성	8	제도적 경관 규제
	• 낙동 랜드마크(Landmark) 조성 • 양유청청(楊柳靑靑) 수변림 • 낙동가도(Scenic River) • 낙동 다이나믹 밸리		• 하천경관조례 가이드라인	
미래·경제	9	국책사업 유치	10	낙동강의 지속적 관리방안
	• 국립농업생명미래관, 담수미세조류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 • 국립하천연구공원, 술문화풍류체험마을 • 모닝캄 빌리지, 나루문화예술공원 • 낙동강 무릉도원		• 낙동강 연안정책협의회, 민간 참여 • 모니터링 및 적응관리, 장소마케팅	

제3절 여건변화 전망 및 현행 도종합계획 평가

1. 여건변화 전망

가. 대내외적 여건



인구구조의 변화

○ 저출산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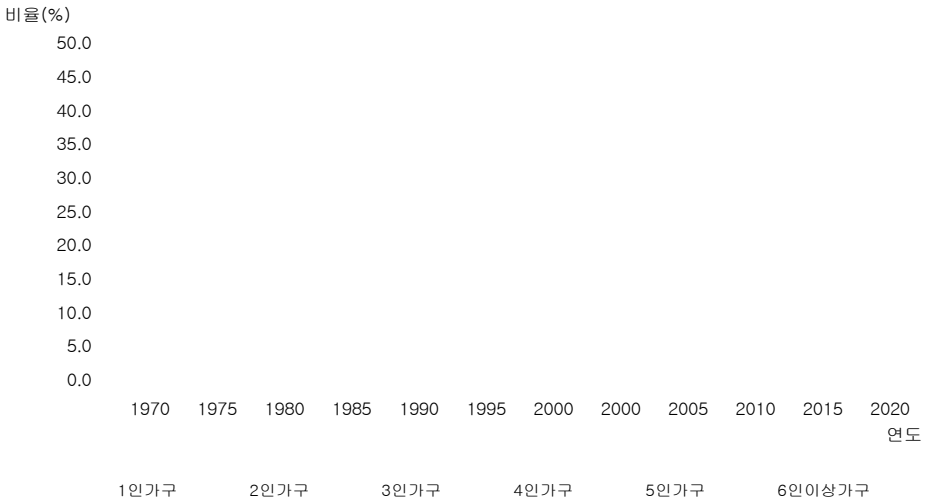
- 1인당 1.0이하 자녀 출산
- DINK족(Double Income, No Kids) 등장

○ 초고령화사회로의 급진전

- 20대 미만 감소와 노년층의 급격한 증가
- 인구구조는 점차 일자형으로 변화

○ 소규모 세대의 증가

- 1~2인 가구는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3~4인 가구는 비교적 안정적 비율의 유지가 예상
- 소규모주택, 독신자 가구 수요 증가



〈그림 1-20〉 가구별 전체인구대비 구성비 추이

정보통신기술의 변화

○ U-Tizen, U-city, U-safe, U-Housing

○ 재택근무, 재택교육, 텔레마케팅, 홈오토메이션

〈그림 1-21〉 U-city 개념도

기후변화로 인해 녹색혁명 및 방재의 중요성 증대

○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재앙 우려

- 화석연료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는 지구 온난화 및 심각한 각종 재앙의 원인으로 작용

○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녹색혁명 본격화

- 교토의정서(1997) 이후 EU의 '기후변화종합법'(2009), 영국의 '기후변화법'(2008) 등 관련 규제 확대

- 탄소배출권 확보,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범세계적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녹색혁명 기반 정책 수립 추진 중(미국의 'Green New Deal', 일본의 '저탄소사회 비전', 한국의 '녹색성장 전략' 등)

○ 에너지 문제의 본격화

- 현 추세 유지 시 세계에너지 수요는 2030년까지 현재의 1.4배 증가할 전망

- 화석에너지의 고갈이 예상되면서 에너지 확보경쟁 치열

- 대체에너지 개발 과제 대두

○ 지역방재의 중요성 대두

-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 수해의 빈발한 발생 등 문제 야기

- 수자원 확보 및 사전 예방적인 치수 대책 필요

생활환경에 대한 가치 변화

○ 환경가치의 중요성 증대

- 유엔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기후에 대한 관심 및 압박 증대

-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국·내외적으로 최우선 과제
- 자연형 환기 시스템, 전기에너지 대체, 원자력 및 태양에너지 개발, 재활용에너지 활용 등

○ 주거환경에 대한 가치 변화로 주거양식의 다양화

- 가변형 및 장수형 주택의 등장
- 단독주택 및 소규모 주택 선호
- 노인주거, 건강주택 증대
- 녹색건축 보편화
- 뉴커뮤니티에 대한 공동체에 요청

○ 생활시간의 증가로 여가 가치의 증대

- 모든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근무제 실시
- 여가학습 체계 및 시스템 마련

지식, 정보, 문화 등 무형가치의 중요성 증대

○ 무형가치는 지속가능한 국가 및 지역 경쟁력의 원천

○ 무형가치는 창의성 및 학습을 바탕으로 생산

- 지식경제시대에서 경쟁력의 원천은 창의성
- 창의성은 상상력이 기반이 되며, 상상력은 문화예술을 통해 배양 가능
- 창의적 인재 확보가 지역발전을 좌우

○ 지역문화창조력 증대를 위한 문화도시 및 창조도시 만들기

- UNESCO Creative City Network, European Year of Creativity and Inovation 2009 등

빠름과 느림의 공간 지향

○ 빠른 접근성의 유지

- 고속철도, 광대역통신망, 7-9축 기간도로망
- 접근성 제고로 인한 생활패턴의 변화 및 생활권 확대

○ 느린 환경의 지속성과 안정성

- 생태환경, 보행·건강 중요시, 자전거도로 확대
- 환경보전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공간 요구

자료 : 동아닷컴(2009. 9. 22)

<그림 1-22> 2050년 미국의 미래상(Mega City Region)

내생적 발전과 지방분권

○ 지역간 경쟁 심화로 내생적 발전의 중요성 증대

-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응하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지역화(Localization)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음.
- 도시를 중심으로 혁신과 성장이 일어나면서 국가 간 경쟁체제보다도 도시 간, 지역 간 경쟁 심화
- 지역발전의 자원이나 원동력을 지역내부에서 동원하는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의 중요성 증대

○ 지방분권과 자율을 통한 지역 주도적 발전 추진

- 지역 주도적 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자율이 전제
- 지역주도적 발전정책을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나. 경북의 여건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시대 도래

○ 4대강 사업은 전국에 16개의 명품 보(洑) 설치 등 제외지(하천부지) 중심의 하천정비사업이며, 2011년 말에 완료

- 본사업 :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시행
- 직접 연계사업 : 섬진강과 주요 지류 국가하천(광역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사업
- 연계사업 :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으로 해당부처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

○ 낙동강에는 상주보, 낙단보 등 7개의 보가 설치되었으며, 안동 하회마을, 삼랑진, 을숙도 등 낙동강 12경을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킴.

- 경북 구간에는 명품보 7개와 낙동강 12경 중 6~12경이 해당

물 확보	• 낙단보 등 7개 명품보 조성 (용수 확보 5.92억㎥) • 농업용 저수지 30개소 증고 (용수 확보 0.7억㎥) • 3개 댐 건설 (2.4억㎥)
홍수방어	• 퇴적토 준설 (3.4억㎥) • 노후제방 보강(380㎞) • 신규댐 건설(2개) • 안동-임하댐 연결(1개)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 환경기초시설 확충 : 하·폐수처리장 (74개), 마을 하수도(226개) • 비점오염원 관리 : 빗물 저류시설, 생태 유수지(23개) • 생태하천 조성(407㎞) • 지천(13개) 및 도심하천(1개) 복원
복합공간 창조	• 자전거길(665㎞)
지역발전	• 지방하천 정비 (148개소, 862㎞)

〈그림 1-23〉 낙동강 살리기 사업 내용 및 경북 구간 현황도

〈표 1-32〉 경북의 낙동강 보 현황과 특성

보	주요내용	연계자원	이미지
구담보	• 경북 내 7개 보 중 가장 상류에 위치 • 하회마을 이미지를 반영한 하회탈의 눈과 머리모양을 형상화 • 일반공구로 경북이 발주한 유일한 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구담교 하회마을, 부용대	
상주보	• 우복동 전설이 전해내려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엔드락' 컨셉으로 디자인	경천대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상도드라마 촬영지 도남서원, 강창나루	
낙단보	• 상주·의성·구미의 자연과 역사, 문화 융합 • 사람이 어우러지는 전통적 이미지가 반영된 고풍스러운 경관 연출	국립농업생명미래관 낙정마을 낙단대교, 낙단교 관수루, 낙동나루	
구미보	• 지역성을 반영, 장수와 복의 상징인 거북이, 수호의 상징인 용을 형상화 한 디자인 • 지속가능한 안전한 강, 언제나 넉넉한 물, 깨끗한 낙동강 수호를 디자인 컨셉으로 설계	강정마을, 강정나루 매학정 국립하천연구공원 금오연지 가시마을 구미 수상비행장	
칠곡보	• 지역 역사문화를 반영한 칠곡보 경관 연출 • 가산바위 전설을 구현한 철우이야기로 역사 테마형 스토리텔링 부여 및 낙동강 물길을 형상화	왜관철교 호국평화공원 구왜관마을	
강정 고령보	• 후기 가야의 중심이라는 지역적 특성 반영 • '낙동허브' 강정고령보를 컨셉으로 디자인	에코워터폴리스 나루문화예술공원 노곡나루, 달성습지 사문진교	
달성보	• 다기능보인 달성보는 안전을 상징하는 Blue Saver 컨셉으로 항해를 시작하는 크루즈를 형상화 • 새시대에 대한 희망과 건강한 자연, 문화의 강을 열어가고자 하는 의지 반영	개경포 수변마을 현풍 슬로우 비치 도동서원 부례나루	

신도청시대 개막

○ 경북 도청이전이 2014년에 완료되면, 도청이전신도시는 경북 북부 지역 발전의 핵심 거점이 될 전망

- 위　　치 : 안동시 풍천면·예천군 호명면 일원
- 사업규모 : 면적 10.96㎢, 사업비 2.7조 원(청사건축 4천억 원)
- 계획인구 : 10만 명 정도(밀도 100인/㏊)
- 사업기간 : 2010 ~ 2027년(2014년. 6월 까지 도청이전)

○ 도청이전신도시를 명품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주요 시설을 집적시키고,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 및 연결 도로망을 개통할 계획

- 주요 시설 집적화 : 국립백신연구원 설립, 환경에너지종합타운 건립, 물순환 에코시티 조성, 도청이전신도시 복합문화단지 조성, 낙동강 Water Business단지 조성, 박물관 건립, 보훈회관 건립 등
- 신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 국도 34호선 및 국도 28호선의 신도시와의 연결도로 신설,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화 등

〈그림 1-24〉 도청이전신도시 조감도

대경권을 이끌 선도산업 육성 본격화

○ 대경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으로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산업이 선정

되어 지역산업발전을 선도할 전망

○ 그린에너지 및 IT융·복합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세계적 선도지역'이라는 비전 아래 그린에너지산업 관련 구체적 실행전략을 마련 중에 있음.

〈그림 1-25〉 대경권 선도산업

- 그린에너지산업 핵심 분야로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분야와 전력 고효율 IT기술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분야를 집중 육성

녹색성장의 거점으로 백두대간 부상

○ 정부는 6개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초광역개발권인 백두대간벨트를 구축할 계획으로 국토 낙후지역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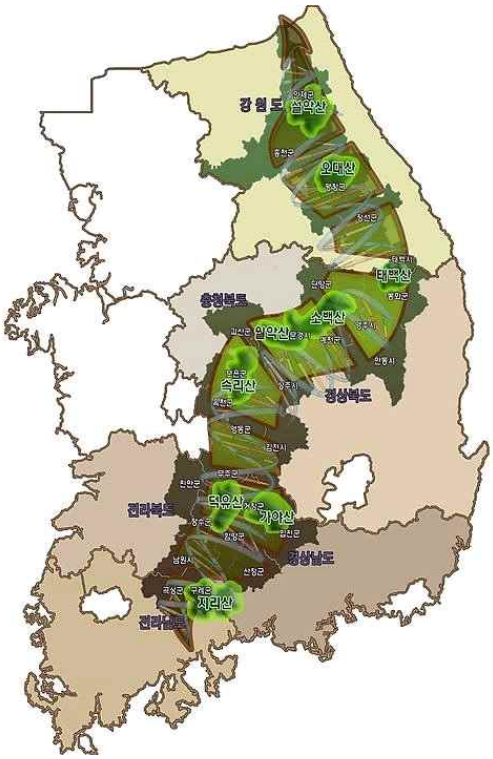
- 백두대간 녹색성장 거점, 신성장동력 이식 및 육성, 네트워크형 균형국토 발전을 추진목표로 설정

- 백두대간의 생태 훼손지를 복원해 초광역 생태 네트워크로 보전·관리하고, 농·산촌마을의 정주환경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

○ 경북은 백두대간을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접근

-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및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백두대간 이야기 나라 벨트 조성 중에 있음.

- 녹색레저휴양공간으로 백두대간 트레일센터, 낙강지락 산악레포츠벨트 등을 조성



〈그림 1-26〉 백두대간벨트 특화발전구상도

신국제공항은 경북 발전을 이끌 과제로 작용

○ 대경권과 동남권 및 호남권을 아우르는 침체된 남부권의 발전 기폭제로서 동남권 신국제공항 유치는 경북뿐만 아니라 남부경제권 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

○ 신국제공항은 국가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꼭 필요한 인프라로서 국제관문을 확보하고 글로벌 대도시권과의 교류 확대 도모 가능

- 국제관문의 부재로 글로벌 접근 곤란, 환동해경제권 형성 지체에 따른 러시아·북미 진출의 어려움, 수도권 확장 및 중부경제권 가시화와 남부권 침체 등의 제반 문제에 정면 대응할 수 있는 대안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신국제공항 건설은 국토해양부의 입지평가 결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2011. 3월)한 바 있어, 추후 신국제공항 건설이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에 의거하여 추진하도록 함.

사통팔달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 획기적 개선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2차수정(2001-2020)』에 따라 도로망 및 철도망이 구축되면, 끊어진 국토 대동맥이 연결되어 사통팔달로 이어지는 초광역 교통망이 완성될 전망

- 초광역도로망 : 동서4축 고속국도(상주~영덕), 동서5축 간선도로 고속화(영주~울진), 동해남부고속도로(울산~포항~영덕), 88고속도로 확장(대구~광주) 등

- 녹색철도망 : 중앙선 복선 전철화(도담~영천),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울산~경주~포항) 등

- 대구·경북권 연계 광역철도망 구축 중

○ 현재 추진 중인 중앙선 복선전철화(2010~2018)와 남북7축 고속도로(2019), 동해중부선 철도(2018) 건설이 완료될 경우 대구경북의 대내외적 접근성은 커다란 변화를 맞을 전망

- 중앙선 복선전철화 및 틸팅(Tilting) 열차 운행은 경북지역과 서울 및 수도권 간 시간거리를 크게 단축

- 남북7축 및 동해중부선 개통은 포항·경주·울산·부산축 강화 전망

2. 현행 도종합계획의 평가

계획지표의 대부분이 수요 추정치를 상회

○ 계획인구는 수요 추정치를 하회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이 지역에서 유사한 현상

○ 생활환경부문의 대부분 지표가 수요 추정치를 상회

- 주택보급률은 수요 추정치를 하회

○ 보건복지 및 문화시설의 대부분이 수요 추정치를 상회

- 공연시설의 실적은 수요 추정치를 하회

인구 및 산업지표

○ 「제3차 경상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의 기준년도인 2005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경북의 인구는 1만9천명 감소하였고, 기존 계획에서 예측한 280만 4천명을 하회하는 수준을 나타냄.

○ 지역총생산은 2010년 현재 68조 8,900억으로 2005년 대비 12% 증가

교통 및 정보통신지표

○ 도로포장률은 2010년 현재 73.2%로 2005년에 비해 3.8%p 증가

○ 인터넷이용비율은 2010년 68.4%로 2005년에 비해 5.1%p 증가

생활환경 지표

○ 주택보급률은 2010년 현재 108.7%로, 수요 추정치(112.5%)에 3.8%p 하회

○ 상수도보급률은 2010년 현재 84.9%로, 수요 추정치(81.1%)에 비해 3.8%p 상회

○ 하수도보급률은 2010년 현재 72.3%로, 수요 추정치(69.3%)에 비해 2.6%p 상회

○ 1인1일 최대급수량은 2010년 현재 436ℓ/일·인으로, 수요 추정치(419.3ℓ/일·인)에 비해 16.7ℓ/일·인 상회

○ 이후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생활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한 노력과 적극적 투자가 필요

보건복지지표

○ 병상률은 2010년 현재 12.3개/천명으로, 수요 추정치(9.8개/천명)에 비해 2.5개/천명 미달

○ 종합병원은 2010년 현재 18개로, 수요 추정치(15개)보다 3개 초과 달성

○ 사회복지시설은 2010년 현재 349개소로, 수요 추정치(107개소)보다 242개소 초과 달성

-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회관, 장애인보호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향후 고령화 및 출산율 저하를 감안하여 노인, 아동 등 복지대상별 지표 관리가 필요

문화시설지표

○ 공공도서관은 2010년 현재 58개소로, 수요 추정치(54개소)에 비해 4개소 초과 달성

○ 박물관 또한 수요 추정치를 초과 달성

- '경북통계연보'에는 2009년 현재 29개의 박물관이 게재되어 있으며,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는 2010년 현재 57개의 박물관이 있음.

○ 전시시설도 2010년 현재 11개소로, 수요 추정치(6개소)에 비해 5개 초과 달성

○ 그러나 공연시설은 2010년 현재 47개소로, 수요 추정치(58개소)에 비해 11개소 미달

○ 공연시설을 제외한 도서관, 박물관 및 전시시설은 수요 추정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도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확충 및 시설의 내실화가 필요

체육시설지표

○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등의 실내체육관은 2009년 현재 35개소로, 수요 추정치(34개소)에 비해 1개소 미달

○ 주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 여가시간 증대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도민의 건강레저활동은 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지속적인 확충 및 시설의 내실화가 필요

〈표 1-33〉 계획지표 달성도

구 분	계획지표	단위	2005년	제3차 도종합계획 2010년 수요추정치	실적치 (2010년)	결과
인구 및 산업	계 획 인 구	천명	2,594	2,804	2,575	▽ 229
	지역총생산(GRDP)	10억원	61,757	-	68,890	-
교통 및 정보통신	도로포장률	%	69.4	-	73.2	-
	인터넷이용비율	%	63.3	-	68.4	-
생활환경	주 택 보 급 률	%	105.3	112.5	108.7	▽ 3.8
	상 수 도 보 급 률	%	77.7	81.1	84.9	▲ 3.8
	하 수 도 보 급 률	%	60.7	69.3	72.3	▲ 3.0
	1인1일 최대급수량	ℓ/일 · 인	414	419.3	436	▲ 16.7
보건복지	병 상 률	개/천명	10.9	9.8	12.3	▲ 205
	종 합 병 원	개소	15	15	18	▲ 3
	사회복지시설	개소	93	107	349	▲ 242
문화시설	공 공 도 서 관	개소	52	54	58	▲ 4
	박 물 관	개소	19	19	57	▲ 38
	전 시 시 설	개소	5	6	11	▲ 5
	공 연 시 설	개소	44	58	47	▽ 11
체육시설	실 내 체 육 관	개소	27	36	35	▽ 1

주 : 1) 주택보급률은 총주택수/일반가구수[전체가구수-(단독가구수+비혈연가구수)] × 100에 의한 산정치임
2) 문화시설 중 박물관 현황은 경북통계연보(2006)과 전국문화시설기반총람(2011)을 참고하였고, 공연시설은 공공공연장, 민간공연장, 영화상영관의 합임
3) 사회복지시설은 양로시설, 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모자보호시설, 여성회관, 장애인보호시설의 합임
4) 체육시설의 실내체육관은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의 합임

제4절 주민의식 조사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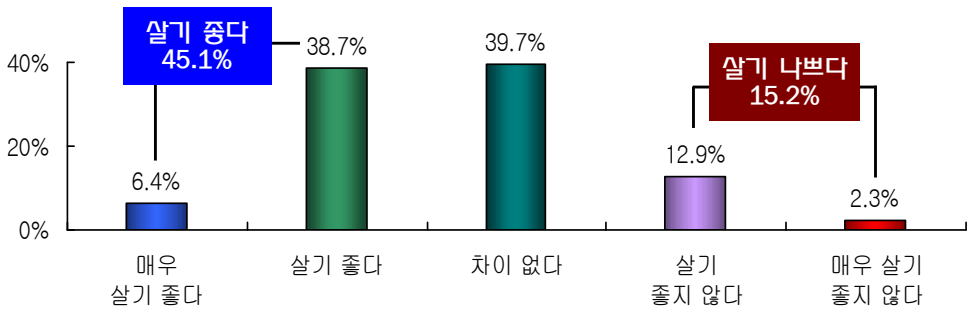
조 사 대 상	▪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남녀 총 703명
조 사 기 간	▪ 2012년 1월 17일 ~ 18일(2일 간)
표 본 오 차	▪ 신뢰구간 95% ± 4.1%p
조 사 방 법	▪ 전화면접조사(Telephone Interview)
표본추출방법	▪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할당추출(Quota Sampling)
조 사 도 구	▪ 구조화된 설문지 (Structured Questionnaire)

2. 경북의 현주소

경북의 정주 만족도

○ 경북도민 10명 중 4명 이상(45.1%)은 경북이 다른 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음.

○ 살기 좋다는 응답은 북부자원권(51.5%), 여성(41.7%), 20대(51.8%) 연령층에서, 살기 좋지 않다는 응답은 남부도시권(20.3%), 남성(18.5%), 50대 이상(18.7%)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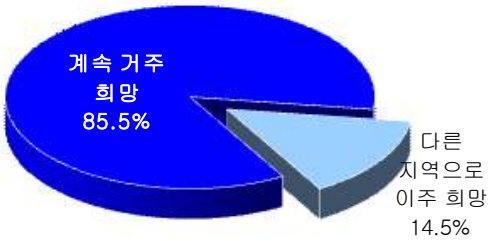


〈그림 1-27〉 경북의 정주 만족도

경북에서의 정주성

○ 경북도민 10명 중 8명 이상(85.5%)은 향후에도 경북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고 있음.

○ 계속 살기를 원한다는 응답은 동부해양권(91.7%), 여성(87.1%), 연령이 높을수록(50대 이상 93.0%)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서부산업권(20.6%), 남성(16.2%), 20대(41.2%)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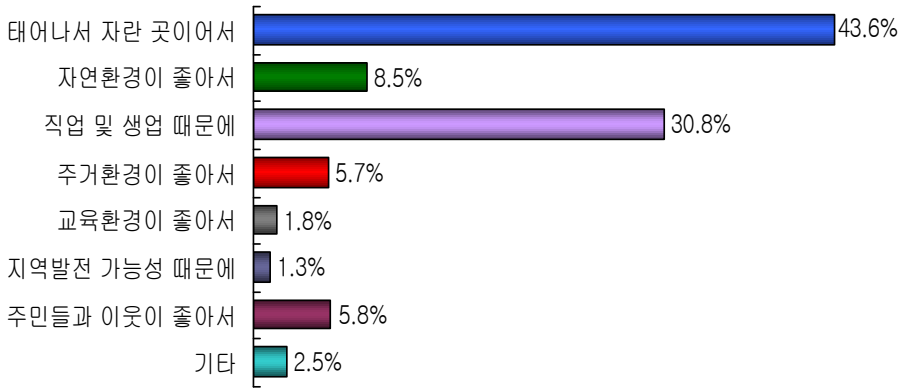


〈그림 1-28〉 경상북도 정주성

경북에서의 정주 희망 이유

○ 경북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이유에 대해 태어나서 자란 곳이어서(43.6%)와 직업 및 생업 때문에(30.8%)라는 응답을 가장 높게 꼽았음.

○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응답은 북부자원권(53.8%), 남성(51.0%), 50대 이상(53.7%)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직업 및 생업 때문에라는 응답은 서부산업권(40.0%), 여성(34.7%), 40대(47.0%) 연령층에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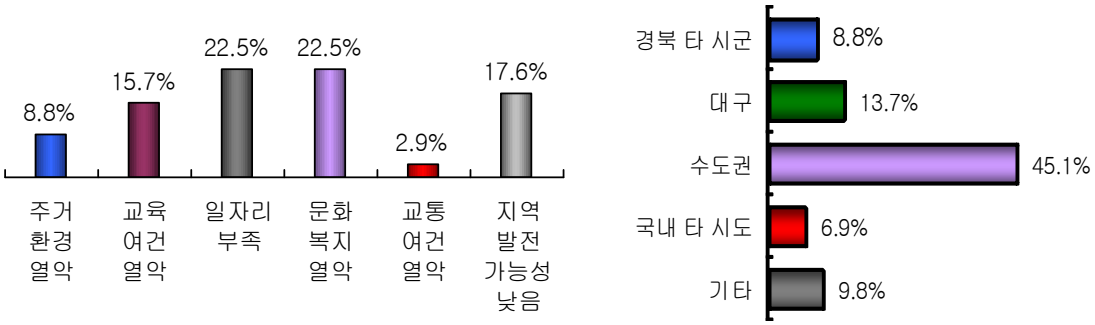
〈그림 1-29〉 경북에서의 정주 희망 이유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희망 이유 및 이주 희망 지역

○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유로는 일자리 부족과 문화·복지

열악(각 22.5%)이라는 응답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일자리 부족이라는 응답은 북부자원권(53.3%), 남성(25.0%), 30대(35.3%) 연령층에서, 문화·복지 열악이라는 응답은 서부산업권(43.6%), 20대(38.3%) 연령층에서 높았음.

○ 이주 희망 지역으로는 수도권이 45.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구(13.7%), 경북 타 시군(8.8%)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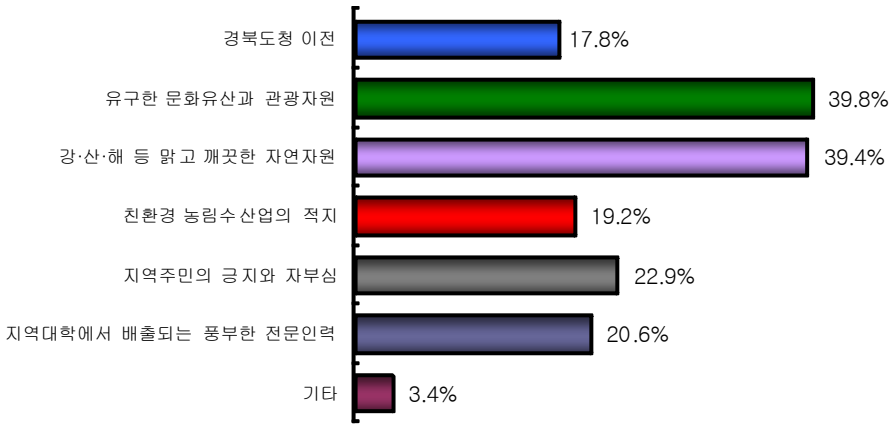


〈그림 1-30〉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희망 이유 및 이주 희망 지역

3. 경북의 발전 여건

발전 잠재력

○ 경북의 잠재력에 대해 유구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라는 응답이 3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강·산·해 등 맑고 깨끗한 자연자원(39.4%), 지역주민의 긍지와 자부심(22.9%)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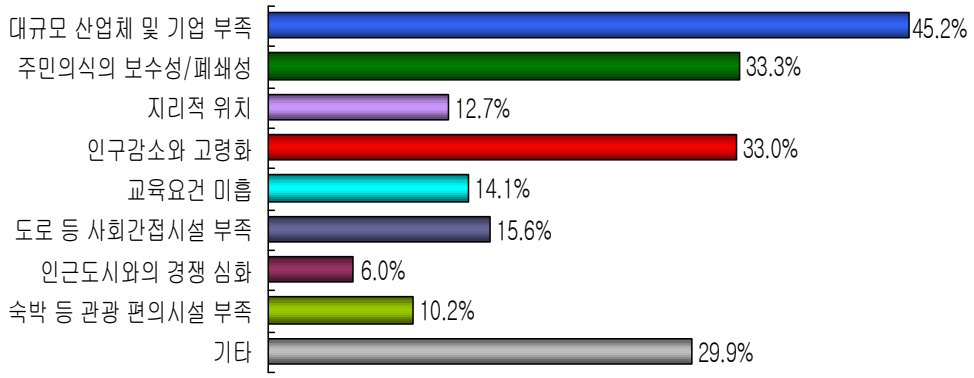
〈그림 1-31〉 경북의 발전 잠재력

○ 유구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이라는 응답은 북부자원권(47.0%), 30대(44.0%)와 40대(44.6%) 연령층에서 높았고, 강·산·해 등 맑고 깨끗한 자연자원이라는 응답은 여성(43.1%), 40대(43.9%)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발전 장애요인

○ 경북의 발전 장애 요인으로는 대규모 산업체 및 기업 부족(45.2%), 주민의식의 보수성 및 폐쇄성(33.3%), 인구감소와 고령화(33.0%) 등의 순으로 보였음.

○ 대규모 산업체 및 기업 부족은 동부해양권(52.4%), 40대(50.7%)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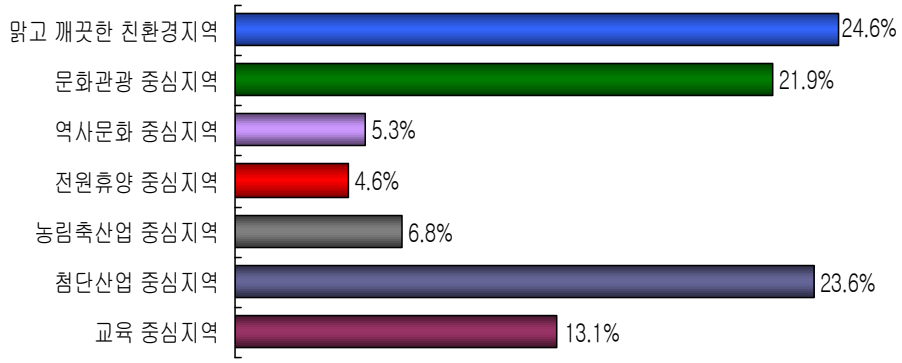
<그림 1-32> 경상북도 발전 장애요인

4. 2020년 경북의 미래상

경북의 미래상(발전방향)

○ 경북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맑고 깨끗한 친환경 지역'이라는 응답이 24.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첨단산업 중심 지역'(23.6%), '문화관광 중심 지역'(21.9%) 등의 순을 보임.

○ 특히 '맑고 깨끗한 친환경 지역'이라는 응답은 북부자원권(33.3%), 여성(26.1%), 40대(29.1%)와 50대 이상(28.5%)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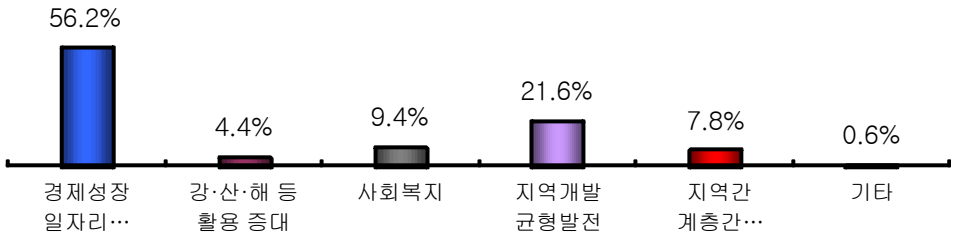


〈그림 1-33〉 경상북도 미래상(발전방향)

경북의 발전을 이끌 가장 중요한 전략

○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갈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이 56.2%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다음으로 '지역 발전 및 균형발전'(21.6%), '사회복지'(9.4%), '지역간/계층간 갈등 해소'(7.8%) 등의 순을 보였음.

○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은 여성(59.1%), 40대(61.5%) 연령층에서, '지역개발/균형발전'이라는 응답은 북부자원권(30.3%), 20대(28.9%)와 40대(26.4%)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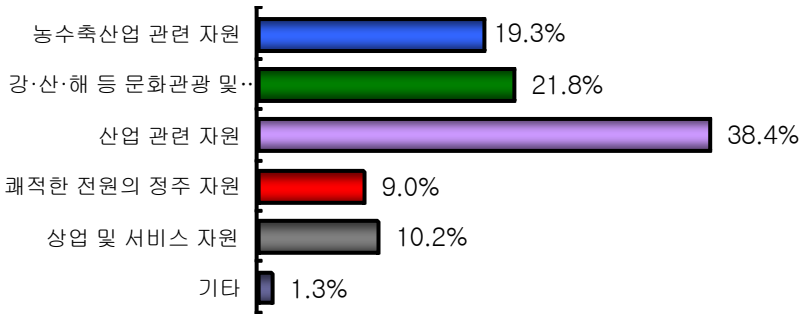
〈그림 1-34〉 경북의 발전을 이끌 가장 중요한 전략

경북의 발전을 이끌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

○ 경북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산업 관련 자원'이라는 응답이 38.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산·해 등 문화관광 및 생태자원'(21.8%), '농·수·축산업 관련 자원'(19.3%) 등의 순을 보였음.

○ '산업 관련 자원'이라는 응답은 동부해양권(41.0%)과 남부도시권

(40.5%), 남성(43.1%), 40대(41.2%)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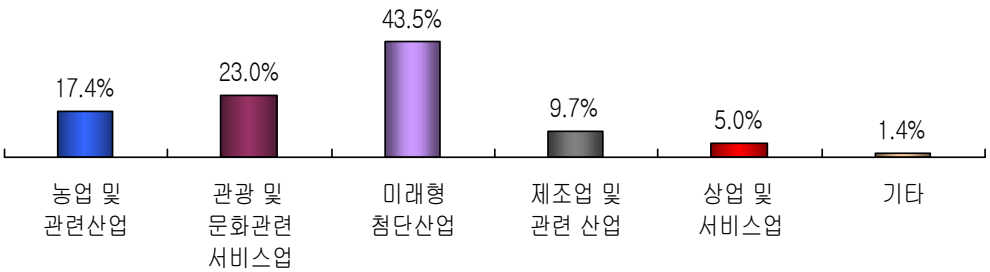
〈그림 1-35〉 경북의 발전을 이끌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

5. 부문별 발전과제

향후 중심 육성 산업

○ 경북의 향후 육성해야 할 산업으로 '미래형 첨단산업'이라는 응답이 4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관광 및 문화 관련 서비스업'(23.0%), '농업 및 관련 산업'(17.4%) 등의 순을 보였음.

○ '미래형 첨단산업'이라는 응답은 서부산업권(47.6%), 남성(50.0%), 40대(51.4%)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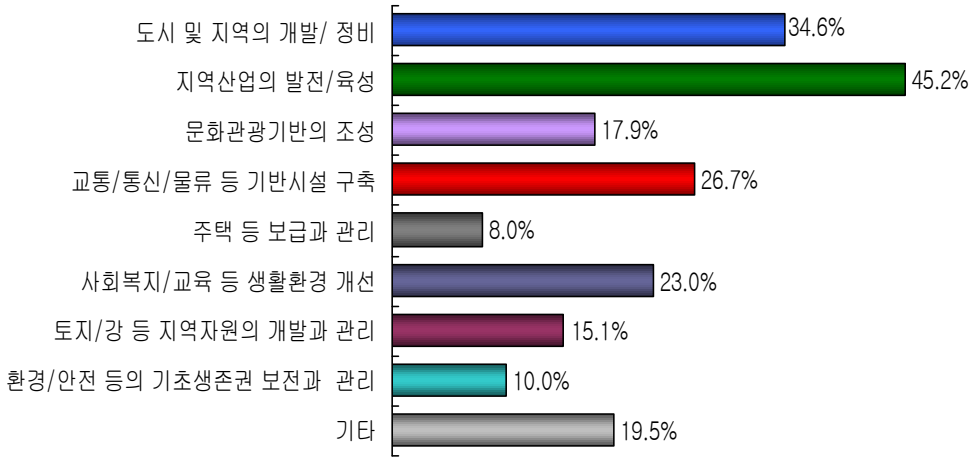


〈그림 1-36〉 경북의 향후 중심 육성 산업

경북의 관심 정책 분야

○ 경북이 관심을 가져야할 정책분야로는 '지역산업의 발전·육성'이라는 응답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도시 및 지역의 개발 및 정비'(34.6%), '교통·통신·물류 등 기반시설 구축'(26.7%) 등의 순을 보였음.

○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은 남부도시권(54.2%), 남성(50.9%), 20대(48.2%) 저연령층에서, ‘도시 및 지역의 개발 및 정비’라는 응답은 서부산업권(27.0%), 여성(22.1%), 50대 이상(22.2%)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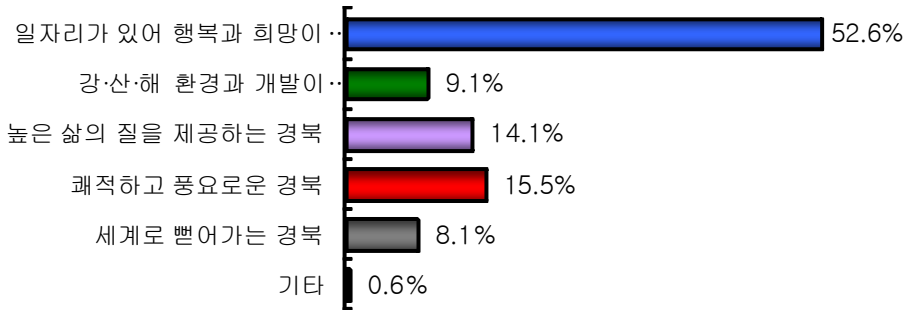


〈그림 1-37〉 경북의 관심 정책 분야

2020년 미래상의 캐치프레이즈

○ 경북도민 10명 중 5명 정도(52.6%)가 2020년 이상적인 경북 미래상의 캐치프레이즈로 ‘일자리가 있어 행복과 희망이 있는 경북’이라는 응답을 꼽았음.

○ ‘일자리가 있어 행복과 희망이 있는 경북’ 이라는 응답은 남부도시권(57.5%), 여성(55.7%), 50대 이상(58.2%)에서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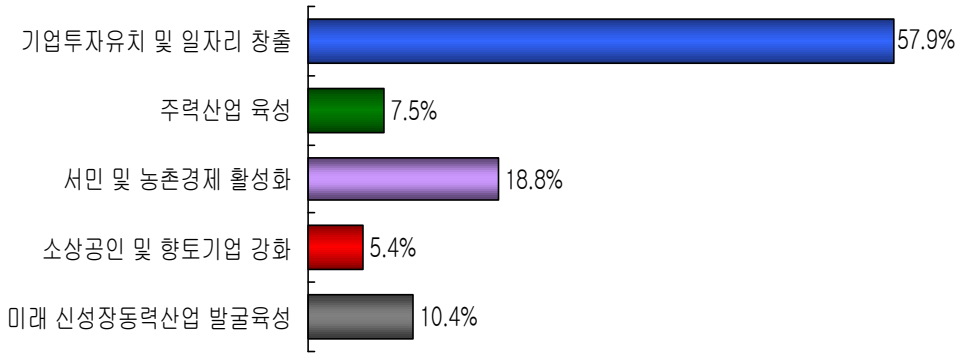
〈그림 1-38〉 2020년 경북 미래상의 캐치프레이즈

부문별 발전과제 및 정책 방향

○ 경북도민 10명 중 6명 정도(57.9%)는 경북의 산업·경제 분야 주요 정책방향으로 ‘기업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꼽았으며, 다음으

로 '서민 및 농촌경제 활성화'(18.8%),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 발굴육성'(10.4%)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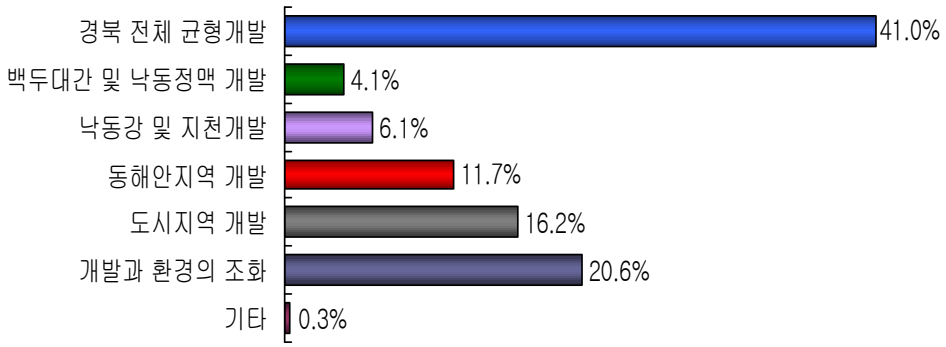
○ '기업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응답은 북부자원권(62.9%), 여성(61.6%), 40대(62.2%)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39> 산업·경제 분야 주요 정책방향

○ 경북도민 10명 중 4명 정도(41.0%)는 경북의 지역개발 분야 주요 정책방향으로 '경북 전체 균형개발'이라는 응답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개발과 환경의 조화'(20.6%), '도시지역 개발'(16.2%), '동해안지역 개발'(11.7%)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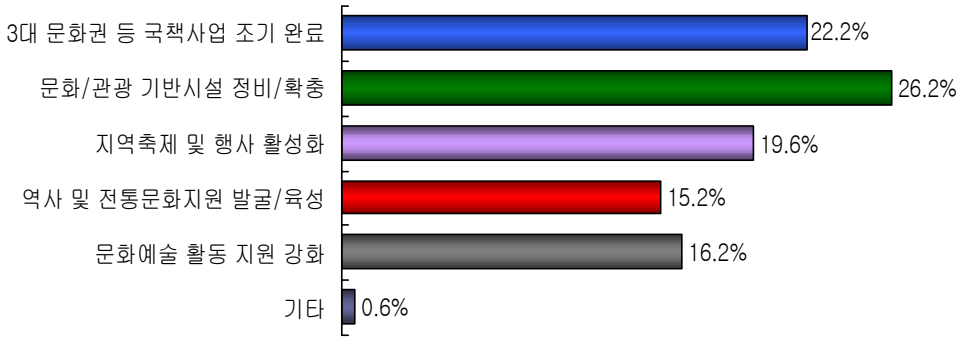
○ '경북 전체 균형 개발'이라는 응답은 동부해양권(42.8%)과 남부도시권(42.5%), 40대(46.6%)와 50대 이상(46.8%)임.



<그림 1-40> 지역개발 분야 주요 정책방향

○ 경북의 문화·관광 분야 주요 정책방향으로 '문화/관광 기반시설 정비/확충'(26.2%), '3대 문화권 등 국책사업 조기 완료'(22.2%), '지역축제 및 행사 활성화'(19.6%)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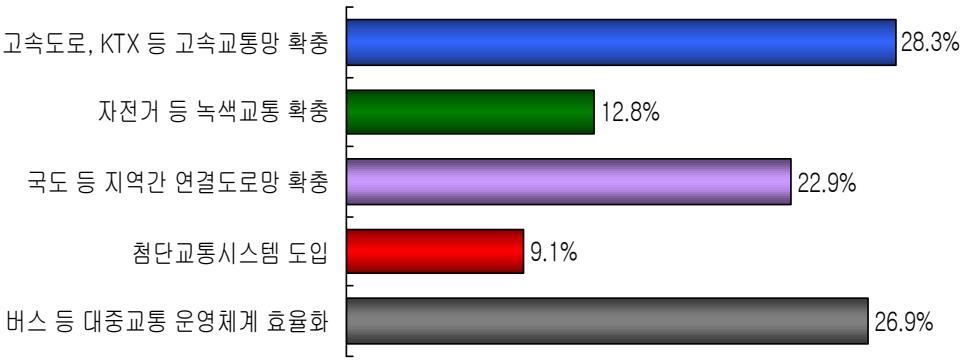
○ ‘문화/관광 기반시설 정비/확충’이라는 응답은 북부자원권(30.3%), 30대(27.2%)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41> 문화·관광 분야 주요 정책방향

○ 경북의 광역 인프라 분야 주요 정책방향으로 ‘고속도로, KTX 등 고속교통망 확충’(28.3%),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효율화’(26.9%), ‘국도 등 지역 간 연결도로망 확충’(22.9%) 등의 순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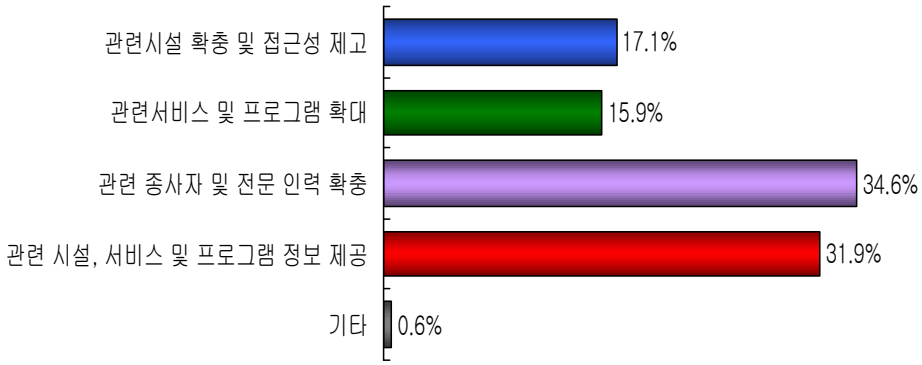
○ ‘고속도로, KTX 등 고속교통망 확충’이라는 응답은 북부자원권(38.6%), 남성(31.2%), 40대(35.8%)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 효율화’라는 응답은 동부해양권(30.6%)과 서부산업권(31.7%), 20대(38.6%)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남.



<그림 1-42> 광역 인프라 분야 주요 정책방향

○ 경북의 복지 및 생활환경 분야 주요 정책방향으로 ‘관련 종사자 및 전문 인력 확충’(34.6%)과 ‘관련 시설/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31.9%)이라는 응답을 높게 꼽았음.

○ ‘관련 종사자 및 전문 인력 확충’이라는 응답은 서부산업권(39.2%), 남성(36.7%), 20대(46.5%)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고, ‘관련 시설/서비스 및 프로그램 정보 제공’은 동부해양권(34.9%)과 남부도시권(34.0%), 여성(33.3%), 30대(41.6%)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그림 1-43> 복지 및 생활환경 분야 주요 정책방향

제5절 경북의 현안문제 및 과제

1. 현안 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도민 역량 저하

○ 저출산 및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역의 도시기반 시설, 정주 및 교통환경, 기업환경 등 경제·사회적 변화 야기

○ 이러한 변화는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등으로 이어져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악순환은 지역의 인적자원 역량을 저하시킬 우려 있음.

지역민의 환경, 문화 등 삶의 질에 대한 요구에 대응 미흡

○ 여가시간과 소득을 생산적인 문화활동에 소비하기 위한 여가 및 문화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

○ 건강 및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건강한 삶을 보낼 수 있는 건강한 환경 만들기에 대한 요구는 높으나 생활권내에서 문화 및 여가활동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

지역 불균형 발전과 도시성장 잠재력 쇠퇴

○ 수도권 집중, 국토공간 개발의 상대적 소홀

○ 경북 북부지역 낙후도 심화(전국 하위 20%내 7개 시·군 포함)

주력산업 쇠퇴 및 신성장동력 부재

○ 구미 : 전자산업의 단순생산기지

○ 경북 북부지역 : 관광인프라 부족

○ 신성장동력 창출 지연, 산업용지 부족으로 지난 10년간 장기침체

지역내 총생산(GRDP) 및 혁신환경지수 최하위권

○ 혁신환경지수(인적자원, 인프라): 0.53(16개 시도 중 15위)

기후변화에 따른 종합적 방재시스템 미흡

○ 수해 복구 위주의 치수대책으로 인해 해마다 수해 발생

○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로의 정책 전환 필요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대책 미흡

○ 에너지 과소비적인 공간구조로 자연환경 및 생태계 훼손, 생활환경의 악화를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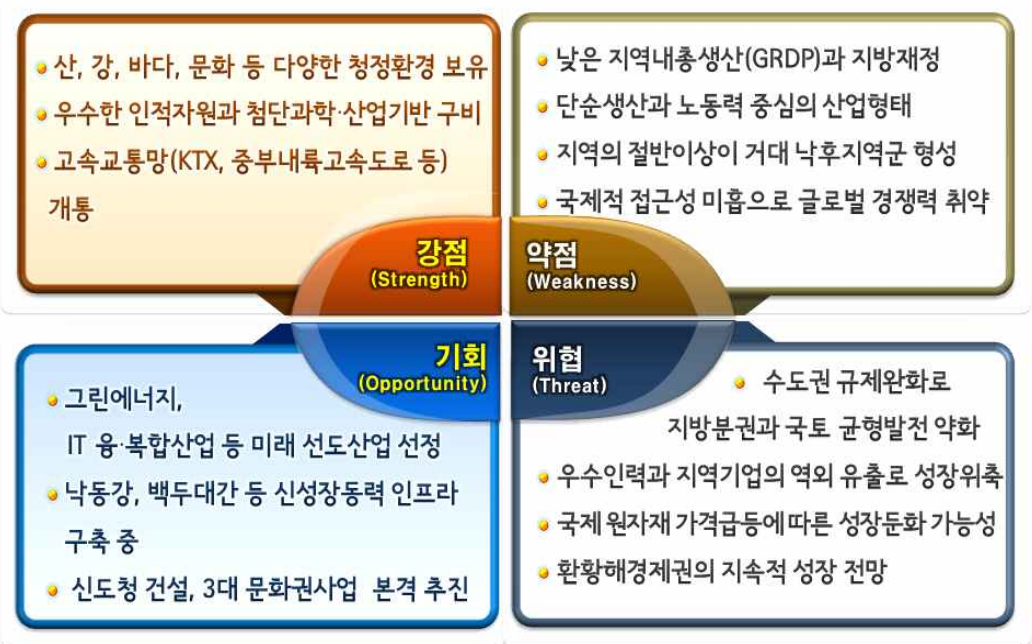
○ 공간구조를 에너지 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구조로의 개편 필요

지역 내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미흡

○ 지역 내부의 자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여 내발적 발전전략 추진이 어려움.

2. 계획 과제

가. SWOT 분석



<그림 1-44> 과제 도출을 위한 SWOT 분석

나. 계획 과제

거점도시 육성 및 협력적 네트워크 강화

○ 신도청, 대구(지식경제 기반), 포항(과학), 경주(역사문화), 세종시 등

○ 거점도시와 중소도시간 상생(Win-Win)전략 모색

지역산업을 선도할 신성장동력 창출

○ 그린에너지, IT융·복합산업 등 미래 선도산업 육성

○ 농업의 신성장 산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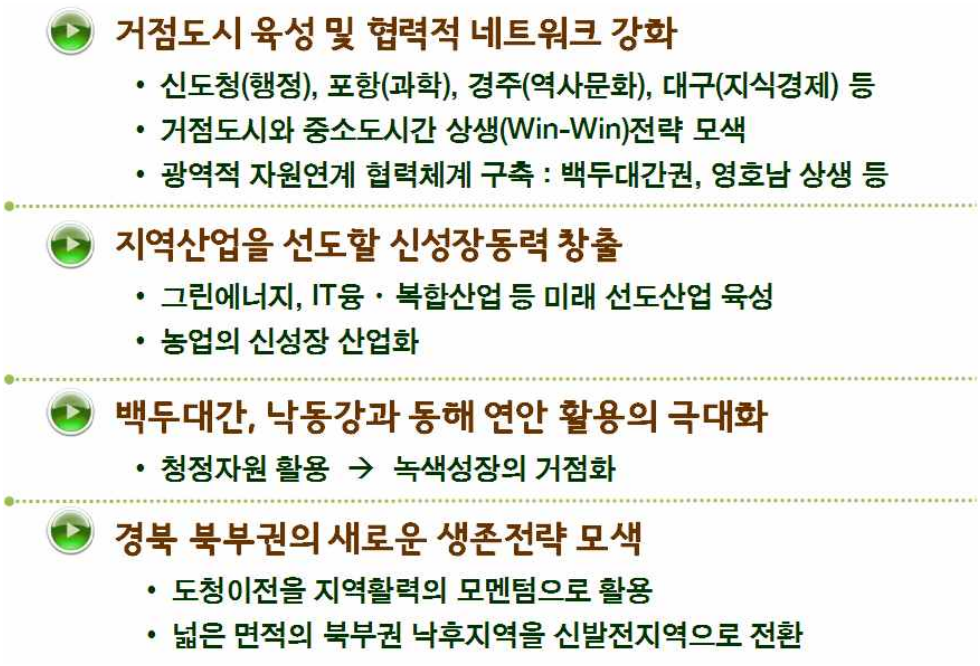
낙동강과 동해 연안 활용의 극대화

○ 청정자원 활용 → 녹색성장의 거점화

경북 북부권의 새로운 생존전략 모색

○ 도청 이전을 발전 모멘텀으로 활용

○ 경북 북부권의 낙후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전환



〈그림 1-45〉 계획 과제 도출

제2편 계획의 기본방향

제1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2장 계획지표의 설정
제3장 공간구조의 설정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1장

계획의 비전 및 목표

제1절 계획의 기본전제

1. 계획의 시각

가. 5대 계획 지향점

개방 지향성

○ 세계화된 경제체제에서 독자적인 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육성

혁신·경쟁성

○ 정보화와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혁신체계 구축과 기업가 정신 함양

환경·쾌적성

○ 지역고유의 생태 및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문화·정주성

○ 지역고유의 전통과 문화의식 고양, 개발의 질적 탁월성 증진, 교육·의료 등 종합적인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정주기반 구축

자율·민주성

○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주민, 대학, 기업 등 지역사회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지역간·국제간 교류·협력을 통한 지역중심의 발전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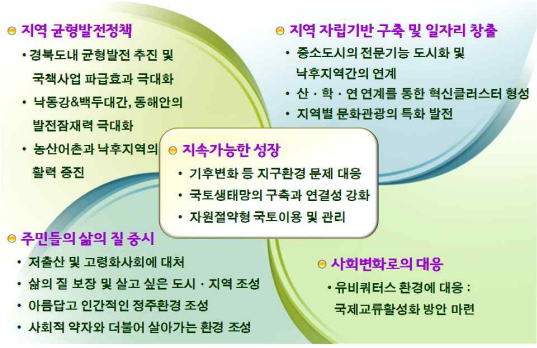
2. 계획의 기본방향

지역의 균형발전

○ 도내 균형발전 추진 및 국책사업 파급효과 극대화

○ 낙동강&백두대간, 동해안의 발전잠재력 극대화

○ 농산어촌과 낙후지역의 활력 증진



〈그림 2-1〉 계획의 기본방향

지역 자립기반 구축 및 일자리 창출

○ 중소도시의 전문기능 도시화 및 낙후지역간의 연계

○ 산·학·연 연계를 통한 혁신클러스터 형성

○ 지역별 문화관광의 특화 발전

주민들의 삶의 질 중시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에 대처

○ 삶의 질 보장 및 살고 싶은 도시·지역 조성

○ 아름답고 인간적인 정주환경 조성

○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성장

○ 기후변화 등 지구환경 문제 대응

○ 국토생태망의 구축과 연결성 강화

○ 자원절약형 국토이용 및 관리

사회변화로의 대응

○ 유비쿼터스 환경에 대응 : 국제교류활성화 방안 마련

제2절 비전 및 목표

1.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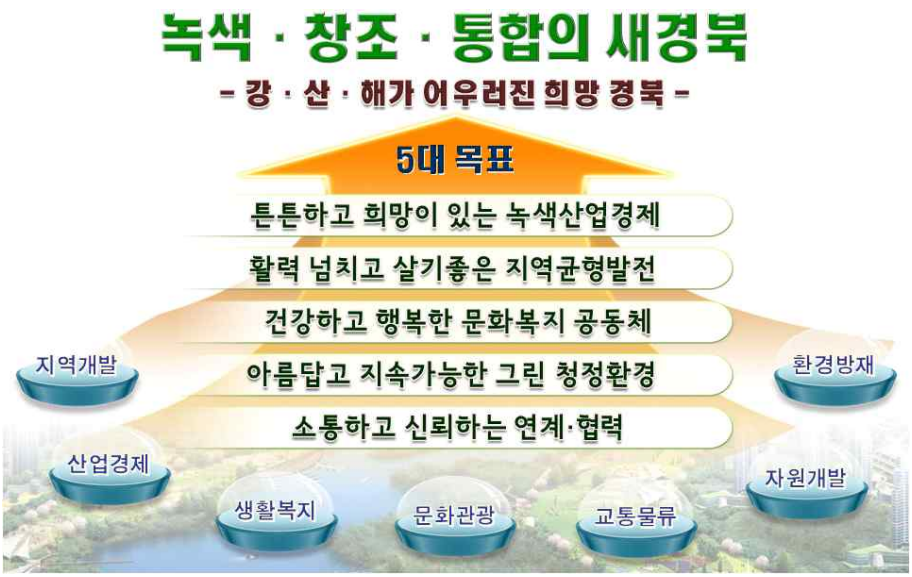
「녹색·창조·통합의 새경북」의 실현

○ 2020년 경북의 발전 비전은 「녹색·창조·통합의 새경북」의 실현으로 설정하고, 강·산·해가 어우러진 희망 경북 지향

- 녹색 : 국토, 교통, 산업, 환경의 지속가능한 녹색화를 추진
- 창조 : 창의에 의한 새로운 가치·공간·제품의 창조를 추진
- 통합 : 연계협력으로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의 통합을 추진

2. 목표

- 튼튼하고 희망이 있는 녹색산업경제
- 활력 넘치고 살기좋은 지역균형발전
-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복지 공동체
-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그린 청정환경
- 소통하고 신뢰하는 연계·협력



〈그림 2-2〉 2020년 경북의 비전과 목표

제3절 추진전략

1. 부문별 추진전략

지역개발	네트워크형 도시개발 및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
산업경제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녹색기술·산업 육성
문화관광	강·산 ·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교통물류	사통팔달 녹색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확충
생활복지	쾌적한 생활 및 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자원개발	녹색성장지향형 지역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환경방재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 ·관리 및 재해지역 구현

2. 기능별 추진전략

통합적 공간개발

○ 공공 주도의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공간적·기능적 요소와 개발행위의 통합화를 도모할 수 있는 통합적 공간개발(Integrated Spatial Development) 전략을 추구함.

상향적·지속가능한 개발

○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가 추진주체가 되는 상향적·지속가능한 개발(Bottom-up & 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관련기관 간의 효율적인 기능분담과 유기적인 상호협력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함.

지역 협력개발

○ 계획구역의 권역별 특성과 비교우위적 자원·인력·기술·생태적 요인

을 분석하여 주도적인 도시기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담화 전략을 모색하고, 권역별 연계에 의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과 협력 기반 강화를 통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함.

3. 부문별 추진방향

추진전략		추진방향	
네트워크형 도시개발 및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	지역개발	• 성공적인 도청신도시의 조성 • 도시간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체계 구축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도시 육성 • 권역별로 특성화된 중심도시 조성
	농어촌 정주	•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추진 • 농어촌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	• 잘사는 부자농촌을 위한 여건 마련 •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녹색기술·산업 육성	농림 수산업	•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 친환경 생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디지털농업 기반 기술의 확대	• 경북형 미래축산 기반 구축 • 가공을 통한 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용방안 모색
	제조업	• 지역 주력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 산업단지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인프라 확충
	서비스업	• 지역 강점형 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 청결하고 신뢰받는 소비형 서비스산업 육성 • 서민밀착형 금융산업 육성
강·산·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문화기반	•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중심 문화예술공급기반 구축	• 문화예술정보 및 자원에의 접근성 제고
	관광기반	• 3대문화권 글로벌관광 기반 조성 • 강·산·해 융합형 광역관광개발 추진 • 관광트렌드 선도형 문화브랜드 발굴 및 육성	• 지역특화산업 연계 관광비즈니스 육성 •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수용태세 확립
사통팔달 녹색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확충	교통	• 대경권 2시간 이내 접근가능한 교통네트워크 구축 • 광역권 철도망 구축	• 복합환승센터 및 물류거점 지정을 통한 환승편의 도모
	물류	• 물류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한 물류시설 정비 • 환경친화적 물류시책사업 구현	• 민간 물류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정보 인프라	• 도민 오감만족 정보화 서비스 개발 • 스마트&그린 행정정보화 서비스 개발	• 지역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한 정보화사업 발굴 • 첨단 안전망 인프라 구축
쾌적한 생활 및 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주택	• 저소득층 주거 복지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의 개선	•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계획 수립
	상·하수도	• 지속가능한 물관리 통합관리환경 조성 • 안정적인 물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추진	• 하수처리시설 최적화 및 차세대 하수도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정보DB 구축
	보건·의료	• 예방과 건강증진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전문성 제고
	사회복지	• 합리적인 복지기반 구축 • 자립성 키우는 예방·투자사업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교육·체육	• 교육 혁신 지원체계 구축 • 교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생활체육 저변 확대
녹색성장지향형 지역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토지이용	• 수요지향적 산업입지 공급체계 마련 • 광역적 통합 토지이용계획 수립 • 녹색성장형 토지이용체계 구축	• 통합적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 난개발 방지시스템 구축 • 농지 및 산지 계획적 관리 규정 마련
	수자원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가 물산업 선도하는 경북 '에코 워터벨트' 조성	• 수(水) 및 수생태 자원 관광마케팅화 •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계획 수립
	해양자원	• 해양과학 R&D 역량 강화 •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 해양관광 활성화
	에너지 및 지하자원	•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대 •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 구축
기후변화에 대응하 환경보전·관리 및 재해지역 구현	환경	• 환경과 개발이 상생하는 기본 틀 마련 • 지속적인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과 자연환경운동 활성화 • 도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공기 조성	• 물환경 보전 및 지역 발전 도모 • 지역이 상생하는 자원순환형 청정 제로 사회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경관	• 경관권역·축·거점 설정 및 특화 • 전략적 특정경관 보전·관리 •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관리	• 도청신도시 녹색경관 창출 • 통합된 경관행정지원체계 마련 • 경관협정에 의한 자치적 관리체제 구축
	안전과 방재	• 선제적인 재해예방, 신속한 재해대응, 완벽한 복구체계 확립 • 24시간 신속한 화재대응체계 확립	• 지속적인 재해방지사업의 발굴과 추진 • 자조(自助)·공조(共助)를 통한 자주방재의 실현

2장

계획지표의 설정

제1절 인구 지표

1. 계획인구

가. 장래인구 전망

○ 계획인구는 경북의 목표와 정책의지 등 제반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측정 지표로서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 또한 계획인구지표는 본 계획의 토지이용, 사회복지, 교육·문화, 주택, 상·하수도 등 도시개발과 서비스시설의 수요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됨.

○ 경북의 인구는 2015년에는 2,513천명, 2020년에는 2,427천명이 될 것으로 전망됨.

〈표 2-1〉 경북 장래인구 추정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20년	2025년	2030년
장래인구	전국추계인구	49,277,094	49,325,689	49,107,949	48,634,571
	경북추계인구	2,513,998	2,427,877	2,334,823	2,236,932
	전국대비비중	5.1	4.9	4.8	4.6
계획인구	등차급수법	2,737,461	2,748,108	2,758,754	2,769,400
	등비급수법	2,737,499	2,748,224	2,758,992	2,769,802
	최소자승법	2,718,605	2,722,192	2,725,780	2,729,367
	생잔법	2,689,530	2,676,392	2,648,236	2,602,500
	평균	2,720,774	2,723,729	2,722,941	2,717,767

주 : 1) 장래인구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2) 계획인구는 경상북도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이용, 2006~2010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해 추정

나. 계획인구 설정

○ 계획인구는 등차 · 등비급수법 등 여러 가지 인구추정기법을 사용, 그 평균을 이용하는 것으로 함.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상의 추정인구는 2020년에 2,427천명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구추정기법을 이용하여 나온 평균은 2,723천명으로 약 300천명의 오차가 있음.

○ 장래인구는 자연적 인구증감을 전제로 하고 사회적 인구증감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계획인구 설정에서는 최저인구 한계선으로서만 설정하기로 함.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에 의해 수립된 각종 계획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목표치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금번 '경상북도 종합계획'에서는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최고인구 한계 3,000천명으로 설정하기로 함.

-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생물산업과 문화·관광산업 육성, 서부지역의 IT 산업 활성화, 대구 근교권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인구유입을 전제로 함.

■ 2020년 경상북도 계획인구 ■

▷ 최저인구 한계 : 2,427천명
▷ 평 균 인 구 : 2,723천명
▷ 최고인구 한계 : 3,000천명

다. 연령별 인구구조

○ 전체인구에 대한 각 연령별 인구구조는 지속적인 혼인율 및 출산율 감소로 0-14세 비율의 감소와 60세 이상 비율의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전체 인구 3,000천명 중 0-14세 318천명, 15-59세 1,803천명, 60-64세 255천명, 65세 이상 624천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표 2-2〉 연령별 인구 배분

(단위 : 명, %)

구분	계획인구	0-14세	15-59세	60-64세	65세 이상
2015년	2,900,615 (100.0)	348,074 (12.0)	1,841,891 (63.5)	188,540 (6.5)	522,111 (18.0)
2020년	3,000,000 (100.0)	318,000 (10.6)	1,803,000 (60.1)	255,000 (8.5)	624,000 (20.8)

주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연령비율을 계획인구에 적용

○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11년 현재 전체 인구의 약 16%에 불과하나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며 목표연도인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전개될 것으로 전망

라. 도시인구 배분

○ 경북의 도시화율은 2010년 77.3%에서 2020년 83.5%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20년까지 경북지역의 도시인구는 연평균 1.46%로 증가하고, 농촌지역 인구는 감소가 둔화되고 정체할 것으로 전망됨.

〈표 2-3〉 도시인구 배분지표

(단위 : 명, %)

구 분	2015년	2020년	연평균 증가율 ('10~2020년)
계 획 인 구	2,900,615	3,000,000	0.68
도 시 인 구	2,327,744	2,505,000	1.46
시 부	1,607,574	1,785,508	1.67
읍 부	720,170	719,492	0.94
농 촌 인 구	897,408	861,667	0.16
도 시 화 율	80.25	83.5	-

주 : 시부인구는 동(洞)인구만 포함

제2절 기타 지표

1. 지표 추이

구 분	단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재정자립도	%	29.6	27.8	28.9	28.7	27.7	29.3
주택보급률	%	102.8	104.4	106.9	109.9	112.0	108.7
도로포장률	%	66.8	69.8	71.8	71.8	72.5	73.2
병원 및 의원수	개	2,167	2,239	2,268	2,322	2,389	2,436
의료 인력	명	6,641	7,118	7,795	8,438	7,275	12,861
의료 병상수	개/천명	8.84	9.83	10.32	11.70	11.83	12.40
사회복지시설	개/10만명	4.69	5.84	5.82	8.12	10.41	13.05
장애인복지시설	개	27	38	44	48	48	35
노인여가복지시설	개/천명	13.17	13.84	13.34	13.38	13.36	13.24
어린이집	개/천명	11.03	12.05	13.30	15.23	16.32	17.67
문화기반시설	개/10만명	90.87	91.72	99.35	106.02	112.96	115.91
도시공원 면적	천㎡/천명	26.19	26.34	26.78	27.33	25.76	26.09
전문 및 대학(원)	개	103	103	106	103	105	110
인터넷 이용률	%	67.2	67.9	69.1	69.5	70.0	68.4
인터넷 이용자수	천명	1,510	1,610	1,640	1,690	1,710	-

2. 기타 지표 설정

구 분	계획지표	단위	2010년	2020년
산업경제	1인당 GRDP	만원	2,980	5,200
	산업단지	개소	122	165
	수출	억불	449	1,000
교통/정보통신	도로포장률	%	73.2	91
	인터넷 이용 비율	%	68.4	95
생활환경	주택보급률	%	108.7	125
	상수도보급률	%	84.9	100
	하수도보급률	%	72.3	95
보건복지	병상률	개/천명	12.3	25
	종합병원	개소	18	40
	사회복지시설	개소	349	550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개소	58	125
	박물관	개소	57	70
	전시시설	개소	11	35
	공연시설	개소	47	80

3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1절 발전축 설정

1. 기본방향

개방형 국토축 형성

○ 단계별 도시공간개발과 권역별 특성화 개발 및 정비를 통하여 정보·과학기술의 혁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국내외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정함.

○ 지역통합과 교류적 공간 배치, 도시기능의 효과적 분산과 배분 및 통합, 지속가능한 균형적 지역발전, 자유지향적·개방적 지역창조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공간구조를 설정함.

연계·협력 발전축 형성

○ 환경친화적 개발과 신지식산업 육성 및 신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공간개발을 주체적 관점, 시간적 차원 및 공간적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 및 기능연계 발전축을 형성함.

다원·다핵 공간구조 구축

○ 지역간 통합 교류가 가능한 공간구조 형성

○ 다양화·복합화·융합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원적 공간구조를 설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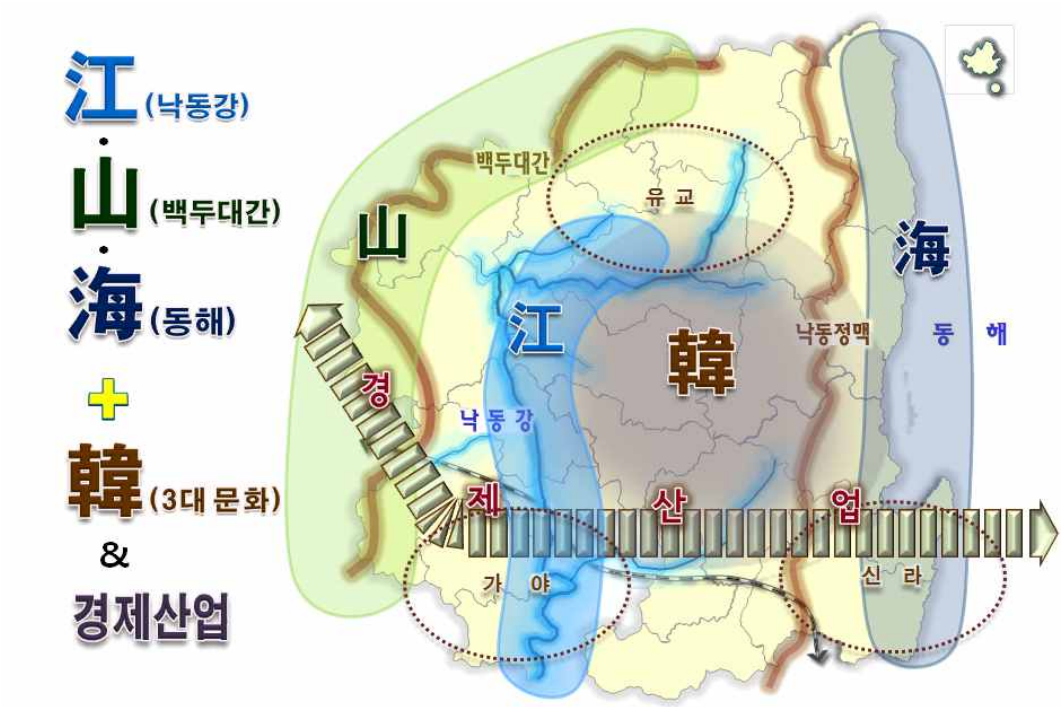
2. 발전 공간구도

○ 2020년 경북의 공간구조는 江(낙동강)·山(백두대간)·海(동해)와 더불어 韓(3대 문화), 경제산업(경부축)을 기본 골격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융·복합될 수 있도록 설정함.

○ 韓(한)은 3대 문화권을 중심으로 쾌적한 자연환경과 유서 깊은 문화적 토양을 기반으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및 국제유교문화제 등 격조 높은 「경북 문화르네상스」를 구현하는 등 문화를 지역발전의 핵심동력으로 활용

- 북부권을 중심으로 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세계적인 유교문화의 메카로 육성하고,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권 개발과 동해안지역을 연계하여 국제해양관광지대로 개발하고, 고령·성주의 가야문화 보존·정비와 가야산 국립공원 개발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구조를 설정함.

○ 江(낙동강)은 신 낙동강시대 개발에 맞추어 소통과 경제의 신 거점으로 조성하고 사람과 자연,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인 강 모델로 정립



〈그림 2-3〉 2020년 경북발전 공간 구도

○ 山(백두대간)은 희망의 산줄기인 백두대간·낙동정맥을 중심으로 Eco&Biz벨트를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녹색레저 휴양공간 및 소득을 창출하는 생태 비즈니스 모델로 확립

○ 海(동해)는 본격적인 동해안 천리 바다 플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주, 포항, 영덕, 울진, 울릉을 「문화 삼각코리도」로 형성하여, 남북통일과 동북아경제권의 교류증진에 대비하고,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

3. 발전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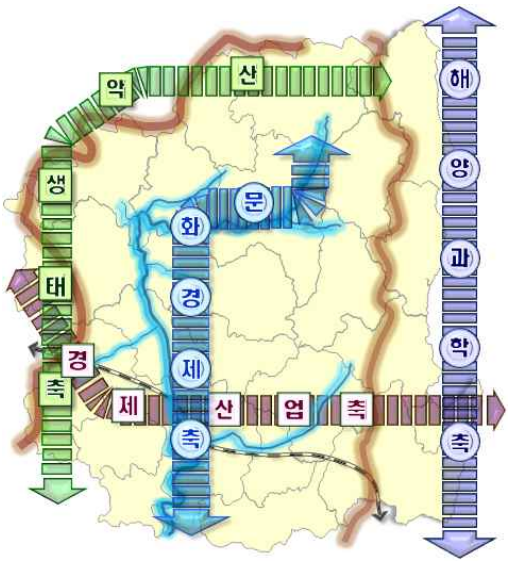
3대 초광역축

○ 2020년 경북은 낙동강과 동해안, 백두대간이 초광역 중심축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낙동강축, 동해안축, 백두대간축을 3대 초광역축으로 설정

4대 지역발전축

○ 경북이 江(낙동강)·山(백두대간)·海(동해)와 韓(3대 문화)을 활용한 창조·연대·녹색의 새경북으로 도약을 지향하기 위해 4대 지역발전축을 설정

〈그림 2-4〉 3대 초광역축



〈그림 2-5〉 4대 지역발전축

- 산악생태축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Eco & Biz벨트 설정
- 문화경제축 : 낙동강을 중심으로 관광·바이오벨트 설정
- 경제산업축 : 구미~대구~포항을 연계한 하이테크·융합벨트 설정
- 해양과학축 : 동해안을 중심으로 에너지·과학벨트 설정

○ 3대 초광역축을 보완하기 위하여 4대 지역발전축을 설정하여 정부의 광역권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창조적 지역발전 선도

제2절 생활권 설정

1. 생활권 위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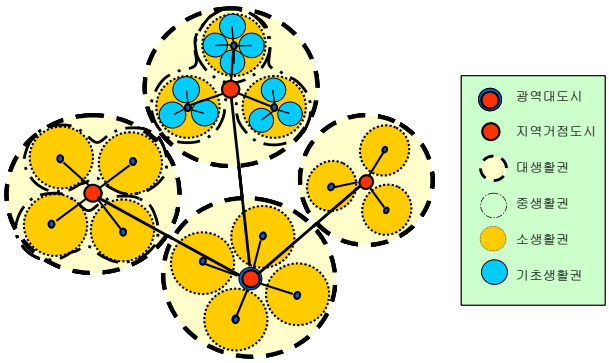
상위계획과 기존계획 수용 + 기능적 보완

○ 본 계획에서의 생활권 설정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및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과 동일한 형태로 생활권을 구분하되, 생활권 변화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능적 측면을 보완하는 방향에 초점을 둠.

○ 지역발전의 구심적 기능을 가진 지역거점 중심도시를 중심으로 각종 기능배치 및 개발사업 고려와 지역편제를 재검토해야 하는 당위성에 입각하여 도시의 위계와 생활권의 체계화를 동시에 고려함.

대-중-소-기초생활권으로 위계화

○ 본 계획의 생활권 위계구분은 상위계획인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과 장래 경북의 발전축 및 경북도 전체의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4개의 중심대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중생활권은 대생활권의 지리적·기능적 특성을



〈그림 2-6〉 도시의 위계와 생활권 체계도

고려하여 2개의 생활권으로 분리하여 계획함.

- 소생활권 체계는 기존의 생활권 체계를 유지하되 생활권별 유기적 연계 체계를 고려하여 지역중심생활권과 그 배후지역 생활권과의 연계, 입지 여건, 주변여건변화 등을 감안하여 설정

2. 생활권 설정

시·군 지역의 특수한 조건 고려하여 설정

○ 본 계획의 생활권 설정은 지역거점 중심도시가 지니고 있는 도시 서비스 기능 등을 여타 주변생활여건으로 연계하여 분산투자에 따른 지역자원의 낭비를 방지함.

○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공급의 자족성 증진을 목적으로 기존 상위계획의 수용, 도농통합에 따른 시설이용권과 지리적 특성 및 시·군지역이 지닌 특수한 조건을 고려하여 구분함.

○ 경북의 생활권은 대도시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생활권,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연안생활권, 산업 및 자원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특화생활권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4개의 대생활권

○ 북부자원권(8개 시·군) :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

○ 동부해양권(5개 시·군) :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 서부산업권(3개 시) : 김천시, 구미시, 상주시

○ 남부도시권(7개 시·군) : 영천시, 경산시,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그림 2-7> 생활권 설정

8개의 중생활권과 23개의 소생활권

○ 중생활권은 대생활권과 소생활권·기초생활권간에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분하며, 소생활권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생활권별로 효율적인 정주공간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함.

○ 북부자원권은 북부권의 중심역할 수행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영주시를 중심으로 하는 문경, 예천, 봉화 등 북북권과 안동시를 중심으로 의성, 청송, 영양 등의 북남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중생활권 규모의 인구정착을 유도하고 지구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

〈표 2-4〉 위계별 생활권의 구성

대생활권	중생활권	소생활권	기 초 생 활 권
북부자원 생활권	북북권	영주권	동지역, 풍기읍, 이산면, 평은면, 문수면, 장수면, 안정면, 봉현면, 순흥면, 단산면, 부석면
		문경권	동지역, 문경읍, 가은읍, 영순면, 산양면, 호계면, 산북면, 동로면, 마성면, 농암면
		예천권	예천읍, 용문면, 상리면, 하리면, 감천면, 보문면, 호명면, 유천면, 용궁면, 개포면, 지보면, 풍양면
		봉화권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춘양면, 소천면, 석포면, 재산면, 명호면, 상운면
	북남권	안동권	동지역, 풍산읍, 와룡면, 북후면, 서후면, 풍천면, 일직면, 남후면, 남선면, 임하면, 길안면, 임동면, 예안면, 도산면, 녹전면
		청송권	청송읍, 부동면, 부남면, 현동면, 현서면, 안덕면, 파천면, 진보면
		영양권	영양읍, 입안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
		의성권	의성읍, 단촌면, 점곡면, 옥산면, 사곡면, 춘산면, 가음면, 금성면, 봉양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단북면, 안계면, 다인면, 신평면, 안사면, 안평면
동부해양 생활권	연안북권	울진권	울진읍, 평해읍, 북면, 서면, 근남면, 원남면, 기성면, 온정면, 죽변면, 후포면
		영덕권	영덕읍, 강구면, 남정면, 달산면, 지품면, 축산면, 영해면, 병곡면, 창수면
		울릉권	울릉읍, 서면, 북면
	연안남권	포항권	동지역, 구룡포읍, 흥해읍, 연일읍, 오천읍, 신광면, 청하면, 송라면, 기계면, 죽장면,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대보면, 기북면
		경주권	동지역, 감포읍, 안강읍, 건천읍, 외동읍, 양북면, 양남면, 내남면, 산내면, 서면, 현곡면, 강동면, 천북면
서부산업 생활권	강서 내륙권	김천권	동지역, 아포읍, 농소면, 남면, 개령면, 감문면, 어모면, 봉산면, 대항면,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상주권	동지역, 함창읍, 사벌면, 중동면, 낙동면, 청리면, 공성면, 외남면, 내서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화서면, 화북면, 외서면, 은척면, 공검면, 이안면, 화남면
	강동 내륙권	구미권	동지역,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옥성면, 도개면, 해평면, 산동면, 장천면
남부도시 생활권	동부권	경산권	동지역, 하양읍, 진량읍, 와촌면, 자인면, 용성면, 남산면, 압량면, 남천면
		영천권	동지역, 금호읍, 청통면, 신령면, 화산면, 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북안면, 대창면
		청도권	청도읍,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 운문면, 금천면, 매전면
		군위권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우보면, 의흥면, 산성면, 고로면
	서부권	칠곡권	왜관읍, 석적읍, 북삼읍, 지천면, 동명면, 가산면, 약목면, 기산면
		성주권	성주읍, 선남면, 용암면, 수륜면, 가천면, 금수면, 대가면, 벽진면, 초전면, 월항면
		고령권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다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 동부해양권은 연안을 따라 산업과 관광의 비중에 따라 영덕, 울진, 울릉이 포함된 연안북권과 포항과 경주가 속한 연안남권으로 중생활권을 구분

○ 서부산업권인 경우 중생활권은 낙동강을 기준으로 강서내륙권은 김천을 중심으로 한 김천권과 북부의 상주권 등 2개 소생활권으로 구성되며, 강동내륙권은 구미를 중심으로 구미권 정주체계 형성

○ 남부도시권의 중생활권은 동부권과 서부권으로 구분하고, 동부권은 남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산권, 북부의 군위권, 영천권, 남부의 청도권 등 4개 소생활권, 서부권은 칠곡권, 성주권, 고령권 등 3개 소생활권으로 구분

3. 생활권별 발전방향

가. 북부자원권

비전 및 목표

○ 비전 : 신발전 거점 : 백두-낙동 그린파라다이스

○ 목표 : 세계적 문화환경지역, 국토의 신발전거점, 녹색산업기반지역, 고품격 정주도시

발전방향

○ 공간구조 : 1Hub-2Port, 2X3 네트워크, 3 특화벨트

○ 중심기능 : 행정/업무, 문화웰빙, 청정농업, 건강

○ 발전방향

- 도청신도시의 중추도시화
- 고부가 녹색 신성장동력 창출
- 협력을 통한 경쟁력 기반 강화
- 그린-컬처노믹스 실현
- 지역사회변화 대응 정주기반 강화

- 광역인프라 구축
- 수도권 및 세종시와의 연계성 강화

〈그림 2-8〉 북부자원권 공간발전 구상

나. 동부해양권

비전 및 목표

○ 비전 : 신해양시대 녹색산업 및 해양관광의 중심

○ 목표 : 첨단 R&D기반의 녹색산업 거점, 오감체험형 역사문화, 해양관광 거점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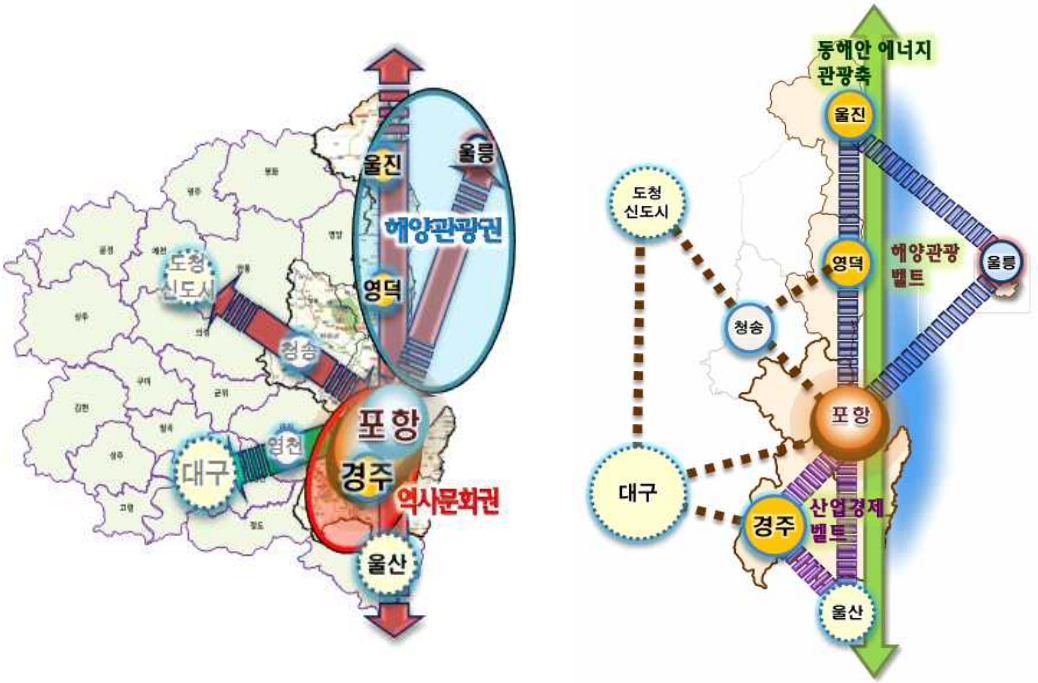
○ 공간구조 : 1 허브 (포항+경주), 3 지역거점 (영덕, 울진, 울릉)

- 관광축(동해안 에너지) + 2 관광권 (역사문화, 해양)
- 경제·관광벨트 : 산업경제, 해양관광

○ 중심기능 : 과학기술, 에너지산업 / 역사문화, 해양관광

○ 발전방향

- 가속기 기반의 첨단 R&D 클러스터화
- 주력 및 신성장 산업의 구조고도화
- 동해안 관문기능 강화
- 역사문화 정체성 강화
- 해양산림 복합관광산업 육성



〈그림 2-9〉 동부해양권 공간발전 구상

다. 서부산업권

비전 및 목표

○ 비전 : 세계로 열린 첨단산업 네트워크 도시

○ 목표 : IT융복합산업 글로벌 거점 도약, 녹색산업 관문 육성, 녹색 성장 도시화 선도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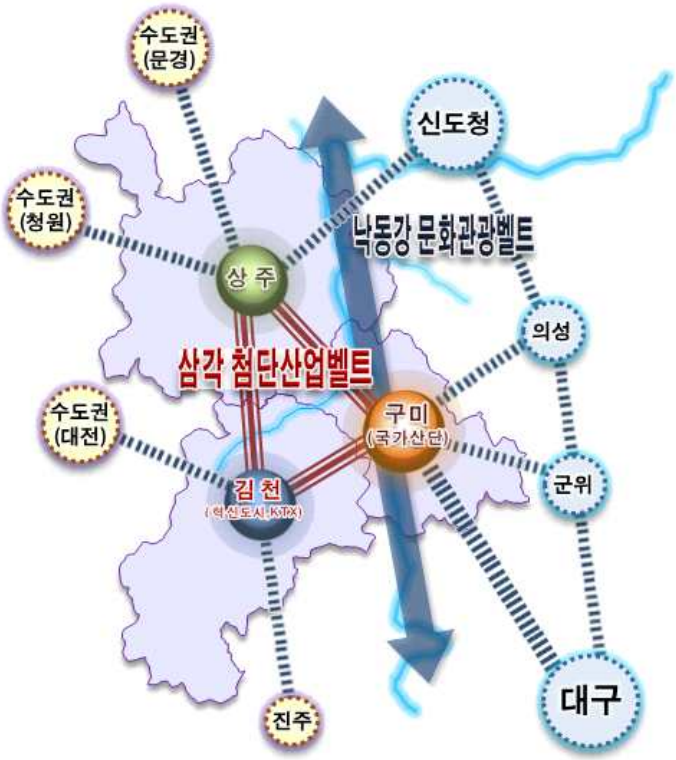
○ 공간구조

- 삼각 첨단산업벨트(IT융합벨트) : 김천~구미~상주
- 낙동강 문화관광벨트 : 상주~구미·김천~신도청·의성
- 녹색산업지대 : 구미·김천

○ 중심기능 : IT융복합산업, 주력산업 고도화 / 녹색산업

○ 발전방향

- IT기반 신산업밸리형 도시권 육성
- 낙동강 녹색문화·관광벨트 구축
-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광역교통체계 구축으로 연계성 제고



〈그림 2-10〉 서부산업권 공간발전 구상

라. 남부도시권

비전 및 목표

○ 비전 : 차세대 지식기반서비스 연합도시

○ 목표 : 수송시스템산업(자동차부품 등) 전략적 육성, 한방/의료산업 기반 구축

발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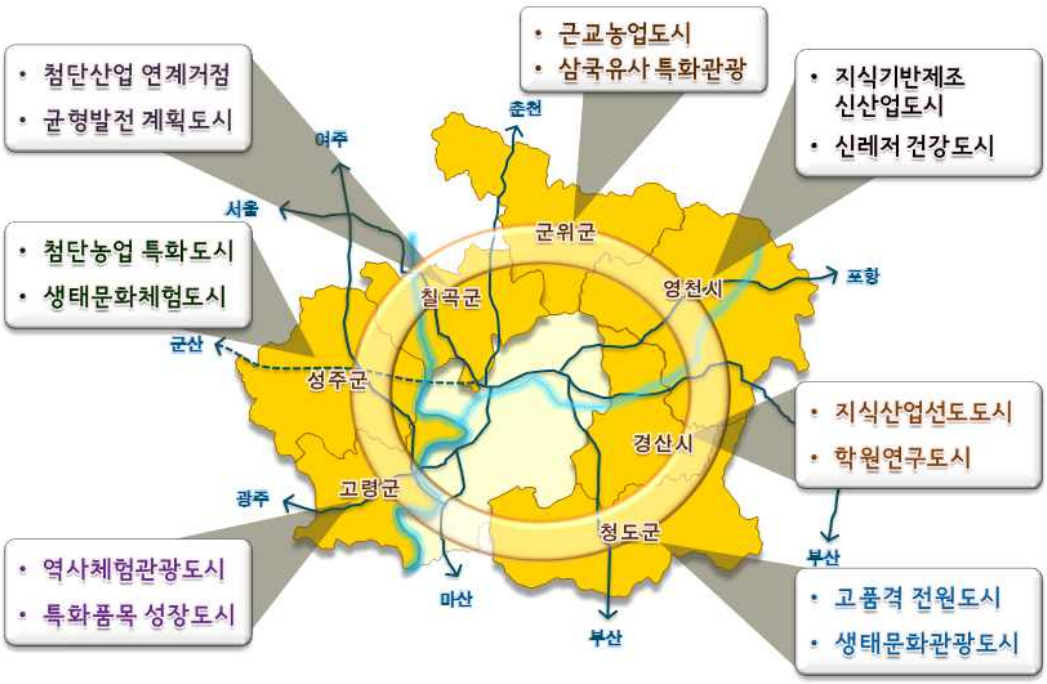
○ 공간구조 : 환상형 도시연계벨트

- 영천시~경산시~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군위군 연계

○ 중심기능 : 인재, R&D, 의료, 문화

○ 발전방향

- 지식창조형 성장거점 개발 : 경제자유구역(경산, 영천)
- 주력산업 지식산업화 및 신성장 지식산업 육성
- 낙동강·금호강 생태문화밸리 형성
- 팔공산권 문화코리도 및 가야문화권 리뉴얼 프로젝트
-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지역대학 네트워크 구축



〈그림 2-11〉 남부도시권 공간발전 구상 및 도시별 특화기능

제3편 부문별 추진계획

제1장 네트워크형 도시개발 및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

제2장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녹색기술산업 육성

제3장 강·산·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제4장 사통팔달 녹색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확충

제5장 쾌적한 생활 및 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제6장 녹색성장지향형 지역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제7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관리 및 재해안전지역 구현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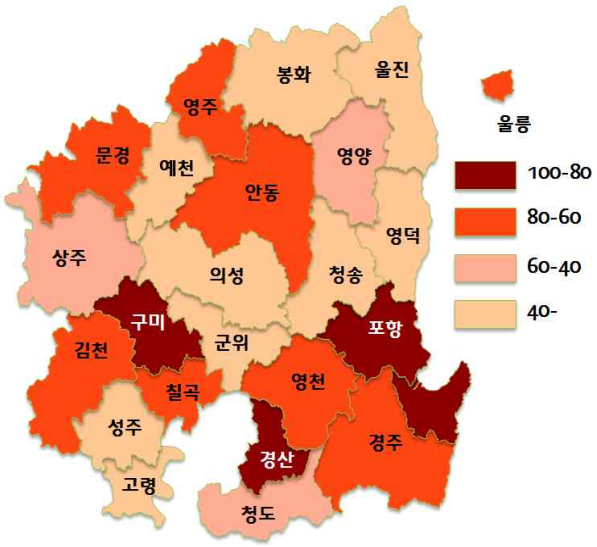
네트워크형 도시개발 및 농어촌 정주기반 강화

제1절 지역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생산인구 부재와 지역발전 역량격차

○ 젊은 연령층의 농촌 이탈로 인한 생산인구의 부재와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지역발전 견인 연령층이 감소하고 있으며, 군부지역은 매우 심각한 수준



〈그림 3-1〉 도시화율

○ 경부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중서부내륙권과 남부도시권에 비해 봉화·영양·청송·예천·울진·의성 등 경북 북부권과 대도시 인근의 농촌도시(군위·성주·고령·청도)는 인구유출로 지역발전 역량쇠퇴

거점도시의 지역적 편중 및 기능의 격차

○ 도시화율이 높은 포항, 구미, 경산은 산업과 학원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으나, 모두 경북 남부지역에 치우쳐 있음.

○ 상대적으로 북부권역은 지역발전에서 소외되고 안동·영주·문경은 북부권역의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해 북부권역과 남부권역의 불균형이 지속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 쇠퇴

○ 교통·정보통신 발달과 주변 대도시 성장, 대형할인점 출점 등에 따라 기존 중소도시의 중심시가지 상권 및 기능이 약화

○ 자생력이 약한 중소도시 중심시가지의 물리적 시설 및 공간적 노후화로 인한 어메니티(amenity) 저하

도시환경의 악화와 이에 따른 삶의 질 저하

○ 중소도시 중심시가지기능 약화와 인구감소는 기반시설 및 민간투자 미비로 이어져 도시환경을 악화

지역간 불균형발전과 지역낙후도 가속화

○ 수도권 집중화의 가속, 열악한 지역개발여건, 재정확보의 어려움, 공간 경쟁력 취약과 낙후이미지 저하, 지역산업 공동화 등으로 지역낙후현상 지속

○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지역혁신을 유도할 기반인프라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으며, 중앙정부의 하향적 사업추진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최적의 정책수립 곤란

○ 중앙정부의 낙후지역개발정책이 국지적·개별적·단편적으로 추진되고, 사회간접자본이 계획적·광역적으로 연계되지 못하여 비효율적

2. 여건변화와 전망

정부의 3차원 입체 지역발전정책 추진

○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공간단위를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경제권 등 3차원으로 구분하고, 공간단위에 자율성을 부과함과 동시에 지역간 연계·협력사업을 장려

○ 기초생활권 : 전국 어디에서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보장을 위해 163개 시·군 단위 자율로 기초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포괄보조금제도 운영으로 자율적 연계·협력사업 발굴기반 마련
- 일반농산어촌지역, 도시활력증진지역, 도서지역,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각종 낙후지역제도 통합)

○ 광역경제권(5+2) : 지역경쟁력 강화와 특화발전을 위해 5개 광역권역에 5년간 패키지형(인프라, 산업·인력육성) 집중투자, 광역경제권 토대 형성

- 30대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권역별 3~5개)
- 광역권 선도사업 육성(권역별 1~2개)
- 선도사업 관련 인재양성(19개 거점대학 지정)
- 권역별 광역위가 중심이 되어 광역권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시·도간 연계·협력사업을 발굴

○ 초광역개발권(4+α) : 광역경제권간 상생발전과 동북아 시대를 향한 국가간 지역개발 협력을 위해 동·서·남해안 및 남북교류·접경벨트 등 대외개방형 4개벨트 기본구상

- 초광역 개발벨트를 중심으로 국가경쟁력 차원의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연계·협력사업 발굴
-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초국경적 지역개발 협력기반 구축

내발적 발전과 도시간 연계협력 추구

○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 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연계·협력에 의한 규모의 경제 추구

○ 지역간 경쟁보다 지역 특색에 맞춘 차별화와 지역 스스로 발전을 추구하는 내발적 발전전략을 통해 자율성 강화

○ 기초생활권간, 광역경제권을 구성하는 주체간 등 지역 상호간 보완적 협력 관계 형성 등 상시적 협력을 추구

지방도시 도심재생으로의 도시관리 패러다임 전환

○ 개발위주의 도시관리에서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살릴 수 있는 도심재생으로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

○ 품격있는 국토 · 도시환경 창출과 노후화된 구도심의 활력 창출 및 도심공동화를 방지하여 새로운 도시성장의 기반을 마련

3. 계획 방향

가. 목표

협력과 기능 재편을 통한 네트워크형 도시 개발과 정비

○ 연계와 협력의 네트워크형 도시공간체계 구축

○ 거점도시 육성으로 균형발전과 지역성장을 선도

○ 기존 도심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정비

나. 추진방향

성공적인 도청신도시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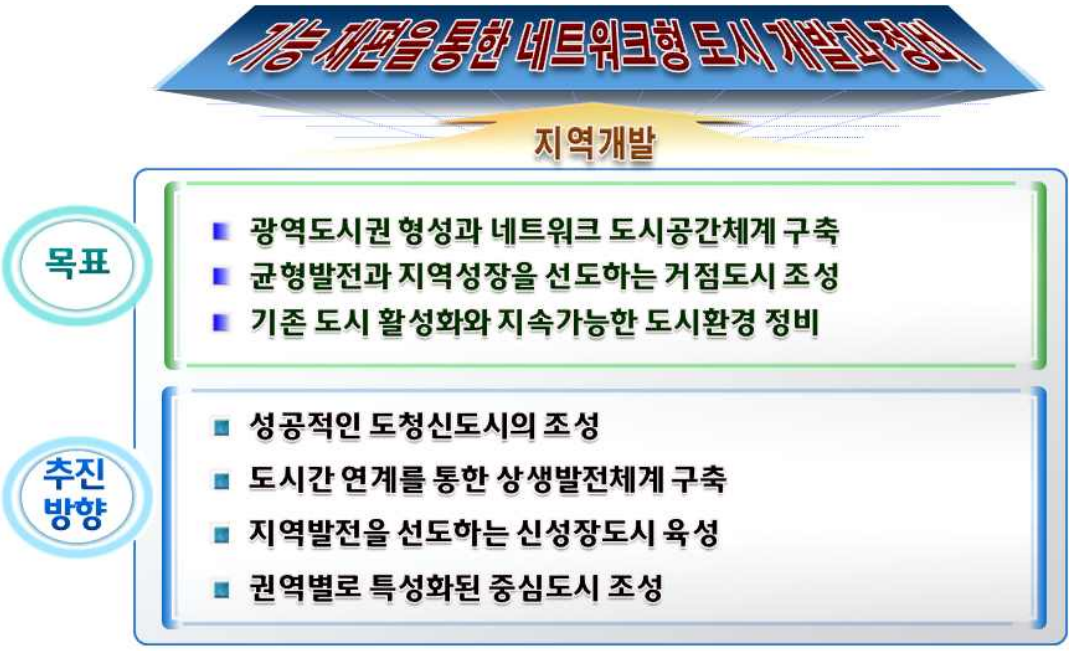
○ 성공적인 도청이전 신도시의 건설과 함께 주변도시와의 상생발전 체계 구축

- 도청신도시권 자치단체들간의 경쟁적 개발로 인한 중복·상충의 문제를 극복하고 도청신도시 광역계획권의 유기적인 기능네트워크 형성

○ 문화도시, 생태도시, 행정 지식산업도시에 부합하는 행정복합중심도시 조성

도시간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체계 구축

○ 대도시와 중소도시, 중소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각 도시의 전문화와 상호보완관계를 제고하고 혁신을 창출하여 새로운 경쟁력 확보



〈그림 3-2〉 지역개발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도시 조성

○ 도청신도시, 혁신도시 및 권역별 거점도시를 공간중심권으로 육성

○ 도청신도시의 성공적 조성과 대경광역권 중추관리도시화 전략 추진

○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거점 개발을 통해 새로운 수요에 대응

○ 도청이전 및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행정타운과 자족인프라 구축

○ KTX 정차도시를 광역교통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집결·확산하는 거점도시권 육성

○ 역사문화자원과 연계한 창조도시, 슬로시티 구축

권역별로 특성화된 중심도시 조성

○ 국책사업과 연계한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광자원화와 산업화를 이룩하여 지역개발의 거점지역으로 활용함으로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 역사문화자원, 산업자원, 지역특성화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산업화를 통해 지역간 특화벨트화하고 부가가치의 제고와 경쟁력을 갖춘

차별화된 청정환경 기반의 관광·문화·산업벨트를 구축하여 지역개발을 주도

○ 고령화, 다문화사회 등 지역사회 변화에 대비하여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및 고령친화형 사업 도입, 지역사회단위의 공동경제활동, 도심지 노후로 인한 도심재생 등의 정주기반 강화

4. 추진계획

성공적인 도청신도시의 조성

○ 전통문화와 생태환경, 행정·지식이 융합되는 압축도시 조성

- 경북 신성장을 선도하는 행정·지식산업도시
-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문화도시
-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전원형 생태도시

○ 경북의 중추관리도시로서 허브기능 강화

- 경북의 다차원적인 허브와 종합지원기능 부여
- 도청신도시는 지역의 행정·지역정치 중심도시이자 중소도시연합체의 리더도시로서 지역의 상징적 이미지와 함께 행정·지식기반도시로 역할 수행
- 도청신도시와 주변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특화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주도하고, 공동협력을 통한 지역간 경쟁요소를 조정하여 상생발전방안을 마련

도시간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체계 구축

○ 미래에 대비한 성장관리체계 및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대구 대도시권 및 포항, 구미 등의 시가지 확장에 따른 대도시권 형성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성장 관리체계 구축
- 대구·경북경제권과 연계하고,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신도시와 기존도시간의 기능과 특색을 살린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대구를 국제비즈니스 및 연구개발기능, 포항을 국제물류거점기능, 경주를 국제역사문화도시, 구미를 첨단유비쿼터스도시로 육성하는 등 대구포항권의 도시기능을 특화·상호 연계하여 발전을 도모

○ 광역협력 기반구축으로 글로벌 도약 역량 강화

- 도청신도시~행정수도(세종시) 연결 신발전축 구축

- 수도권, 충남·충북도와 협력체계 강화

○ 포항-대구-구미-안동을 연결하는 다이아몬드형 광역도시권 형성

○ 체계적인 성장관리와 지역경제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광역 네트워크 도시체계(대구-구미-포항 등) 구축

〈그림 3-3〉 광역협력 구축 체계

- 도시 규모 및 특성, 인접 도시와의 기능적 관련성을 고려하여 시·군의 주된 도시 기능 및 역할 설정으로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지역간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도시 조성

○ 역동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개념의 거점 개발

- 고속철도 역세권을 지역발전 혁신 거점지구로 조성하여 신개념의 신공간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제고

○ KTX, 진입로, 철도 등 SOC확충을 통한 경북드림밸리의 활성화

○ KTX역세권을 중심으로 거점도시권을 형성

- KTX 역사와 연계한 혁신도시 및 중추도시 건설을 통해 미래 도시발전의 중심축을 형성

- KTX역사를 중심으로 한 혁신도시 및 중추도시간 연계교통망 구축을 통해 주변도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계기로 활용

권역별로 특성화된 중심도시 조성

○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수립

- 북부자원권 : 네트워크형 도시체계 구축, 농업비즈니스파크·지연산업 클

러스터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지역특화산업 기반 조성

- 서부산업권 : IT기반 신산업밸리형 도시권 육성, 거점단지를 연계한 주력산업기반의 광역클러스터 구축
- 남부도시권 : 대도시권과의 광역교통망 구축으로 네트워크도시 기반 마련, 주력산업 지식산업화 및 신성장 지식산업 육성
- 동부해양권 : 철강 및 첨단소재 R&D기능 강화와 신소재부품 관련 기술 개발로 기간산업의 고부가치화 추진, 원자력발전, 풍력발전, 태양광에너지,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산업기반 확충

○ 강·산·해의 낙동강, 백두대간·낙동정맥, 동해안 특성화자원을 활용한 녹색성장거점 조성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추진

○ 북부자원권은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국립백두대간 테라피단지와 연계가능한 백두대간 산림바이오테크노파크 조성으로 산림바이오벨트를 조성하여 백두대간 산림연구의 핵심기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고령화 및 다문화사회에 대비한 지역사회 기반 강화

- 고령친화모델을 도시지역으로 확대·적용하여 고령친화형 도시 조성
- 기초생활권 및 읍면단위 개발사업에 고령친화형 사업 도입
- 농촌마을사업에 있어서 고령자 경제활동 사업 우선 도입
- 사회적 노인일자리와 관광부문 다문화일자리 지원

제2절 농어촌 정주기반

1. 현황 및 문제점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 경북의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음. 특히 14세 이하의 유아 및 아동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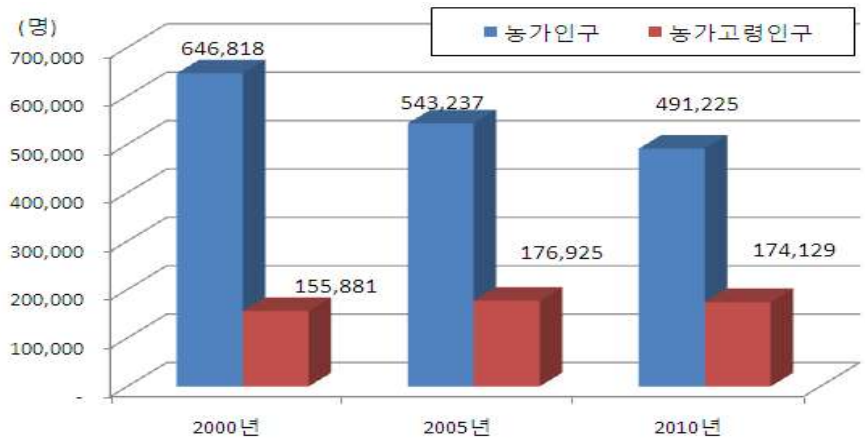
〈표 3-1〉 농촌의 아동 및 노년인구 현황

(단위 : 명, %)

구분	농촌인구		14세 이하 인구		65세 이상 인구	
	2005년	2010년	2005년	2010년	2005년	2010년
전국	3,433,573	3,062,956	335,085	270,392	999,306	972,679
			9.8	8.8	29.1	31.8
경북	543,237	491,225	42,793	36,002	176,925	174,129
			7.9	7.3	32.6	35.4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10

○ 어촌인구도 '00년 17,642명에서 '05년 14,998명, '10년 10,422명으로 계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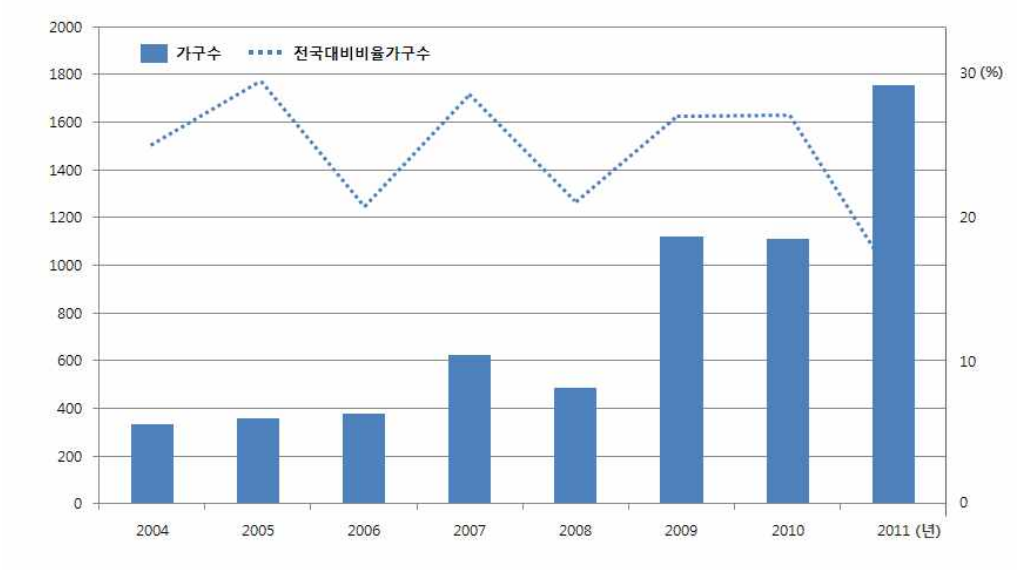
〈그림 3-4〉 농가인구 및 65세 이상 농가인구 추세

○ 농촌인구의 감소는 둔화되어가고 있으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음. 또한, 귀농·귀촌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농촌인구의 감소에는 미

치지 못하고 있어 농촌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 농산어업의 주요 생산자인 면소재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 또한, 친환경 농업, 명품생산 농업, 원예나 축산 등의 농업구조 다양화에 대비한 영농인력의 준비가 필요

○ 50~60년대 출생한 베이비 부머 세대의 귀농·귀촌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성공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 필요



〈그림 3-5〉 경북의 귀농·귀촌 가구수 및 전국대비 비중

학생감소와 교육환경 열악

○ '10년 농어촌 행정리 중에서 유치원이 있는 곳은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고, 초등학교는 10.0%를 차지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2.3%에 불과

- 학생감소로 인한 통폐합으로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늘어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통폐합으로 통학에 3시간 이상 소요되는 행정리가 704개소나 됨.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학생들이 도시로 전학하고 있고, 교원의 근무기피로 교육여건이 계속 악화

- 소규모 학교의 정상수업 불가능과 복식수업이 불가피하고, 교사확보의 어려움으로 비전공자의 교사활동으로 수업의 부실을 초래하고, 교육비의 부담도 가중

〈표 3-2〉 교육시설 현황(행정리 내)

(단위 : 개, %)

구분	총마을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경북	5,115	468	9.1	511	10.0	233	4.6	118	2.3
읍부	1,060	155	14.6	143	13.5	65	6.1	55	5.2
면부	4,055	313	7.7	368	9.1	168	4.1	63	1.6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10

○ 농산어촌학교의 교육의 질과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우수 학생들이 도시로 전학가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교육환경의 개선이 필요

- 학생수가 적어 교육과정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비전공선생의 강의 및 소규모 학교의 수업의 질에 대한 제고가 필요

- 전학학생은 수업료 외에 하숙비와 자취비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에서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

의료복지시설 및 의료인프라 부족

○ '10년 농어촌마을 중에서 약국이 있는 마을은 전체마을수의 10.1%를 차지하고 있고, 보건소는 9.9%, 종합병원은 0.4%에 불과할 정도로 의료복지시설이 부족

- 의원이나 한의원이 인근에 있는 마을은 349개 마을 뿐이며 나머지는 거주지로부터 수km이상 떨어진 곳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함.

- 농산어촌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정도이나 의료인프라는 90% 이상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고, 의료장비의 낙후 및 응급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의 공급이 어려움.

〈표 3-3〉 의료시설 현황(행정리 내)

(단위 : 개, %)

구 분	총마을수	약국(약방)		보건진료소		보건소		병의원, 한의원		종합병원	
경북	5,167	524	10.1	490	9.5	509	9.9	349	6.8	22	0.4
읍부	1,116	208	18.6	80	7.2	90	8.1	178	15.9	13	1.2
면부	4,051	316	7.8	410	10.1	419	10.3	171	4.2	9	0.2

자료 : 통계청, 「통계정보(KOSIS)」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2010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미흡

○ 농산어촌의 기초생활여건 정비는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도시에 비해서 미흡한 수준

- 넓은 면적에 마을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기초생활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효과가 미흡
- 연안어업 활성화를 위한 수산자원 보전과 재해로부터 소규모 어선의 안전정박 및 어민소득 증대를 위한 수산업 기반시설 확충 필요

○ 상품화 가능성이 있는 향토자원이 산재되어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발굴·육성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이 미흡

- 향토자원의 현황 파악과 상품화, 마케팅 및 컨설팅 등의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
- 지적재산권 등 권리의식이 부족

○ 농산어촌의 도시민의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 부족으로 농산어촌의 관광상품화에 어려움

- 민박농가의 숙박시설 열악, 체험시설, 특산물 관람 및 채집 등의 전략적인 관광상품화가 미흡

○ 대도시 인구집중 문제를 해결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한 농산어촌의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나 부처간 추진주체의 상이로 효과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각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중복개발 또는 개발 소외지역이 발생
- 소도읍과 면소재지 중심의 생활환경 개선과 교육·의료·행정 등의 기반시설 정비가 요구

○ 취약한 복지기반과 소득기반, 정주기반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개발정책과 정책의지가 요구

- 농가소득의 정체와 취약한 복지기반, 정주기반 등의 여건이 인구감소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인구감소는 정주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므로 정주여건의 강화가 시급

2. 여건변화와 전망

농어촌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종합적·체계적인 개발 추진

○ 농촌이 생산공간에서 생산·정주·휴양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중앙주도의 개발방식에서 지방주도의 개발방식으로 정책추진 변화

○ 물리적 정비 뿐만 아니라 개성과 창의, 주민참여 등을 강조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시킨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정책이 추진 중

○ 선택과 집중, 인센티브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자생력 확보를 위한 개발 및 도농상생, 귀농·귀촌 정책 강조

○ 기초생활권에 대한 24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포괄적 재정 지원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의 비효율성을 없애고, 지역의 자율적인 계획의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아이디어와 기획력, 리더십 등 종합정책수행역량을 강화

○ 농업인 대상 소규모 생활환경 정비에서 농어촌의 정주환경 개선, 산업다각화, 교육·복지·문화 서비스 수준 제고, 환경과 경관 개선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지역개발 추진

다양한 귀농·귀촌정책의 추진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와 이에 따른 노후대비를 위해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

○ 새로운 일자리 제공과 농어촌의 신규인력 유입에 따른 활력 창출을 위해 귀농·귀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창업기반마련을 위한 시설 조성 및 컨설팅 추진

3. 계획 방향

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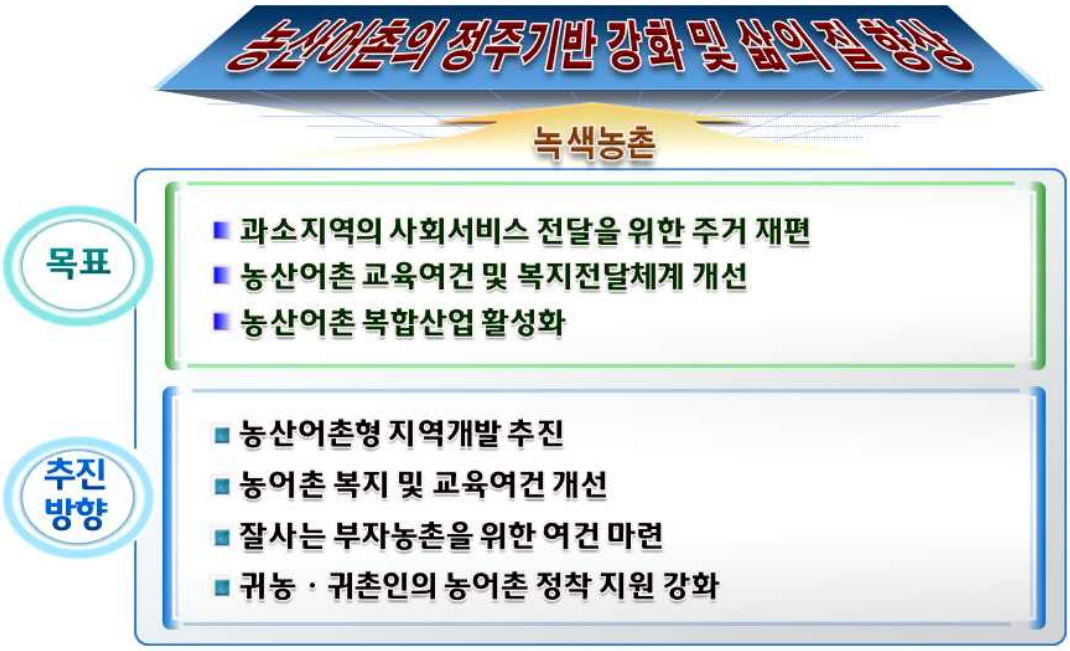
농산어촌의 정주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 과소지역의 사회서비스 전달을 위한 주거 재편
- ○ 농산어촌 교육여건 및 복지전달체계 개선
- ○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나. 추진방향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추진

- ○ 농산어촌 미래형 복합생활공간 조성
- ○ 자립형 정주공간 조성을 위한 과소지역 집락재편 : 이산된 주거 재편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



〈그림 3-6〉 농어촌정주기반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농어촌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

○ 생산과 교육 및 복지를 통합한 지역사회 공동체 육성

○ 농촌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기반 마련

○ 농어촌 교육여건 및 교육환경 개선

잘사는 부자농어촌을 위한 여건 마련

○ 농산어촌의 향토산업 진흥과 도농교류 여건 마련

○ 생명산업의 집중육성으로 농업특성화 기반 마련

○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복합산업 활성화

○ 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등 육성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

○ 귀농·귀촌인의 증가에 대비한 정착기반 마련

○ 재원확보 및 조례제정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지원

4. 추진계획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추진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추진

-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은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 개별법령 및 농촌정비법 등의 근거법령으로 추진

- 5개 부처가 분산·추진한 15개 낙후지역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포괄보조금제도의 도입으로 통합대상

○ 녹색마을 개발사업 추진

- 녹색마을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 기조를 따르고 농어촌 및 소도시의 에너지 자립과 생태보전, 체험관광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 산림탄소순환마을은 산촌지역의 녹색인프라 구축 및 생태휴양자원 확충으로 산촌지역의 소득창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자연생태우수마을은 전 국민적으로 환경보전에 보다 적극적·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조성된 마을을지정하여 보조금 지급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 도시민의 여가욕구 충족, 농어촌관광 활성화 등 도농교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

○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 추진

-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고령사회의 바람직한 지역복지모델을 개발·육성하기 위해 추진
- 예산지원 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공립치매병원, 요양병원, 재가노인지원센터,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보건복지 인프라 사업과 찾아가는 이동복지관 서비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노인돌보미 바우처, 재가노인 서비스 등의 보건복지 서비스 사업을 지원

○ 열악한 기초생활 인프라를 중소도시 수준으로 개선하고 농어촌을 미래형 복합생활공간으로 조성

- 농산어촌의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다원적 기능을 갖춘 자립형 정주공간을 창출하여 농촌인구의 감소폭을 완화시킴.
- 인적자원의 개발과 농어촌 개발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농산어촌형 지역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생활권별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기초생활환경개선을 지속

○ 읍·면의 쇠퇴와 과소화에 따라 소규모 마을에 도로·교량·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과 보건소·파출소·소방서 등의 사회적 서비스시설을 제공하는 것보다, 특정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사회적 서비스를 집합시켜 제공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라는 집락재편에 대한 논의 필요

○ 농촌마을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과 같은 마을개발방식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

○ 산촌생태마을, 산림탄소순환마을과 같은 녹색성장정책에 부합하는 저탄소 소비형 마을 조성

○ 선진농어촌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주여건 및 농업여건 개선

○ 폐교 또는 소규모 학교의 지역사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마을단위

에 기반한 지역사회공동체 육성

농어촌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

○ 농림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보건의료기반을 강화, 여성 및 노인복지기반을 확충

-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연금과 건강보험료 지원확대와 농어업 재해지원을 확대하며, 보건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와 농작업 재해관리체계를 구축

- 여성 및 노인복지기반확충을 위해 여성·영유아 복지기반 강화와 노인복지 기반을 강화

○ 농산어촌에 거주하더라도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키고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시키는 등 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잘사는 부자농어촌을 위한 여건 마련

○ 주민소득 증대로 안정적인 농산어촌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농산어촌의 복합산업을 활성화함.

○ 향토산업을 진흥시키고, 농산어촌의 관광기반을 구축하며,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전함. 또 도·농간의 교류를 활성화시켜 1사1촌 운동을 전개하고 도·농 교류 촉진법을 제정함.

- 향토산업 육성과 농어촌 관광기반 확충 및 농공단지의 확대설치로 일자리 창출 등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읍·면 등 중심지의 인구유지와 소득창출을 위한 배후마을을 연계한 개발을 시행함.

○ 마을단위 공동소득화사업을 통해 농산어촌의 복합산업을 유도하고, 지역민이 함께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즐거운 농산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 생명산업의 육성을 통한 농업특성화 기반 마련

- 쌀산업 : 식량위기에 대응한 생산기반 확보와 고부가가치화

- 식품산업 : 2·3차 산업으로 영역 확대

- 종자산업 : 생명산업 발전의 기본산업 육성
- 말산업 : 관광·레저와 연계한 복합산업화
- 곤충산업 : 곤충자원의 유용화, 산업화를 통한 신소득원 창출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

○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 마련

-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영농정착과 귀농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한 보조금 지급
- 농업연수를 통한 영농기술 습득기회 부여 및 정착자금 지원
-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자금 대출
- 이사, 주택수리, 농지구입관련 세금 면제 등 귀농비용 지원 및 귀농영농 교육비 지원 등

2장

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녹색기술산업 육성

제1절 농림수산업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농업인력 : 농업인구 지속적 감소추세

○ 2010년 현재 경북 농가인구가 전국 농가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6.0%이며, 경북 농가수는 201,651호로 전체 농가의 17.1%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에서 경북의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농업인구는 비록 감소폭이 일정치 않으나, 꾸준한 감소현상을 보이고 있음.

〈표 3-4〉 경북 농가인구 및 농가수 변화

(단위 : 가구, 명, %)

연도	농가호수				농가인구			
	전국	경북	전국 비율	전년 대비	전국	경북	전국 비율	전년 대비
1980년	2,155,073	380,971	17.7	-	10,826,748	1,856,038	17.1	-
1985년	1,925,869	329,653	17.1	85.5	8,521,073	1,394,290	16.4	74.1
1990년	1,767,033	307,822	17.4	92.4	6,661,322	1,105,409	16.6	78.3
1995년	1,500,745	259,454	17.3	83.3	4,854,080	787,481	16.2	70.2
2000년	1,383,468	236,222	17.1	90.0	4,031,065	646,818	16.0	81.1
2005년	1,272,908	216,128	17.0	90.5	3,433,573	543,237	15.8	83.0
2006년	1,245,083	205,516	16.5	94.1	3,304,173	500,539	15.1	91.1
2007년	1,231,009	205,125	16.7	98.8	3,274,091	500,110	15.3	98.9
2008년	1,212,050	203,169	16.8	98.0	3,186,753	490,120	15.4	97.0
2009년	1,194,715	200,252	16.8	97.6	3,117,322	479,517	15.4	96.8
2010년	1,177,318	201,651	17.1	99.7	3,062,956	491,225	16.0	101.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경북지역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은 1980년 7.3%에서 2008년 37.6%, 그리고 2010년에는 35.4%의 비율을 보이고 있어 농업인력의 초고령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경북의 1980년 전업 농가수는 1980년 78.8%에서 2008년 66.9%로 감소하였음. 겸업 농가수는 1980년 21.1%에서 2008년 33.0%, 2010년 38.1%로 증가하여 재촌탈농(在村脫農)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농지기반 : 농지전용 증가로 농경지 지속적 감소

○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경지면적의 감소는 규제완화로 농지소유구조가 완화되면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전용의 증가가 그 원인임.

○ 향후 경지면적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의 경우 전체 농경지 면적은 2006년 286천ha에서 5년만인 2011년에 275천ha로 4.1% 줄어들었음.

〈표 3-5〉 경북 농경지 면적 변화

(단위 : ha)

연도	전국			경북		
	계	논	밭	계	논	밭
2006년	1,800,470	1,084,024	716,446	286,234	151,855	134,379
2007년	1,781,579	1,069,932	711,647	284,236	150,028	134,208
2008년	1,758,795	1,045,991	712,804	280,568	146,486	134,082
2009년	1,736,798	1,010,287	726,511	278,665	144,150	134,515
2010년	1,715,301	984,140	731,161	276,233	141,005	135,228
2011년	1,698,040	959,914	738,126	274,631	138,427	136,20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경영규모 상으로 10ha 이상 대규모 농가는 아직까지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나 점차 늘어나고 있음. 1.0ha 미만 소규모 농가 또한 점차 늘어남으로써 대농과 소농의 구조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보임.

〈표 3-6〉 경북 경지규모별 농가 구조변화

(단위 : 호, %)

구분	2002년		2007년		2010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계	1,280,462 (100.0)	218,304 (100.0)	1,231,009 (100.0)	205,125 (100.0)	1,177,318 (100.0)	201,651 (100.0)
0.1ha미만	44,481 (3.5)	6,977 (3.2)	51,727 (4.2)	8,021 (3.9)	36,213 (3.1)	5,849 (2.9)
0.1～1ha	752,495 (58.8)	130,783 (59.9)	766,851 (62.3)	128,782 (62.8)	737,695 (62.7)	126,686 (62.8)
1～3ha	405,402 (31.7)	71,919 (32.9)	326,556 (26.5)	58,307 (28.4)	306,780 (26.1)	56,980 (28.3)
3～5ha	55,390 (4.3)	7,011 (3.2)	54,937 (4.5)	7,299 (3.6)	57,039 (4.8)	8,241 (4.1)
5～10ha	19,205 (1.5)	1,545 (0.7)	25,171 (2.0)	2,289 (1.1)	30,206 (2.6)	3,286 (1.6)
10ha이상	3,491 (0.3)	69 (0.03)	5,767 (0.5)	428 (0.2)	9,385 (0.8)	609 (0.3)

주 : ( )는 비율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장래 추계 인구·가구 및 농업조사, 2002, 2007, 2010

농업자본 : 증가추세이나,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

○ 경북의 호당 농업자본 중 부채는 2003년 전국의 77.3%에 해당하였고, 2010년 현재는 80.5% 수준으로 다소 증가함. 자본은 90.1%에 해당하였고, 2010년 현재는 81.1%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경북지역의 호당 농업자본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임.

〈표 3-7〉 경북 호당 농업자본 변화

(단위 : 천원, %)

연 도	전 국		경 북		전국대비 비율	
	부채	자본 (순재산)	부채	자본 (순재산)	부채	자본
2003	26,619	177,907	23,975	137,559	77.3	90.1
2004	26,892	216,773	24,477	181,804	83.9	91.0
2005	27,210	270,794	21,025	218,545	80.7	77.3
2006	28,161	328,803	21,171	242,276	73.7	75.2
2007	29,946	366,035	23,517	266,680	72.9	78.5
2008	25,786	315,441	17,603	248,047	78.6	68.3
2009	26,268	331,761	20,282	258,641	77.9	77.2
2010	27,210	345,266	22,078	277,843	80.5	81.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농업소득 : 최근 전국평균을 상회

○ 경북의 농가소득은 2008년까지는 전국 평균 대비 91.4% 수준으로

조금 낮은 편이었으나, 2009년을 시점으로 2010년 현재까지 농업소득이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함. 농외소득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편임.

〈표 3-8〉 경북 농가소득 변화

(단위 : 천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전국 평균	경북	전국 평균	경북	전국 평균	경북	전국 평균	경북
1995년	21,803	21,265	10,469	11,770	6,931	5,587	4,403	3,908
2000년	23,072	22,818	10,897	11,485	7,432	6,376	4,743	4,957
2005년	30,503	27,817	11,815	13,243	9,884	6,995	4,078	3,007
2006년	32,303	29,422	12,092	12,922	10,037	6,527	4,886	3,734
2007년	31,967	27,269	10,406	11,577	11,097	7,329	4,959	3,529
2008년	30,523	27,895	9,654	11,025	11,353	8,867	5,289	3,694
2009년	30,814	31,296	9,698	12,498	12,128	10,203	5,481	5,289
2010년	32,121	29,888	10,098	10,548	12,946	10,469	5,610	5,31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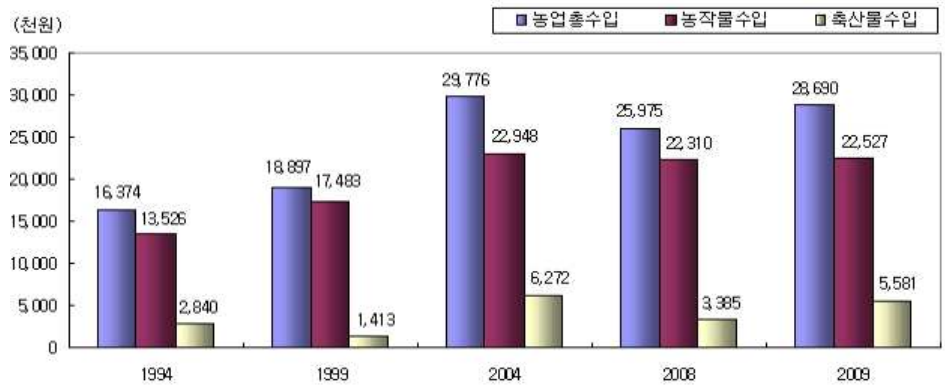
○ 2009년 농업총수입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농작물 수입보다는 축산물 수입 비중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표 3-9〉 경북 농업총수입 추이

(단위 : 천원, %)

구분		1994년	1999년	2004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15년 전	10년 전	5년 전	전년
경 북		16,374	18,897	29,776	25,975	28,690	75.2	51.8	-3.6	10.5
	농작물 수입	13,526	17,483	22,948	22,310	22,527	66.5	28.9	-1.8	1.0
	축산물 수입	2,840	1,413	6,272	3,385	5,581	96.5	295.0	-11.0	64.9
전국 평균		15,347	18,638	26,623	25,843	26,621	73.5	42.8	0.0	3.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그림 3-7〉 경북 농업총수입, 농작물수입, 축산물수입 변동추이

축산기반 : 한·육우, 돼지, 닭은 증가추세, 젖소는 감소

○ 2000년을 기점으로 경북의 한·육우, 돼지, 닭의 사육두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반면 젖소는 2000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표 3-10〉 경북 가축사육 두수 변화

(단위 : 마리)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1980년	283,543	12,291	185,701	6,755,169
1990년	317,110	44,697	487,309	11,528,894
2000년	316,710	52,881	1,011,536	15,370,605
2005년	386,632	48,383	1,106,513	17,240,525
2008년	486,847	41,320	1,089,488	18,972,221
2009년	510,744	39,376	1,209,310	20,024,887
2010년	576,711	37,322	1,238,961	19,990,948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2010년 11월 28일 안동시 와룡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예천, 영주지역 등으로 확산됨.

○ 도내 감염 매몰가축수는 소 52,395두(8.5%), 돼지 372,307두(30.1%), 기타 3,167두로 도 전체 소·돼지 185만두 중 22.9%를 차지하며, 구제역으로 지역 돼지 생산기반이 거의 와해되었으나 이후 생산기반을 회복함.

특화품목 : 사과, 포도, 참외, 복숭아, 자두 등에 특화

○ 경북지역은 200여개 품목이 생산되는 지역이며, 그 중에서도 사과, 포도, 참외, 복숭아, 자두 등에 특화되어 있음.

〈표 3-11〉 경북 품목별 재배면적 현황

(단위 : ha, %)

구분	사과	포도	참외	복숭아	자두	배	감
전국	30,992	17,572	6,215	13,908	5,870	16,239	31,808
경북	19,543	8,341	5,393	6,011	4,926	1,995	8,578
경북비중 (순위)	63.1 (1)	47.5 (1)	86.8 (1)	43.2 (1)	83.9 (1)	12.3 (4)	27.0 (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0년 기준

○ 경북지역은 전통적으로 과수 생산이 뛰어난 곳으로, 안동, 영주, 의성, 청송, 영양 등 경북 중북부지역에서 사과, 배, 복숭아, 자두

등 과수작물이 집중 생산되고 있음. 또한 이들 지역에서는 고추, 마늘 등 특용작물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 경북 시·군별 지역농업 특징

시 · 군	특징 내용	특화 품목
포항시	도농복합 도시로 도시 근교농업이 성행	어메니티농업, 부추, 쌀, 시금치 등
경주시	편리한 교통망으로 접근성이 좋고 형산강 유역으로 시설채소발달	한우, 버섯, 체리, 시설채소 등
김천시	포도, 자두의 주산지, 풍부한 관광자원과 농촌체험마을이 다수	포도, 자두, 쌀, 한우 등
안동시	사과와 한우, 마 특화, 하회마을 등 전통문화유적 보유	사과, 한우, 마(산약), 콩 등
구미시	도농복합도시로 미곡중심 농업과 사과, 복숭아, 포도 생산	버섯, 수박, 한우, 시설채소 등
영주시	사과, 인삼, 한우 등 특화, 체험마을 등 관광인프라 우수	사과, 인삼, 한우, 인견 등
영천시	포도, 복숭아, 사과 등이 주농산물, 과수산업 인프라가 발달	포도, 양돈, 복숭아, 한방산업 등
상주시	농업중형 도시로 다양한 품목이 재배	감, 한우, 포도, 오이 등
문경시	오미자 특화, 축제와 체험마을, 문경약돌돼지 인지도 높은 편	오미자, 버섯, 사과, 양돈 등
경산시	대도시 인접, 소비자농업의 발전가능성 높은 지역, 높은 지가	대추, 복숭아, 포도, 자두, 한우 등
군위군	쌀, 마늘, 사과 등과 함께 오이품목 특화	오이, 사과, 축산, 시설채소 등
의성군	사과, 마늘이 특화, 한우, 쌀이 주생산품	사과, 마늘, 쌀, 한우, 자두 등
청송군	사과, 고추가 주요 생산품목, 청정 관광지역	사과, 고추, 버섯, 산채 등
영양군	채소, 과실류의 증가 추세, 고추 인프라가 발달	고추, 사과, 산나물, 약초 등
영덕군	시설작물재배 증가 등 도시근교농업의 대체지역으로 부상	복숭아, 고사리, 시금치, 무청 등
청도군	감과 감 가공품, 복숭아가 주요 생산품목	감, 복숭아, 대추, 미나리 등
고령군	지역축제의 정착, 딸기, 멜론, 수박 등이 주요 농산물	딸기, 감자, 축산, 시설채소 등
성주군	논 비율이 높아 과채류 재배에 유리, 참외의 주산지	참외, 토마토, 양돈, 시설채소 등
칠곡군	도시근교농업의 특성상 다양한 품목이 재배	한우, 양봉, 참외, 버섯 등
예천군	친환경농업 인프라, 농촌농업문화 기반 어메니티관광 가능성	한우, 곤충, 사과, 고추 등
봉화군	메밀, 옥수수, 콩 등 잡곡 주요재배지, 사과 등 고품질 브랜드화	고추, 사과, 잡곡, 송이 등
울진군	청정한 자연환경과 친환경농업지구로 발전 가능성 높은 편	매실, 산채, 쌀, 송이, 울진대게 등
울릉군	소규모로 특화된 자원이 다양하게 존재	칡소, 양봉, 산채, 오징어 등

자료 : 경북 농정과 내부자료

친환경농업 : 인증농가 14.3%, 실천면적 11.6% 차지

○ 2010년 현재 경북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22,995호로 전국대비 14.3%를 차지하며,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은 20,109ha로 전국대비 11.6%를 차지하고 있음.

〈표 3-13〉 경북 친환경농산물 생산 현황

(단위 : 호, ha, 백톤)

구분	생산농가		면적		생산량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전국	경북
계	160,628	22,995	172,674	20,109	18,192	3,277
유기농산물	13,376	2,129	19,312	1,886	1,909	120
무농약농산물	89,765	7,142	95,253	5,726	9,158	841
저농약농산물	57,487	13,724	58,109	12,497	7,125	2,316

자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농산물인증통계, 2011

농산물 유통 : 소비지 연계한 유통시설 증가

○ 경북 도내 유통시설은 4개 권역에 의한 산지시설을 배치, 산지와 소비지를 유통시설과 연계한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음. 2011년 현재 도매시장 8곳, 공판장 23곳, 산지유통센터 75곳이 운영 중임.

○ 중북부권역은 안동농산물도매시장과 연계한 산지시설을 집중배치하고, 중서부권역은 구미, 동해안권은 포항에 각각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건설, 남부권은 군위물류센터 설치로 대규모 소비지와의 직거래 추진이 가능

〈표 3-14〉 경북 유통시설 변화

(단위 : 개소)

구 분	2000년	2005년	2007년	2010년	2011년
도매시장	7	8	8	7	8
공판장	29	24	22	20	23
가공시설	369	87	187	199	215
산지유통센터	38	66	70	74	75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1

지역 식품산업 : 식품제조업체 규모, 전국에 비해 영세

○ 경북지역의 식품제조업체 수는 1,847개소로 전국 대비 8.2%, 종업원 수는 12,837명으로 전국 대비 5.5%의 점유율을 보여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표 3-15〉 경북 식품제조·가공업체수 및 종업원 현황

(단위 : 개소, 명)

구 분	업 체 수				종업원수
	식품 등 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가공업	계	
전 국	20,564	372	1,532	22,468	232,953
경 북	1,660	17	65	1,847	12,837
전국대비 비중	8.1%	4.6%	4.2%	8.2%	5.5%

주 : 1) 업체수는 법인에 관계없이 지역이 다르고, 독립된 사업장이면 1개의 업체로 간주함
2) 종업원수는 식품등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임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 경북지역 식품 매출액은 1조 4,392억 원으로 전국 대비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은 2.0%, 식품첨가물 2.5%, 기구·용기·포장지는 3.0%로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표 3-16〉 경북 식품산업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구분	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지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전국	29,555,358	100.0	964,046	100.0	1,026,299	100.0	4,078,126	100.0
경북	1,439,229	4.87	18,755	1.95	25,371	2.47	123,197	3.02

주 : 1) 매출액은 국내출하액과 수출액을 합한 수치임
2) 축산물가공품, 옹기류, 식품조사처리는 제외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0년 식품 및 식품첨가물 생산실적

임업 : 넓은 산림면적으로 임가수 전국 23.3%

○ 2010년말 현재 경북의 임가 인구수는 59,223명, 임가수 23,555호로 전국대비 23.3%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5년에 비해 임가 인구수 및 임가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임업규모별로 보면 1~3ha를 보유한 임가가 가장 많으며, 경영형태별로 보면 채취업에 종사하는 임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3-17〉 경북 임가 및 임가인구 변화

(단위: 명, 가구)

구분		전국		경북	
		2005년	2010년	2005년	2010년
임가		97,108	96,108	23,715	23,555
	임가인구	264,416	253,656	61,120	59,223
	남	131,074	126,313	30,090	29,490
	여	133,342	127,343	31,030	29,733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임가의 경우 임가 중 전업임가는 6.8%에 불과하며, 겸업농가는 93.2%를 차지하여 대부분 임가가 겸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8〉 임업형태별 임가 현황

(단위 : 호)

구분			임가	벌목업	양묘업	채취업
전국			96,108	355	625	6,915
경북			23,555	25	53	2,604
	규모별	산림없음	20,366	3	19	1,133
		0.1ha 미만	36	-	2	8
		0.1 ~0.6	271	4	6	101
		0.6~1.0	368	2	6	164
		1.0~3.0	820	8	9	368
		3.0~5.0	650	2	4	266
		5.0~10.0	541	4	2	288
		10.0~30.0	362	-	2	204
		30.0ha 이상	141	2	3	72
	전겸업별	전업	1,591	1	5	83
		겸업	21,964	24	48	2,521
	경영주 성별	남자	20,678	22	48	2,322
		여자	2,877	3	5	282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0년 기준

○ 경북 총 산림면적은 1,343천ha로 전국(6,430천ha)의 20.8%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전체면적의 약 70%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유형태별로 사유림이 72.7%, 국유림 18.7%, 도·시·군유림이 8.6%의 순으로 분포함.

○ 시·군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안동시, 봉화군, 경주시 순임.

○ 지역 내 임목축적량은 전국의 20% 수준이며, 임상별로 침엽수가 가장 많이 분포해 있으며, 활엽수보다는 혼효림이 우세함.

〈표 3-19〉 소유형태별 임야면적 현황

(단위 : ha, %)

구분	합계	국유림		공유림	도유림		시·군유림		사유림	
		면적	비율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경 북	1,343,341	250,584	18.7	115,818	13,800	1.0	102,018	7.6	976,939	72.7
포항시	75,624	9,336	12.3	10,405	2,007	2.7	8,398	11.1	55,883	73.9
경주시	89,772	4,234	4.7	8,691	945	1.1	7,746	8.6	76,847	85.6
김천시	69,806	8,014	11.5	5,691	475	0.7	5,216	7.5	56,101	80.4
안동시	106,986	6,514	6.1	6,400	53	0.0	6,347	5.9	94,072	87.9
구미시	34,450	1,717	5.0	2,818	484	1.4	2,334	6.8	29,915	86.8
영주시	41,620	14,034	33.7	935	-	-	935	2.2	26,651	64.0
영천시	62,877	4,258	6.8	4,873	-	-	4,873	7.8	53,746	85.5
상주시	82,547	7,413	9.0	8,039	184	0.2	7,855	9.5	67,095	81.3
문경시	68,811	12,548	18.2	6,278	2,572	3.7	3,706	5.4	49,985	72.6
경산시	23,557	936	4.0	1,099	-	-	1,099	4.7	21,522	91.4
군위군	46,445	1,509	3.2	2,909	-	-	2,909	6.3	42,027	90.5
의성군	79,287	1,963	2.5	9,604	-	-	9,604	12.1	67,720	85.4
청송군	66,664	9,084	13.6	17,063	3,542	5.3	13,521	20.3	40,517	60.8
영양군	65,757	35,299	53.7	5,910	6	0.0	5,904	9.0	24,548	37.3
영덕군	59,647	21,041	35.3	6,964	8	0.0	6,956	11.7	31,642	53.0
청도군	50,659	4,417	8.7	1,530	101	0.2	1,429	2.8	44,712	88.3
고령군	24,356	507	2.1	685	-	-	685	2.8	23,164	95.1
성주군	40,611	1,549	3.8	4,572	2,691	6.6	1,881	4.6	34,490	84.9
칠곡군	29,455	1,825	6.2	1,278	616	2.1	662	2.2	26,352	89.5
예천군	35,862	1,822	5.1	1,980	-	-	1,980	5.5	32,060	89.4
봉화군	98,098	50,912	51.9	3,747	100	0.1	3,647	3.7	43,439	44.3
울진군	84,329	49,042	58.2	2,960	10	0.0	2,950	3.5	32,327	38.3
울릉군	6,121	2,610	42.6	1,387	6	0.1	1,381	22.6	2,124	34.7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0

○ 경북지역의 주요 임산물로는 목재의 경우 포항시, 영천시, 예천군 등지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음. 연료(장작, 목탄 등) 및 농용자재, 섬유원료(산닥나무껍질 등)는 임목축적량이 많은 안동시, 청송군, 울진군 등 북부지역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음.

수산업 : 전국 생산량의 약 7%, 금액은 약 12% 차지

○ 지난 30년간 어가 및 어업인구는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전국 대비 비중은 7~8%에서 최근 6% 선을 유지하고 있음. 어업인력의

감소와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의 양적, 질적 저하에도 어획강도는 높은 편임.

〈표 3-20〉 경북 어가 및 어업인구 변화 추이

(단위 : 가구, 명, %)

구분	어가			어업인구		
	경북	전국	전국 대비	경북	전국	전국 대비
1980년	11,164	134,109	8.3	56,942	725,314	7.9
1985년	7,829	126,800	6.2	34,849	602,237	5.8
1990년	7,451	121,525	6.1	29,363	496,089	5.9
1995년	6,723	104,480	6.4	22,326	347,210	6.4
2000년	5,778	81,571	7.1	17,642	251,349	7.0
2005년	5,517	79,942	6.9	14,998	221,132	6.8
2006년	5,316	77,001	6.9	14,369	211,610	6.8
2007년	5,713	73,934	7.4	13,886	201,512	6.9
2008년	4,633	71,046	6.5	12,386	192,341	6.4
2009년	4,207	69,379	6.0	11,103	183,710	6.0
2010년	4,069	65,775	6.2	10,422	171,191	6.1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 수산물 생산량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증가 추세에 있음. 전국 수산물생산량 대비 4~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굴곡이 있기는 하지만 다소 늘어나고 있음.

○ 지역의 대표 어종은 난류성 어종인 오징어, 꽁치, 정어리와 한류성 어종인 명태와 더불어 대구, 도루묵, 넙치, 게, 새우 등이 주로 잡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그 외 전복, 참고등어, 백합, 참조개 등의 패류와 한천, 미역, 곤포 등의 해조류 생산량이 많은 편임.

○ 2010년말 현재 경북의 국내 어업생산을 전국과 비교할 때, 생산량 기준으로는 전국의 6.9%, 금액기준으로는 12.1%를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고가(高價)의 어종생산이 많은 편임.

○ 어업생산량에 있어서 연근해어업(일반해면어업)이 전체 생산량의 95%를 차지하고 있음. 주요 어획물은 오징어, 대게, 가자미류, 문어, 붉은 대게 등이며 경북 전체 일반 해면어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에 달함. 이중 오징어는 경북 일반 해면어업 생산량 기준으로 약 50%를 차지함.

〈표 3-21〉 경북 어종별 어획량 변화 추이

(단위 : M/T, 백만원)

구 분		합계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기타수산물 (패류 포함)	해조류
1980년	수량	101,859	73,948	1,599	19,649	485	3,516
	금액	-	-	-	-	-	-
1990년	수량	114,681	46,325	10,122	34,810	21,420	2,004
	금액	149,512	50,292	5,199	78,424	13,184	2,413
2000년	수량	143,466	52,620	14,663	72,510	1,711	1,962
	금액	290,585	96,823	66,916	115,246	9,932	1,668
2005년	수량	127,609	30,604	16,901	69,891	6,171	4,042
	금액	385,956	130,501	48,600	174,877	26,465	5,512
2006년	수량	128,733	33,203	15,953	70,835	5,640	3,102
	금액	384, 822	130,803	62,648	161,464	25,962	3,945
2007년	수량	152,791	49,725	17,732	75,618	7,369	2,347
	금액	400,366	167,163	62,753	136,724	30,959	2,767
2008년	수량	177,541	59,436	18,414	95,009	3,491	1,191
	금액	377,427	142,248	64,093	157,502	12,227	1,357
2009년	수량	175,025	53,107	18,977	96,745	4,131	2,065
	금액	466,739	169,512	60,698	215,817	16,905	3,806
2010년	수량	136,298	37,709	21,815	73,329	2,256	1,189
	금액	521,000	106,300	68,700	330,600	13,400	2,000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수산제조업 : 보관 후 지역 외 판매가 주종

○ 냉동·냉장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수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단순히 보관 후 지역 외로 판매하는 실정임.

〈표 3-22〉 수산물가공품 생산고

(단위 : M/T)

품목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총 수	84,208	28,625	83,774	145,994	135,534	160,343	170,649
소건품	500	11,170	14,683	2,137	1,243	1,287	1,459
염장품	-	-	243	410	760	760	1,457
염신품	716	1,251	819	1,539	1,318	1,492	1,498
통조림	-	1,959	6,916	2,880	4,295	4,414	4,533
냉동품	78,712	10,822	51,188	65,215	117,932	145,064	154,821
연제품	1,691	2,230	3,322	467	2,349	2,349	2,174
조미가공품	1,434	653	2,211	71,345	3,729	3,797	3,625
기타수산가공품	975	540	1,162	2,000	3,508	877	779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2년 기준

나. 농림수산업의 문제점

농업의 상대적 비중이 지속적으로 저하

○ 농업GDP 비중이 2000년 4.2%에서 2005년 2.9%로 감소하였으며

2020년에는 1.6%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등 농업의 상대적인 비중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음. 농업취업자 비중 역시 2000년 10.2%에서 2005년 7.5%로, 2020년에는 2~3%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농촌지역 활력 저하

○ 경북 농가인구 역시 도시지역으로의 인구유출로 인해 1980년에 1,856천명이던 인구가 2010년 491천명으로 26.5% 수준으로 감소함.

○ 전체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 비중은 1980년 7.3%에서 2010년 35.4% 수준으로 증가함.

농업소득은 높으나, 농외소득 중심으로의 전환

○ 경북의 농가소득은 2008년까지는 전국 평균 대비 91.4% 수준으로 조금 낮은 편이였으나 2009년을 기점으로 농업소득이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함.

○ 농업소득은 2010년 1,055만원으로 15년 전('95년)의 1,177만원에 비해 약 90% 수준으로 떨어짐.

주요 농작물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감소

○ 경북지역의 경우 농축산물 생산품목이 200여개로 작부유형이 매우 다양한 편으로 다품목 소량생산의 특징을 보임. 대부분의 작목 재배면적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

구제역으로 축산사육 기반 위축

○ 한우사육은 1995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2000년 일시 감소한 후 최근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돼지는 완만한 증가추세

○ 2010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지역 축산사육 기반이 붕괴되고 그 이후 회복되고 있으나, 새로운 차원의 미래축산 대책 수립이 필요

타 지역에 비해 미흡한 지역 식품산업 생산

○ 2009년 현재 경북지역 식품 매출액은 1조 4,392억 원으로 전국

대비 4.9%에 불과하며, 건강기능식품은 2.0%, 식품첨가물 2.5%, 기구·용기·포장지는 3.0%로 다른 시·도 지역에 비해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정주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

○ 우리나라 전체 농촌인구의 감소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사회간접자본 및 사회서비스의 공급 역시 감소하고 있음. 이로 인한 농촌주민의 생활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2020 농어업 · 농어촌 비전과 전략」)

○ 경북지역도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수요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건의료서비스를 비롯한 교육, 문화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임.

넓은 산림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교적 활용도 낮은 임업

○ 산림면적이 전국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겸업임가 비율이 높아 단순 채취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음.

○ 백두대간과 지역별 명산(名山)이 분포하고 있어 전국에서 산림자원이 가장 풍부하지만,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어가 및 어업인구 감소로 수산업 쇠퇴 가속화

○ 어가 및 어업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노령화로 노동력 수준의 양적, 질적 저하가 진행되고 있음.

○ 수산물 생산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경북의 생산량 비중은 전국의 약 7% 수준에 불과함.

○ 수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기후대 변화 등으로 수산자원의 감소, 업종별·지역별 갈등과 분쟁 지속 등으로 어업여건 개선 미진

보관 수준에 머물러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수산업

○ 대게와 홍게, 오징어가 지역 특산자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단순 가공수준에 머물러 부가가치 저하

다. 향후과제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차별적인 농정 추진

○ FTA 등 개방확대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지역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대응모색과 더불어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별화된 농정추진이 요구됨.

농식품 수출 확대 및 내수촉진

○ 동시다발적인 FTA로 지역 농식품의 해외수출 여건이 호전되고 있어 신규 수출품목 개발 및 신규시장 개척을 통한 농수산물 수급안정 및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수출확대 방안이 요구되며,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한 다양한 내수촉진 방안 필요

다기능성 확보를 위한 지역농정 추진

○ 향후 농가인구와 경지면적은 감소세가 계속될 전망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농업용수와 생산기반 확충, 농지보전, 전문영농인력 및 후계인력 확보, 친환경농업 등에 초점을 두어야 함.

소비자 니즈에 맞는 농산물 생산과 유통체계 확립

○ 농업인에게 기술·지도 및 피드백 네트워킹이 가능한 농정체제 개선이 필요함. 소비자 요구에 맞게 생산에서 마케팅까지의 유기적인 생산체제를 이루어 나가야 함.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창출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채소류·특용작물·축산물 중심의 특산단지화 추진 및 작물개발, 생산의 조직화,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품종개발,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 등 지역농업의 강화 방안이 요구됨.

공간활력 증진을 통한 농촌관광 기능 확충

○ 주5일 근무제와 국민소득 수준향상에 따라 농촌휴양자원 수요가 증대하고 있음. 도시민들의 정주 또는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 기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지역 미래축산 기반 확충

○ 구제역으로 지역축산 기반이 와해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한육우 사육두수는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 최대 축산 집산지임. 적정 두수 유지와 미래축산을 위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이 요구됨.

산림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 지역에서 생산되는 산림생산물을 유통시키고 브랜드화하는 대책과 더불어 지역에 산재한 다양한 산림관련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수산업 고부가가치 실현

○ 다른 지역에 비해 품종생산이 다양하지 못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생산물을 중심으로 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 변화

지구온난화와 기상재해

○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지구생태환경이 변화하고 농업 또한 이러한 변화에 따라 곡물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

○ 한반도의 지난 100년간 온도 1.5℃ 상승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의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음.

○ 온실가스 증가로 21세기말(2090~2099)에는 세계 평균기온이 1980~1999년에 비해 1.1~6.4℃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열팽창과 육지빙하의 손실 등으로 해수면은 18~59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기후변화에 대한 국내외적인 대응 본격화되면서 자연에너지와 녹색기술을 기반을 둔 녹색성장이 지구촌 의제로 부각

물 부족

○ 특정지역에 있어 홍수피해가 있는 반면, 많은 지역에 있어 심한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해마다 많은 농토의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음.

자원고갈

○ 자원으로 활용되는 에너지원은 화석연료인 석유, 천연가스, 석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과 태양광, 바이오매스, 풍력, 조력, 수력,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우라늄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이자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으로서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고 있음.

○ 석유 등의 화석원료의 자원고갈로 인한 유가 상승, 바다의 초고속 산성화로 바다오염이 가속화되어 어자원이 고갈되는 등 전지구적 자원고갈 현상이 만연하고 있음.

나. 국내외 시장변화

농식품 소비자 니즈의 변화

○ 소득수준의 증가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외식비 중이 높아지는 등 식품소비에 대한 패턴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음. 양과 가격 중심의 선택에서 영양과 맛, 안전을 중시하는 감성적 요소가 농산물 선택에 있어 주요변수로 등장함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고급화가 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범세계적 시장의 통합

○ DDA/FTA 등으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국내외 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또한 값싼 농수산물이 여과 없이 국경을 넘나듦에 따라 국내 농산물 생산기반이 점차 흔들리고 있음.

다. 농업의 형태를 바꾸는 기술변화

자동화 기계의 발달

○ 농업 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디지털 첨단기술이 농업 분야에 응용되어 자동화·기계화가 진전됨에 따라 효율성이 높아지고 보다 농업노동을 절약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음.

디지털 기술의 융복합화

○ 미래학자들에 의하면, 2020년 이후 많은 분야의 과학이 해체·융합되어 다른 모습의 학문으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소재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농수산업 분야가 신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BT산업은 신약 및 장기 개발, 석유·화학제품 대체, 농업혁명을 촉발시켜 '바이오경제시대'로 진입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임.

- BT산업 매출액 : ('00)200억불→('08)1,250억불, 625% 증가

○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통한 농업의 영역확장 및 신 가치창출 확대 : 식의약 소재 개발, 식물생명공학을 이용한 재해저항성 증진, 기능성 작물 산업화 소재 개발 등

○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농업에 대한 통제기술을 강화함으로써 옥외에서 옥내에서 이동하거나, 토양(土壤)농업에서 무토(無土)농업으로 변화시키는 등 농업 영역의 확대를 가져옴. 뿐만 아니라 계절이나 시간 구애됨이 없이 생산이 가능한 비정형(非定型) 농업으로 변화시키고 있음.

미래로의 흐름

▷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비생산 연령층 증가로 많은 분야에서 기계화 진전
▷ 에너지·자원의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한 신재생 고효율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성과 물질순환을 중시하는 친환경농업 등 농업시스템의 변화를 촉발
▷ 기후변화와 관련한 농수산업 부문의 주요 이슈는 관련 협약에 따른 온실가스의 발생과 저감실태, 기후변화가 생산과 농수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
▷ 식물공장, 빌딩농장 등 온도, 햇빛, 영양 등 자동조절장치를 통해 사계절 공장형 균질한 품질의 농수산물 생산 추구

3. 계획 방향

가. 목표

지식기반형 친환경 생명산업의 선도지대

○ 성장동력산업으로서의 생명산업 확충

○ 지역기반형 디지털농수산업 실현

○ 경북형 미래축산 기반 구축

○ 기르는 어업 중심의 수산업과 신부가가치 증대

○ 산림자원의 고부가 활용

나.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 친환경농업 생산기반의 확대 및 차세대 리더로서의 지식농업인 육성

○ 농산물 유통고속도로의 개통 및 지역 식품식량체계 구축

친환경 생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지역 먹을거리 생명산업 육성

○ 기후대응형 농업의 실현

- 생태변화에 맞는 품종 및 종자개발
- 신재생에너지 활용농업

○ 지역 고품격 식품산업의 육성

디지털농업 기반기술의 확대

○ 디지털농업 기반기술 확대 및 스마트농업 실현

○ 무토농업, 비정형농업의 실현

경북형 미래축산 기반 구축

○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및 상시 선제적 가축방역 체제 구축

○ 국가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조성

가공을 통한 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 안정적 어자원 관리, 고품질 수산물 공급체제 구축

○ 저탄소 녹색성장시대에 부응하는 그린어업 추진

○ 수산물 가공분야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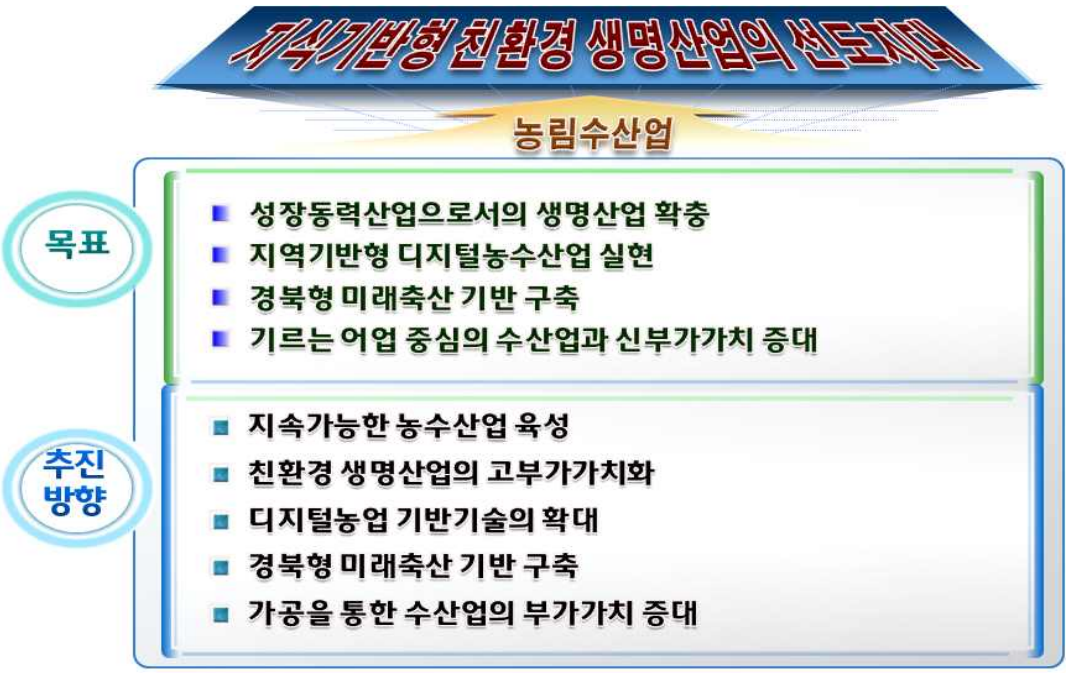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용방안 모색

○ 산림경영인의 지속적 확보

○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육성

○ 산채 및 약초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산림산업 육성

○ 백두대간 활용을 통한 지역 산림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그림 3-8〉 농림수산업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지속가능한 미래 생명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농업진흥

생명산업 프로젝트 추진

○ 생명산업은 지역농업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할 뿐 아니라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계속 키워나갈 필요가 있음. 전국에서 특용작물이 가장 많이 생산되는 경북지역에 지역 식물자원을 소재로 한 사업이 필요함.

○ 생명산업 활성화를 위해 쌀가공산업 육성사업(기능성 쌀 막걸리산업 활성화, 쌀가공식품기업 육성 등), 곤충산업 육성 프로젝트(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곤충생태학습원 조성 등), 종자산업 기반 조성(씨감자 생산기반 구축, 딸기원묘증식시설 등), 말산업 육성 프로젝트(말산업 레저콤플렉스 조성, 승용말 육성센터, 말산업 마이스터고 설립, 재활승마센터 등)를 추진함.

생명자원 클러스터 구축

○ 江·山·海 등 최고의 생명자원을 보유한 경북지역 농어업 또한 생명산업으로 진화, 새로운 가치영역의 창출이 절실함.

○ 생명자원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서는 종보존 및 관리센터 설치, 신품종 육종지원센터 설치, 국립 약용자원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함.

미래 친환경 축산 허브 구축

○ 구제역으로 와해된 경북 축산업을 친환경 축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리노베이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축산생산기반 구축, 방역체계 구축, 전략적 마케팅 사업 추진 등이 필요함.

○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안전축산 생산기반 조성, 국가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구축 사업 등을 전개함.

농식품 수출 확대 및 시장다변화

○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산 농산물과 경쟁도 중요하지만 지역 농산물

의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판촉전, 수출상담회, 외국유통업체와의 협력 등 수출 확대방안이 요구됨.

○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추진함.

농수산물 내수 촉진

○ 지역별 우수농산물 육성, 고부가 농수산 가공산업 등 농수산물의 내수 촉진을 통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농수산물 내수 촉진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우수농산물 육성, 전자상거래 활성화, 농수산 가공산업 육성 등의 정책이 필요함.

차세대 농업 핵심리더 육성

○ 농업의 후계인력 양성과 현 종사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경북농민사관학교의 적극적 활용, 농업인에게 다양한 정보제공,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 후계 창업농업인 육성,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함.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 식품의 안전, 맛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대하면서 친환경농업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음.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 도입과 더불어 개별 농업인 중심보다는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단지 조성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친환경농산물 생산특화단지 조성,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치,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등을 추진함.

지역밀착형 뉴 파밍시스템 구축

○ 농업에 있어 중요한 변화요인인 디지털 기술변화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의 독특한 디지털농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 작물재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디지털농업모델 개발사업, 농가보급형 식물공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함.

○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양적·질적 저하를 극복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디지털 농업에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시·군 권역별로 대폭 확대

지역전략 식품클러스터 조성

○ 경북지역 내 주요 농산물인 사과, 고추, 잡곡 등을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전략적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전략 식품클러스터를 위해 권역별 특화클러스터 및 수출농식품 클러스터 조성,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치 등을 추진함.

광역연계 농업소통 프로젝트 추진

○ 농업생산지인 경북과 소비지 대구와의 연계를 위해 학교급식, 도농교류 등의 농업소통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두 지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해서 광역 로컬푸드종합급식유통센터 설치, 도농교류센터 운영, 식생활체험 교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함.

귀농 · 귀촌 활성화대책 추진

○ 귀농 · 귀촌인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자립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운영,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등을 추진함.

나.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한 임업진흥

산림자원 보호 및 기반 구축

○ 오랜 기간 산림보호로 인해 다양한 산림이 존재하고 있으나, 질높은 산림자원이 되지 못하고 있음.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조림사업 사업, 숲가꾸기 사업, 임도사업 등 산림자원 확충사업과 더불어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예방사업의 적극적 추진 도모

○ 경북지역 면적의 약 70%에 달하는 임야지대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산림 중심의 연구기능 강화와 산림생태관광 기반을 구축해 나감.

지역 산림자원의 활용

○ 타지역보다 풍부한 경북의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업경영인에게 경영소득을 높이도록 하고, 지역에 산재한 여러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함.

○ 백두대간, 약용작물, 약초작물 등 지역에서 산재한 다양한 산림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산림자원유통센터 건립, 생태숲공원 조성, 약초·산채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함.

다.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산업 진흥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복지 향상

○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으로 어획 부진 및 수산물 자급율 저하, 수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음. 연근해 수자원 회복을 위한 어선 감척사업과 생산력 회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

○ 어업인에 대한 교육지원 한계, 문화혜택의 낙후, 어촌 정주권 형성 미흡 등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속적인 어업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농업인 생활환경 정비 및 복지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소득보전 체계 구축과 살기좋은 어촌공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

수산업 부가가치 기반 확충

○ 경북 어업은 우리나라 수산업 전체 약 5.5%, 이중 연근해 비중이 14%를 차지함. 양식어업은 전국 1%도 되지 않음. 지역 수산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수산업 부가가치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대게 및 과메기 명품화 사업, 블루골드 사업, 토속어류산업화 센터 건립, 로하스 수산식품단지 등을 추진함.

제2절 제조업

1. 현황 및 문제점

가. 전략산업

주요 집적지를 중심으로 전략산업 형성

○ 경북지역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역으로서 구미를 중심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이, 포항, 경주, 영천, 경산을 중심으로 철강신소재, 자동차부품 등 기간산업이 집적지 형성

○ 안동, 울진, 경산을 중심으로 생물한방산업, 경북의 3대문화권 지역인 경주, 고령, 안동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산업이 집적지 형성

〈표 3-23〉 경북 전략산업 집적지 현황

산업	집적현황 지역	혁신자원	지역거래구조	산업클러스터
전자 정보 기기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구미혁신클러스터추진단 ·RIC(금오공대,영남대, 경운대, 대구대, 경북테크노파크 등)	·지역간 연계 구조 强 ·구미·칠곡·대구·경산권 거래 활성화 ·초광역적 추진의지 강함.	·대구경북 모바일산업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조성, ·과학연구단지지정
신소재 부품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경산시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IT융합부품실용화센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경북그린카부품진흥원 등	·지역간 연계 구조 强 ·대구·경산·영천·경주·포항권 거래 활성화 ·초광역적 추진의지 강함.	·대구경북 부품소재산업클러스터
생물 한방	안동시 울진시 포항시 경산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포항바이오정보지원센터 ·한국한방산업진흥원 ·RIC(대구대, 대구한의대, 대구가톨릭대, 상주대 등)	·지역간 연계 구조 强 ·북부권 자원, 남부권 연구개발로 차별화 ·초광역적 추진의지 강함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문화* 관광 산업	경주시 고령시 안동시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안동영상미디어센터 ·전통디지털콘텐츠박물관 ·한국국학진흥원 ·경북관광개발공사 ·동북아자치단체연합사무국	·지역간 연계 구조 미흡 ·인프라 구축 안동 집중 ·전략산업 특화분야 선정 및 집중 미흡	·기업형성 미흡 ·스타기업 및 민자 유치 미흡 ·안동문화산업지구 지정 ·하회마을(안동), 양동마을(경주) 세계문화유산 등재

주 :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산업이지만 경북 전략산업에 포함
자료 : 경북테크노파크, 「경북 산업진흥계획」, 2010

○ 사업체수의 경우 2004년에서 2009년 동안 연평균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략산업은 신소재부품산업(4.77%)

○ 경북지역의 고용창출이 높은 전략산업은 월평균종사자 수가 2004~2009년 동안 연평균 2.56% 증가한 신소재부품산업이며, 부가가치액은 경북의 전자정보기기산업이 같은 기간 연평균 5.24%의 높은 성장 시현

〈표 3-24〉 전략산업별 주요 지표 변화추이

(단위: 개, %)

전략산업	경제지표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04~'09)
전자정보	사업체수(개)	475	486	508	502	453	441	-1.47%
	월평균종사자(명)	64,644	59,584	71,321	65,016	62,063	59,954	-1.50%
	출하액(십억)	45,545	45,631	46,742	48,337	54,775	64,621	7.25%
	주요생산비(십억)	25,871	24,832	26,525	30,297	33,503	39,209	8.67%
	부가가치(십억)	19,731	20,715	20,425	18,062	21,154	25,473	5.24%
신소재부품	사업체수(개)	1,751	1,943	2,113	2,261	2,184	2,210	4.77%
	월평균종사자(명)	92,117	97,993	102,149	104,616	103,789	104,552	2.56%
	출하액(십억)	36,697	40,007	41,239	46,198	57,990	53,393	7.79%
	주요생산비(십억)	23,606	26,272	27,252	31,673	40,856	36,354	9.02%
	부가가치(십억)	13,869	14,185	14,214	14,678	18,263	16,304	3.29%
생물한방	사업체수(개)	492	535	546	599	585	591	3.73%
	월평균종사자(명)	23,395	23,029	23,394	24,103	23,709	23,808	0.35%
	출하액(십업)	7,105	7,409	7,360	7,905	9,156	9,716	6.46%
	주요생산비(십억)	4,017	4,348	4,653	5,035	5,951	6,378	9.69%
	부가가치(십억)	3,155	3,124	2,695	2,929	3,291	3,318	1.01%
경북제조업	사업체수(개)	3,563	3,768	3,932	4,132	3,973	3,972	2.20%
	월평균종사자(명)	209,647	208,418	222,028	216,820	212,686	210,827	0.11%
	출하액(십억)	95,858	98,891	101,027	108,140	128,515	134,316	6.98%
	주요생산비(십억)	57,202	58,861	61,879	70,538	84,599	86,246	8.56%
	부가가치(십억)	39,409	40,441	39,623	37,839	45,112	47,296	3.72%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2011

구미의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산업이 전자정보산업의 중심

○ 경북지역 IT업체 중 50.9%인 432개가 구미시에 소재

-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의 생산기반이 있으며, IT산업관련 기업 수는 849개로 정보통신서비스 121개, 정보통신기기 610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관련서비스로 118개로 분류, 경북은 전국 IT산업 대비 약 4%의 비중을 차지하여 규모면에서 4위에 해당

〈표 3-25〉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 현황

(단위: 개)

구 분		IT기업 사업분야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 기기 제조		S/W 및 컴퓨터관련 서비스	
전 체	849	121	14.3%	610	71.8%	118	13.9%
구미시	432	16	3.7%	393	91.0%	23	5.3%
칠곡군	124	2	1.6%	119	96.0%	3	2.4%
포항시	79	31	39.2%	9	11.4%	39	49.4%
김천시	44	3	6.8%	39	88.6%	2	4.5%
경산시	54	8	14.8%	26	48.1%	20	37.0%
안동시	30	20	66.7%	4	13.3%	6	20.0%
경주시	26	12	46.2%	3	11.5%	11	42.3%
기타	60	29	48.3%	17	28.3%	14	23.3%

자료 : 「경북 주력 IT분야 역량조사」, 2010

○ 경북 지역의 모바일 산업과 관련하여 구미를 중심으로 부품과 완제품, 소재 등의 H/W 기업체가 집적되어 있으며, 약 200여개의 제조업체에서 약 19조원 이상 매출액 기록

○ LCD, PDP와 같은 디스플레이산업은 경북이 전세계 시장의 약 15%, 국내 총 생산량의 33% 이상 차지

〈표 3-26〉 경북 전자·정보기기산업분류별 현황

(단위 : 개, 명, 십억원)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액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4	821	405	228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 소자 제조업	10	3,842	1,396	59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37	14,490	14,756	4,085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8	2,322	1,626	475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5	463	41	28
전자관 제조업	4	607	177	63
전자축전기 제조업	2	40	12	4
전자저항기 제조업	2	68	2	2
전자카드 제조업	1	-	-	-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17	1,907	327	125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8	395	66	2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8	179	39	18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5	1,885	591	257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5	300	143	45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27	1,606	424	140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7	453	115	37
축전지 제조업	5	770	442	102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9	889	204	88
평판디스플레이 제도용 기계 제조업	16	642	147	57
합 계	164	5,331	2,649	773

주 : 1) 행정구역 산업분류별 사업체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사업체의 경우
2) 비밀보장으로 자료값 대신 -표시하여 제공함
3) 해당업체는 자료 합계에 반영되지 않음
4) 2009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2011

식품제조업 위주의 생물한방산업

○ 생물·한방산업은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생물건강, 한방바이오, 해양생물산업이 융합된 형태의 바이오산업 의미

○ 경북 생물한방산업의 사업체수(2009년 말 기준)는 총 164개, 종사자수는 5,331명, 생산액은 기준 2조 6,490억원, 부가가치액은 총 7,730억원 각각 시현

- 식품 제조업과 화장품 제조업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규모 영세업종 위주로 집적

〈표 3-27〉 경북 생물한방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십억원)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 가치액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18	1,238	99	54
수산식물가공 및 저장 처리업	2	56	69	3
기타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5	113	129	7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8	150	669	13
장류 제조업	20	341	359	12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2	38	59	2
기타식품 첨가물 제조업	3	71	21	8
차류 가공업	1	-	-	-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1	-	-	-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8	210	19	7
인삼식품 제조업	9	361	50	30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2	51	11	6

그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3	119	22	3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	-	-	-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	-	-	-
기타 발효주 제조업	1	-	-	-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7	330	91	30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3	230	65	30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4	98	6	3
한의약품 제조업	2	51	14	3
농약 제조업	2	138	148	43
계면활성제 제조업	2	54	11	6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4	135	29	13
화장품 제조업	6	329	326	255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1	-	-	-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	-	-	-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6	177	74	27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32	1,041	378	218
계	164	5,331	2,649	773

주 : 1. 행정구역 산업분류별 사업체수가 2개 이하인 경우 사업체의 경우
2. 비밀보장으로 자료값 대신 -표시하여 제공함
3. 해당업체는 자료 합계에 반영되지 않음
4. 2009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2011

나. 신성장동력산업

대경권 선도산업(1단계)으로 그린에너지산업과 IT융복합산업 선정

○ 현재 대경권은 선도산업(1단계)으로 그린에너지산업과 IT융복합산업 지정

- 그린에너지산업은 태양광 부품소재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수소연료전지 글로벌 허브 구축사업 포함

- IT 융·복합산업은 IT 융합 의료기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과 IT융합 실용로봇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 포함

○ 대경권 선도산업 전국대비 비중은 높으나, 전반적으로 관련 업종들이 입지계수가 1.0보다 낮아 지역 특화도가 낮은 편

〈표 3-28〉 대경권 선도산업의 전국대비비중 및 입지계수

(단위 : %)

구분	프로젝트명	전국대비비중(%)		LQ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IT융복합산업	IT융복합상용화기반강화사업	12.19	13.00	0.95	1.06
	의료기기 글로벌경쟁력강화사업	8.01	11.52	0.62	0.94
그린에너지	수소연료전지	8.84	5.09	0.69	0.42
	태양광부품소재	9.88	10.40	0.77	0.85

주 : 2009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1년 기준

방사선장치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의료기기산업

○ 대경권 의료기기산업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업체수는 122개, 종사자수는 20,321명, 생산액은 16조원 시현

〈표 3-29〉 대경권 의료기기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코드명	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생산액 (백만원)
방사선장치제조업	47	17,043	15,397,641
전기식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5	504	114,830
치과용기기제조업	6	184	34,579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기기제조업	12	339	34,468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제조업	9	411	67,015
물질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2	248	46,557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7	457	69,269
기타광학기기제조업	2	46	7,799
일반용 전기조명장치제조업	19	982	295,835
자전거및환자용차량제조업	3	97	11,934
합계	122	20,311	16,079,927

주 : 1) 업체 수는 10인 이상 종사자수에 한함
2) 2009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1년 기준

특수목적용기계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 로봇산업

○ 대경권 실용로봇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높은 업종들을 중심으로 업체수는 323개, 종사자수는 7,997명, 생산액은 2,170,344백만원 시현

〈표 3-30〉 대경권 실용로봇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산업명	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중핵 업종	유압기기제조업	45	743	152,721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16	374	55,367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6	314	142,4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제조업	15	471	142,420
	농업 및 임업용 기계제조업	56	1,789	668,003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9	183	39,757
	금속절삭기계 제조업	27	613	124,683
	금속성형기계 제조업	23	556	195,441
	기타 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30	617	112,265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제조업	18	806	251,802
	산업용로봇제조업	8	148	27,963
	펄프 및 종이가공용기계제조업	5	170	46,276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기계 제조업	70	1,383	257,480
연관 업종	금속스프링 제조업	19	534	62,040
	기타측정,시험,항해,제어및정밀기기제조업	4	53	6,355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11	246	43,628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10	329	86,709
	전자집적회로제조업	6	883	416,713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제조업	9	452	160,143
	그 외 기타 전자부품제조업	22	2,075	349,020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1	988	218,190
합 계		430	13,727	3,559,418

주 : 1) 업체 수는 10인 이상 종사자수에 한함
2) 2009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1년 기준

지역 특화도가 높은 비금속소재와 전지부품산업 중심의 태양광산업

○ 태양광산업 세부업종은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플라스틱플림시트및판제조업,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등으로 구분

○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특화계수는 3.3이며, 종사자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42.5% 차지

○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특화계수는 1.1이며, 종사자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17%로서 높은 비중 시현

〈표 3-31〉 대경권 태양광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기타기초무기화학물질제조업	18	329	90,755
플라스틱필름,시트및판제조업	42	1,585	729,443
기타산업용유리제품제조업	24	4,501	2,564,280
다이오드,트랜지스터및유사반도체소자제조업	12	4,077	1,490,856
전동기및발전기제조업	36	2,359	698,591
기타절연선및케이블제조업	15	1,113	2,527,002
반도체제조용기계제조업	35	1,221	270,000
합계	182	15,185	8,370,927

주 : 1) 업체 수는 10인 이상 종사자수에 한함
2) 2009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1년 기준

전국대비 산업 비중이 높은 전기전자부품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심의 연료전지산업

○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27.2%로서 높은 수준

○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비내화요업제품 제조업의 경우, 종사자수의 전국대비 비중이 24.4%로서 높은 수준

〈표 3-32〉 대경권 연료전지산업 현황

구 분	전국대비 비중		
	사업체수 (%)	종사자수 (%)	생산액 (%)
플라스틱선,봉,관 및 호스제조업	14.0	11.4	7.8
점토벽돌,블록및유사비내화요업제품제조업	20.5	24.4	27.3
도금,착색및기타표면처리강재제조업	24.2	27.2	19.1
그 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12.9	14.4	10.8
전기회로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제조업	5.7	7.4	7.8
전기용탄소제품및절연제품제조업	20.0	43.5	48.9
기체펌프 및 압축기제조업	10.1	6.9	5.6
그 외 기타달리분류되지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14.3	15.2	23.6

주 : 1) 업체 수는 10인 이상 종사자수에 한함
2) 2009년 말 기준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 2011

경북의 새로운 원동력 원자력산업

○ 원자력 관련 인력 양성 체계 구축 완료

- 원자력 관련대학은 동국대학교 에너지환경대학 원자력 및 에너지공학부 소재
- 포스텍 첨단원자력공학부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World Class University : WCU) 원자력에너지시스템 분야에 선정
- 영남대학교 기계공학부 내 원자력공학 전공 신설(2011년)
- 글로벌 원전기능 인력양성 사업단 구성 및 울진 평해공고의 원자력마이스터고 선정(2011년)

〈표 3-33〉 경북 원자력 현황

구분	주요업체	취급품목
발전산업	(주)한국수력원자력	수력발전, 원자력발전
원자로 설계	한국전력기술	플랜트설계, 원자로설계, 도로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등
기계/구조분야 제조	(주)현우산기	선박구성부품
전기분야 제작	(주)포스코 ICT	원자력발전소 전기 1급 직류전동기 제어반 및 분전반 제작
설치 및 시공	신월성 1, 2호기 시공3사 대우건설, 삼성물산, GS건설 컨소시엄	원자력기계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전 품목의 설치
재료업체	(주)포스코, (주)현대제철, (주)동국제강, (주)동양E&C, (주)서한ENP	열연제품, 후판제품, 선재제품, 냉연제품,전기강판 등 철근의 제조 및 공급 철강단조제품, 풍력프렌지, 기어림 단조품(이음쇠, 플랜지류)

자료 : 전력산업기술기준 홈페이지(http://www.kepic.or.kr), 2010

라이프스타일 기반의 섬유산업과 화장품산업 육성

○ 경북 섬유산업은 지역별 특화기반을 통해 구축되어 있으며, 천연염색분야 염료 주산지 및 풍부한 인프라 보유

○ 경북지역 화장품 제조업체수는 2008년 기준 17개업체가 있으며, 특히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주)한스킨, 메스코랩 등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을 주도하는 기업 보유

〈표 3-34〉 경북 섬유산업의 지역별 특화기반 구축 현황

지역별	특화기반내역
구미	• 세계적인 화학섬유 생산기반(원료개발·조달용이) • 원사중심의 클러스터 구축(협력기업, 전문기업)
경산	• 고기능성 의류소재 • 비의류용(산업용) : 자동차내장재, 흡음재, Carpet 등
영천	• 차별화 직물 협업클러스터 기반조성
칠곡(왜관)	• 전자·전기업종 등과 연계한 산업용 소재 공급기반 형성
경주	• 자동차 운송업종 등과 연계한 소재특화 기반형성
영주	• 인견직물의 특화기반 형성(생활용 차별화 고가소재)
고령, 성주 등	• 대구산지와 연계 차별화 소재공급 기반조성(system화)
청도 등 기타지역	• 안동(대마), 풍기(인견), 의성·봉화(면)지역의 전통 • 천연섬유원료 공급을 통한 재래산업 육성, 청도 등의 천연염색 특화

자료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대구·경북 섬유산업의 새로운 비전과 신성장 전략(안)」, 2009. 3

다. 혁신자원

대학내 지역혁신센터 중심으로 지역특화산업 육성 사업 추진

○ 대구한의대의 한방생명자원분야, 영남대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분야, 대구가톨릭대 해양바이오산업분야, 경일대 자동차부품 시험분야, 영남대 그린에너지 분야 지역혁신센터가 운영 중

○ 지역혁신센터는 장비활용 및 공동연구 2대기능으로 사업내용을 집중하여 기업지원 실효성 증대로 지역산업육성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

〈표 3-35〉 경북지역 지역혁신센터(RIC) 현황

사업명	사업기간	주관기관	비고
한방생명자원 연구센터	'03.7-'13.2	대구한의대학교	생물한방
무선멀티미디어시스템 설계기술 지역혁신센터	'04.12-'14.2	영남대학교	전자
해양바이오 산업 연구센터	'05.3-'15.2	대구가톨릭대학교	생물
자동차부품 시험 지역혁신센터	'07.7-'17.2	경일대학교	자동차
대경 태양전지/모듈 소재공정 지역혁신센터	'08.7-'18.2	영남대학교	태양광

자료 :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내부자료, 2010. 12

○ 2010년 현재 경북에는 총 7개 지역연고산업육성이 진행 중

- 안동대의 안동 Agro-Marine 융·복합 바이오산업 진흥사업, 경운대 의성 블랙푸드 산업의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풍기인견 명품화 사업,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의 경북 화장품산업육성사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영천지역 오디·뽕 명품화사업 등

○ 지역발전의 주체인 산(産)·학(學)·연(硏)·관(官)이 주체가 되고 기술개발, 인력양성, 네트워크 연계, 마케팅, 기업지원 등의 지원수단을 활용하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연고(특화)자원을 발굴·산업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기여

〈표 3-36〉 경북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현황

과제명	사업기간	주관기관
안동 Agro-Marine 융·복합 바이오산업 진흥사업	'08.7-'11.6	안동대학교
의성 블랙푸드 산업의 글로벌 파워브랜드 육성사업	'09.6-'12.6	경운대학교
풍기인견 명품화 사업	'10.7-'13.4	동양대학교
경북 화장품산업육성사업	'10.7-'13.4	(재)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영천지역 오디·뽕 명품화사업	'10.7-'13.6	대구가톨릭대학교
삽살개를 활용한 한국 애견산업의 세계화	'10.7-'13.4	하브랜드
동해안관광벨트와 연계한 약선식품 브랜화사업	'11.5-'14.4	대구한의대

자료 : 경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내부자료, 2010. 12

거대과학 인프라 중심의 연구기반 구축

○ 3.0 GeV 방사광가속기, 4세대 방사광가속기(예정), 100MeV 양성자가속기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인프라 확보

- 가속기는 과학발전에 있어 고속도로의 역할을 담당하는 국가 대형 연구기반시설
- 선진국에서는 기초과학에서부터 응용과학과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가속기를 활용 중

○ 포항 방사광가속기는 다양한 기초과학분야 연구를 통해 초고집적회로 제작, 신소재개발, 신약개발, 심장병 진단, 미세로봇제작 등에 응용

- 4세대형 가속기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 연계함으로써 방사광가속기의 응용범위가 보다 확대

○ 양성자가속기는 신소재 개발을 통해 국내 산업을 첨단화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개발 인프라

- 경주 양성자가속기는 정보기술·생명공학·나노기술·우주기술 등 첨단 미래산업에 활용될 예정이며, 암치료·신약개발·품종개발 등을 통한 차세대 첨단응용기술의 밑거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포스텍을 중심으로 풍부한 고급 연구인력 보유

○ 경북의 연구인력은 2007년 12,969명에서 2010년 15,265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수도권과 비교해 연구인력 비중은 아직 낮은 수준

〈표 3-37〉 경북 연구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인원	비중(%)
수도권	서울	78,450	27.1	82,928	27.6	86,852	26.9	91,193	26.4
	인천	9,738	3.4	11,080	3.7	11,629	3.6	12,767	3.7
	경기	95,588	33.1	96,747	32.2	105,460	32.6	105,460	33.2
	소 계	183,776	63.6	190,755	63.6	203,941	63.1	209420	63.3
대전	대전	21,216	7.3	22,448	7.5	25,014	7.7	25,277	7.3
지방	경북	12,969	4.5	12,916	4.3	13,302	4.1	15,265	4.4
합 계		289,098	100.0	300,050	100.0	323,175	100.0	345,912	100.0

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사립대학, 민간기업 연구소 중심으로 연구기관 보유

○ 경북은 각종 연구기관 598여개의 연구조직을 보유하여, 전국 3.62%를 차지하고 있으며, 9개의 국공립 연구기관을 보유

〈표 3-38〉 경북 연구기관 현황

(단위 : 개, %)

구 분		전국	경 북	
			개소	비중(%)
공공연구기관		378	15	3.97
	국·공립	114	9	7.89
	정부출연	103	1	0.97
	지자체출연	19	2	10.53
	기타	142	3	2.40
대학		391	27	6.91
	국·공립	70	4	5.71
	사립	321	23	7.17
기업체		15,728	556	3.54
	정부투자기관	30	-	-
	민간기업	15,698	556	3.54
계		16,697	598	3.62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0

기초연구 중심의 높은 연구개발 투자

○ 연구개발단계별 투자현황을 살펴본 결과, 경북은 전국 평균에 비하여 기초연구에 높은 투자

〈표 3-39〉 경북 연구개발 단계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합계	
	금액 (전국대비)	비중	금액 (전국대비)	비중	금액 (전국대비)	비중	금액 (전국대비)	비중
경북	747 (4.4)	36.4	387 (2.1)	18.9	918 (2.6)	44.7	2,052 (2.9)	100.0
전국	17,072 (100)	24.4	18,183 (100.0)	25.9	34,828 (100.0)	49.7	70,084 (100.0)	100.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보고서」, 2008

특허등록의 점진적 증가

○ 2011년 특허등록 건수는 전국 72,258건임. 경북은 2011년 3,557건으로 전국 대비 4.9%를 차지

〈표 3-40〉 경북 연구개발성과(특허 등록) 현황

(단위 : 건)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수도권	서울	20,156	12,958	15,671	21,980
	인천	2,286	1,642	2,253	2,943
	경기	20,152	13,150	16,302	22,583
	소 계	42,594	27,750	34,226	47,506
대전	대전	3,866	3,427	3,874	5,223
지방	경북	3,377	2,484	2,746	3,557
합 계		61,115	42,129	51,404	72,258

자료 : 과학기술통계서비스(http://sts.ntis.go.kr)

과학기술 인프라 및 잠재력 풍부

○ 경북는 포스텍과 경산에 위치한 대학들의 R&D 역량, 구미 중심의 IT 역량에서 강점 보유

- 포스텍은 3천여 명의 연구인력 및 생명공학연구센터, 포항지능로봇연구

소, 나노집적센터, 포항산업연구원(RIST) 등 동남권 최고 수준의 기초 및 응용연구의 기반시설 보유

- 경산에는 대학, 대학원, 전문대 등 연구관련 인프라가 집적
- 구미지역은 국내 IT 생산기반의 중추적 역할 수행

라. 산업단지

지역 산업단지는 전국 산업단지 면적의 약 10% 차지

○ 경북은 2011년 1분기 기준 국가산업단지 9개소, 지방산업단지 51개소, 농공단지 62개소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음.

- 총 조성면적은 133,852천㎡이며, 이중 일반산업단지가 가장 큰 면적 차지
- 분양률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가 각각 98.6%, 85.1%, 98.9%를 차지

○ 국가산업단지는 포항시와 구미시를 중심으로 조성되었으며, 분양률은 98.6%(분양면적 29,749천㎡)로 나타남.

〈표 3-41〉 경북 국가산업단지 현황

(단위 : 천㎡, %)

단 지 명	개발 유형	총 면 적 (천㎡)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면적	미분양면적	분양률
월성전원	완료	4,055	377	377	-	100.0
구미국가 1단지	완료	10,223	7,908	7,908	-	100.0
구미국가 2 · 3단지	완료	7,361	4,824	4,824	-	100.0
구미국가 4단지	조성중	6,785	3,787	3,027	411	88.1
구미국가 확장단지	미개발	2,457	303	-	-	-
포항국가	조성중	37,869	13,613	13,613	-	100.0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중	9,339	5,102	-	-	-
포항블루벨리	조성중	6,203	3,666	-	-	-
계		84,292	39,580	29,749	411	98.6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1.1분기

○ 지방산업단지는 총 51개소로 조성 완료된 곳은 26개소, 조성 중인 곳은 25개소임.

- 총 면적은 39,288천㎡, 분양면적 12,107천㎡, 분양률 85.1%

○ 농공단지는 총 62개소로 현재 조성 중인 곳은 8개소임.

- 총 면적은 10,273천㎡, 분양면적 7,057천㎡, 분양률 98.9%

마. 제조업의 문제점

산업 구조 조정 지체

○ 경북의 경우,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에 있어 단순생산 및 요소투입중심형 산업형태를 띠고 있어 신산업 육성 기반이 취약한 상황

○ 제조업의 경우에도, IT산업 기반은 우수하나 핵심 R&D 기능이 배제된 단순한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섬유, 자동차부품 등 기존 주력산업은 점진적 구조전환 중

○ 정부는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중이므로 지역 산업의 구조고도화 필요

산업정책의 효율성 미흡

○ 전략산업으로 지정된 섬유, 전자, 기계 등의 지역 주력산업이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략산업 관련 R&D 기능 취약하고 효율적 사업관리체계 미흡

- 구미의 섬유산업 쇠퇴 및 전자산업 단순 생산 집적지
- 포항의 경우 철강위주의 단일 산업구조

○ 미래지향적 측면에서 대경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선정하여 단기적 성과 도출 미흡

- 태양광 : 국내시장 미성숙, 해외 수출시장 지원 미비
- 수소연료전지 : R&D에 대한 보다 체계적 지원 미비
- 의료기기 : 현재 관련기업의 미성숙
- 실용로봇 : 로봇산업기반 부족

산업 구조적 문제 내재

○ 요소투입 성장의 한계

- 최근 국가적으로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산업 또한 마케팅 및 경영능력 부족으로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
- 산업내 니치 마켓 발굴이 저조하고, 시장창출 능력이 미흡하며, 기존 기술개발의 활용과 산학연 혁신 결과 활용도가 저조한 상황

○ 산업 및 지역 간 불균형 심화

- 경북의 각 제조 기반도시들의 롤모델 정립이 부진하여 산업 및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각 기능별 특화가 미흡한 현실

○ 산업내 중국 영향력 증대

- 지역 산업내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등 아시아 신흥 이머징 국가와의 연계 부족
- 형식적인 한중일 산업기술 교류로 인해 신흥국과의 정보/비즈니스 교류가 미흡한 상황

○ 낮은 질적 성장역량, 혁신능력

- 첨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질적성장을 꾀하고 있으나 혁신능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장기 지역산업발전전략 부재

- 국가장기 산업발전과 연계한 지역 중장기 산업구조발전 전략이 없고, 중앙정부의 정책 추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독자적 산업 방향을 미제시

리딩기업의 부재

○ 지역성장을 선도할 리딩기업의 부족, 산업 및 기술 간 융합화 열세, 중소/중견기업 기반 약화, 선도 및 전략산업 지원성과 도출 미흡, 전략산업 구조고도화 지연으로 산업구조의 저부가가치화 지속

중소기업 역량 취약

○ 대기업 R&D 기능 약화 및 중소기업 R&D 역량 취약, R&D 사업의 제품화, 시장화 여건 미비, 시장 및 기업친화형 R&D 지원체제 미정립, 타 지역과의 차별화된 R&D 지원정책 부족, 연구기관 기능 중복 및 역할 미흡 등

고급일자리 부족과 우수인재 유출

○ 대기업 이전에 따른 고급일자리 감소, 우수인재의 역외유출, 현장 전문인력양성 부족, 중소기업 중심의 인력정책 결여,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청년실업 증가 등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부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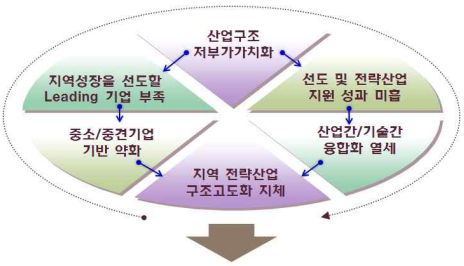
○ 지역의 폐쇄적 산업구조로 개방형 네트워크 구축 부진, 지역 연구기관 간 기능 중복 및 협력 미비, 대구경북 경제협력을 위한 구심력 부족으로 글로벌 접근성 취약

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

○ 산업단지 내 기반시설 노후화 및 문화복지시설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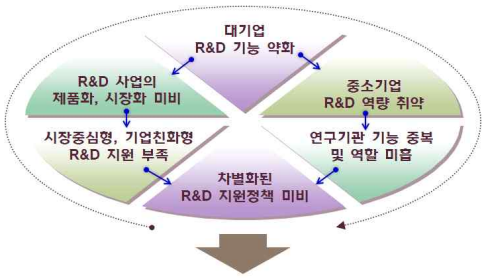
- 소규모 획지분할에 따른 도로, 주차장 등 기업지원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기숙사, 녹지공간 등 문화 및 기반시설 부족

○ 농공단지의 경우 입주기업 자체 능력 부족 또는 인프라 부족, 혁신역량 부족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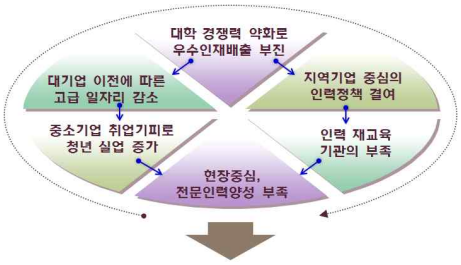
지역 기업 경쟁력 약화

〈그림 3-9〉 기업부문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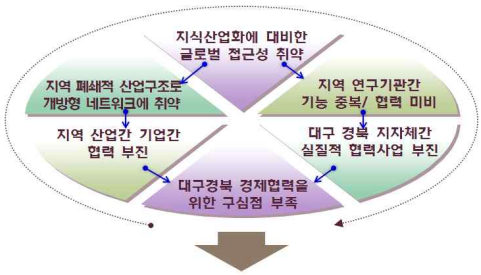
지역 R&D 역량 약화

〈그림 3-10〉 R&D 부문 문제점



중소기업 인력부족 / 청년 실업 증가

〈그림 3-11〉 인력 부문 문제점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부진

〈그림 3-12〉 네트워크 부문 문제점

- 농촌지역의 경우, 교육, 의료, 상하수도, 문화 및 복지 등 각종 생활환경시설이 도시 지역에 비해 약 15% 수준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트렌드 변화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녹색화

○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의 사회문제 대두, 국제 환경규제의 강화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녹색산업(Green화) 부각

- 전기차, LED 등 녹색산업 분야의 시장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 본격화

컨버전스(Convergence)의 확산 등 급속한 기술혁신

○ 이종산업 간 컨버전스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전망

-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통신과 금융, 의료와 바이오, IT와 주력 제조업 등 이종산업간 컨버전스가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산업영역 창출

○ 특히 IT 기술향상에 따라 자동차, 조선, 화학, 건설 등 IT산업과 기타제조업·서비스업과의 융합이 크게 주목

글로벌화와 신흥시장의 급성장

○ 중국을 비롯한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등 BICIs 국가들 뿐 아니라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개도국들이 급부상

감성사회 발전에 따른 소프트파워의 부상

○ 감성과 문화중심의 소비자 수요변화에 따라 하드웨어 산업이 한계에 봉착하고 소프트 산업이 유망분야로 급부상할 전망

- 애플社는 아이튠스(i-Tunes)와 앱스토어(Application Store)의 강점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문에서 시장지배력을 확대

○ 소프트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기존산업의 부가가치 창출능력 확대

지식화/ 창조화의 진전

○ 개인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창조화 경제가 부상함과 동시에 그 핵심이 되는 창조산업[1)]이 새롭게 주목

개방화와 네트워크화

○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IT 산업 및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의 개방화와 네트워크화가 진전되면서 기술 가치가 더욱 커지고 기업 경쟁력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기업,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

- 리눅스와 같은 open source software의 개발, 야후의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소프트웨어나 콘텐츠 개발, 인터넷 서비스 뿐 아니라 애플 아이폰과 같은 제품에서 활용되는 콘텐츠도 개방화가 필수

나. 제도 변화

산업발전법

○ 지역 중소기업이 경쟁력 갖춘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 마련

○ 도시형 강소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도시형 산업 육성책 제시

산업융합촉진법

○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제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안 마련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

1) 창조산업(CreBiz)은 기존의 문화, 콘텐츠 산업의 범주를 뛰어넘어 제조업, 스포츠 산업 등 타 산업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그 중요성 대두

○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녹색경제산업 구현, 저탄소사회의 구현,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실현 제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의 첨단화, 지식산업화에 따른 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산업의 업종전환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 수도권내 500㎡이상의 공장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 제한을 완화하는 '첨단업종'의 범위 조정

3. 계획 방향

가. 목표

산업경제 발전과 거대과학 인프라 중심거점

○ 주력산업 역량 강화와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동력 발굴

○ 첨단과학기술 역량 강화

○ 新산업공간 창출

나. 추진방향

지역 주력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지역전략산업의 기술역량 제고로 구조 고도화

○ 국가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부응의 新전략산업 육성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 IT기반 융복합산업 지속성장 기반 조성

○ 국가적 차원의 신산업·녹색산업 분야의 전략적 육성

산업단지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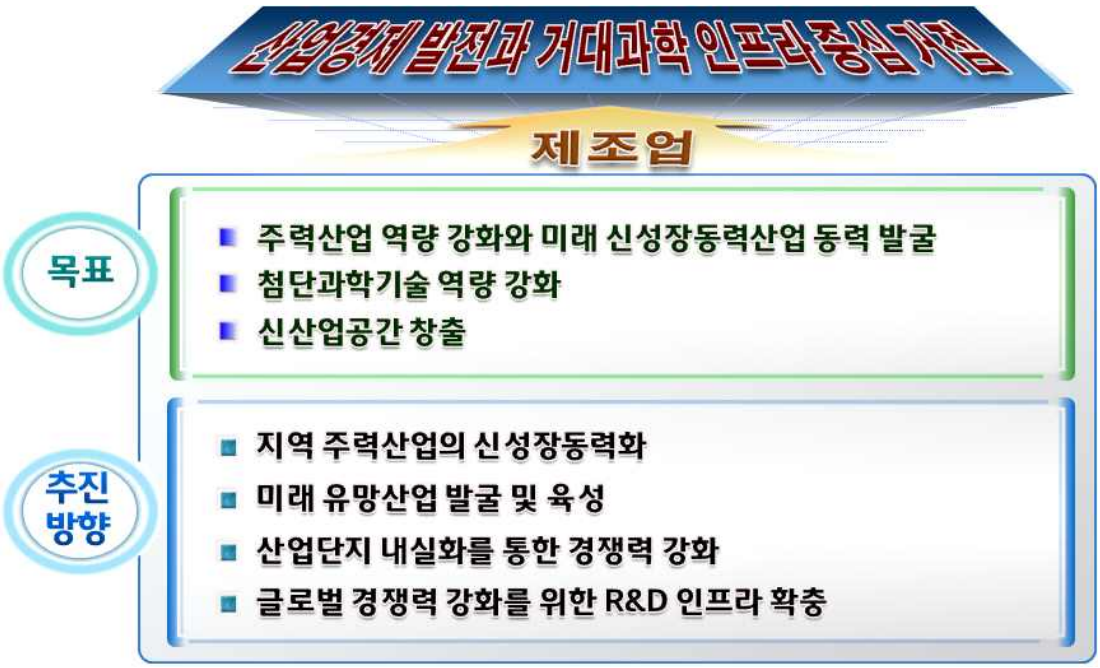
○ 산업단지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단지의 그린화·첨단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용지 공급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인프라 확충

○ 미래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거대과학 인프라 조성

○ 기초과학 역량강화를 통한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그림 3-13〉 제조업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지역 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화로 육성

지역 전략산업의 고도화 추진

○ 경북지역 지역산업 진흥을 위한 지역산업의 여건, 산업경쟁력 분석을 토대로 산업 간, 사업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한 경쟁력 제고 방안 수립

- 전자정보기기산업, 신소재부품산업, 생물한방산업 등 전략산업간 융합적 추진을 위한 지원산업 간 연계 추진

○ IT, NT, BT 등 다양한 기술들과의 융합을 통한 기술역량 제고로 기존 전략산업의 업그레이드

- 디스플레이핵심부품 국산화지원센터 건립, IT융복합부품 실용화센터 구축으로 전자정보기기산업의 고도화 추진
- 신소재부품산업은 그린카부품소재, 바이오메디컬소재, 이차전지 핵심소재로 업종 추가 및 확산
- 생물한방산업은 경북바이오 벤처프라자 건립,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건립 등을 통해 한방·바이오산업의 원천핵심기술 지속적 확보

○ 신소재부품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미래전략 신소재분야 발굴 및 전략적 육성

- 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기반구축 사업, 환경친화형 복합재 성형 R&D기반 구축, 에너지 융합섬유소재 개발, 다기능성 폐Graphite 소재 R&D 기반 구축 등 신소재분야 관련 사업 추진
- 태양광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개발 및 품질검증 기반 조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

중앙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新전략산업 발굴·육성

○ 2단계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과 광역선도산업 사업의 통합성격 사업인 대경권 선도산업(2단계) 관련 프로젝트 추진

- 그린에너지산업(태양광장비, 연료전지), IT융복합산업(실용로봇, 치료/헬스 의료기기), 스마트기기부품(스마트모바일, 스마트자동차부품), 첨단융합소재(첨단금속·세라믹소재, 하이테크섬유소재) 등 2개 미래성장동력산업과 2개 주력산업 선정

○ 대경권 선도산업(2단계)의 특화발전 방안 수립

- 지역 여건 및 비교우위 자원에 기반한 차별화된 발전전략 수립
- 선도산업 관련 인프라 기반
- 유망품목 중심의 포트폴리오형 산업생태계 조성
- 광역권 연계협력 방안 마련

〈그림 3-14〉 대경권 선도전략산업의 포토폴리오형 산업생태계

나.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IT융복합산업 발굴 및 육성

○ 지역 강점산업인 IT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비교우위산업과의 기능적 융합을 통한 첨단융합산업 발굴 및 육성

○ 의료기기, 로봇 등과 관련된 산업인프라를 중심으로 IT산업과의 기능적 융합을 통해 첨단산업 발굴

- 의료기기 부품소재 생산 집적단지 조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추진
- 수중시공로봇 및 핵심원천기술개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첨단 수중시공로봇 개발사업 추진
- 대경권 IT산업과 광주권 光산업을 연계한 초광역 3D 융합산업 육성
- 스마트센서 국산화 기술개발로 지역연관산업 발전 및 수출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센서 기반 IT융복합 산업 육성

원자력, 항공부품 등 국가적 거점산업 육성

○ 국가적 차원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점산업 육성

-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과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의 새로운 거점산업 발굴 및 육성
- 원자력 과학기술, 산업생산, 인력양성, 친환경인프라 관련 시설이 집적

된 동해안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 친환경 고효율의 글로벌 리드형 건설기계·부품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 항공부품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을 제고하기 위한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 추진

첨단 바이오산업 발굴 및 육성

○ 미래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생명자원 클러스터 조성

- 차세대 백신 기초연구 및 실용화 기술개발 수행하는 한국백신종합연구원 설립

- 약용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R&D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전문기관인 국립약용자원연구원 설립

- 동·식물자원사업, 생명산업 등을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농업생명미래관 건립

전략적 녹색산업 발굴

○ 경북내 풍부한 수자원 및 물 관련 산업기반을 토대로 그린워터 산업 육성

- 정수처리산업, 하수처리산업, 수자원개발 관련 부품소재 개발 및 생산 관련 물산업 부품소재 상용화 단지 조성

- 신재생에너지 자원 개발 및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글로벌 규제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 설립

○ 경북 지역별 특화산업기반을 활용한 전략적 녹색산업 발굴

- 천연소재, 천염염색, 화장품산업 등 지역 강점요소를 활용한 전략적 신산업 발굴

- 천연색소산업관련 연구원 및 산업화 추진, 글로벌화장품산업단지 등 라이프스타일 관련 지역 녹색산업 발굴

○ 그린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및 R&D 지원 기반 구축

- 수소연료전지 산업집적화단지 및 국산화 수소연료전지 시범단지 조성

- 태양광, 연료전지 관련 테스트베드 구축, 태양광 모듈 국제인증TÜV 시험평가기관 운영 등 그린에너지 관련 시험인증 기반 구축

다.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추진

○ 지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동시에 고려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실현

- 구미국가산업단지의 QWL(Quality of working Life) 밸리사업, 산학융합지구 사업 등을 통해 생산근로자 삶의 질 향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 극대화

- 노후산단의 환경오염물질 재활용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및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는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기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

○ 도내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통한 무역의존도 개선 및 일자리 창출

- 산업단지 기능인 공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고려한 일괄보상 및 수요맞춤형 개발 형태의 포항블루밸리, 구미하이테크밸리,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등 조속히 추진

○ 민간주도의 산업단지 지정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자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체제로 전환 필요

- 경북도내 시·군별로 지역향토(토종)산업 관련 맞춤형 산업단지 지정 및 확대

기업유치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유도

○ 도내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내외 기업 유치 전략 추진

-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포항융합기술지구, 구미디지털 지구 등 경제자유구역의 기반시설 및 인프라 조성으로 외국인 기업 유치 및 경제자유구역 조기 활성화 유도

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인프라 정비

거대 R&D 인프라 조성

○ 미래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거대 R&D 인프라 조성으로 기초연구 뿐만 아니라 응용연구를 통한 산업화 확대

- 4세대 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건설을 통해 국가 기초연구 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형 산업화를 선도할 수 있는 거점 조성

○ 가속기 융합 클러스터 조성

-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한 산업기술 개발 지원, 공학분야분석 지원 등 산업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3세대 방사광가속기 활용사업

- 나노(10^{-9})와 펨토(10^{-15}) 영역의 동시탐구로 세계 수준의 첨단기술을 선점하고 국가 과학기술의 선진화 도모하기 위한 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

- 경주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를 활용한 '의료·생명', '산업용 신소재·부품', '에너지·환경' 3개 분야의 양성자자속기 활용 R&BD 단지 조성

대형 국책 R&D사업과 연계한 미래 유망산업 발굴

○ 대형 국책프로젝트의 R&D 기능과 연계한 지역 미래유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경북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구·경산연구개발특구 등 대형 국책사업의 R&D 기능과 연계 가능한 미래 유망산업 발굴

기초과학 중심의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 글로벌 과학기술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지역 과학기술 분야 역량 강화

- 막스플랑크연구소 및 亞太이론물리센터 지원, 글로벌 공동연구프로그램 지원 등

제3절 서비스업

1. 현황 및 문제점

가. 서비스산업

저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중심

○ 2010년 경북지역 사업체수는 161,211개이고, 종사자수는 572,268명임.

○ 경북지역 서비스업의 사업체수는 도매 및 소매업, 음식숙박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순임.

〈표 3-42〉 경북 서비스산업 업종별 현황

(단위 : 개, 명)

산업별	2009년		2010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2	5,973	175	6,594
하수폐기물 처리 및 원료재생업 및 환경복원업	362	3,656	488	5,110
도매 및 소매업	46,110	109,800	46,783	110,813
운수업	15,769	37,680	15,583	39,293
음식숙박업	42,236	96,391	42,441	97,019
금융 및 보험업	2,227	26,257	2,243	26,32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160	2,233	874	9,273
부동산 및 임대업	3,638	12,068	3,738	12,187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업	2,156	11,080	2,410	14,48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1,261	20,029	1,403	24,35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31	45,801	1,242	44,937
교육서비스업	7,533	20,681	9,320	78,118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5,088	49,203	5,585	55,149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	5,387	15,279	5,390	2,273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17,155	34,042	23,536	46,337
합계	150,485	490,173	161,211	572,268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2

나. 문화 콘텐츠산업

지역 문화산업 소폭 감소

○ 지역의 문화산업 관련 기업 수는 2010년도 기준 5,137개, 종사자 수 1만 3,128명, 총 매출액은 5,810억으로 2008년 대비 다소 감소

- 특히 출판, 게임 산업에서는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반면, 영화·비디오, 방송트 산업에서는 2010년 매출액이 2008년 대비 소폭 상승

〈표 3-43〉 경북 문화콘텐츠 산업 현황

(단위 : 개, 명, 백만원)

구 분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08년	2009년	2010년
출판	1,058	1,025	999	4,508	4,117	4,432	224,590	215,974	183,394
만화	75	63	54	137	99	80	1,733	1,079	939
음악	2,158	2,041	2,008	3,316	2,935	2,922	59,591	50,513	60,241
게임	1,139	1,026	947	2,345	2,086	1,930	51,327	45,340	49,240
영화·비디오	90	87	163	474	473	600	29,318	30,440	26,811
애니메이션	1	1	6	60	64	44	1,737	2,879	1,592
방송	73	70	68	767	855	716	158,527	160,892	167,611
광고	144	144	203	306	296	522	20,318	18,558	39,629
캐릭터	1	2	7	55	52	85	5,998	8,060	19,048
에듀테인먼트	3	4	-	17	20	-	585	853	-
공연/전시	105	111	144	-	1	846	-	10	2,676
공예	567	565	538	991	970	951	30,226	29,876	29,838
전 체	5,414	5,139	5,137	12,976	11,968	13,128	583,950	564,474	581,019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경북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사」, 2011

경북 대표 문화콘텐츠산업 공예산업 침체

○ 경북 공예산업 사업체수는 2010년 현재 538개로 2008년에 비해 29개 감소하였으며, 종사자수는 2008년 991명에서 2010년 951명으로 감소하였음. 또한, 매출액도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으로 경북 공예산업은 침체

다. 금융산업

서민 이용 예금은행 점포수 소폭 증가와 어음 부도율 증가

○ 경북 예금은행 점포수의 전국대비 비중은 3.4% 차지하고 있으며 2005년 230개 점포 대비 2010년 260개 점포로서 소폭 증가

〈표 3-44〉 경북 예금은행 점포수 추이

(단위 : 개소,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국	6,623(100)	6,998(100)	7,273(100)	7,536(100)	7,422(100)	7,598(100)
경북	230(3.5)	238(3.4)	247(3.4)	263(3.5)	258(3.5)	260(3.4)

주 : 점포수는 일반은행과 특수은행 통계를 합계한 것임
자료 : 한국은행, ECOS, 2011

○ 저축성 예금은 2006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지속적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한편, 어음 부도율도 지속적 증가 추세

〈표 3-45〉 경북 금융기관 저축성 예금 및 어음 부도율

(단위 : 10억원)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예금총계	15,583.3	15,963.6	17,619.1	17,519.2	19,368.3
저축성 예금	13,070.5	13,626.5	15,271.1	15,029.4	16,714.3
어음 부도율	0.17	0.29	0.27	0.43	0.47

주 : 1) 예금 취급점포 기준
2) 예금총액은 외화예금 및 동업자예금 제외
3) 어음 부도율은 부도금액 기준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2

라. 소비형 서비스산업

지역내 대형 유통업 및 기업형 슈퍼마켓 증가

○ 경북은 대형유통업은 2005년 이전 15개소에서 2010년 현재 24개소로 약 40%, 기업형수퍼마켓(SSM)은 29개소에서 35개소로 약 45% 증가

〈표 3-46〉 경북 시장 및 대규모점포 등록 현황

(단위: 개소)

시 장					대규모 점포(3,000㎡이상)					SSM (3,000㎡이하)
계	설립주체		시 일		계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 센터	전문점 (의류)	
	공설	사설	상설	정기						
2,011	96	96	98	94	24	20	2	2	-	35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1

숙박 및 음식점업 높은 비중 차지

○ 관광산업 비중이 높고 지역의 범위가 넓어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수가 42,441개, 종업원이 97,019명으로 서비스산업 중 26.3%, 17.0%를 차지

마. 서비스산업의 문제점

지식서비스산업의 기반 취약

○ 지역의 경우 실물경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극히 취약하고 소비형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음.

- 지역에는 지식서비스산업 중 컨설팅분야와 IT서비스, 디자인분야 등에 몇개의 기업들이 있지만, 전문 서비스수준이나 생산성, 규모수준 등이 서울지역 기업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실정

지역 비즈니스서비스 시장의 수요 부족, 시장활성화 한계

○ 지역 비즈니스서비스 시장의 물리적 한계는 비즈니스서비스 이용대상이 되는 수요 제조기업의 대부분이 너무 영세하여 실제로 비즈니스서비스를 이용하기에 한계점 내재

가치창조적 생산기반 부재 : 실용적 OSMU 부진

○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 장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원 소스 멀티 유즈(OSMU)' 활성화 필요

○ 지적재산권 기반의 장르 간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이는 컨버전스 기반 OSMU 라이센싱 활성화 지원 요구

하드웨어에 편중 & 내실화 부족

○ 현재까지 문화정책의 중심은 포괄적 의미에서 시설 확충 단계에 있는 실정이며, 시설별 특성화·유형화 등 시설의 구체적 내부력 강화계획 부재

○ 하드웨어 구축 후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재정계획 부족

대형유통업체 입점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상권 잠식

○ 대형종합소매점 확대는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상권으로부터 수요 전환 현상이 발생하여 지역 유통시장 잠식

○ 전통시장, 영세슈퍼마켓 등에 비해 서비스의 질적 측면 우수, 편리성 추구하는 도시민 쇼핑 취향에 맞추어 서비스하는 등 소비자 만족 증대

가격경쟁력 약화와 서비스 마인드 부족으로 전통시장 쇠퇴

○ 전통시장 내부적으로는 전근대적인 유통활동, 영세성, 비효율적인 경영, 조직화 및 협업화 부족, 시설 낙후성 등으로 경쟁력 상실

○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공급과 서비스시스템으로 대형유통산업체에 수요를 잠식 당하고 있는 실정

도내 지역자금의 역외이탈 심화

○ 비예금은행의 수신은 늘고 있는 반면, 여신의 규모는 지속적 감소 추세

○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중 농·수·축·임협 등 상호금융의 경우는 지역의 일반시민 및 경북의 산업 특성상 해당 종사자 수가 많아 여·수신 규모가 꾸준히 증가

○ 비예금은행들 중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우체국예금 등은 수신위주의 업무 특성상 자금의 역외유출 불가피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트렌드 변화

지식서비스의 시장개방 요구와 지식 보호 강화

○ 시장 개방에 따른 규제 및 진입장벽 완화와 경쟁 심화

○ 핵심지식의 확보, 보호 및 자산 전략화를 위한 선진국들 정책드라이브 가속화

○ 서비스의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접목하여 서비스산업을 새롭게 연구하는 서비스사이언스 대두

서비스시장 활성화 요구 증대

○ 방송·통신·콘텐츠

- 3D 방송시장 활성화 지원(3D 지상파 실험방송 추진, 방송사 3D 콘텐츠 제작지원, 인력양성 등)

○ 사회서비스·사업서비스

- 사회서비스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전자바우처 제공기관을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 SW 분리발주 제도를 의무화하여 기술력 있는 중소 SW업체의 수주 증대 등 경쟁력 제고 지원

○ 전문자격사 시장 개방

- 법률, 회계, 세무, 특허, 의약 등 전문자격사의 회사형태, 자격요건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대형화·전문화를 유도

○ 서비스산업 차별 개선

-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을 완화하여 세제혜택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
-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을 서비스업종으로 확대
-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증, 수출여신 등 금융지원 확대

도시화에 따른 서비스업의 대형화와 프랜차이즈화

○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거대도시화 진행과 도시의 환경/생활여건 및 편의향상 추구

○ 최근 대형마트, 백화점, SSM 같은 유통업종과 음식숙박업의 프랜차이즈화로 유통서비스업의 대형화 추세

IT 기반 기술의 발달, 융합기술 패러다임 등장 등 기술적 변화

○ 네트워크, 디바이스 등 디지털 컨버전스를 통한 새로운 IT서비스 제공 확대

○ IT기술 발달 및 다양한 산업/지식과의 융합 등장

에코 트렌드 대두

○ 기후변화 대응, 전산업의 친환경화, 사회의 로하스 지향 등 산업의 녹색화 진행

나. 제도 변화

서비스산업발전법

○ 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수립

○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체계 강화,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생산성 향상 지원, 서비스산업의 기반 조성 등이 주요 내용

이러닝산업발전법

○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러닝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수립

○ 이러닝 활용촉진, 소비자 보호 시책 강화, 이러닝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골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

○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3년 간)

○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며 한달에 1~2회 강제로 쉬게 하는 내용 포함

3. 계획 방향

가. 목표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서비스산업의 차별적 역량 강화

○ 신서비스산업 전략적 발굴 및 육성

○ 서민생활 안정화

나. 추진방향

지역 강점형 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 수도권과 차별화된 지역 비교우위 서비스산업 육성

○ 제조업·서비스업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 지역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콘텐츠 산업 육성

○ 지역 장인 명품산업 육성

청결하고 신뢰받는 소비형서비스산업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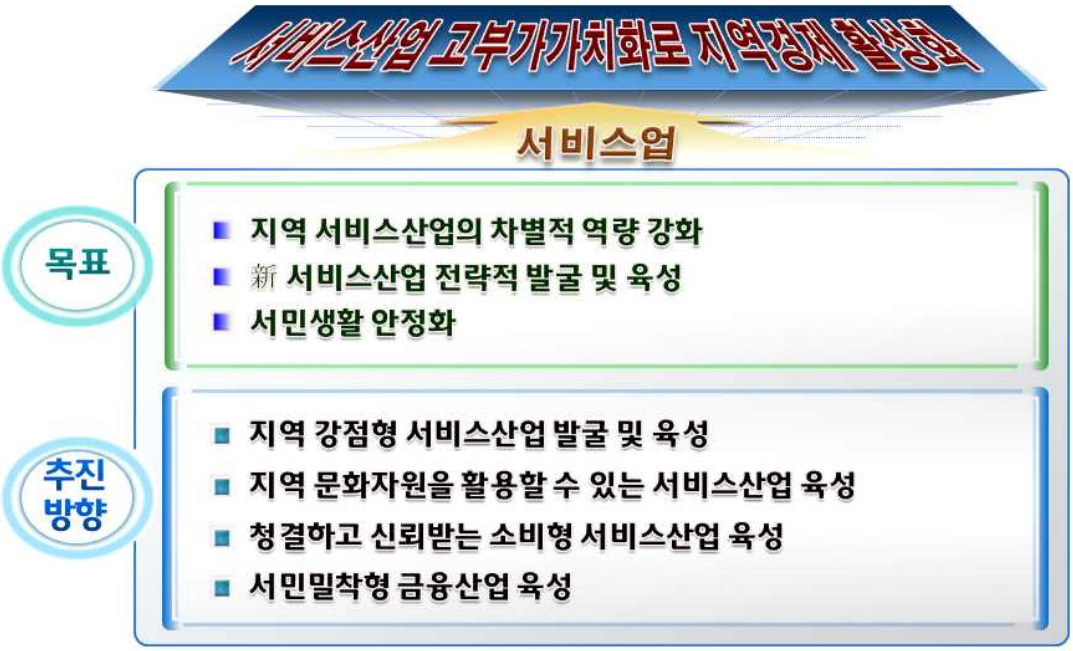
○ 차별화된 전통시장의 현대화

○ 음식·숙박업의 서비스품질 개선

서민밀착형 금융산업 육성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대출지원 확대

○ 지역자금의 지역내 환류 촉진



〈그림 3-15〉 서비스업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경북형 지식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지역 착근형 서비스산업 육성

○ 비교우위에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으로 틈새시장 공략 필요

- 수도권 대비 특화도가 높은 연구개발업, 법무관련서비스,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시행사 대행업 등 육성

○ 경북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서비스분야와 연계하여 경북형 서비스산업 허브로 조성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법률서비스와 우정사업본부조달사무소, 조달청품질관리단 등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조달서비스 육성

제조업-서비스업 동반성장형 사업서비스산업 육성

○ 지역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동시에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사업서비스산업 육성

- 제조업의 자동화, 서비스의 전산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산업 육성
- 제조업의 녹색화를 지원할 수 있는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사업 추진

○ 지역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지식재산권 창출 촉진을 위한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 추진
-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전센터 설치 운영으로 우수기술의 발굴, 기술이전 중개 및 신기술 산업화 촉진

나.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 문화콘텐츠 스튜디오 건립, 문화상품 제작 벤처빌딩 건립, 문화사품 전시·판매장 건립 등 경북 문화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 애니메이션을 원천소스로 하여 완구, 캐릭터, 게임, 출판사업 등 OSMU를 통해 동화작품 TV애니매이션 제작 및 산업화
- 첨단기술 집합체인 로봇과 콘텐츠의 융합을 통한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해 4D 가상환경기반 승마 스마트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육성

-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고자 인물 관련 자료를 3D 및 디지털화를 위한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 삼성현문화관 콘텐츠 개발 사업을 통해 방문객들의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 조성

지역 전통 명품산업 육성

○ 지역에 집적된 공예산업 관련 자원 중심으로 한 명품산업 육성

- 경북의 신성장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국립공예촌 조성, 도립문화예술회관 건립, 도립도서관 건립 등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 명품 복합 문화단지 조성

○ 전통문화산업 육성센터, 인력양성 및 전수 양성센터, 제조 및 생산

시설 등 집적화를 통한 전통문화산업육성 단지 조성

- 전통 의류, 전통 식품, 전통 공예, 전통 건축 등 다양한 전통문화 전략적 육성

다. 청결하고 신뢰받는 소비형 서비스산업 육성

전통시장 차별화 사업의 확대

○ 전통시장의 편의시설 확충, 홍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지속적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 추진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전통시장 클린 5일장 육성사업 등 다양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 전통시장 러브 투어, 전통시장별 특화상품 발국 육성(1시장 1특산품) 등 전통시장 살리기 차별화 시책 추진
- 고객유인을 위한 전통시장 홍보강화를 위해 「젊은 층 고객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장보기 운영」 홍보 추진, 전통시장 현장체험단 운영 등 다양한 사업 추진

음식·숙박업의 서비스품질 개선

○ 고객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상인서비스교육 및 사업전환 교육 등 체계적 서비스 품질 교육 시스템 도입

- 상인워크숍, 우수시장 벤치마킹 등 경영 마인드 향상을 위한 지속적 품질 교육 실시

라. 도내 금융소외계층에 금융지원 강화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방안 마련

○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재계·금융권의 기금출연을 통한 미소금융사업 추진

○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을 위한 경북와 서민금융회사가 공동재원 출연을 통한 햇살론사업 시행

○ 도내 금융소외계층을 방지하기 위한 낙동강 대부 사업 추진

3장

강·산·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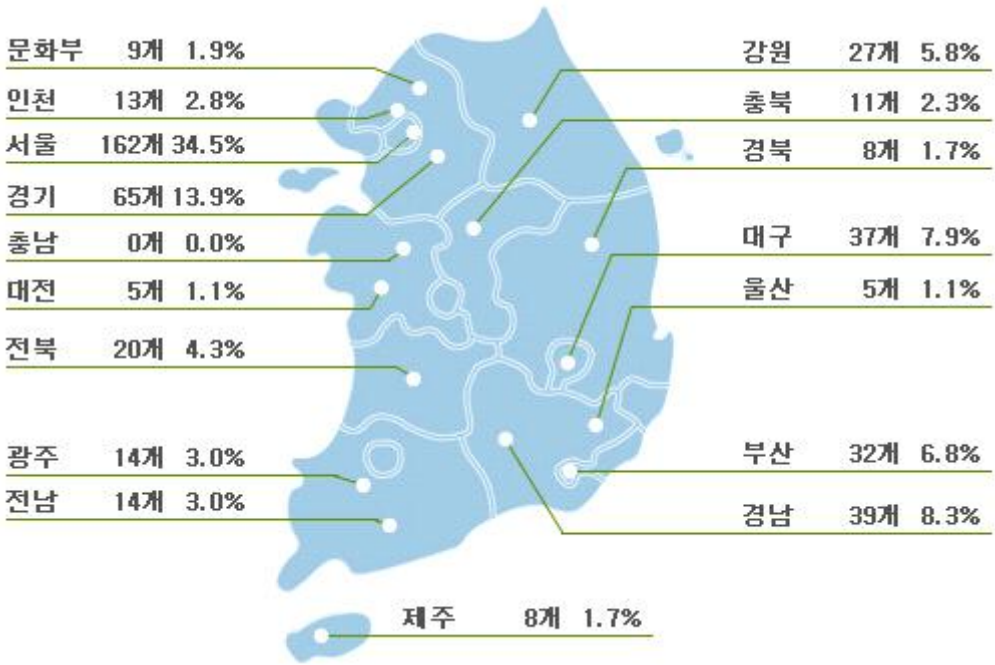
제1절 문화기반

1. 현황 및 문제점

가. 문화관련 주체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전국의 1.7%에 불과

○ 2011년 9월 현재 전국의 전문예술법인·단체는 총 469개로, 이중 경북의 전문예술법인·단체는 8개에 불과함.



자료 : 전문예술법인·단체 홈페이지,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현황」, 2011. 9

〈그림 3-16〉 전문예술법인 · 단체 현황

○ 법적 유형별로는 재단법인 1개, 사단법인 2개, 임의단체 5개

○ 주로 공연활동을 수행하며, 장르별로는 전통 3개, 음악 2개, 국악·연극·기타 각각 1개임.

- (사)옛소리국악진흥회(김천, 국악), (사)전통문화진흥회(경주, 전통), (재)문화엑스포(경주, 기타), 구미오페라단(구미, 음악), 극단 구미레파토리(구미, 연극), 별고을광대(성주, 전통), 정순임민속예술단 세천향(경주, 전통), 포항오페라단(포항, 음악)

공공예술단원의 대부분이 비상임 단원으로 전문성 저하

○ 경북의 공공예술단은 총 27개로, 총 1,362명의 단원이 활동 중임.

- 도립예술단은 2개(교향악단, 국악단), 이외 25개는 시·군립예술단

- 상임과 비상임은 1:2 비율이며,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및 소년소녀관현악단은 모두 비상임단원

〈표 3-47〉 공공예술단 현황

(단위 : 개, 명)

구분		교향악단	국악단	무용단	합창단	소년소녀 합창단	연극단	소년소녀 관현악단	합계
단체		3	2	2	8	5	5	2	27
단원		209	114	66	405	311	140	117	1,362
	상임	149	68	-	98	-	50	-	365
	비상임	60	46	66	307	311	90	117	997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나. 문화기반시설

문화기반시설의 시·군부간 불균등

○ 도서시설로는 총 58개의 공공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시부에 39개, 군부에 19개가 있어 군부는 군민의 생활권내에 도서관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음.

○ 전시시설로는 57개의 박물관 및 6개의 미술관을 보유하고 있음. 성주군과 울진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박물관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고, 미술관은 시부 3개(포항, 경주, 영천), 군부 3개(청송, 청도, 울진)가 있음.

- 대표적 사립 전시시설인 화랑은 청도 3개소, 영천 2개소가 있으며, 모두 주요 시장인 대구 인근에 위치

○ 대표적 공연시설인 문예회관은 총 23개소가 있으며, 의성, 청송, 청도, 봉화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1개 이상의 문예회관을 보유하고 있음.

○ 대표적 문화보급·전수시설인 지방문화원은 23개 시·군 모두 1개소씩 있으며, 전수회관은 8개소가 있음.

- 전수회관은 안동과 예천에 각각 2개소가 있으며, 김천, 상주, 경산, 청도에 각각 1개소가 있음.

〈표 3-48〉 시·군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구 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개소	%
포항시	14	8.4	8	13.8	3	5.3	1	16.7	1	4.3	1	4.3
경주시	16	9.6	6	10.3	5	8.8	1	16.7	3	13.0	1	4.3
김천시	6	3.6	1	1.7	2	3.5	-	-	2	8.7	1	4.3
안동시	16	9.6	4	6.9	9	15.8	-	-	2	8.7	1	4.3
구미시	9	5.4	5	8.6	2	3.5	-	-	1	4.3	1	4.3
영주시	6	3.6	3	5.2	1	1.8	-	-	1	4.3	1	4.3
영천시	6	3.6	2	3.4	1	1.8	1	16.7	1	4.3	1	4.3
상주시	8	4.8	2	3.4	4	7.0	-	-	1	4.3	1	4.3
문경시	13	7.8	5	8.6	6	10.5	-	-	1	4.3	1	4.3
경산시	11	6.6	3	5.2	6	10.5	-	-	1	4.3	1	4.3
군위군	5	3.0	1	1.7	2	3.5	-	-	1	4.3	1	4.3
의성군	4	2.4	2	3.4	1	1.8	-	-	-	-	1	4.3
청송군	5	3.0	2	3.4	1	1.8	1	16.7	-	-	1	4.3
영양군	8	4.8	1	1.7	5	8.8	-	-	1	4.3	1	4.3
영덕군	4	2.4	1	1.7	1	1.8	-	-	1	4.3	1	4.3
청도군	4	2.4	1	1.7	1	1.8	1	16.7	-	-	1	4.3
고령군	5	3.0	1	1.7	2	3.5	-	-	1	4.3	1	4.3
성주군	4	2.4	2	3.4			-	-	1	4.3	1	4.3
칠곡군	5	3.0	2	3.4	1	1.8	-	-	1	4.3	1	4.3
예천군	4	2.4	1	1.7	1	1.8	-	-	1	4.3	1	4.3
봉화군	4	2.4	1	1.7	2	3.5	-	-	-	-	1	4.3
울진군	6	3.6	3	5.2			1	16.7	1	4.3	1	4.3
울릉군	4	2.4	1	1.7	1	1.8	-	-	1	4.3	1	4.3
합계	167	100.0	58	100.0	57	100.0	6	100.0	23	100.0	23	10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1

문화기반시설의 차별성 미약

○ 지역문화시설은 지역문화활동의 거점이 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주어야 하나, 기존 공급된 문화기반시설은 모두 유사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지역간 차별성이 미흡한 실정임.

다. 문화예술 행사

축제·이벤트 중 문화예술관련 행사 비중이 높음

○ 경북의 축제·이벤트는 총 74개로, 이중 지역문화 및 예술과 관련된 축제 및 이벤트는 33개로 절반 가량을 차지함.

〈표 3-49〉 경북의 축제·이벤트 현황

구분	축제·이벤트	문화관련 축제·이벤트	
		개수	내용
1월	5	5	해맞이 대축제(포항, 경주 2, 영양, 영덕)
2월	4	3	청도 달집태우기, 순흥 초군청놀이, 대보름민속놀이
3월	4	2	청도소싸움축제, 영해3·1문화제
4월	11	3	고령대가야체험축제, 문경전통찻사발축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잔치
5월	7	3	소백예술제, 지훈예술제, 예천아리랑제
6월	5	4	자인단오제, 농암단오축제, 토종닭싸움대회, 평해남대천단오제
7월	3	-	-
8월	6	1	전국 민족극 한마당(성주)
9월	11	3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안동민속축제, 생명의 신비를 찾아가는 별빛기행(성주)
10월	18	9	부석사 화엄축제, 일월문화제, 경상감사도임순력행차(상주), 예천문화제, 영천문화예술제, 청도도주문화제, 소백문화제, 동화나라상주이야기축제, 예천청단놀음
총계	74	33	

자료 : 경상북도 홈페이지, 「경북관광_즐길거리_축제이벤트」

관광효과는 크나, 지역주민과의 생활밀착력 미흡

○ 2011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경북의 축제는 총 6개로, 이중 문화예술축제는 문경찻사발축제, 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주 술과 떡 축제의 3개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의 경우, 2010년까지 대표축제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왔음.

- 우수축제(1억5천만원 지원) : 2개(문경찻사발축제, 풍기인삼축제)
- 유망축제(5천만원 지원) : 4개(고령대가야체험축제, 경주 한국의 술과 떡축제, 봉화은어축제, 포항불빛축제)

○ 주요 축제의 컨셉이 찻사발, 술, 떡, 탈춤 등의 생활과 밀접한 만큼 실제 생활과 연계된 축제로 외연을 확대시켜갈 필요가 있음.

○ 축제로 인한 소득 및 지역주민의 자긍심 증대, 인기관광지로의 진입 가속화 등 경제적·사회문화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보니, 관광객 중심의 축제에 머물고 있으며, 지역민의 생활과 밀착되는 축제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

○ 향후 축제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지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향유하면서 축제기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축제를 지향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표 3-50〉 경북의 주요 문화관광축제

축제명	개최기간	주요내용	주최/주관
문경찻사발 축제	2010.5.1~9	대한민국 도예 명장전, 세계의 찻사발전, 굉물찻사발 잡기, 전국도자비교전, 전통다례 학교 운영, 수제차 닦기, 찻사발아카데미 등	문경시 / 문경찻사발축제 추진위
고령대가야 체험축제	2010.4.8~11	지산동고분체험, 지산동무덤의 미스테리, 대가야유물 체험, 대가야목관만들기체험, 고분벽화만들기, 역사재현극 등	고령군 / (사)대가야체험 축제추진위
경주 술과 떡잔치	2010.4.17~22	전통술·떡전시, 창작떡만들기대회, 떡메치기, 대동술 지도, 해외 자매·우호도시 떡 판매, 술·떡 시음·시식 및 판매 등	경주시/(재)경주 문화관광축제조 직위원회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2010.9.24~10.3	국내외탈춤공연, 월드마스크경연대회, 창작탈퍼포먼스, 탈춤따라배우기, 마당극, 창작인형극, 세계탈전시회, 탈만들기 등 50여개체험 등	안동시 /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 「2010문화관광축제평가」, 2011

라. 문화예술 활동

문화예술 관람활동의 저조

○ 2010년 현재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61.2%로 전국(67.2%)보다 낮고, 군지역(56.8%)보다 높음.

- 장르별로는 영화, 대중가요콘서트/연예, 연극, 전통예술, 미술, 문학행사와 클래식/오페라의 순으로 관람률이 높음.

- 전국의 관람률보다 높은 장르는 전통예술과 대중가요콘서트/연예이나, 이들 장르는 군지역보다 낮음.

○ 문화예술행사 관람회수는 2.89회로 전국 평균(4.18회) 및 군지역(3.10회)보다 낮음.

〈표 3-51〉 문화예술행사 관람 현황

구분	관람률	관람회수	장르별 관람률							
			문학 행사	미술	클래식/ 오페라	전통 예술	연극	무용	영화	대중가요콘서트/연예
경북	61.2	2.89	2.3	5.4	2.3	6.9	8.0	0.2	51.9	8.3
전국	67.2	4.18	3.8	9.5	4.8	5.7	11.2	1.4	60.3	7.6
대도시	68.8	4.48	3.5	10.0	5.0	3.9	12.9	1.5	63.0	8.3
중소도시	67.7	4.06	3.9	9.6	4.8	5.9	10.1	1.3	61.1	6.8
군지역	56.8	3.10	5.3	6.8	3.6	14.1	8.3	1.6	42.1	7.6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문화향수실태조사」, 2010

시간·경제적 제한으로 문화예술행사 관람 어려움

○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시간·경제적 제약이 가장 크고, 이어 프로그램 및 정보의 부족과 교통불편으로 인해 관람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전국과 비교하면 관심있는 프로그램의 부족과 교통불편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대도시로 갈수록 비용의 문제가 커지는 반면, 군지역으로 갈수록 시간 부족과 교통 불편 문제가 커지고 있어 생활권내 문화예술공간의 확충이 필요함.

〈표 3-52〉 문화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움

구분	시간없음	비용이 많이 듦	관련정보 부족	관심있는 프로그램 없음	교통불편	시설불편	함께 갈 사람 없음	기타
경북	35.3	29.3	10.0	10.3	10.2	2.1	1.8	1.0
전국	41.5	29.3	10.7	8.4	5.7	1.4	1.4	1.2
대도시	41.0	31.3	11.7	8.6	3.5	1.0	1.0	1.5
중소도시	40.6	30.4	9.7	8.5	6.3	1.7	1.8	0.8
군지역	48.4	12.9	10.9	7.0	14.9	2.5	1.3	1.8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문화향수실태조사」, 2010

창작발표기반 미흡으로 창작·발표 활동 저조

○ 경북의 창작·발표 활동 경험률(1.2%) 및 향후 창작·발표 의향(3.0%)은 전국 및 군지역보다 낮음.

○ 향후 문학행사와 연극의 창작·발표 의향이 전국보다 높음.

○ 전국 군지역의 창작발표 경험률이나 향후 창작발표 의향이 높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도농통합지역인 경북도는 향후 창작 및 발표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됨.

〈표 3-53〉 창작·발표 경험 및 향후 창작 발표 의향

구분	창작발표 경험률	창작발표 의향	장르별 창작 발표 의향							
			미술	문학행사	전통예술	대중가요콘서트/연예	무용	연극	클래식/오페라	영화
경북	1.2	3.0	0.8	1.1	0.2	0.3	0.0	0.5	0.0	0.0
전국	2.2	3.7	1.2	0.7	0.6	0.4	0.4	0.4	0.2	0.2
대도시	2.3	3.4	1.3	0.7	0.3	0.6	0.2	0.3	0.2	0.1
중소도시	1.8	3.4	1.1	0.6	0.5	0.3	0.5	0.4	0.2	0.2
군지역	4.0	7.1	1.8	1.2	2.2	0.5	0.9	0.4	0.4	0.0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문화향수실태조사」, 2010

문화예술교육 수요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경북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은 11.2%로 전국(9.2%)보다 높고,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의향은 25.5%로 전국(16.6%)보다 높음.

○ 도시규모가 작을수록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및 향후 수강의사는 높게 나타나 경북의 문화예술교육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사회문화예술교육 경험률 : 대도시(9.3%), 중소도시(8.3%), 군지역(12.9%)

- 향후 사회문화예술교육 수강의사 : 대도시(15.9%), 중소도시(16.6%), 군지역(20.6%)

○ 사회문화예술교육 수강 시 어려움으로는 시간(36.8%), 관심있는 강좌 없음(31.9%), 관련정보 부족(12.7%), 비용(11.5%) 등으로 나타나 시간·정보·비용에의 접근성 제고가 필요함.

2. 여건변화 및 전망

가. 트렌드

[Access] 지역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복지에의 관심 제고

- 정책 방향은 수월성(excellence)에서 접근성(access)으로 변화
-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이 '예술인'에서 '사회구성원 전체'로 확대
- 문화예술정책의 최종목표도 '예술 수준 제고'를 넘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문화적 삶을 고양·발전'시키는 것으로 변화
- 이에 따라 문화예술행사 개최, 아웃리치 프로그램, 문화바우처, 아티스트 재능기부 등 문화향유 확대사업과 문화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행

[Community] 지역사회형 문화예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

- 개인의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 소위 사회적 혁신을 통한 문제해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
- 지역사회형 문화예술사업으로는 생활문화공동체, 공공미술프로젝트, 행복충전소(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들 수 있음.

[Education]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사회통합 가속화

- 균등한 교육기회의 부여는 문화권의 신장과 연관되며,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경제상태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
- 경제상황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문화예술교육이므로, 소외아동청소년의 경우 문화예술교육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어 사회통합에 부작용 발생
- 2010년 서울에서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가 개최되어 '서울 아젠다'가 선언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엘시스테마' 사업 추진

○ 2011 대한민국 문화예술교육주간 개최, 꿈의 오케스트라(엘시스테마), 상상학교(청소년 대상 공연화 교육), 예술 꽃 씨앗 학교(소외지역 초등학교 대상) 등

[Activity] 수동적 관람자에서 능동적 창작자로의 변화 대두

○ 문화향유자들은 기존의 수동적인 감상활동을 넘어서 직접 능동적으로 창작활동을 행하는 아마추어 예술가들 증가

○ 지역의 문화관련 시설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도 단순히 수강에서 벗어나 실제 창작 및 발표기회 제공으로 확대

나. 제도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시·도별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기준이 상이했던 것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질적 수준 유지와 대외적 위상 제고
- 기부 금품 모집 주체를 전문예술법인 외에 '전문예술단체'로 확대하고, 영리법인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 선택적 기금 납부제 도입 등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제도 개선

- 건축물 미술장식제도(1만㎡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 설치)가 건축물 미술작품제도(작품설치 or 기금납부)로 개정
- 기존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건축물 미술작품제도로 변경 : '장식'이라는 폄하된 표현 대신 '작품'이라는 용어로 대체
- 건축주가 직접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선택권 부여

〈표 3-54〉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가. 전문예술법인·단체제도를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등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전문예술법인에서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로 확대함(제7조).

나. 건축주가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권을 부여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통하여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전시하도록 함(제9조, 제17조 및 제18조).

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는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제23조제2항).

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제24조제2항).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새로 개시하도록 함(제25조제1항 및 제2항).

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제31조제1항 및 제2항).

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제34조제2항 및 제3항).

공연법 개정

○ 공연장 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제도 도입으로 공연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이후 해당 요건 미충족 시 취소

○ 공공 공연연습장 설치·운영 지원 근거 신설로 예술단체의 연습공간 부족 해소

〈표 3-55〉 공연법 개정 주요 내용

가. 국가 및 지자체 공연연습장 설치 및 운영지원 근거 마련(제2조, 제8조)

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외국공연물 추천 제한사유 정비(제7조)

다.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을 위해 무대시설 안전진단 검사 강화(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경북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 제정

○ 경북도는 문화콘텐츠산업이 국가경제를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부각함에 따라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영상문화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 8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조례'를 공포

○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관리하며, 문화콘텐츠기업에 대한 지원, 창업지원·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 등을 촉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함.

제9차 교육과정의 개정

○ 제9차 교육과정은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

○ 창의적 체험활동은 크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되며, 이중 동아리활동은 문화예술활동과 관련 깊음.

다. 공간

문화시설의 확대 및 다양화

○ 안동문화예술의 전당(2010), 경주예술의 전당(2010) 등 문화예술회관 건립

○ 2011년 5월 전국 최초의 코미디 전용극장인 철가방코미디극장(웃음건강센터)이 청도군 풍각면 성곡리에 건립되어 코미디언 전유성에 의해 운영

문화·영상산업 발전기반 구축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건립 및 안동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12년 7월 안동에 건립 예정
- 안동문화산업진흥지구는 2010년 1월 지정 확정

〈그림 3-17〉 경북문화콘텐츠진흥원

생활공간의 문화공간화 확대

○ 생활공간 공공미술로 가꾸기 등 생활공간의 문화공간화 확대

- 마을미술프로젝트 : 안동(연어와 첫비), 경산(서상동 시장 10길, Enjoy Culture-행복한 우리마을), 영천(화산면 가상리 & 화남면 귀호리 일원)

○ 소외지역 간이역의 공공디자인 개선으로 커뮤니티 활성화

- 2011 문화디자인 프로젝트 '간이역' 사업에 김천 직지사역 선정

○ 학교공간의 문화적 창출로 열린 학교 및 행복한 사회 만들기

- 영주 남산초(2008), 김천 다수초(2009), 포항 구룡포고(2010)

3. 계획 방향

가. 목표

'문화예술을 즐기는 도민, 문화예술로 활기찬 경북' 만들기

○ [사람] 지역민의 문화예술역량 강화

-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을 즐김으로써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 [공간] 문화예술기반 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 지역민의 문화예술기반시설에 대한 근접성 제고로 문화예술활동 기회 확대

○ [환경] 문화예술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 사람이 공간상에서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 만들기

나. 추진방향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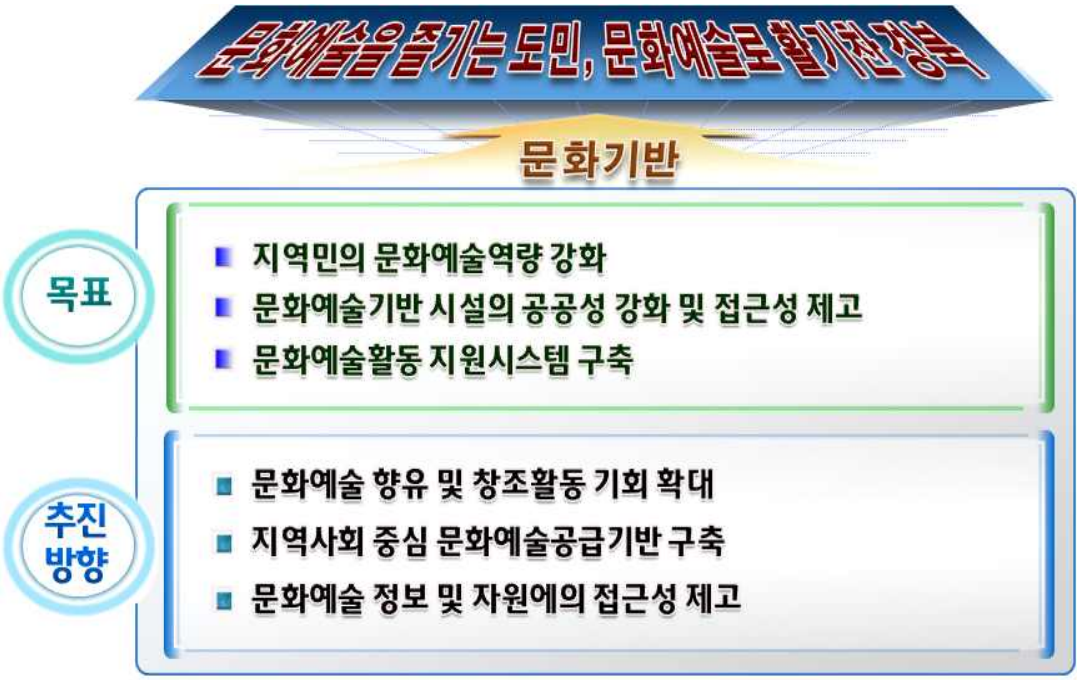
○ 소외계층, 일반시민, 예술인, 잠재관객의 향유와 창조활동을 지원하여 문화예술활동 기회 확대

지역사회 중심 문화예술공급기반 구축

○ 기존 공간을 개선하고 신규공간을 발굴하여 기존/신규 공간 활용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생활권내 문화예술공급기반 구축

문화예술 정보 및 자원에의 접근성 제고

○ 문화예술활동 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자원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화예술향유활동의 제약요인 제거



〈그림 3-18〉 문화기반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 기회 확대

지역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 문화예술 향유자 및 비향유자의 문화향유활동 제약요인 제거로 문화향유활동 유도

○ 문화예술과 관련된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 동아리·클럽활동 지원을 통해 자생적 문화예술단체 육성

- 아파트, 농산어촌 등 마을 단위 자생적 모임 지원 확대
- 활동공간을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 동아리·클럽에게 공간 지원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제고

○ 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자립도 제고 및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작품에 대한 마케팅 강화 및 문화일자리 창출

- 스타 아티스트 1인창조기업 육성
- 문화일자리 창출 : 문화예술강사, 문화예술교육사, 문화복지사 등

○ 문화예술의 산업적 활용 촉진으로 문화예술의 대중성 확보

○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단의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교육 강화

○ 문화예술교육 정책대상을 학생 및 취약계층에서 도민 전체로 확대

○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

- 실기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에서 감상 위주의 문화예술교육으로 전환
- 1초등학생 1악기, 음악적인 초등학교 만들기 등 추진

○ 사회 문화예술교육 강화

- 지역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생활 속 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문화바우처를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

지역기업의 문화예술 지원활동 촉진

○ 지역기업의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공헌활동을 촉진

○ 지역기업과 문화예술계의 상호윈윈 체계 구축

- 지역기업 이미지 제고 및 지역기업의 문화친화적 환경 구축
- 문화예술계는 지원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 활동 가능

○ 지역문화예술에의 기여도가 높은 기업을 문화기부기업으로 지정

- 지정기업에 대해 도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 문화예술 향유 확대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기업에 공급

〈표 3-56〉 문화예술 향유·창조활동 기회 제고 사업 및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문화예술공동체 지원	예술인마을, 문화예술부문 생활문화공동체 지원
문화예술동아리 · 클럽지원	문화예술 동아리 및 클럽 활동 지원 : 연습공간 및 창작발표공간 지원
스타 아티스트 1인창조기업 육성	스타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1인창조기업 선정 및 창업 지원
1초등학생 1악기	초등학생에게 배우고 싶은 악기 및 강습 제공, 정기 발표기회 제공
음악적인 초등학교 만들기	초등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체험
문화예술교육바우처	기존 문화바우처의 내용을 문화예술교육으로 확대, 교과부 예술•체육중점학교와 연계
문화기부기업 지정	지역문화예술에의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기업을 문화 기부기업으로 지정 · 홍보

나. 지역사회 중심 문화예술공급기반 구축

기존 문화예술시설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 기존 문화예술시설에 도민이 보다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 도입

- 이용시간 확대 및 이용료 인하로 관람활동 및 창작발표활동 지원
- 가족단위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아이돌보미 프로그램 실시 및 성인/어린이 대상 공연상품 동시 개최
- 무료 창작발표회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비용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문화예술 저변 확대

○ 공공 문화기반시설 간 공동기획사업 발굴 및 실시로 기획력 및 예산 부족 문제 완화

○ 시·군별로 1개소씩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의 운영 활성화

신규 문화예술공간 발굴

○ 생활권내에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시간 제약을 제거하여 향유활동 촉진

- 특히, 도서관 및 전시시설은 타 문화시설에 비해 매우 취약
- 도 특성에 맞게 군부 지역의 도서관 확충을 지속적으로 실시

○ 지역내 공식적 문화기반시설이 아닌, 공공장소 중 문화예술 창작발표에 적합한 공간을 도민들에게 오픈

- 이용가능 장소의 DB화 및 운영주체 없는 장소의 경우 시민단체를 운영주체로 선정하거나 도민 자율적 운영

○ 문화예술 아마추어단체, 동아리, 클럽 등에 창작발표공간으로 제공

도민 주도형 문화예술사업 추진

○ 도민 대상 문화예술진흥 공모사업 실시 및 확대

○ 기존 문화예술축제의 도민 참여형 문화예술축제로의 리모델링

○ 지역문화예술축제에 대한 도민 모니터링 실시

○ 낙동강 프로젝트 및 3대 문화권 사업 지구에 문화프로그램 공급시스템 구축

〈표 3-57〉 지역사회 중심 문화예술공급기반 구축사업 및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유휴공간의 창작발표공간화	지역내 산재하는 유휴 공공공간을 발굴, 창작발표공간으로 활용
문화원 컨설팅	지역내 1개소씩 보유한 문화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제고	도서관의 지속적 확충과 함께 장서, 사서 등 인적·물적 자원 확보로 도서관 역량 강화

다. 문화예술정보 및 자원에의 접근성 제고

온라인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문화예술정보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지역민에게 효율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제약 제거

- 문화예술공간에서 운영하는 행사 및 프로그램 등에 대한 DB 구축

○ 문화예술프로그램은행 운영

- 시설별, 기관별 연계프로그램 구성 등 공동협력 및 공동PR

○ 경북도뿐만 아니라 대구대도시권 문화예술정보시스템과 연계

- 컬처라인 : 경북 북부 13개 시·군의 문화예술정보 제공

오프라인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 문화예술정보를 상호 간에 공유할 수 있는 전달 시스템 구축

○ 문화예술기관간 연계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기획 및 추진 가능

○ 지역민, 단체, 시설, 기관 등 문화예술과 관련된 주체 간 연계협력 가능

○ 나아가 지역외의 문화예술기관 및 시설 간 연계협력 가능

문화복지 활성화

○ 도민 대상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경험 확대

○ 예술가들의 문화예술봉사활동 확대 : 재능 기부

○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의 아웃리치(outreach) 프로그램 지원 확대

○ 복권기금에 의한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

지역문화실태 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 지역문화예술 수요 및 공급 관련 현황 조사를 통해 지역수요 파악

○ 지역수요에 대응한 지역맞춤형 문화예술정책 수립

〈표 3-58〉 문화예술 정보·자원에의 접근성 제고사업 및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문화예술관련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컬처라인(경북 북부)과 연계
문화예술프로그램은행구축·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은행, 문화예술프로그램 인증제
오프라인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주체 간 공식·비공식모임
문화예술 공동기획 지원	문화예술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공동기획사업 지원
'문화예술로 행복한 이야기' 홍보	문화예술치료,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기부 등 사례 발굴·홍보
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사업 홍보	기추진 문화나눔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지역문화예술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지역맞춤형 문화예술정책 수립

제2절 관광기반

1. 현황 및 문제점

가. 관광자원

경북은 한국문화의 연원이자 한반도 생태자원의 보고

○ 경북은 경주 중심의 신라(불교)문화권, 경북 북부의 유교문화권, 고령 일대의 가야문화권 등 3대문화권을 형성

- 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지구를 비롯하여 안동하회·경주양동마을이 한국의 10번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의 전통·역사문화에 대한 관심과 외래 관광객의 방문이 급증

○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훼손되지 않은 산악자원을 비롯하여 낙동강의 수변자원과 무한한 생태자원의 보고인 동해안 해양자원을 보유

- 울릉도·독도, 울진 금강송, 봉화 춘양목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가치를 지닌 생태자원 보유

경주, 안동은 한국 대표 전통 및 역사문화지대

○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주와 안동을 주축으로 신라불교와 조선유교의 전통문화자산이 산재

○ 불국사·석굴암, 하회마을, 도산서원, 하회탈춤 등 한국역사문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와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 보유

관광과 연계 가능한 지역특화산업 기반 형성

○ 포항·구미의 첨단산업, 대구와 경북 북부권의 (한방)의료산업, 동해안의 에너지산업 등 관광과 융·복합이 가능한 산업자원 다수

○ 영주 인삼, 봉화 송이, 의성 마늘, 영덕 대게, 포항 과메기 등 지역특산물과 관광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의 인프라 형성이 양호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

지속적인 메가 이벤트 유치로 지역홍보 기회 확대

○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2세계곤충학회, 2013세계에너지총회, 2015세계군인체육대회, 2015세계물포럼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 국제행사 개최와 더불어 대구경북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및 한국의 다채로운 이미지를 전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나. 관광개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의 가시적 성과 미흡

○ 경주의 다양한 역사문화유적과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간의 사업기간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규제로 경주발전을 위한 모멘텀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

- 2010년 10월 경부선 KTX 2단계 개통으로 경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어 관광트렌드와 신라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재미있고 매력적인 관광인프라의 조성이 시급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의 관광산업화 미흡

○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관광개발계획은 전통문화자원의 정비와 복원에 치중하여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와 내발적 관광산업의 육성에 있어 한계

- 전통·역사문화(`00년) → 관광자원개발(`10년) → 관광산업(`20년)

3대문화권 사업의 제도적 기반 미약

○ 정부의 광역경제권 30대 선도프로젝트인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은 제도적 기반이 없어 지속적 추진에 한계 존재

- 세계유교문화선비공원, 신화랑풍류체험벨트 등 50개 사업

낙동강 친수공간 개발 미흡

○ 정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은 대부분 주변지역의 관광개발 중심으로 설정되어 수면과 공구사업지에 대한 레저스포츠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실정

다. 관광산업

국제공항의 부재로 외래관광객 접근 애로

○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관광객이 이용 가능한 인천·김해·대구공항이 있으나, 국제공항과 철도, 고속도로 등 고속교통망과의 연계는 상대적으로 취약

- 대구공항은 시설규모 및 취항노선 등에 따른 제약으로 대구·경북의 주요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역부족

지자체간 광역관광 연계체계 미흡

○ 광역권 관광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지자체 간에 Win-Win전략 방안 모색을 위한 상호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있으나 경북은 이에 대한 실천 노력과 의지가 부족

○ 지자체별 실천 이기주의적 사고방식의 만연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개별적 접근으로 유사한 관광자원 개발과 예산낭비 초래

지자체의 낮은 재정 자립과 과도한 정부 의존적 사고방식

○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에 못 미치는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정부의 재원확보에만 의존하려는 사고방식 만연

- 전체 예산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차지하는 예산 점유율이 타 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으며, 한정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지자체간 경쟁 심화

○ 지역의 낮은 재정자립도, 민자·외자 유치의 난항 등 관광개발을 위한 투자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관광트렌드

관광행태의 다양화 및 관광콘텐츠 변화

○ 주5일 근무·수업제, 국민소득, 인구구조, 라이프스타일 등 관광행태

의 다양화 및 다변화로 자연·시니어·건강, 체험·다문화, 문화·예술·교육이 핵심관광 키워드로 급부상

○ 세계관광기구(WTO)는 미래 관광객의 주요 관광행태를 생태관광, 해양관광, 모험관광, 크루즈관광, 문화관광, 테마관광, 스포츠 관광 등으로 예측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에 대비한 녹색관광 급부상

○ 기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급격히 제한하는 규제 강화로 생태·문화 탐방로, 생태관광, 공정여행 등 저탄소형 녹색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 급증

관광산업의 융·복합화와 도시브랜드 제고

○ 의료, 휴양, 레저, 문화예술 등과 관광서비스가 결합되는 추세에 있으며, 문화·관광을 활용한 도시브랜딩과 마케팅 추진 활발

소셜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관광산업 등장

○ 시공간 제약에서 벗어나 '언제 어디서나 모든 걸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소비의 본격화로 새로운 형태의 관광기업과 관광욕구가 발생

- 통신·미디어시장에서 무선 모바일 사회네트워크서비스가 산업경쟁의 핵심요소로 인식

신 관광소비계층 출현과 멀티 관광서비스 촉진

○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관광 개방성의 확대는 멀티컬쳐(multi culture) 관광행태를 확산시켜 소비자가 주도하는 창조관광과 체험을 추구하는 트라이투어슈머(trytoursumer)를 출현

○ 뉴 시니어(new senior)가 핵심관광 소비계층으로 부상하여 웰빙, 헬스투어 등의 관광시장을 확대할 것이며, 여가의 향유계층과 체험유형이 다양화되면서 비용 대비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트, 크루즈 등의 네오 럭셔리 관광소비가 확산

○ 일과 여가, 놀이의 경계가 허물어져 휴가지 대신 도심 속에서 편리하고 편안한 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증가와 도심 속의 에코레저가 증대되는 레저 재핑(leisure zapping)의 시대 도래

나. 관광정책 환경

정부의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확보 및 정책 마련

○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추진과 광역관광 네트워크,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기조 실현을 위한 문화·관광전략,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규제 완화와 지원 등

한국관광의 고부가가치 창출형 BT(Business Tourism) 육성

○ 단순한 관광행태를 벗어난 비즈니스관광 활성화를 통한 소득 창출 전략으로 역사문화에 기반한 문화관광 콘텐츠가 등장

- MICE, 의료관광, 한류관광, 공연관광(뮤지컬, 난타), 한스타일관광 등

세계 관광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중국의 국제관광목적지 부상

○ 세계관광기구(UNWTO) 「Tourism 2020 Vision」에 의하면 세계 관광시장은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여 2010년 10억명, 2020년 16억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2020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유럽(45.9%) 다음으로 국제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여 전세계 관광시장의 25.4%를 차지

○ 한국이 속한 아시아·태평양은 중국 관광객 수의 급속한 성장과 더불어 2020년에는 세계 시장의 ¼을 점유할 것으로 전망

○ 테러, 전쟁, 전염병과 같은 국제관광 환경은 실업률 상승, 유가 상승 등 경제위기에 영향을 미쳐 관광객 수 감소와 단거리, 저가형 여행을 선호하는 실속형 관광행태를 유발

주변 관광시장의 성장과 경쟁 가속화

○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지역의 관광산업 육성 정책 추진 및 관광시장의 성장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인바운드(Inbound) 관광객이 미약하게 증가

○ 외래 관광객의 수도권 선호현상 심화, 경북과 인접해 있는 강원도에 우수한 관광인프라 조성, 서해안·남해안 일대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추진 등 국내 관광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3. 계획 방향

가. 목표

전통과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국 대표 문화관광지대 조성

○ 한국 속 한국체험지대(KOREA in KOREA)를 실현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고 만들어 가는 글로벌 문화관광지대로 조성

○ 경북의 역사적 정체성과 한국관광 발전을 선도하는 경북관광의 위상, 각종 국내·외 환경 및 정책동향 등을 감안하여 설정

- 한국문화의 원류인 신라, 유교, 가야 등 3대문화권의 본향
- 신라화랑, 선비(양반), 새마을, 불교문화 등 한국정신문화의 연원
- 백두대간, 동해안, 낙동강 등이 어우러진 녹색자원의 보고

세부 목표

○ 글로벌 수준의 명품 관광자원개발

- 신라·유교·가야 등 3대문화권의 전통역사자원과 천혜의 자연자원 특화 및 연계개발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지대 조성

○ 누구나 공감하는 문화·관광 브랜드 창조

- 국내·외 관광객의 다변화·다각화되는 관광욕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관광 트렌드를 선도할 수 있는 글로벌 관광브랜드 육성

○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일자리 창출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관광비즈니스 기반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문화·생태 융합형 Fun 관광콘텐츠 개발

- 기존 신라·유교·가야 등 3대문화권의 하드웨어 개발에서 벗어나 낙동강(江), 백두대간(山), 동해안(海) 등 생태관광자원과 융·복합한 재미있고 돈이 되는 스토리가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

나. 추진방향

○ 3대문화권 글로벌관광 기반 조성

○ 강·산·해 융합형 광역관광개발 추진

○ 관광트렌드 선도형 문화브랜드 발굴 및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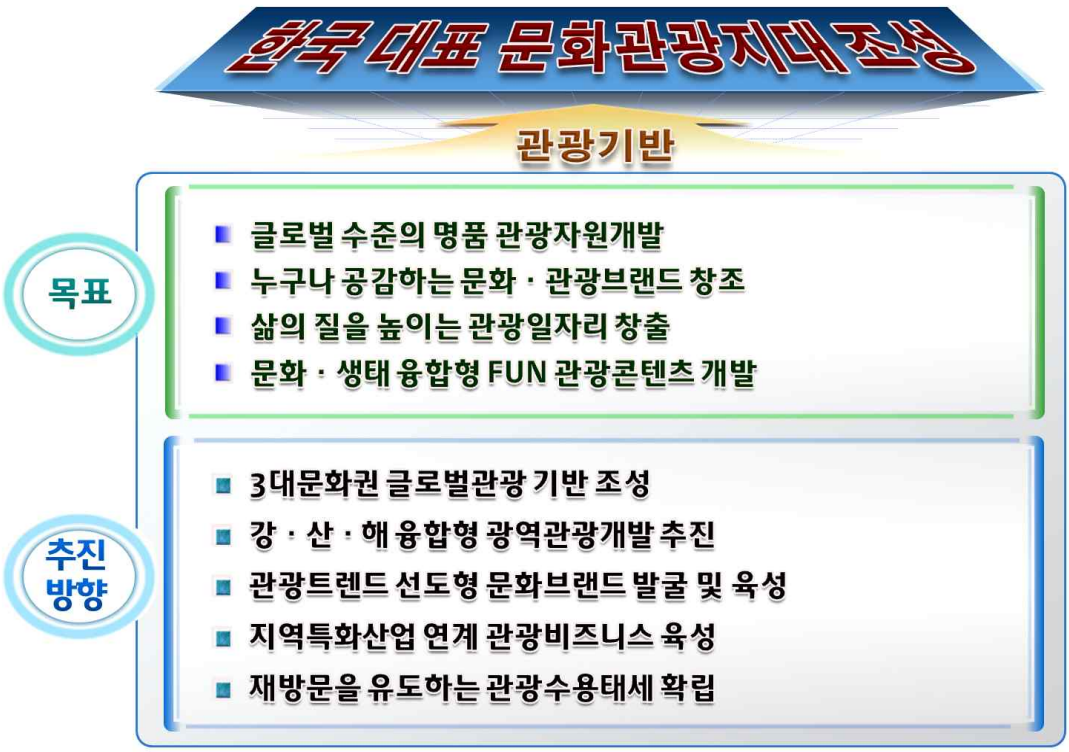
- 글로벌 태권도(화랑)관광, 전통문화 스테이(stay)관광, 스토리콘텐츠관광

○ 지역특화산업 연계 관광비즈니스 육성

- 컨벤션관광, 공연관광, 녹색관광, 게이밍관광, 한방힐링관광
- 경북관광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수용태세 확립

- 야간관광, 음식(식도락)관광, 와인관광, 문학관광, 열차관광, 산업관광, 지질관광, 농산어촌관광, 축제이벤트 관광 등



〈그림 3-19〉 관광기반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다. 관광권역 설정

기본 전제

○ 기존계획 검토를 통한 정합성 유지와 관광행태 반영을 위한 여행경로 분석, 관광지 접근성을 고려한 주중 대비 주말 교통량 분석, 향후 관광정책 목표달성과 지자체 추진의지 등을 감안

○ 지역별 개발여건과 관광자원 간의 보완관계를 감안한 연계체제 구축과 관광자원별 특화개발 효과, 관광 인프라의 분산 배치에 따른 개발 파급효과의 극대화 도모에 기여

○ 관광권역을 백두대간 전통관광권, 낙동강 수변관광권, 동해안 역사관광권, 대도시 여가관광권으로 구분

- 백두대간 전통관광권 : 백두대간+유교문화+낙동강
- 낙동강 수변관광권 : 낙동강+산업시설+유교문화
- 동해안 역사관광권 : 동해안+신라문화+낙동정맥+울릉·독도
- 대도시 여가관광권 : 레저스포츠활동+산악자원+대구(도시자원)

〈그림 3-20〉 4대 관광권역 설정

백두대간 전통관광권

○ 개발목표: 한국의 전통적 삶·문화·자연을 체험하는 Little Korea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하회마을을 비롯하여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와 백두대간·낙동강 등 천혜의 생태자원을 보유한 미래지향형 관광자원의 보고
- 지역이 보유한 유교문화와 생태자원의 가치 극대화를 통해 전통적 삶·문화·자연이 인간과 조화되어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특화기능 : 자연과 전통이 어우러진 글로벌 지식관광지대

- 유교문화와 백두대간의 다양한 관광콘텐츠와 스토리를 지식(knowledge)이라는 테마로 융·복합한 한국적 관광브랜드를 창조

○ 개발방향

- 유교문화 국제관광 허브 조성과 백두대간 그리노믹스(Greenomics) 실현

낙동강 수변관광권

○ 개발목표 : 스토리와 풍류가 흐르는 리버관광지대

- 낙동강 물길을 따라 형성된 전통문화와 생활양식, 산업시설, 스토리 등을 활용하여 지역 정체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강변 관광거점 조성

○ 특화기능 : 내륙관광 활성화를 위한 게이트웨이(Gateway)

-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과의 광역 고속교통망을 활용하여 대경권의 내륙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 관문지대로 조성

○ 개발방향

- 강 중심의 차별화된 관광거점 조성과 산업·레포츠 특화지대 조성

동해안 역사관광권

○ 개발목표 : 신라 천년문화로 빛나는 신(新)동해안 블루관광지대

- 신라의 역사와 정신을 간직한 천년고도와 천혜의 해양·산림자원을 연계한 재미있는 글로벌 관광브랜드와 킬러콘텐츠 개발

○ 특화기능 : 외국인을 위한 글로벌 화랑태권도 역사관광지대

- 신라의 화랑정신은 태권도의 모태로서 화랑들의 수련공간인 경주와 동해안의 화랑태권도 관광콘텐츠와 브랜드를 적극 개발하여 외국인이 즐겨 찾는 글로벌 관광휴양벨트로 조성

○ 개발방향

- 경주 관광비즈니스 거점지대 조성과 더불어 낙동정맥과 동해안의 복합 관광 기반을 구축

대도시 여가관광권

○ 개발목표 : 융·복합 비즈니스관광과 연계한 여가관광지대

- 대구시의 핵심관광자원인 의료, 공연, 컨벤션, 도심 등과 연계하고, 대도시민의 여가 욕구와 비즈니스관광객의 근교권 투어 활성화의 기반 조성

○ 특화기능 : 대도시 근교권 관광·휴양 네트워크 창조지대

- 대구시 및 동남권의 관광수요시장을 겨냥한 맞춤형 특화관광기능 부여와 이색 체험거리 개발로 근교권 관광의 특화지대로 육성

- 대구를 중심으로 낙동강, 팔공산, 비슬산, 가야산 등지의 관광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회랑형 광역네트워크를 형성

○ 개발방향

- 도시민을 위한 레저휴양공간의 조성과 와인, 염색 등 지역특화산업을 연계한 관광소득 창출기반을 구축

4. 추진계획

가. 3대문화권 글로벌관광 기반 조성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의 30대 선도프로젝트 중 유일한 관광사업인 3대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경북이 간직한 문화·생태자원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경북관광 경쟁력과 글로벌화를 선도

- 원형의 가치를 추구하는 역사문화유산 정비, 선조들의 삶이 투영된 문화·생태 경관 보전, 역사문화의 가치영역을 확대한 관광테마 공간화, 원형복원이 어려운 역사문화의 창의적 재현

- 3대문화권 전통생활문화의 관광 상품화, 새로운 기능과 융합한 역사문

화의 현대적 재조명

- 자연의 원리를 가르치는 녹색체험 관광 활성화, 청정자연을 활용한 생태휴양공간 조성, 자연의 섭리를 이어가는 생태 탐방루트 개발, 역사와 자연을 넘나드는 복합 문화회랑 구축

- 관광진흥사업은 지역발전협력체계 구축,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통합 관광기반 구축 등

3대문화권 글로벌 관광지원체계 구축

○ 정부는 한국이미지의 국제적 확산과 한글, 태권도, 문화한류 등의 한국콘텐츠를 활용한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

○ 신라, 가야, 유교문화가 간직한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국제교류 콘텐츠를 해외 문화원과 지역 내 관광공간에서 홍보 및 체험케 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의 관심 유발과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

○ 3대문화권 국제화센터 운영

- 3대문화권과 경제·사회문화·인적 교류의 경험이 있는 국가와 유명 도시의 해외 문화원과 대학 등을 연계한 국제화사업을 전개

- 해외 문화원을 활용한 국제문화교류 지원, 해외 대학과 연계한 대표 인물 연구지원센터 운영, 3대문화권 문화콘텐츠 제작 등

○ 3대문화권 국제교류마케팅 전개

- 문화권별 거점도시가 보유한 박물관을 활용하여 국제교류를 테마로 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외래 관광객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

- 경주 도심 관광거점시설을 활용한 신라문화 교류기능 강화, 해외 유명 인물의 유림기행 체험프로그램 지원, 대가야 국제교류 다큐멘터리 제작

○ 경북관광 소셜 서포터즈 운영

- 경북관광의 잠재시장인 유관기관, 지자체 및 의회, 지역주민, 국내·외 관광객, 민간기업,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북관광 소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제공

- 지역 대학(교)과 대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외국인 서포터즈와 대학생을 연결하는 버디여행(Buddy Travel)프로그램을 운영

신라천년의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신라 천년의 고도(古都) 경주의 문화유적과 도시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정비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도시로 조성

○ 문화유산 정비

- 황룡사, 월정교·일정교, 월성유적, 경주읍성, 월성해자, 용강동 원지 등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
- 도심고분공원, 남산 정비, 금척리 고분공원, 동학 발상지 성역화 등 문화유산 환경 정비

○ 문화·관광 활성화

- 역사도시문화관 건립, 신라탐방길 조성, 안압지 정비 및 활용 등 문화산업 기반 확충
-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전통테마마을 조성 등 경주관광 활성화기반 구축

○ 역사도시 기반 조성

- 도심경관 개선, 교촌한옥마을 조성, 유적지간 이동체계 개선, 역사문화도시 하천경관 정비, 봉황로 경관 정비 등 도시기반 정비
- 신라문화 체험단지, 문화재 보존 복원 첨단연구센터 설립, 경주학연구소 교육관 설립 등 문화기반 육성

○ 신라문화 창조관광 추진

- 신라문화 콘텐츠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신라문화 재현단지 조성 : 신라 궁성 및 황룡사 9층 목탑 개건 등
- 신라문화의 개방성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신라 천년 물길 재창조 : 형산강 문화수로(文化水路), 신라문화 국제교류마을 조성
- 기존 숙박시설을 활용한 신라문화 월드게스트빌리지 조성

나. 강·산·해 융합형 광역관광개발 추진

강·산·해 광역관광 자원개발

○ 낙동강, 백두대간, 동해안 등 천혜의 강·산·해 자연생태자원과 전통·생활문화를 연계한 녹색 문화관광공간을 조성하여 경북만의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과 국토공간의 품격 향상에 기여

○ 낙동강 문화 관광개발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명품보, 공구사업 등을 연계한 낙동강 신(新)나루 문화벨트와 낙동강 수상레저밸리를 조성하여 수변관광을 선도하는 리버(river) 관광클러스터를 조성

○ 백두대간 생활 관광개발

- 백두대간의 산림자원과 생활문화를 접목한 내륙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저탄소 녹색관광을 선도하는 그린 관광클러스터를 조성

○ 동해안 블루 관광개발

- 백두대간 낙동정맥의 산림생태자원과 동해안의 역사·문화적 가치, 해양자원을 융합한 재미있는 동해안 블루 관광클러스터를 조성

지역 밀착형 관광자원개발

○ 광역권 관광개발사업과 더불어 지역만의 독특한 관광콘텐츠를 활용한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백두대간 전통관광권

- 안동 민속 한자마을, 영주 소백산 자락길 생태탐방로, 의성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청송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등

○ 낙동강 수변관광권

- 문경 철로자전거 관광자원화, 구미 천생산성 주변공원 등

○ 동해안 역사관광권

- 경북 동해안 관광탐방로, 경주 보문호 야간 경관조명 설치, 영덕 웰빙문화테마마을, 울릉 삼국시대 우산국 관광자원화, 울릉 개척사 테마관광지, 울진 스포츠재활휴양단지 등

○ 대도시 여가관광권

- 영천 치산관광지 캠핑장, 경산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군위 역사문화재현테마공원, 군위 삼국유사 휴(休)체험 관광자원화,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고령 대가야 문화밸리, 성주 세종대왕자태실 생명문화공원

내륙 대도시권 광역관광개발

○ 국토해양부의 동·서·남해안 발전 특별법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역·문화관광권 개발계획에서 소외된 내륙 대도시권과 주변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여가공간과 소득증대방안을 모색

○ 기존 부산, 인천, 울산을 제외한 대구, 광주, 대전을 대상으로 한 팔공산, 계룡산, 무등산 등지의 광역관광개발을 추진하여 광역경제권 내 연계관광 활성화의 시범사업으로 추진

○ 정부의 광역관광 활성화 정책과 연계한 광역대도시 주변지역 간 협력형 여가·관광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광역경제권 사업의 성공 모델 창출과 도농교류 활성화로 사회적 통합에 기여

○ 사업내용

- 팔공산 인접지역의 3대문화권 관광기반 사업과 게이밍산업 유치, 도심관광 활성화, 메가이벤트 개최 등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대구·경북 광역차원의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지역주민 및 국민 국내관광 수요를 확대

- 팔공산 둘레 관광자원 개발 : 기존 관광지 리노베이션, 지역별 특화 관광자원개발 등

- 외국인 전용 광역관광 거점 조성 : 중국인 게이밍 특화지구 등

- 대도시 내 기존 유원지 리모델링 지원 : 동촌(수상레저), 화원(리버관광), 수성(문화예술) 등

강·산·해 광역관광 루트 및 코스

○ 경북순환 관광루트

- Gyeongbuk 20 :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구경북의 대표적인 문화유적과 산업자원 등 20개소의 관광지를 선정하여 개발

〈표 3-59〉 Gyeongbuk 20 투어루트(안)

구 분	관광자원명
역사문화	불국사·석굴암, 경주역사유적지구, 양동마을, 하회마을, 대가야박물관, 선비촌, 지례예술촌, 문경새재 옛길
경제산업	포항제철, 삼성·LG전자, 삼성상회, 포항공대, 포항 영일만항
녹색성장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단지, 울릉도·독도
정신문화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정신

- 테마별 투어루트 : 신라·유교·가야 등 한국문화의 본향인 전통성과 한국 경제발전 근원지로서 대구경북의 문화·산업자원을 활용한 유료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 낙동강 종단 강(江) 관광루트

- 경북 북부의 유교문화권과 백두대간, 고령·성주의 가야문화, 남부권의 대구대도시권을 연계하는 광역순환 관광루트로 설정
- 낙동강 관광루트 : 풍류관광, 풍경소리 관광, 대도시 레저관광 등
- 가야문화 투어루트 : 다시 찾는 가야왕국 관광루트

○ 백두대간 순환 산(山) 관광루트

- 백두대간 중부내륙권을 중심으로 속리산, 충주호, 소백산 등 자연생태자원과 유교문화, 역사문화, 전통생활, 경관·명승 등을 핵심테마로 한 순환형 관광루트 설정
- 산자수명 루트 : 내륙바닷길, 심산유곡길, 녹색레포츠길 등
- 시간여행 루트 : 배움나들이길, 시간여행길 등
- 전통참살이 루트 : 선비천수길, 솔향풍류길 등
- 명장·명품트레일 : 대표 명장·장인과 특산물을 체험하는 코스

○ 동해안 종단 해(海) 관광루트

- 경주의 역사문화자원과 포항·영덕·울진의 해안길, 울릉·독도 등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문화·생태·산업자원을 융합한 광역관광 루트를 개발
- 경주 체재 투어루트 : 역사문화, 산업관광, 정신문화, 야간체험
- 동해안 광역 투어루트 : 대한민국 세계문화유산투어, 대한민국 남부경제권 투어, From 한국전쟁 to G20 투어

다. 관광트렌드 선도형 문화브랜드 발굴 및 육성

글로벌 태권도(화랑)관광

○ 태권도 관련 유물 및 유적분포의 장소적 특성을 감안한 역사성과 상징성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국내·외 태권도인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를 추진

- 태권도 유적탐방코스 개발, 세계청소년태권도 문화학교 운영, 대한민국 초광역 태권도 관광벨트 구축(경주 태권도 정신문화지구와 무주 태권도 국제화지구), 국제청소년태권도 체험프로그램 개발(세계청소년태권도 성취포상제와 세계화랑태권도 잼버리대회 등)

전통문화 스테이(stay)관광

○ 한국 최다의 고택(지정문화재 중 39.6%) 보유와 향교, 서원, 전통사찰, 폐교 등을 활용한 한국체험 전통스테이를 육성함으로써 부족한 관광숙박 인프라의 대체시설로 재창조

○ 영주 선비촌과 무섬마을, 안동 지례예술촌·군자리마을·하회마을, 예천 금당실마을, 고령 개실마을, 성주 한개마을, 경주 교촌한옥마을과 양동마을 등 단체 한옥스테이가 가능한 지역을 국민휴양촌으로 지정하고 세계적 숙박 브랜드로 육성

○ 기존 유명사찰 중심의 템플스테이를 지역 특화산업과 자연자원을 연계한 지역밀착형 템플스테이로 육성

○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폐교를 활용한 한국문화 에듀(edu)스테이와 서원·향교스테이 문화마을 등 경북형 전통문화스테이 도입

○ 경북지역의 부족한 숙박시설과 노후화된 대규모 숙박단지를 지역관광 전통문화 숙박단지로 조성 (경주 불국사지구와 안동 도심)

스토리 콘텐츠관광

○ 3대문화권과 생태자원에 기반한 스토리 문화원형과 콘텐츠를 활용한 공연관광의 활성화로 경북만의 새로운 관광브랜드를 창조하고 더 나아가 한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상관광 기반을 마련

○ 한국을 대표하는 인물과 설화, 전통문화, 이야기 등을 활용한 에듀테인먼트형 관광공간을 조성

라. 지역특화산업 연계 관광비즈니스 육성

컨벤션관광

○ 경북은 현재 대규모 국제회의 및 전시를 개최할 수 있는 전문시설인 컨벤션센터와 컨벤션 전담조직인 컨벤션뷰로(CVB)가 전무한

상태로 MICE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가 취약

○ 경주 컨벤션산업도시 육성

- 경주 국제회의도시 지정, 경주 MICE 브랜드 발굴, 경주전시컨벤션센터 조기 건립, 컨벤션관광 수용태세 확립 등

공연관광

○ 신라천년의 역사문화자원이 지닌 풍부한 스토리와 KTX 개통에 따른 접근성 개선 등을 감안한 경주관광의 고급화와 창조관광 기반을 조성

○ 경주 공연예술관광 육성

- 세계문화유산극장 운영,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아트팩토리 조성, 태권도 창작공연 기획, 지방도시 공연관광 전담업체 지정 및 육성 등

○ 북부권 실경뮤지컬 육성

- 백두대간과 낙동강을 배경으로 한 유교문화, 전통생활 등을 소재로 한 실경공연 제작 및 브랜드화

녹색관광

○ 백두대간 녹색생활관광 기반 조성

- 백두대간 생활관광마을, 백두대간 그린 패스포트 운영, 백두대간 관광관문지대 조성, 백두대간 슬로시티 육성, 백두대간 바이크 문화탐방로 조성 등

○ 낙동강 풍류관광 리버 트레일 조성

- 낙동강 풍류가도 조성, 낙동강 풍류관광 상품개발, 낙동강 고대국 디지털 스토리텔링, 낙동강 별마을 포토밸리 조성 등

○ 동해안 해양·산림 탐방로 조성

- 낙동정맥 트레킹 로드, 동해안 해파랑길, 형산강 에코 트레일 등

○ 경북 북부권 광역 녹색문화관광 기반 구축

- 유교문화 자취가도(自取街道), 간이역 자취 프로그램 운영, 유교문화 자취판매장, 문화취객 골든벨 개최 등

○ 울릉·독도 녹색 휴양섬 조성

- 국토 시작 섬 문화 트레일, 도동항 섬 문화 공공디자인, 녹색생활시범마을 조성 등

게이밍관광

○ 대구 카지노~영천 경마공원~청도 소싸움경기장 등을 잇는 게이밍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관광휴양 및 비즈니스 방문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관광환경 조성

○ 영천 경마공원 연계 관광코스 및 주변 자원개발

- 익스트림 스포츠단지와 와인테마단지, 워터파크 등

○ 청도소싸움경기장 상설화 및 연계 자원개발

- 용암온천관광지를 전통스포츠 콤플렉스로 기능 전환, 싸움소연구센터, 청도 와인터널 활성화 등

○ 국제 갬블링 기능대학과 남부권 갬블링치유센터 건립

한방힐링관광

○ 웰빙, 웰니스 등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수요의 증가로 의료산업과 관광이 융합된 의료관광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

○ 경북은 전국 최다의 한약재 생산지로 한방 관련 인프라가 풍부하며, 동해안은 해양자원과 산림자원이 공존하는 특성을 보유

○ 특히 해양바이오, 심층수, 헬스케어, 산림테라피, 신재생에너지, 로컬푸드, 한약재 등의 웰빙휴양자원과 백암·덕구·영일만·보문 등지의 온천시설·자원 풍부

○ 경주 양생한방 힐링체험지구 조성

- 교촌한옥마을과 연계한 양생한방프로그램 개발, 최부자댁과 경주향교 등을 활용한 최치원 스토리텔링

○ 동해안 블루 힐링관광 프로젝트

- 울진 삼욕(三欲) 힐링체험지구, 동해항구 힐링체험펜션단지, 동해안 기

(氣)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

경북관광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 현장 중심의 문화관광 인적서비스 개발

- 기존 공무원, 문화관광해설사, 관광종사자 등의 직무역량 강화와 서비스 교육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줄 수 있는 핵심 관광리더를 양성하고, 지역 대학교와 연계한 전문관리자 및 스토리텔링 관광아카데미를 개설

○ 3대문화권 컬처텔러(culture teller) 양성

- 문화관광 전문인력의 부족과 3대문화권 국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단순한 안내해설에서 벗어나 신라·유교·가야문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양성

- 컬처텔러 양성 전문가, 컬처텔러 콘텐츠 제작 전문가, 디지털 컬처텔러, 시나리오 작가 등

○ 유교문화 세계화 전문인력 양성

- 유교문화가 이어온 한국문화의 보편적 가치를 알리고 생활에 접목함으로써 인류의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신(新)유교인 양성

- 유교문화의 전통과 생활모습을 현대적으로 계승 및 발전시키고, 산업화할 수 있는 경북형 문화관광 전문인력을 양성

- 유교문화 씨앗학교 개설, 유교문화 뿌리학교 운영, 유교문화 관광아카데미 운영 등

마.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수용태세 확립

야간관광

○ 경북의 역사문화자원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 도시 건축물·조형물 등 다채로운 야간경관자원을 소재로 한 이색적인 야간관광자원 발굴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관광객이 요구하는 관광패턴 분석으로 성향을 파악하고 테마를 설정하여 지역만의 스토리를 가미한 특별한 야간관광상품을 개발

음식(식도락) 관광

○ 경북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문화와 전통스테이, 축제이벤트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전통요리법의 전승, 내·외국인의 입맛에 맞은 퓨전요리 개발 등 차별화를 구현

- 한식의 미(味) 상품개발 : 종가음식, 사찰음식, 약선음식 등

와인관광

○ 지역의 특산물을 주원료로 한 와인의 개발을 통해 지역 농가 및 관련시설의 고부가가치화, 일자리 창출, 대표 기념품 활용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을 '한국의 보르도'로 육성

- 경북 와인밸리 조성 : 원스톱 와인클러스터, 와인엑스포 개최 등

문학관광

○ 경북을 대표하는 문인을 테마로 한 문학체험 관광상품을 기획하여 문향으로서의 경북 이미지 제고와 방문객 유치를 극대화

- 한국 근현대문학 관광벨트 구축, 객주문학 관광테마타운 조성 등

열차관광

○ 이색적인 관광경험과 교통수단 등의 기능을 지닌 관광열차와 지역축제, 역사문화·자연경관을 연계한 순환테마열차의 활성화 추진

산업관광

○ 경북의 포항, 구미 등의 다양한 산업시설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한 테마형 산업체험 관광지 조성과 체험프로그램을 개발

- 동해안 사이언스 관광벨트 구축, 새마을운동 체험지구 조성 등

지질관광

○ 울릉도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등재 추진으로 제주도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질관광 중심지로 조성

○ 문화부의 동해안 탐방로 조성사업인 「해파랑길」과 연계하여 탐방노선 인근의 특이한 지형·지질자원과 해양경관자원이 어우러진

경관감상형 지오사이트(Geo-site) 지정과 탐방코스를 개발

○ 의성, 안동, 군위, 칠곡 등 경북 내륙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지질자원을 연계하여 지질관광의 가치와 흥미를 부각시킬 수 있는 내륙형 지질관광체험지구를 조성

농산어촌 관광

○ 기존의 획일화된 농산어촌 단위 관광자원개발에서 벗어나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관광지를 조성하여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콘텐츠 융합형 관광상품을 운영

축제이벤트 관광

○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세계유교문화축전,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등 전통·역사문화와 지역 특화자원을 소재로 한 축제 및 이벤트에 대한 지속적인 운영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마을단위 전통축제를 상설화하여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

4장

사통팔달 녹색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확충

제1절 교통

1. 현황 및 문제점

가. 도로

도로시설은 꾸준히 증가

○ 과거 10년간 도로의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전국 도로연장의 연평균증가율은 1.5%로 나타남.

○ 그 중 고속도로의 경우 연평균증가율은 4.0%인데 반해 특별 · 광역시도와 지방도는 각각 0.7%,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60〉 경북 연도별 도로 현황

(단위 : km)

년도	합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2001년	91,396	2,637	14,254	17,810	15,704	40,992
2002년	96,037	2,778	14,232	18,224	17,084	43,719
2003년	97,252	2,778	14,234	17,130	17,485	45,625
2004년	100,278	2,923	14,246	17,371	17,476	48,262
2005년	102,293	2,968	14,224	17,506	17,710	49,885
2006년	102,061	3,103	14,225	17,738	17,677	49,318
2007년	103,019	3,368	13,832	18,109	18,175	49,535
2008년	104,236	3,447	13,905	18,517	18,193	50,174
2009년	104,983	3,776	13,820	18,749	18,138	50,501
2010년	105,565	3,859	13,812	18,878	18,180	50,835
2011년	105,931	3,913	13,797	19,073	18,196	50,952
연평균증가율(%)	1.5	4.0	-0.3	0.7	1.5	2.2
경상북도(2009년)	12,416	536	2,218	-	3,009	6,652
전국대비(%)	11.7	1.3	16.1	-	16.5	13.1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시도별 도로현황

○ 경북의 도로시설 중 고속도로의 경우 전국대비 13.7%를 차지하고 일반국도는 16.1%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경북의 도로시설은 2010년에 총연장 12,404.1km이며, 도로종류별로는 고속도로가 535.4km, 일반국도가 2,222.8km,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가 3,009.4km, 시·군도가 6,636.5km로 나타남.

○ 경북의 도로 포장률은 73.2%로 나타났고, 특히 시·군도의 경우 57.9%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어 시·군도의 포장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표 3-61〉 경북 시·군부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현황

(단위 : km)

구 분	합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총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합 계	12,404.1	9,080.5	1,649.5	1,674.2	535.4	535.4	2,222.8	2,213.0	0.0	9.9
시 부	7,795.4	5,562.8	735.5	1,497.1	372.7	372.7	1,240.5	1,230.6	0.0	9.9
군 부	4,608.7	3,517.7	914.0	177.1	162.7	162.7	982.4	982.4	0.0	0.0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표 3-62〉 경북 시·군부 지방도 현황

(단위 : km)

구 분	지방도(국가지원 지방도)				시 · 군도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계	포장	미포장	미개통
합 계	3,009.4	2,490.7	420.8	97.8	6,636.5	3,841.3	1,228.7	1,566.5
시 부	1,475.9	1,245.6	182.1	48.3	4,706.3	2,713.9	553.5	1,439.0
군 부	1,533.5	1,245.1	238.8	49.6	1,930.1	1,127.4	675.2	127.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2006년 약 98만대이던 경북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0년 약 110만대로 2006년 대비 1.1배 증가하였고,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연평균 4.1%로 가장 많이 증가함.

○ 인구 100명당 자동차 보유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6년 36.2대에서 40.6대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3-63〉 자동차 보유대수 현황 및 증가 추이

(단위 : 대, 명, %)

구분	합계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인구	인구100명당자동차보유대수
2006년	984,265	658,827	63,575	257,569	4,294	2,718,298	36.2
2007년	1,013,833	686,089	63,566	259,729	4,449	2,715,085	37.3
2008년	1,032,280	705,208	63,107	259,326	4,639	2,709,662	38.1
2009년	1,067,507	738,020	62,375	262,294	4,818	2,705,226	39.5
2010년	1,106,316	773,536	60,594	267,190	4,996	2,726,815	40.6
연평균증가율	3.0	4.1	-1.2	0.9	3.9	0.1	2.9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나. 철도

고속철도 1개, 일반철도 6개 노선이 통과

○ 경북의 철도노선은 경부선, 경북선, 대구선, 중앙선, 영동선, 동해남부선이 지나고 있음.

- 경북의 총 철도노선 연장은 553.2km에 이름.

○ 경북의 철도망은 경북북부를 가로지르는 경북선과 남서부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노선인 경부선이 연결되어 있음.

○ 경북 영주시의 경우 중앙선, 경북선, 영동선의 세 노선이 만나는 지점임.

〈그림 3-21〉 경북 철도노선 현황도

다. 항공

포항공항만이 공항으로서의 역할 수행

○ 경북의 공항시설은 포항공항이 있으며 울진공항은 2010년 7월 울진비행교육훈련원 용도 변경하여 개원하였음.

○ 포항공항의 경우 국제선 취항은 없고 국내선으로 김포구간과 제주를 잇는 노선만 운영 중에 있음.

○ 세계경제체제도 국가 간의 경쟁체제에서 광역경제권간 경쟁체제로 매우 빠르게 전환됨에 따라 인근 국가 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지고, 광역경제권 간의 직항 항공노선이 증가 추세

○ 주요 도시별로 형성되어 있는 지방공항을 재정비하여 세계화에 부합하는 광역경제권별 국제공항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함.

〈그림 3-22〉 경북 공항 및 항만 분포도

○ 현재 김해공항은 제반 여건상 관문공항의 역할 수행과 확장이 불가능하여 인천공항 이용시 지방 시민들의 공항이용의 불편이 심각

○ 또한, 울릉도는 우리나라 대표적 도서 중에서 내륙과의 접근성이 가장 취약한 섬임에도 불구하고 연간 방문객이 32만 명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의 제고를 위해 공항의 건설이 필요함.

〈표 3-64〉 포항 공항시설 현황

구 분		내 용
시설현황	소재지	포항시 남구 동해면 도구리 402-1
	부 지(㎡)	4,035,563 (2,478,709)
	활주로(m)	2,133×45
	계류장(㎡)	32,617
	여객터미널(㎡)	11,707
	주차장(㎡)	18,661
	화물터미널(㎡)	-
	항행안전시설	10 : LLZ/DME
수용능력	운항횟수(회/년)	100,000
	동시주기(대)	5
	여객(만명/년)	385
	동시주차(대)	550
	화물(만톤/년)	-
	운항항공기	B737
	최저착륙시정	2,000m
'09운항현황	운항실적(편)	3,746
	여객(명/년)	304,372
	화물(톤/년)	865
비 고		'70.3 취항

자료 : 한국공항공사 홈페이지

라. 항만

경북의 유일한 무역항인 포항항

○ 경북의 항만시설은 무역항인 포항항과 연안항인 구룡포항, 후포항, 울릉항이 있으며, 최근 개항한 영일만항의 하역능력은 1,720천 톤임.

○ 영일만항은 1992년~2011년까지 20년간 총 사업비 1조 9,365억원을 투입하여 건설하였으며 최대접안능력은 5만 톤급 12척을 동시 접안할 수 있음.

〈표 3-65〉 포항항 부두시설 현황(신항·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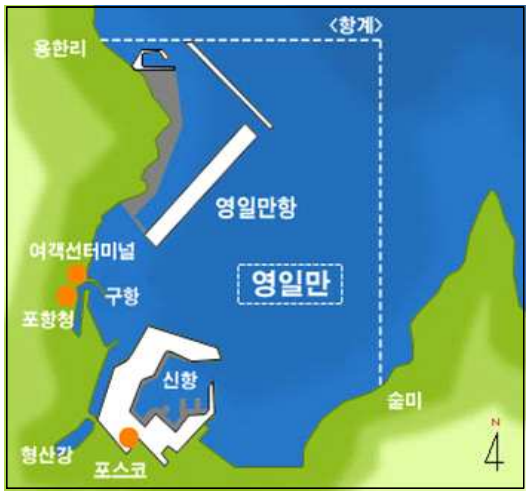
구분	접안시설				정박시설	보관시설				연간하역능력	
	신항		구항		신항	신항		구항		신항	구항
	부두	물양장	부두	물양장	정박지	창고	야적장	창고	야적장		
규모	8,695m	25m	1,117m	2,223m	19 개소	6 동 (18,015㎡)	859,205㎡	4 동 (1,188㎡)	112,735㎡	52,382 천톤	1,477 천톤
능력	38 척 (1,241 천톤)		9 척		19 척	47.8 천톤	2,483 천톤	3.6 천톤	525 천톤		

〈표 3-66〉 포항항 부두시설 현황(영일만항)

안벽길이(m)	수심(m)	접안능력	하역능력(천톤)	야적장(㎡)	취급화물	운영회사
1,000	12	2천TEU×4	1,720	249,472	컨테이너 잡화	포항영일 신항만

연 도	내 용
1962. 6	국제항으로 개항
1969~1985	신항 1~6부두 축조
1985. 12	신항 7~8부두 축조
1987. 12	구항 송도부두 축조
1993. 12	구항 여객부두 축조
1996. 12	영일만항 개발 착수
2009. 8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축조

자료 : 포항지방해양항만청



〈그림 3-23〉 포항항의 연혁 및 위치

2. 여건변화 및 전망

저탄소 녹색 교통시스템으로 전환

○ 기후변화 및 에너지 문제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차원의 국가정책 패러다임 변화

○ 대통령은 2008년 광복절 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제시

○ 또한 지난 2010년 1월에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매 5년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을 목표

○ 이러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는 교통부문에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정책방향으로의 전환 등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임.

○ 즉, 현재의 승용차 위주의 교통체계에서 벗어나 교통수단 전환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및 신교통시스템의 적극적인 도입이 반드시 필요할 것임.

〈표 3-67〉 해외 기후변화관련 법제정 사례

구 분	법 제 정	수 립 일	주 요 내 용
영 국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2008. 11	• 2050년 80%, 2020년 26%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명시 • 탄소예산(Carbon Budget) 도입 • 에너지법(Energy Bill) 개정 추진
프랑스	그르넬 환경법	2009. 초	• 에너지, 기후, 건물, 녹색소비, 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괄하는 법
E U	20-20-20 기후에너지 통합법 (Climate and Energy Package 2008)	2008. 12	•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3대 목표)을 각각 20%
호 주	국가 에너지 온실가스 보고 의무법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9	
	탄소오염 감축방안 법안 (Carbon Pollution Reduction Scheme Bill)	2009. 3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실시 등
일 본	지구온난화 대책추진에 관한 법률	1997.	• 3차례의 법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법	하토야마 정부 추진 중	•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25% 감축 계획 공표 •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도입
미 국	청정에너지 안보법 (Waxman-Markey법)	2009. 5	• 미국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수준 설정 • 재생에너지 생산목표, • 배출권 할당에 의한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Cap &Trade) 도입 • 미국 기업의 경쟁력 보호조치 및 국경조치 발동기준 도입

광역경제권의 대두

○ 5+2 광역경제권의 비전 및 추진전략

- 수도권 :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
- 충청권 : 과학기술과 첨단산업의 중심,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 호남권 : 21세기 문화예술과 친환경 녹색성장의 창조지역
- 대경권 : 전통문화와 첨단 지식산업의 신성장지대
- 동남권 : 환태평양시대의 기간산업 및 물류 중심지
- 강원권 : 환동해권 관광휴양 및 웰빙산업의 프론티어
- 제주권 :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그림 3-24〉 광역경제권 추진전략

○ 광역경제권 단위의 교통체계 구현

- 중앙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구상이 국가발전 비전으로 제시
- 광역경제권 간을 연결하는 도로 및 철도네트워크 구축으로 물류이동의 원활화 도모 필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의 확산

○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기술의 발전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 첨단교통시스템 도입을 대비한 근거법을 마련하여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가는 상황

○ ITS를 이용한 교통정보제공은 혼잡도로 완화, 우회노선 제공 등의 서비스 확대가 가능함.

○ 교통부문에 있어서 신기술의 적용은 RFID[2)]에 기반한 물류거점 정

2)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주파수 인식을 통한 자동인식기술

보시스템 및 향후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에 따른 통행패턴 분석 및 변화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임.

○ 또한 IT기술과 교통과의 접목을 통한 대중교통정보시스템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 제고로 수단 전환을 도모하고 지능형교통체계로서 새로운 형태의 교통패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 첨단기술의 발달로 교통정보가 다양화되어 도로 교통의 수요관리 등을 통한 효율화 가능

전기자동차 등의 수단 다양화

○ 교통분야 첨단기술의 발달로 화석연료를 탈피한 대체 에너지 및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차량수단의 다변화가 예상

○ 이미 선진국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도로 및 전기자동차 관련 법안 등을 마련하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 중

○ 소형 전기자동차의 증가는 이용자들이 통행패턴을 변화시켜 새로운 의미에서의 통행수요 예측 등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보임.

○ 신교통수단의 개발 즉, 전기자동차의 대량 보급의 경우에 저속 전기차의 속도제한 및 도로교통법의 변화 등을 대응이 필요함.

○ 개인교통수단의 억제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중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교통수단 등장

인구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따른 통행량 감소

○ 지속적인 인구감소

- OECD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부터 '마이너스 인구 시대'에 접어들 것으로 예측

- 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노동력의 부족,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의미

- 2030년 한국은 -0.25%의 인구성장률로 세계에서 일본 -0.73%, 러시아 -0.68%, 독일 -0.28%에 이어 4번째로 낮은 인구성장 감소국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인구감소에 따른 통행량 감소

- 국가교통DB의 대구광역권 여객통행 O/D 자료를 예로 하여 대구광역권 통행목적별 총통행수를 분석해 본 결과, 2036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인구감소에 따른 통행량 감소의 현실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나 이견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통행의 절대값이 감소할 것이라는 판단은 충분히 가능성 있음.

○ 노인친화형 교통수단 도입과 서비스 확대

- 국가통계포털(KOSIS)의 장래인구 추계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13년 고령사회로 진입(13.9%) 후 2022년 초고령사회로 변화(21.2%)할 것으로 보임.
- 고령화에 따른 고령인구의 증가는 교통약자의 증대로 인해 통행편의 제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나 대중교통수단 서비스 확대 등과 같은 교통정책의 변화를 야기할 가능성도 높음.

〈표 3-68〉 대구광역권 통행목적별 통행량 추이분석

(단위 : 통행/일)

구 분	출 근	등 교	업 무	귀 가	기 타	합 계
2011년	11,079,409	4,854,037	8,194,493	29,878,021	20,982,171	74,988,131
2016년	11,264,297	5,634,533	8,349,472	29,831,945	19,902,943	74,983,190
2021년	11,324,231	5,220,783	8,428,945	29,737,563	20,041,706	74,753,228
2026년	11,168,427	4,958,009	8,412,990	29,430,000	19,925,816	73,895,242
2031년	11,080,320	4,892,460	8,427,998	28,962,171	19,763,895	73,126,844
2036년	10,818,793	4,565,462	8,285,057	28,661,611	19,503,225	71,834,148

3. 계획 방향

가. 목표

광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편리한 교통네트워크 구축

○ 지역 선도산업 및 3대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교통체계 구축

○ 통행 편의 제고를 위한 양질의 대시민 교통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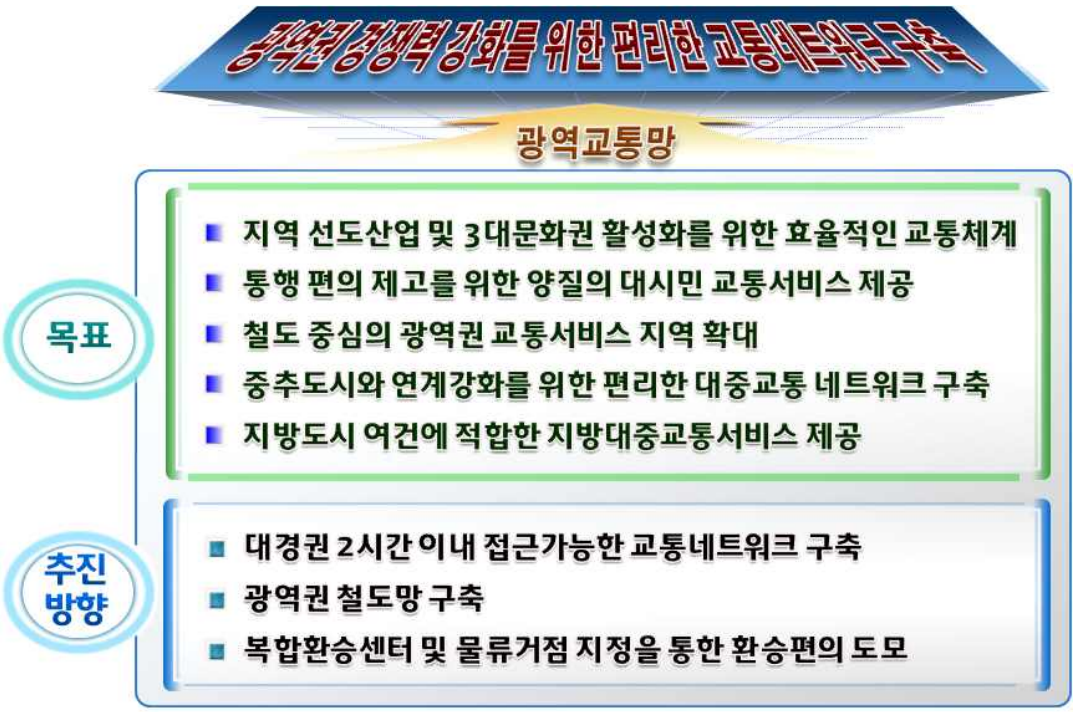
○ 철도 중심의 광역권 교통서비스 확대

○ 중추도시와 연계강화를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 네트워크 구축

○ 지방도시 여건에 적합한 지방대중교통서비스 제공

나. 추진방향

- 대경권 2시간 이내 접근가능한 교통네트워크 구축
- 광역권 철도망 구축
- 복합환승센터 및 물류거점 지정을 통한 환승편의 도모



〈그림 3-25〉 교통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도로

- 교통열악지역인 경북 동북부의 교통망 확충

○ 교통망이 취약한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지역에 대해 국가기간교

통망의 조기 확충으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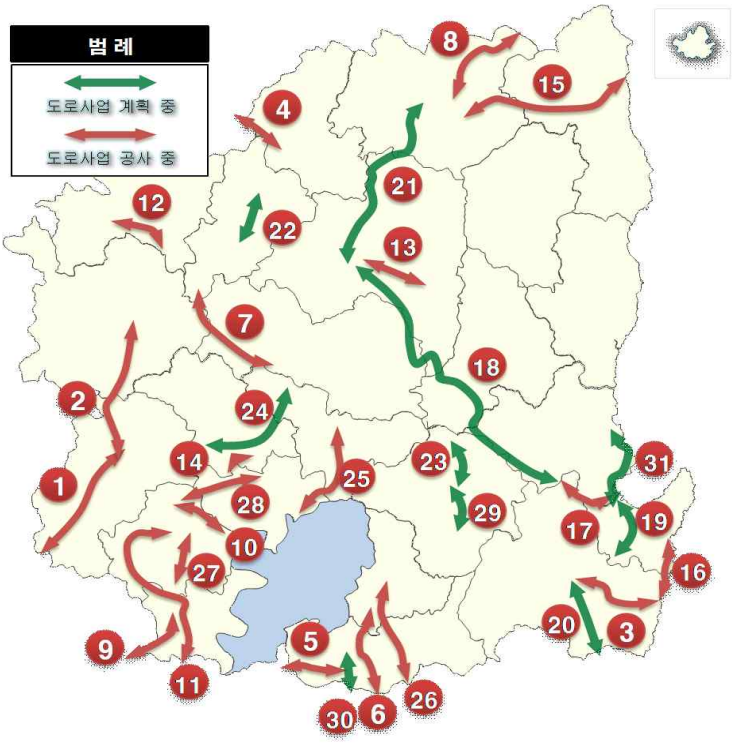
○ 현재 공사 중인 남북7축(울산~포항)과 동서4축(상주~안동~영덕), 영천~상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된다 할지라도 경북 동북부지역의 도로인프라는 아직 미흡

○ 계획 중인 도로사업 중 남북 6·7축이 조기 완공될 경우 경북 동북부지역의 남북간 연결이 가능

〈그림 3-26〉 경북 주요 도로망 추진현황

〈표 3-69〉 경북의 주요 도로사업계획

구분	사업명	연장(km)	비고
고속도로	남북 6축 고속도로(양구~영천)	141.7	계획중
	남북 7축 고속도로(영덕~삼척)	117.9	계획중
	동서 4축 고속도로(상주~영덕)	107.7	공사중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42.0	공사중
	경부고속도로 확장(영천~언양)	35.1	공사중
	88고속도로 확장(광주~함양~고령)	142.8	공사중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31.8	기본설계중
	성서~지천간 고속도로	12.7	턴키발주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93.9	공사중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86.1	계획중
1	김천~거창간 국도4차로 확장	17.1	공사중
2	어모~상주간 국도4차로 확장	15.8	공사중
3	경주~감포 국도4차로 확장	17.6	공사중
4	풍기~도계간 국도4차로확장	6.0	공사중
5	화양~풍각간 국도4차로 확장	6.5	공사중
6	남천~청도 국도4차로 확장	18.2	공사중
7	다인~비안 국도4차로 확장	23.6	공사중
8	봉화소천~강원 도계간 국도4차로 확장	20.2	공사중
9	쌍림~고령간 국도4차로 확장	6.9	공사중
10	왜관~석적간 국도4차로 확장	11.4	공사중
11	고령~성주간 국도4차로 확장	32.9	공사중
12	호계~불정간 국도4차로 확장	9.9	공사중
13	안동~길안 국도4차로 확장	14.0	공사중
14	옥계~산동간 국도4차로 확장	3.9	공사중
15	봉화~울진간 국도확장	40.2	공사중
16	감포~구룡포간 국도4차로 확장	5.0	공사중
17	흥해~기계간 국도4차로 확장	16.6	공사중
18	기계~안동간 국도4차로 확장	62.7	기본 및 실시설계중
19	오천읍 시가지 국도4차로 확장	2.8	실시설계완료
20	농소~외동간 국도건설	6.4	실시설계완료
21	와룡~법전간 국도4차로 확장	9.6	실시설계중
22	예천~지보간 국도4차로 확장	9.3	기본설계중
23	영천~삼창간 국도4차로 확장	6.1	실시설계중
24	구미~군위IC간 국도4차로 확장	11.6	계획중
25	동명~부계간도로 4차로 확장	14.2	공사중
26	청도~경산간도로 4차로 확장	16.8	공사중
27	용암~선남간도로 4차로 확장	7.3	공사중
28	왜관~가산간도로 4차로 확장	16.6	공사중
29	임고~조교간도로 4차로 확장	5.3	실시설계중
30	동산~각남간도로 4차로 확장	4.3	실시설계완료
31	효자~상원간도로 4차로 확장	1.2	계획중



〈그림 3-27〉 경북의 주요 국도 · 국지도 사업계획

나. 철도

경북의 간선철도 동서간 연결은 아직 미흡

○ 중앙선 복선전철화에 따른 수도권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

○ 현재 공사 중인 철도사업 중 경북지역 동서간을 연결하는 간선철도 노선은 절대적으로 부족

녹색성장 기조에 따라 철도노선 확충의 적기

○ 한국교통연구원의 녹색물류 경영전략수립을 위한 세미나 연구자료에 따르면, 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량(2008년 기준)은 도로, 항공, 해운, 철도 순으로 나타남.

○ 그 가운데 2020년 도로의 탄소배출량은 9,426만 3,027톤임에 반해 철도는 가장 낮은 101만 2,500톤으로 예측되었음.

○ 이는 철도교통이 가지는 환경오염 절감 효과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인 수단이라 볼 수 있음.

〈표 3-70〉 경북의 주요 철도사업계획

구분	사업명	연장(km)	비고
고속철도	경부고속철도 2단계 건설(도심구간)	125.0	공사중
일반철도	KTX 포항직결선 건설	3.8	공사중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포항~울산)	76.5	공사중
	동해중부선철도 부설(포항~영덕~울진~삼척)	165.8	공사중
	대구선 복선전철화(동대구~영천)	34.9	공사중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 단선 건설	11.0	실시설계완료
	중앙선 복선전철화(영천~신경주)	25.5	실시설계
	중앙선 복선전철화(도담~영주~안동~의성~군위~영천)	148.1	공사중
	여주~문경선(여주~문경) 단선철도	94.8	실시설계
	남부내륙선 철도 건설(김천~진주~거제)	186.3	후반기착수 ('16~'20년)
	구미산단 인입(사곡~구미산단) 단선 철도	11.0	후반기착수 ('16~'20년)
	문경선(문경~점촌) 단선 철도	17.4	추가검토 ('20년이후)
	김천~전주선 복선전철화(김천~전주)	108.1	추가검토 ('20년이후)
	동해선(포항~동해)복선 전철화	173.8	추가검토 ('20년이후)
	대구~광주선 단선철도(대구~광주)	191.6	추가검토 ('20년이후)
	경북선 복선전철화 (김천-상주~점촌~영주)*	105.3	계획중
	경북내륙선 철도 건설(김천~의성~영덕)*	133.5	계획중
	동서횡단(울진~영주~도청이전지~새만금)철도*	342.0	계획중
	울진~분천간 철도*	33.1	계획중
광역철도	대구권 광역철도(구미~경산)	61.9	실시설계
도시철도	대구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사월~영남대)	3.4	'12준공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연장(안심~하양~영천)	21.7	계획중
	대구도시철도 2호선 성주연장(문양~성주)	17.6	"
	대구도시철도 2호선 하양연장(영남대~하양)	14.3	"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연장(동호~동명)	3.0	"
	대구도시철도 3호선 경산연장(관계삼거리~영남대)	14.8	"

주 : *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으로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

〈그림 3-28〉 경북의 주요 철도사업계획도

다. 공항

세계경제는 국가간 경쟁에서 광역경제권간 경쟁체제로

○ 광역경제권 간의 직항노선이 급증하고 항공기 제작사는 직항노선에 적합한 항공기를 개발·운영

○ 세계화시대, 제대로 된 국제관문공항의 존재여부는 국제경쟁력 강화와 광역경제권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임.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공항체제 확충

○ 광역경제권 시대에 부합하는 신국제공항 건설

※ 본 계획의 수립시점 현재, 신국제공항은 국토해양부의 입지평가 결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11.3월)한 바 있음. 따라서, 신국제공항의 건설은 추후 국토해양부의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 반영에 따라 추진함.

○ 포항공항 및 울릉도 공항 활성화 추진

○ 대구국제공항 및 포항공항의 연계 활성화 도모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울릉도 공항 건설

○ 울릉도의 경우 지난 2011년 8월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소수가 입도를 시도하여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이슈화하기를 원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국가적으로도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으로 볼 수 있음.

○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울릉도에 대한 관심과 접근성 제고를 통한 관광객 유치 등 노력의 일환으로 울릉도 공항 건설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그림 3-29〉 경북 공항사업계획

〈표 3-71〉 경북의 주요 공항관련계획

사 업 명	추 진 경 위
신국제공항 건설	• 2006. 12 : 노무현대통령 신공항 검토지시 • 2008. 9 : 정부, 동남권 신공항을 30대 국책선도프로젝트로 선정 • 2011. 3 : 입지평가위 후보지 답사 • 2011. 3 : 가덕, 밀양 두 후보지 모두 백지화 (경제성 평가 탈락)
울릉공항 건설	• 2010. 10 : 경제성 저조로 사업보류(기재부) • 2011. 7 : 예비타당성 조사 재신청 예정 • 2012. 현재 : 예비타당성 조사 중

제2절 물류

1. 현황 및 문제점

가. 운수업

정보기기 보유 및 정보화 활용능력

○ 전국의 운수업 사업체는 340,526개소(2009년 기준)가 있으며, 이 중 경북은 16,688개소가 있음.

○ 이는 전국의 4.9%에 불과하여 매우 열악한 실정이며, 종사자수 또한 46천여 명에 비중은 4.42%로 전국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운수수입의 경우 2조 5,130억 원으로 전국대비 2.24%를 차지하고 있어 경북의 운수수입은 상당히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표 3-72〉 주요도시별 운수업 현황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전국대비 경북비율(%)
기 업 체 수 (개)	2005년	324,400	91,081	27,202	18,887	15,884	4.90%
	2006년	332,611	91,607	28,543	19,476	16,125	4.85%
	2007년	341,789	92,944	29,101	20,247	16,588	4.85%
	2008년	339,992	91,664	28,031	20,246	16,654	4.90%
	2009년	340,526	90,472	27,945	20,245	16,688	4.90%
종 사 자 수 (천명)	2005년	991.1	337.9	104.0	46.3	40.2	4.06%
	2006년	1,008.4	343.3	102.8	49.4	39.9	3.96%
	2007년	1,050.7	369.0	103.8	58.0	42.3	4.03%
	2008년	1,051.7	367.6	101.2	51.0	44.1	4.19%
	2009년	1,043.9	375.3	97.9	49.6	46.1	4.42%
운 수 수 입 (10억원)	2005년	86,734	53,572	6,398	1,862	1,718	1.98%
	2006년	90,160	54,433	6,522	2,118	1,841	2.04%
	2007년	102,438	63,258	7,136	2,553	2,390	2.33%
	2008년	127,745	86,536	7,087	2,385	2,593	2.03%
	2009년	111,982	71,871	7,221	2,350	2,513	2.24%

주 : 육상, 수상, 항공운송, 온송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통계국 서비스업 통계과

〈표 3-73〉 주요도시별 운수업 비용 및 자산 현황

구분	급여액	장비대수 및 창고대수	매출액	운수비용	부가가치	유형 고정자산
전국	18,758,632	732,342	111,981,875	105,417,240	40,410,430	148,349,178
서울	9,048,268	210,389	71,871,221	70,693,699	18,970,379	74,701,069
부산	1,998,279	56,618	7,221,047	6,360,570	4,217,458	21,458,636
대구	668,210	41,255	2,349,699	2,042,073	1,319,995	4,204,108
경북	771,066	39,229	2,512,917	2,400,667	1,291,620	1,367,233
전국대비 경북비율(%)	4.11%	5.36%	2.24%	2.28%	3.20%	0.92%

자료 : 통계청, 「운수업조사」, 2009

〈표 3-74〉 경북 운송산업별 종사자 및 급여액 추이

산업별	항목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종사자수 (명)	37,151	36,514	38,590	39,854	40,869
	급여액 (백만원)	524,408	544,822	638,885	682,173	694,304
수상 운송업	종사자수 (명)	513	494	391	360	356
	급여액 (백만원)	12,869	11,237	11,791	10,615	10,891
항공 운송업	종사자수 (명)	-	-	-	-	-
	급여액 (백만원)	-	-	-	-	-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	종사자수 (명)	2,500	2,926	3,292	3,862	4,887
	급여액 (백만원)	31,787	38,289	39,858	56,104	65,872

자료 :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 2009

나. 유통·물류기반시설

내륙물류기지

○ 내륙물류기지는 2가지 이상 운송수단(도로, 철도, 항만, 공항)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복합물류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로 구성

- 화물을 대량으로 모아 한꺼번에 운송함으로써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에 구축하는 대규모 물류시설

- 현재 운영·공사·계획 중인 내륙물류기지 : 총 7개소

- 운영 중 : 3개소(수도권 군포, 부산권 양산, 호남권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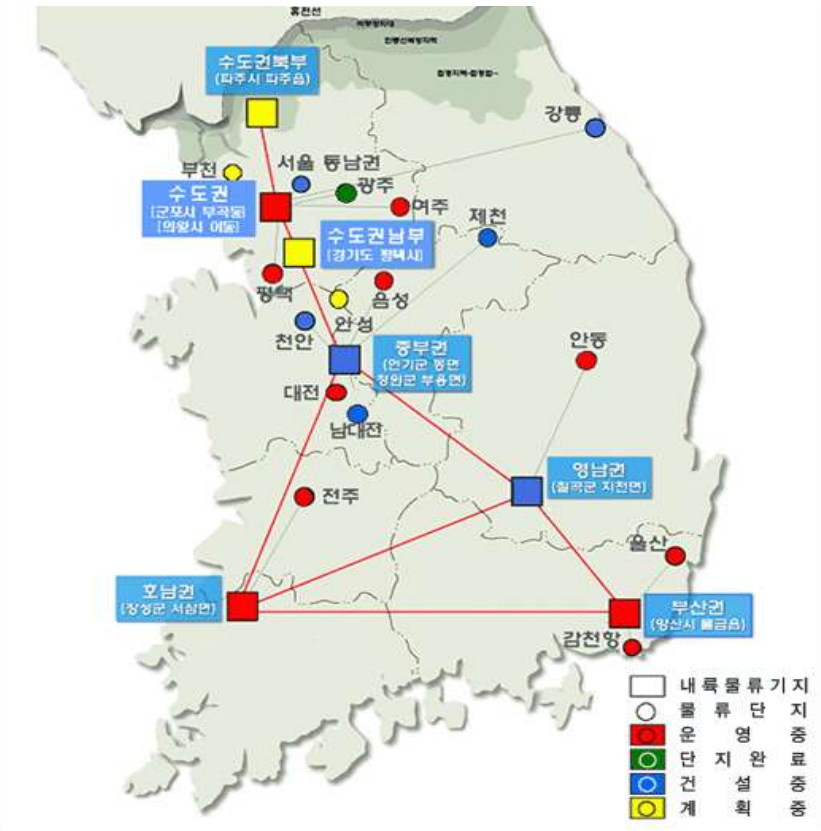
- 공사 중 : 5개소(중부, 영남, 호남권 2단계, 수도권 북부 및 군포 확장)

- 계획 중 : 1개소(수도권 남부)

〈표 3-75〉 전국 내륙물류기지 현황

구 분		사업명	위 치	면 적 (만㎡)	사업비 (억원)	기 간	비 고
합 계				501	26,986		
운영중 (3)	수도권	군포복합물류터미널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	경기 군포 경기 의왕	38 75	2,457 331	'92～'98 '92～'96	
	부산권	양산복합물류터미널 양산내륙컨테이너기지	경남양산	38 75	2,543 2,782	'92～'99 '92～'00	
	호남권 (1단계)	장성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전남장성	28	1,881	'98～'05	
공사중 (5)	호남권 (2단계)	장성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전남장성	24	1,442	'07～'10	
	중부권	중부권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충북청원 충남연기, 경북칠곡	48	2,028	'03～'09	
	영남권	영남권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경북 칠곡	45	2,468	'04～'09	
	수도권 (확장)	군포복합물류터미널확장	경기 군포	35	4,478	'03～'10	착공 ('08.12)
	수도권 북부	파주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경기파주	39	2,469	'05～'11	승인 (09.7)
계획중 (1)	수도권 남부	평택복합물류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	경기평택	42	4,107	'09～'14	제안서 접수('08.10)

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2011년



〈그림 3-30〉 내륙물류기지 배치도

화물터미널

○ 복합물류터미널(2가지 이상 운송수단간 연계운송을 할 수 있는 규모 및 시설을 갖춘 물류터미널)을 제외한 물류터미널은 현재 전국에 30개소가 운영

○ 경북 내에는 2개소가 포항과 구미에 설치되어 운영

〈표 3-76〉 경북 화물터미널 현황

(단위 : ㎡)

일반화물터미널명	대지	건축연면적	공사시행인가일	운영사
포항화물터미널	87,604	5,845	1997. 03. 24	(주)삼일
구미화물터미널	33,299	5,623	1998. 12. 31	(주)구미화물터미널

자료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2011

2. 여건변화 및 전망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물류표준화

○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 등 물류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를 규격화하여 이들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확보하는 Unit Load System을 구축

○ 유가·인건비 상승 및 교통체증심화에 따라 물류시설·장비의 이용효율 향상을 위해 기계화·자동화·공동화가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물류시설·장비 간 호환성을 확보하는 국가차원의 물류표준화 필요

〈그림 3-31〉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물류표준화

지능형교통체계의 물류 접목과 효율성 제고

○ ITS의 기술력을 물류부문에 접목시켜 화물운송을 비롯한 물류전반의 활동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최근에는 ITS기술의 발달로 차량 내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발전

지능형교통시스템(ITS)을 통한 화물운송 효율화

○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관리·제공함으로써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 및 교통이용 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 등 환경친화적 교통체계를 구현

○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하는 만성적인 교통혼잡을 완화할 새로운 교통정책 방향 모색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적극 활용

○ 차량에 부착된 단말기(CVO전용, PDA, 휴대폰 등)를 이용한 실시간 차량/화물 위치추적(GPS, CELL방식)으로 차량 및 화물 관리

○ 실시간 차량위치 정보 기반의 배송계획 수립 및 배차, 운행중 차량의 위치·온도/이동경로/운송 상황 확인, 운송결과 분석에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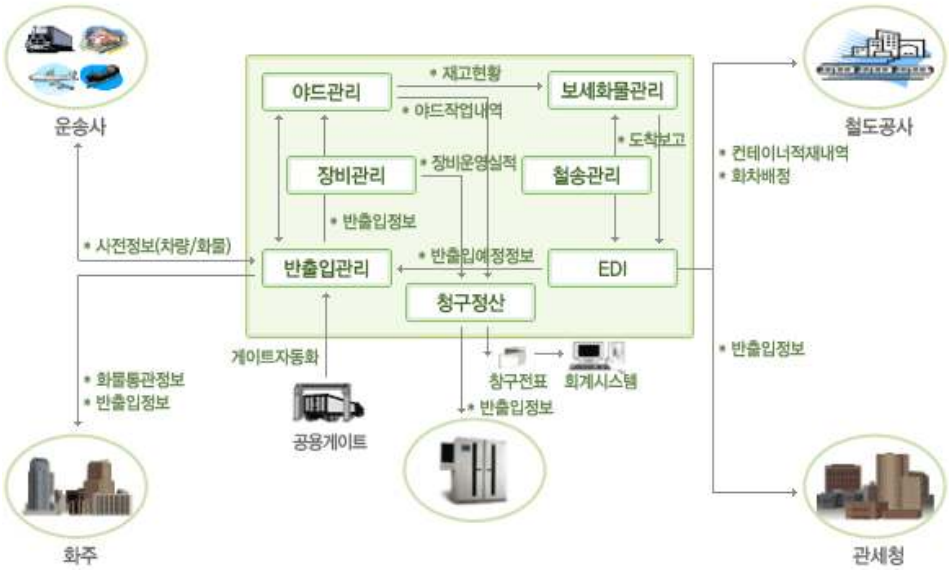
〈그림 3-32〉 첨단화물운송시스템(CVO) 개념도

내륙물류기지 물류정보공용시스템의 도입

○ 반출입, 야드, 보세화물, 철송, 장비 등 관리 및 무선기반의 실시간 업무지원시스템 운용

- 게이트 반출입 관리, ICD(Inland Container Depot) 업무처리 절차 개선 및 표준화

- 의왕ICD에 도입되어 게이트 자동화, 야드관리, 장비관리 등 표준화로 물류체계 효율화



〈그림 3-33〉 ICD 운영시스템 개념도

3. 계획 방향

가. 목표

21세기 경북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화

○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물류표준화 구축

○ 효율적인 물류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인프라 확보

○ 녹색물류체계 구축과 물류보안 강화로 선진물류체계 구현

○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을 위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나. 추진방향

- 물류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한 물류시설 정비
- 환경친화적 물류시책사업 구현
- 민간 물류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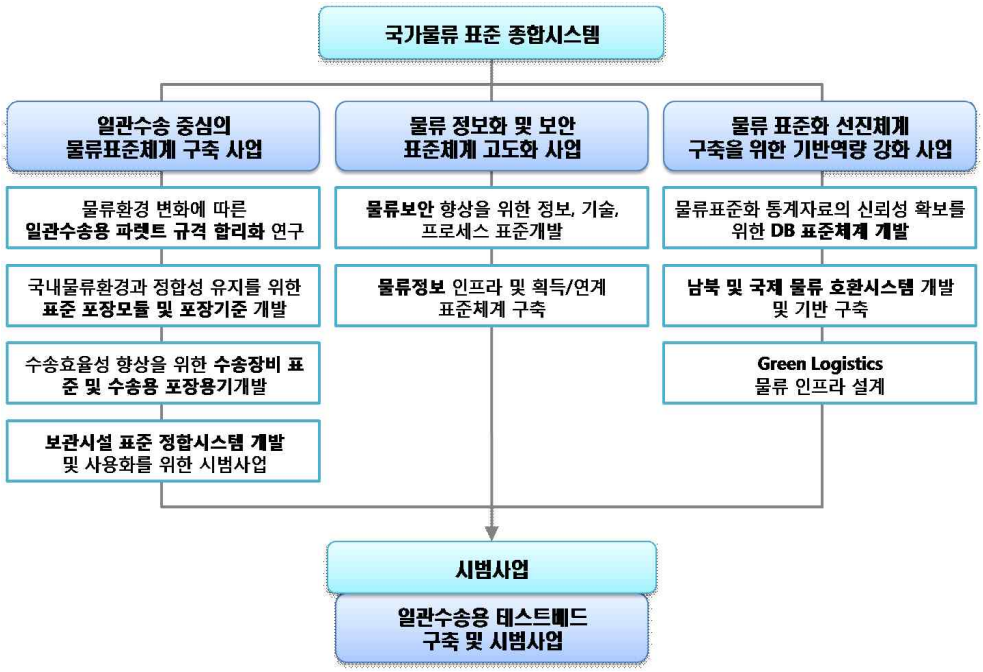
〈그림 3-34〉 물류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 물류시설의 정비 및 확충

○ 물류산업의 발전, 택배시장의 급신장, 경제성장 등으로 물동량의 증가가 예상되나 현재의 물류시설은 기능 및 체계가 미흡하고 분산되어 있음.

○ 물류시설을 통합관리·운영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물류시설 및 산업단지의 개념 전환을 고려한 통합개발계획을 마련



〈그림 3-35〉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체계

화물운송의 효율화 필요

○ 물류공동화, 물류표준화 등 지역물류의 효율화를 위하여 도시물류 경쟁력 강화 도모

○ 육상·해상·항공 등의 물류정보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화물운송의 효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한 효율적인 화물운송시스템의 구축 필요

〈그림 3-36〉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개념도

○ 수송(육상·해상·항공), 통관 등 민·관의 단위물류정보망을 연계하는 물류정보 HUB 구축

물류의 친환경화 필요

○ 화물운송의 디젤연료 사용, 화물자동차의 주거지 주차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물류활동은 도시 환경에 악영향을 초래

○ 환경에 대한 압력 강화, 고유가 시대 등으로 물류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고, 화물자동차로 인한 도시 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녹색물류에 대한 가이드라인(표준)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CO_2 감축의 유도방안 마련

○ 물류활동의 효율화 정책과 더불어 여객교통과 조화된 화물교통의 관리체계를 구축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 환동해권 시대를 대비하여 환동해권 물류거점을 확보하고, 거점과의 기간교통망을 건설하여 원활한 물류의 이동을 도모

○ 물류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물류기반시설을 조기 확충하고,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등 화물흐름의 합리적 재편을 위한 지역거점 물류시설의 확충으로 고급·고도 물류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제3절 정보인프라

1. 현황 및 문제점

가. 생활정보화

전국대비 낮은 생활정보화 수준

○ 경북의 가구별 정보화기기 보유율을 보면 컴퓨터 보유율은 68.8%, 주민 (유선)인터넷 접속 여부율은 68.4% 수준

○ 경북의 인터넷 이용율은 68.4%, 컴퓨터 이용율은 69.1%, 이동전화 이용율은 81.4% 수준

○ 경북의 인터넷 접속 방법은 XDSL 74.8%, 광랜 22.0%, 케이블 모뎀 20.7%, 무선랜 7.6%, 초고속 무선인터넷 0.5%의 순

〈표 3-77〉 국내 지역별 정보화 이용율

(단위 : %)

지역	인터넷 이용	컴퓨터 이용	이동전화 이용
서울	80.9	81.3	92.8
부산	75.8	76.6	87.8
대구	75.9	76.5	87.1
인천	81.7	82.2	88.3
광주	81.0	81.4	84.6
대전	80.4	80.7	86.3
울산	85.0	87.1	88.3
경기	82.9	83.4	88.3
강원	71.2	72.3	82.6
충북	72.1	72.7	82.2
충남	69.7	70.6	80.9
전북	72.2	72.8	81.5
전남	67.8	68.3	79.1
경북	68.4	69.1	81.4
경남	72.5	73.3	81.7
제주	73.6	74.9	79.9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2011

생활정보 이용

○ 전국대비 높은 인터넷 활용률

- 경북지역 가구부문의 자료 및 정보획득은 90.7%로 가장 높았으며, 여가활동은 87.9%, 인터넷 쇼핑 이용률은 55.4%, 인터넷금융은 32.7%, 전자정부서비스는 13.9% 수준

〈표 3-78〉 인터넷 활용 부문

(단위 : %)

지역	자료 및 정보획득	여가활동	커뮤티케이션	인터넷 쇼핑	교육·학습	인터넷 금융	파일공유 서비스	전자정부 서비스
서울	92.9	90.9	91.1	65.8	58.9	47.6	22.4	20.3
부산	90.5	89.7	85.3	55.4	52.3	29.7	19.9	12.4
대구	90.7	89.0	87.8	60.0	54.1	29.5	26.7	19.0
인천	91.3	84.5	90.8	47.6	53.1	34.6	25.6	18.0
광주	97.5	96.4	89.5	59.8	59.1	33.4	13.1	8.1
대전	92.7	88.0	94.7	58.1	55.4	35.2	25.6	21.9
울산	93.6	89.1	84.7	57.3	57.2	31.2	22.9	17.1
경기	89.9	89.5	89.2	52.9	53.4	42.8	25.0	21.6
강원	87.7	83.1	89.0	61.0	46.1	41.5	32.4	20.5
충북	92.3	85.5	88.4	54.9	48.2	28.4	23.1	13.9
충남	92.6	84.4	86.5	62.6	45.8	31.9	22.8	12.9
전북	97.4	95.0	85.2	71.4	48.7	33.2	10.1	5.9
전남	97.4	94.2	83.1	57.1	44.7	32.7	10.2	4.6
경북	**90.7**	**87.9**	**84.8**	**55.4**	**47.7**	**32.7**	**25.5**	**13.9**
경남	88.6	84.4	83.0	51.5	49.8	34.6	21.8	9.3
제주	87.5	88.4	86.6	49.5	55.8	23.4	32.7	27.9

자료 : 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2011

나. 산업정보화

산업정보화 기반

○ 2010년 12월 말 기준 경북의 전체 사업체(18만 527개) 중 PC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46%인 82,963개 사업체인 것으로 추정

○ 2010년 12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사업체(18만 527개) 중 자체적으로 공식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는 14,236개로 전체의 7.9%의 사업체가 자체 공식 홈페이지를 보유

○ 본사와 홈페이지를 공유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8.1%로 나타나 전체 사업체 중 17%의 사업체가 자체 또는 공유 형태로 홈페

이지를 보유

〈표 3-79〉 국내 지역별 사업체 PC보유 현황

(단위 :개소, 대, %)

지역	전체 사업체	PC 보유 사업체	PC 보유율	PC 보유 대수
전 체	3,228,000	1,764,623	54.7	13,910,832
서 울	714,611	405,892	56.8	4,271,698
부 산	256,042	116,629	45.6	921,490
대 구	176,604	89,812	50.9	567,800
인 천	156,241	86,942	55.6	560,142
광 주	96,263	60,768	63.1	401,087
대 전	91,350	51,150	56.0	468,398
울 산	67,061	35,225	52.5	300,126
경 기	644,373	403,839	62.7	2,860,907
강 원	115,457	59,383	51.4	419,660
충 북	100,281	52,541	52.4	398,630
충 남	129,292	65,171	50.4	575,202
전 북	117,827	61,828	52.5	347,601
전 남	122,419	63,029	51.5	424,026
경 북	180,527	82,963	46.0	575,331
경 남	215,814	105,722	49.0	734,929
제 주	43,838	23,727	54.1	83,804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0 정보화통계집」, 2011

〈표 3-80〉 국내 지역별 사업체 홈페이지 보유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전체 사업체	보유		본사와 공유		미보유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3,228,000	262,185	8.1	201,449	6.2	2,764,367	85.6
서 울	714,611	87,185	12.2	39,875	5.6	587,552	82.2
부 산	256,042	11,367	4.4	13,624	5.3	231,051	90.2
대 구	176,604	8,922	5.1	7,540	4.3	160,141	90.7
인 천	156,241	13,896	8.9	11,188	7.2	131,157	83.9
광 주	96,263	5,431	5.6	8,899	9.2	81,933	85.1
대 전	91,350	7,561	8.3	8,935	9.8	74,855	81.9
울 산	67,061	5,911	8.8	3,736	5.6	57,414	85.6
경 기	644,373	61,315	9.5	44,734	6.9	538,324	83.5
강 원	115,457	6,259	5.4	9,682	8.4	99,516	86.2
충 북	100,281	5,861	5.8	5,058	5.0	89,362	89.1
충 남	129,292	7,445	5.8	5,419	4.2	116,428	90.1
전 북	117,827	5,787	4.9	8,714	7.4	103,326	87.7
전 남	122,419	8,988	7.3	6,027	4.9	107,403	87.7
경 북	180,527	14,236	7.9	14,691	8.1	151,600	84.0
경 남	215,814	10,086	4.7	11,074	5.1	194,653	90.2
제 주	43,838	1,935	4.4	2,251	5.1	39,652	90.5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0 정보화통계집」, 2011.

○ 2010년 12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사업체(18만 527개) 중 네트워크

가 구축되어 있는 사업체는 전체의 21.7%인 39,163개 사업체로 나타났음.

〈표 3-81〉 국내 지역별 사업체 네트워크 구축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전체 사업체	구 축		미 구 축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체	3,228,000	741,077	23.0	2,486,923	77.0
서 울	714,611	213,715	29.9	500,896	70.1
부 산	256,042	47,544	18.6	208,498	81.4
대 구	176,604	29,077	16.5	147,527	83.5
인 천	156,241	38,334	24.5	117,907	75.5
광 주	96,263	21,395	22.2	74,868	77.8
대 전	91,350	15,136	16.6	76,214	83.4
울 산	67,061	15,819	23.6	51,242	76.4
경 기	644,373	166,497	25.8	477,876	74.2
강 원	115,457	16,426	14.2	99,031	85.8
충 북	100,281	19,147	19.1	81,134	80.9
충 남	129,292	25,646	19.8	103,646	80.2
전 북	117,827	25,595	21.7	92,232	78.3
전 남	122,419	24,351	19.9	98,068	80.1
경 북	180,527	39,163	21.7	141,364	78.3
경 남	215,814	38,337	17.8	177,477	82.2
제 주	43,838	4,896	11.2	38,942	88.8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0 정보화통계집」, 2011

정보 이용

○ 2010년 12월 말 기준, 경북 전체 사업체(18만 527개) 중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업체는 45.3%인 81,709개소로 파악

〈표 3-82〉 국내 지역별 사업체 인터넷 이용 현황

(단위 : 개소, %)

지역	전체 사업체	가능		불가능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국	3,228,000	1,736,680	53.8	1,491,320	46.2
경 북	180,527	81,709	45.3	98,818	54.7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0 정보화통계집」, 2011

○ 2010년 12월 말 기준 PC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82,963개)의 직원 중 평균 79.7%가 업무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C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중 64.5%가 직원의 80% 이상이 업무상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 수행이 일상적인 것으로 파악

〈표 3-83〉 국내 지역별 사업체 업무상 컴퓨터 이용률

(단위 : 개소, %)

지역	PC보유 사업체	20% 미만		20%~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이상		평균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전 국	1,764,623	42,877	2.4	172,213	9.8	222,018	12.6	81,419	4.6	1,246,096	70.6	82.4
경 북	82,963	1,974	2.4	7,442	9	15,643	18.9	4,380	5.3	53,523	64.5	79.7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2010 정보화통계집」,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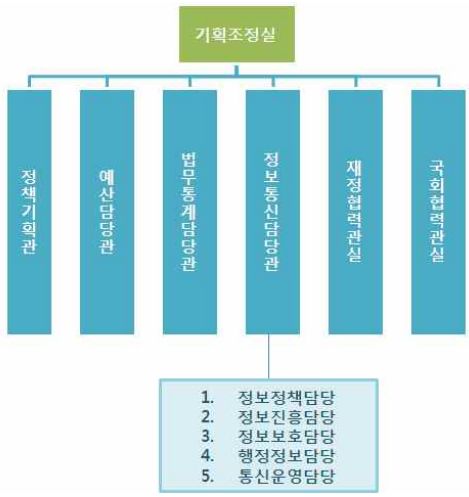
다. 행정정보화

정보화 조직

○ 경북 정보화 조직은 기획조정실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담당관은 5개 담당으로 구분

- 정보정책담당, 정보진흥담당, 정보보호담당, 행정정보담당, 통신운영담당

○ 주요업무는 IT기반 스마트경북구현을 위해 소외계층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 농어촌 지역정보인프라 확충, 사이버 침해대응 및 개인정보보호체계 강화, 스마트 기반 행정정보 서비스 및 정보화 사업 진행 등



〈그림 3-37〉 경북 정보화 조직도

정보화 예산

○ 경북은 정보화 관련 부문에 예산은 2008년 78억원, 2009년 76억원, 2010년 97억원으로 정보화 관련 투자가 잠시 주춤하였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0년 약 97억원으로 2009년 76억원 대비 28.74% 증가

○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정보화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0.17~0.19% 사이의 낮은 수준

〈표 3-84〉 경북 정보화 예산 현황(당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0년	2009년	2008년
일반회계	5,140,500	4,576,610	4,156,784
정보화 예산	9,786	7,601	7,840
전년대비 증가율	28.74%	△3.05%	△15.54%
정보화 예산비율	0.19%	0.17 %	0.19%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1

정보화 시설 및 장비

○ 경북 본청 현원 1,250명을 대상으로 PC 1,331대, 노트북 109대, 프린터 460대 보유

- 내구연한 : PC(4년), 노트북(4년), 모니터, 프린터(5년)

〈표 3-85〉 개인별 PC보급 현황

구분	계	2006년이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PC	1,331	163	265	271	221	411
모니터(LCD)	1,331	531	245	139	163	253
노트북	109	63	29	11	5	1
프린터	460	135	173	47	60	45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1

○ 경북도청의 통신망은 행정망과 인터넷망의 분리로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유지

○ 본청 및 각 산하기관, 사업소, 산하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업무를 위한 고속통신망 구축

정보화마을

○ 경북의 정보화마을 수는 46개 마을이며, 최근 예천 국사골이 제11차 정보화마을로 신규 조성

〈표 3-86〉 경북 정보화마을 조성 및 운영현황

구분	조성년도	정보화 마을명	특 산 물	현 황			마 을 유 형
				마을수	가구수	주민수	
포항시	1차	호미곶마을 (대보면 대보2,3리, 구만1리)	과메기, 전복	3	447	1,270	상거래, 체험관광
	2차	기계장터마을 (기계면 현내1리)	한우, 사과, 배	1	364	1,017	상거래, 체험관광
	4차	신광비학산학마을 (북구 신광면 죽성1리)	호박고구마	1	104	232	상거래, 체험관광
	6차	상옥참느리마을 (북구 죽장면 상옥리)	사과, 토마토	2	250	585	상거래, 체험관광
경주시	2차	양동민속마을 (강동면 양동, 인동1리)	청주, 엿, 약과	2	231	680	체험관광
김천시	2차	양각자두마을 (구성면 양각1,2리)	자두, 배, 포도	2	177	554	전자상거래
	4차	황악산반곡포도마을 (대항면 대룡1리)	포도	1	147	476	전자상거래
안동시	1차	하회마을 (풍천면 하회,광덕,기산,신성리)	한지, 딸기, 참외	8	788	1,764	체험관광
	3차	안동포마을 (임하면 신덕리, 금소리)	안동포	3	341	848	상거래, 체험관광
	4차	녹전토종마을 (녹전면 매정,원천,사천리)	단호박, 메주, 마	3	280	739	전자상거래
구미시	2차	금오산찰쌀보리마을 (고아읍 오로리)	찰쌀보리, 수박	1	319	945	체험, 전자상거래
	4차	신라불교초전지마을 (도개면 도개리, 다곡리)	우렁이쌀, 사과	2	186	470	체험관광
영주시	2차	풍기인삼마을 (풍기읍 서부리)	인삼	1	190	834	전자상거래
	3차	소백산단산포도마을 (단산면 옥대리, 단곡리)	포도, 사과	2	244	682	전자상거래
영천시	4차	보현산별빛포도마을 (화남면 사천1리)	포도	1	55	339	체험, 전자상거래
상주시	2차	은자골마을 (은척면 황령리, 남곡리)	청정미, 곶감	5	177	445	체험, 전자상거래
	4차	모동반계포도마을 (모동면 반계리)	포도	1	94	230	전자상거래
	5차	구마이곶감마을 (내서면 서만리)	곶감	1	62	149	전자상거래
문경시	3차	문경새재팔영사과마을 (문경읍 팔령리)	사과	1	106	345	전자상거래
	7차	동로오미자마을 (동로면 생달리)	오미자	2	88	115	전자상거래
	10차	우로실마을 (호계면 우로리)	사과, 배, 단호박	2	98	233	전자상거래
경산시	4차	금구맛대추마을 (압량면 금구리)	대추	1	194	566	전자상거래
군위군	3차	군위팔공산능금마을 (부계면 동산리)	사과, 송이, 꿀	1	69	185	체험관광
의성군	2차	모흥황토마을 (구천면 모흥1,2,3리)	황토쌀, 사과	3	150	410	전자상거래
	3차	의성토종마늘마을 (춘산면 사미리)	마늘, 사과	1	191	469	전자상거래
	6차	안평자두마을 (안평면 기도1,2리)	자두, 마늘, 흑미	2	97	215	전자상거래
	9차	청학마을(신평면 중률 1리)	마늘, 고추, 사과 등	2	102	210	복합형
청송군	3차	주왕산사이버타운 (부동면 이전리외 11개리)	사과, 고추	12	926	2,210	읍면형
영양군	2차	수비산촌마을 (수비면 신원리, 오기리,발리리)	고추, 송이	6	493	1,064	체험관광
	4차	선바위마을 (입암면 방전리, 흥구리)	사과, 오리쌀	2	149	322	체험관광
영덕군	2차	영덕대게마을 (강구면 강구리)	대게, 홍게 등	22	3,579	8,156	복합형
	4차	영덕복숭아마을 (지품면 삼화리, 오천리)	복숭아	2	235	538	전자상거래
청도군	4차	신도새마을발상지마을 (청도읍 신도리)	반시, 사과	2	130	374	전자상거래
성주군	1차	도흥참외마을 (선남면 도흥리)	참외	3	365	866	전자상거래
	3차	가야산녹색체험마을 (수륜면 백운, 신파리외 7개리)	사과, 토종꿀	9	267	694	체험관광
	6차	장산꿈마을 (월항면 장산1리)	참외, 복숭아 등	1	224	572	전자상거해
고령군	1차	고령딸기마을 (쌍림면 안림리)	딸기, 버섯	1	243	694	전자상거래
칠곡군	2차	동안꿀벌참외마을 (약목면 동안리)	참외, 벌꿀	1	418	1,202	전자상거래
	3차	금남오이꽃동산마을 (왜관읍 금남리)	오이, 토마토	1	182	570	복합형
예천군	2차	금당실마을 (용문면 상금곡리)	꿀, 마늘, 속청	1	371	906	체험관광
	3차	회룡포마을 (용궁면 향석리, 대은리)	쌀, 호박, 버섯	2	333	867	체험관광
	11차	국사골마을 (유천면 사곡리)	쌀, 찰수수, 건고추	1	43	81	체험, 전자상거래
봉화군	2차	춘양목송이마을 (춘양면 도심리, 서벽리)	송이, 사과, 호두	6	426	965	전자상거래
	3차	청량산비나리마을 (명호면 풍호,북곡,강창리)	고추, 대추, 사과	5	370	804	체험관광
울진군	2차	백암온천마을 (온정면 온정1,2리)	대게, 송이버섯	2	126	367	체험, 전자상거래
울릉군	2차	황토구미마을 (서면 태하리)	오징어, 산나물	1	235	492	전자상거래

주 : 조성시기(현황) - 1차 : 2001. 5월 ~ 2002.10월 (4곳) 2차 : 2002. 6월 ~ 2003. 9월 (14곳)
3차 : 2003. 9월 ~ 2004.10월 (10곳) 4차 : 2005. 5월 ~ 2006. 2월 (10곳)
5차 : 2006. 7월 ~ 2007. 2월 (1곳) 6차 : 2007. 7월 ~ 2008. 1월 (3곳)
7차 : 2008. 8월 ~ 2009. 2월 (1곳) 8차 : 2010. 3월 ~ 2011. 3월 (0곳)
9차 : 2011. 3월 ~ 2012. 1월 (1곳) 10차 : 2012. 1월 ~ 2012. 7월 (1곳)
11차 : 2012. 8월 ~ (1곳 조성중)

○ 정보화마을에 속한 마을수는 총 135개 마을, 가구수 14,666가구, 주민수는 36,751명

○ 마을유형은 전자상거래 형태의 정보화 마을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험관광과 상거래 형태의 마을도 일부분 차지

○ 지역 대표적인 특산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

정보화 관련 자치법규

○ 경북의 정보화 관련 자치법규는 운영지침 2개, 시행규칙 1개, 조례 2개 제정

〈표 3-87〉 경북 정보화 관련 자치법규 현황

법규명	주요 규정 내용	제정/최근개정일
경상북도 지역정보화기본조례	-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계획의 수립 -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 지역종합정보센터 설치운영	(일부개정) 2005-04-14 (일부개정) 2006-12-28 (일부개정) 2009-04-23 (전면개정) 2012-03-05
경북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 시행규칙	- 협의회의 운영 -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실무협의회의 운영	(제정) 1999. 6. 7 (일부개정) 2005-05-16 (일부개정) 2006-12-28 (일부개정) 2009-04-23
경북 원격영상회의시스템 운영규정	- 활용업무/운영관리 - 이용관리/출장통제 - 시스템 안전대책/자료보안	(제정) 1999-03-29 (일부개정) 2006-11-06
경북 도정종합정보센터 운영규정	- 시스템 운영관리 - 단말기 운영관리/프로그램 관리 - 업무개발/운영지침서 - 입력대상자료 범위 - 자료의 갱신등 관리 - 자료의 보안 - 시스템 안전대책	(제정) 1997.01.23 (일부개정) 2005-04-28 (일부개정) 2006-11-06 (일부개정) 2007-12-31 (일부개정) 2009-04-23
경북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인터넷시스템 구축·운영 - 인터넷시스템 개선 - 홈페이지 정보관리 - 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 및 제공 -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 전자민원처리 및 공개, 상담기능 제공 - 도지사와의 대화방 운영 - 홈페이지 참여마당 운영 - 공무원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 지역주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 ID 보급 - 외국어홈페이지 설치·운영 -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일부개정) 2005-04-14 (일부개정) 2006-12-28 (일부개정) 2007-12-31 (일부개정) 2009-04-23

자료 : 경북도청 홈페이지

○ 경북 지역정보화추진기본조례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지역정보화 관련 주요 정책을 규정하고 있음.

라. 정보인프라 문제점

독자적인 지자체 신규사업 추진 불가

○ 정부의 시스템 표준화 추진으로 지역 자체적인 정보화 관련 사업 추진 불가능

- 시스템의 잦은 변경으로 신뢰도 낮음.
- 표준화로 인해 생긴 기능이 기존의 기능보다 불편함 초래

자치단체별 유사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정보과잉 현상 발생

○ 문화, 관광 정보 등의 유사 내용을 서로 다른 자치기관에서 서로 다른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중복성 및 오류 등으로 인한 질적 수준 저하의 가능성 보유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녹색정보화 사업 부족

○ GT기반의 행정환경 구축과 전산자원 통합, 웹사이트 통합·정비,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자원관리의 비효율성 내재

○ 녹색사회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녹색인프라 구축, 주민들은 에너지 절감 실천, 깨끗한 환경구현을 위한 정보화사업 부재

해킹 및 바이러스에 의한 보안체계 취약

○ 통합전산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DDos와 같은 정보보호 위협이 증가

○ 사이버테러와 물리적 파손으로부터 중요 행정정보, 시민의 재산 및 건강 등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철저한 보안체계 구축 부족

부족한 정보화 예산

○ 정보화사업은 대규모 SOC 사업 못지 않은 막대한 예산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 여건상 충분한 예산 확보에 애로사항 발생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트렌드 변화

Beyond IT 시대 도래

○ IT의 고도화·융합화는 새로운 가능성과 가치 혁신의 Beyond 시대의 핵심 인프라 역할

- 프로슈밍/소셜소비, 실감형 제품/맞춤형 교육, 지식공유/사회문제 참여 등 사회 각 부문에 내재화되어 다양한 혁신의 대두

○ 개별제품이나 독자산업 중심의 성장전략이 아닌, 개방과 혁신을 통한 IT전반의 생태계 조성이 핵심 경쟁력

만물지능화 IT 서비스

○ 만물지능화 IT의 세계에서는 컴퓨터 자원, 센서, 네트워크 등이 편재되어 있는 환경을 전제로 '물리적 작용과 행동'이라는 실질적 기능 탑재

○ 만물지능공간에서는 유비쿼터스화를 기본 인프라로 사람 · 사물 · 환경 간에 분산 지능화된 컴퓨터 디바이스와 상호작용하는 고차원의 맞춤형 서비스 개발

디지털과 미디어가 통합된 메가미디어 등장

○ IT와 BT·NT의 융합, BT·NT와 전통산업의 융합, 전통산업과 IT 융합 등 디지털 컨버전스 현상이 가속화되고 유비쿼터스 기술의 확산으로 정보화의 범위가 사람·기기에서 공간으로까지 확대

○ 전화, 컴퓨터, 방송통신과 미디어 등 모든 매체가 망라되어 디지털 기술로 융합된 거대 메가미디어가 등장

녹색정보화, 저탄소 녹색성장 구현의 핵심기반으로 등장

○ 그간 정보화는 업무효율성 증진과 생활편의 기반제공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제 IT를 통한 저탄소사회 구조 전환 변환 필요

○ 지능화, 유비쿼터스화, 탈물질화, 내재화 등을 통해 경제성장과 환경이 상충하지 않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여 선순화 구조를 만드는 그린 ICT 등장

정보보안이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정보 유출은 인간의 한계, 기술적 환경의 변화, 정보의 특성에 따라 완전한 방지가 어렵지만, 해당기관 및 기업의 투자와 노력을 침해하고 실업을 유발하는 등 국가차원의 경쟁력을 왜곡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정보 보호 기능은 사람, 정보, 인프라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단편적인 정보보호기술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특히 매체의 소형화, 대용량화, 분산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필요

나. 제도 변화

국가공간정보에관한 법률(제정)

○ 국가 공간정보체계 기본계획 수립, 공간정보의 표준을 개발·보급,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관리, 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하는 자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금의 지급 등 지원 근거 마련, 보안관리규정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제정 등

정보화촉진기본법(전면 개정)

○ 법의 제명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국가정보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체계, 국가정보화의 추진, 정보이용의 건전성·보편성 보장, 정보이용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등을 규정

전자정부법(전면 개정)

○ 전자적인 민원의 신청·처리뿐만 아니라 복지 및 안전, 기업활동 촉진 등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실태 조사·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규정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및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며 열람청구권을

규정하여 자신의 신상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이용에 따른 금지행위 등을 각각 규정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일부 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조달청장이 관련 기관에 요구

전기통신사업법(전면 개정)

○ 전기통신사업자 허가 제도와 이용약관 인가 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 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전면 개정)

○ 개인질병정보의 수집·조사·제공에 대한 동의와 예외를 인정한 규정을 삭제

○ 신용정보는 복제와 전송이 쉬워 감독당국의 규제를 통한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용정보 보호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 회사 및 금융기관 등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책임지는 신용정보관리·보호인 제도 도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일부 개정)

○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3. 계획 방향

가. 목표

행복과 희망의 Smart & Green IT 중심 경북

- ○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 스마트 & 그린 행정 구현
- ○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 ○ 천연자원 및 기반시설의 보호 안전망 구축

나. 추진방향

도민 오감만족 정보화 서비스 개발

- ○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IT기반의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을 위한 실감형 복지서비스 제공

스마트 & 그린 행정정보화 서비스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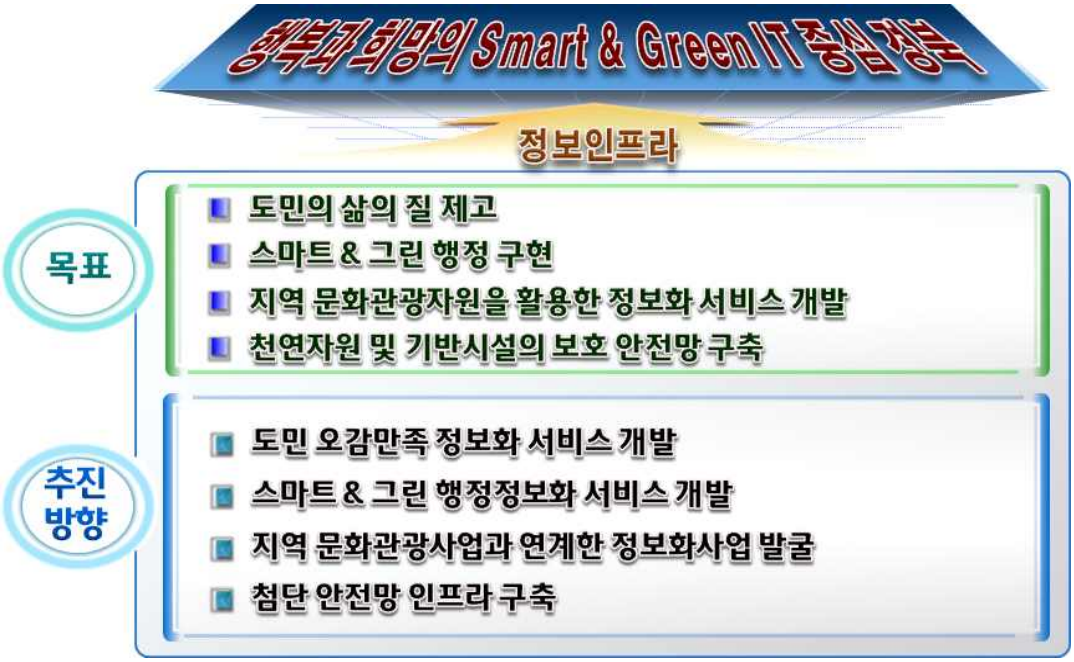
- ○ 그린 행정워킹기반 구축, 스마트모바일 행정서비스 구현 등 녹색첨단 행정서비스 구현

지역 국책사업과 연계한 정보화사업 발굴

- ○ 지역 문화관광자원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스마트기반의 서비스 개발

첨단 안전망 인프라 구축

- ○ 치안, 자연하천 보존 등 지역 주민과 기반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첨단 안전망 구축



〈그림 3-38〉 정보인프라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도민 오감만족 정보화 서비스 사업 발굴

정보화 사각지대 해소 방안

○ 정보화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보화 서비스 발굴 필요

- 특히, 독거노인, 외국인 이민·이주자 등 정보화 소외계층을 위해 다문화 가족 행복지원 서비스, 원격의료서비스 등 다양한 정보화 서비스 사업 발굴

- 정보화 소외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청 청소년, 고령자 등 대상별로 인터넷선생님, 소프트웨어 기술교육 등 맞춤형 정보정보화 교육 실시

정보화 마을 활성화 방안

○ 개별 정보화마을의 맞춤형 운영관리와 활성화를 위해 도 중심의 활성화센터 구축 필요

-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눈높이 교

육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도 중심의 정보화마을활성화센터 구축

나. 스마트 & 그린 행정정보화 구현

스마트워크 확대 사업 발굴

○ 본청의 IT자원 및 인프라를 접근성 및 교통이 용이한 원격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기업대상으로 스마크워크 서비스 확대

-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주민의 다양한 불편사항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신고, 접수, 결과통보 등을 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개발

○ 컴퓨팅 자원의 효율성 등을 통하여 최근 부각되고 있는 그린 IT관련 정보화 서비스 발굴

-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 구축 등 녹색정보화 사업 발굴

다. 지역 문화관광사업과 연계한 정보화사업 발굴

공간정보 기반 문화관광 정보화서비스 발굴

○ 공간정보 기반을 활용하여 낙동정맥 개발, 3대문화권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한 위치정보 기반 정보화 서비스 제공 필요

- 공간정보기반의 낙동정맥 트래킹로드 관광서비스 제공

- 스마트기술 기반 3대문화체험서비스, 스마트리버 기반조성사업, 독도사랑서비스 등 경북 관광콘텐츠와 연계한 사업 발굴

라. 첨단 안전망 인프라 구축

사전예방 차원

○ 도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와 위험성이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서비스 제공 필요

- 방폐장 안심서비스, 문화자산 스마트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사전예방 차원의 정보화 서비스 발굴

-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원전재해 예측 및 경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경북

동해안 원절벨트지역 대주민 재해안전대응 서비스 제공

○ 연령별·성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 인프라 구축

- 자녀안심서비스 등 지능형인프라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

5장

쾌적한 생활 및 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제1절 주택

1. 현황 및 문제점

가. 가구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 증가

○ 2010년 현재 경북의 가구수는 1,014천 가구로서 우리나라 전체 17,574천 가구 중 5.8%의 구성비를 이룸.

○ 2005년 경상북도의 가구수는 943천 가구였으며 과거 5년간 71천 가구가 늘어나 7.6%의 가구 증가율을 보임.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 9.9%와 도지역 평균 11.5%에 미치지 못함.

〈표 3-88〉 가구 분포 현황

(단위 : 천 가구, %)

구분	2005년	2010년	증감	증가율
전 국	15,988	17,574	1,586	9.9
도 지 역	8,529	9,508	980	11.5
경 상 북 도	943	1,014	71	7.6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가구원수의 지속적 감소

○ 2010년 현재 경북의 가구당 가구원수는 2.44인이며, 이는 전국 평균 2.69인 보다 적을 뿐 아니라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적은 규모임.

○ 가구원수의 감소는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경북은 1995년 이후의 통계에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가구규모를 유지

〈표 3-89〉 광역 지자체별 평균 가구원수 추이

(단위 : 인)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3.40	3.12	2.88	2.70
경북	3.17	2.93	2.64	2.44
경기	3.47	3.26	3.03	2.85
강원	3.27	2.94	2.70	2.50
충북	3.36	3.05	2.77	2.58
충남	3.35	3.00	2.72	2.54
전북	3.37	3.03	2.77	2.57
전남	3.21	2.90	2.64	2.45
경남	3.32	3.03	2.79	2.62
제주	3.43	3.18	2.89	2.7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1인가구 비율의 큰 증가

○ 2010년 경북의 1인 가구 비율은 28.8%로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2010년 경북의 1인 가구 비율은 28.8%로 과거 5년간 4.9%가 늘어나 1인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 평균 1인 가구 비율은 2005년 20.0%에서 2010년 23.9%로 3.9% 증가

- 전국적으로 볼 때 1인 가구의 19.2%는 70세 이상 고령자이며, 특히 읍·면 지역에서 70세 이상의 비중(39.2%)이 높은 것으로 조사

〈표 3-90〉 지자체별 1인가구 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2000년	2005년(A)	2010년(B)	증감(B-A)
전국	15.5	20.0	23.9	3.9
경북	18.5	23.9	28.8	4.9
경기	12.6	16.9	20.3	3.4
강원	18.8	23.5	27.9	4.4
충북	17.1	22.7	26.9	4.2
충남	17.2	22.6	27.0	4.4
전북	17.4	22.1	26.5	4.4
전남	19.7	24.6	28.9	4.3
경남	17.1	21.4	24.9	3.5
제주	16.6	21.5	24.0	2.5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1인 가구의 고령화 심각

○ 경북의 1인 가구의 평균연령은 점차 높아져서 2010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의 비율이 43.7%에 이르고 있고, 70세 이상 비율도 약 30%에 이르고 있음.

- 1인 가구 전체의 성별 비율은 남자 42%, 여자 58%로 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경북의 60세 이상 1인 가구 비율(43.7%)은 전남(58.5%) 전북(47.8%)에 이어서 3번째에 속하여, 다른 광역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3-91〉 광역 지자체별 1인가구 연령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20세 미만	20~40세미만	40~60세미만	60세이상
전국	4,142,165	48,584	1,553,915	1,219,036	1,320,630
	100.0	1.2	37.5	29.4	31.9
경북	289,704	4,213	84,367	74,394	126,730
	100.0	1.5	29.1	25.7	43.7
경기	777,360	6,027	330,181	252,141	189,011
	100.0	0.8	42.5	32.4	24.3
강원	155,453	2,892	46,938	47,641	57,982
	100.0	1.9	30.2	30.6	37.3
충북	150,455	3,059	53,880	41,712	51,804
	100.0	2.0	35.9	27.7	34.4
충남	201,875	3,855	69,637	52,460	75,923
	100.0	1.9	34.5	26.0	37.6
전북	175,026	2,300	44,708	44,375	83,643
	100.0	1.3	25.5	25.4	47.8
전남	197,084	1,057	32,840	47,893	115,294
	100.0	0.5	16.7	24.3	58.5
경남	286,485	2,105	79,557	85,643	119,180
	100.0	0.7	27.8	29.9	41.6
제주	44,996	401	11,572	14,730	18293
	100.0	0.9	25.7	32.7	40.7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1인 가구는 단독·자가 주택이 높은 비중을 차지

○ 1인 가구 거처 유형은 단독주택이 217천 가구(75%)로 전국 평균 59.3%보다 15% 이상 높은 수치이며 광역도 지역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면 가장 높은 비율임.

- 아파트 거주 비율은 19.3%로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비율을 보

이고 있음.

○ 1인 가구의 점유형태에서는 자가 주택이 48.7%로 전국 평균 31.9%에 비해 매우 높고,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전남(64.9%), 전북(52.1%)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임.

○ 그러나, 월세(보증금 있는 월세 포함)를 살고 있는 가구도 29%에 이르러 경북지역에 주거 불안 가구가 상당수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됨.

〈표 3-92〉 광역 지자체별 1인가구 거처유형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국	4,142,165	2,459,701	1,056,822	82,651	235,070
	100.0	59.3	25.5	2.0	5.7
경북	289,704	216,611	55,980	4,444	4,815
	100.0	74.8	19.3	1.5	1.7
경기	777,360	402,645	219,579	21,610	55,030
	100.0	51.8	28.2	2.8	7.1
강원	155,453	97,372	46,993	4,902	1,197
	100.0	62.6	30.2	3.2	0.8
충북	150,455	97,089	45,095	3,409	1,126
	100.0	64.5	30.0	2.3	0.7
충남	201,875	132,052	53,186	4,241	3,508
	100.0	65.5	26.3	2.1	1.7
전북	175,026	116,672	50,998	3,018	630
	100.0	66.6	29.1	1.7	0.4
전남	197,084	144,825	41,932	2,091	1,279
	100.0	73.5	21.3	1.1	0.6
경남	286,485	197,032	66,245	4,338	3,974
	100.0	68.8	23.1	1.5	1.4
제주	44,996	28,688	6,735	1,663	3,239
	100.1	63.8	15.0	3.7	7.2

주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는 제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나. 주택

주택보급률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

○ 2010년 경북의 주택보급률은 108.7%로서 전국의 101.9%를 훨씬 상회하고 도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10년 경북의 주택수는 1,092천호이며 일반가구수는 1,005천가구로

2005년 주택수 965천호, 일반가구수 939천가구에 비해 각각 13.2%, 7.0%씩 증가

- 기존 개념의 주택수는 2010년 933천호이며 2005년 878천호로서 6.3%가 증가하여, 경북은 기존개념 주택수 보다 거주가능 가구수로 산정한 거처수의 증가폭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3-93〉 지역별 주택보급률

(단위 : 천가구, 천호, %)

구 분	2005년				2010년			
	일반가구	주택수[1]	주택수[2]	주택 보급률	일반가구	주택수[1]	주택수[2]	주택 보급률
전국	15,887	13,223	15,623	98.3	17,339	14,677	17,672	101.9
경북	939	878	965	102.8	1,005	933	1,092	108.7
경기	3,329	2,736	3,248	97.5	3,831	3,217	3,837	100.1
강원	521	494	542	104.0	558	536	599	107.4
충북	505	456	520	102.9	559	510	599	107.3
충남	660	635	685	103.8	749	716	807	107.8
전북	620	598	638	103.0	660	633	709	107.4
전남	666	671	692	103.9	681	691	727	106.7
경남	1,056	943	1,062	100.6	1,151	1,034	1,201	104.3
제주	179	153	172	96.0	187	159	183	97.4

주 : 주택수1) - 기존 개념의 주택수(빈집포함)
주택수2) - 기존 개념의 주택수에 다가구 구분거처수 추가
주택보급률 산정방식 - 주택수2) ÷ 일반가구수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연도

거처 유형은 단독주택에서 높은 비중 차지

○ 거처 유형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에서는 단독주택의 비율이 39.6%에 불과한데 비해, 경북은 56.1%로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가장 높음.

○ 아파트 거처수는 37만 가구로 36.8%를 차지하여 제주(23.7%)와 전남(35.2%)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비율임.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주택

○ 단독주택 비중이 가장 많은 편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방수는 1개의 주택이 7.9%로 충북(8.6%) 다음으로 비율이 높고 사용방수 4개인 주택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음.

○ 사용방수를 기준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경북의 주택규모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작은 것으로 판단됨.

<표 3-94> 광역 지자체별 일반가구 거처 유형(2010년)

(단위 : 가구, %)

구분	거처수 총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전국	17,339,422	6,859,694	8,169,349	502,488	1,241,590
	100.0	39.6	47.1	2.9	7.2
경북	1,005,349	563,940	369,536	21,188	28,533
	100.0	56.1	36.8	2.1	2.8
경기	3,831,134	1,130,874	2,088,788	141,097	328,219
	100.0	29.5	54.4	3.7	8.6
강원	557,751	276,405	243,998	20,204	4,066
	100.0	49.7	43.7	3.6	0.7
충북	558,796	271,930	253,770	17,517	5,796
	100.0	48.7	45.4	3.1	1.0
충남	749,035	380,113	311,966	21,244	16,743
	100.0	50.9	41.6	2.8	2.2
전북	659,946	329,823	304,257	13,028	2,543
	100.0	50.0	46.1	2.0	0.4
전남	681,431	408,472	239,981	11,465	4,574
	100.0	59.9	35.2	1.7	0.7
경남	1,151,172	543,861	532,320	23,209	22,019
	100.0	47.3	46.2	2.0	1.9
제주	187,323	105,690	44,308	10,131	18,114
	100.0	56.3	23.7	5.4	9.7

주 :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주택 이외의 거처'는 제외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표 3-95> 광역 지자체별 일반가구 사용방수(2010년)

(단위 : 가구, %)

구분	합계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이상
전국	17,339,422	1,309,944	1,195,319	3,700,778	7,473,491	2,817,366	842,524
	100.0	7.6	6.9	21.3	43.1	16.2	4.9
경북	1,005,349	79,057	74,868	203,408	401,332	196,203	50,481
	100.0	7.9	7.4	20.2	40.0	19.5	5.0
경기	3,831,134	274,864	225,870	850,971	1,805,416	510,348	163,665
	100.0	7.2	5.9	22.2	47.1	13.3	4.3
강원	557,751	41,974	38,574	136,323	241,180	77,590	22,110
	100.0	7.6	6.9	24.4	43.2	13.9	4.0
충북	558,796	48,306	38,980	123,701	232,298	92,106	23,405
	100.0	8.6	7.0	22.1	41.6	16.5	4.2
충남	749,035	69,645	40,371	142,203	314,530	146,490	35,796
	100.0	9.3	5.4	19.0	41.9	19.6	4.8
전북	659,946	36,993	41,259	130,773	289,277	128,582	33,062
	100.0	5.6	6.3	19.8	43.8	19.5	5.0
전남	681,431	22,324	38,994	143,562	304,874	137,621	34,056
	100.0	3.3	5.7	21.1	44.7	20.2	5.0
경남	1,151,172	76,223	72,211	215,357	517,360	211,303	58,718
	100.0	6.6	6.3	18.7	44.9	18.4	5.1
제주	187,323	11,183	12,321	36,468	73,208	40,236	13,907
	100.0	5.9	6.6	19.5	39.1	21.5	7.4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빈집이 많은 비중을 차지

○ 경북의 빈집수는 총주택수 933천 호 중 75천 호로서 8.0%의 비율을 차지하여 전국 평균 5.4%보다 높게 나타남.

○ 도단위에서는 강원이 9.7%로 가장 높으며, 경북은 충남(8.4%), 전남(8.2%)에 이어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 경북의 전체 빈집(75천 호) 중 약 44%는 비어있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며, 비어있는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하면 약 63%에 이름.

○ 빈집의 파손 정도는 파손이 없고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빈집의 비중이 커서 전체의 83%에 이르지만 나머지 17%는 부분적으로 파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시·군별로 보면 포항, 구미, 경주, 경산 등 경북의 주요 도시에서 차지하는 빈집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표 3-96〉 경상북도 시군별 빈집 현황(2010년)

(단위 : 호)

구 분	빈집수	비어있는 기간		파손정도	
		6~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파손없음	일부파손
포항시	11,204	1,941	3,782	10,287	917
경주시	8,760	1,574	2,694	7,534	1,226
김천시	3,586	634	2,208	2,687	899
안동시	3,995	469	2,134	3,171	824
구미시	8,851	1,917	3,010	8,176	675
영주시	1,911	368	803	1,542	369
영천시	2,891	479	1,378	2,173	718
상주시	2,940	522	1,563	2,172	768
문경시	2,092	298	959	1,731	361
경산시	5,529	1,843	1,698	5,073	456
군위군	1,210	223	732	831	379
의성군	2,797	409	1,713	1,896	901
청송군	1,347	231	635	1,021	326
영양군	851	98	607	544	307
영덕군	1,784	342	1,012	1,339	445
청도군	2,766	666	1,242	2,231	535
고령군	1,063	156	539	887	176
성주군	1,756	250	1,063	1,277	479
칠곡군	3,273	654	1,411	2,950	323
예천군	2,254	239	1,436	1,694	560
봉화군	1,261	237	651	963	298
울진군	2,542	464	1,338	2,055	487
울릉군	453	72	245	374	79
합계	75,116	14,086	32,853	62,608	12,508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년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주택 트렌드 변화

인구 감소 시대, 1인 가구 증가 및 고령화

○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의 영향으로 지방의 인구는 시간이 흐를 수록 감소 현상 심화

○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가구분화가 계속되면서 가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가구증가의 대부분은 1·2인의 소규모 가구가 차지함.

○ 전체적으로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1인 가구에서도 고령화가 두드러지며 특히, 농촌지역에서 1인 가구의 고령화 비율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남.

도시개발사업 등 신규 주택사업 추진의 부진 우려

○ 최근 LH공사의 부채 과다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전국적으로 신규 주택건설사업의 공사 중단, 계획 취소가 발생

○ 현재까지 경북지역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된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음.

○ 한편, 인구 감소 시대에 과다한 교외지역 개발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대두됨.

귀농·귀촌 인구 증가

○ 귀농·귀촌 인구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경북은 전국 최고의 귀농지역으로 각광을 받음.

○ 경북의 귀농인구는 매년 늘어나 2009년에는 1118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함.

○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

공가·폐가 및 폐교의 활용 증가

○ 빈집을 지자체가 사들여 리모델링을 거쳐, 귀농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급하는 사례도 다수 있음.

○ 폐교는 생태학교, 예술학교 등 창조적인 장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세임.

나. 주택 제도 변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등 아파트 위주의 사업에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같은 점진적인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음.

주택법에 따른 광역 지자체의 주택종합계획 수립

○ 2003년에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하면서 광역 지자체별로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법정 계획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경북은 아직 미수립 단계임.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지원 범위 확대

○ 농어촌 주택개량 자금이 2010년에는 4천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신·개축 융자지원액도 세대당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됨.

전세 가격 불안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치

○ 최근 전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함.

○ LH공사는 신규 다세대 주택을 2만세대 매입,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임.

다. 신도시 건설 등 공간 변화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건설

○ 국토의 균형발전과 행정기능 및 문화와 산업, 정주환경이 갖추어진

자족도시 육성

○ 사업 개요

- 위치 : 안동시(풍천면), 예천군(호명면) 일원
- 면적 : 10.96㎢(안동6.34, 예천4.62)
- 완공 목표 년도 : 2027년

〈그림 3-39〉 체계적인 주택유형의 공급 (도청이전신도시)

- 계획인구 및 세대수 : 10만인(100인/ha), 40,000세대
- 주택유형별 비율 : 단독주택 29%, 공동주택 71%
- 공동주택 규모별 비율 : 60㎡ 이하 16.0%, 60∼85㎡ 69.1%, 85㎡ 초과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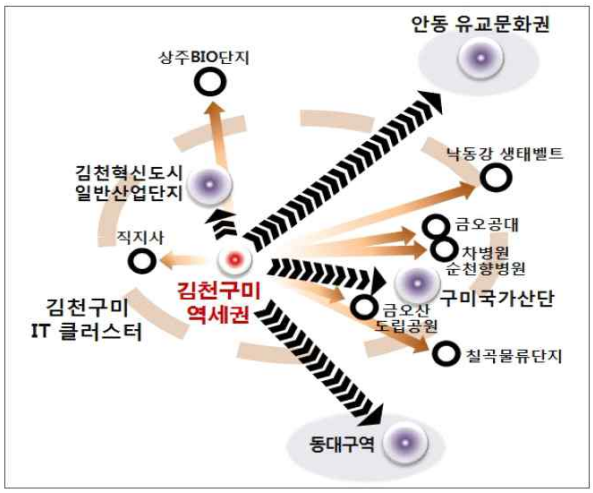
(김천) 혁신도시 건설

○ 기존산업단지인 구미테크노파크와 약 20km 거리, 대구광역시와 약 50km 위치에 혁신도시 건설

○ 사업 개요

- 규모 : 면적 105만평, 인구 약25,000명 정도의 자족형 도시
- 사업기간 : 2006 2월 ∼2012년 12월

○ 김천·구미 역세권과의 연계 : 김천·구미 역세권과 김천 혁시도시 및 일반산단,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연계, 활성화 하여 IT 산업 클러스터 구축 계획



〈그림 3-40〉 김천·구미 역세권과의 연계도

3. 계획 방향

가. 목표

도민이 행복한 주거문화 실현

○ 도민의 주거와 삶의 질 향상

-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해소,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등

○ 새로운 주거 문화 형성

- 시대적 흐름에 맞는 새로운 정주 패러다임의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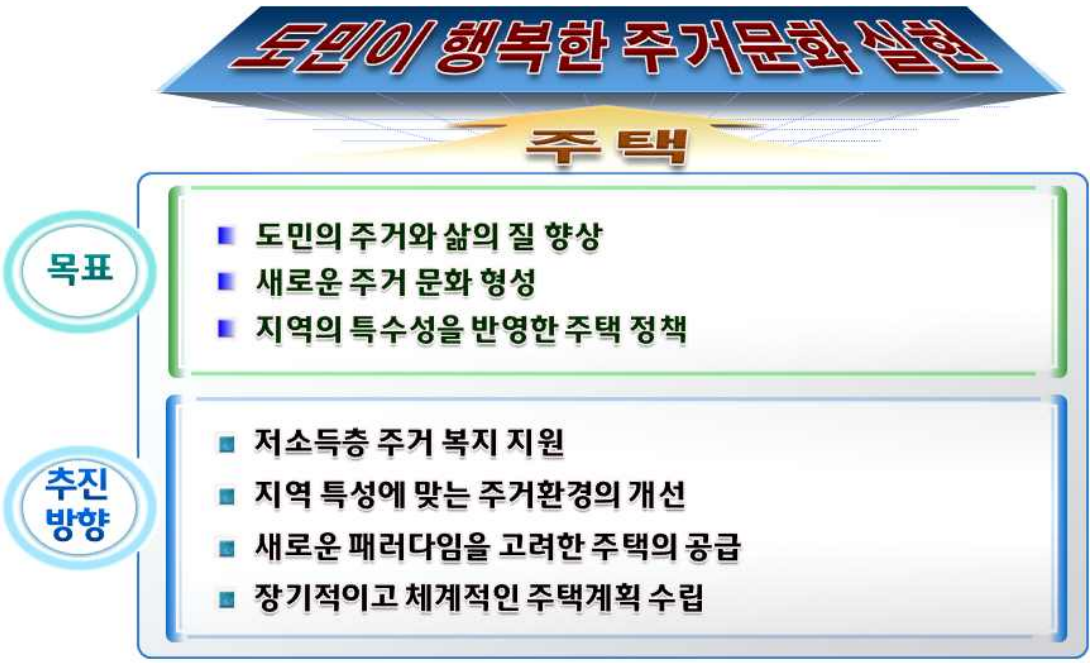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주택 정책

- 도시와 농어촌의 다양한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 정책을 실현

나. 추진 방향

저소득층 주거 복지 지원

○ 농어촌 지역 및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복지 차원의 주거 지원



〈그림 3-41〉 주택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늘어나는 1인 가구 중 특히 독거노인에 대한 배려가 요구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의 개선

○ 농촌지역 불량 주택의 개선과 폐·공가 주택의 매입 및 활용

○ 도시지역 기성시가지 등에 산재한 노후주거지의 체계적 개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

○ 도시지역 수요를 감안한 전원주택 공급

○ 지역 실정에 맞는 친환경주택 공급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계획 수립

○ 지역의 독자적인 주택정책을 위한 종합적인 주택계획 수립

○ 지역별 주택시장에 맞는 중장기 주택 수요 및 공급계획 수립

4. 추진계획

가. 저소득층 주거 복지 지원

공공임대 주택 및 매입·전세임대 사업의 확대

○ 지역의 저소득층과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수요를 반영하여, LH공사 등 공공기관을 통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및 확대

○ 외곽지역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보다는 지역의 입지적 수요를 파악하여 기성 시가지 내의 노후주택 개선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바람직

○ 단지형 공동주택 공급과 더불어 기존 주택의 매입 및 전세 임대주택 비중도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확대

○ 저소득층, 독거노인, 편부모 가족 등 주거 약자를 위한 주택의 개·보수 지원

○ 경북도 및 시·군 단위의 지원사업과 더불어 국가 지원의 확대가 병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의 개선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속적 확대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

○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 개별 주택개량에서 벗어나 지역의 환경 개선을 포함,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마을단위 사업을 유도·권장

도시지역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 포항, 구미, 안동, 경산 등 경상북도 주요 도시 내에 산재해 있는 노후 불량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최근 주택시장의 침체로 사업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L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협의가 필요

○ 대도시의 천편일률적인 고층·고밀 아파트사업 보다는 지역 경관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한 주택정비 사업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는 방안이 필요

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

다양한 수요를 감안한 전원주택지 조성

○ 도시민들의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과 경북지역에 산재해 있는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유형의 전원주택지 조성

○ 도로 등의 기반시설과 입지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지역에 통근형 전원주택을 건설

○ 그 외에도 퇴직자를 위한 전원주택, 실버형 전원주택, 펜션형 전원주택 등 최근의 다양한 주택 수요(needs)를 충분히 반영하여 창조적인 모델 개발

에너지 절약형 공동주택 설계, 빗물 재활용 등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 친환경 녹색 개발 및 성장은 국가의 정책 기조이며 국제 사회에서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
- 경북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탄소 제로 주택 등의 친환경 공동 주택단지 건설이 필요
- 시범 사업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전략이 바람직
- 친환경 시범 단지 내에 게스트 하우스와 교육 및 에너지 체험 시설 등도 갖추어 관계 공무원, 연구자 등의 방문과 학술 세미나 등 개최
- 친환경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경상북도의 이미지를 더욱 구체화하고 이를 대내외에 적극 홍보

라.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계획 수립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 2003년의 주택법 제정을 통해 법적인 계획으로서 의무화하고 있는 주택종합계획의 수립이 필요
- 경상북도의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는 주거 실태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못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주택정책 수립이 곤란
- 주택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주택정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주택정보시스템 구축

-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주택정보센터를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공 및 민간의 다양한 주택정보를 제공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주택정보센터를 별도로 설립하여 지역민들에게 주택정보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음.
- 경북도에서는 홈페이지 내에 개별공시지가 등 일부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는 매우 부족
- 경북도 및 시·군 단위에서 지역민을 위한 부동산 정보와 주택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서민 주거의 질적인 개선과 주택 사업자들의 바람직한 주택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

제2절 상·하수도

1. 현황 및 문제점

가. 상수도

도시화와 가뭄으로 하천에서 저수지로 취수원 변천

○ 1980년대에는 마을주변 우물을 주 취수원으로 사용하다가 도시화 지역에서는 하천 표류수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극심한 가뭄을 겪으면서 전용댐 또는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취수

○ 최근 들어 하천복류수와 저수지(댐) 중심으로 각각 68.6%, 30% 취수가 이루어짐.

〈표 3-97〉 경북 상수도의 수원별 취수현황

(단위 : 천톤/일)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하천표류수	103.3	539.3	260.8	89.3	89.3	89.3	86.5	82.5
하천복류수	410.3	500.6	536.1	565.7	610.4	614.8	613.6	614.1
저수지	228.2	377.7	254.6	392.7	332.5	332.5	317.5	317.5
지하수	4.2	7.6	6.4	3.0	3.0	3.0	3.0	3.0

자료 : 환경부, 「상수도통계」, 2011

급수보급률과 급수량 모두 증가 추세, 시·군간에는 격차 큼

○ 경북 상수도 급수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급수인구의 증가로 급수량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경북 시급의 상수도 급수 보급률은 2011년 기준 90.3%수준이며, 군급에서는 대체로 68.0% 전후임.

- 시급에서는 상주시(67.5%)가 가장 낮고, 구미시(98.1%)가 가장 높음.
- 군급에서는 성주군(41.1%)이 가장 낮고 영덕군(87.3%)이 가장 높음.

〈표 3-98〉 경북 상수도 급수 보급률 변화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급수인구(천인)	1,671	1,975	2,106	2,140	2,192	2,230	2,259	2,315	2,347
총인구(천인)	2,778	2,814	2,712	2,718	2,715	2,710	2,705	2,727	2,739
보 급 율(%)	60.2	70.2	77.7	78.7	80.7	82.3	83.5	84.9	85.7
급수량(천㎥)	636	698	885	919	951	977	966	1,008	1,053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2

〈표 3-99〉 경북 시·군별 상수도 급수 보급률 변화

(단위 :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시 급	**63.3**	**73.1**	**79.8**	**80.8**	**82.7**	**83.7**	**85.0**	**89.7**	**90.3**
포항시	80.0	86.3	90.6	91.0	91.3	92.7	92.7	93.1	94.0
경주시	58.7	67.2	75.3	76.1	80.6	84.8	85.6	86.5	87.8
김천시	52.4	62.3	68.9	71.4	75.5	76.2	78.0	78.9	79.8
안동시	62.9	70.8	78.8	80.5	81.2	82.3	82.6	83.9	84.5
구미시	82.1	90.0	95.2	95.6	96.3	96.7	97.5	97.9	98.1
영주시	68.2	74.7	79.3	79.6	80.0	80.5	81.2	81.6	82.6
영천시	51.1	61.0	75.6	77.8	79.8	80.5	82.3	84.1	85.3
상주시	43.2	53.7	62.6	63.3	64.6	65.7	66.0	68.5	67.5
문경시	66.4	79.3	80.4	81.0	82.0	82.3	87.8	87.8	88.2
경산시	68.4	85.2	91.0	91.5	95.8	95.3	96.9	98.3	97.7
군 급	**38.3**	**47**	**54.3**	**55.7**	**57.1**	**59.7**	**62.5**	**66.7**	**68.0**
군위군	26.1	42.2	46.3	50.2	48.6	56.7	60.4	74.0	68.7
의성군	35.7	43.9	41.7	40.5	43.8	45.0	44.5	52.5	55.2
청송군	32.3	37.5	49.0	53.5	54.7	57.2	61.1	61.5	65.3
영양군	38.9	41.8	47.1	53.2	52.1	53.9	63.6	70.5	74.8
영덕군	68.8	80.2	81.5	81.8	83.5	83.8	84.3	84.5	87.3
청도군	25.1	30.9	44.1	41.8	45.9	49.6	53.1	52.9	56.1
고령군	28.5	39.6	61.7	61.7	63.1	66.2	76.6	82.5	82.7
성주군	15.6	22.4	29.1	29.4	30.5	31.4	33.7	37.7	41.1
칠곡군	45.5	65.3	74.7	76.9	79.4	82.4	83.8	85.7	85.9
예천군	28.3	39.1	48.7	53.5	56.3	57.4	58.4	61.0	62.1
봉화군	27.6	34.5	39.5	38.7	39.4	45.5	45.5	45.9	46.7
울진군	52.3	56.3	59.0	58.7	60.5	63.1	63.7	64.3	63.8
울릉군	73.5	76.7	83.7	83.8	83.9	84.3	84.5	85.1	83.1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2

유수율은 감소, 누수율은 증가 추세

○ 경북 상수도 유수율은 감소 추세이고, 누수율은 20%대로서 유수율 증가와 누수율 감소대책 마련 필요

○ 시급의 상수도 유수율은 감소, 누수율은 증가 추세

- 유수율은 구미시(88.4%)가 가장 높고 영주시(48.0%)가 가장 낮으며, 누수율은 영주시(46.0%)가 가장 높고 김천시(9.4%)가 가장 낮음.

○ 군급의 상수도 유수율은 감소, 누수율은 증가추세

- 유수율은 칠곡군(80.9%)이 가장 높고 영덕군(51.0%)이 가장 낮으며, 누수율은 의성군(41.5%)이 가장 높고 성주군(14.6%)이 가장 낮음.

〈표 3-100〉 경북 상수도 유수율 변화

(단위 :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 북	**72.2**	**76.6**	**71.5**	**67.1**	**65.9**	**65.3**	**66.3**	**67.6**	**66.9**
시 급	**71.8**	**75**	**67.3**	**66.4**	**66**	**64.7**	**64.8**	**66.3**	**65.8**
포항시	70.8	71.4	57.3	57.9	57.7	58.4	59.7	61.2	63.4
경주시	70.1	72.6	52.9	52.1	49.1	46.8	50.5	51.1	52.0
김천시	59.5	65.9	70.8	71.5	70.8	71.6	72.1	75.8	80.1
안동시	73.3	76.9	77.8	79.6	80.2	82	77.0	78.1	75.1
구미시	73.6	85.7	87.4	87.1	87.6	87.6	91.1	94.9	88.4
영주시	76.7	79.6	55.7	53.3	54.7	56.4	52.8	51.7	48.0
영천시	63.1	69.2	73.1	71.4	67.3	53.4	56.2	60.5	53.5
상주시	84.8	73.9	70.6	65.9	69	67.6	69.6	69.9	72.6
문경시	75.6	74.7	54.2	48.9	49	48.7	48.2	49.5	49.4
경산시	70.4	80.5	72.7	76	74.5	74.7	71.1	70.2	69.2
군 급	**80.5**	**79.2**	**72.8**	**70.7**	**67.7**	**68.5**	**68.2**	**67.2**	**67.4**
군위군	72.5	63.8	80.1	86.4	82.1	74.2	74.0	71.1	71.2
의성군	81.3	82.2	69.1	50	47.8	53.4	52.6	51.4	53.9
청송군	87.6	89.8	62.9	70.2	67.5	83.5	71.4	73.7	69.4
영양군	87	84	79.8	74.8	63.8	64.9	59.0	57.6	57.7
영덕군	70.6	82.3	72.5	73.8	60.3	58.4	56.2	52.3	51.0
청도군	70.1	67.7	60.2	59	64.1	67.2	59.8	54.5	59.4
고령군	80.9	76.1	69.4	53.3	51.4	60.6	72.1	72.3	76.7
성주군	83.3	79.4	82.8	84.1	81.4	81	80.7	80.2	79.8
칠곡군	80.1	74.5	82.2	74.4	73.3	78.7	83.7	83.2	80.9
예천군	90	82.4	67.1	73.9	64.2	71.5	73.4	76.9	73.0
봉화군	73.6	77.5	65.8	63.5	63.9	62.7	65.7	65.9	67.0
울진군	83.3	83.4	75	75.5	76	52.6	55.5	56.4	56.5
울릉군	86.2	85.9	79.2	80.1	84.2	81.4	82.2	77.6	79.6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2

〈표 3-101〉 경북 상수도 누수율 변화

(단위 : %)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 북	19.0	15.6	19.8	22.3	22.6	22.9	22.8	21.6	22.3
시 급	**18.2**	**16.5**	**22.8**	**24.4**	**23.7**	**24.3**	**24.7**	**23.1**	**24.3**
포항시	20.1	15.3	29.4	27	27.2	27	25.7	24.6	24.1
경주시	18.2	16.5	25.7	25.4	25.6	26.9	26.0	25.8	25.2
김천시	21.2	20.0	12.3	12.1	11.7	11.8	11.6	11.4	9.4
안동시	15.7	15.0	16.1	15	13.9	12.1	18.2	15.5	18.4
구미시	20.9	12.9	10.5	8.4	7.9	7.9	8.9	5.1	10.0
영주시	13.6	17.8	34	44.3	40.7	39.1	42.7	43.3	46.0
영천시	26.3	20.9	19.9	23.3	25.6	39.9	37.0	26.3	33.1
상주시	10.5	17.0	21.6	28.5	24.7	20.9	20.6	22.5	19.7
문경시	14.4	14.9	38.8	44.5	44.5	44.9	43.1	43.0	43.3
경산시	21.5	14.8	19.7	15.5	14.7	13	13.4	13.4	13.8
군 급	**14.2**	**14.8**	**19.1**	**21.7**	**25.3**	**24.3**	**24.8**	**27.0**	**25.4**
군위군	17.5	14.9	14	10.2	12.3	20.8	20.4	22.7	19.2
의성군	7.9	17.1	30.1	47.7	50	44.1	42.8	44.0	41.5
청송군	10	8.6	24	21.5	21.9	10.7	23.7	21.7	23.4
영양군	11.8	13.7	18.6	21.6	31.7	30.6	33.2	36.4	36.4
영덕군	19.8	13.9	22.5	22.4	33.6	33.2	33.9	37.1	35.0
청도군	21.3	21.7	24.7	23.6	20.6	22.8	33.3	38.7	33.4
고령군	14.1	16.5	21.5	22.4	43.4	35	12.4	21.2	18.7
성주군	14.5	14.2	11.6	9.9	12.6	13.7	13.9	14.7	15.0
칠곡군	16.8	17.4	13.1	22	21.9	16.6	11.8	16.2	14.6
예천군	9.3	12.4	15.6	30.6	27.9	7.5	21.2	19.0	18.4
봉화군	20.3	14.1	18	19.1	21.9	20.1	19.4	19.1	18.2
울진군	16.6	16.5	22.5	20.5	19.9	44.4	41.9	38.8	38.5
울릉군	5	11.6	12	11	11.2	15.9	15.0	20.9	17.6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2

유수율 저조와 누수율 증가로 1인1일 급수량은 증가추세

○ 경북 전체의 1인1일 급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 실제 사용한 급수량의 증가보다 유수율이 저조하고 높은 누수율이 원인으로 1인1일급수량의 감소대책 마련이 시급

○ 경북 시·군의 상수도 1인1일 급수량은 지속적인 증가추세

- 시급의 1인1일 급수량 최고 지역은 영천시(559L)이고, 최저 지역은 안동시(321L)임.

- 군급의 최고 지역은 영덕군(582L)이고, 최저 지역은 성주군(271L)임.

〈표 3-102〉 경북 1인1일급수량 변화

(단위 : 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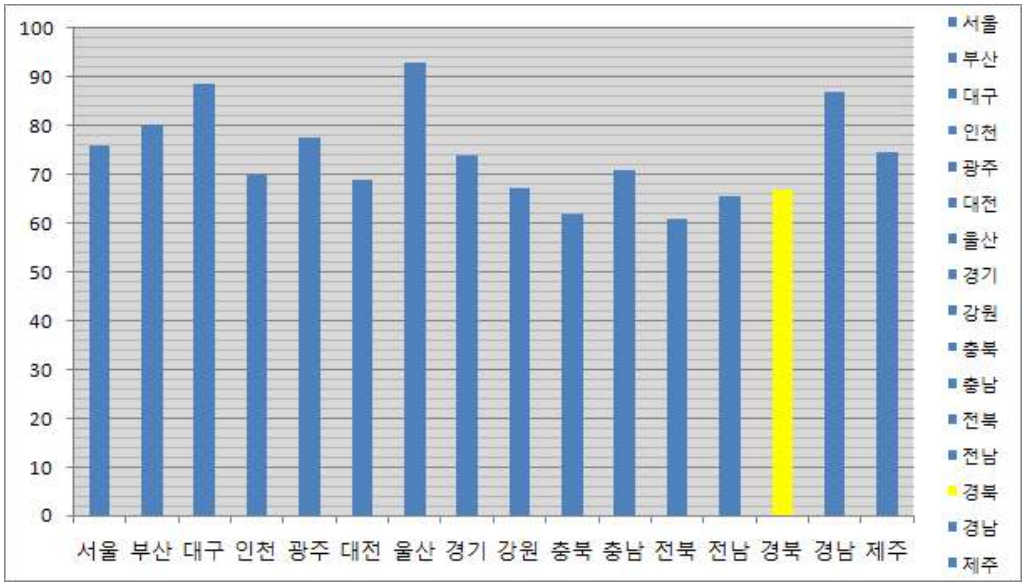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경 북	**380**	**354**	**420**	**429.4**	**433.7**	**438.1**	**427**	**436**	**446**
시 급	**377.3**	**348.1**	**392.9**	**426.6**	**429**	**440.5**	**428**	**442.2**	**455.1**
포항시	346	357	504.7	504.8	513.2	506.3	485	484	482
경주시	385	340	483	513.8	536.7	550	516	522	527
김천시	522	417	397.9	454.	440.6	443	354	424	407
안동시	317	305	308.4	301.6	295.6	286.6	305	378	321
구미시	585	444	448	376.5	366.1	361.5	363	352	382
영주시	282	260	397.3	411.1	404.1	395.1	424	429	461
영천시	405	399	403.2	400.1	417.4	546.9	518	491	559
상주시	248	309	335.5	367.2	365.4	360.3	369	390	430
문경시	294	299	253.2	538.1	551.7	551.3	532	528	547
경산시	389	351	397.8	398.7	399.1	403.6	417	424	435
군 급	**289.8**	**302.1**	**353.6**	**385.9**	**394.7**	**399.2**	**395**	**406.7**	**421.3**
군위군	325	314	391.4	350.8	379.1	396.6	436	415	473
의성군	236	269	367.1	530.8	517.3	470	510	487	480
청송군	251	252	424	393.1	371.9	411.9	395	443	451
영양군	256	284	356	347.1	431.4	450.6	420	420	427
영덕군	395	324	405.4	381.8	482.7	502.7	533	577	582
청도군	265	289	279.6	314.6	284.6	291.4	309	361	332
고령군	306	359	329.9	474.8	485.4	404.9	323	356	391
성주군	286	310	282.6	284.4	299.9	306.8	286	274	271
칠곡군	234	308	320.9	441.9	433.4	409.9	396	402	430
예천군	297	313	348.8	390.3	351.1	327.8	336	360	383
봉화군	277	251	285.7	368.6	361	325.8	337	344	387
울진군	340	318	445.9	435.9	427.8	589.6	570	565	581
울릉군	300	336	359.7	302.4	305	301.2	290	283	289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물수요관리

○ 경북의 물수요관리 성적 환경부 평가(2010)결과, 도부 중 1위차지

- 특히, 물수요관리 실적 중 급수량 저감, 유수율 제고, 누수율 저감 등의 세부사업 실적이 모두 저조하고, 급수 수단별 추진 실적 중 절수기 설치와 수도요금 현실화 실적은 높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 3-42〉 전국 광역시도 물수요관리 성과평가 결과

나. 하수도

하수관거 보급률은 정체 추세

○ 경북 하수관거 계획연장은 급속도로 증가한 반면 시설연장은 더디게 증가하여 관거보급률은 2010년 기준 72.4%내외에서 머물러 있음.

- 시·군별로는 시급의 경우 하수관거 보급률 최고지역은 구미시(88.7%)이고, 최저지역은 안동시(56.5%)이며, 군급의 경우 최고지역은 청송군(93.0%)이며, 최저지역은 울릉군(32.1%)으로 나타남.

〈표 3-103〉 경북 하수관거 보급률 변화

구 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획연장(km)	6,662	9,363	10,935	10,554	11,445	12,869	13,428	14,110
시설연장(km)	3,224	5,048	6,706	7,021	7,697	8,640	9,296	10,210
관거보급률(%)	48.4	53.9	61.3	66.5	67.3	67.1	69.2	72.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공공하수처리 보급률

○ 경북의 공공하수처리는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보급률은 2010년 기준 72.3%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

〈표 3-104〉 경북 공공하수처리 보급률 변화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인구(명)	2,813,551	2,711,900	2,718,298	2,715,085	2,709,662	2,705,226	2,726,815
처리인구(명)	1,316,503	1,646,123	1,717,964	1,867,978	1,892,658	1,946,406	1,970,721
보급률(%)	46.8	60.7	63.2	68.8	69.8	71.9	72.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시급과 군급의 공공하수처리 보급률은 지속적 증가 추세에 있음.

- 2010년 현재 시급의 최고지역은 구미시(94.2%), 최저지역은 영천시(61.9%)로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보조를 맞추어 하수처리시설 신설 필요

- 2010년 현재 군급의 최고지역은 영덕군(68.3%), 최저지역은 울릉군(1.4%)으로 지역별 격차가 매우 크며, 4대강 사업과 함께 국비지원 강화로 공공하수처리 보급률은 증가 할 것으로 예상

고도처리 보급률

○ 경북 고도처리는 2000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고도처리는 2005년부터 시행되었고, 2010년 현재 고도처리 보급률은 58.1% 수준임.

- 시·군별로는 시급의 경우 최고지역은 구미시(93.2%), 최저지역은 영천시(0%)이며, 군급인 경우 최고지역은 칠곡군(65%), 최저지역은 영양군(0%) 등 다수 존재

〈표 3-105〉 경북 고도처리 보급률 변천

구 분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총인구(명)	2,813,551	2,711,900	2,718,298	2,715,085	2,709,662	2,705,226	2,726,815
처리인구(명)	188,322	746,818	804,508	1,308,519	1,476,638	1,565,630	1,585,359
보급률(%)	6.7	27.5	29.6	48.2	54.5	57.8	64.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하수처리장 높은 불명수 유입율로 효율 저하와 운영비 상승

○ 상수관거 누수와 하수관거 정비 미비로 유입수와 침입수 등 불명수가 과다하게 유입되어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효율이 크게 저

하되고 운영비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함.

○ 경북 하수처리장의 불명수 유입량은 타 지역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조속한 현황 조사와 그 결과에 따른 관거정비계획 수립 필요함.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상수도

안정적 취수원 개발과 관리에 대한 분쟁의 심화

○ 상류에서의 수질오염사고로부터 자유로운 안정적 취수를 위해 취수원을 이전하려는 지자체간 갈등 심화

- 경북의 지자체와 수리권 분쟁의 우려가 높고 기존 취수 구간의 하천관리 기능이 약화되고, 대구지역과 동일하게 맑은 물을 갈구하는 하류지역의 반발이 우려

광역상수도 확장 요구 증대

○ 매년 반복되는 극심한 가뭄으로 경북내륙(의성 등)과 동해안(경주, 포항, 영덕, 울진 등) 일부지역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지역산업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상수도 도입 필요

○ 경영이 어려운 대부분의 경북 시·군지역 지방상수도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권역별 광역상수도의 도입이 필요한 실정

- 현재 경북지역은 북부권을 중심으로 광역상수도 사업 추진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

맑은 물 생산 및 공급에 대한 요구 증대

○ 건강에 대한 인식 변화로 맑은 물 생산 및 공급 요구가 증대

- 도시화·산업화에 따라 주요 취수원이 서서히 오염되기 시작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에 보이지 않는 위해를 주고 있음.

- 페놀, 1-4다이옥산 등의 수질오염사고 발생으로 고도정수처리 강화 시작

- 새로운 유해물질사고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대응방식 고수

- 고도정수처리 도입은 급격한 수돗물 생산비용 상승 초래

○ 지방상수도보다 규모가 작은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상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관리대상지역이 광범위하고 관리인원 부족으로 취수원 오염이나 정수시설 부실화 우려가 높아 상수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일부 시·군의 경우 전문기관에 유지관리 위탁 운영

물수요 관리의 강화

○ 맑은 물 공급의 한계에 대비하고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유수율 제고, 누수율 저감, 노후수도관 교체, 절수기 설치, 수도요금 현실화, 중수도 설치 등 물수요 관리사업 활발히 추진 중

○ 1단계 물수요 관리추진 현황 평가결과 급수량 저감, 유수율 제고, 누수율 저감 등의 물수요 관리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절수수단 중 절수기기 설치, 수도요금 현실화, 중수도 설치, 하폐수 재이용 등의 실적 저조

○ 1단계 물수요 관리 계획기간(2005~2011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2단계 물수요 관리계획(2012~2016년) 수립

나. 하수도

하수배제 선진화를 위한 수세화율 증대

○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재래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량함에 따라 수세화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라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단계적으로 폐쇄 추세

○ 단독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분뇨직투입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분뇨 및 정화조폐액 수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체계적 관거정비로 소하천 복원사업 전개

○ 합류식 하수관거 역할을 하던 도심 소하천을 복원하기 위해 합류식 지역의 경우 하수처리장까지 차집관거를 부설하고 분류식 지역의 경우 오수관거 추가 연장 시행 중

- 관거정비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민원과 기술적 문제 등으로 장기간 소요되어 중장기 마스트플랜을 수립하여 추진 필요

○ 소하천의 복원사업으로 금호강, 낙동강 등 1차 본류의 수질이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갈수기와 우기의 수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음.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물질의 확대 · 강화

○ 상류지역의 개발과 하류지역의 생존권 보호(식수이용 등)를 위한 공존을 위해 4대강 특별법(2000년)이 제정되고, 이법에 따라 수계기금제도와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등 다양한 유역관리제도 시행 중

○ 1단계 총량관리기간(2004~2010년)에 BOD만을 총량관리대상물질로 하였으나, 2단계(2011~2015)에는 BOD와 총인(T-P), 3단계에는 2단계 대상물질에다 TOC 등 지속적으로 관리대상 확대 예정

방류수질의 지속적 강화로 취수원 안전성 확보

○ 하류지역에서 안심하고 수돗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수생태 복원을 고려하여 하천의 총량관리 목표수질을 관리하는 추세로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방류수질은 지속적으로 강화 추세

-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보의 설치에 의한 갈수기 수질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인(Phosphorus) 등 부영양화 물질까지 처리하는 초고도처리사업 추진 중

소규모 하수처리구역 통합관리 추진

○ 마을하수도, 간이오수처리시설 등은 처리유량과 수질의 변동이 매우 커서 운전이 까다롭고 경제적 운영이 어려우므로 국내의 앞선 IT기술을 접목하여 유역별 통합운영 및 관리를 추진하는 추세

○ 소규모 하수처리 적용공법이 매우 다양하여 통합운영관리가 어려운 사례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중

3. 계획 방향

가. 목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관리 선진지역

○ 지속가능한 물관리 통합환경 조성

○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추진

○ 하수처리시설 최적화 및 차세대 하수도시스템 구축

나. 추진방향

물공급 통합관리 체계화

○ 물관리 통합관리의 효율적인 실현을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툴(Tool)과 이를 연계한 시스템의 체계 안에서 서로 연동하고 통합되어 운영되며 최대 효율을 창출할 수 있도록 관리

○ 지방상수도의 통합 관리시 취수원과 취수시설의 합리적 공동이용, 상수도시설의 집중적 투자 및 물수요관리사업의 강화가 가능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기반 조성

○ 기후특성상 하상계수가 높아 갈수기시 물공급이 어려워 주민불안 증가 및 산업체 생산성 저하 초래

○ 지표수에 한정된 취수원 일원화 정책이 강변 여과수, 인공함양, 지하수, 해수 담수화 등 다변화 전략 추진

기후변화 대응 청정 하수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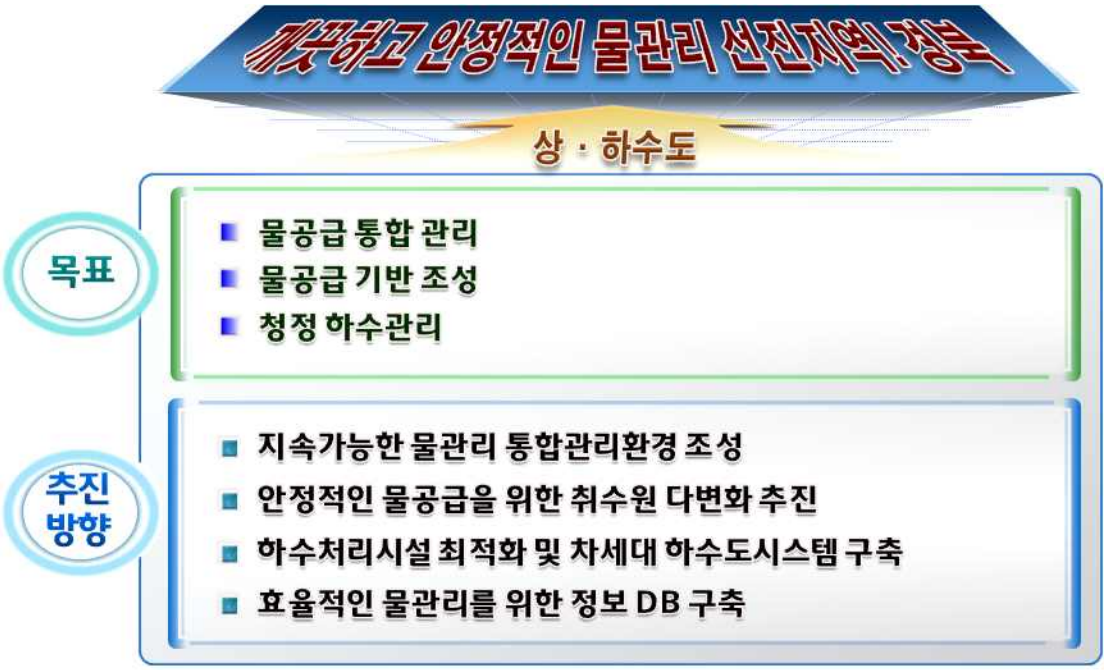
○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하수, 분뇨, 폐수 등의 저에너지 운송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여도가 높은 하수처리장에서 각종 탄소저감사업의 전개

○ 오염원물질 강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보급 등 하수처리시설 최적화 추진

○ 에너지 자립형 하수도시스템 구축 및 하수도 정보화, 유지관리 선진화 추진

효율적인 물관리 정보 DB 구축

○ 환경기술, 정보통신기술, 지리정보기술 등의 첨단기술을 집약하여 지역 내에서 발생되는 여러 물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 정보화, 검색 및 공유하므로써 능동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물환경 관리시스템 구축



〈그림 3-43〉 상·하수도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물공급 통합관리 체계화

경북 지방상수도 통합

○ 시·군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열악한 상수도 분야의 구조개선을 위해 지방상수도 통합사업 추진

○ 관망 신설 및 정비, 노후 정수시시설 개량 및 자동화 설비 도입,

통합서비스센터(TSC ; Total Service Center) 및 지역서비스센터(LSC ; Local Service Center) 운영

○ 지역민에게 안전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및 관망 정비, 전산화를 통하여 유수율 제고

경북 물관리시스템 구축

○ 물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전산화하여 보관하고 이를 정보공유 시스템에서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함으로써 물환경 개선에 보다 민간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첨단기술 집약적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기반 마련

나.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 기반 조성

선진국형 취수원 다변화

○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해 강변여과수, 인공습지 등 간접 취수방식의 비상취수 시스템을 대체 취수원으로 개발

○ 안정적인 상수원수 확보를 위해 전문 상수댐이 필요

명품 수돗물 공급

○ 상수 관망 역세 강화, 주기적 청소 시행, 상수관망 오염물 유입관리 강화 추진

○ 직결급수 확대, 영세 수용가내 옥내수도관 개선, 상수도 고도정수처리 강화를 도모

상수도 경영 효율화

○ 물값 현실화 및 물수요관리 강화 추진을 통한 투명 경영 기반 조성

○ 노후정수장 리모델링 및 상수관망 최적관리 도입 등 항시 안정된 물공급과 단수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

다. 기후변화 대응 청정 하수관리

농어촌 하수도보급 확대

○ 도농간의 하수도 보급 격차의 심화로 주민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양질의 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하수도 보급 사업 추진

○ 중앙정부의 전국 하수도보급률 92%까지 확대 하수도정책 추진과 더불어 국고 지원정책 추진에 따라 경북도 하수도보급 확대에 연계 도모

유역단위 하수도정비 관리체제 도입

○ 하수도 시설의 행정단위 설치·관리에 따른 중복 투자 및 재정낭비 방지를 위한 광역단위 하수도관리·정비 관리체계 구축

○ 4대강 사업과 연계한 유역관리체제 구축

○ 낙동강 보중심의 수환경 변화에 따른 하수처리수 개선 대책 마련

하수도정비 특별관리구역 지정 도입

○ 집중강우시에 하수도시설의 용량 초과 등으로 인한 침수가 빈발함에 따라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 하수도 정비 강화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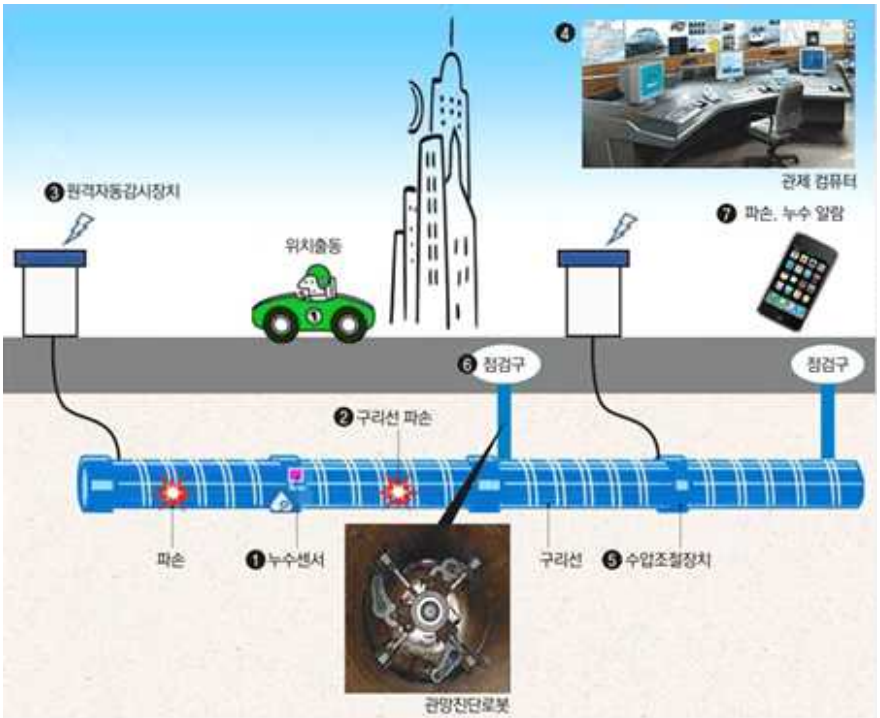
○ 하수도 기능 약화로 인한 도시침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계획구역을 적용

라. 효율적인 물관리 DB 구축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 구축

○ 누수율이 높은 지역의 수도관 중간에 유량, 수질, 유수율(물 공급량과 수도 요금의 비율) 등을 관측하는 센서를 설치하고 수도관의 정보를 실시간 관리

○ 안정적 물공급이 우선시 되는 주거 밀집단지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실증지구를 조성하여 시범 운영



〈그림 3-44〉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시스템 모식도

하수처리 선진화 시스템 구축

○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관리를 위한 원격감시체계(TMS) 구축을 통하여 실시간 오염물질 DB관리 시스템 도입

○ 수처리 전과정에 대한 DB화로 안정적 방류수질 관리 및 각종 수질사고 사전예방

- 모든 기록을 관리자의 설정에 의해 분류된 DB별로 등록, 검색, 삭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구성

- 서로 다른 하수처리시설과의 자료연계 및 업무인수 인계, 처리시설의 공통 정보를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

제3절 보건·의료

1. 현황 및 문제점

가. 지역 건강수준

연령표준화 사망률 감소 추세

○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전국, 경북 모두 감소하는 추세

- 높은 노인인구 비율로 인해 전국 평균 상회

〈표 3-106〉 주요 사인별 표준화 사망률

(단위 : 명/인구 10만명당)

질병명	지역별	1997년	2000년	2003년	2006년	2008년
악성신생물 (암)	전국	140.1	142.1	138.9	132.0	129.1
	경북	156.3	153.7	150.3	137.0	134.3
뇌혈관질환	전국	97.8	90.0	82.7	58.5	50.7
	경북	122.3	101.9	86.7	59.1	52.5
심장질환	전국	46.6	47.3	39.7	39.3	39.1
	경북	53.9	50.0	38.3	40.1	43.5
고의적 자해(자살)	전국	14.2	14.9	23.6	21.5	25.1
	경북	16.3	23.0	29.5	25.1	27.2
운수사고	전국	36.2	27.4	19.9	15.7	14.1
	경북	57.2	44.1	35.0	24.9	23.3
모든 간질환	전국	32.2	26.6	22.0	15.2	13.5
	경북	46.4	34.3	29.8	20.5	19.0
당뇨병	전국	24.7	27.5	27.3	22.8	18.7
	경북	24.4	26.7	29.5	22.4	18.5
만성하기도 질환	전국	18.5	20.9	21.0	13.6	13.2
	경북	22.3	26.8	25.8	15.3	16.7

자료 : 경상북도,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

○ 주요 사인별 사망률을 검토한 결과, 심장질환과 폐렴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면서 상승 추세

○ 전국에 비해 높지만 감소 추세를 보이는 질환은 암, 뇌혈관 질환, 운수사고, 간질환, 고의적 자해, 만성하기도 질환 등임.

○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요인 해결 및 예방 필요

건강상태와 행태 양호

○ 경북 흡연율 27.1%로 전국 수준(27.3%)과 유사

- 남성흡연자 비중(51.5%)은 높고, 여성흡연자(3.2%)는 낮은 편

○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률(23.7%)은 높은 편으로 나타남.

〈표 3-107〉 흡연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현재 흡연율[1]	계	27.3	27.1	-	27.1
	남	47.7	51.5	-	51.3
	여	7.3	3.2	-	-
평생흡연율[2]		44.5	37.9	-	-
처음흡연 경험연령[3]		20.1	22.1	-	-
가정내 간접흡연 노출률[4]		15.3	23.7	-	-

주 : 1) 현재흡연율 : 평생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웠고 현재 담배를 피우는 분율, 만19세이상
2) 평생흡연율 : 평생 살아오면서 담배 5갑(100개비)이상 피운 분율,전체, 만19세이상
3) 흡연시작연령 : 처음으로 담배 한대를 다 피운 평균 만 나이, 만19세이상
4) 가정 내 간접흡연 노출율 : 가정 내 다른 사람이 피우는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경험률 (노출률 : 조사대상자 수 /1시간미만 또는 1시간 이상×100)

자료 : 경상북도,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건강조사」, 2008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 및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2009

○ 경북의 월간음주율은 54.8%로 전국 대비 양호하였으나 전년 53.0%보다 1.8%p 높아짐.

〈표 3-108〉 음주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월간음주율[1]	58.7	53.0	-	54.8
고위험음주율[2]	20.2	17.3	-	15.9
문제음주율[3]	24.0	-	-	-
알콜의존율 I [4]	7.2	-	-	-
알콜의존율 II[5]	7.6	-	-	-

주 : 1) 월간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한달에 1회 이상 음주한 사람의 분율(%)
2) 고위험음주율 : 최근 1년 동안 음주한 사람에서 남자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7잔 이상을 마시는 횟수, 여자는 한번의 술자리에서 5잔 이상을 주 2회 이상 마신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3) 문제음주율: 알코올 의존정도(AUDIT)10문항에서 총점 8-15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율(%)
4) 알콜의존율 I : AUDIT 10문항에서 총점 16-19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율(%)
5) 알콜의존율 II : AUDIT 10문항에서 총점 20점 이상점에 해당하는 사람의 분율(%)

자료 : 경상북도,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건강조사」, 2008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 및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2009

○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21.4%로 전년 대비 크게 증가(13.3%p)하였으나, 걷기 실천율은 39.2%로 전년 대비 20.1%p 감소

〈표 3-109〉 운동 및 신체활동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1]	25.9	8.1	-	21.4
걷기 실천율[2]	46.9	59.3	-	39.2
지역사회내 운동시설 접근율[3]	-	77	-	-
지역사회내 운동프로그램참여율[4]	-	3.0	-	-

주 : 1)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격렬한 신체활동을 1회 20분 이상 주 3일이상 실천한 사람 또는 최근 1주일 동안 중등도 신체활동을 1회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2) 걷기실천율 : 최근 1주일 동안 1회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사람의 분율(%)
3) 지역사회내 운동시설 접근율 :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매우 쉬웠다" 또는 쉬웠다") 응답한 사람의 수 분율(%)
4) 지역사회내 운동프로그램 참여율 :최근 1년 동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 보건소, 구청, 시청 등의 지방자치단체 운동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분율(%)
자료 : 경상북도,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건강조사」, 2008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 및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2009

○ 비만율은 21.9%로 전국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자기기입 산출 특성상 실제보다 낮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음.

- 비만에 대한 인지율을 높이고 체중조절 시도율 향상에 관한 전략 필요

〈표 3-110〉 비만 및 체중조절 현황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비만율(자기기입)[1]	-	21.4	-	21.9
비만율(직접측정)	30.7	-	-	-
주관적 비만인지율[2]	41.8	29.9	-	34.2
체중조절 시도율[3]	56.4	36.8	-	42.3

주 : 1) 비만율(자기기입) : BMI(체중(kg)/신장2(m2) 25인 사람의 분율(%)로 자기기입 방식으로 조사
2) 주관적 비만인지율 : 주관적으로 "약간 비만" 또는 "매우 비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분율(%)
3) 체중조절시도율: 최근 1년 동안 체중을 "줄이거나" 또는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의 분율(%)
자료 :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건강조사」, 2008
**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 및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2009

○ 스트레스 인지율, 우울감 경험률, 자살생각률은 전국 평균 하회하나 최근의 전반적인 상승세에 부합하는 대책 필요

- 특히 만60세 이상의 여성 독거노인의 우울증 발병률 높은 편

〈표 3-111〉 정신건강 현황(만 19세 이상)

(단위 : %)

구 분		2008년		2009년	
		전국*	경북**	전국*	경북**
스트레스 인지율[1]	계	29.1	27.4	-	25.5
	남	26.8	26.7	-	-
	여	31.3	27.5	-	-
우울감 경험률[2]	계	14.3	8.8	-	7.1
	남	10.1	5.9	-	-
	여	18.3	11.6	-	-
자살생각률[3]	계	17.1	8.4	-	9.1
	남	11.4	6.0	-	-
	여	20.3	10.8	-	-

주 : 1)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느끼는 사람의 분율(%)
2) 최근 1년 동안 연속적으로 2주(14일)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슬픔, 절망감)을 경험한 사람의 분율(%)
3) 최근 1년 동안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의 분율(%)

자료 : 경상북도, 「제5기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0
* 보건복지부, 「국민영양건강조사」, 2008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 2008 및 경상북도, 「경북 지역사회건강조사」,2009

나. 보건시설

보건인프라는 대체로 양호

○ 2010년 기준 보건소 25개소(보건의료원 3개소 포함), 보건지소 219개소, 보건진료소 313개소 등 총 557개소의 보건기관이 설치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112〉 경북 보건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경 북		557	25	219	313
	시부	297	12	119	166
	군부	260	13	100	147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보건인력 확보 수준 양호

○ 보건소에 배치된 인력은 의사 106명, 치과의사 33명, 한의사 41명, 약사 3명 등 총 186명임.

○ 보건지소에는 의사 221명, 치과의사 99명, 한의사 59명이 배치되어 총 382명이 종사하고 있음.

〈표 3-113〉 경북 보건소·보건지소 전문 인력 현황

(단위 : 명)

총 계	보 건 소				보 건 지 소		
	의 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 사	의 사	치과 의사	한의사
561	106	33	41	3	224	66	88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보건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전체 인력은 2,285명(보건소 1,129명, 보건지소 851명, 보건진료소 305명)임.

〈표 3-114〉 경북 시 지역 보건기관 인력 현황

(단위 : 명)

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285	1,129	851	30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다. 의료시설

시 지역에 의료기관 집중 분포

○ 경상북도에 등록된 병원은 총 2,436개소로 전년 대비 2.0% 증가

- 의원이 1,165개소로 가장 많았고 한의원(559개소), 치과 병·의원(520개소), 요양병원(76개소) 순

○ 시·군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 시지역에 2,021개소가 분포하고 있어 전체의 83.0%가 집중되어 있으며, 군지역에는 415개소(17.0%)가 분포하고 있음.

- 치과의원은 시지역에 442개소(85.0%), 군지역에 78개소(15.0%)가 있으며, 한방병·의원은 전체 566개소 중 시지역에 462개소(81.6%), 군지역에 104개소(18.4%)가 분포

○ 시 지역 중 종합병원이 없는 시는 영주시뿐이며, 군지역에는 종합병원이 전무함.

- 특히 치과병·의원은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 부족, 군위군, 영양군, 울릉군 등이 각 3개원 미만으로 분포

○ 병상수는 경북 전체 33,349개가 있으며, 이 중 시지역에 27,117개(81.3%), 군지역에 6,232개(18.7%)가 있음.

〈표 3-115〉 의료기관 현황

(단위 : 개소, 개, %)

구분	합계		종합병원		병원		의원		특수병원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경북	2,436	33,349	18	7,004	71	11,939	1,165	3,390	4	1,169
시부	2,021	27,117	18	7,004	48	8,335	979	2,822	2	801
경북 대비	(83.0)	(81.3)	(100.0)	(100.0)	(67.6)	(69.8)	(84.0)	(83.2)	(50.0)	(68.5)
군부	415	6,232	-	-	23	3,604	186	568	2	368
경북 대비	(17.0)	(18.7)	(0.0)	(0.0)	(32.4)	(30.2)	(16.0)	(16.8)	(50.0)	(31.5)
구분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한방병원		한의원		부속의원	
	병원	병상	병원		병원	병상	병원	병상	병원	병상
경북	76	9,331	520		7	321	559	-	16	195
시부	58	7,739	442		7	321	455	-	12	95
경북 대비	(76.3)	(82.9)	(85.0)		(100.0)	(100.0)	(81.4)	-	(75.0)	(48.7)
군부	18	1,592	78		-	-	104	-	4	100
경북 대비	(23.7)	(17.1)	(15.0)		(0.0)	(0.0)	(18.6)	-	(25.0)	(51.3)

주 : ( )안은 구성비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의료인 수 역시 시지역 편중 분포

○ 경북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은 상근의사 2,842명, 한의사 692명, 치과의사 647명, 간호사 5,521명, 간호조무사 5,521명 등 총 18,682명으로 집계됨.

○ 경북 의료인의 86.7%(16,200명)가 시지역에, 13.3%(2,482명)가 군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심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음.

〈표 3-116〉 의료인 현황

(단위 : 명, %)

구분	합계	상근 의사	비상근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조산사	간호사	간호 조무사	의료 기사	의무 기록사
경북	18,682	2,842	11	647	692	373	24	5,158	5,521	3,272	142
시부	16,200	2,473	11	561	574	344	24	4,693	4,568	2,823	129
경북 대비	(86.7)	(87.0)	(100.0)	(86.7)	(82.9)	(92.2)	(100.0)	(91.0)	(82.7)	(86.3)	(90.8)
군부	2,482	369	-	86	118	29	-	465	953	449	13
경북 대비	(13.3)	(13.0)	(0.0)	(13.3)	(17.1)	(7.8)	(0.0)	(9.0)	(17.3)	(13.7)	(9.2)

주 : ( )안은 구성비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2. 여건변화와 전망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 부각

○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보건·의료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

○ 보건의료 수요 증가로 사회적 비용 경감과 예방적 보건의료사업의 중요성 증대

보건의료와 복지의 융·복합화

○ 보건의료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포괄적 개념에 의한 의료 영역 확대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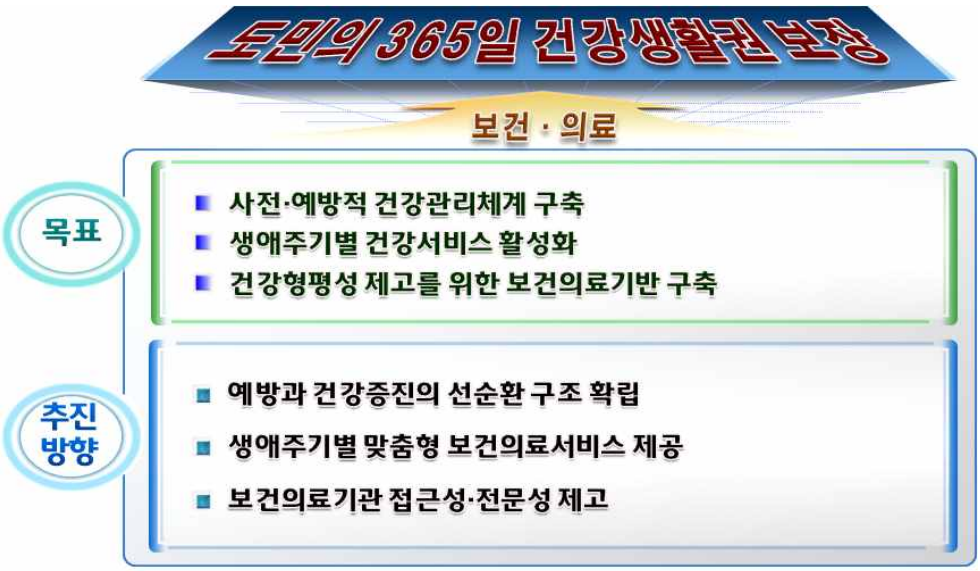
- 원격의료시스템, 재택의료 등 보건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시스템 개발

○ 맞춤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시대에 부응하여 보건의료 · 복지의 융복합화 전개

- 표준화·간헐적 서비스 → 맞춤형·지속적 서비스로 이동

3. 계획 방향

가. 목표



〈그림 3-45〉 보건·의료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도민의 365일 건강생활권 보장

○ 보건의료사업 확대를 통한 건강지원체계 구축으로 365일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 창출

○ 이를 위한 기본 목표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서비스 활성화,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기반 구축 등으로 설정함.

나. 추진 방향

예방과 건강증진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주요 질병에 대해 건강검진사업의 수준을 제고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질병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 제공을 일상화

○ 지역 관련 기관과 연계 가능한 자원 발굴을 통해 예방적 프로그램 다양화와 활성화 추진

- 사업·프로그램의 대상과 동원 가능한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 권역, 도 단위 협력지원망 구축

○ 일상생활 속 예방, 조기발견, 치료의 선순환 구조를 지지하는 건강증진센터 및 건강상담실을 확충하고 건강검진, 생활체조교실, 보건교육 등의 건강증진사업 확대

○ 도민의 건강의식 수준 향상을 위한 영양, 식습관, 운동, 금연, 절주, 비만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정과 사업 추진으로 자발적인 건강생활실천력 제고

○ 비흡연자 보호, 절주 문화 확산 등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도민의 성장, 발달, 노화 수준에 기반한 생애주기별 수요 특성을 반영하여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개편

- 도민의 생애주기별(임신기, 수유기, 영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노인기) 보건의료서비스 설계

○ 서비스 제공여건을 고려하여 선별적 접근과 보편적 접근을 단계별로 추진

- 1단계 : 생애주기별 중점 관리 대상과 질환을 선정하고 접근 방법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2단계 : 생애주기별 관리 대상 및 질환을 확대하여 보편적 서비스 수급권 확보

○ 생애주기별 대상자의 정보습득력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 정보제공체계 구축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전문성 제고

○ 시설 및 전문인력의 구성과 충분성에 기준하여 의료서비스를 수준별로 계층화(고차적 의료서비스기능, 1차적 의료서비스기능)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의료시설을 확충·정비

○ 농어촌 과소지역은 원격의료시스템, 긴급 구조구난체제의 구축을 통해 의료수혜의 지역간 격차 해소

○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의 보건소를 농어촌지역의 1차적인 의료기능 및 기초건강관리센터, 지역의료정보거점 등으로 활용

4. 추진계획

가. 예방과 건강증진의 선순환 구조 확립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 질병 발생 후 사후 치료적 접근이 이루어졌던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

- 심뇌혈관질환, 암, 전염병, 구강질환, 정신질환 등 주요 질환에 대한 예방관리체계 구축

○ 보편적 대상 접근과 예방과 치료를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 제공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암 조기검진과 재가 암 환자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통해 암 완치율 제고와 사망률 저하

○ 주요 전염병 예방접종률 제고, 예방접종 대상·항목 확대, 전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산 등으로 전염병의 체계적인 예방과 치료 대안 마련

○ 정신·행동적 문제에 대한 홍보와 교육 확대로 관련 질환의 예방과 편견 해소

○ 정신·행동적인 문제를 치료체계적으로 접근하는 정신건강관리 인프라와 인력 배치

〈표 3-117〉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 개요

구분	주요 내용
심뇌혈관 질환	• 고혈압·당뇨병 등 주요 질환 예방 프로그램 개발 •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암	• 국가 암 조기검진 사업 추진 • 재가 암 환자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전염병	• 전염병 예방 접종사업 확대 및 접종률 제고 • 전염병 정보 제공 및 예방 홍보사업 추진
구강질환	• 구강실태조사 실시 • 구강검진사업 확대 • 구강의료서비스 제공 범위 확대 및 수준 제고
정신질환	• 정신질환 이해 및 예방교육 실시 • 아동·청소년 치료체계적 접근 강화 • 정신건강 관리체계 구축(환자 조기발견-치료-재활 및 사회복귀서비스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

○ 생애주기별 생활 습관과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주도적 건강생활 실천율 제고

- 다시 걷기 운동 사업, 비만 퇴치 운동, 절주 홍보대사 사업 등 추진

○ 직장, 학교, 도서관, 기타 관공서 등 접근성이 우수한 기관 및 장소를 활용하여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개선을 주제로 하는 보건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 주민 스스로 영양, 식습관, 운동, 절주, 비만 등을 관리하는 건강행태 개선 능력 배양

○ 금연교육·홍보, 금연클리닉 확대로 흡연자를 줄이고, 비흡연자 보호 환경 조성으로 간접흡연 폐해 예방

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 강화

○ 건강 위협요인에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방문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 욕구, 생활환경, 동원 가능한 자원 등을 진단 → 진단 결과에 기초한 전문적인 개입을 통해 보건·의료·복지 통합·연계서비스 제공

○ 생애주기별 위험질환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 설계

- 치료 효과와 서비스 기능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제공 인력, 장비 및 기기의 전문성 강화

- 정서·행동적 문제, 암, 임신 및 출산, 치매 등 해당 문제와 질환에 특성화된 수준 높은 서비스 구성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대상층별 맞춤형 보건의료사업 확대로 서비스 질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일반,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등 대상층별 보건서비스 사업 전문화 및 확대 실시

- 일 반 인 : 만성질환관리, 암·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 영양플러스 사업 강화

- 노 인 : 소방기관과 연계한 독거노인 안심서비스망 연계 구축 및 사업 활성화, 수요자 맞춤형 방문서비스 패키지 프로그램(보건-의료-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운영, 노인성 질환 집중 관리 프로그램(치매 예방 및 관리, 관절염 관리 등) 강화

- 장 애 인 : 정기적인 건강 검진 회수 및 내용, 각종 질병 치료비 지원,

재활보조기구 및 의료기기 구입·수리비 지원 등을 확대

- 아동·청소년 : 흡연 예방 및 금연, 균형 있는 영양 섭취, 건전한 성인식과 태도 확립을 위한 교육사업 강화, 비취학 청소년의 건강진단사업 추진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아동구강보건프로그램 확대 실시

- 여　　성 : 출산가정 건강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산부인과,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각종 교육 및 클리닉 등을 확대

다.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시설 확충 및 현대화

○ 대체로 양호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나 시 단위 지역과 군 단위 지역간 편차 여전

○ 지역 인구 구조와 의료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보건의료시설과 장비 확충계획 수립

- 시설 규모 및 장비, 접근성 등이 열악한 보건의료시설 파악

- 지속적인 확충·개선·정비사업 추진으로 보건·의료 인프라의 양적·질적 정체 극복

- 보건·의료 인프라 취약지역 우선 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재원 우선 배분, 인센티브 제공 등

전문 기능성 제고

○ 응급의료 이용접근성 향상을 위해 응급의료센터와 자동제세동기 설치 확대

- 응급의료기관 법적기준 충족률 제고 : 2010년 현재 35% → 2014년 55% → 2020년 70%

- 자동제세동기 설치율 제고 : 2010년 현재 38.4% → 2014년 80% → 2020년 100%

○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료서비스 체계를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수급권 부여

-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확대를 위한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과 전문 보

건의료서비스 사업 추진(포항의료원,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울진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 최근 심화되고 있는 정신장애, 저출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전문 인프라 확충

- 정신건강증진센터, 임신·출산지원센터 등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 지역 특성을 고려한 원격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 시스템 구축 과정을 단계별로 설계하여 추진

- 1단계 : 건강검진센터 방사선실에 의료영상 저장·전송시스템(PACS) 도입, 전문방사선판독사업자를 선정하고 결핵정보감시체계 및 결핵균검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통합시스템 구축

- 2단계 : 방문보건 대상자와 보건의료기관 내방자 등 만성질환 위험자를 대상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모니터링 및 원격영상진료 실시

- 3단계 : 건강증진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시설(체육시설,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을 연계하여 전 주민건강관리시스템 구축

제4절 사회복지

1. 현황 및 문제점

가. 저소득인구와 관련 시설

저소득인구는 도민의 4.5%

○ 경북도내 저소득 가구는 2010년 현재 72,451세대 122,743명

- 일반수급자는 71,016세대 113,476명, 시설수급자는 7,049명, 특례수급자는 1,435세대 2,218명

○ 전년 대비 일반수급자 가구는 658가구 감소

- 시설수급자 및 특례수급자는 증가

〈표 3-118〉 경북 저소득인구 현황

(단위: 가구, 명)

연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특례수급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가구	인원
2010년	72,451	122,743	71,016	113,476	7,049	1,435	2,218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자활사업 참여자는 저소득인구의 3.5%에 불과

○ 자활사업 참여자는 2010년 9월말 기준 4,388명으로 저소득인구의 3.5%에 불과

- 수급자 2,738명, 그 외 1,650명

○ 포항시가 95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산시(356명), 문경시(276명), 김천시(256명), 안동시(254명), 경주시(234명), 구미시(231명) 순으로 다수 참여

〈표 3-119〉 경북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단위: 명)

계	수급자				수급자 외		
	소계	조건부	일반	자활특례	소계	차상위	기타
4,388	2,738	2,302	96	340	1,650	1,265	385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0

저소득층 시설 및 서비스 접근성 취약

○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은 시·군 및 읍면동 행정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서 담당

○ 저소득층을 위한 시설 또한 대다수 시 지역에서 설치·운영 중

- 종합사회복지관은 대다수(칠곡군 제외)가 시 지역에 분포
- 지역자활센터는 23개 시·군 중 포항이 2개소, 나머지 18개 시·군에는 각 1개소가 있으며, 의성군과 청송군, 영양군, 울릉군의 경우는 지역자활센터 미설치
-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된 푸드뱅크는 총 19개소로 이 중 5개소는 군지역, 나머지는 시 지역에 분포

〈표 3-120〉 경북 저소득층관련 복지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종합사회복지관	지역자활센터	푸드뱅크	푸드마켓
시설 수	15	20	광역 1 기초 19	4

○ 특히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울릉군의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인프라 취약

나. 노인인구 및 노인복지시설

노인인구비율, 초고령사회 진입 임박

○ 2010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18천명으로 전체 인구 2,727천명의 15.4%를 차지하는 것으로 고령사회에 해당됨.

○ 경북 시지역 노인인구 비율은 13.2%이며, 군지역 노인인구비율은 23.6%로 시지역보다 10.4%p 높음.

○ 의성군(31.5%), 군위군(31.3%), 영양군(30.2%)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예천군(29.4%), 봉화군(28.2%), 청송군(28.8%), 영덕군(28.7%), 청도군(27.7%) 등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임박

- 시 지역 보다 군 지역의 고령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군간 정책 및 서비스 편차 발생 우려

〈표 3-121〉 경북 노인 추이와 현황

(단위: 년, 명, %)

구 분	전 체 인 구	노 인 인 구	노 인 비 율
2005년	2,711,900	360,068	13.3
2006년	2,718,298	372,354	13.7
2007년	2,715,085	390,588	14.4
2008년	2,709,662	402,469	14.9
2009년	2,705,226	412,228	15.2
2010년	2,726,815	418,833	15.4
시 부	2,159,945	284,897	13.2
군 부	566,870	133,936	23.6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노인인구 1,000명 당 노인복지시설 18.4개

○ 경북도내 노인복지시설은 2005년 총 6,955개소에서 2010년 총 7,807개소로 852개소가 증가하였음.

- 특히 주거시설을 제외한 여가, 의료, 재가시설 등이 증가

〈표 3-122〉 경북 노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여가시설					주거시설	의료시설	재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및 휴양소			
			시설	이용인원					
2006년	6,955	6,891	7	6,740	6,808	76	-	-	64
2007년	6,901	6,822	8	6,612	6,733	81	-	-	79
2008년	7,289	7,022	10	24,868	6,922	90	20	127	120
2009년	7,571	7,223	10	28,852	7,113	100	20	181	47
2010년	7,807	7,372	13	31,991	7,254	105	25	262	148
노인 천명당	18.6	17.6	0.0	76.4	17.3	0.3	0.1	0.6	0.4
시부	4,757	4,465	6	26,348	4,392	67	14	182	96
노인 천명당	16.7	15.7	0.0	92.5	15.4	0.2	0.0	0.6	0.3
군부	3,050	2,907	7	5,643	2,862	38	11	80	52
노인 천명당	22.8	21.7	0.1	42.1	21.4	0.3	0.1	0.6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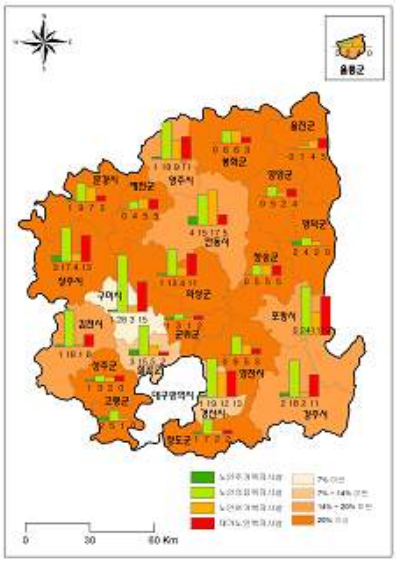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노인인구 1,000명 당 노인복지시설은 18.6개소가 분포하고 있는데, 시지역에 노인 1,000명 당 16.7개소, 군지역에 노인 1,000명당 22.8개소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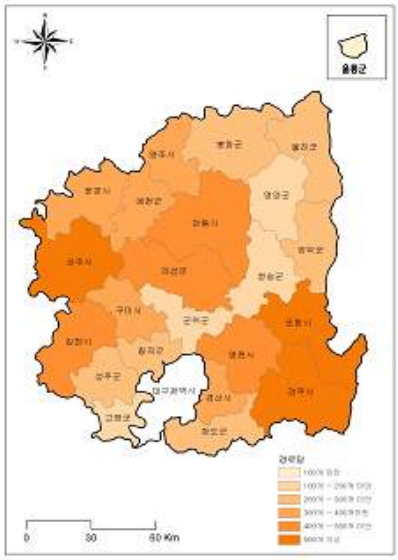
- 특히 여가시설 중 노인복지관은 시지역의 경우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문경시, 경산시에 각 1개소, 군지역의 경우 의성군에 3개소, 청도군, 칠곡군, 예천군, 울릉군에 각 1개소씩 분포

- 봉화, 울진, 영덕, 청송, 영양, 성주, 고령군의 경우 노인인구 비율에 대비 노인관련 복지시설은 취약



〈그림 3-46〉 시 · 군별 노인복지시설 현황



〈그림 3-47〉 시 · 군별 경로당 현황

다. 장애인인구 및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등록 장애인은 2010년 기준 총 170,396명으로 경북도 전체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6~2010년간 연평균 6.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장애출현율은 2005년 4.9%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0년 6.3%로 1.4%p 상승

○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 88,723명(52.1%), 청각 및 언어장애 19,994명(11.7%), 뇌병변 장애 17,657(10.4%), 시각장애 17,134명(10.1%) 등의 순으로 많은 편

- 장애급수별로는 6급 37,793명(22.2%), 5급 35,745명(21.0%), 3급 30,064명(17.6%) 등의 순으로 분포

〈표 3-123〉 경북 장애인 등록현황

(단위 : 명, %)

구분	전체	지체	뇌병변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	지적장애	기타
2006년	132,381	68,856	13,339	14,134	13,782	10,663	11,607
2007년	147,186	73,766	14,858	15,053	19,796	11,187	12,526
2008년	151,898	78,746	15,898	15,713	16,888	11,535	13,118
2009년	164,380	85,538	17,104	16,596	18,865	12,280	13,997
2010년	170,396	88,723	17,657	17,134	19,994	12,706	14,182
연평균 증가율	6.5	6.5	7.3	4.9	9.7	4.5	5.1
시부	124,360	64,334	12,935	12,438	14,572	9,438	10,643
군부	46,036	24,389	4,722	4,696	5,422	3,268	3,539
구분	전체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06년	132,381	13,032	25,306	23,438	18,145	24,143	28,317
2007년	143,009	13,751	25,888	25,287	20,085	27,141	30,857
2008년	151,898	14,003	25,821	27,265	22,050	29,858	32,901
2009년	164,380	14,312	26,444	29,489	25,105	33,579	35,451
2010년	170,396	13,877	25,899	30,064	27,018	35,745	37,793
연평균 증가율	6.5	6.1	0.6	0.4	10.5	10.3	7.5
시부	124,360	10,352	19,004	22,018	19,186	25,851	27,949
군부	46,036	3,525	6,895	8,046	7,832	9,894	9,84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지역 집중

○ 경북에 설치·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총 165개소

- 장애인 생활시설 54, 직업재활시설 25, 장애인복지관 12,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은 27, 심부름센터 24, 장애인특수학교 7,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12, 장애인체육관 3, 장애인재활병원 1 등

○ 장애인복지시설이 대부분 시부에 편중되어 있어 군 지역 장애인들의 각종 정보접근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있으므로 복지수요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지역별 균등 확충이 요망됨

- 포항시, 안동시, 경주시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대비 장애인이 많은 봉화, 영양군, 청송군의 경우 심부름센터만 설치되어 있고 다른 장애인 복지시설은 전무

- 장애인 복지관은 시 지역에만 분포

〈그림 3-48〉 장애인시설 분포도

〈표 3-124〉 경북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총계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	심부름 센터	장애인 특수학교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체육관	장애인 재활병원
165	54	25	12	27	24	7	12	3	1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0

라. 아동·청소년인구 및 복지시설

아동·청소년인구 61만 5천, 2005년 대비 13.1% 감소

○ 경북 거주 아동 및 청소년은 2010년 현재 615,653명으로 전체 인구의 22.9%에 해당

〈표 3-125〉 경북 아동·청소년인구 현황과 추이

(단위 : 명)

구분	아동청소년인구수(%)	남자(%)	여자(%)
2005년	707,772	381,862	325,910
2006년	690,161	371,794	318,367
2007년	664,694	358,585	306,109
2008년	643,409	347,383	296,026
2009년	629,301	340,125	289,176
2010년	615,653(100.0)	332,647(54.0)	283,006(46.0)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2

○ 2005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 비율이 54.0%로서 성비 불균형이 뚜렷함. 2005년 대비 12.8% 감소함.

〈표 3-126〉 경북 아동·청소년인구 연령별 현황

(단위 : 명)

총인구	아동 · 청소년인구				
	소계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2,669,920	615,653	56,529	75,766	79,407	71,304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2

아동·청소년 전 연령대에서 유출 증가

○ 경북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인구는 전 연령대에서 유출이 유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

○ 반면 15세~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인구는 해마다 순이동의 경향성을 달리함.

〈표 3-127〉 경북 아동·청소년 인구이동 추이(1995~2010년)

(단위 : 명, %)

연령별	항목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총전입	419,925	380,638	374,711	391,486	380,925	363,297	367,244	354,575
	총전출	424,533	406,344	386,228	394,805	395,536	377,397	375,551	358,127
	순이동	-4,608	-25,706	-11,517	-3,319	-14,611	-14,100	-8,307	-3,552
	순이동률	-0.2	-0.9	-0.4	-0.1	-0.5	-0.5	-0.3	-0.1
0-4세	총전입	44,482	35,054	26,122	25,060	23,685	22,760	22,283	20,725
	총전출	42,348	35,970	27,071	25,089	24,333	23,600	24,047	21,438
	순이동	2,134	-916	-949	-29	-648	-840	-1,764	-713
	순이동률	1.2	-0.5	-0.8	0.0	-0.6	-0.7	-1.6	-0.4
5-9세	총전입	32,977	32,533	26,624	25,462	23,865	21,934	20,162	18,255
	총전출	32,393	34,491	28,137	27,323	25,643	23,808	21,803	19,229
	순이동	584	-1,958	-1,513	-1,861	-1,778	-1,874	-1,641	-974
	순이동률	0.3	-1.1	-0.9	-1.2	-1.2	-1.3	-1.3	-0.6
10-14세	총전입	25,041	20,270	20,164	20,480	20,607	19,925	19,149	18,403
	총전출	26,290	22,305	21,802	22,245	22,233	21,831	20,712	19,437
	순이동	-1,249	-2,035	-1,638	-1,765	-1,626	-1,906	-1,563	-1,034
	순이동률	-0.6	-1.2	-0.9	-1.0	-0.9	-1.1	-1.0	-0.5
15-19세	총전입	25,686	21,279	17,672	20,751	19,780	19,419	21,271	20,965
	총전출	24,499	22,001	17,637	19,295	19,891	19,810	20,509	20,275
	순이동	1,187	-722	35	1,456	-111	-391	762	690
	순이동률	0.5	-0.3	0.0	0.9	-0.1	-0.2	0.4	0.3
20-24세	총전입	46,309	35,003	36,256	39,359	33,426	29,289	29,006	27,920
	총전출	55,677	42,255	41,475	41,357	38,696	33,869	31,644	31,011
	순이동	-9,368	-7,252	-5,219	-1,998	-5,270	-4,580	-2,638	-3,091
	순이동률	-4.0	-3.4	-2.7	-1.1	-3.1	-2.8	-1.6	-1.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2

2010년 요보호아동 271명 발생

○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은 2010년 한 해 동안 271명 발생

- 빈곤, 실직, 학대 등에 속하는 아동이 26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
- 유기 1명, 미혼모 아동 8명, 비행가출부랑아 1명으로 집계

〈표 3-128〉 경북 요보호아동 발생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유기	미혼모 아 동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빈곤,실직, 학대 등기타
아동수	271	1	8	-	1	261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표 3-129〉 경북 요보호아동 보호현황

(단위 : 명)

구분	계	시설 보호			가정 보호		
		아동	장애아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가장책정
아동수	271	88	-	16	162	-	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그 중 104명이 시설보호, 167명이 가정 보호 중임.

소년·소녀가장은 꾸준히 감소

○ 소년·소녀가장은 2010년 134명으로 2006년 대비 64.0% 감소

- 시도별로는 영주시에 29명으로 가장 많았음.

〈표 3-130〉 경북 소년·소녀가장 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세대주	세대원	재학별				
				미취학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미재학등)
2006	372	256	116	2	63	124	178	5
2007	305	222	83	-	91	150	60	4
2008	213	153	60	-	34	51	126	2
2009	166	122	44	1	25	38	100	2
2010	134	89	45	-	23	32	75	4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아동복지시설은 시지역에 다수 분포

○ 아동복지시설은 도시지역인 포항, 구미, 안동, 상주, 김천 순으로 많이 분포

- 청송군, 예천군, 군위군, 봉화군, 영양군, 울진군 등에는 미설치

○ 시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총 15개소이며 주로 시지역에 분포

○ 그 밖에도 개인양육시설 4개소, 공동생활가정 11개소, 드림스타트

센터 10개소가 운영 중

○ 지역아동센터는 청송군을 제외한 22개 시·군에 254개소가 설치되어 관련서비스를 제공

청소년복지시설 꾸준히 증가

○ 경북에 위치한 청소년복지시설은 2010년 현재 청소년수련관 15개소, 문화의집 11개소, 수련원 17개소, 야영장 7개소, 유스호스텔 16개소,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10개소, 청소년쉼터 4개소, 청소년공부방 58개소, 청소년지원센터 13개소 등이 설치·운영 중

○ 일부 수련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단위에 집중되어 있고, 아동 ·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지원센터 또한 그러함.

〈표 3-131〉 경북 청소년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쉼터	청소년 공부방	청소년 지원 센터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공공	민간				
15	-	11	-	7	10	3	4	2	14	10	4	58	13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0

마. 여성인구 및 복지시설

여성인구 지속적인 감소, 성비 불균형 심화

○ 경북에 거주하는 여성은 2010년 현재 1,353,543명으로 전체 인구의 49.6% 차지

- 2006 여성인구비율(49.7%) 대비 0.1%p 감소

○ 시 지역은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군 지역은 영덕, 청도, 의성, 청송, 울진 등에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집계

○ 남성 비중이 높은 지역은 울릉, 칠곡, 고령, 성주, 구미 등으로 나타남.

〈표 3-132〉 경북 여성인구 및 비중

(단위 : 명)

시·군	인구수			구성비		
	계	남	여	지역	남	여
계	2,726,815	1,373,272	1,353,543	100.0	50.4	49.6
포항시	518,908	263,974	254,934	100.0	50.9	49.1
경주시	272,569	137,566	135,003	100.0	50.5	49.5
김천시	137,837	68,435	69,402	100.0	49.6	50.4
안동시	169,323	83,636	85,687	100.0	49.4	50.6
구미시	409,792	209,018	200,774	100.0	51.0	49.0
영주시	114,856	57,079	57,777	100.0	49.7	50.3
영천시	105,102	53,254	51,848	100.0	50.7	49.3
상주시	106,440	52,410	54,030	100.0	49.2	50.8
문경시	77,933	38,253	39,680	100.0	49.1	50.9
경산시	247,185	125,428	121,757	100.0	50.7	49.3
군위군	25,154	12,717	12,437	100.0	50.6	49.4
의성군	59,306	29,101	30,205	100.0	49.1	50.9
청송군	26,883	13,256	13,627	100.0	49.3	50.7
영양군	18,587	9,092	9,495	100.0	48.9	51.1
영덕군	41,763	19,889	21,874	100.0	47.6	52.4
청도군	44,894	21,872	23,022	100.0	48.7	51.3
고령군	35,892	18,606	17,286	100.0	51.8	48.2
성주군	46,279	23,736	22,543	100.0	51.3	48.7
칠곡군	121,957	63,249	58,708	100.0	51.9	48.1
예천군	47,448	23,343	24,105	100.0	49.2	50.8
봉화군	34,810	17,372	17,438	100.0	49.9	50.1
울진군	53,100	26,290	26,810	100.0	49.5	50.5
울릉군	10,797	5,696	5,101	100.0	52.8	47.2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여성 노인인구 비중 높은 편

○ 연령별로 살펴보면, 14세 이하의 유년인구는 14.7%인데 반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8.7%로 노인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15세이상 64세미만의 생산인구는 66.6%를 차지

〈표 3-133〉 경상북도 연령별 여성인구

(단위 : 명)

계	14세이하	15~64세	65세이상
1,338,718 (100.0%)	186,644 (14.7%)	896,901 (66.6%)	255,173 (18.7%)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1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52.5%로 전국 평균 상회

○ 15세 이상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현재 1,112천명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2.5% 기록

○ 경북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52.5%로 전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47.7%보다 4.8%p 상회

- 도시지역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49.1%인 반면, 농촌지역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은 평균 60%

- 이는 군단위에는 농림어업종사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에 기인해 이들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인구가 많은 것에서 비롯되는 현상

〈표 3-134〉 여성 경제활동인구 현황

(단위:천명, %)

구 분		15세이상인구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남성	19,705	14.225	5,480	72.2
	여성	20,611	9,838	10,773	47.7
경북	남성	1,059	799	260	75.5
	여성	1,112	583	529	52.5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1

저소득 한부모가정은 3,555가구

○ 2010년 현재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가구는 3,555가구, 가구원은 8,997명으로 집계

- 시 지역에서는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순으로 군지역에서는 칠곡군에 다수 거주

〈표 3-135〉 경북 저소득 한부모가정 현황

(단위: 가구, 명)

구분	합 계		한부모가족지원법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국가보훈법수급자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2006	5,983	16,135	2,207	5,668	3,776	10,467	-	-
2007	6,322	16,690	2,304	5,900	4,018	10,790	-	-
2008	6,968	18,342	2,579	6,643	4,385	11,699	4	-
2009	8,005	21,103	3,330	8,577	4,675	12,526	-	-
2010	7,259	18,504	3,555	8,997	3,703	9,504	1	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여성복지시설은 포항, 안동, 김천에 다수 분포

○ 여성관련 복지시설은 포항시, 안동시, 김천시에 다수 설치되어 운영 중

○ 여성(문화)회관은 23개 시·군에서 운영

○ 여성회관의 부설기관으로 여성취업지원센터를 6개 지역에 설치·운영

- 6개 센터를 포함해, 영덕군, 성주군, 군위군에 취업설계사가 배치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

〈그림 3-49〉 여성관련시설 분포도

○ 여성취업지원기관으로는 여성회관의 여성취업지원센터와 더불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에 설치되어 있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에 설치·운영 중

○ 여성자원활동센터는 22개 시·군(구미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와 통합 운영)에 각각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9개소에 불과

- 그 밖에 가족관련 시설은 한부모가정지원시설(5개소)과 미혼모자가정지원시설(1개소) 등 총 6개소가 운영 중

○ 여성폭력 상담관련기관으로는 가정폭력 상담소 9개소와 성폭력상담소 7개소, 5개의 긴급피난처가 설치

- 여성긴급전화 1366경북센터(1),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1),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1)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2), 아동·청소년 전용쉼터(1)

- 성매매 피해상담소(1),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1)

○ 경북지역의 여성관련 시설 또한 시 지역에 비해 군 지역에 적게 분포

○ 군 지역에서는 여성회관과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여성복지의 주요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 중

〈표 3-136〉 경북 여성복지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여성회관	여성취업업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	자원활동센터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긴급피난처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이동청소년전용쉼터	성매매관련시설	한부모가정지원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93	23(9)	6	3	6	23	7	9	5	1	1	2	7	9

주 : ( ) 안은 취업설계사가 배치된 여성회관임
자료 : 경상북도 여성청소년가족과 내부자료로 재구성(2011), 23개시·군 2차 지역복지계획(2010)

가족구조의 변화

○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규모 축소, 가족세대 단순화, 가족주기 연장 등의 가족구조 변화가 급진적으로 진행

○ 평균가구원수는 2005년 현재 2.6명으로 1980년의 4.4명에 비해 절반 가까운 규모로 축소

○ 1세대와 1인 가구는 크게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1/4에 육박

- 1세대 가구 : 9.3%(1980) → 23.1%(2010)
- 1인 가구 : 6.2%(1980) → 24.2%(2010)

○ 남녀 모두 평균초혼연령이 증가하고 있어 저출산 원인으로 작용

- 여성 : 24.3세(1990) → 25.9세(2000) → 28.4세(2009)
- 남성 : 27.4세(1990) → 28.8세(2000) → 31.2세(2009)

〈표 3-137〉 경북 가족구조의 변화

구 분	변 화 내 용
가족규모의 축소	• 평균가구원수 : 4.4('80) → 3.5('90) → 2.9('00) → 2.6('05) • 합계출산율 : 2.56('80) → 1.59('90) → 1.56('00) → 1.19('10)
가족세대의 단순화	• 직계가족의 비율 : 11.6('80) → 11.9('90) → 8.0('00) → 8.1('10) • 핵가족의 비율 : 65.9('80) → 63.8('90) → 64.7('00) → 61.4('10) • 부부가족의 비율 : 6.6('80) → 13.6('90) → 18.1('00) → 22.1('10) • 1인가구 비율 : 6.2('80) → 12.3('90) → 18.5('00) → 24.2('10)
가족주기의 변화	• 평균초혼연령(남) : 27.4('90) → 28.8('00) → 31.2('09) • 평균초혼연령(여) : 24.3('90) → 25.9('00) → 28.4('09) • 평균수명(남) : 66.4('90) → 75.6('09) • 평균수명(여) : 76.1('90) → 83.2('09)

자료 : 대구경북연구원, 「뉴디자인 대구경북」, 2010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부족

○ 경북 어린이집은 총 1,998개소이며, 그 중 민간어린이집이 전체의 44.8%, 가정어린이집이 44.3%를 차지

- 국공립어린이집 5.8%, 직장어린이집 0.8%에 불과

〈표 3-138〉 경북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법인외)			
2006	1,403	90	88	798	760	38	-	17	410
2007	1,542	97	89	817	762	55	-	16	523
2008	1,741	106	86	877	838	39	-	16	656
2009	1,844	108	86	877	837	40	-	15	758
2010	1,998	115	86	896	855	41	-	16	885
구성비	100.0	5.8	4.3	44.8	42.8	2.1	-	0.8	44.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시·군 단위 모두 민간어린이집이 가장 많고, 다음은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순임.

○ 시 지역에서는 어린이집이 군 지역보다 월등히 많으나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은 군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바. 다문화 인구 및 관련시설

경북 거주 외국인비율 1.7%

○ 경북 거주 외국인은 2010년 현재 46,658명,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7%에 해당

○ 체류자격별로는 외국인근로자 20,338명(43.6%), 외국인주민자녀 7,715명(16.5%), 유학생 6,572명(14.1%), 국제결혼이민자 6,324명(13.6%) 등의 순

- 다문화가족, 유학생 비율은 전국 평균 상회

〈표 3-139〉 경북 외국인주민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계	주민등록인구 대비 비율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계 주민 자녀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재외 동포	기타 외국인	소계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 국적 취득자	
전국	1,139,283	2.3%	920,887	558,538	125,087	80,646	50,251	106,365	96,461	56,584	39,877	121,935
	(100.0)		(80.8)	(49.0)	(11.0)	(7.1)	(4.4)	(9.3)	(8.5)	(5.0)	(3.5)	(10.7)
경북	46,658	1.70 %	36,035	20,338	6,324	6,572	693	2,108	2,908	2,582	326	7,715
	(100.0)		(77.2)	(43.6)	(13.6)	(14.1)	(1.5)	(4.5)	(6.2)	(5.5)	(0.7)	(16.5)

주 : ( )안은 구성비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10

산업도시(경산시, 구미시, 경주시)에 다수 거주

○ 시·군별로 살펴보면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지역은 경산시(7,182명, 15.4%), 구미시(6,118명, 13.1%), 경주시(6,087명, 13.0%), 포항시(5,542명, 11.9%) 순

○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높은 지역은 고령군(4.1%), 경산시(3.0%), 칠곡군·성주군(2.7%), 경주시(2.3%), 군위군(2.2%) 등

-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2% 이상인 지역은 대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분포

다문화지원기관 및 단체는 현재 41개소

○ 경북 다문화지원기관·단체는 2009년 현재 41개소

- 전국 기관·단체 수의 5.5%를 차지

○ 경북에서 활동 중인 공공기관은 18개소, 종교단체는 6개소이며, 민간단체는 17개소임.

〈표 3-140〉 다문화지원기관·단체 현황

(단위: 명, %)

구분	소계	공공 기관	종교 단체	민간 단체
전국	743 (100.0)	304 (100.0)	87 (100.0)	352 (100.0)
경북	41 (5.5)	18 (5.9)	6 (6.9)	17 (4.8)

자료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 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개소 설치·운영 중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의 중추기관으로서 여성가족부와 경상북도의 산하 기관으로 설치·운영

○ 2011년 현재 경북도 내 20개 센터가 설치·운영 중

〈표 3-141〉 경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추이

(단위 : 개소)

연도	개소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명
2006년	2개소	구미, 예천
2007년	4개소	포항, 구미, 문경, 예천
2008년	10개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상주, 문경, 경산, 예천
2009년	13개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예천, 울진
2010년	16개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성주, 예천, 봉화, 울진
2011년	20개소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경산, 의성, 청송,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칠곡, 청도, 영덕, 영양

자료 : 경상북도 여성청소년가족과, 2011

2. 여건변화와 전망

사회투자형 복지모델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 전통적 복지 모델은 완전고용 가능한 노동시장과 남성가장 주도의 안정적 가족구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재정 적자, 노동시장 진입 배제, 공동체 공동화 등 복지관련 위기를 맞아 사회적 안전 및 사회적 투자를 유발

○ 사회투자형 복지 모델은 비용효과, 생산적 기능,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 하여 대안으로 모색

- 현금 지급하는 전통적 복지 프로그램을 일부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재편입 전략을 강력히 구사

- 이에 비해 또 다른 대안인 신자유주의 노선은 사회복지 지출을 비생산적이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관계로 간주

사회재설계 추구

○ 사회투자형 복지 모델 도입에 관심을 가진 국가들은 20대에 취업해 일생동안 수차례 직업이나 직장을 옮기고 만성실업에 시달려야 하는 서민과 중산층의 행복을 찾아주고자 정책적 모색과 사회 재설계 시도

○ 사회 재설계의 핵심은 경제적 기회 확대이며, 공동체 윤리와 시장경제의 역동성 결합에 초점

- 정부의 복지 지출이 필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의 수확을 발생시키는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강한 사회제도, 강한 가족, 강한 공동체를 지향하되 이와 함께 개인에게 국가 경제 쇄신을 위해 헌신하도록 요구

- 무분별한 온정주의를 극복 대상으로 설정

○ 인적자본 양성, 빈곤층 예방, 여성 노동력 확보를 통해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식기반경제 운용에 기여하는 식의 복지시스템 전환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활발하게 펼쳐지는 중

- 복지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스포츠의 정책적 영역 융합화 병행

복지욕구의 증가와 다양화

○ 핵가족·1인 가구가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향상되면서 가족구성원의 돌봄기능 약화

- 전통적 가족개념과 현대 가족기능 간의 불일치로 노인, 아동, 장애인의 기본 생활을 위협하고 저해할 가능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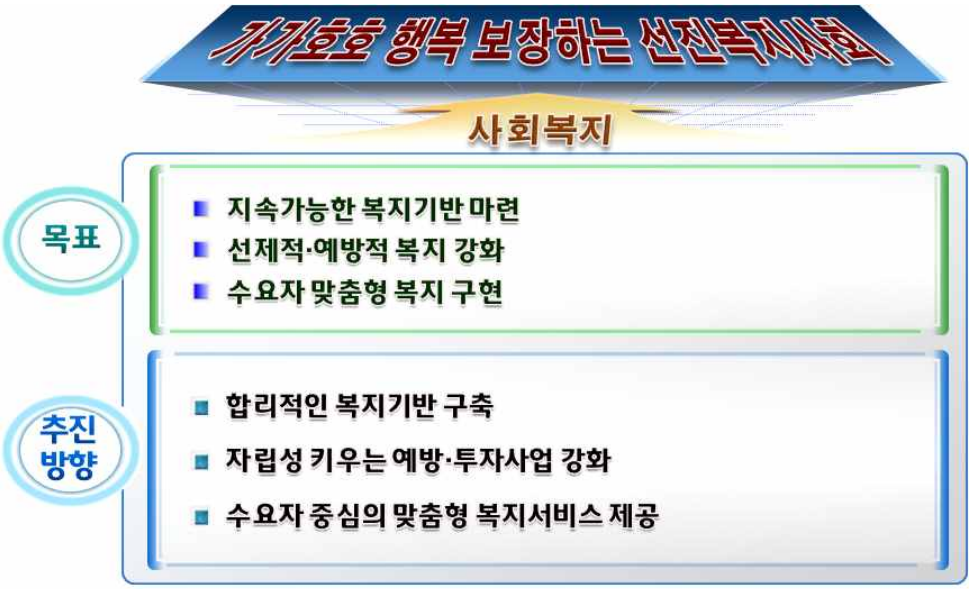
○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기능의 사회화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수급구조의 선진화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다양화 추진

○ 국가와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인적자본의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 가능성을 제고하는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확충 시도

○ 포퓰리즘에 의한 복지정책의 선심경쟁 현상 대두

3. 계획 방향

가. 목표



〈그림 3-50〉 사회복지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가가호호 행복 보장하는 선진복지사회

○ 선별성을 뛰어넘어 지역 주민 모두의 행복을 보장하는 선진복지사회 구현

- 보호와 효율, 분배와 성장을 조화하여 미래 투자형 복지 지향
-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 이용이 자유로운 서비스 지원망 구축으로 보편적 서비스 수급권 확보

○ 이를 위한 목표는 지속가능한 복지기반 마련, 선제적·예방적 복지 강화, 수요자 맞춤형 복지 구현 등으로 구체화

나. 추진 방향

합리적인 복지기반 구축

○ 서비스 인프라 부족을 해결하는 시설 확충과 서비스 설계

- 보건복지시설 및 서비스 균형 배치 → 접근성 취약지역 집중 관리

- 유비쿼터스 통합복지서비스 설계

○ 복지영역에 투입 가능한 새로운 자원 발굴과 기존 자원의 유기적 연계 활성화로 서비스 충분성 확보

- 중앙정부 지원 유도, 민간자원 활성화로 신규 재원을 발굴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
- 우수 자원 유치·연계로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
- 타 영역 지역 보유 자원의 복지자원화(스포츠, 문화, 관광 시설의 유니버셜화 등)로 삶의 질 제고

○ 사회서비스업의 심화 단계에 부합하는 복지관련 사업의 영역 확장과 민간경영기법 도입으로 사업 추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서비스 디자인 설계 개념을 적용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브랜드화 등
- 보건복지관련 산학연 클러스터와 네트워크의 거점인 대규모 보건복지사업 추진
- 복지시설 운영과 사업 추진에 민간경영기법 도입하여 재정건전화 유도

예방·투자사업 강화로 자립지원

○ 직접적인 편익 제공보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로 일어서는 자립지원 강화사업 확대

○ 복지와 교육, 훈련, 취업을 연계하여 고용 확대

- 적극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통한 복지 의존성 완화
- 주민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가난과 소외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는 복지-고용 연계 프로그램 설계

○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일하는 복지에 동참함으로써 사회적 배제를 스스로 극복토록 유도

○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 추진으로 지역의 존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사회구성원 확보

- 출산·자녀관련 인식 개선, 고용 불안 제거, 출산·양육 부담 해소,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등 중장기적인 출산장려책 마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공급자 편의에 따르던 획일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도민 개개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복지 지향

○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특성(특히 농어촌·과소지역)을 고려하여 현장 중심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

○ 서비스 대상, 영역, 지역, 주체 간 융합으로 개개인의 욕구에 부응

- 대상 : 개인, 가족 단위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영역 : 보건·복지·교육·문화·체육 영역 간 융합
- 지역 : 권역·인근지역 간 연계·협력
- 주체 : 민-관-학-연 연계·협력

4. 추진계획

가. 합리적인 복지기반 구축

지속가능한 인프라 확보

○ 복지수요와 업무 증가에 부합하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확충으로 질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 저출산·고령화,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복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무한돌봄사업 등의 새로운 사업이 도입되면서 복지관련 업무 급증

○ 원활한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효율적 활용 도모

- 사회복지통합망[3]에 따른 대상자 발굴 및 사례관리 효과가 가시화되지 못하고 사회복지관련 업무가 가중[4]되는 부작용 발생, 2011년 9월 복지

3) 각종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지자체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

4) 교과부의 유아학비 지원사업, 국토부의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사업, 국토부의 기존 주택 매입 및 전세 임대사업 등 타부처 사업이 사회통합망으로 위임 되는 등 사회복지직의 업무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중

정보통합관리시스템으로 확대[5]되면서 더욱 심화

- 사회복지정보센터 인지도 제고 및 기능 활성화

○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와 합리적인 고용환경 조성

-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세미나 개최
- 고용안정화를 위한 수당 및 보험 지원 확대

○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 사업의 안정적 추진

○ 경북행복재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의 운영 안정화를 통해 조사연구, 정책 개발, 사업개발·육성, 인적자원개발, 서비스 및 운영 평가 지원, 공공재원 지원 기준 개발, 교류협력 등에 전문성 제고

효율적 예산 운용체계 구축

○ 복지관련 시설과 개인의 불합리한 행태 감시체계 구축

-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축소하고 수요 맞춤형 자체사업을 확대
- 이를 위한 부서 간 사업 연계와 패키지화 활성화

○ 경상북도의회 조례에 근거한 감시센터 설치와 민간부문 위탁 추진

-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낭비신고센터 가동 중 : 지방자치단체별 설치, 행정안전부 종합,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는 식의 절차
- 예산관련 제도, 집행 방법 개선을 통해 예산 절약이나 지방세입 증대를 가능케 할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기여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예산성과금제도 병행 → 신고에 의존, 가시적 성과 미흡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시범사업 실시
- 향후 기초보장관리단을 전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

○ 기초보장관리단 설치와 자발적인 모니터링 시행

- 경상북도가 운영비 지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적정급여 관리 강화 및 권리 구제를 위해 2009년부터 내부에 기초보장관리단 설치

5) 사회복지통합관리망(7개 부처 108개 사업) → 복지정보통합관리시스템(16개 부처 289개 사업)

나. 자립성 키우는 예방·투자사업 확대

생산적인 활동을 통한 조기 자립 실현

○ 저소득층 스스로 자활 능력을 되찾고 사회적 고립을 이겨내도록 보장하는 정책 추진

-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설치 확대
- 저소득층, 저학력 대상자의 비관적이고 수동적인 심리상태와 생활태도를 교정·전환하는 맞춤식 교육 제공
- 공공부문 교육·훈련 인프라와 민간의 교육·훈련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결합하여 교육·훈련 기회 확대

○ 저소득층 문제에 기업 및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 유도

- 기업 참여 간병·도우미 전문 봉사단 설치 운영
-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저소득층 초·중·고 재학생 멘토링사업 추진

○ 유연하고 긍정적인 업무추진으로 자활기업의 수익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

- 저소득층 실태조사 실시로 욕구와 현황에 기반 한 실효적 정책 수립 기반 확립
- 성과 관리형 탈수급사업 도입 : 저소득층이 스스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복지서비스를 원스톱 제공, 새로운 직장 취업 후에도 일정 기간 급여 지급
-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 강화 : 지역자활센터 직원 및 자활사업단을 대상으로 전문경영자문단의 컨설팅 제공
- 보호형 시장 형성 : 사회서비스 및 틈새업종 중심으로 자활공동체의 안정적인 상품판매 통로와 일감 확보
-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광역자활센터 신규 설치 및 지역자활센터 추가 설치 추진

○ 빈곤 위기가구 발굴 및 최저생활보장 강화

- 행정, 복지관련 기관과 지역사회주민과 단체로 구성된 위기가정지원팀을 구성하고 상시적인 활동 지원

적극적인 출산장려책의 추진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지역사회문화 조성

- 휴가·휴직제도 개선,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출산가구 고용 안정화, 건전한 맞벌이 가족문화 형성, 출산관련 이해관계자 사회보상문화 조성

○ 가족 형성에 유리한 지역여건 조성

- 결혼 장려, 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파,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수용성 제고 등

○ 임신·출산 지원 확대

- 분만취약지 지원 확대, 난임부부 지원 강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 안심할 수 있는 자녀 양육 여건 마련

- 자녀 양육비용 지원 확대, 보육사업 모니터링 실시

- 어린이집 인증, 영유아도서관 설치 확대, 주민자치센터 내 육아지원시설 설치, 가정 내 돌봄 지원 활성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활성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복지 자원 발굴 영역의 확장

○ 민간 참여의 확대와 활성화는 복지 욕구의 증가와 한정된 공공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는 선순환 복지사회의 시작

○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시민 간 연대의식을 고취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 시·군별 자치조직(부녀회, 청년회 등)의 복지자원화, 주민생활서비스 민관협의체 구축,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활성화, 지역사회복지 옴부즈맨제도 도입,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 개발 및 활성화 등을 추진

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노인 :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노년생활 보장

○ 대상별 차별화와 지역 특성화에 기반한 서비스 설계

- 노년층과 예비노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사업 및 서비스 수급 계획 수립 : 고령친화도 평가지표 개발 및 적용
- 성별, 가족 형태, 건강, 경제력 등을 감안한 정책 개발
- 지역사회 고령친화성을 진단하여 이동지원시스템 도입, 위기상황 관찰 및 보고 시스템 구축,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사업 추진

○ 포괄적·예방적·효율적 건강지원체계 구축

- 연령, 지역특성을 감안한 건강증진사업과 시설의 전문화·특성화 시도 → 요양시설 통합·유형화, 다양한 규모로 재편(20~30인, 5~9인 등)
-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완화케어 중심의 건강 지원
- 등급 판정 제외자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요양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 경증, 건강노인 대상 요양예방 스크리닝(상담, 정보제공, 서비스 연계) 활성화
-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계획 수립, 수발자 지원, 권리옹호시스템 구축 등으로 효율적 요양보장 체계 구축

○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지원

- 노동 욕구와 의지, 실제 활동 가능성 등을 토대로 적합한 일자리 창출 : 생계유지형, 자원봉사형, 경력개발형
- 시니어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 민간부문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
- 고령자 취업 촉진에 기여하는 고령친화기업과 탄력적 노동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 지역 노인인적자원의 체계적·전문적 개발과 관리를 위해 노인생애경력 DB화와 재교육 프로그램(경제교육, 정보화교육, 취업교육) 활성화

○ 노년층 자기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참여 활성화

- 문화, 복지, 정보 교류 등 문화적 공감대 형성 공간 조성 : 노인복합문화시설 등
- 거주지 중심 커뮤니티 의식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업 추진 : 이웃이 이웃 노인을 돌보는 프로그램 등

- 노인과 젊은 세대 간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육아 프로젝트, 아동지킴이 봉사 추진
- 노인의 적극적·조직적 활동을 지원하는 노인전략 그룹 구성(노인 주도 모니터링제도 실시)
- 노인의 시민사회단체 참여 활성화, 노인 주도 시민단체 네트워크 형성

장애인 : 화합·평등·신뢰의 장애인친화사회 조성

○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저소득 장애인 생활지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

○ 생활시설 운영 지원과 기능보강의 효율적·합리적 사업 추진으로 시설 수준 제고

○ 생활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복귀 욕구를 수용하는 인프라 구축하여 수요자에게 서비스 선택권 부여

- 자립생활 기반 구축 시스템 정비(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장애아동 재활치료 등의 연계사업 확장)
- 재가복지봉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서 제공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확대

○ 생활시설 소규모화와 공간구조 개선, 생활시설 서비스 기능별 전문화 추진

- 소규모 장애인시설(30인 이하) 설치로 쾌적성 제고 : 체험홈·그룹홈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기존 대규모 생활시설의 가정형·유니트형 전환사업 추진

○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취업지원체계를 내실화하여 장애인 고용률 제고

- 직업훈련 전문기관의 접근성 향상 : 장애인 전문 고용 및 인턴 지원 사이트 개발, 비장애인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인쿠르트시스템 구축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 주간보호시설 등 기존 유휴공간, 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설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주간보호시설 확충

○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도시 환경에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과 저상버스 확대
- 각종 지역계획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이 모든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 → 장애인시설물 모니터링제도 도입

○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인력 양성

- 장애인복지에 필요한 지역 인재 육성과 활용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조직 설치
- 장애인생활시설 종사자 충원

○ 지역사회와의 소통, 참여 활성화

- 비장애인에 대한 계몽 및 교류활동 추진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 정치·사회분야 장애인 참여를 돕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정책참여기획단 설치

아동·청소년 :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과 안전망 구축

○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보편적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투자 확대

○ 요보호 아동·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소외없는 복지여건 마련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장과 잠재적 위험요소 제거를 위한 통합적 사회안전망 구축
- 지역사회 모든 주체들이 안전망 구성요소로 자리매김하여 아동·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에 참여토록 유도
- 안심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아동친화 서포터즈 발대 등

○ 정책 추진 환경 개선을 통해 복지정책의 효율성 제고

- 대상·서비스·추진체계 간 통합적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정책협의회 구성, CYS-net 운영 활성화, 아동·청소년정책 모니터링단 구성, 아동·청소년 행복지수 개발 등

○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투자를 강화하여 건전하고 역량 있는 미래사회 자원으로 육성

- 건전한 시민 육성과 사회통합을 위해 학습복지의 일상화
- 아동청소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두드림존사업 활성화, 건전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청소년 보호위원회 구성 및 확대

여성 : 성 주류화 관점에서의 임파워먼트 강화

○ 여성정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예산, 정책 및 통계 DB 등을 체계적으로 확대 개편

- 여성가족관련 전담조직, 여성발전 기금 확대
- 성평등 지표 개발 및 관리,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실시

○ 여성 생애주기를 반영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 및 취업 지원, 수요변화를 고려한 여성친화환경 조성 등을 추진

- 새일지원본부 및 센터 기능 강화, 전문 직업훈련과정 확대
- 국공립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영유아 도서관 확충
- 여성의 대상별, 지역별, 계층별 수요를 고려한 고용환경 조성, 생활문화 실천운동 전개

○ 여성정책연구 · 인력개발 · 교육문화 · 인권보호 등 여성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조성

- 광역 단위의 종합적인 일자리창출 및 지원 인프라 구축
- 여성가족 관련 기관·단체를 집적하여 여성인적자원 개발, 조사·연구, 교육, 정보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다문화인구 : 건강한 사회구성원 확보·지원체계 구축

○ 이민정책과 다문화정책의 상호유기적 전개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확보체계 구축

- 외국인 유입 전 과정(준비, 이주, 정착)에 충실하고 개인이 아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구성원 확보체계 구축

- 사회통합이수제 지역기반 선진화, 건전한 국제결혼을 위한 지원 확대, 자립기반 강화사업 확대, 지역 맞춤형 외국인력수급체계 구축 등

○ 이상적 투자와 수요 충족의 메커니즘에 기반한 정책 추진기반 선진화

- 경상북도 본청 내 다문화 전담 부서를 설치·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 중복·유사한 성격·기능의 다문화 지원 사업 및 인프라 통·폐합
- 재정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제도화

○ 외국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광역 차원의 외국인 생활편의시스템 구축(시·군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대상 확대와 접근성 제고, 통·번역 시스템 확대 및 전문성 제고 등)

○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편중된 다문화서비스가 골고루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재정비

- 체류자격(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유학생 등), 출신국, 성별 등에 따른 선별적 지원을 지양
-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및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편적인 교육 수급권 확보, 글로벌 인재 양성 사업 전개

- 다문화 학습지킴이 프로그램 및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다중언어교육 확대 등을 추진

○ 일반 주민 대상의 다문화 이해 증진 사업을 강화하고 다문화 인구의 자발적 참여와 기여를 활성화하여 다문화 시민성 제고

-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교육,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양성 및 교육 확대, 다문화 체험관 설치 및 운영 등)
- 새마을 전파 인력으로 다문화 인구 활용, 다문화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기여 등을 추진

제5절 교육·체육

1. 현황 및 문제점

가. 교육

각 급 학교 수 및 학생 수 감소

○ 경북에 위치하고 있는 학교는 2011년 현재 총 1,779개교로 전년 대비 2개교 증가

〈표 3-142〉 경북 학교 및 학생 현황과 추이

(단위 : 개소)

구분		학교	분교	학급	보통 교실수	학생수	교직원수	교원	사무 직원	교원 1인당 학생수
2007년		1,819	110	23,648	22,372	662,528	32,740	27,205	7,964	17.6
2008년		1,801	98	17,232	15,654	648,896	39,700	31,908	7,792	20.3
2009년		1,792	81	17,256	15,651	636,700	39,880	32,179	7,701	19.8
2010년		1,777	73	18,050	15,725	632,793	38,857	31,586	7,271	20.0
2011년		1,779	69	17,911	15,283	608,910	39,466	32,359	7,107	18.8
유치원		696	-	1,717	1,225	32,719	2,681	2,343	338	14.0
초등학교		491	56	6,964	7,123	155,146	12,497	10,482	2,015	14.8
중학교		279	12	3,191	3,114	93,999	7,435	6,558	877	14.3
	국공립	204	12	2,221	2,167	63,864	5,361	4,724	637	13.5
	사립	75	-	970	947	30,135	2,074	1,834	240	16.4
일반계 고등학교		129	-	2,256	2,497	57,776	5,524	4,926	598	11.7
	국공립	59	-	887	1,018	14,850	2,295	2,030	265	7.3
	사립	70	-	1,369	1,479	42,926	3,229	2,896	333	14.8
특수목적 고등학교		8	-	134	140	3,339	469	368	101	9.1
	국공립	6	-	113	119	2,510	429	334	95	7.5
	사립	2	-	21	21	829	40	34	6	24.4
특성화 고등학교		50	-	689	737	18,136	1,841	1,570	271	11.6
	국공립	33	-	428	459	10,943	1,184	1,001	183	10.9
	사립	17	-	261	278	7,193	657	569	88	12.6
자율 고등학교		6	-	152	159	4,935	367	337	30	14.6
	국공립	4	-	89	96	2,741	220	199	21	13.8
	사립	2	-	63	63	2,194	147	138	9	15.9
전문대학		16	-	655		56,904	1,663	1,075	588	52.9
교육대학										
대학교		19	1	1,086		169,945	6,188	4,058	2,130	41.9
대학원		76	-	813		13,900	185	171	14	81.3
기타학교		9	-	254	288	2,111	616	471	145	4.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2007년 대비 2.2% 감소
- 유치원 696개원, 초등학교 491개교, 중학교 279개교, 고등학교 193개교, 전문대학 16개교, 대학교 19개교 등

○ 학급은 총 17,911개로 2007년(23,648개) 대비 24.3%나 감소

○ 학생 수는 608,910명으로 대학생(169,945명)과 초등학생(155,146명)이 다수를 차지

- 2007년 학생 수 대비 8.1% 감소

○ 교원은 32,359명으로 지난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사무직원 또한 7,107명으로 2006년 대비 10.8% 감소

소규모 학교 비율 전국 최고 수준

○ 경북의 소규모 학교 비율은 초등학교 17.4%, 중학교 21.3%, 고등학교 21.6%로 전국 최고 수준

〈표 3-143〉 8개 도지역 소규모 학교 현황

(단위 : 교, %)

지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본교	분교	계	본교	분교	계	
전국	1,032	368	1,400	609	38	647	102
경북	178(17.2)	66(17.9)	244(17.4)	123(20.2)	15(39.5)	138(21.3)	22(21.6)
전북	165(16.0)	6(1.6)	171(12.2)	85(14.0)	-	85(13.1)	10(9.8)
전남	144(14.0)	103(28.0)	247(17.6)	118(19.4)	14(36.8)	132(20.4)	26(25.5)
경남	129(12.5)	29(7.9)	158(11.3)	62(10.2)	6(15.8)	68(10.5)	8(7.8)
강원	127(12.3)	65(17.7)	192(13.7)	67(11.0)	-	67(10.4)	21(20.6)
충남	115(11.1)	18(4.9)	133(9.5)	53(8.7)	2(5.3)	55(8.5)	1(1.0)
충북	68(6.6)	19(5.2)	87(6.2)	40(6.6)	-	40(6.2)	4(3.9)
경기	52(5.0)	34(9.2)	86(6.1)	30(4.9)	-	30(4.6)	1(1.0)

주 : 소규모학교는 초등학교는 학생수 60명 이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학생수 100명 이하의 학교 8개 도지역 현황만을 정리한 것으로 ( )의 전국 대비 비중의 총합은 100이 되지 않음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2010

○ 2010년 3월 1일자 통폐합 대상학교 15개교 중 초등학교가 73%(11개교)로 최다

- 통폐합 대상학교의 학생이 유입되는 초등학교 중 2개교(월성초, 경주초)는 중·대규모의 학교이고, 이외는 150명 미만의 소규모
- 이는 향후 경북의 소규모 학교 정책은 학교의 규모를 일정 정도로 유지

하는 것보다도 소규모 학교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경북 방과후학교 학습량은 9개 도 평균 수준

○ 초등학교에서의 교과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은 9개 도 평균보다 다소 낮고, 중학교는 다소 높으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평균 수준

○ 초등학교에서의 특기·적성 방과후학교 학생 참여율은 9개 도 평균보다 다소 낮고, 중학교는 평균 수준이며, 일반계 고등학교는 다소 높음.

○ 초등돌봄교실 평균 강좌 수 및 학생 참여율 9개 도 평균보다 낮음.

〈표 3-144〉 9개 도 평균과 경북 방과후학교 현황 비교

지역	교과				특기·적성				초등돌봄교실			
	평균 강좌수(개)		학생 참여율(%)		평균 강좌수(개)		학생 참여율(%)		평균 강좌수(개)		학생 참여율(%)	
	9개 도	경북	9개 도	경북	9개 도	경북	9개 도	경북	9개 도	경북	9개 도	경북
초등	3.8	3.3	16.6	14.3	10.7	7.6	56.7	47.7	0.8	0.5	3.5	2.7
중등	18.6	17.3	91.7	120.1	5.4	3.5	20.7	20.4	-	-	-	-
일반계고등	46.3	32.4	195.5	200.9	2.3	1.4	6.2	7.1	-	-	-	-
전문계고등	16.1	9.9	65.4	63.2	6.7	6.1	23.4	30.1	-	-	-	-

○ 지역 일반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90.0%)은 전체 평균(77.2%)보다 모두 높으나 4년제 대학 진학률(67.1%)은 16개 시·도 중 중위권 수준

- 16개 시·도 중 경북은 6위

〈표 3-145〉 16개 시·도별 고교 진학률 및 취업률 현황

지역	일반계고 진학 현황(%)						전문계고 진학 현황(%)					
	진학률	전문대 진학률	4년제 진학률	국외 진학률	취업률	기타	진학률	전문대 진학률	4년제 진학률	국외 진학률	취업률	기타
전 국	77.2	20.4	56.6	0.2	1.0	21.9	69.4	45.5	23.8	0.2	18.6	12.0
경 북	90.0	22.8	67.1	0.2	0.9	9.1	73.5	50.0	23.5	0.0	21.0	5.4

○ 지역의 전문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률(73.5%)은 16개 시·도 중 중간 정도이나 전체 평균(69.4%)보다 높음.

- 전문계고 졸업생의 전문대 진학률은 50.0%로 전체 평균(45.5%) 상회

- 전문계고 졸업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3.5%로 전체 평균(23.8%)보다 다소 낮음.

○ 지역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21.0%로 16개 시·도 중 중상 정도로 전체 평균(18.6%)보다 높음.

평생교육기관은 꾸준히 확대

○ 경북의 평생교육기관은 2010년 현재 193개소로 지난 4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나타냄.

- 원격행태, 시민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등의 증가율이 높음.
- 전년 대비 23개소 증가

〈표 3-146〉 평생교육기관 수

(단위 : 개,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률
계		150	170	170	193	8.8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소계	60	57	57	59	-0.6
	각종학교(초.중.고)	2	2	2	2	0.0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3	-	-	-	
	방송통신고등학교	4	4	4	4	0.0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고등)	-	1	1	1	
	산업대학	2	1	1	1	-20.6
	원격 및 사이버대학(대학, 전문대학)	2	2	2	2	0.0
	특수대학원	47	47	47	49	1.4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소계	90	113	113	134	14.2
	유·초·중등 학교부설	2	3	3	3	14.5
	대학(원)부설	28	30	30	32	4.6
	원격형태	2	6	7	6	44.2
	사업장부설	10	13	12	14	11.9
	시민사회단체부설	6	16	16	27	65.1
	언론기관부설	1	1	-	8	100.0
	시민단체부설	6	16	16	27	65.1
	지식인력개발형태	18	21	22	22	6.9
	평생학습관	23	23	23	22	-1.5
	학원	3,534	3,306	163	160	-64.4
	주민자치센터	56	60	59	64	4.6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2

평생교육기관 학생 및 학습자는 큰 폭으로 증가

○ 경북의 평생교육기관 학생 및 학습자는 2010년 현재 274,752명으로 지난 4년간 연평균 33.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원격행태의 증가율이 가장 월등
- 유·초·중등 학교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에서도 적지 않은 증가율 기록

〈표 3-147〉 평생교육기관 학생·학습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2007	2008	2009	2010	연평균 증감률
계		114,764	140,546	143,705	274,752	33.8
준형식 평생교육기관	소계	23,068	26,948	25,859	25,370	3.2
	각종학교(중학)	276	293	301	309	3.8
	각종학교(고등)	64	67	72	75	5.4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41	-	-	-	
	방송통신고등학교	1,187	1,189	1,143	1,169	-0.5
	학교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고등)	-	19	99	98	
	산업대학	15,030	15,265	13,458	12,307	-6.4
	원격 및 사이버대학 (대학, 전문대학)	-	3,767	4,566	5,469	
	특수대학원	6,470	6,348	6,220	5,943	-2.8
비형식 평생교육기관	소계	91,696	113,598	117,846	249,382	39.6
	유·초·중등 학교부설	865	1,100	1,285	1,448	18.7
	대학(원)부설	-	24,305	31,019	103,557	
	원격형태	4,763	31,902	30,860	78,235	154.2
	사업장부설	30,491	22,930	19,959	28,204	-2.6
	시민사회단체부설	-	3,173	4,103	6,982	
	언론기관부설	4,148	5,188	-	237	-61.5
	시민단체부설	1,527	-	-	-	
	지식인력개발형태	5,362	10,304	12,930	10,498	25.1
	평생학습관	28,900	14,696	17,690	20,221	-11.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15,640	-	-	-	
	학원	218,878	221,451	10,308	8,792	-65.8
	교습소	17,681	-	-	-	
	주민자치센터	-	-	-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2

나. 체육

체육활동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시설 보급 확대

○ 체육인구의 저변 확대와 늘어나는 체육활동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 보급 확대

- 경북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은 2010년 기준 총 1,172개소로 지난 5년간 20.0%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이 전체의 79.6%로 대다수를 차지
- 체육관(39개소), 축구장(45개소), 테니스장(41개소) 등이 그 뒤를 이음.

〈표 3-148〉 공공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 %)

연도	합계	육상경기장	축구장	하키장	야구장	싸이클경기장	테니스장	씨름장	간이운동장(동네체육시설)	체육관 Gym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생활체육관
2006	679	19	12	1	2		20	2	593	16	3	11
2007	760	19	22	1	5		23	2	657	17	3	11
2008	886	21	28	1	5		28	6	765	17	3	12
2009	1,033	26	33	1	5		32	7	894	18	3	14
2010	1,172	28	45	1	7		41	7	933	19	3	17
연평균증감률	14.6	10.2	39.2	0.0	36.8		19.7	36.8	12.0	4.4	0.0	11.5

연도	수영장	국궁장	양궁장	승마장	골프연습장	조정카누장	요트장	빙상장	전천후게이트볼장	롤러스케이트장	사격장
2006	13	10	1	-	-	-	1	-	-	2	4
2007	14	11	1	-	1	-	1	-	-	4	4
2008	14	11	1	-	1	-	1	1	4	6	4
2009	14	11	1	-	2	-	1	1	14	8	4
2010	16	15	1	1	3	-	1	1	20	9	4
연평균 증감률	5.3	10.7	0.0	-	-	-	0.0	-	-	45.6	0.0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신고 및 등록체육시설은 소폭 증가

○ 경북에 위치한 신고 및 등록체육시설은 총 3,118개소로 지난 5년간 연평균 6.0% 증가

- 수영장, 썰매장, 무도학원은 큰 폭으로 감소
- 골프연습장, 골프장은 각각 연평균 28.2%, 23.9%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표 3-149〉 신고 및 등록체육시설 현황

(단위 : 개, %)

연도	합계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2006	2,466	-	-	-	2	3	7	45	713
2007	2,664	-	-	-	2	4	11	47	752
2008	2,820	-	-	-	2	4	12	36	760
2009	3,016	1	-	-	3	5	9	39	771
2010	3,118	1	-	-	2	5	11	35	794
연평균 증감율	6.0	-	-	-	-	13.6	12.0	-6.1	2.7
연도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장**	**무도학원**	**골프장 ***	**스키장 ***	**자동차경주장 ***
2006	167	340	1,055	13	3	101	17	-	-
2007	214	329	1,151	11	2	117	24	-	-
2008	314	326	1,233	10	3	89	31	-	-
2009	408	329	1,325	9	3	79	35	-	-
2010	451	357	1,335	8	3	76	40	-	-
연평균 증감률	28.2	1.2	6.1	-11.4	0.0	-6.9	23.9	-	-

주 : *는 등록체육시설, 그 외는 신고체육시설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2. 여건변화와 전망

교육이 지역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부상

○ 수준 높은 교육은 지역이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를 지지하는 지역경쟁력 확보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

- 교육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미래 지역경쟁력 제고의 핵심 요건

○ 삶의 질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수준 높은 교육·문화·복지·체육 활동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이 경쟁의 우위 확보

- 지역 발전을 선도할 인력 확보와 유인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

평생교육시대 도래

○ 고령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 고조

○ 직장 이동 및 경력 전환이 일상화되면서 다양한 직무재교육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는 추세

○ 다양한 유형의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복지 차원의 접근 필요

시민이 사회문화서비스 디자인 참여

○ 지역이 제공하는 문화, 교육, 복지를 체험하고 향유코자 하는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시민의 역량이 제고되면서 자생적 형태의 공동체를 통해 스스로의 욕구에 맞추고 창조하는 움직임 확산

- 주민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교육·문화·복지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성 발산

○ 시민 모두가 자신이 누릴 서비스를 직접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과 절차를 요구

○ 정책 이슈 제기부터 정책 결정 및 실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민주적 절차 필요

생활체육을 기본권으로 인식

○ 건강, 여가에 대한 관심과 소득이 높아지면서 생활체육 인구 증가

- 국내 생활체육 참여율 2010년 기준 34.2%

○ 선진국에서는 생활체육을 교육권, 노동권처럼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자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할 복지 수단으로 인식

- 범국가 차원에서 5~6개 정부 부처가 공조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

○ 기본권으로서의 생활체육은 엘리트 체육에서 벗어나 소외계층(저소득,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을 아우르는 전 주민 대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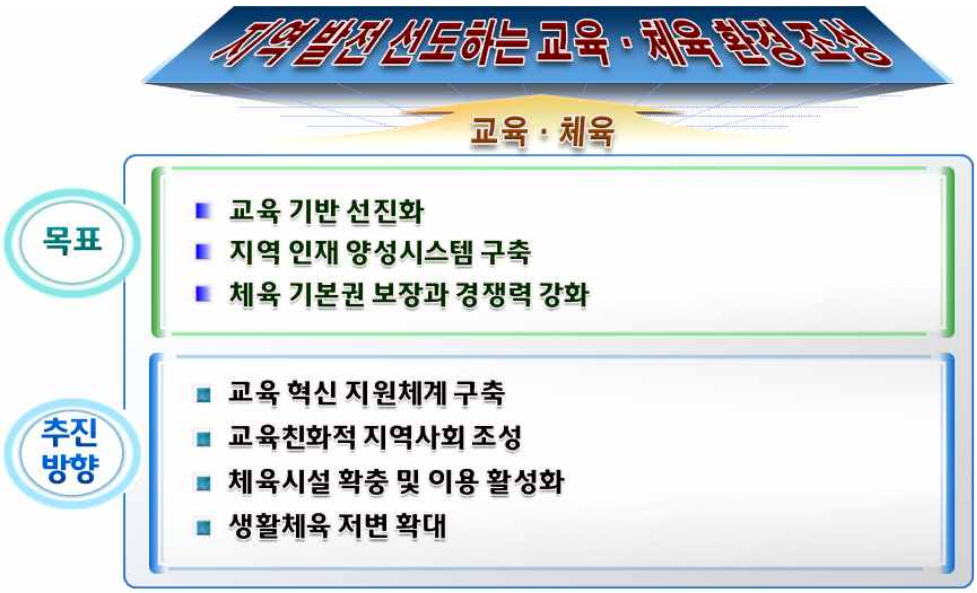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과 프로그램 활성화, 여가 증대에 따른 뉴스포츠, 스포츠산업 등으로 중심점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

○ 선진국의 경우 지역 스포츠 활동 자치조직인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 기본권 보장

- 일본 '종합형 지역 스포츠클럽', 미국 대통령 직속 '체력 스포츠 자문위원회', 덴마크 '다목적 스포츠센터(인구 500명당 1개소)' 등을 통해 스포츠클럽 활성화

3. 계획 방향

가. 목표



〈그림 3-51〉 교육·체육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지역 발전 선도하는 교육·체육 환경 조성

○ 선진화된 교육환경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되는 명품교육 실현

○ 일상생활 속에서 체육을 소비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제공

○ 이를 위한 목표는 교육 기반 선진화, 지역 인재 양성시스템 구축, 체육 기본권 보장과 경쟁력 강화임.

나. 추진 방향

교육 혁신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및 학교별 특성에 적합한 정책 마련을 위한 지역 교육 현황 분석 및 정책 기획 기능 강화

○ 창의적 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인프라 조성을 위해 지역, 학교 차원의 문화, 행정 운영 체제 등을 혁신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교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지역사회가 교육 및 학습의 공간으로 기능하는 인적·물적 지원체계 구축

-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 체계 구축으로 지역 보유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 지자체가 가진 교육 활동 가능 공간의 기능 고도화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양질의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여 도민의 체육활동 참여 동기와 기회 제고

- 도민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는 체육활동 공간 조성을 목표로 선진화된 시설 공급체계 마련

○ 도민 누구나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체육복지 혜택과 재원 한정성에 기초한 효율적 활용 간의 균형 유지

○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전문 경영원리 도입

- 전문적인 관리방식 도입을 통해 체육시설 이용률 제고와 흑자경영을 동시에 달성

생활체육 저변 확대

○ 도민 선호도와 건강 증진 기여도를 고려하여 생활체육 종목을 선정

- 쉽게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프로그램과

교실을 운영

○ 생애주기를 고려한 대상(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가족, 직장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동호회 활성화로 도민 전체의 체력 단련과 활기찬 공동체생활 도모

○ 생활체육관련 조직과 지도자 등의 조건 정비로 도민 모두가 쉽게 즐기고 접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 조성

○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생활체육과 복지, 문화·관광이 어우러지는 상호 교류를 반영

- 지역, 계층, 영역 간 통합으로 도민 전체의 화합과 건강,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4. 추진계획

가. 교육 혁신 지원체계 구축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형성

○ 효율적인 교육사업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 및 협력 필요

-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지역 관련 단체 및 기관)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주체간 역할 분담 체제 구축

○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운영

- 초기에는 지자체 단체장과 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여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법적 의무, 대상 중첩 등을 고려하여 실무자 분과 구성

- 지자체 :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산업 연계 교육사업 추진

- 교육청 : 기초-이해-창의성 등 단계적 학생 성취에 집중

- 가정 및 지역사회 : 지역 교육 모니터링

명문 교육 기반 조성

○ 정주환경의 근간인 교육 여건 악화는 지역 경쟁력 약화와 인구 유출 가속화 초래

○ 지역 명성을 높이는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 인재 확보와 지역 경쟁력 제고

○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 교육인프라 투자에 대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과 직접 투자(우수 인력·시설·기관 유치 및 확충 등) 등을 추진

- 기존 교육 기반의 개선 및 정비와 신규 우수 교육인프라 유치를 병행하여 추진

교육안전망 구축

○ 학교 부적응 학생이나 학습으로부터 소외된 학생에 대해 배움의 기회와 치유의 기회 제공

- 공공기관, 종교기관이 참여하는 멘토, 멘티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층 자녀의 일대일 학습지원(멘토 프로그램)

- 지자체, 교육청 지원에 의한 '청소년 배움터' 운영,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청소년인권복지위원회' 운영 검토

나. 교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지역사회시설의 교육기능 강화

○ 사적 교육 영역의 지역 간 편차로 교육으로 인한 이촌향도가 여전하므로 지역사회교육시설의 기능 강화

○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와 내실화로 지역 교육 수준 제고

-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

○ 도서관 확충과 도서관 중심의 통합교육 추진

- 문화, 교육, 체험 등을 수용하는 통합교육 공간으로 재구조화

○ 폐교시설의 교육적 활용 지원

- 농어촌 학생들의 다양한 체험 공간 제공 : 공동 활용 가능한 교과체험 교실로 활용(영어, 과학 등)

- 지역 역사관으로 리모델링 : 지역 바로 알기 교육장으로 활용

- 문화예술인 공방으로 유상 대여 : 문화예술교육 현장으로 활용

평생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 행정지원시스템을 체계화하고 평생교육정보를 통합

○ 생애주기별(학령기-청년기-중장년기-고령기) 수요자 욕구에 맞는 자기주도적 평생학습 프로그램 제공

○ 학습-취업-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고용 연계 교육 실현으로 평생직업 능력 향상

○ 신라, 선비, 호국, 새마을 등 경북 정체성 확립과 고양에 기여하는 경북 정신 및 정체성을 주제로 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다.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수요 특성을 고려한 시설 접근성 및 기능성 향상

○ 체육시설 이용 수급권 보장을 위한 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 공공체육시설 미설치 지역에 대해 국민체육센터, 공설운동장 등 설치
- 장애인, 노인 등에 적합한 전문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 체육시설 접근성이 열악한 과소지역(농어촌지역)은 이동지원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서비스 수급권 보장

- 기존 체육시설의 노후도, 기능 단순성 등을 고려

○ 체육시설 집적지 특성을 고려한 기능성 제고 방안 도출

- 스포츠 이벤트 혹은 전지훈련 등 스포츠사업 적합 대상지에 대한 기능성 분석 후 인프라 재정비 추진

체육시설 지속가능성 확보

○ 다양한 스포츠시설과 우수한 스포츠타운을 보유한 중소도시의 시설을 정비하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 체육시설, 숙박시설, 경기단체 및 일반사무실 등이 집적되어 있는 스포츠단지를 재정비하고 민간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이용률 제고

- 지역별로 전략종목 중심의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홍보 확대
-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친화형 트레이닝프로그램, 문화복지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운영
- 경기단체, 관련 기업 등이 집적한 스포츠단지에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수익창출사업 추진

○ 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문시설경영 도입

- 친선경기 및 합동훈련 주선, 각종 문화·체육·친목행사 유치, 차량 지원, 통역 인력 제공
- 체육시설 인근 수련원, 연수원, 숙박업소 등과 연계한 숙박-체험-관광 패키지 상품 제공
- 각종 문화·체육·친목행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력으로 구성된 유치단 운영

체육시설 활용 영역 확장

○ 스포츠시설을 본래 용도뿐만 아니라 문화·경제·사회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

- 스포츠 : 주민의 체력 증진, 선수 경기력 향상, 스포츠 이벤트와 전지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설 설계와 이용 프로그램 등을 체계화
- 문화 : 콘서트, 디너쇼 등
- 컨벤션 : 박람회, 회의, 연회, 파티 등의 경제사회적 이벤트 등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스포츠시설, 서비스, 프로그램을 유니버설화하여 복지자원으로 활용

- 아동 놀이치료 교실 운영, 장애인 일대일 스포츠 레슨 서비스 제공
- 노인그룹운동 프로그램 운영,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등

라. 생활체육 저변 확대

주민친화적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기의 신체·정신적 성장, 고령 인구의 신체적 허약 등을 고려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참여 기회 확장

○ 가족, 직장, 이웃을 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생활체육 참여 증진

- 캠프, 주말교실, 축제, 사진전 등 다양한 접근 시도

○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시간, 요금, 서비스 등을 세분화하고 다양한 아이템과 접목하여 주민친화성 제고

- 성수기, 방학, 계절, 분기별 혹은 1일 이용 시간대별로 요금 차등화
- 식사제공 서비스, 어린이 파티서비스 도입
- 시설 이용 패키지 상품(인근 시설 연계 이용), 가족 할인 이용권 등

동호인 육성 및 활동 지원

○ 생활체육의 기본 활동조직을 선진 체육구조인 스포츠클럽으로 육성

○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활동 및 운영 관련 행·재정적 지원과 협력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클럽화의 기반 구축

- 스포츠클럽매칭(야구, 농구 등에 관하여 경기장, 심판진 무료 제공), 스포츠클럽 멘토링 등 추진

○ 성, 세대, 지역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광범위한 스포츠클럽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체육활동의 영역 간 관계 형성과 발전적 유기성 제고

○ 스포츠클럽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할 있는 시설과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해당 스포츠의 전문성과 경영 역량 제고

6장

녹색성장지향형 지역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제1절 토지이용

1. 현황 및 문제점

가. 토지이용

지목별 토지이용

○ 경북의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은 '10년 현재 총면적 19,028㎢중 임야가 가장 넓은 13,684㎢로 7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농경지 3,214㎢(16.9%), 공공용지 421㎢(2.2%), 대지 293㎢(1.6%) 순으로 나타남.

○ 전국과 비교해 보면, 경북 면적은 전국토의 19.0%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상대적으로 임야의 비중은 21.2%로 높고 농지와 대지의 비중은 각각 15.9%와 10.7%로 낮은 실정임.

〈표 3-150〉 지목별 토지이용 변화 추이

(단위 : ㎢, %)

구 분	계	농경지	대 지	임 야	공장용지	공공용지	기 타
2000년	19,024 (100.0)	3,331 (17.5)	261 (1.4)	13,768 (72.4)	63 (0.3)	345 (1.8)	1,256 (6.6)
2005년	19,026 (100.0)	3,277 (17.2)	274 (1.4)	13,731 (72.2)	71 (0.4)	380 (2.0)	1,291 (6.8)
2010년	19,028 (100.0)	3,214 (16.9)	293 (1.6)	13,684 (71.9)	85 (0.4)	421 (2.2)	1,331 (7.0)
연평균 증가율	-	-0.40	1.29	-0.07	3.36	2.24	0.6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 최근 10년간(2000~'10)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대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토지이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공장용지의 증가율은 연평균 3.36%로 가장 높았음.

○ 반면 농경지 및 임야는 2000년 대비 각각 117㎢(3.5%), 84㎢(0.6%)의 면적이 줄어들어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용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짐.

시·군별 토지이용

○ 2005~'10년 간 시·군별로 도시용 토지로의 전환율을 보면, 경산시가 16.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영천시(15.4%), 성주군(13.9%), 고령군(12.1%) 순으로, 주로 대구시 주변도시들에서 도시적 토지용도의 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농경지의 감소율이 높은 시·군은 경산시와 구미시로 4%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대지로의 전환이 높은 곳은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보이고 있는 포항시, 구미시, 경산시로 나타났음.

〈표 3-151〉 시·군별 토지이용 변화율

(단위 : ㎢, %)

구 분	면적('10)	농경지	대 지	임 야	공장용지	공공용지	기 타
경 북	19,028.0	-2.0	6.6	-0.3	15.6	9.7	3.0
포항시	1,128.8	-2.6	11.6	-0.6	10.5	9.4	2.5
경주시	1,324.4	-2.7	6.6	-0.6	24.0	10.4	3.5
김천시	1,009.2	-1.9	3.7	-0.3	13.5	11.8	3.0
안동시	1,521.6	-1.5	5.7	-0.4	38.2	3.8	3.2
구미시	615.5	-4.0	11.8	-0.7	4.7	14.3	1.3
영주시	669.0	-1.1	4.9	-0.2	17.1	3.3	3.2
영천시	920.6	-2.8	5.2	-0.5	20.1	21.0	2.0
상주시	1,254.9	-1.9	4.2	-0.5	50.9	15.1	3.2
문경시	911.6	-2.2	5.3	-0.4	14.7	9.8	6.4
경산시	411.7	-5.2	10.6	-1.9	17.3	19.5	5.3
군위군	614.2	-1.5	5.2	-0.1	9.2	2.7	3.0
의성군	1,175.8	-0.6	1.9	-0.1	6.9	3.7	1.3
청송군	844.9	-0.6	4.4	-0.2	25.4	4.3	9.3
영양군	815.1	-1.3	5.9	0.0	46.1	7.8	-0.3
영덕군	741.1	-0.9	5.1	-0.1	19.9	3.5	1.5
청도군	693.9	-1.9	5.9	-0.2	15.9	11.3	-4.6
고령군	384.1	-2.1	4.7	-0.7	31.7	11.5	2.3
성주군	616.1	-2.8	4.9	-0.5	22.8	17.9	4.2
칠곡군	450.9	-2.5	7.9	-1.4	17.3	4.8	8.9
예천군	660.9	-1.0	3.9	-0.3	5.8	4.3	2.8
봉화군	1,201.4	-1.4	5.1	-0.1	12.1	7.4	2.7
울진군	989.2	-1.1	6.9	0.0	-1.4	2.3	1.7
울릉군	72.9	-1.5	7.6	-0.2	81.1	4.2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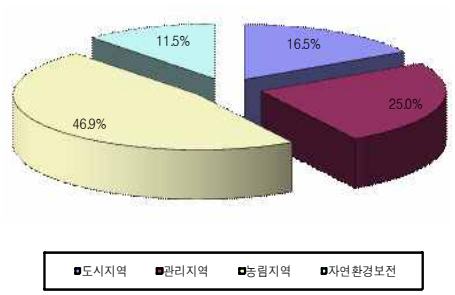
나. 도시계획

도시계획 결정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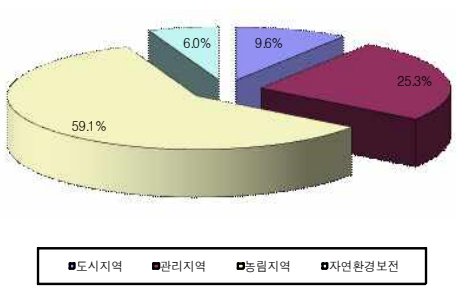
○ ’10년 경북의 용도지역 결정 현황은 고시면적 19,129.0㎢중 도시지역이 9.6%, 관리지역 25.3%, 농림지역 59.1%, 자연환경보전지역 6.0%로 용도가 배분되어 있음.

○ 경북의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비율은 34.9%,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로, 이는 전국과 비교할 때 낮은 편이어서 개발가용지와 공적규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됨.

<전국>



<경북>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자료(https://stat.mltm.go.kr)

〈그림 3-52〉 전국 및 경북의 용도지역 지정 현황

○ 2005~’10년 간 경북의 도시계획 결정 용도지역의 변화는 도시지역이 5.2%가 증가한 반면,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은 각각 1.1%와 0.4%가 감소하였음.

○ 시·군별로 보면, 도시지역은 경주시와 성주군의 증가세가 큰 반면 비도시지역은 경주시와 칠곡군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음.

○ 특히 관리지역이 크게 감소한 지역은 영덕군, 울릉군이며, 농림지역의 경우는 영주시, 포항시가 높게 나타났음.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 2000~’10년 간 도시지역은 1,413.9㎢에서 1,727.7㎢으로 총 313.9㎢가 증가하였는데, 이중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증가세가 각각 4.1%, 5.6%로 두드러지게 나타남.

〈표 3-152〉 도시계획 결정 용도지역 변화율

(단위 : ㎢, %)

구 분	결정면적('10)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계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경 북	19,006.0	5.2	-0.5	-1.1	-0.4	1.7
포항시	1,127.9	2.6	-0.9	23.0	-7.6	-0.5
경주시	1,323.7	12.8	-5.7	-2.9	-6.9	-1.0
김천시	1,029.6	7.4	1.7	2.5	1.4	-2.9
안동시	1,520.9	2.3	0.0	-12.4	7.6	0.3
구미시	616.3	6.5	2.6	-4.3	-1.6	242.7
영주시	668.9	1.1	-0.1	34.0	-25.1	0.1
영천시	918.2	5.4	-0.5	10.7	-5.0	11.5
상주시	1,254.6	1.8	-0.1	-6.7	3.0	-1.5
문경시	912.0	1.1	-0.1	-7.0	3.3	-2.1
경산시	411.8	4.6	-1.5	-2.0	-1.4	0.0
군위군	614.2	2.7	-0.0	3.6	-1.4	1.9
의성군	1,175.8	-5.9	-0.0	-15.7	7.6	1.0
청송군	847.1	-0.2	0.6	-4.1	2.8	-3.7
영양군	741.1	0.1	0.0	9.2	-2.0	-1.1
영덕군	815.1	0.0	0.0	-30.8	9.1	0.0
청도군	696.5	0.0	0.0	-6.3	2.6	0.0
고령군	384.0	0.0	0.0	-8.2	3.4	0.0
성주군	616.2	9.7	-0.1	4.1	-1.6	-9.1
칠곡군	443.5	0.7	-2.8	-10.3	2.5	-0.7
예천군	655.0	0.0	-0.9	6.6	-6.9	0.0
봉화군	1,201.0	0.0	0.0	-7.6	2.1	0.0
울진군	981.2	0.0	-0.5	71.0	-8.1	0.0
울릉군	72.6	0.0	0.0	-21.6	17.2	-0.0

주 : 미지정은 제외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06·2011

〈표 3-153〉 도시지역내 용도지역 변화 추이

(단위 : ㎢, %)

구 분	계	도 시 계 획 결 정					미지정
		소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2000년	1,499.2	1,413.9 (94.3)	139.4 (9.3)	21.8 (1.5)	78.7 (5.3)	1,174.0 (78.3)	85.4 (5.7)
2005년	1,767.5	1,641.6 (92.9)	182.2 (10.3)	24.4 (1.4)	95.5 (5.4)	1,339.5 (75.8)	126.0 (7.1)
2010년	1,850.7	1,727.7 (93.4)	199.8 (10.8)	25.4 (1.4)	128.6 (6.9)	1,374.0 (74.2)	123.0 (6.6)
연평균 증가율	2.4	2.3	4.1	1.7	5.6	1.8	4.1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다.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도시개발

○ 경북은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어 개발이 2010년 말까지 완료된 지구는 총 62개 지구에 개발면적은 20,546천㎡에 달함.

○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도시개발지구는 16개 지구에 5,177천㎡이며, 앞으로도 19개 지구에 면적 8,489천㎡에 이르는 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들 규모는 개발완료 면적의 66.5%에 달함.

- 현재 공사 중이거나 추진 중인 개발지구 중 조합을 결정하여 사업 추진하는 경우가 24개 지구로 공공 시행보다 4배 정도가 많음.

〈표 3-154〉 도시개발 추진 현황

구 분		지구수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수용호수 (호)	비고
택지개발 사업	계	38	12,109	18,683	102,221	
	완료	36	10,116	14,428	90,844	
	추진 중	2	1,993	4,255	11,377	
토지구획 정리사업	계	31	13,903	8,961	-	
	완료	19	9,401	5,750	-	
	공사 중	10	3,590	2,544	-	공정률 58%
	추진 중	2	912	667	-	
도시개발 사업	계	28	8,200	11,957	47,556	
	완료	7	1,029	2,438	5,160	
	공사 중	6	1,587	1,921	8,793	공정률 51%
	추진 중	15	5,584	7,598	33,603	

자료 :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자료, 2010년 말

산업단지

○ 경북의 산업단지는 2011년 6월 기준으로 국가산업단지 9개소, 일반산업단지 53개소가 완공 또는 조성 중에 있으며, 그 면적은 국가산업단지 84.29㎢, 일반산업단지 39.25㎢에 이름.

○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 산업단지는 24개소에 33.31㎢로서 모두 일반산업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며, 이들 산업단지의 조성규모는

기존의 완료·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와 유사함.

- 신규 조성 계획 산업단지 중 6개 단지가 지정 완료되었으며, 협의 중 8개 단지, 개발계획 및 타당성조사 중 10개 단지임.

○ 최근 들어서 지자체나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신규로 추진하는 산업단지의 개수나 조성면적이 크게 늘어난 관계로 경북도 차원에서는 산업용지 수급 조절과 입주수요를 감안한 산업단지 관리가 요구됨.

〈표 3-155〉 경북 산업단지 추진 현황

구 분		단지수	면 적 (천㎡)	사업비 (억원)	업체수	비 고
계		86	156,854	139,130	2,825	
조성 완료	국가산단	6	66,292	13,134	1,452	
	일반산단	26	24,064	13,652	1,373	
조성 중	국가산단	3	17,999	38,280	-	
	일반산단	27	15,185	22,258	-	131개 업체 분양
신규 계획	일반산단	24	33,314	51,806	-	지정완료 6, 협의중 8, 개발계획 및 타당성 10

자료 : 경상북도 건설도시방재국 자료, 2011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토지관련 트렌드

기후변화에 대응한 친환경적 토지수요 증대

○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증대로 도시외곽의 저밀도 개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지, 수변 등을 이용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수요가 늘어날 전망

○ 이와는 대조적으로 기후변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식량무기화 등으로 농지와 산지에 대한 보존 필요성이 부각될 것임.

○ 사회구조 및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따른 도시적 생활방식의 증가로 기반시설 등 공공용지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농촌지역에서도 대지, 도로, 철도, 학교 등 도시적 토지이용이 증대될 전망

도시공간내 토지의 입체적, 복합적 이용 증가

○ 미래에는 지하 및 공중공간 개발, 다기능 복합공간·건물 등 도시공간내 토지의 입체적, 복합적 이용이 증가

○ 집약적 토지이용을 통한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를 비롯한 주요 도시시설이 입체적·복합적으로 활용될 것임.

산업구조 등의 전환에 따른 토지이용 패턴 변화

○ 과학기술의 발달로 제조업 중심의 사회에서 고부가가치 지식산업 사회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토지이용 패턴과 토지수요구조 변화가 예상

○ 도시내 산업이 제조업기반에서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전환되면서 대규모 공장지대가 소규모 오피스 및 도시형 아파트형 공장으로 변화될 것이며, 산업구조 재편으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지속될 전망임.

여가 및 관광을 위한 농지, 산지의 개발수요 증가 지속

○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사업 추진,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의 본격 시행, 주5일제 전면 실시 등에 따라 레저 및 여가관광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농지, 산지에 대한 개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

○ 가치관의 다양화, 소득수준의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친자연, 체험형 여가 및 관광수요가 증가하여 농지, 산지, 해안 및 하천의 수변공간이 여가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임.

○ 초고속 교통수단의 등장과 연계교통 발달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던 농산어촌 관광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여가공간으로서 농산어촌의 위상이 강화될 것임.

토지관리제도 선진화 요구 증대

○ 지방화시대의 진전에 따라 토지에 대한 수요 조정, 토지용지 공급, 토지이용규제 완화 등도 지역특성에 따라 차등화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

○ 기후변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식량무기화 등으로 농지와 산지에 대한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녹지의 기능이 다양화될 전망

○ 인구구조, 도시관리 방식 등의 변화에 따른 토지수요구조 변화가 진행될 것임.

- 인구성장률 둔화 및 도시화의 안정화 추세로 도시용지의 공급 확대에 중점을 둔 도시개발정책의 재검토 및 지역 차별적 도시용지 공급정책 필요성이 증대될 것임.

나. 토지수요 전망

○ 토지수요는 주택용지, 공장용지, 공공용지 등 도시적 용지 소요량과 기타 농업용지를 포함하는 농업용 토지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망함.

- 도시적 용지의 수요 전망은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택용지, 공장용지, 국가·지역적 공공시설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용지를 기초로 추정

- 주거 및 상업용지 등 주택용지는 2020년까지 추가로 증가할 도시인구를 감안하여 개발밀도를 적용하여 추정

○ 주택용지의 수요는 2020년까지 신규 수용인구(약 29.5만명)중 도청신도시 유입인구 10만명을 제외한 19.5만 명을 개발밀도 100인/ha를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총 19.5㎢가 추가로 필요하며, 별도로 도청신도시에 계획된 주거 및 상업용지 3.5㎢를 더하여 총 23.0㎢가 필요한 것으로 산정함.

- 신규 수용인구는 2009년 기준 인구대비 2020년까지(목표인구 300만명) 증가되어야 할 인구는 29.5만명으로 산정(주민등록인구 기준)

- 개발밀도는 국토해양부의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2010)에서 제시한 개발밀도(저밀 100인/ha)와 도청 신도시 계획밀도(100인/ha)를 적용

○ 공장용지의 수요는 최근 10년간 공장용지 변화 추세(연평균 3.06% 증가), 경북에서 조성 중이거나 신규로 계획된 산업단지 개발면적, 산업입지 공급계획치 등을 감안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약 70.3㎢의 공장용지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산출됨.

- 경북에서 2009년부터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13개 단지에 19.9㎢, 신규

조성예정은 24개 단지에 33.3㎢으로 2015년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

- 산업입지 공급계획치는 「경북 산업입지 공급계획(2009)」의 2020년까지 산업입지 공급가능 면적인 86,926천㎡를 적용

○ 공공용지의 수요는 기존 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주택용지(19.5㎢)와 공장용지(70.3㎢) 수요의 1.2배인 107.8㎢가 추가되며, 여기에 도청신도시 공공시설 용지 1.7㎢을 더하여 2020년까지는 추가적으로 총 109.5㎢가 필요한 것으로 예상함.

○ 이를 종합해 볼 때, 도시적 용지는 2009년 현재 784.8㎢에서 2020년 987.6㎢으로 202.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2011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사업에 소요되는 개발면적 6.59㎢은 기타용지의 증가분에 포함하여 산출함.

○ 따라서 도시적 토지의 비중은 2009년에 4.1%에서 2020년 5.2%로 증가하는 반면 농업용 토지와 임야는 2009년 대비 각각 1.7%p와 0.7%p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추세(2005~'09년)를 보면, 농지 및 임야의 도시적 토지로의 전용 비율이 7.2:2.8정도이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2020년까지 농지는 314.3㎢, 산지는 122.2㎢가 전용될 것으로 추정

〈표 3-156〉 토지수급 전망

(단위 : ㎢, %)

구 분		2009년	2015년	2020년	증감면적 ('09~'20)
계		19,029.2 (100.0)	19,029.2 (100.0)	19,029.2 (100.0)	-
도시적 토지		784.8 (4.1)	906.9 (4.8)	987.6 (5.2)	202.8
	주택용지	290.3	302.6	313.3	23.0
	공장용지	80.5	133.7	150.8	70.3
	공공용지	414.0	470.5	523.5	109.5
농업용 토지		3,226.6 (17.0)	3,039.2 (16.0)	2,912.3 (15.3)	△314.3
임 야		13,693.3 (72.0)	13,619.7 (71.6)	13,571.0 (71.3)	△122.2
기 타		1,324.5 (7.0)	1,462.7 (7.7)	1,558.2 (8.2)	233.7

3. 계획의 방향

가. 목표

녹색성장지향형 토지이용과 관리체계 구축

○ 미래지향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 도모

○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및 시스템 구축

○ 보전지의 계획적 이용 및 관리 강화

나.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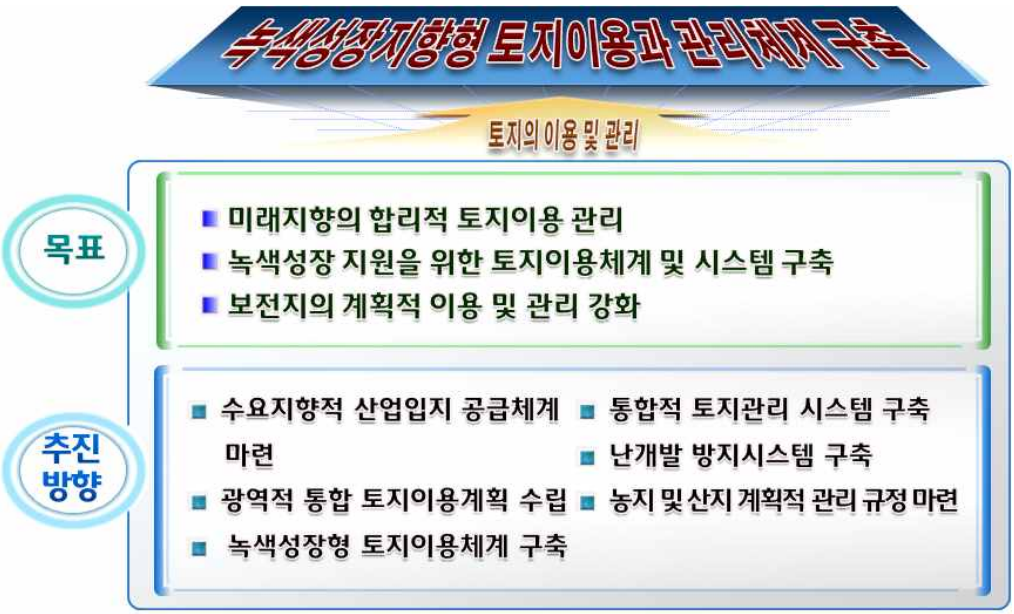
미래지향의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 도모

○ 수요지향적인 산업입지 공급체계 마련

○ 광역차원의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및 시스템 구축

○ 계획적 관리를 위한 난개발 방지시스템 구축



〈그림 3-53〉 토지이용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녹색성장형 토지이용계획 및 체계 정립

○ 통합적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보전지의 계획적 이용 및 관리 강화

○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4. 추진계획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관리

유연하고 수요지향적인 산업입지 공급체계 마련

○ 경쟁적으로 시·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입지 공급을 조절하기 위해 「경상북도 산업입지 공급계획」에 의거하여 4개의 권역별로 산업입지 공급계획을 운용하여 입지 공급의 유연성과 효율성 추구

- 산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경북 산업입지 공급계획' 수립을 통해 산업공급의 적정화 도모

○ 기술혁신의 가속화, 융합화의 진전 등으로 산업환경이 급변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체계를 마련

- 경북의 미래 성장유망산업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신재생에너지산업, IT 융·복합산업 등 산업구조 변동에 입각한 공급계획 마련하되, 산업단지 유형별(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여 수립

광역적인 통합 토지이용계획 수립

○ 도시용지를 공급하는 개별 시·군의 도시계획 방식에서 도청신도시권(안동·예천), 혁신도시권(김천·구미) 등 광역 및 연담도시권과 도농통합차원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설을 공동이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도청신도시는 행정중심 거점으로서 주변도시와의 유기적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적정 배분하도록 함.

- 주변도시내 부족시설인 의료, 문화, 교육환경 등 지원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나. 녹색성장 지원형 토지이용 관리체계 구축

난개발 방지시스템 구축

○ 난개발로 훼손된 토지를 회복시키고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발을 허용하는 시간적 지역제(Time-Zoning)를 경북의 토지정책에 적용하여 운용하도록 함.

- 시간적 지역제(Time-Zoning)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규제를 강화하거나,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

○ 개발압력이 높은 구미시와 대구와 인접된 경산시, 칠곡군 등을 대상으로 도시 성장 규모, 경제상황, 기반시설 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한 도시성장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단계적인 개발을 허용함.

○ 백두대간, 낙동정맥 등 주요 생태녹지축, 역사문화축에 해당되는 영주시, 문경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북부권 지역에 대해서는 목표연도의 관리목표를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함.

녹색성장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수요관리 정책 추진

○ 경북의 시급 도시를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도시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실천될 수 있도록 유도

- 탄소배출 현황 분석 및 예측, BAU(온실가스 저감목표) 설정 및 감축시나리오 설정, 탄소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등이 포함

○ 신규공급 위주의 토지정책에서 주택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직주균형개발, 도심재개발 등 토지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함.

○ 도시개발사업, 3대문화권 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공급은 농지 및 산지전용보다는 가급적 구릉지 개발과 기존 지역의 미개발 잔여지 및 개발가능지에 대한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함.

○ 시·군별로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

도하고 기존의 환경친화적 개발지침에 따라 자체심사를 강화하도록 함.

통합적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 도시용지, 농지, 산지를 계획적으로 포괄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토지이용과 보존의 효율성을 제고함.

○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농림지역)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여 주변지역의 개발상황과 보전 필요성을 기초로 개발지역과 보전지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토지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함.

○ 산업단지, 택지, 관광(단)지, 특수목적의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이 기존 도시환경을 저해하지 않고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개선함.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배치, 높이, 기반시설, 교통처리 등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후 시행하도록 유도

다. 보전지의 계획적 이용 및 관리 강화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계획적 이용·관리 규정 마련

○ 농지 및 산지의 적정 면적의 확보와 체계적·계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우량농지, 보전산지를 제외한 보전지를 재조정하고, 농지 및 산지 전용이 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되지 않고 전용허가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수 있는 세부규정을 마련함.

○ 농지 및 산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농업진흥지역, 준보전산지 등의 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우량농지 및 보전산지 관리에 활용함.

○ 특히 산지에 대한 개발수요는 가급적 준보전산지에서 충당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유도함.

제2절 수자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하천

하천자원 낮은 활용도

○ 낙동강의 경북 내 통과구간은 유로연장 262.34㎞에 달함. 안동 부근에서 반변천과 합류하고, 예천군 삼강리 부근에서 내성천과 합류하고 있음.

○ 경북의 중앙을 지나면서 위천(군위), 감천(김천), 금호강 및 회천(고령) 8개 하천이 낙동강의 제1지류를 형성하고 있음.

○ 경북은 낙동강 및 형산강이 주요수계를 이루고, 동고서저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낙동강을 따라 예천, 문경, 상주, 구미, 고령 등 서부지역에 주로 분포하여 동해안 지역에는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하천유량은 강우특성에 따라 하상계수가 높아 계절간 변동성이 심하고 경향성 뚜렷함.

-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하천이 갈수기인 가을·겨울철에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 어려움.

〈표 3-157〉 하천 현황 개요

구 분	하천수 (개소)	총연장 (㎞)	요 개 수(㎞)			
			소계	기개수	미개수	개수율(%)
계	4,058	11,480	16,445	8,747	7,698	53.2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 2012.

〈표 3-158〉 경북 주요하천별 현황

하천명	계 통	하천등급	하천연장 (km)	유로연장 (km)	유역면적 (km²)	비 고
낙동강	본류	국가	262.34	-	-	-
반변천	제1지류	국가	33.70	109.40	1,973.11	-
미천	제1지류	지방	52.50	59.13	374.82	-
내성천	제1지류	국가	27.00	108.20	1,814.71	-
영강	제1지류	지방	58.60	66.20	913.68	-
변성천	제1지류	지방	15.00	32.30	434.06	-
위천	제1지류	지방	87.50	87.50	690.16	-
감천	제1지류	국가	39.00	69.00	1,004.18	-
금호강	제1지류	국가	32.10	-	-	-
회천	제1지류	지방	24.50	-	-	-
형상강	본류	국가	36.00	63.34	1,140.00	-
영덕오십천	본류	지방	17.60	55.18	374.50	-
남대천(울질)	본류	지방	12.00	24.85	126.21	-
왕피천	본류	지방	27.00	60.95	513.71	-
곡강천	본류	지방	16.50	25.92	165.27	-
대종천	본류	지방	14.25	18.30	115.44	-

자료 : 국토해양부, 「한국하천일람」, 2010

나. 댐(호소)

상시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댐건설

○ 댐(호소)는 목적별로 구분하여 전기생산 및 용수공급, 생활 및 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등으로 나뉘며, 이중 전기생산 및 용수공급 등의 다기능 역할을 하는 안동댐을 포함하여 총 9개소의 댐이 있으며 총 저수량은 2,275.1백만톤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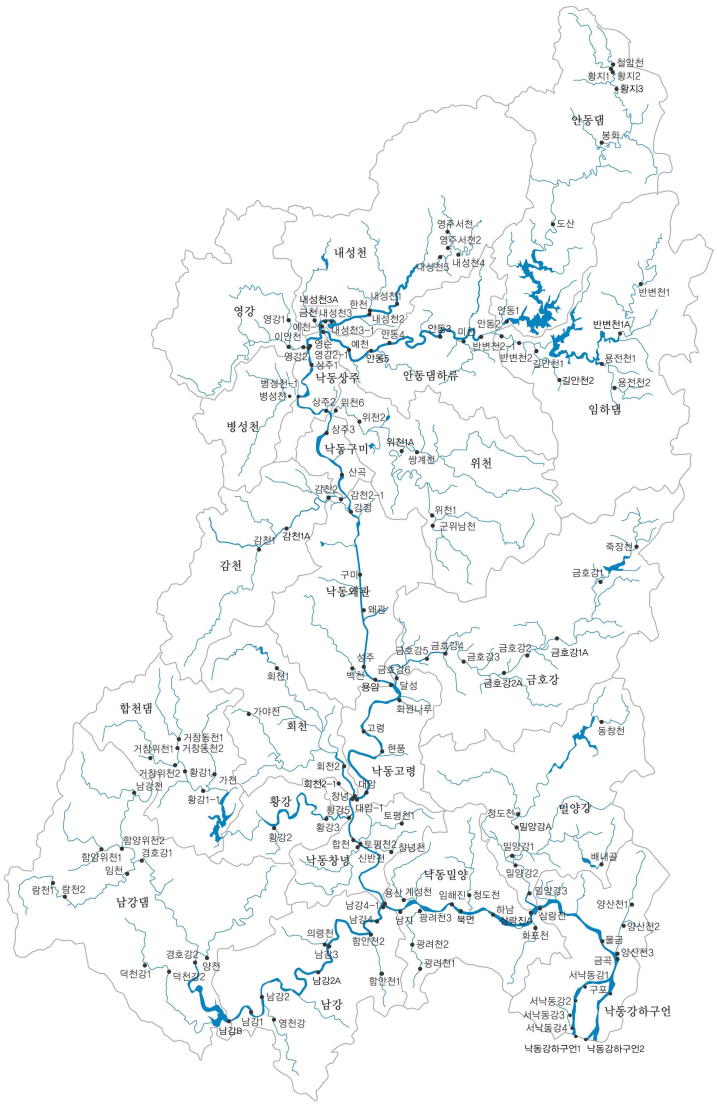
- 풍수기에 저류하였다가 물 부족 시기에 공급하는 다목적댐 2개소, 용수댐 6개소와 홍수유출을 지체시켜 홍수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함 지체댐 1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 다른 공공사업과 달리 댐건설은 대규모 수몰지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생태계변화, 주변지역 개발제한 등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하여 면밀히 검토·추진되어야 함.

〈표 3-159〉 경북 댐 현황

구 분		높이	길이	총저수량 (백만톤)	만수면적 (km2)	관리기관
계				2,215.6	99.93	
다목적댐	안동댐	83.0	612.0	1,248.0	51.50	수자원공사
	임하댐	73.0	515.0	595.0	26.40	
생활/공업 용수댐	영천댐	42.0	300.0	96.4	6.90	
	안계댐	32.5	223.5	18.0	1.40	
	운문댐	55.0	407.0	135.3	7.83	
농업용수댐	덕동댐	-	-	33.0	2.00	경주시
	경천댐	-	-	28.0	1.50	한국농어촌공사
	성주댐	-	-	38.0	2.20	
기타	감포댐	35.0	108.0	23.9	0.20	-

자료 :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http://www.wamis.go.kr)



〈그림 3-54〉 낙동강 수계현황도(댐 포함)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물부족 시대 도래

범국가적 기후변화, 용수사용량 증대로 물 부족 심화

○ ‘UN 미래보고서(2011.8)’에서‘피크오일(peak oil)’과 유사한‘피크워터(peak water)’개념을 제시하며 2025년에는 기후변화, 인구증가, 1인당 물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세계인구의 절반이 연간 1인당 물사용량이 1,000㎥가 되지 않는 물 부족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의 경우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평균의 1.4배이나 1인당 연 강수 총량이 2,591㎥로 세계 평균인 1만 9,635㎥의 13%에 불과하여 중장기적인 수자원 확보 계획 필요

하천 취수 의존도가 높을수록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으로 분류

○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량 변화폭 심화로 하천 취수의 불확실성 증대

○ 우리나라는 하천 취수율이 36%로 물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국가군에 속하며, 가뭄시 물 이용제한이 심함.

물의 재이용에 대한 관심 증대

○ 빗물이용,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water Reclamation, Recycling, Reuse)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나. 4대강 사업 후 수자원 환경 변화 대응

4대강 살리기 이후 수자원 관리 개념 변화

○ 기존 국가하천 지표수를 중심으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 추진하였으나 댐 및 보 설치 등으로 수환경의 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수자원 관리방안 변경이 요구됨.

○ 지류·지천을 포함한 유역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하천의 자정능력 개선을 위한 수생태 중심의 관리계획 수립 필요

보 중심의 수질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

○ 경북관내 6개 가동보가 조성됨에 따라 보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보중심의 수자원 확보 방안을 모색

○ 갈수기 시 수질 악화요인 발생 가능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질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통한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가 관건

○ 보와 연관된 수질사고 대응 기금 마련 필요

명품보 조성을 통한 수자원의 관광자원화

○ 4대강 사업 후 지역에 설치되는 가동보는 친수공간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에 따라 4대강 사업의 홍보, 지역 수자원의 우수성을 홍보할 기회 부여

○ 수변공간과 연계한 수자원 관광자원화를 추진하여 무형의 재화로 지역 경제발전에 도움

〈그림 3-55〉 낙동강 가동보 현황

다. 수자원의 워터 비즈니스화 추진

물산업, Blue Gold산업으로 부상

○ 물산업은 "각종 용수(생활, 공업 등)의 생산과 공급, 하·폐수의 이송과 처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총칭

○ 인구증가, 기후변화에 따른 물부족 심화, 수질오염 등으로 21세기를 선도할 Blue Gold산업으로 부상될 전망

- 물산업은 연평균 6.5%씩 성장, 2025년에 8,650억$(1,038조원) 시장 형성 전망(GWI)

〈그림 3-56〉 물산업 개념

○ 정부는 2025년까지 8,650억$ 물시장 선점을 위한 '물산업 육성전략' 발표

- 첨단 막여과, 스마트 상수도 등 물산업[6] 핵심기술 개발, 전문 물기업 육성, 친환경 대체용수 산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물산업 육성전략' 발표(2010. 10)

- 블루골드 시장을 주도할 원천기술 개발, 전문 물기업 육성 등을 위해 2020년까지 약 3조 4,609억 원 투자 계획

6) 물산업은 "각종 용수(생활, 공업 등)의 생산과 공급, 하·폐수의 이송과 처리 및 이와 연관된 산업"을 총칭

- 물산업 육성전략 중 물 재이용산업 육성을 위해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업 등을 신설하고, 재정투자 확충과 물재이용 의무화 대상 건물 및 물재이용 내수시장을 육성

경북 물산업육성 적극 대처

○ 경북은 이에 대응하여 기존 수질보전과를 물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물산업 기획담당을 신설함으로서 경북 물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의 전문화를 추진

○ '경상북도 물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권역별로 물산업 특화전략을 추진(2011. 1)

○ 풍부한 수자원과 고급 수질 확보를 통한 먹는물 불신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수처리분야 녹색기술 발굴·실증·보급 및 상용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 2015년 세계물포럼 및 낙동강국제물주간 등 국제행사 개최를 통해 물산업 해외진출 지원

3. 계획 방향

가. 목표

풍부한 수자원확보를 통한 물산업 선도

○ 지속가능한 수자원 개발

○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역량 강화

○ 차세대 워터비즈니스 육성

나. 추진방향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 경북은 남북으로 흐르는 낙동강과 다수의 댐을 보유한 수자원이

풍부한 지역의 장점을 극대화 도모

○ 안정적 물공급과 깨끗한 수질, 안전한 수변환경 조성, 수자원 관리를 위한 수자원통합관리체계 구축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계획 수립

○ 이수, 치수, 하천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수립 추진

○ 지역적 물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하수 재이용 및 빗물이용 확대

국가 물산업 선도하는 경북 '에코 워터벨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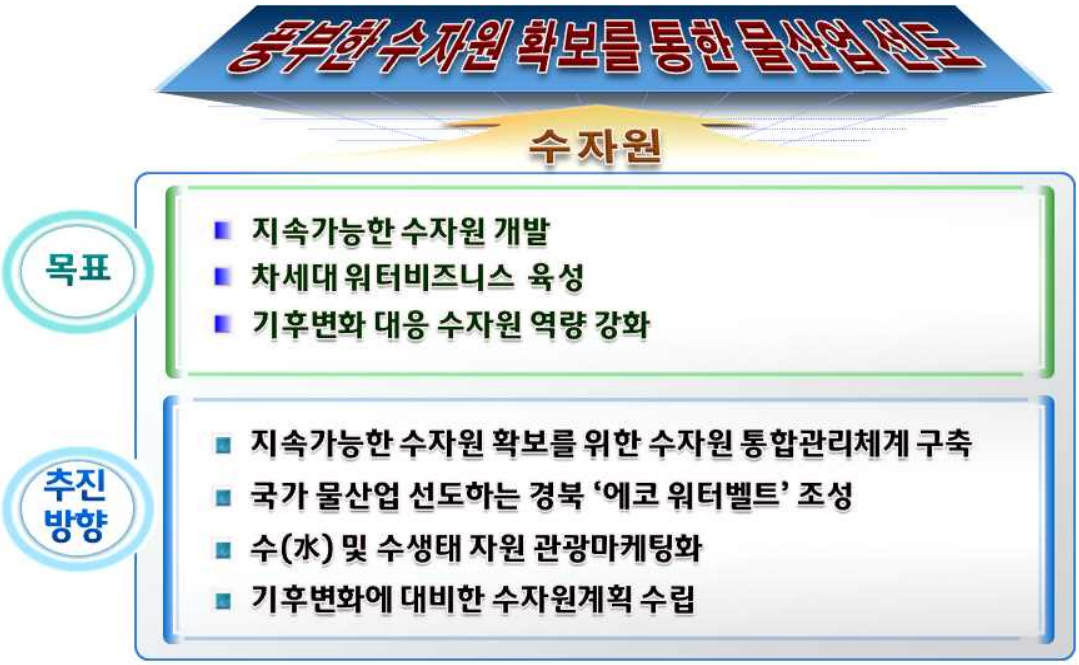
○ 권역별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

○ 글로벌 수준의 물산업 핵심기술 개발 및 수질오염 원천 해결

○ 지역기반 글로벌 물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신성장 동력 창출

○ 경북 수계와 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권역별 물산업 육성전략 추진

- 권 역 별 : 낙동강권역, 백두대간권역, 동해안권역
- 산업측면 : 첨단산업, 융합산업, 해양산업



〈그림 3-57〉 수자원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지속가능한 수자원통합시스템 구축

경북 수자원 지도 작성

- 지역의 다양한 수자원이 상존하고 있으나 가용량 및 잠재량 등에 관한 자료가 미흡하여 수자원의 활용도가 낮게 나타남.
- 광역 경계지역의 수자원 활용 극대화를 위해 시각화된 지도와 지속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 수자원 수치지도 및 관내 수자원 활용도 증대를 위한 자원도 제작 추진

경북 수자원통합관리센터 설립 추진

- 수자원의 이수, 치수, 처리 및 산업화 등 전과정이 연계되어 추진되어야하나, 현재 각 개별부문에 별도로 진행되어 활용 극대화를 위한 통합관리가 필요
- 다양한 수자원의 통합관리를 통한 상호 연계성 확보 필요
- 수자원 통합관리를 위한 센터 설립, 지역 수자원 전문연구, 행정적 관리기능 수행, 수자원통합시스템 관리 및 운영 추진
- 수자원에 지속적인 활용방안 연구, 기후변화에 대한 물수급 및 활용방안에 대한 적극적 대처 가능
- 수자원 현황 및 잠재량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의 지속가능성 도모

나.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지역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추진

- 국지하수, 빗물, 해수담수화 등 수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이용과 효율적 보전·관리를 위한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을 수립

- ‘수자원관리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 수자원관리 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기후변화 등 수자원 환경변화에 대비한 미래지향적 수자원 보전·관리 비전과 실천방안을 담아 5년마다 수행 결과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

- 수자원 관리계획, 경북 지하수의 고품질 자원화 방안, 지표수·하수 재처리수·해수 담수화 등 대체수자원 확보 방안,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기타용수의 수요·공급 관리와 확보 방안 등으로 나눠 수립

○ ‘수자원관리종합계획’에 의건 지하수, 빗물, 하천유출수, 해수담수화 등을 총괄하는 수자원관리 체제로 전환, 농업용수종합계획, 물수요관리종합계획 등 총괄적으로 수자원 관리 기반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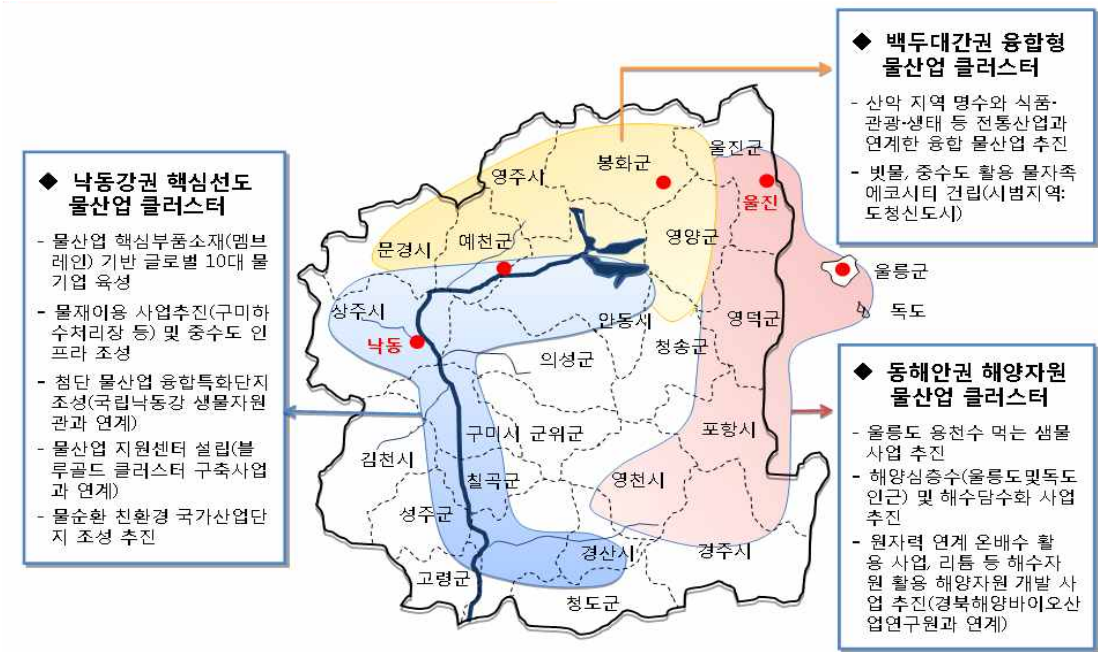
다. 물산업 ‘에코 워터벨트’ 조성

권역별 물산업 중점 육성계획 수립

○ 국가 물산업 정책을 선도하는 ‘경상북도 권역별 물산업 육성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 낙동강권역(구미, 상주, 안동), 백두대간권역(봉화, 영주, 영양, 도청신도시), 동해안권(울진, 울릉)

- 2011~2017년까지 물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3단계 추진



〈그림 3-58〉 권역별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 풍부한 수자원과 고급 수질 확보로 먹는물 불신 해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수처리분야 녹색기술 발굴·실증·보급 및 상용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표 3-160〉 '경북 물산업 육성계획' 주요내용

권역	R&D 인프라 및 잠재력	거점 지역	사업내용	소요예산 (억원)
낙동강 권 역	• 국립 낙동강 생물자원관 • 국립 경북대 상주캠퍼스 •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 사업 프로젝트 수행 • 수도권기업 유치용이, 교통 접근성 (동서 6축, 청원-상주, 중부내륙 고속도로)	구미 상주	• 낙동강 첨단 물산업 융합 특화 단지 조성 - 토탈 물산업 지원센터(500억) - 멤브레인 등 핵심 부품 · 소재 기술개발센터, 물산업 연관 융합산업화센터 등(3,000억) • 기타 물연관 산업단지(구미공단 연계): 1,500억	5,500
백 두 대 간 권 역	• 국립백두대간수목원(봉화) •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영주-예천) • 금강송 에코리움(울진) • 국가산채식품산업클러스터(영양)	봉화 영주 영양	• 생태관광 연계 백두대간 건강수 물산업(울진, 봉화, 영주) : (각 50억씩 총 150억)	700
			• 식품 산업연계 국가산채 식품 산업 클러스터 : 영양(50억)	
	• 도청신도시 물순환 수변도시 조성	안동 예천	• 빗물·중수도 재이용 에코시티 (500억)	
동해안 권 역	• GMSP, GIMB: 심층수 검증기관 - KORDI: 동해연구소 - POSTECH: 해양대학원(울진) • POSCO: 리튬산업단지 참여 •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 연구센터 /3개의 심층수 취수시설	울진 포항 울릉	• 울진 해수 재이용센터(500억) • 울릉도 심층수 연계 농공단지 (오징어/산채/소금) : 200억 • GIMB 해양심층수 벤처 프라자 (150억)	1,000
			• POSTECH 해양대학원 심층수 취수구 시설(150억)	

제3절 해양자원

1. 현황 및 문제점

가. 해양과학 인프라

GMSP를 중심으로 한 해양과학 R&D 인프라 풍부

○ 경북 동해안 지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유치와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GIMB) 건립을 통해 '경북해양과학연구단지'(GMSP)를 조성하고, 더 나아가 해양과학 관련 연구소 및 연구센터 건립 예정

〈그림 3-59〉 해양관련 연구기관 현황

○ 뿐만 아니라 지역에는 경북수산자원개발연구소가 위치해 있으며, 포스텍, 동국대, 위덕대, 영남대, 경북대, 대구가톨릭대 등에서 해양관련 연구소가 운영 중에 있는 등 다수의 연구기관이 입지

나. 해양자원

미래 청정에너지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 최근 고유가 시대를 맞아 새로운 에너지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대체에너지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
- 독도 인근해저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는 일명 '불타는 얼음'이라 불리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처럼 연소할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
-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세계 각국들은 미래의 청정에너지인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선점하기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앞을 다투어 해저를 탐사하며 연구·개발에 박차
- 우리나라는 2000~2004년 동해 전역을 조사(한국지질자원연구소,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한 결과, 총 9,000㎢에 달하는 지역에서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밝힘.
- 울릉도와 독도 근해 수심 1,500m 지역에 6억 톤에서 20억 톤 가량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
- 2005년, 가스 하이드레이트를 2014년까지 상업적인 목적으로 생산한다는 목표 아래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인산염암

- 동해 배타적 경제수역(수심 500~1,000m) 해저에 국내 수요량의 50년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2억톤 이상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
- 대부분 동해의 해저화산, 해저산, 해양대지, 대륙붕에 인접한 대륙사면 등에서 발견
- 독도 북쪽의 한국대지 사면에는 인산염암이 해저면에 노출돼 있고, 오산화인(P_2O_5) 함량이 30%에 이르며, 층상으로 형성된 인산염암의 두께가 약 20m에 이르러 경제적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평가

○ 인산염 광물은 무공해 천연비료 원료 및 기초소재로서 국내 인광석 수요는 연 152만톤으로 전량을 수입에 의존

○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개발은 미미한 상태

동해 특화자원 해양심층수

○ 해양심층수는 각종 미네랄과 영양염류가 풍부하고 세균이 없는 청정수로 식품, 건강, 미용, 농·수산, 관광,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해양자원

○ 청정성, 저온성, 부영양성 등의 특성을 보유

〈표 3-161〉 해양심층수의 특성

구 분	특 성
저온성	연중 안정적인 저수온 해수(약 2℃ 이하)
청정성	병원균과 유기오염물이 거의 없는 청정 해수
부영양성	해양식물 생장원인 무기 영양염이 풍부한 부영양 해수
숙성성	수압 20기압 이하에서 장기간 숙성된 해수
안정성	다양한 필수 미량원소가 균형있게 용존해 있는 안정 해수

〈표 3-162〉 해양심층수 이용분야

구 분		현 황	적용(활용)방안
수산 분야	증식	자원급감, 해양오염 위협	한해성 자원조성/관리 (도루묵, 대구,대게 등)
	양식	안정적 공급 요구, 식량오염	한해성 수산양식/축양 (연어, 노랑가자미, 김 등)
산업 분야	에너지	수입의존, 신재생에너지 탐색	냉각, 냉방, 냉장, 제빙
	물	물부족, 오염심각, 담수화기술	생수, 기능성 음료수
	소금	오염심각, 공업용(180만톤 수입)	청정소금, 기능성 소금
	식품	원재료 오염, 건강안전 위협	김치류, 장류, 주류, 두부, 염장류, 과자류
	약품	난치병 증가 및 신약개발 필요	당뇨약, 투석액
	의료	신경성, 알레르기성 질병 다발	피부염(아토피)치료, 해양요법
	미용	공해 심각, 민감성 피부 증대	화장품, 보습제, 입욕제
	자원	수입의존, 자원무기화 위협	희소금속, 에너지원
기타 분야	농업	농약의 과다 사용, 농산물 오염	냉온성 식물 수경재배, 토양내 응결 급수 등
	관광	수요증대, 기반취약	해양심층수 개발 및 이용기반의 관광화
	휴양	산과해양의 휴양시설 요구증대	생태형 청정촌 조성
	스포츠	해양활동 증가	해양공간의 스포츠 활용
	교육	해양관련 교육체험 부족	전시체험형 해양교육

- 일반적으로 수심 200m 이하에 위치한 해수를 해양심층수라 가정할

때, 경북의 경우에는 모두 연안으로부터 10㎞ 이상에 위치

〈표 3-163〉 연안으로부터의 수심별 거리

수심	50m	100m	200m	참고
죽변항	2 ㎞ 이내	약 4 ㎞	약 11 ㎞	
울진읍	약 3 ㎞	약 5 ㎞	약 17 ㎞	
후포항	3 ㎞ 이내	약 5 ㎞	약 20 ㎞	왕돌초
강구항	약 2 ㎞	약 9 ㎞	약 19 ㎞	
감포항	약 3 ㎞	약 9 ㎞	약 17 ㎞	
강원도 고성*			2.5 ㎞	

자료 :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 조기실용화 사업계획(안)」, 2002

- 울진에서 포항까지는 수심 200m까지가 11㎞ 이상, 수심 300m까지는 25~30㎞의 거리에 위치
- 지역의 해양심층수는 왕돌초 서측 해저협곡에 해당하는 일부 해역의 200m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해양심층수의 자원적 특성(청정성, 저온성, 부영양성, 高미네랄성 등)을 보유
- 수심 500m의 심층수는 연중 안정적인 자원적 특성 유지

〈표 3-164〉 경북 해양심층수의 수질 특성

구 분	200m					500m				
	수온 염분	일정 성분비	영양염 기준	유해 물질 방사능	결과	수온 염분	일정 성분비	영양염 기준	유해 물질 방사능	결과
울진(죽변)	○	○	○	○	적합	○	○	○	○	적합
영덕(왕돌초 협곡)	○	○	X	○	부적	○	○	○	○	적합
포항	○	○	○	○	적합	○	○	○	○	적합
경주	○	○	○	○	적합	○	○	○	○	적합
울릉	○	○	X	○	부적	○	○	○	○	적합

자료 : 경상북도, 「경북 해양심층수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008

- 경북도에서는 울릉군에서만 심층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울진군은 구상단계

- 울릉군에서는 2002년 9월 파나블루(旧울릉미네랄(주))가 해양심층수 및 관련 상품 개발 및 판매의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4년 12월 울릉군 북면 현포리에 취수관을 설치하고 국내 최초로 해양심층수 취수에 성공

- 2005년에는 식품 브랜드 심해원(深海園)을 개발하고 첫 상품으로 고품격 소금제품을 출시하였으며, 2006년 3월부터 해양심층수 전문브랜드 U650을 선정하여 해양심층수 소금 U650 및 음용수 슈어를 시판

- 울릉군은 저동에서 수산물 세척 등 공공목적으로 심층수를 개발·이용하고 있으며, 대아해운은 음용수 등 제품을 개발, 판매

〈표 3-165〉 경북 해양심층수 개발 현황

취수해역	취수거리 (㎞)	수심 (m)	취대취수량 (톤/일)	회사명/ 사업주체	개발방향 및 생산품
울릉 저동	6	700	1,800	울릉군	수산물 세척, 제빙
울릉 현포	8	1,500	3,000	파나블루	음용수, 소금 등 (슈어, U-650)
울릉 태하	3	418	2,000	울릉심층수	음용수, 소금 등 (청아라)

- 또한 경북도는 2008년에 '경북 해양심층수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

▶ 심층수연구중심지구(울진) : 해상형 심층수연구개발사업, 심층수활용 바이오식품 및 수산양식 연구개발

▶ 심층수관광중심지구(영덕, 포항, 경주) : 심층수활용 해양에너지 개발, 도심형 심층수체험관광단지 조성, 심층수활용 의약품 등 융합상품 개발

▶ 심층수산업화중심지구(울릉) : 경북해양심층수산업단지 조성, 심층수특산품 및 해양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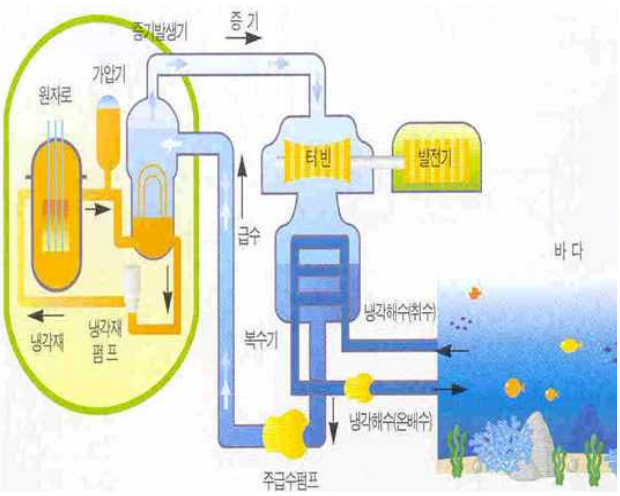
자료 : 경상북도, 「경북 해양심층수개발 기본계획」, 2008

〈그림 3-60〉 경북 해양심층수개발 기본계획

고온 특성의 온배수

○ 발전소에서 냉각수로 사용되어 배출된 해수

- 일반적으로 발전소에서는 자연해수(냉각수)를 복수기 전열관을 통과시키면서 수증기를 냉각, 응축하여 다시 물로 바꾸어 주는데, 이 과정을 거친 해수는 자연해수보다 수온이 6~7℃ 정도 상승되어 바다로 배출



<그림 3-61> 온배수 배출경로

- 해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배수구를 빠져나간 온배수는 자연해수와 혼합되거나 대기 중으로 열을 발산

○ 국내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냉각수로 바닷물을 사용하며, 100만 ㎾급의 발전소 1기에서 사용하는 해수의 양은 초당 약 50~60톤 정도

- 1℃ 확산 범위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의 경우 5.0 ~ 6.6 ㎞ 정도

○ 고온특성을 가진 온배수는 농수산업 등에서 열원(熱源)으로 활용

- 저수온(14℃ 이하) 기간이 긴 국가에서는 고수온에 적합한 수산생물의 양식에 활용

- 시설농업(화훼, 특용작물 등)의 열원으로 활용 가능

- 그 외 도로 결빙작업, 건물 난방, 열대 식물원 등에 이용 가능

○ 경북 동해안지역에서 온배수가 배출되는 해역은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울진과 경주지역

○ 울진원자력발전소는 6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2기의 원자로가 추가 건설 중

- 2011년 현재, 300톤/초의 온배수가 바다로 방출(향후 400톤/초)

○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에 4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며, 이곳 역시 2기의 원자로가 추가 건설 중

- 2011년 현재, 200톤/초의 온배수가 바다로 방출(향후 300톤/초)
- 월성원전에서는 현재 온배수양식장을 만들어 민간기업에 위탁하여 주요 수산 어패류의 종묘를 양식
- 1998년 5,290㎡의 부지에 종묘배양과 성어양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설을 준공하여, 2년간의 시험양식(한국해양연구원)을 거쳐 넙치, 참돔, 황복, 전복 등 고급 어패류 10여종을 양식
-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월성원전에서는 자체 생산한 어류와 전복치패 등을 매년 인근해역에 방류하고 있으며, 고리와 울진원전 인근해역에도 방류토록 지원

개발가능성이 높은 해양에너지원

○ 동해안은 우리나라 어느 해역보다 바람, 파도, 태양광 등 해양에너지원의 자연적 조건 우수

○ 파력에너지

- 동해안은 전반적으로 파랑에너지 밀도가 높은 해역이며, 특히 경북 동해안은 해안선으로부터 5~10㎞ 이내 수심 100~150m 해역이 광범위하게 분포

○ 해상풍력에너지

- 동해연안은 풍속, 풍향(북서, 남동풍 우세) 등 해상풍력발전의 지정학적 입지요건이 우수
- 죽변의 경우, 풍력에너지 밀도 476w/㎡(풍력등급 4등급, 경제적 수익성이 보장되는 등급)

○ 해양바이오에너지

- 대형 해조류 혹은 미세조류를 대규모 배양하기 위한 자연 조건(영양염류 등)은 남해안이나 서해안보다 좋지 않으나, 광합성에 필요한 태양광의 경우 일조량이 전국 평균보다 높음.
- 남해안이나 서해안에 비해 대형 해조류를 생산할 수 있는 가용면적이 넓고, 양식어장이 적어 대형해조류 생산에 영향을 받지 않음.

- 바이오 에탄놀 생산을 주 대상으로 하는 식물은 대형 해조류로, 이들은 수온이 비교적 낮은 냉해수에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동해안이 최적지 (일본의 Ocean sunlight 계획/대상해역 : 동해 대화퇴)
- 경북 동해안에는 국내 최대 전력생산의 원전이 위치해 있고, 4세대 원자력발전소가 입지될 경우 원자력 수소생산의 잠재력과 해양바이오 에너지와의 연계 가능

○ 해수온도차 에너지

- 온도차 발전을 위해서는 약 20℃ 정도의 온도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해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에서도 불가능
- 경북 동해안은 상시 저온(2℃ 이하)의 냉수가 저층에 분포하고 사계절 18℃ 이상 되는 해수가 대단위 발전소로부터 배출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는 울진, 경주가 유일하게 온도차 발전을 할 수 있는 곳

해양자원과 연계 가능한 자원 다양

○ 양호한 해양관광 자원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 : 후포(거점형), 두호(리조트형), 양포(레포츠형) 지정
- 해수욕장, 바다낚시, 스쿠버다이빙, 요트, 보트 등

○ 경쟁력있는 역사·문화·생태 관광자원의 보고

- 풍부한 지역전통문화자원 및 특산식품
- 수려하고 청정한 육상 및 해양 자연자원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들이 동해안과 낙동정맥을 따라 분포

다. 문제점

지역의 해양에 대한 이해 및 역량 부족

○ 전 세계적으로 해양이 미래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사회에서는 해양을 낙후된 분야(수산) 또는 미래산업(해양)처럼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로 인식

○ 해양과학 R&D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포스텍 해양대학원이

건립될 예정이나, 일반인의 해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전문인력이나 종사자의 교육 및 양성을 위한 기관과 프로그램 미비

지역 해양발전의 기반인 GMSP의 내실 부재

- GMSP는 기 입지한 2개의 연구기관과 조성 중인 해양바이오산업단지, 계획 중인 해양과학교육관 등으로 구성될 예정
- 그러나 구성 주체간 역할 분담이나 연계·협력 방안, GMSP의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한 마스터플랜 부재
- 그 결과 GMSP 구성주체에 대한 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구성주체간의 연계·협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GMSP에 대한 의식도 부족
-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정주환경 미흡

R&D-자원개발-산업화의 선순환구조 미구축

- GMSP를 비롯해 지역에 다양한 해양과학 연구기관들이 입지해 있으나, 연구기관간 연계·협력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시너지 효과 창출 곤란
- 연구자-연구기관-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상품개발이 긴요하나, 산-연-관 간의 연계 부족과 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의식 및 역량 부족으로 미진한 상태

해양 R&D 및 산업의 특성화 부재

- 연구기관간 역할분담 부재로 중복 연구의 우려가 높으며, 산업 역시 타지역과의 차별성이 모호해 경쟁력 담보가 곤란
- 지역특성에 부합하고 타지역과 차별성있는 비교우위성을 가진 특화된 연구개발기술 및 산업 발굴 필요

기타 문제

-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도시 및 해양산업 부재
- 해양자원의 관광자원화 및 육상관광자원과의 융·복합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부족

2. 여건변화와 전망

해양의 가치에 대한 인식 증대

○ 생명의 근원

- 지구 생물의 90%인 해양생물이 지구표면적의 71%인 해양에 서식 : 인류에게 25%의 생물상품과 16% 이상의 동물성 단백질을 제공
- 지구의 산소 공급 및 공기 정화기능 수행 : 산소공급원 → 바다 75%, 육상 25%, 이산화탄소 정화 비율 → 바다 50%, 육상 50%
- 열의 수급과 이동을 통해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기능 수행
- 거대한 담수 공급원 : 육상생물의 생존에 필수적인 담수의 36%를 제공, 해양생물의 육상양식에 이용되거나 양질의 음용수로 개발, 이용

○ 미래 자원의 보고

- 고갈되는 육상자원의 대체재이자 미래 산업원료의 공급처
- 해양 생태계 연간 총가치(네이처(Nature)지(1997)) : 해양생태계 22조 5,970억달러, 육상생태계 10조 6,710억달러
- 금속 매장량 : 해양 10,000년, 육상 110년
- 석유 부존량 : 육지 부존량과 같은 1.6조 배럴에 이르고, 그 중 62%는 미개발 상태
- 조력, 파력, 온도차, 염도차 발전 등 막대한 청정 에너지자원 존재 : 150억 kw로 추정
- 메탄 하이드레이트 : 화석연료의 2배인 250조㎥ 매장
- 망간, 니켈, 코발트 등의 광물자원도 상당 부존 : 이용가능기간 육지 40~110년 정도, 해양 200~1만년 정도

해양을 국가경쟁력 확보의 새로운 원천으로 인식

○ 해양을 통한 녹색성장 실현 도모

- 세계 각국은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생존과 직결된 필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적극 대응

- 해양생물, 광물자원, 해양에너지 개발 등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육성

○ 해양자원의 이용·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통한 해양산업 발전 도모

- 특히 해양생물 자원 확보 및 산업화를 위한 경쟁 치열

해양영토 확보 및 자원개발 경쟁 심화

○ 200해리 EEZ 정착에 따라 해양자원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간의 관할권 경쟁 심화

- 전 세계 어업자원의 90%, 해양석유의 87%가 EEZ 내에 부존
- 도서영유권 등을 둘러싼 해양영토 확보 경쟁 심화

○ 공해상의 해양 개발 및 선점을 위한 국제경쟁 가속화

- 남·북극해, 태평양 등 대양진출 확대

○ 기후변화와 육상자원 고갈 대응차원뿐만 아니라 미래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도 해양자원 개발 경쟁 강화

- 해양자원 개발의 광역화 및 협력 확대, 심해저 자원 개발 및 상용화 등

해양과학R&D의 발전 및 확산

○ 해양자원의 개발, 실용화, 산업화 및 보존관련 기술 연구 심화 및 확산

○ 해양에너지, 신물질 추출, 레저산업 등 차세대 고부가가치산업에 경쟁적으로 연구개발비 투입

해양 공간의 고부가가치화 및 해양활동 수요 증가

○ 해양 및 연안공간은 어업, 해운물류, 항만, 해양관광 등 해양경제 발전과 직결되는 공간

- 단편적 이용에서 벗어나 해양레저 관광지, 해양클러스터 등이 융합·복합된 공간으로 재창출 : 생태교육과 관광, 항만과 레저이용, 관광과 어항이용, 신재생에너지와 관광 등
- 해양플랜트 개발

○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레저, 휴양공간으로서 연안 및 해양에 대한 이용수요 증대

3. 계획 방향

가. 목표

해양자원의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주도하는 해양경북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 해양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나. 추진방향

해양과학R&D 역량 강화

○ 지역 해양발전의 기반인 GMSP가 명실상부한 해양과학의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 강구

○ 동해안을 따라 입지하고 있는 해양과학 연구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연계·협력방안 강구를 통한 특성화 및 연구 역량강화

○ 기업이 필요로 하거나 미래발전 가능성이 높은 실질적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화 방안 모색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해양의 이해 제고와 해양·수산 종사자 및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구축 방안 강구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 해양심층수와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지역해양에 분포하고 있는 해양자원들은 지역의 미래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활용 계획 수립 추진

○ 수산, 의약, 미용, 농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해양심층수의 산업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방향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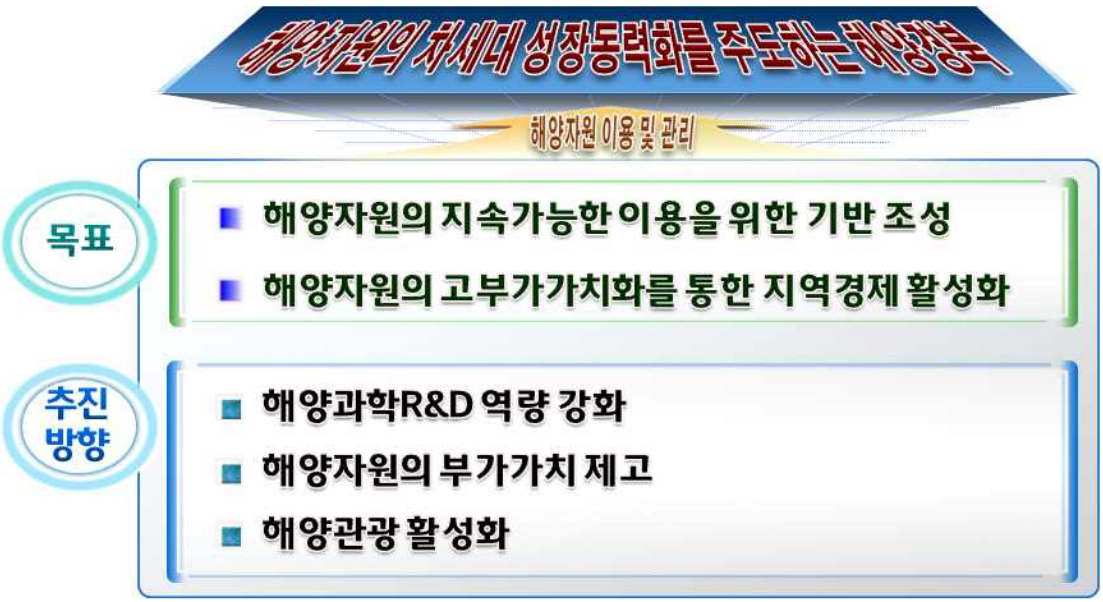
○ 해양심층수와 원전 온배수, 수산자원 등의 해양자원간 융복합화를

통한 해양에너지, 수산자원의 고부가가치화,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방안 강구

해양관광 활성화

○ 각 지역별로 분포하고 있는 해양관광자원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능 특화방안을 모색하고, 산악, 계곡, 온천, 역사·문화, 축제 등 다양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방안 모색

○ 변화하는 해양관광 트렌드에 부합하고 지역해양관광 발전의 토대가 되는 기반시설 확충



〈그림 3-62〉 해양자원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해양과학 R&D 역량 강화

해양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전문가 양성

○ 작은 대양으로서의 특성을 가진 동해의 해양특성과 다양한 해양자원의 특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와 GMSP를 비롯한 지역해양에 대한 관심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전시, 체험시설을 조성

○ 해양 관련 연구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아카데미 운영으로 일반인의 해양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전문가 양성을 통해 지역 해양산업의 발전을 도모

○ 울진에 건립 중인 포스텍 해양대학원이 연구 및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해 GMSP와 지역의 해양·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들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관련 연구 및 교육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해양자원 R&D기관 확충

○ 동해 해양에너지연구센터 건립을 통한 동해안권 해양에너지(파력, 해류, 해수온도차발전 등) 자원연구 활성화

○ 파력, 해류, 해상풍력, 해수온도차 발전 등 친환경 해양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환경보전

○ 원자력 발전소 온배수 및 다양한 해수자원을 활용한 종묘 배양장 조성 및 해양바이오 에너지 생산으로 지역산업 기반 구축

독도 영토수호를 위한 해양연구 인프라 조성

○ 동해(독도) 생태환경과 자원조사·연구, 해저지진 및 해일에 대비한 모니터링 등 동해 해양환경 조사와 심해자원의 광역탐사를 위한 동해(독도) 전용 해양연구선 건조

○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립함으로써 동해권 기상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해양 기상·어장 예보의 적중률 향상 및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

나.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및 상용화 추진

○ 가스하이드레이트는 국내 가스소비량의 30년에 해당하는 6억 톤 정도가 동해에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향후 엄청난 개발이익이 기대

○ 울릉도·독도 근해에 분포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상용화를 위한 유

리한 여건조성 필요

○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신해양산업 개발 육성을 위한 실용기술 산업화 추진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원 설립과 연계, 미래 에너지 위기에 대비하여 새로운 에너지인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

○ 화석 연료 기반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세대 대체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이 가능

해양심층수 및 온배수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농수산, 기능성 식품, 미용, 담수화, 에너지, 요법,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가능한 해양심층수의 체계적 이용 및 개발, 산업화 필요

○ GMSP를 중심으로 해양심층수의 취수-연구·개발-이용-산업화의 전 과정이 집적된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단계적 이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심층수를 지역의 새로운 녹색성장동력으로 활용

○ 다양한 영양염류와 청정성 및 저온특성을 가진 심층수를 냉수성 어종의 증·양식에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

○ 바다로 버려지는 고온 특성을 가진 온배수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온배수의 배출·확산해역에 바다목장을 조성하고 양식업에도 활용

해양식품·소재산업 육성

○ 동해안지역에서 취약한 음식산업의 고급화, 다양화 및 게, 오징어 등 다양한 수산자원에서 추출한 유용물질을 활용한 해양식품·소재산업 육성

○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를 집단화하여 체계적인 오·폐수처리시설을 갖춘 친환경적인 수산업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첨단해양산업 육성

○ 차세대 레저선박 융복합센터 조성을 통한 첨단 선박 원천기술 개

발과 핵심 부품·소재 생산으로 조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위그선의 상용화로 해상교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점증하는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한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특화지역 조성

○ 차세대 레저선박 기술개발센터 운영, 크루즈 및 위그선 부품·소재 국산상용화 기술개발, 부품·소재 생산 집적지 조성, 어업관련 장비 및 해양레저 관련 장비생산 산업단지 조성, 글로벌 해양비즈니스타운 건립 등

다. 해양관광 활성화

지역별 기능 특화

○ 경북 동해안의 시·군들이 보유한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지역별로 특화·연계시킴으로써 지역의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

- 포항 : 도심형 해양관광
- 경주 : 녹색해양체험관광
- 영덕 : 해양휴양관광
- 울진 : 해양과학 체험교육관광
- 울릉 : 해양생태관광

지역간 자원 연계프로그램 개발

○ 해안을 중심으로 조성 중인 탐방로를 연결한 '명품 10길' 조성

○ 일출을 테마로 한 'SUN 로드'

○ 해양·수산과 관련한 박물관과 연구기관, 체험시설, 양식장, 바다목장 등을 연계한 '해양과학체험교육벨트' 또는 '유기수산체험벨트'

○ 축제를 테마로 한 '해양축제기행'

○ 해양 역사·민속자원과 어촌체험 등을 연계한 '옛날이야기 따라 가기' 또는 '해양전통문화관광벨트'

○ 특산물과 토속음식을 연계한 '맛기행'

○ 해수욕장과 온천, 해안길 등을 연계한 '웰빙휴양관광벨트'

○ 특정한 상품을 주제로 한 '대게 여행', '크루즈 관광' 등

〈그림 3-63〉 지역간 자원 연계프로그램 개발(안)

해양관광 기반 확충

○ '제1차 마리나항만 기본계획(2010)'에서 지정된 두호항, 양포항, 후포항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한 해양 레포츠 체험공간 개발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여 해양관광 발전 도모

○ 기존의 어촌·어항기능을 환경친화형 휴식공간 및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 필요한 시설을 개선·확충함으로써 어촌관광 활성화 도모

○ 천혜의 해상자원을 이용한 해양관광단지 및 레포츠단지 조성을 통하여 특화된 해양관광단지 개발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지역고유의 역사문화자원을 스토리텔링한 복합체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제4절 에너지 및 지하자원 개발

1. 현황 및 문제점

가. 에너지소비 현황

2010년 기준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9,134천TOE

○ 2010년 국내 최종에너지소비량 193,832천TOE의 9.9% 수준

○ 에너지원별로 볼 때, 석탄 소비량이 전체의 50.7%로 가장 많고, 석유(20.6%), 전력(18.7%), 도시가스(6.8%) 등의 순

○ 최근 5년 간 경북 최종에너지소비량은 점진적 증가 추세

〈표 3-166〉 경북 최종에너지소비 추이

(단위 : 천TOE)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국	합 계	173,584	181,455	182,576	182,066	193,832
	석 탄	22,660	24,249	26,219	23,895	27,968
	석 유	97,037	100,622	97,217	98,370	100,381
	도시가스	18,379	18,955	19,765	19,459	21,081
	전 력	29,990	31,700	33,116	33,925	37,338
	열에너지	1,425	1,438	1,512	1,551	1,718
	신재생	4,092	4,491	4,747	4,867	5,346
경 북	합 계	15,397	16,797	17,716	16,858	19,134
	석 탄	7,213	8,297	9,342	8,333	9,698
	석 유	4,176	4,140	3,892	3,832	3,945
	도시가스	866	895	990	1,102	1,301
	전 력	2,925	3,118	3,196	3,267	3,577
	기 타	217	348	297	324	613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석탄소비 추세

○ 2010년 기준 경북 석탄소비량은 401천톤 규모

- 석탄소비량은 증가하다 2009년 전년대비 18% 감소 후 다시 증가

〈표 3-167〉 경북 석탄소비 추이

(단위 : M/T)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월(년)말 저탄량	계	69,168	151,139	146,080	248,888	173,818
	국내탄	62,234	135,411	106,556	34,374	144,355
	수입탄	6,934	15,728	39,524	214,514	29,463
반입량 (수송량)	계	542,833	415,192	537,004	343,351	412,343
	국내탄	487,238	312,837	488,994	296,683	347,007
	수입탄	55,595	102,355	48,010	46,668	65,336
	철도	436,405	231,042	573,406	283,251	412,437
	해상	511	540	1,143	652	1,169
	도로	105,817	183,410	387,092	59,448	187,992
소비량	계	460,862	420,279	465,196	381,092	401,503
	국내탄	414,061	341,719	414,770	332,513	347,277
	수입탄	46,801	78,560	50,426	48,579	54,226
저탄량	계	151,139	146,080	218,637	173,818	184,658
	국내탄	135,411	106,556	181,410	144,355	144,085
	수입탄	15,728	39,524	37,227	29,463	40,57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석유소비 추세

○ 2010년 기준 경북 석유소비량은 3,816천톤 규모

- 최근 석유소비량은 큰 변화없이 보합세를 나타내다 2010년 전년 대비 16.5% 감소

○ 2010년 기준 경유소비량이 전체의 45.3%로 가장 많고, LPG(23.3%), 휘발유(18.8%), 등유(15.9%) 등의 순

〈표 3-168〉 경북 석유소비 추이

(단위 : M/T)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4,615,886	4,893,643	4,604,081	4,569,327	3,815,657
휘발유	583,799	641,479	645,934	691,222	716,364
등유	509,116	470,980	502,608	500,383	606,896
경유	1,794,776	1,852,615	1,695,467	1,722,033	1,728,204
벙커C유	779,881	774,955	648,795	517,339	485,351
LPG	780,676	903,823	885,237	921,689	887,703
기타	167,640	249,791	226,040	216,661	278,842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전력소비 추세

○ 2010년 기준 경북 전력소비량은 41,589천MWh 규모

- 2006년 대비 26.1% 증가

○ 부문별 전력소비량은 산업용이 71.5%로 가장 많고, 서비스업용(18.1%), 가정용(7.3%), 공공용(3.0%)의 순

- 서비스업용 전력소비량이 23.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었고, 가정용(10.6%), 산업용(6.4%), 가정용(5.0%) 순

○ 산업용 전력소비량은 제조업에서 가장 많고(95.8%), 농림수산업(3.7%), 광업(0.5%) 순

- 2006년 대비 농림수산업 40.9%, 제조업 25.6% 증가하였으나 광업은 8.2% 감소

〈표 3-169〉 경북 전력소비 추이

(단위 : MWh)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32,993,354	38,297,889	37,164,797	37,983,309	41,589,052
가정용		2,592,869	3,208,321	2,769,360	2,842,914	3,053,418
공공용		886,806	1,204,890	1,072,483	1,146,216	1,267,612
서비스업용		6,234,893	7,946,270	6,893,083	6,944,000	7,523,485
산업용	계	23,278,786	25,938,408	26,429,871	27,050,179	29,744,537
	농림 수산업	787,551	1,110,342	961,901	1,039,941	1,109,736
	광 업	160,740	200,670	162,309	142,355	147,507
	제조업	22,330,495	24,627,396	25,305,661	25,867,883	28,487,29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도시가스소비 추세

○ 2010년 기준 경북 도시가스소비량은 1,232천㎥ 규모로 증가세를 나타냄.

- 도시가스소비량은 2006년 대비 49.3% 증가하였고, 판매소도 2006년 388천개에서 2010년 528천개로 36.1% 증가

〈표 3-170〉 경북 도시가스 공급량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판매소(개소)	388,499	428,644	467,850	496,935	528,026
판매량(1,000㎥)	825,104	847,960	938,349	1,044,789	1,231,857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부문별소비 현황

○ 2010년 기준 경북 부문별 에너지소비량은 산업 부문이 14,473천 TOE, 75.6%로 가장 많음.

- 산업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2006년 이후 증가하다 2009년 감소 이후 다시 증가

○ 수송 부문 에너지소비량은 전체의 11.6%이며, 2006년 이후 증가하다 최근 보합세

○ 가정상업과 공공기타 부문은 각각 전체의 11.4%, 1.4%이며, 최근 5년 간 보합세를 나타냄.

〈표 3-171〉 경북 부문별 에너지소비 추이

(단위 : 천TOE)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산업	12,935	12,389	13,288	11,635	14,473
수송	2,147	2,220	2,133	2,230	2,226
가정상업	1,953	1,937	2,039	2,041	2,173
공공기타	250	252	256	257	262
합계	17,286	16,797	17,716	16,162	19,134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나. 에너지공급 현황

발전설비 현황

○ 2010년 기준 경북 내 발전설비 용량은 9,781MW로서 전국 76,078MW의 12.9% 수준

- 경북 내 발전설비 용량은 2005년 대비 8.9% 증가

○ 2010년 기준 경북 내 발전량은 70,621,572MWh로서 전국 474,660,205MWh의 14.9% 수준

- 경북 내 발전량은 2005년 대비 0.8% 감소

〈표 3-172〉 경북 발전설비 및 발전량 현황

연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발전설비 (MW)	경북	9,579	9,578	10,668	9,438	9,438
	전국	68,268	72,491	73,470	76,078	76,078
발전량 (MWh)	경북	73,957,474	72,775,610	76,062,918	70,965,059	69,466,314
	전국	403,124,501	422,355,126	433,603,745	474,660,205	474,660,20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전력거래소, 전력통계정보시스템(www.kpx.or.kr)

○ 경북 내 원자력 발전설비용량은 8,679MW로 전체의 91.9%를 차지하고, 발전량 또한 99.0%로 대부분을 차지

○ 소수력, 양수발전을 포함한 수력발전설비용량은 750MW로 전체의 7.9%를 차지하고, 0.88%를 차지

○ 디젤발전은 울릉도의 발전설비가 유일하며, 2009년 기준 9.5MW 규모로 44,303MWh의 발전실적을 나타냄.

〈표 3-173〉 경북 발전설비 세부 현황

구 분	발전설비(kW)	발전량(MWh)	평균전력(kW)	최대전력(kW)
월성원자력1호기	678,683	1	-	-
월성원자력2호기	700,000	5,989,955	683,785	741,211
월성원자력3호기	700,000	6,197,850	707,517	741,688
월성원자력4호기	700,000	6,033,456	688,751	738,778
울진원자력1호기	950,000	7,790,914	889,374	995,000
울진원자력2호기	950,000	7,882,910	899,876	995,000
울진원자력3호기	1,000,000	9,201,393	1,050,387	1,056,000

울진원자력4호기	1,000,000	8,545,504	975,514	1,058,000
울진원자력5호기	1,000,000	8,597,095	981,404	1,058,000
울진원자력6호기	1,000,000	8,425,588	961,825	1,057,000
임하수력	50,000	35,393	4,040	44,680
안동수력	90,000	75,285	8,594	92,512
임기소수력	1,200	4,381	500	1,000
소천소수력	2,400	8,804	1,005	2,300
봉화소수력	2,000	8,165	932	1,800
경천소수력	800	2,845	325	-
반변소수력	1,060	1,934	221	749
성주소수력	1,800	4,171	476	-
운문소수력	330	1,641	187	300
청송양수	600,000	607,372	69,335	589,530
추산수력(도서)	700	4,455	509	701
울릉도내연	9,500	47,202	5,388	9,678
합 계	9,438,473	70,965,059	8,101,035	9,778,01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신재생에너지설비 현황

○ 2010년 기준 경북 내 신재생에너지설비는 태양열 91,234㎡, 태양광 113,887㎾, 풍력 102,746㎾, 수력 156,915㎾, 연료전지 2,950㎾, 지열 13,576㎾ 규모

○ 전국 비중을 고려할 때, 풍력발전설비가 전국의 26.7%로 가장 비중이 높고, 태양광(17.5%), 연료전지(7.8%) 등의 순

○ 바이오에너지는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성형탄, 임산연료, 목제펠릿을 생산 중

○ 폐기물에너지는 폐가스 소각열, 산업폐기물 소각열, 생활폐기물,RDF, 정제연료유를 생산 중

〈표 3-174〉 경북 신재생에너지설비 현황

구 분		경 북	전 국
태양열 (㎡)		91,234	1,594,590
태양광 (kW)		113,887	650,339
바이오에너지	바이오가스(톤/h)	7	9,593
	매립지가스(㎾)	2,450	110,838
	바이오디젤(kl/y)	-	1,104,400

	우드칩(톤)	-	401,277
	성형탄(톤)	2,957	54,888
	임산연료(톤)	11,771	69,344
	목재펠릿(천kcal/h)	29,881	250,450
풍력(㎾)		102,746	385,319
수력(㎾)		156,915	1,623,875
연료전지(㎾)		2,950	37,633
폐기물에너지	폐가스 소각열(톤/h)	2,074	8,205
	산업폐기물 소각열(톤/h)	189	3,710
	폐목재 소각열(톤/h)	-	670
	생활폐기물(톤/h)	90	462
	대형도시쓰레기(톤/d)	-	12,430
	시멘트킬른 보조연료(톤)	-	807,950
	RDF(톤)	8,400	162,144
	정제연료유(kl)	14,377	273,087
지열(㎾)		13,576	233,986

주 : 1) 바이오가스는 열, 성형탄·임산연료·정제연료유는 판매량, 폐기물은 사용량 기준
2) 폐기물은 폐가스, 산업폐기물, 폐목재, 생활폐기물만 포함
자료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201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2012

○ 2010년 기준 경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739,859TOE로서 전국 6,856,284TOE의 10.8% 수준

○ 2010년 기준 경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중 폐기물이 80.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풍력(7.7%), 수력4.6%), 태양광(4.5%), 바이오(1.3%) 등의 순

〈표 3-175〉 경북 신재생에너지 생산 현황

(단위 : TOE)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태양열	1,553	1,557	1,890	2,152
태양광	1,367	8,565	22,846	33,595
바이오	8,246	7,978	10,269	9,947
풍 력	16,209	18,754	51,820	57,248
수 력	39,687	33,738	20,971	34,108
연료전지	447	1,536	3,576	3,711
폐기물	338,259	286,220	309,199	597,142
지 열	838	1,080	1,359	1,956
합 계	406,607	359,428	421,930	739,859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각년도

다. 지하자원 개발 현황

광구

○ 2010년 기준 경북 내 광구는 858개소로 금속광이 176개소(20.5%), 비금속광이 682개소(79.5%)

- 석탄광은 2005년 7개소가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

〈표 3-176〉 경북 광종별 광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788	820	795	926	858
금속광	112	165	207	235	176
비금속광	676	655	588	691	682
석탄광	-	-	-	-	-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광산물

○ 경북 내 광산물 생산량은 2010년 기준 3,040,583톤으로 2006년 대비 20.2% 감소

〈표 3-177〉 주요 광산물 생산 현황

(단위 : 톤)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합계	3,809,322	4,653,615	4,304,502	3,265,274	3,040,583
연	-	-	295	1,728	944
아연	-	5,098	4,299	4,649	936
불석	160,056	157,408	217,691	235,626	242,640
규석	206,695	290,490	382,938	398,803	252,546
규사	1,098,041	1,849,653	898,349	161,356	234,307
고령토	350,380	294,938	577,665	360,416	310,322
석회석	1,705,964	1,844,519	2,062,374	1,920,425	1,734,327
규조토	3,400	2,300	2,500	2,440	2,200
납석	39,174	41,209	21,945	25,730	33,894
흑연	-	-	-	-	-
운모	4,868	4,563	5,218	2,505	2,452
장석	11,170	5,384	1,030	1,300	-
석탄	-	-	-	-	-
사문석	229,541	157,937	129,888	150,295	225,600
기타	33	116	310	1	41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라. 주요 문제점

높은 수준의 산업부문 에너지소비량

- 경북 최종에너지소비량은 19,134천TOE로 전국의 9.9% 수준
- 산업부문 소비량은 전체의 75.6%로 매우 높은 수준
- 경북의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량 절감을 통해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노력 요구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확대

- 경북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739,859TOE로 3.9%의 보급률 시현
- 전국 3.5%에 비해 높은 수준이나 향후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

지역 광산물 생산량 부족

- 경북도내 광구 수는 858개소이며, 광산물 생산량은 3,040천톤 수준
- 주요 광산물은 산업발전과 연계되므로 개발·탐사되지 않은 지하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 투자할 필요

2. 미래로의 흐름

가. 트렌드 변화

에너지 위기 : 에너지 수요 급증에 따라 국제유가 지속 상승 전망

- 2007년 기준 국내 에너지수입액은 GDP의 10%인 945억달러, 수입의존도는 97%, 1차 에너지의 45%를 석유에 의존
-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기후변화 및 국제 에너지시장 변화 대응능력이 낮으며, 선진국 대비 에너지 소비효율도 낮은 수준

기후변화 : 온실가스 문제가 국가경제를 결정짓는 변수로 등장

- Post 교토체제 진전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저탄소형 산업구조 전환이 최대 현안과제로 부각

- 선진국들은 저탄소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전략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 중

○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5.9억톤으로 배출규모 세계 10위, 배출증가율은 세계 1위 수준

녹색기술의 부상

○ 전통적 녹색기술은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등 환경 친화적 자원 활용 기술을 의미

○ 최근 IT, BT, NT 등 신 기술간 또는 기존 제품·산업간 융합을 지향하는 융합녹색기술로 영역이 확장되어 사용

나. 제도 변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계획 수립(2009년)

○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목표 · 추진전략 · 중점추진과제 등을 포함하는 국가전략을 수립 · 시행

○ 범국가적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추진과제 및 연도별, 사업별 예산을 반영하여 5개년계획 수립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2010.1.13)

○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비전 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녹색산업 투자, 녹색인증사업 등 녹색성장정책 의지를 담은 시행령 제정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도입(2010.9)

○ 정부가 관리업체(에너지 다소비업체) 온실가스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제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도입 예정(2012)

○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전력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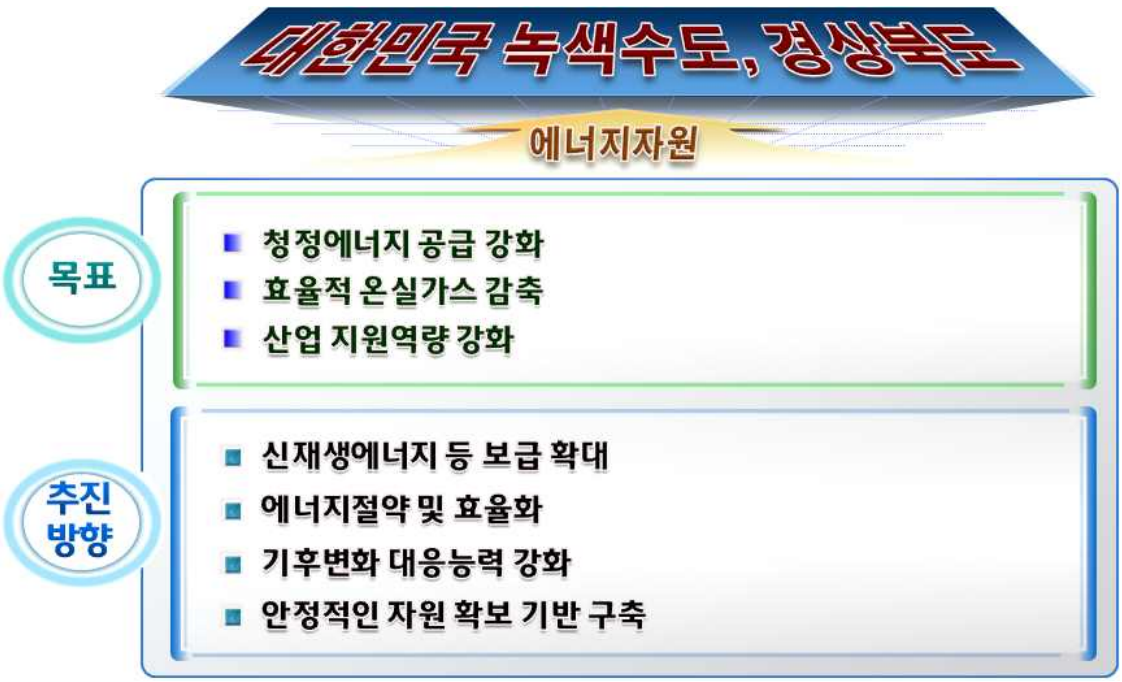
3. 비전과 목표

가. 비전

- 대한민국 녹색수도, 경상북도

나. 목표

- 청정에너지 공급 강화
-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 산업 지원역량 강화



〈그림 3-64〉 에너지자원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다. 추진전략

-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대

○ 녹색성장의 효율적·체계적 추진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필요성 대두

○ 우리지역의 자연환경 및 에너지 잠재량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보급사업 연계 추진

○ 지역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

○ RPS사업자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마련

○ 공공설치의무화사업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의 시장창출 선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A/S 시스템 확충 및 효율 향상을 통한 신재생 에너지 이미지 개선 및 단계적 보급 확대에 기여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 가정상업 부문 : 건물에너지절약 강화

- 현행 기준의 노후화로 인한 건축물 에너지관련 산업의 기술 수용력이 낙후하여, 에너지의 25%를 소비하는 건축물 부문 에너지절약의 중요성 제고

- 신규건물의 건축에 있어서는 지방 정부의 에너지 절약형 건축으로의 유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 측면의 건물규제 기준의 개정 및 강화가 필요

- 건물 분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해 건물 용도에 부합하는 최적의 공조 시스템 도입 유도(전열교환기 시스템, 열교환 시스템, 히트펌프 시스템, 태양열 시스템 등)

- 가정상업부문내 백열전구를 LED 등 보다 효율적 조명기구로 모두 교체하고, 가로등, 보안등, 경관조명, 간판조명 등은 LED로 단계적 교체

○ 산업 부문 :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 전환

- 전통적 에너지 다소비 및 환경오염 업종에 대해서는 에너지절약 설비 기기 도입 및 기기 교체에 따른 자금조달시 장기저리융자 확대를 통하여 이용합리화 유도

- 에너지 수요가 적고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의 비중을 확대시킴으로써 에너지 저소비와 저공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필요

- 노후 보일러 설비 교체, 연차별 고효율기기로 교체 유도,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 열수송선배관의 단열 강화 등 산업체 보일러 열효율 향상을

위한 R&D 및 설비투자 지원방안 강구

○ 수송 부문

- 승용차 10부제, 카풀제, 도시고속도로 유료화, 도심지역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특별단속프로그램 운영, 혼잡통행료 징수 등으로 자가용 승용차이용자를 대중교통 이용자로 전환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할 필요

- 자전거 정책 관리 효율성을 위한 관리체계, 통계 구축, 전용도로 등 기반 인프라 조성을 통해 녹색교통수단으로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 공공기타 부문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의 고효율 에너지 기기 사용 촉진

- 공공건물내 적정 냉난방 온도 관리를 통해 에너지 사용을 절감함. 공공기관 사무실별 개인 난방기 사용억제, 가로등 격등제를 지속적으로 실시

- 에너지 절약 추진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등 에너지 절약 추진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탄소의 모니터링, 저감, 순환이용 등 탄소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체계 마련

○ 탄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량 절감 노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

○ 에너지 저소비·고효율형 사회구조를 구축하고, 청정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해 탈석유·에너지 자립의 기반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 대응하는 체계구축을 통해 도민생활의 안정성 제고

안정적인 자원확보기반 구축

○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Recycling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 자원순환형 경제 · 산업 구조를 녹색성장의 주요 축으로 설정

○ 재활용이 가능한 광물자원은 재활용정책을 체계화하여 재순환, 재

활용율을 제고

○ 수입의존도가 높은 지하자원은 외국과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지원

4. 추진 과제 및 주요 시책

가. 추진 과제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에너지 시설 확충

○ 에너지목표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지역 중소기업 대응능력 제고

○ 청정에너지 공급시설 조기 확충으로 안정적 에너지 공급 및 연료비 부담 경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복지 구현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절약시책의 적극적 추진

○ 사회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에너지 지원확대로 친서민 복지 실현

나. 주요 시책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태양광,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절감 유도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71억원(국비 36 지방비 35)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내용

-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보급 확대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을 높이고 관련 시장 창출로 고용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기반 구축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4억원(도비 8, 시군비 6)
- 사업기간 : 2008년 ~ 2020년

○ 사업내용

- 일반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설치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정부는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규 건축물 에너지기준 강화를 추진
-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여 에너지소비 절감 및 온실가스 배출 억제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400.0억원(국비 200.0, 지방비 200.0)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사업내용

- 총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로 인증하고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지역에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 이용 주택 표준모델 개발하고 '에너지+환경+건강'을 모두 고려한 '에코그린하우스'를 포항 등 주요도시에 건립
- 공공기관 건축물의 신·증축 및 개축시 예상 에너지 사용량의 30%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토록 의무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공공기관 기관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청사 에너지절약 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 절약 홍보 극대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33.0억원(도비 13.2, 시군비 19.8)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내용

- 경북도내 공공기관에 신재생에너지설비 및 에너지절약기기 설치

울릉도·독도 녹색섬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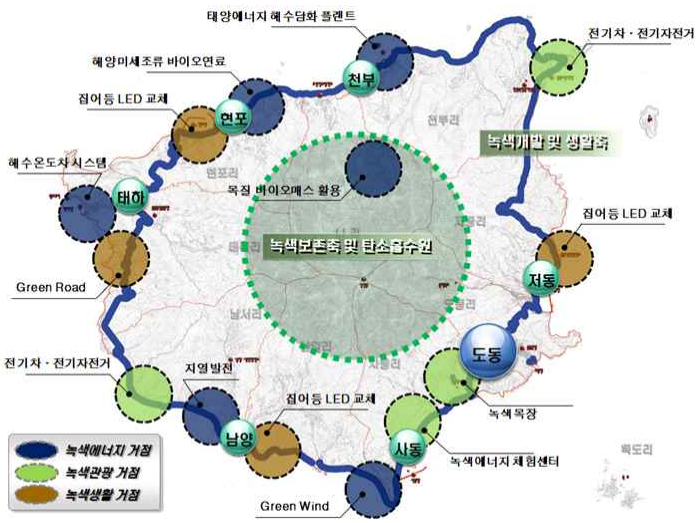
- 울릉도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 추진으로 에너지 자급자족하는 청정 시범도서 조성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400.0억원(전액 국비)
- 사업기간 : 2009~ 2015년

○ 사업내용

- 수소연료전지 설치 및 운영의 활성화
- 태양광 및 풍력발전의 계통연계
- 기존 풍력발전을 활용한 수소생산 등



자료 : 경상북도 내부자료(2011)

〈그림 3-65〉 울릉도·독도 녹색섬 조성 구상(안)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가스공급을 위하여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건설 및 공급관리소 설치 등 가스공급 기반 확충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4,337.0억원(전액 민자)
- 사업기간 : 2009 ~ 2016년(8년간)

○ 사업내용

- 공급배관 350km, 공급관리소 30개소 설치
- 공급대상 : 107만 세대(청송, 영양, 울릉 제외)

노후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 배경 및 필요성

- 경북도내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 녹색성장전략 추진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302.0억원(국비 105.0, 지방비 108.0, 민자 90.0)
- 사업기간 : 2010 ~ 2013년

○ 사업내용

- 에너지 효율화 진단 및 DB화
- 집단에너지 공급, 에너지 대체 및 에너지절약기술 보급
- 녹색환경 특화산업단지(Eco-Complex)로 조성
- 유휴공간 및 휴·폐업 공장부지 재개발
- 사무실 공장동 리모델링 및 고층화 지원사업

친서민 생활에너지복지사업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사회 및 에너지 소외계층인 소년소녀가장·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에 대하여 노후된 전기·가스 시설을 무료 교체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0억원(전액 도비)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내용

- 23개 시·군 600가구 대상 노후된 누전차단기, 형광등, 콘센트, 가스배관 무료 교체

시군 에너지절약대상 추진

○ 배경 및 필요성

- 저탄소녹색성장 시책, 기후변화대책, 시·군 청사 에너지사용 총량제 등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추진하여 범국민 에너지절약운동 참여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5.0억원(전액 도비)
- 사업기간 : ~2012년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우수 시군 시상

고효율 가로등 보급

○ 배경 및 필요성

- 에너지소비량이 높은 가로등에 고효율제품을 도입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비소비 절감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00.0억원(국비 70.0, 지방비 30.0)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사업내용

- 기존의 고압나트륨 조명보다 40%이상 에너지비용 절감 가능한 고효율 조명시스템을 갖춘 코스모폴리스 가로등 설치

-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면서 기존 가로등 조명보다 에너지효율이 월등히 높은 LED조명 가로등 도입
- 이들 가로등은 현 단계에서 경제성이 높지 않으나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교육 및 홍보 효과차원에서 적극적 확대 보급 요망

그린카 보급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그린카는 매연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어 수송부문 환경 및 에너지 절감에 직접적 영향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00.0억원(전액 지방비)
- 사업기간 : 2010 ~ 2017년

○ 사업내용

- 하이브리드카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통행료 및 주차비 등을 면제하고 부제에서 제외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바이오디젤 정제업체를 지역에 유치하고 이들 업체를 시범단지에 유치하여 집단화하는 등 바이오디젤 자동차 보급 여건을 조성
- 수소자동차 보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포항과 구미에 수소스테이션 설치하고 보조금 지급으로 구매 및 보급촉진 유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 배경 및 필요성

- 녹색교통, 지역발전 수단으로서의 자전거의 위상 정립이 필요
- 자전거 정책 관리 효율성을 위한 관리체계, 통계 구축, 전용도로 등 기반 인프라 조성이 필요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65.0억원(국비 75.0, 지방비 90.0)
- 사업기간 : 2010 ~ 2015년

○ 사업내용

-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제정
- 자전거 중심의 Greenway 조성
- U-바이크 시스템 구축
- 자전거 문화 확산기반 조성
- 자전거 연계 문화관광 상품화
- 자전거 출퇴근 장려제도 시행

기업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 배경 및 필요성

- 경북도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산업 부문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기업의 참여가 필수
- 기업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을 통해 기업 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유도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0.0억원(전액 도비)
- 사업기간 : 2010 ~ 2017년

○ 사업내용

- 포항 및 구미 등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산업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발적 감축 강화
-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진단 및 컨설팅 등을 통해 효과적인 감축수단 발굴 및 정부 지원과 체계적 연계
- 기업체의 자발적 탄소정보공개(CDP, Carbon Disclosure Project)사업 활성화
- 산업분야 CDM사업 활성화 및 합리적 탄소세 도입

그린스쿨 및 복지시설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그린스쿨 조성을 통해 지역 녹색성장을 주도할 녹색인재를 육성하고, 에너지복지를 가속화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20.0억원(국비 15.0, 지방비 5.0)
- 사업기간 : 2010 ~ 2015년

○ 사업내용

- 교육시설과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 건물 녹화, 생태공간 조성을 통해 녹색건축물로 재창조

기후·에너지 자원도 작성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자원 보급 확대와 효과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기후·에너지 자원도 작성이 필요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4.0억원 (전액 도비)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사업내용

- 기존 또는 개발 중인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포켓 구축
- 지역 기후인자(바람, 온도, 일조량, 풍황 등) 경제성, 기술수준, 에너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기후 · 에너지 지도(종이 및 전자) 제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후 및 에너지 자원도의 활용방안 제시 등
- 지도 및 DB의 지속적 upgrade 시행

기후변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배경 및 필요성

- 향후 가시화될 기후변화 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합시스템

을 구축하여 대비할 필요

- 지역차원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통합적 관리시스템 및 조기대응체계 구축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50.0억원 (전액 지방비)
- 사업기간 : 2012년 ~ 2020

○ 사업내용

- 기후변화와 대기환경을 동시에 감시하는 국가 통합사이트 연계 입체적 감시망 확충
- 지역의 기후변화 예측자료 제공을 위한 국가 통합 예측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예측능력 고도화

기후변화 기술 및 실천 프로그램 개발

○ 배경 및 필요성

- 효과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지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필요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4.0억원(국비 2.0, 도비 2.0)
- 사업기간 : 2010 ~ 2013년

○ 사업내용

-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참여율 제고가 가능한 실천프로그램 개발·보급
- 기후변화 대응 분야별(완화, 적응, 산업, 교육, 행정 등) 실천지표 설정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추진내용을 주기적으로 평가
-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민, 관, 학, 연 협력네트워크 구축
- 사회분야별 상시 대응협력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 구성

산림자원 보호역량 강화

○ 배경 및 필요성

- 온실가스 흡수 능력 제고에 의한 탄소중립지역화로 경북도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의 건강을 위한 산림 및 녹지의 지속적 확충
- 산림자원보호 및 재해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지역고유의 산림 생태계연구 역량 강화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3,632억원 (국비 2,511, 지방비 1,121)
- 사업기간 : 2010 ~ 2017년

○ 사업내용

-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 및 산림식생변화 등을 고려한 산사태 위험지 관리시스템 강화
-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사방댐 설치 확대, 산사태 피해가 우려되는 산지마을 주변에'산지방재림' 조성, 태풍 및 집중호우에 안전한 임도 구축
- 주요수종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병해충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지역을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 방제, 신종 병해충의 침입 초기 방제 효율성 제고

탄소흡수 순환마을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 배경 및 필요성

- 경상북도내 산림, 농업부문 등에서 탄소순환흡수 기능을 극대화하여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절감 유도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84.0억원(국비 55.0, 지방비 29.0)
- 사업기간 : 2010 ~ 2014년

○ 사업내용

- 화석연료 사용 최소화, 에너지효율 최적하고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기능을 극대화한 탄소흡수 순환마을 조성 확대

- 지역 토양과 기후에 적합한 속성목에 대한 품종개발 및 보급 확대
- 경북 도내 유휴지와 하천부지에 속성으로 자라는 바이오 순환림 조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충

○ 배경 및 필요성

-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의 Recycling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
- 전세계적으로 산업적 측면에서 Recycling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
- 자원순환형 경제·산업 구조를 녹색성장의 주요 축으로 설정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2,714.0억원(국비 1,222.0, 지방비 1,419.0, 민자 73.0)
- 사업기간 : 2009 ~ 2014년

○ 사업내용

- 쓰레기매립 및 소각시설 확충
- 폐기물재활용 시설 확충으로 자원생산성 제고
-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원으로 폐기물의 체계적 관리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 배경 및 필요성

-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를 통해 자원 재활용 및 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4,172.0억원(국비 2,242.0, 지방비 455.0, 민자 1,475.0)
- 사업기간 : 2009 ~ 2014년

○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 고형연료화 사업 및 소각발전시설 설치
-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사업 추진
- 북부권 환경에너지 종합타운 설치

광물자원 발굴조사 실시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내 부족한 광물자원량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광물자원을 발굴하고 조사 추진
- 이를 통해 지역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산업기반을 구축

○ 사업 개요

- 사 업 비 : 100.0억원
- 사업기간 : 2012년 ~ 2015년

○ 사업내용

- 도내 광물자원 자원조사 및 DB화
- 단계적으로 주요 광물 발굴

7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관리 및 재해안전지역 구현

제1절 환경

1. 현황 및 문제점

가. 정부 환경정책

○ 1990년 이전까지 직접규제 위주의 환경정책수단이 주로 이용되어 왔으나, 1990년 이후 각종 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

○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 오염자 스스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경제적 유인 수단과 환경규제에 있어 유연성을 부여하는 자율 환경관리 등 다양한 규제수단이 등장

○ 시장 기구를 통해 오염저감에 대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환경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수단으로 부과금(charge), 보조금(subsidy), 예치금(deposit), 시장형성(market creation), 인센티브(enforcement), 배출권거래제(tradable permit system)등을 사용

○ 자율 환경관리 및 정보규제 등과 같은 정부와 기업 간의 환경개선을 위한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

나. 환경보전 시책

자연환경

○ 과거 짧은 기간 고도성장으로 인한 경상북도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개발에 따른 자연경관의 훼손 등의 적지 않은 환경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자연환경 훼손과 생태계 파괴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이 위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친화적인 삶의 터전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경북의 자연공원은 2010년 현재 국립, 도립, 군립을 포함하여 15개소 814,946천㎢, 각종 도시공원이 1,228개소 71,722천㎢이며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음.

○ 자연공원은 최근 5년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공원은 시설 유지 및 개선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함.

대기보전

○ 난방연료의 청정연료대체,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저유황유 공급 확대,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의 지속적인 관리로 경북도내 2011년 기준 대기오염 실태(SO_2)는 0.005ppm으로 대기오염환경기준치 0.02ppm 이내에 있음.

○ 대기오염도가 높은 포항, 구미시 등의 산업시설 보일러 사용연료를 청정연료인 LPG, LNG 사용의무화 추진으로 대기오염 저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러한 청정연료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경북 내 대기오염 점차적으로 농도가 낮아지고 있음.

수질보전

○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 환경기초시설 총 332개를 신설 · 개보수, 하수관거 7,807km^2를 신 · 증설 및 개체, 하수처리율을 8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경북내 주요 하천 및 호소의 수질을 1급수로 개선해 나갈 계획임.

○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계획과 더불어, 오염하천에 대한 퇴적물 준설, 생태하천 조성, 오수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 오수관로 설치 등을 통하여 하천 본래의 자정기능을 회복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 경북내 수질보전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오염원 종류별 허가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역별 환경용량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관련법을 재정비하여야 함.

폐기물관리

○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리수거 강화,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1회용품 사용 관리 등의 방안 개선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이 필요함.

○ 경북 내 생활쓰레기 중 22%에 해당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도내 26개(공공 6, 민간 20) 음식물 자원화 시설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임.

○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고형연료화, 사료화, 퇴비화, 소각 등으로 전환을 유도함.

다. 문제점

통합적 환경관리 미흡

○ 지역단위 환경관리계획은 대기, 수질, 폐기물, 생태 등 분야별로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가 미흡함.

물리적 환경오염문제에 치중

○ 환경문제의 중심이 환경오염 방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원녹지 확충,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이용, 녹색소비생활 개선, 녹색교통체계 확립,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등의 다부문간 통합적 환경관리의 문제로 바뀌고 있으나 선진 외국의 대도시에 비해 미흡한 실정임.

○ 수질, 대기, 소음·진동, 폐기물, 토양오염에 대한 물리적 환경오염 문제 발생에 따른 조치계획을 중심으로 관리됨에 따라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수단이 결여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기준

○ 경북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적정 환경용량이 측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됨.

○ 포항시, 구미시와 같은 산업도시, 경산시, 영주시와 같은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에 대해 환경기준이 높게 책정되면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축시키며, 봉화군, 영양군, 청송군과 같이 낮게 책정하면 오염물질이 과도하게 배출되어 환경정책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사후환경관리의 한계점 대두

○ 정부와 경북도의 개발 우선정책의 추진으로 도시화와 산업화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반면, 자연훼손과 함께 공기 · 물 · 토양 오염 등 환경의 질 악화와 생태계의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짐.

○ 일부 시급과 군급의 고밀·과밀화와 무분별한 도시 확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환경은 훼손되고 있는 등 기존의 사후관리적 환경정책 및 제도는 한계를 드러냄.

○ 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오염원의 규제와 오염정화시설을 위해 막대한 환경비용이 소비되고 있지만 그 효용성은 미미함.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 · 제도적 환경관리 정책의 경우 지역적이고 소극적이며 개별적 차원에서 사후관리방식의 해결에 치중함에 따라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의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환경트렌드

환경보전에 관한 사회적 관심도 증대

○ 지속적인 경제성장, 인구 및 에너지 소비 증가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계속적으로 증가되며 지구온난화 및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들까지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

세계화에 따른 환경관리수단의 고도화

○ 국제표준화기준에 따라 하수처리사업소, 자원회수시설, 정수사업소 등이 ISO 140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환경관리수단이 국제 수준과 비교되면서 더욱 고도화될 전망

○ 지속가능성 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 환경관리수단이 점점 다양화될 전망

다부문간 통합사회로의 변화

○ 과학기술 발전이 향후 2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미래사회는 더욱 다부문간 통합사회가 될 전망

○ 21세기 환경과학은 장소성과 통합성을 중시하는 측면에서의 연구를 더욱더 필요로 할 것임.

○ 지구 환경변화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면서 이전까지는 독립적인 환경문제로 간주되어 왔던 여러 환경문제가 실은 다른 환경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것임.

시민들의 환경에 관한 관심 증대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변화가 본격화될 전망

○ 여가활동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환경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의 참여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

○ 환경문제의 경우 한번 파괴되고 나면 인체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며, 복원에도 엄청난 비용이 소모된다는 점에서 많은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임.

나. 환경정책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 과거에는 중앙통제에 의해 환경정책이 시행되어졌으나 최근 환경문제가 지방차원에서부터 야기되어 지자체 특성별 환경정책 수립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환경 분야에 있어서의 정부의 규제는 점차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지방분권이 가속화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며, 특히 지역의 자율권을 보장하면서 국가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환경관리수단들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환경에 가장 근접해 있어 그 지역의 문제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환경문제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

사전예방적 차원에서의 환경관리 필요성 대두

○ 무분별한 개발 정책으로 산업 및 도시화가 진전되며 이로부터 자연환경의 악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현 수준에서 미비하여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

○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발계획의 수립과정과 정책의 구상단계에서부터 환경 및 생태계를 고려하여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환경관리방안을 요구되고 있음.

환경교육의 실시

○ 환경교육 활성화 기반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할 것임.

○ 지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환경정보 제공을 통한 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더불어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 확대가 요구될 것임.

3. 계획 방향

가. 목표

맑고 깨끗한 Green&Clean! 경북

○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 경상북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 및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발전을 추구

○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기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생태계의 속성인 다양성, 순환성, 안정성을 고려하여 구축

○ 자원의 보전과 재이용을 통한 자원순환 도모

- 선진 환경 행정을 실천하고 미래 환경여건 변화에 따른 희망과 기대 충족은 물론 후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환경 보전을 실천

○ 미래의 환경을 위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

- 지역 내 환경문제를 자체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실천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경 시책 개발과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녹색 경상북도를 건설하여 미래세대에 계승

나. 추진방향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수용태세 구축

○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통하여 지역여건과 특성, 발전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Green&Clean 지역을 지향

실천하는 녹색성장 기반 구축

○ 생태환경 문화 축을 조성하여 녹지 생활권을 형성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자연공간의 보전이 필요하며,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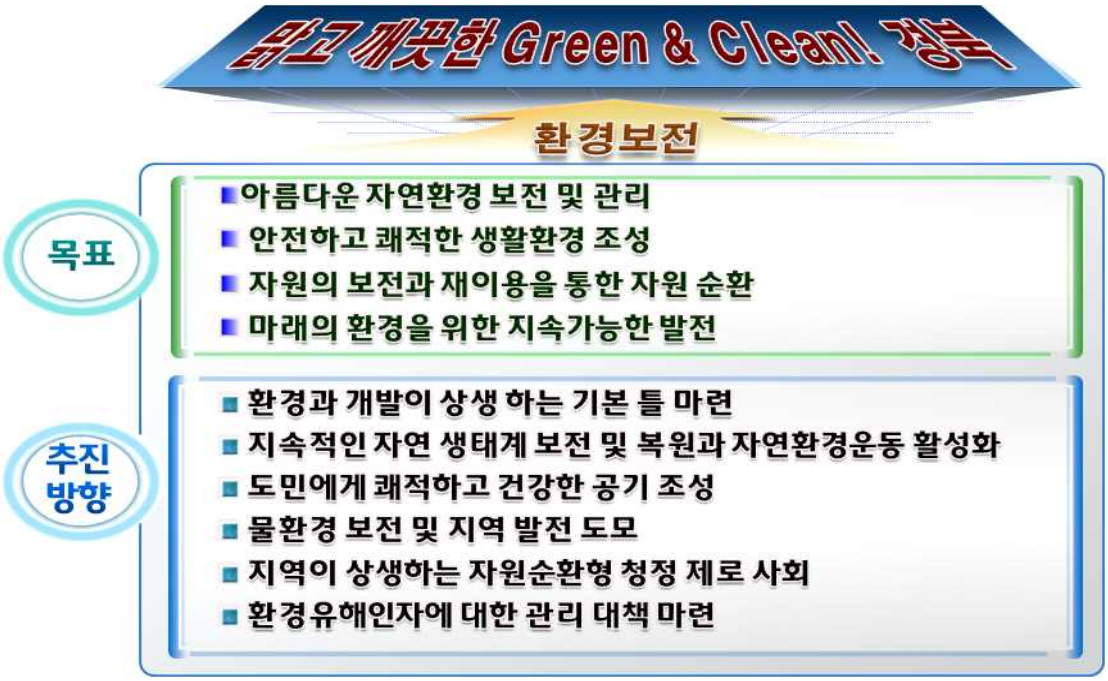
민들의 자연보호활동을 통한 환경과 정서생활을 보다 윤택하게 하는 노력 전개

낙동강 환경개선 및 물산업 기반 구축

○ 오염원 관리 체계화, 다원화된 인프라 구성, 효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오염된 하천에 대한 자정능력 및 친수기능을 회복시키며, 환경친화적인 수질 환경을 보전

지역이 상생하는 자원순환형 청정 제로사회

○ 지역이 상생하는 청정 제로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을 억제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처리,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자원이 순화하는 생활환경을 구현



〈그림 3-66〉 환경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수용태세 구축

탄소가 보이는 지역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역 대응 역량 강화

- 녹색성장위원회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발표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으며 추후 덴마크 코펜하겐 당사국총회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축 목표 결정 예정
- 국가적 감축목표가 설정되면 지역차원의 감축목표도 1~2년내 설정되어야 함으로 지역차원의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온실가스 보고제 도입 등으로 탄소가 보이는 지역화 필요

○ 경북 온실가스 감축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 설정에 대응하여 효율적 지역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관련 국내·외 앞선 정보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정보 서비스 산업육성 및 기후관련 국제기구 유치

○ 주요내용

- 시군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및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 온실가스 정보 서비스산업 육성
- 기후관련 국제기구 유치

탄소를 줄여가는 지역

○ 경북 맞춤형 기후변화 완화 계획 추진

- 기후변화 대응의 첫 단계는 온실가스감축에 의한 기후변화 완화(mitigation) 로 지역차원의 적극적 온실가스 감축활동 필요
- 과감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의 선제적 도입으로 녹색성장 선도 지역으로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대내적으로 녹색산업의 성장토대 마련

○ 경북도 및 기초지자체별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체계 구축

- 국가 감축목표에 대응하는 경북도 및 기초지자체 감축목표 설정 및 체계적 관리
- 건물, 교통, 산업, 폐기물, 농축수산식품 등 주요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체계적 추진

○ 주요내용

- 경북도 및 시·군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관리
- 건물부문, 교통부문,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 폐기물부문 안정적 처리로 온실가스 감축
- 농어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탄소를 순환 흡수하는 지역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극대화 추진

- 경북내 산림, 농업부문 등에서 탄소순환흡수 기능을 극대화하여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비용의 절감 유도
- 도시지역내 대량 발생 폐기물의 순환이용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고 배출된 폐기물의 신재생에너지화 시급

○ 지역의 폐자원에너지화 및 바이오매스에너지화 추진을 통한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 도모

- 저탄소 자원순환 운동, 탄소흡수 순환마을 조성 등 녹색 선도지역 위상 제고
- 바이오매스. CDM사업,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저탄소농업기술 등의 지속적 확충으로 녹색성장 모범지역 구축

○ 주요내용

- 저탄소 자원순환운동 실천 및 폐기물 바이오가스 자원화 추진
- CDM 사업 활성화 및 인증기관 유치
-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
- 기업체 온실가스감축 컨설팅사업 확대
- 탄소흡수 순환마을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

기후변화 예측 및 조기대응체계 구축

○ 지역특성에 맞는 기후예측 시스템 발굴 추진

- 기후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강력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및 적응정책 수립 필요성 논의 진행 중으로 지역차원대비 필요
- 지역고유의 기후모델 등을 활용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지역차원 조기대응체계 마련 필요

○ 기후변화 선도적 대응을 위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차원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기후변화 통합적 관리시스템 및 조기대응체계 구축
- 경북지역 내 행정적, 사회적, 산업적 기후변화 대응능력 제고사업 시행

○ 주요내용

- 기후변화 통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 조기대응능력 제고
- 기후변화적응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구축

나. 실천하는 녹색성장 기반 구축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기반 구축 도모

-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주민 인식 제고와 도민이 공감하고 동참하는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운동 지속 추진으로 일상생활에서의 ‘저탄소 생활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 및 ‘녹색성장’ 선도

○ 추진방침

- 주민, 시민단체, 기업체, 행정 등 지역 구성원들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도민 운동으로 전개
- 각종 행사 등을 활용한 홍보 및 서명운동 전개로 참여 활성화 제고
- 기후 홍보관 운영, 탄소포인트제 시행 등 연계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관리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전문가 양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증대
- 가정·상업시설·사무실 등 대상 온실가스 배출진단 및 컨설팅
- 주민대상 녹색성장·기후변화 및 온실가스 감축방안 교육
- 내고장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개발, 적용

○ 추진계획

- 지역별 그린리더 양성·관리, 기후학교를 통한 교육체계 확립으로 그린리더의 체계적인 양성 및 관리기반을 구축
- 녹색생활 실천 행사, 부문별 프로그램 운영 등 그린리더의 녹색생활 실천 운동을 강화하고 실적 평가로 개인·기관의 인센티브 부여할 계획

다. 낙동강 환경 개선 및 물산업 기반 구축

낙동강수계 수질 개선 사업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 총인 수질오염총량제 시행 - 2011년부터 BOD+T-P총량제
- 총인(T-P)처리시설 설치 - 기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설치
- 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고도화
- 비점오염 저감, 수질오염 사고 예방
- 생태하천 조성으로 수생태 복원

○ 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수질오염사고시 유해물질차단
- 초기우수 하천 직유입차단

○ 낙동강살리기사업 6개 가동보 모니터링

- 지속적인 가동보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적 대응 전략 수립

○ 낙동강수계기금 효율적 운영

- 환경기초시설 설치·수질개선사업 지원, 주민지원사업 등

물산업 관련 사업

○ 낙동강 Water Business 단지 조성

- 수자원 및 R&D 인프라 활용, 물산업 융합 첨단 복합단지 조성
- 토탈 물산업 지원센터, 물산업 핵심부품 소재 기술개발센터, 물산업 연관 융합 산업화 센터 등 특화산업단지 조성

○ 신도청 소재지를 순환형 수변도시로 시범 조성

- 빗물·하수처리수 및 낙동강 명품보(洑)에서 확보된 물을 순환원수로 활용 물순환시스템 시범 도입
- 도심 하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휴식공간으로 조성

○ 울진 해양심층수 산업단지

- GMSP, POSTECH 해양대학원 등을 활용한 해양 물산업 육성
- 울릉도, 독도 해양자원 연구센터(해양심층수 개발·산업화)
- 최고 수질의 성인봉 용천수를 먹는 샘물로 개발

라. 지역이 상생하는 자원순환형 청정 제로사회 조성

폐기물 감량화

○ 지자체별 폐기물총량제 시행

-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원천적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지자체별 폐기물총량제를 실시
- 경북「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조례」에 의거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반입 수수료의 10%를 할증 또는 할인하는 방안 모색

○ 음식물류쓰레기 배출자별 종량 시스템

- 폐기쓰레기 배출자의 정보와 배출량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수수료의 징수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
- 경북의 공동주택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을 통하여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도입」 대비
-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사업 추진으로 감량 극대화 도모

○ 재활용품 집단 회수 시스템 구축

- 공공기관이 관여하여 수집일의 고정화, 수집회수의 증가, 보관 장소의 확보 등 시민의 재자원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수집일이 고정(지정), 월 수집 횟수 선정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접근성이 용이한 집하스테이션 설치 추진이 필요

폐기물 에너지화

○ 폐기물전처리시설(MBT) 설치를 통한 고형연료(RDF) 제조 및 공급

- 폐기물 고형연료 품질에 대한 불신, 불안정한 수요처, 낮은 공급 단가 등의 열악한 시장여건 등으로 인한 활성화 부진의 문제점 보유
- 기존 및 계획된 폐기물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RDF을 통합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정규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임.
- 에너지 함량이 높은 가연성 폐기물을 가공 · 처리하여 연소 또는 변환시켜 발생하는 에너지 생산 필요
- MBT, RDF 발전시설 등 에너지 회수시설 설치 확대 등 에너지회수 정책의 추진 강화
- 고형연료사용을 위한 희망업체 조사 및 공급이 필요

○ 폐기물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

- 정부의 '폐기물 에너지화 종합대책'과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에너지 대책' 등 폐기물 에너지화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계획 제시에 따른 경북이 시행해야할 '폐기물 에너지화 실행계획' 수립 필요
- 환경에너지종합타운의 조성, 저탄소 녹색마을, 바이오매스에너지 활용계획, 기존 폐기물에너지화시설과 신규 시설계획 등 향후 지역 차원의 폐기물에너지화 전략 수립
-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우선적 배정을 위한 방안이 필요
- 폐기물 에너지화 기술 적극 개발

폐기물 재활용 촉진

○ 재활용기반 시설의 확충

- 저공해 산업 복합단지 조성, 연구개발 기증, 경영지원기능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 조성하고, R&D 지원체계를 구축

- 기업, 행정기관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폐기물 순환 및 공동이용시스템을 운영하여 폐기물 발생 및 에너지 사용 저감방안 마련
- 경북 자체적으로 세제 및 임대료 감면 등의 재정적 지원을 하여 집하된 재활용품을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를 입주시켜 지역 내에서 재활용품을 생산하도록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

○ 재활용품수거 체계 개선

- 생산자 자율 재활용 책임제의 연차적 도입으로 재활용품 수거 제도를 개선
- 재활용 폐기물 배출업체, 재활용제품 생산업체 및 재활용품 수요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여 재활용제품 홍보 강화방안 마련
- 인터넷 및 대중매체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의 효율적 개선 추진
- 지자체의 재활용 센터 등 공적기관을 통한 보급으로 재활용 제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단계의 단축 및 공급체계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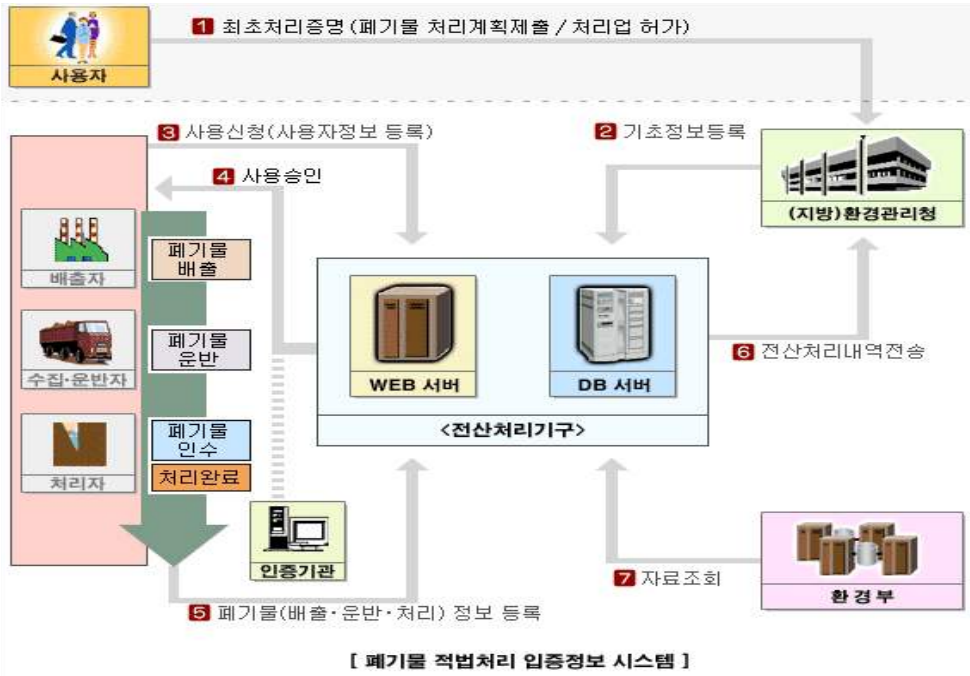
폐기물관리 인프라 구축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 지자체간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역별 수요예측 및 도입시설 재정 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 및 입지 타당성 조사 시행
- 시군별 재정투자 분담율을 조정하여 향후 원활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에 기여
- 광역지자체간 폐기물처리시설 운용 및 공동사용 방안 모색
- 지자체간 폐기물 이용 및 처리에 관한 협약 및 규약 작성

○ 폐기물 관리 유비쿼터스 서비스체계 구축

- 도심지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거론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시스템으로 RFID시스템과 GPS시스템을 활용한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 등을 추진
-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를 대상으로 실시
- 폐기물처리 및 운반과정의 전산화로 관리의 효율성 극대화



자료 : 환경부,「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2007

〈그림 3-67〉 폐기물 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체계도

제2절 경관

1. 현황 및 문제점

가. 자연경관

녹지경관

○ 경북의 산림면적은 13,963㎢로 전체 면적의 72.0%를 차지하고, 전국 산림면적의 21.9%에 해당될 정도로 산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음.

○ 경북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및 지맥 등이 지나가고, 경치가 뛰어난 산림경관자원이 풍부함.

○ 그러나 산지 주변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산지가 훼손되고 그로 인한 절개지가 발생되고 있으며, 산지를 깎아 조성한 대규모 개발지 등은 경관을 저해하고 있음.

○ 또한 관광지의 상업시설 및 불법건축물, 정리되지 못한 입간판, 노점상 등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수변경관

○ 경북의 하천 총 연장은 11,560km이며, 그 중 경북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낙동강은 지역을 대표하는 수변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2010년까지 낙동강에는 총 5개의 댐이 있으며, 이 중 경북에는 안동댐, 임하댐 2개소가 입지

- 2012년 현재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낙동강 경북구간에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가 축조되었으며, 앞으로 영주댐과 보현댐이 건설될 예정

○ 하천경관의 경우 경관이 우수한 하천변에 난립한 상업시설로 의해 주변경관이 훼손되고 있으며,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변은 도로에 의해 도시공간과 수변공간이 단절되고 보행 접근성이 불량한 경우가 많음.

○ 경북의 해안선은 428㎞로 전국 해안선의 3.6%를 차지하며, 해안변에는 총 26개의 해수욕장이 분포하고 있음.

○ 해안경관인 경우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단지 등 대규모 시설물이 위압경관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어촌 및 어항시설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경관 악화가 심각한 수준임.

나. 인공경관

시가지경관

○ 경북의 도시지역 면적은 총 1,662.8㎢로 이중 녹지지역이 약 80%를 차지하고 이를 제외하면 주거지역의 면적이 가장 넓음.

○ 시가지내 경관은 일시적 광고물의 난립과 포장, 가로시설물, 간판 등의 부조화 및 노후가 심각하며, 특히 고층건축물(아파트)에 의한 조망 및 스카이라인의 단절로 녹지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 산업단지는 국가산업단지가 구미, 포항, 경주지역에 총 6개소, 일반산업단지 51개소, 농공단지는 62개소 분포하고 있음.

○ 산업단지의 경우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는 입지와 대규모의 산업(공장)건축물로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공업지역 내 난개발에 의한 주변 구릉지 훼손이 우려됨.

농·산·어촌 경관

○ 경북의 농경지 면적은 총 3,094㎢로 전체 면적의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주, 경주, 의성, 안동지역에 농경지 비율이 높음.

○ 농·산촌 경관은 이농현상에 따른 빈집 방치, 농업폐기물 관리 부실, 산발적으로 난립한 공장과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공장의 외관, 국도변 노점관리상태 부실 및 난립, 상업건축물 및 숙박시설에 의한 경관 부조화로 고유의 경관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음.

○ 어항은 동해안을 따라 총 133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어항시설은 방파제와 물양장이 항과 함께 입지하고 있음.

○ 어촌경관은 원자력발전소, 풍력발전단지, 산업단지 등과 주변 어

촌·어항 경관과의 부조화 및 무질서한 상업건축물과 정비되지 않은 어촌 및 어항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기반시설 경관

○ 경북에는 KTX경부선을 포함하여 철도 7개 노선, 경부고속도로 등 고속도로 8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공항은 3곳이 있으나 현재 포항공항만 운항 중에 있음.

○ 기반시설 경관은 도로 및 철도 건설로 인해 자연지형의 변형 및 단절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대형 구조물로 인해 주변경관을 차폐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

다. 역사·문화경관

○ 경북은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문화, 대가야의 도읍지인 고령·성주를 중심으로 한 가야문화, 안동·영주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 등 다양한 역사·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임.

○ 경북의 역사·문화자원은 다른 지역에 비해 고택과 민속마을, 문화재가 많고 그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한 상태이며, 2010년 기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30개소, 관광단지 5개소, 관광특구 3개소가 지정되어 있음.

○ 그러나 역사·문화 유적지와 어울리지 않는 관광시설물로 인해 장소성이 훼손되고 있으며, 관광지 주변의 상업시설 난립으로 관광객에게 불쾌감을 초래하고 있음.

라. 경관관리체계

○ 시·군의 여건에 따라 산발적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경북 경관의 연속성 및 통일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음.

- 시·군의 경관계획인 경우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고령군, 청도군은 경관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영주시, 경산시, 청송군, 울진군은 계획 수립 중에 있음.

○ 경관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시·군의 경관조례가 미수립된 지역이 15개 시·군에 달함.

- 경상북도는 2009년 11월에 경관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시·군별로는 경관 조례인 경우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 구미시, 청송군, 청도군, 고령군, 울진군이 제정되었으며, 포항시, 영덕군은 자연경관보전조례가 운용되고 있음.

2. 여건변화와 전망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속

○ 4대강 살리기 사업 완공에 따른 연계 사업이 추진되고, 대경권 선도사업인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이 본격화 되는 등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속될 전망임.

○ 도청이전 신도시, 경북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건설 등에 따른 공간구조 재편으로 인하여 각종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이와 연계된 개발사업이 다양하게 진행될 것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개발압력 증가

○ 주5일제 전면시행과 광역교통망의 확충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은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압력의 증가로 나타날 것임.

생활공간의 질 향상 요구 증대

○ 주민의 의식은 기반시설과 관련된 실용적 요구로부터 점차 질적, 심미적, 정서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연환경 보호, 개성 있는 시가지 정비 및 창출, 건축물의 수준 제고 등 생활공간의 질과 관련된 생태적, 심미적, 문화적 측면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경관을 역사적·경제적 유산으로 보는 시각 확산

○ 과거의 수려한 경관을 계승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애착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남겨야할 의무를 자각함과 동시에 주의깊고 신중한 환경가꾸기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변화할 것임.

지역의 정체성을 표출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 증대

○ 획일화된 도시 및 농촌경관을 극복하고자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미래상으로 설정하는 노력이 더욱 확대될 것임.

○ 지역의 개성과 매력을 표출하는 요소를 자연경관, 역사경관, 건축문화로 보고, 이를 통한 마케팅 활동이 점차 증가할 것임.

3. 계획의 방향

가. 목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상생하는 경북형 경관 창조

○ 고유한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강화

○ 미래지향적인 경북 대표 경관 창출

○ 효율적인 경관 행정 및 관리체계 구축

나. 추진방향

고유한 경관자원의 보전 및 관리 강화

○ 경북의 경관권역·축·거점 설정 및 특화

○ 전략적인 특정경관의 보전 및 관리

미래지향적인 경북 대표 경관 창출

○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 도청신도시 녹색경관 창출

효율적인 경관 행정 및 관리체계 구축

○ 통합된 경관 행정 지원 체계 마련

○ 경관협정에 의한 자치적 관리체계 구축

〈그림 3-68〉 경관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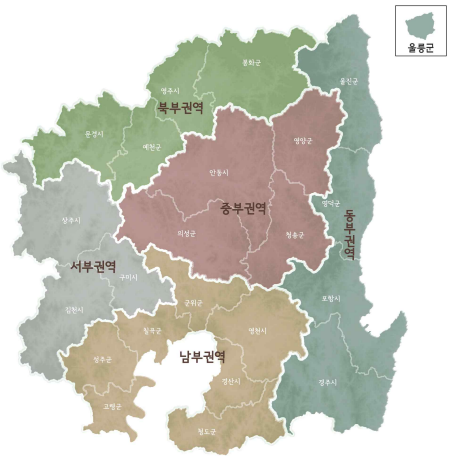
4. 추진계획

가. 경관권역·축·거점 설정 및 특화

경관권역

○ 경관권역은 경관을 구성하는 지형, 지세, 생활권, 상위계획 등의 동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동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북부권역, 중부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 특화를 도모

○ 경북 23개 시·군 경관계획 수립 시 큰 틀에서의 보전, 관리, 형성에 대한 경관관리 방향을 제시



〈표 3-178〉 경관권역 설정 및 미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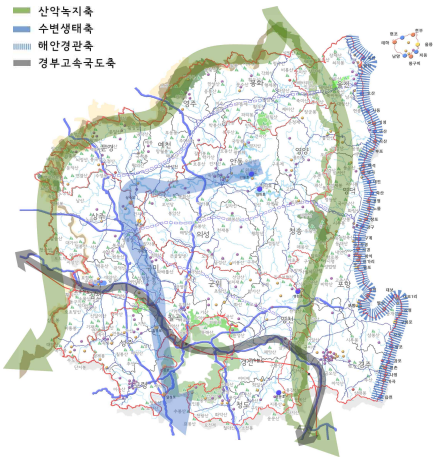
구분	범위 및 미래상
동부 권역	• 포항시, 경주시, 울진군, 영덕군, 울릉군 ⇒ 해양경관과 어우러진 자연·생태경관보전
서부 권역	• 상주시, 구미시, 김천시 ⇒ 수려한 자연경관과 어울리는 매력적인 녹색산업 도시경관 창출
남부 권역	• 영천시, 경산시, 청도군, 군위군,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 적극적 경관형성 및 관리를 통한 대도시 경계부 경관 창출
북부 권역	• 문경시,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 청정자연경관과 어우러진 역사·문화경관 형성
중부 권역	• 안동시, 의성군, 영양군, 청송군 ⇒ 자연과 역사가 만나는 농촌 및 역사·문화경관 창출

〈표 3-179〉 경관권역별 특화방향

구분	보 전	관 리	형 성
동 부 권 역	• 낙동정맥 경관자원의 보전 및 복원 • 동해안 경관자원의 보전 및 복원	• 신라문화의 거점으로서의 경관 특화 • 해양진입관문 경관 관리 • 어촌·어항시설 경관 관리 강화 •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지 주변의 경관관리 강화 • 에너지산업 관련 시설의 경관 특화 방안 마련	• 해안마을 경관조성사업의 전략적 수용 • 계절특성을 반영한 사계절 경관 창출방안 모색 • 동부연안 고속국도 주변부 경관특화
서 부 권 역	• 백두대간의 경관자원 보전 및 복원 • 낙동강과 그 주변에 대한 경관자원 보전	• 서부권역 진입관문 경관 관리 • 시가지와 농경지의 경관 관리 •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지 주변의 경관 관리 강화 • 산업단지와 그 주변에 대한 경관 관리 강화	•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경관 형성 • 경북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가지경관 형성 • 고속국도 및 고속철도 주변부의 경관형성
남 부 권 역	• 낙동정맥의 경관자원 보전 및 복원 • 역사·문화 경관자원 활용과 보전	• 낙동강과 주변 경관자원 관리 • 대도시 경계부(개발제한구역) 경관관리 • 남부권역 진입관문 경관관리 • 자연경관자원과 시가지 주변에 대한 경관관리 강화 •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지 주변의 경관관리 강화	•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경관 형성 • 고속국도 및 경부고속철도 주변부의 경관 형성
북 부 권 역	• 백두대간의 경관자원 보전 및 복원 • 낙동강 및 내성천과 그 주변에 대한 경관자원 보전 • 역사·문화 경관자원 활용·보전	• 백두대간을 통과하는 진입경관 관리 • 소도읍 및 중소도시 시가지 경관 관리	•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지의 경관 형성 • 북부권역 고속국도 주변부 관문경관 형성
중 부 권 역	• 역사·문화 경관자원에 대한 보전 • 낙동강과 그 주변에 대한 경관자원 보전	• 하천자원과 시가지 연접부에 대한 경관 관리 강화 •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지 주변의 경관 관리 강화 • 농촌경관 관리 강화	•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되는 수변경관 형성 •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따른 시가지 경관 형성 • 고속국도 주변부의 경관 형성

경관축

○ 경관축은 백두대간과 낙동정맥으로 연결되는 산악녹지축, 낙동강 수계를 따라 수변생태축,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해안경관축, 경부고속국도와 주변지역을 경부고속국도축으로 설정하고, 특성화 도모



〈표 3-180〉 경관축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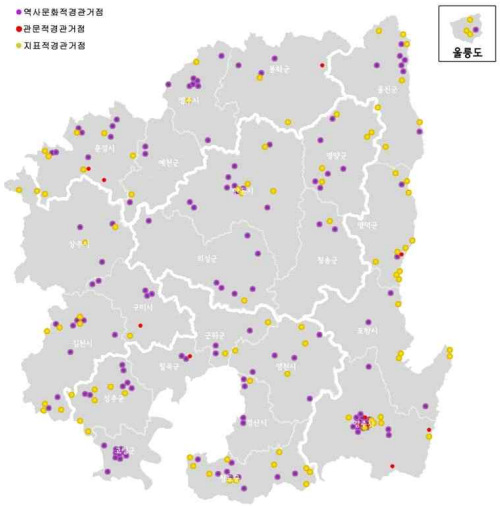
구분	범위 및 미래상
산악 녹지축	• 백두대간, 낙동정맥과 그 주변지역 ⇒ 자연과 조화되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산악·녹지경관 보전
수변 생태축	• 낙동강과 낙동강 주변지역 ⇒ 4대강을 대표하는 친환경 수변경관 형성
해안 경관축	• 국도 7호선 및 31호선과 주변지역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이 조화되는 해안경관축 형성
경부고속 국도축	• 경부고속국도와 그 주변지역 ⇒ 경상북도 상징도로 경관 형성

〈표 3-181〉 경관축별 특화방향

구분	보 전	관 리	형 성
산 악 녹지축	• 백두대간 및 낙동정맥의 자연환경 및 지형적 특성의 보전 • 주요 조망점에서 보전지역으로의 조망축 확보	• 훼손된 산악녹지축의 복원 • 교통시설 통과지역에 대한 경관관리 • 시가지 연접부 경관관리 • 역사·문화자원 주변 경관관리	• 산의 정상지역(산·봉·대)에 대한 경관 개선 • 관광휴양지 경관 관리
수 변 생태축	• 수변생태계 보전 • 주변의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조화로운 경관 유도	• 낙동강과 주변지역의 경관관리방안 마련 - 시가지, 산업단지, 기반시설(교량) 경관 관리	• 시가지에서의 낙동강으로의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 • 하천부지를 활용한 여가공간 마련 및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
해 안 경관축	• 수려한 자연경관자원의 보전	• 산업경관 특화 및 관리 • 해양레저시설 경관관리 • 울릉도·독도 경관관리방안 마련 강화 • 역사·문화자원과 관광지 주변의 경관관리 강화	• 동해안 경관도로 구축
경 부 고 속 국도축	• 고속국도 주변 경관관리 - 자연, 교량, 시가지·산업단지, 농촌경관, 광고물 관리	• 고속국도 관문경관 창출	-

경관거점

○ 도시기본계획 및 관련계획, 경북내 대표적인 설화의 대상 장소 등에서 우수한 경관자원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관거점을 대상으로 역사·문화적 경관거점, 지표적 경관거점, 관문적 경관거점으로 구분하여 총 117개소의 경관거점을 설정하고 특화함.



〈그림 3-69〉 경관거점 설정

〈표 3-182〉 경관거점별 특화방향

구분	특 화 방 향
보전	• 역사·문화경관자원과 자연경관자원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경관자원의 활용과 환경개선 방안 마련 • 경관자원에 대해서 공공성 있는 유연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정비, 경관자원간의 네트워크 구축, 인센티브 및 지원계획 등을 마련하여 경관거점의 특성화 방안 마련
관리	• 경관거점과 문화 및 관광자원의 보행네트워크를 구축 (보행 연결이 불가능할 경우 교통적 연계방안의 강구) • 탐방로 내에서는 안내시설 및 유도시설과 휴게시설 등을 정비하여 접근성 및 보행 편의성 확보 • 경관사업을 통한 인프라 정비 및 환경 개선 •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을 통한 주변지역 경관 관리
형성	• 경관거점별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경관 및 관련사업 (경관사업, 가로환경개선사업, 도시계획사업 등)이 예상되는 지역의 경관형성 방안 마련 • 역사·문화자원의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역사성 및 장소성을 제고 • 유지관리, 시민활용의 측면에서 소외되어 있는 도(시)지정문화재, 근대건축문화유산, 근현대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 등에 대한 관리 • 경관거점에 전해지는 설화, 전설 등을 스토리텔링하여 지역명소화 전략 마련

나. 특정경관의 전략적 보전 및 관리

백두대간 특정경관

○ 보존가치가 높은 백두대간의 경관자원을 무분별한 이용과 개발로부터 보존 도모

○ 경관자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원·풍·경이 남아 있는 백두대간 경관을 형성

○ 경관유형별 특성을 보전하여 백두대간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백두대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

〈표 3-183〉 백두대간 특정경관 관리방향

구분	관리방향
교통시설경관	• 원칙적으로 마루금의 절단을 피하고 터널설치를 통해 마루금과 스카이라인 보전 • 터널이나 도로 통과지점 주변의 절개면을 최소화하여 주변 경관을 보전 • 주요 도로에서 백두대간의 스카이라인과 풍부한 녹음을 향한 조망경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요인을 제한하고 관리 • 관리대상 : 선형, 절개지, 경계부, 재료, 녹지의 연속성, 구조물의 형태와 색채 등
휴양·문화시설경관	•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휴양·문화시설 관리 • 과도한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개발로 유도 • 고층, 고밀, 대규모 건축물을 지양하고 저층, 저밀의 친환경개발을 유도 • 시설 내부에서 백두대간으로 향하는 조망경을 정비하고, 시설의 주요 건축물은 백두대간의 조망을 돋보이도록 형성 • 관리대상 : 개발지, 절개지, 형태, 색채, 마감재료, 스카이라인 등
산업시설경관	• 개발과정에서 과도한 절성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 광산(채석장) 인허가시 시가지와 주변에서의 조망뿐만 아니라 백두대간 주요 마루금에서의 조망을 포함하여 검토 • 광산(채석장) 사업 후에는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복원방법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고, 사업 후 관리 체계화 • 공장, 창고 등 대규모 건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한 색채, 마감재료, 높이 등을 정비 • 관리대상 : 개발지, 절개지, 복원상태, 마감재료, 색채, 형태, 스카이라인 등
시가지경관	• 시가지에서 백두대간을 조망할 수 있는 조망축을 정비 • 시가지에서 백두대간을 조망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조망경을 정비 • 조망축과 오픈스페이스에서 백두대간을 조망할 수 있도록 주변 건축물의 형태, 높이, 색채 등을 정비 • 백두대간의 스카이라인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요 조망점에서 스카이라인을 관리 • 관리대상 : 형태, 방향, 디자인, 높이, 마감재료, 색채, 스카이라인, 구조물 등
조망경관	• 주요 도시의 도로축, 하천축, 광장, 오픈스페이스 등을 정비 • 도심으로 진입하는 주변 주요 도로축에서 백두대간의 양호한 조망경을 관리 • 주요 도로 및 하천 주변을 조망점으로 정비 • 관리대상 : 배치, 형태, 높이, 개방성, 마감재료, 스카이라인, 군집형태 등

동해안 특정경관

○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고유한 지역성을 반영한 해안 지역의 이미지 창출

○ 유형별로 고유한 경관 특성 보전하여 잠재력 극대화

○ 지속가능한 미래 녹색에너지벨트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경관을 통해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토록 함.

〈표 3-184〉 동해안 특정경관 관리방향

구분	관리방향
자 연 경 관	• 우수한 해안 자연경관의 보전 및 생태계 보호 • 수려한 경관 지역은 개발을 최소화하여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전 • 해안경관의 자연지형을 적극 보전 • 바다 조망이 필요한 곳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조망시설 정비
어 촌 경 관	• 자연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어촌경관 개선 • 어촌의 지역적 정체성 회복으로 잠재력 있는 해안마을 가치 향상 • 어촌마을 환경개선은 주민주도의 경관사업으로 생활경관 정비
어 항 경 관	• 상징성 있는 어항 경관 형성 • 주요 조망 축 및 조망점 정비 • 항구의 주요 가로변 상업시설 정비 • 어항주변의 횟집, 주차장, 상업시설의 무분별한 간판 규제 및 지침 개발 • 산업경관이 중요한 어항경관은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형성
친 수 공 간 경 관	•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친수공간 정비 • 주변 어항 및 어촌의 지역성을 반영하여 친수공간 경관관리 및 형성 • 바다로의 접근성 제고 및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녹화 • 주요 해수욕장 및 해안공원의 진입부 광장 및 친 보행자 공간 조성
시설물 경 관	• 해안경관이 우수한 도로는 경관도로로 설정하고 경관확보 및 차폐를 통해 중점 관리 •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통합 디자인을 통해 도로변 시설물 정비 • 에너지 벨트 단지 조성시 해안으로 조망과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경관 관리

다.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

낙동강뱃길 경관

○ 낙동강 주변의 경관이 수려한 산악 및 구릉지형 보전

○ 습지, 백사장 등 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자원의 보전 및 활용

○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의 연계

- 상주보, 구담보 등 수공간 정비 사업과 연계한 프로그램 계획
- 주요 경관자원과의 연계성 증진
- 강을 활용한 여가공간 조성, 수변접근성 개선,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 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
-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 주변 자원과 연계한 생태 및 역사·문화축 조성

○ 낙동강 주변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재 탐방코스 개발

- 낙동강 연접부 수변생태공원의 조성으로 시민여가공간 확충
- 병산서원~하회마을~경천대~삼강주막으로 이어지는 낙동강 뱃길 경관 사업 추진
-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자원과 연계된 체험프로그램 개발

〈그림 3-70〉 낙동강뱃길조성사업 구상

백두대간 경관

○ 백두대간의 조망이 우수한 지역을 선정하여 조망점 정비 및 쌈지 공원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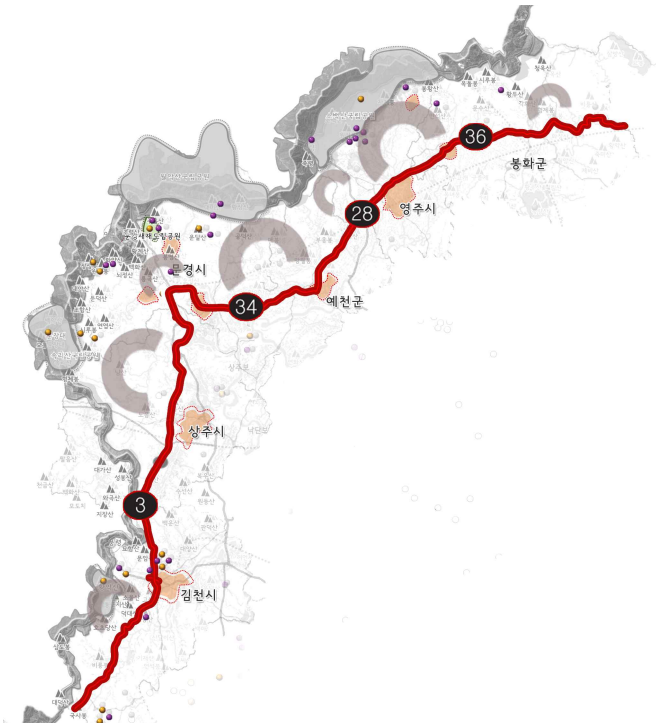
○ 도로경관 특화

- 상징물, 상징탑 등의 조성을 통한 경계부 경관 창출

- 도로의 절성토면 관리, 중앙분리대 녹화, 방음벽 경관관리, 경관식재, 보도정비 등을 통한 경관도로 조성

○ 주변지역 관리

- 주변건축물, 가로수 등 도로 주변의 시설물 경관 개선
- 역사·문화자원, 주요 관광지, 개발지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 국도 주변 건축물 및 주요시설물 야간경관 특화
- 백두대간이 조망되는 주요 조망점은 전망데크, 포토포인트(포토존), 쌈지공원 등 조성



〈그림 3-71〉 백두대간 경관도로사업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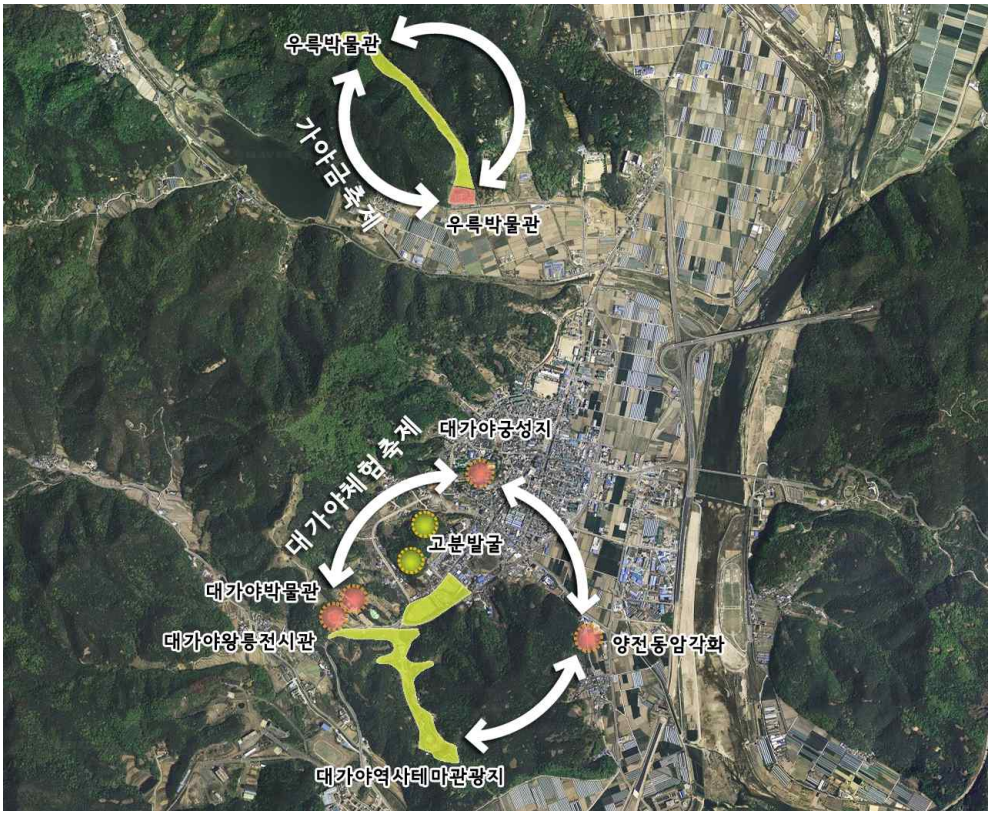
대가야역사경관지구 경관

○ 역사경관 형성

- 고령읍에서 조망되는 주산으로의 통경축 확보
- 잠재된 역사성의 발굴 및 보전·육성을 통한 고령의 이미지 창출
- 고령읍의 주산을 배경으로 한 우륵박물관~우륵기념탑~지산동고분군~대가야역사박물관~대가야역사테마공원을 잇는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 대가야 경관권역 정비

- 대가야 역사·문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테마공원화사업, 역사관 건립, 박물관 건립, 가야토기요지 복원 및 정비 등을 통한 대가야도읍지 위상 제고
- 가야문화권의 대표적인 지역임을 고려하여, 숙박시설, 휴양시설, 편의시설 등의 계획 시 주변과 조화를 추구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 시가지는 전통적 요소의 시설 도입을 우선 고려하고, 가급적 전통경관과 어우러지는 공공디자인계획을 수립
- 가야문화를 테마 한 민속마을, 토기·철기 공방촌 등을 계획하고, 가야문화의 통합이미지 구축



〈그림 3-72〉 대가야역사경관지구 경관 구상

라. 도청신도시 녹색경관 창출

○ 검무산, 호민지 등 자연경관자원의 보전과 활용으로 녹색도시 이미지를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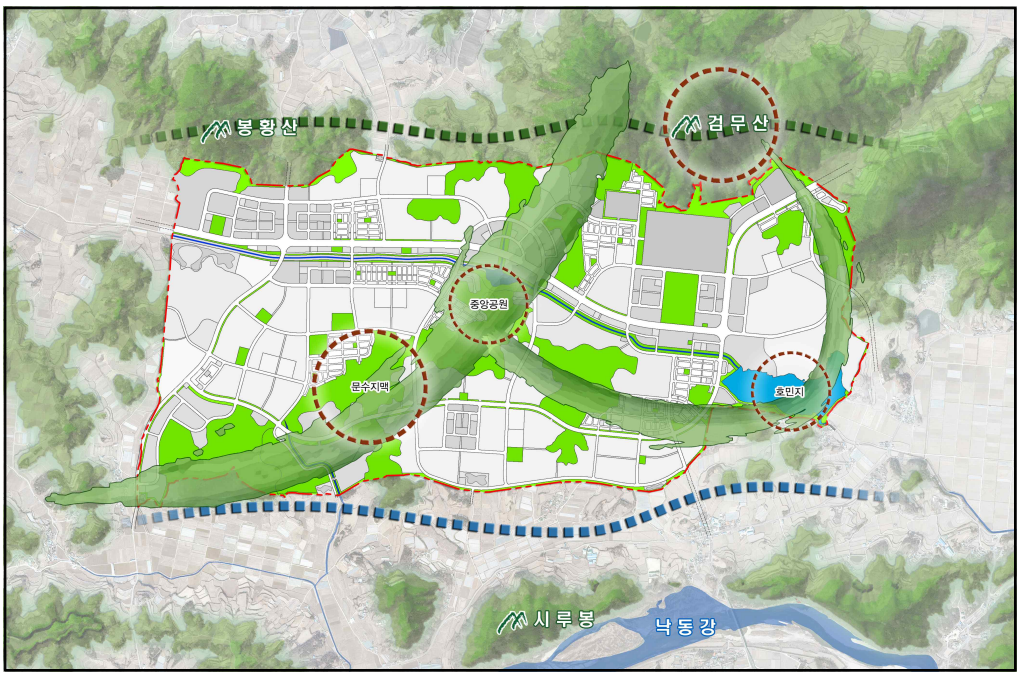
○ 주변지역과 연계되며 신도시 전체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경관형

성 및 연출

○ 지구의 경관 골격을 녹지경관축과 수경관축으로 형성하고, 주변의 인지성이 강한 산악의 인상적인 체험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축경관을 창출

○ 인공수로 조성을 통해 신도시내에 도시적 경관과 자연적 경관을 동시에 체험 가능하도록 유도

○ 거시적 도시경관 뿐만 아니라, 보행을 통해 체험할 수 있는 미시적 경관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녹지축과 보행과의 연계를 도모



〈그림 3-73〉 도청이전신도시 녹지경관축 구상도

마. 통합 경관행정 지원체계 마련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개선

○ 경상북도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경관관련 사업의 내용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을 건축디자인과와 사전 협의하고 경관위원회 심의(자문)을 받는 행정체계 마련

○ 경관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조직의 경상북도와 시·군 일원화 도모

○ 경관 및 도시디자인 부서는 디자인행정, 경관계획, 건축디자인, 옥외광고물, 공공디자인 등으로 구분하여 전문성 확보

○ 경관관련부서의 공무원 재교육과 전문인력 채용 및 양성

○ 전문가 풀제를 상시기구로 설립하여 상시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 마련

경관위원회 자문기능 강화

○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법에서 정한 사항에 한정하고, 자문기능을 보완하되 타 위원회의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관적으로 영향이 큰 개발사업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관조례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

바. 경관협정에 의한 자치적 관리체제 구축

주민참여형 경관프로그램 운영

○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별로 담당공무원 및 주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적 협의체를 구성

○ 지역별, 기관별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보전, 형성)를 위한 관리전략을 마련

○ 주민참여 경관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행

○ 지역주민의 경관인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지역주민의 경관행정 참여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주민참여 경관개선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시·군에 대한 교육과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통한 경관협정의 효과 극대화

○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조직 구성 및 운영

○ 행정업무담당(경관담당 공무원), 경관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운영조직 구성

○ 운영조직은 관·학·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관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사항 검토 및 운영재원 심의 및 집행

경관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확대

- 경관업무 전담부서 담당공무원 대상 교육 실시
- 일반인들의 경관의식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및 체험형 프로그램 개발, 주민 교육프로그램, 경관관련 정보지 발간, 세미나 개최 등 추진
- 경관형성 시민활동가 육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초·중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마련

제3절 안전과 방재

1. 현황 및 문제점

가. 자연재해

매년 발생하는 태풍규모에 따라 피해규모 증대

○ 경북의 풍수해 피해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2년 태풍 '루사'나 2003년 '매미' 등 당해년에 발생하는 태풍 규모에 의해 피해규모가 커지는 경우를 예상해야 함.

○ 시설별로는 공공시설의 피해액이 가장 크므로 공공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표 3-185〉 경북 풍수해 발생 추이

(단위 : 명, ha, 백만원)

구 분	사망	이재민	침수 면적	피 해 액					
				계	건물	선박	농경지	공공시설	기타
2005년	11	825	3,215	78,450	3,031	63	1,756	62,081	11,519
2006년	4	127	1,997	63,807	1,170	327	1,454	55,794	5,061
2007년	-	89	60	7,334	1,035	38	59	5,936	266
2008년	9	76	93	34,310	1	-	2,443	30,547	1,318
2009년	-	5	60.42	2,750	45	4	360	1,709	633
2010년	-	9	325	579	90	-	119	81	289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

○ 지구온난화로 인해 한반도 평균기온 0.18℃/10년 상승, 강수량은 21.7mm/10년 단위로 증가

○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 2008년 경상북도 봉화 호우, 2009년 강원도 태백 가뭄 등 모두 극심한 피해

- 경북도 여름철 강수량이 많아지고 있으며, 국지성 집중호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

○ 시급한 기후변화 대책

- 기후변화 적응계획으로 대응하는데 과학적 분석, 절차가 복잡하여 많은 시간 소요

- 연안해상 기상변화에 대응하는 지방어항 등 소규모항 방파제 등 외곽시설의 안전기준 강화

위험요소와 피해양태 변화에 부응하는 빠른 대응책 변화 필요

○ 자연적·사회적 위험요소와 피해양태는 변화하고 있는 것에 반해 관리주체와 관리형태의 변화는 많은 시간을 요함.

○ 중앙의존적 방재에서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방정부주체의 방재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함.

나. 인위재해

재난사고 발생은 도로교통사고, 화재 순

○ 재난사고 발생은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

- 2010년 현재 도로교통사고(16,660건)가 제일 많으며, 그 다음이 화재(2,957건)의 순임.

○ 시·군별로는 포항시가 3,42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구미시(2,810건), 경주시(2,708건), 안동시(1,291건)의 순임.

〈표 3-186〉 경북 재난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화재	산불	붕괴	폭발	도로교통	환경오염	해난
2005년	19,308	1,901	81	4	-	16,978	1	25
2006년	19,721	1,909	45	7	-	17,003	-	86
2007년	19,758	2,986	60	4	5	16,423	4	63
2008년	18,917	3,144	77	-	-	15,626	19	51
2009년	20,527	3,280	145	4	-	16,953	9	136
2010년	19,817	2,957	45	7	-	16,660	8	140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증가하고 있는 화재발생과 그에 따른 피해

○ 2005년 1,901건이었던 화재 발생건수가 매년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957건에 이르고 있음.

○ 인명피해도 매년 100명 이상이며, 물적피해도 감소하지 않고 있어 화재 안전교육 및 신속 대응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표 3-187〉 경북 화재발생 현황

구 분	발생건수	인 명 피 해			이재민수 (명)	재산피해 (백만원)	건물소실 (평)
		계	사 망	부 상			
2005년	1,901	123	36	87	246	8,395	96,090
2006년	1,909	124	36	88	159	9,372	107,528
2007년	2,986	153	28	125	162	16,000	366,088
2008년	3,144	164	24	140	175	23,414	448,550
2009년	3,280	194	38	156	264	23,418	1,854,378
2010년	2,957	150	28	122	147	16,689	488,33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 소방본부, 「2010 화재발생 통계자료」, 2011

○ 2010년 화재발생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2,957건 중에서 부주의가 1,232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이 697건임. 화재 안전교육을 통한 화기사용 주의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음.

〈표 3-188〉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전기적 요 인	기계적 요 인	화학적 요 인	가 스 누 출	교 통 사 고	부주의	기 타 실 화	자연적 요 인	방 화	미 상
2007년	2,986	612	271	11	28	69	1,235	40	167	42	511
2008년	3,144	666	283	20	14	68	1,274	76	18	142	583
2009년	3,280	623	291	17	10	57	1,438	79	20	154	591
2010년	2,957	697	349	15	8	60	1,232	73	28	100	39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 특히, 전기적 요인은 노후 건축물 등의 누전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설물의 설계 및 건축, 방어 시설물의 구축, 노후

불량건축물 정비 등 체계적인 예방대책 수립이 요구됨.

○ 2010년 화재발생 현황을 장소별로 살펴보면 2,957건 중에서 주거시설이 74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운송 526건, 공장 및 창고 285건의 순임.

○ 특히 최근 아파트 화재의 경우, 특성상 인구밀도가 높아 피난이 어렵고 효율적인 인명구조가 쉽지 않아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해야 함.

〈표 3-189〉 경북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주거시설	학교	공장 및 창고	음식점	운송	임야	기타
2008년	3,144	742	30	318	117	598	254	1,085
2009년	3,280	784	21	325	110	517	369	1,154
2010년	2,957	740	27	285	139	526	198	469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2011

주거시설의 재난 위험 가중

○ 주거시설 형태의 변화 : 가정주택 감소, 공동주택 증가

- 전체 화재발생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건수와 인명피해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공동주택이 52.7% 차지
-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시 저층 건물과는 다르게 수직성으로 인한 피난의 어려움과 함께 드래프트(Draft)현상[7] 발생
- 또한 좌우층보다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 위험성이 높고, 제한구역에서의 소방활동이 어려우며 화재발생시 인명, 재산 피해가 매우 심각

○ 형식적인 안전진단이 아닌 실질적 안전진단 필요

- 1988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축물 안전진단 제도 도입
- 안전진단은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이나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형식적임.

7) 드래프트(Draft) 효과 : 굴뚝효과 또는 연돌효과라고도 하며 어떤 구조물의 외부와 내부사이 또는 내부 공간의 온도와 압력의 차이로 인해 공간속 또는 대기중에서 밀도차(密度差)가 생길 때 발생하는 수직적 상승과 하강기류(垂直的上昇·下降氣流).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 2월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평가 완화
- 소방서에서 매년 1회 이상 소방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에 치우쳐 대부분 '양호' 판정
- 그나마 갖춘 소방시설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산불 피해

○ 경상북도의 경우, 험준한 산세에 숲이 울창하여 산불 발생시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대형화의 우려가 있음.

○ '07년부터 '11년 사이 산불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09년(피해면적 747.43ha, 피해액 2,452백만원)과 '11년(피해면적 742.88ha, 피해액 19,090백만원)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음.

〈표 3-190〉 경북 산불발생 현황

(단위 : 천원, ha)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면 적	62.83	52.17	747.43	113.97	742.88
피 해 액	64,642	141,903	2,452,429	1,767,484	19,089,525

자료 : 경상북도, 「산불통계연보」, 각년도

○ 발생 원인별로 보면 등산객 등 입산자 실화와 논 · 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이 주요 원인이므로 무엇보다도 입산자의 부주의와 농촌지역의 고령자들에 의한 논·밭두렁 소각과 농산물폐기물 및 농산부산물에 대한 대책이 산불예방의 관건임.

〈표 3-191〉 경북 산불의 발생원인

(단위 : 건, %)

구 분	합계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기타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2007년	60	100.0	33	55.0	15	25.0	12	20.0
2008년	77	100.0	30	39.0	20	26.0	27	35.0
2009년	143	100.0	40	28.0	50	35.0	53	37.0
2010년	45	100.0	20	44.0	12	27.0	13	29.0
2011년	45	100.0	10	22.0	22	49.0	13	29.0

자료 : 경상북도, 「산불통계연보」, 각년도

○ 경상북도는 건조한 편서풍과 동해안의 푄현상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하는 경우도 있음.

○ 시·군의 산림담당 부서의 직제 축소로 조직과 인력이 취약하며, 산불방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국고보조율이 극히 미약(30% 정도)하여 효과적인 산불방지와 진화작업에 어려움이 있음.

인명피해는 매년 감소하나 재산피해액은 매년 증가

○ 재난사고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며, 재산피해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 시·군별 인적피해로는 포항시가 4,487명으로 인명피해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구미시, 경주시의 순임.

○ 물적피해로는 '05년에 308백만원 정도이던 것이 '09년에 23,418백만원으로 대폭 상승하였음. 2010년 현재 16,689백만원으로 큰 폭으로 하락

〈표 3-192〉 경북 재난사고 인명 및 피해액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인적피해			재산피해		
	계	사망	부상	계	부동산	동산
2005년	28,051	932	27,119	308,420	183,397	125,023
2006년	27,236	1,709	25,527	9,372,227	4,507,860	4,864,367
2007년	26,591	929	25,662	16,000,801	7,482,001	8,518,801
2008년	25,423	-	-	23,414,062	12,172,900	11,241,162
2009년	27,406	-	-	23,418,492	10,491,421	12,927,071
2010년	26,632	-	-	16,689,655	7,975,838	8,713,817

주 : 2008년에서 2010년의 경우, 사망, 부상자료 누락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다. 안전관리

지속적인 안전관리 전개

○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경상북도는 점진적으로 대응장비 보강 필요

○ 2010년 소방장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장비는 629대로서 매년 장비를 보강하고 있음. 이 중 소방장비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펌프차(237대)임.

〈표 3-193〉 경북 소방장비(차량)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고가차	굴절차	화학차	소방헬기	펌프차	물탱크차	기타
2005년	569	11	16	19	1	258	26	238
2006년	592	11	17	20	2	263	32	247
2007년	607	11	17	20	2	262	33	262
2008년	606	13	17	19	2	240	35	280
2009년	625	13	17	25	2	226	43	299
2010년	629	14	15	22	2	237	40	327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 연도.

○ 소방헬기는 2대 보유하고 있으며, 고층건물의 화재를 대비한 고가차는 14대 보유하고 있음. 그러나 화재시에 이동시간이 길어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함. 그리고 산불과 같은 광역적인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소방헬기의 추가확보도 요구됨.

이원화 되어있는 안전관리 대응체계

○ 2000년 이후 기후온난화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는 국지성 호우가 잦았는데 그 중에서도 경북은 2002년 8월의 태풍 '루사'로 전국피해액 51,480억원 중 15%에 해당하는 7,908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고, 이듬해 9월에는 태풍 '매미'에 의해 6,68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 이런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2005년 1월 17일 경북재해대책본부의 명칭을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개칭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있음.

- 상황총괄반, 행정지원반, 구조구급반, 비상지원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공보지원반으로 나누어 재난에 대비하고 있음.

○ 민선4기까지 재난관리는 건설도시방재국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

중 자연재난은 치수방재과에서, 인적재난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이원화하여 담당

- 24시간 상황실 운영으로 재난예방과 재난에 따른 대책업무를 수행하였음.

○ 2010년 민선 5기 출범 후 인적재난은 기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건설도시방재국 안전정책과로 바뀌고 자연재난은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였음.

○ 2011년 3월 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시 초기 대응태세 확립과 재난 관리체계 선진화를 위해 안전정책과를 행정지원국으로 이관하였음.

재난관련 업무의 총괄 담당부서 부재

○ 안전관리 총괄 담당기관 부재시 문제점 발생

-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역할범위 모호
- 재난대응기관간 조직구조 상이
- 재난현장 대응조직간 총괄·조정기능의 중복
- 총괄지휘권자의 미지정

○ 안전관리 담당의 불명확

- 인적재난과 자연재난, 현장대응에 따라 담당부서 중첩
- 관리 지역이 넓지만 각 시·군 담당자는 1~3명 내외로 운영

획일적인 안전관리계획

○ 대도시, 산업도시, 농업도시 등 지역별 특성이 있으나 재난대책은 획일적으로 적용

○ 일반적, 획일적 대책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우며 재난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또한 곤란

○ 각 시 · 군에 '안전관리계획'이 있으나 대부분 대응체계 구성에 관한 내용만 수록

○ '안전관리계획'이 재난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식, 단계별, 적용대상별 등의 특성화가 필요함.

라. 안전의식

재난예방 및 교육에 대한 낮은 관심도

○ 지속적인 재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재 예방교육에 대한 시민 관심이 매우 낮음.(ex. 민방위 훈련)

○ 민방위 훈련, 예방정책의 무관심

- 1990년대 이후 예방정책의 주 내용은 재난예방교육, 홍보, 시설지도, 민방위 재난 훈련
- 그러나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1990년대 이후 계속 훈련 횟수가 감소

시·도민들의 안전불감증

○ 재난 발생 이후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 항상 재발

- 재난에 대한 경각심과 두려움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망각하고 다시 안전 불감증 재발
- 일반 가정이나 가게, 회사에 소화기나 방독면과 같은 방재 물품이 대부분 구비되지 않음.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재해에 노출되어지는 시·공간의 증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증가

○ 기후변화는 인류를 포함한 지구상의 다른 생물종의 생존자체를 위협하는 21세기 최대의 환경 문제로 부상

○ 폭염, 폭설, 게릴라성 집중호우, 이상파랑 등 자연재난이 계획기간 내 발생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지속기간은 길어질 것으로 예상

○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여 전염병 증가 및 생태계 교란 발생할 것임.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 증대

○ 저출산 및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수요 증가

○ 도시 인구집중, 교통난, 초고층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및 다중이용시설 증가 등 재난안전 환경 악화로 단일 사고나 사건을 복잡한 재난으로 발전시킬 개연성이 높음.

나. 경상북도의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재난위험도

위험요소와 피해양태의 증대

○ 전 지구적 기상이변 심화와 난개발 및 생활구조 급변에 따른 자연적·사회적 위험요소 증대

○ 시공간적 불가측성과 재해 규모 증가에 따른 공간적 피해범위 확대

중앙의존적 방재관리와 방재관리형태의 부실

○ 중앙의존적 방재관리와 경상북도 자체의 방재인프라 미흡

○ 사후적 피해구제, 수동적 현상 수용, 분산적 단절 관리, 국가(중앙) 의존적 방재관의 방재관리형태를 띠고 있음.

〈그림 3-74〉 방재역량을 뛰어넘는 재난위험도

다. 방재구조와 행정체제의 변화

종합적인 예방, 대응, 복구의 방재구조로의 전환

○ 관리계획 측면에서 현재의 단편적이고 경험적으로 이루어져 오던 방재설계와 감시·관측이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방재 예산 측면에서 복구, 부처별 예방사업, 기능 확보 위주의 사업이 예방 중심의 부처연계 종합예방사업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

○ 취약지역관리 측면에서는 물리적 개선사업으로 이루어지나 이주대책 등을 통한 원천적인 대응 방지로 전개될 것이며, 국지적이던 시설 개선이 광역적인 원인 해소로 변환될 것으로 예상

○ 피해복구 측면에서는 단순 복구에서 예방 복구로, 시설별 개별복구에서 지역 전체의 방재력 향상을 위한 지구단위 종합복구로, 부처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복구상황 관리에서 통합 복구상황관리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표 3-194〉 방재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분 야 별		현 재	미 래
관리계획	방재설계	단편적	종합적
	감시/관측	경험적	과학적
	SOC 건설	기능 위주	기능강화+방재개념
방재 예산		복구 중심, 비용 개념	예방 중심, 투자 개념
		부처별 예방사업	부처연계 종합예방사업
		기능 확보 위주의 사업	기능 확보+경영수익사업
취약지역관리		물리적 개선사업	물리적 개선사업+이주대책
		국지적 시설개선	광역적 원인 해소
피해 복구		단순 복구	예방 복구
		시설별 개별복구	지구단위 종합복구
		부처별 개별 복구상황 관리	통합 복구상황관리
		공급자 중심 재해구호	수요자 중심 재해구호

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의 선진화

○ 행정관리 측면에서 분산적인 재난관리를 탈피하고 통합적 재난관리로 전환될 것이며, 민 · 관의 연계가 더욱 강화될 것임.

○ 행정기반 측면에서는 단순하고 전통적 토목 위주로 전개되던 사업이 첨단기술이 결합되어지면서 종합적인 행정지원 및 행정기반을 조성할 것임.

〈표 3-195〉 방재행정체제 및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분야별	현 재	미 래
행정관리	분산적 재난관리	통합적 재난관리
	민 · 관 연계 미흡	민 · 관 연계 강화
행정기반	단순 전통적 토목사업 위주	첨단기술 결합 방재사업 중심
	피해 무상지원 체계	자기책임형 피해관리 체계 (최근의 풍수해보험 등의 전개)

3. 계획 방향

가. 목표

안전·안심지역 창조

○ 안전한 공간 창조를 통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경상북도 구현

○ 이를 위한 기본 목표는 시·군 방재능력 향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창조, 시·군민의 안전의식 고취로 설정

나. 추진방향

선제적인 재해예방, 신속한 재해대응, 완벽한 복구체제 확립

○ 자연재해는 재해발생의 특성상 인위적으로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예방위주의 종합적 방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종합방재대책 수립

○ 신속한 응급대책의 수립으로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가안전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응급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대피·구호·구조 대책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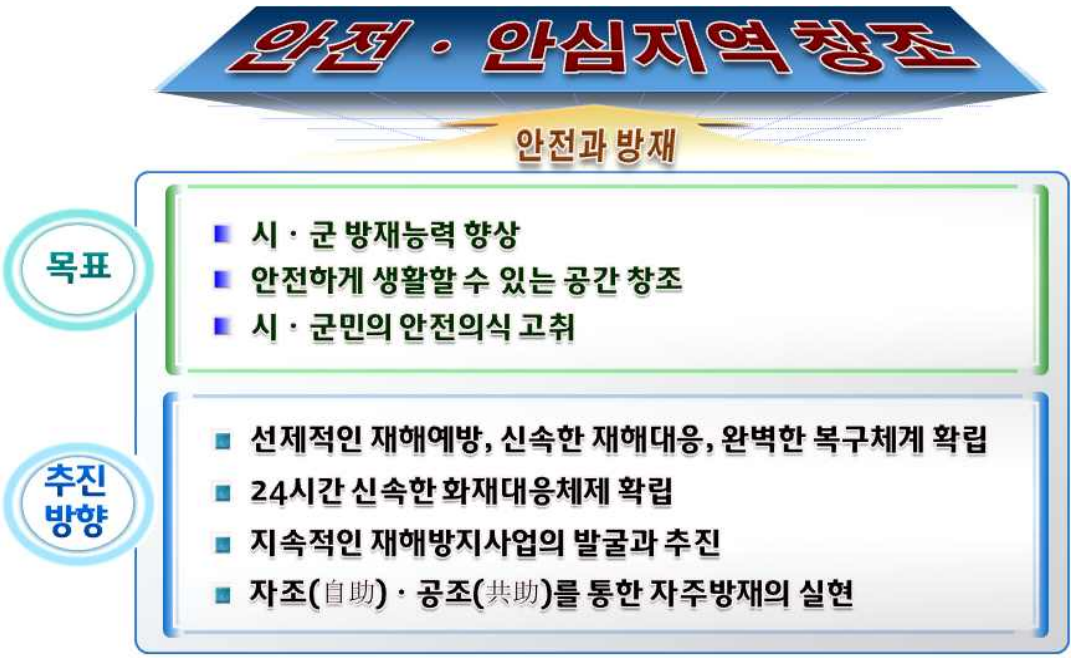
○ 피해규모의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과 재난정보의 수집·전달에 필요한 통신수단을 수시점검하고, 재난상황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등급별 대응철차를 마련하여 응급복구체계 확립

○ 향후의 복구 대책 수립을 위하여 재난복구사업을 사후평가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과 재난교훈의 전승으로 반복된 재난을 방지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의 방재기반 조성

24시간 신속한 화재대응체제 확립

○ 산업발전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급격한 증가와 생활환경의 변화, 그리고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화재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한 단계 앞선 예방활동으로 화재발생을 미연에 방지함.

○ 화재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규제완화 정책의 추진과 소방기관의 대책이 화재예방보다 진압에 치중하고 있는 점, 화재원인이 철저하게 규명되지 않음에 따른 유사화재의 예방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함.



〈그림 3-75〉 안전·방재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 대규모 화재와 폭발에 대비한 위기상황 대처능력 확보와 위기상황으로의 발전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재난관리능력 확보토록 함.

○ 주로 입산자의 실화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등산객 관리가 특히 요구되며, 감시활동 강화로 초기진화에 노력함.

○ 산불방지인력 감소와 장비 노후화가 산불진화를 더욱 어렵게 작용하는 요인이므로 인력보강과 최신장비 도입으로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지속적인 재해방지사업의 발굴과 추진

○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설과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로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의 일제조사와 지정·관리, 응급조치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하여 시설물종합관리지도 작성, 붕괴위험시설물에 대한 집중관리, 설계도면과 시설·설비의 보수 점검 등 시설물 이력관리 등을 DB화한 방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지정과 관리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지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재난위험시설의 장·단기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함.

자조(自助)·공조(共助)를 통한 자주방재의 실현

○ 자율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관리체제를 구축

- 정보공유와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
- 민·관이 합동으로 안전관리체계 및 네트워크를 구성
- 제도정비와 지도점검을 통한 재난취약시설의 지속적인 추적관리 및 안전사각지대를 근원적으로 제거
- 불합리한 점검방식의 개선을 통하여 안전점검의 효율화와 전문성 제고

○ 도민에게 풍수해의 위험과 방재지식을 보급하여 방재의식을 전파

○ 지역의 자율방재조직을 구축하도록 지원

- 실효성 있는 지역자율방재조직체제 구축
- 재난발생시에는 신속한 민방위대의 동원체제 구축
- 대한적십자사, 민간봉사단체를 연계시켜 재난발생시 민간봉사자 활동지원

4. 추진계획

가. 선제적인 재해예방, 신속한 재해대응, 완벽한 복구체제 확립

기후변화 대응 안전기준 강화 및 재난예방과제의 해결

○ 기후인자, 온실가스 및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슈퍼컴퓨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후환경 감시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경북 지역내 주요 거점별 기후환경 관측망을 설치하고, 온도, 습도, 풍향 등 주요 기후인자 외에 온실가스 및 주요 대기오염물질 등도 측정 항목에 포함

○ 측정된 지역의 상세한 기후변화 및 환경 관측 정보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시스템의 기초자료로 활용

○ 관측정보는 실시간 제공하여 행정적 차원 외에도 학술 및 교육목적으로 활용

재난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재난정보의 집결·전파·지휘·통제를 시스템적으로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운영

○ 신속하고 정밀한 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U-방재City 핵심인프라로 조성

○ 극한 풍수해 재난상황 관리를 위해 중앙 및 유관기관간 각종 방재정보를 통합, 연계 운영

○ 국지적 집중호우에 대비한 산간계곡 홍수 예·경보 체계 구축

○ 재난 예방을 위한 방재지도 작성(첨단 3D GIS기법을 이용하여 건축물 침수나 사면붕괴 해저드맵 등)

- 화재위험지도, 홍수방재지도 등으로 구성되며, 한눈에 재난 취약지구와 출동사각지역을 파악 가능

○ 미래의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고려한 재해 취약성 평가시스템 구축

○ 복합 재해에 대한 재해저감시설물의 위험진단 기술 개발(ex. 홍수&산사태)

〈그림 3-76〉 통합재난관리 구축 체계 개요도

자연재해저감시설물 설계기준 강화

○ 적절한 예방시설과 예방노력으로 자연재해는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재해유형별 기후변화 취약성 지표개발 및 평가방법론 개발과 동시에 기후변화를 고려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작성 및 설계기준 강화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시방재성능 목표제 도입하여 각 시·군의 방재능력 향상 유도

○ 재해저감시설물 중 방재조절지 등과 같은 대규모 저류시설을 산업단지 등에 도입하도록 하고 단순 우수저류조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유출수 저류, 비점오염원 저감(초기강우) 등 다목적 활용

신속한 응급대응정비체제 정비

○ 시·군 공무원의 비상소집체제 정비와 정보수집 전달수단의 확보, 행동요령작성과 정기적인 훈련실시 및 자재와 장비의 사용방법을

홍보 및 숙지함.

○ 응급복구활동을 위한 방재관계기관간의 상호지원을 강화토록 하고, 생활필수품·의약품 등의 조달과 대피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지원체제 정비

○ 긴급수송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정된 수송시설 및 수송거점에 대한 재난의 안정성 확보

○ 고립자 구조나 사상사의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 이송, 현장접근 통제, 현장주변 교통정리, 기타 효율적인 긴급구조활동 등을 담당할 현장지휘소를 신속하게 설치·운영

○ 고립예상지역의 주민에게 군·경찰, 소방서 등 구조관련기관의 연락처 및 신고요령 안내책자, 주민대피요령 및 대피시설 안내 등이 포함된 책자 등을 배포하여 고립지역의 구조대책을 수립함.

○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피해 지자체와 상호협력하여 구조·구급활동을 지원하고,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상시 연락가능토록 하며, 필요 기자재의 신속한 전달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재민에 대한 수용시설 마련과 대피장소에 대한 정보전달과 식료품, 청소 등에 관하여 대피자와 주민, 자원봉사자 간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노약자와 장애인 등 재난취약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함.

완벽한 복구체제 구축으로 평시로의 귀환시간 단축

○ 피해 지자체가 복구의 주체가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을 강구하여 지원을 요청함.

○ 피해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근원적 대책강구를 위한 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토록 하며, 재난의 원인에 관련한 기술검토와 자문을 의뢰하여 효율적인 복구대책을 수립함.

○ 과학적인 피해조사와 수요자 중심의 복구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선진기법의 피해조사와 지자체의 자율방재역량 제고와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복구를 실시함.

○ 기존의 개발계획과 연계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복구사업의 예산을 투명하게 운영토록 지자체의 감독기능

을 강화와 재발방지를 위한 복구대책 수립

○ 사유재산에 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체제를 확립하고 예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험제도를 도입·가입토록 하며, 무상복구지원제도의 단계적 폐지와 축소를 실시함.

나. 24시간 신속한 화재대응체제 확립

취약시설에 대한 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

○ 지하시설물(지하상가·터널·공동구 등)의 체계적인 소방안전확보를 강구하기 위해 지하상가·지하구 및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정례화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함.

○ 취약시기별·유형별 등 특별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여 월동기·봄철 및 명절 등 취약시기별 소방안전대책을 수립하고, 비상구에 대한 사전고지로 유사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강구함.

○ 전기 · 가스 · 유류 사용시설은 상시점검하여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 · 제거하여 예방 및 피해경감을 유도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소방시설 · 건축기준을 준수토록 감독지도 함.

화재·폭발사고 대비 효율적 진압과 수습 대책 강구

○ 인근 지자체 · 소방서간 지원체제 구축 및 가동훈련을 실시하고, 진압 및 구조 · 구급체제 구축 및 대응기술을 개발함.

○ 화재 취약지구 등 소방통로 확보로 신속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 등 민간단체와 연계 · 조직화 활용방안을 강구함. 또 자율 소방력 강화를 위한 자위소방대 운영, 교육·훈련을 강화함.

○ 소방관서·인력 및 장비의 연차적 보강 및 현대화를 통해 부족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해상화재를 대비하여 소방정 및 소방장비를 확보함. 그리고 시·군 자체의 소방역량을 강화함.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를 위한 통합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사상자 후송·치료, 이재민 수용 등 구호 조치 후 전기·가스·통신 등 라이프라인을 우선적으로 복구 조치를 취함.

○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민·관합동 구호조치와 각종 안전조치 및 화재·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등 신속한 피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피해조사에 의거 복구지원계획을 수립함.

○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 상황 보도 및 주민 홍보와 단계별 화재대응 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를 환류하고 화재원인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이를 통한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 수립

○ 대형산불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 단순림 임상을 불에 강한 내화수종으로 갱신하여 조림과 육림을 시행

○ 논·밭두렁 태우기는 산불위험이 낮은 가을철에 풀베기사업으로 유도하고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 우려지역의 인화물질 제거

○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산불취약지의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추진

○ 산림내 송전선로 주변의 인화물질 제거 사업을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추진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에 따른 부산물은 조기에 산 외부로 반출 조치하고 산불취약지역을 조사하여 인화물질 제거사업 추진

○ 진화장비(진화차량, 소방차 등)와 진화인력이 신속하게 산불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산불 진화용 진입도로나 헬기 이착륙장을 확충함.

○ 산불규모에 따라 통합지휘권자 지정 및 유관기관간 공조를 강화하고, 기능별로 진화대를 편성하고 업무를 분담하는 등 현장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유도

다. 지속적인 재해방지사업의 발굴과 추진

재난위험시설 위험요인 장·단기 해소사업 추진

○ 재난위험시설의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하고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함.

○ 재난위험시설 정비·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연도별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정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기타 재원대책 등을 포함하여 재난의 위험도가 높은 재난위험시설[8]을 우선 정비함.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강화

○ 해빙기, 우기재난취약시설 축대·옹벽·절개지, 노후 건축물·교량 등에 대해 지자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안전관리 전수조사를 실시함.

○ 관계부처 합동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표본점검을 실시하며, 현지시정을 원칙으로 위험요인 해소시까지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 함.

원자력재난 방재체제 구축

○ 원자력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과 시설주변의 방사능 점검을 실시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초기대응체제 확립 및 원자력 방재훈련을 주기적으로 수행함.

○ 연료 및 폐기물 수송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방사능폐기물의 보관상황과 원자력시설의 안전관리체제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등 도와 시·군 차원에서 참여조사체제를 강화함.

라. 자조(自助)·공조(共助)를 통한 자주방재의 실현

방재지식의 보급과 훈련

○ 주민에게 풍수해의 위험과 방재지식의 보급을 통하여 방재의식을 전파토록 함.

○ 거주지 및 직장, 학교 등 주민대피계획 및 야간방재훈련을 포함한 정기적인 방재훈련을 실시하고, 노약자나 장애인, 외국인, 유아 등 재난발생시 약자를 배려한 지원체제를 마련함.

지역 자율방재조직의 구축

○ 지역의 자율방재조직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실효성있는 지역자율방재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발생시에는 신속한 민방위대의 동원체제를 구축함.

8) 안전관리대상시설물 : 재난 및 안전관리와 예방을 목적으로 중점관리시설(A~C 등급), 재난위험시설(D~E 등급)으로 분류·지정하여 관리되어지는 시설물

○ 대한적십자사와 민간봉사단체를 연계시켜 재난발생시 민간봉사자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함.

지역 재난관리보험 활성화 도모

○ 재난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 지역별, 시설별 재난위험특성에 부합하는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대상 시설물 현황, 피해규모, 피해원인 등 통계 DB 구축

○ 재난보험 경쟁력 강화 마련 및 소상공인 상가, 공장 등 보험 확대

○ 재난보험 대상재해 확대 및 국가 재난보험제도 도입

○ 풍수해보험 등 자연재해 관련 보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원활한 보험금 지급

재난관리 인력 혁신 도모

○ 전문성 있는 그룹으로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분야 지역 전문가를 전문직 공무원에 채용하거나 재난 관리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인력을 책임자급 이상으로 임명

○ 재난 위험 주요시설의 위험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

○ 종합 안전센터 구축시 분야별 전문가 그룹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 소방방재청 개설 전문가 강좌 활용

○ 방재분야 기술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방재기술 선진화를 위해 전문교육 실시

○ 지역 재난관리 전문 강좌 개설, 참관 등으로 지역 방재 전문가 육성

〈표 3-196〉 재난관리 분야 특수 전문교육(소방방재청)

기본과정	입문과정	전문과정
• 재난관리론 I, II • 재난관리 체계론 • 방재법규 및 제도 I, II • 재난지원 및 자원관리 시스템	• 풍수해 EAP 수립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 복구사업의 평가	• 풍수해 EAP 수립(댐·저수지) • 풍수해 EAP 수립(해일) •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 복구사업의 평가

관련 민간단체 체계화 및 활성화 도모

○ ‘민간단체 역사 기록 사업’을 통해 재난 대응에 참여한 단체를 기록에 남겨 활약상을 기리고 명문화하여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존

○ 현재 분산되어 있는 재난관련 민간단체의 수와 인력, 활동영역 등 현황 파악

○ 재난 발생시 각 민간단체의 역할과 업무량, 그리고 책임한계를 정하되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여 역할 분담

〈표 3-197〉 시민단체 체계화 및 활성화 사업 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체계화 사업	• 민간단체 역사 명문화 사업(활약상, 참여단체 등) • 민간단체 현황 및 활동영역 파악 • 민간단체 역할 및 업무량, 책임한계 구분(자율적 판단)
활성화 사업	• 각종 인센티브 제공 • 민간단체 전문화 지원 • 민간자원 현황 및 민·관 네트워크 구축 • 민·관 통신망 구축 및 연계

○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해 활동 보조금 지원 및 각종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기 부여

○ 관련 민간단체를 가칭 ‘자율안전관리조직’으로 하고 전문화하여 다양한 분야에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자원 현황의 실시간 네트워크 구축, 민간기관 단체와 자치 네트워크 구축사업, 민·관 통신망 구축 및 연계 등

○ 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장의 자세 변화 필수

〈표 3-198〉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구성단체

구 분	가 입 단 체
정 회 원	대한간호협회, 대한민국의용소방대연합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적십자사, 새마을운동중앙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한국구조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타협회,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해병대전우회중앙회,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11개 단체)
협력회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소방방재청, 한국산업안전공단, 한국시설안전공단,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 위기관리이론과 실천, 119매거진(7개 단체)

제4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제1장 행·재정계획

제2장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1장

행·재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행정단위, 행정기구 현황

○ 경북의 지방행정단위(2010년 7월 현재)

- 10시, 13군, 2구, 14출장소
- 36읍, 202면 387동(행정 93, 법정 294)

○ 본청의 행정기구는 11실·국·본부·원장, 6담당관, 50팀·과·단장체제로 운영되고 있음.

○ 행정기능의 확대, 변화에 따라 행정기구도 신설, 통합, 분리, 명칭 변경, 직제조정 등이 이루어져 왔으며, 본청에서의 2001년 이후 과급 이상의 기구신설은 표와 같음.

○ 행정기구의 신설과 변경, 통폐합은 FTA, 독도문제, 문화산업, 도청 신도시 건설 등 당시의 변화에 상응하여 신설, 조정되어 왔다고 보임.

〈표 4-1〉 본청의 기구변동(과급이상의 신설)

연도	신설내용
2001년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
2002년	경북첨단산업추진기획단
2004년	경북종합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단, 투자유치과, 문화재과, 혁신분권담당관실
2005년	과학정보산업국, 민방위재난관리과,지역산업진흥과, 산림보호과, 전국체전기획단, 공공기관이전지원단
2006년	투자통상본부, 새경북기획단, 자치협력팀, 고용노사지원팀, 생활경제교통지원팀, 해양정책과
2008년	관광산업진흥본부, 도청이전추진단, 에너지산업팀, 산업단지관리팀, 관광개발팀, 관광마케팅사업단, 전통문화개발팀, 영상산업과, FTA농축산대책과, 독도수호대책팀
2009년	낙동강살리기추진단
2010년	산림비즈니스과, 일자리창출단, 낙동강살리기사업단
2011년	경마장 건설지원단, 도청이전추진본부, 환경특별관리단

공무원 현황

○ 도 공무원 총수는 2009년 말 현재 23,524명(경찰공무원 제외)으로 2005년(23,706명)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1995년(26,605명)에 비해서는 -12% 감소, 2000년(21,445명)에 비해서는 9%가 증가

○ 공무원 1인당 주민수(주민등록상)는 2000년 131.2명에서 2005년 114.5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10년 현재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 본청과 소방직 공무원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고, 의회 및 사업소와 시군 공무원은 감소추세임.

〈표 4-2〉 공무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0년	2005년	2009년	2010년
총 계	21,445 (100.00)	23,706 (100.00)	23,524 (100.00)	23,783 (100.00)
본 청	935 (4.35)	1,164 (4.91)	1,257 (5.34)	1,278 (5.37)
의 회 · 사 업 소	828 (3.86)	890 (3.75)	873 (3.71)	875 (3.68)
시 군	18,088 (84.35)	19,646 (82.87)	19,091 (81.15)	19,172 (80.61)
소 방	1,594 (7.43)	2,006 (8.46)	2,413 (10.25)	2,457 (10.33)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나. 과제

행정기구의 조정 및 지방인사의 개선

○ 大局, 大課의 조직구성 방식의 도입 및 총정원 관리체제로 행정기구와 정원의 비대화에 대비 필요

○ 사안에 따라 기동작업반(TF구성)과 같은 임시조직의 활용 등의 유연성 확보 및 행정의 민간 개방성의 확대

○ 지방보훈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국토유지관리청, 교육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의 기능조정

○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시·군과 도, 시·군 상호간의 활발한 인사교류로 협조체제 구축

행정기능(행정의 수비범위)의 재정립 및 합리적 재배분

○ 행정의 일반환경은 새로운 행정수요를 발생시켜 행정조직에 영향을 미침

- 지방행정조직은 지방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체이기에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지방행정 조직을 바꾸어나가야 함

○ 민선자치시대 이후에 기능별 기구비율의 증감추세를 보면 삶의 질 기능(보건위생, 문화복지, 환경관리분야)은 크게 증가한 반면, 도시관리기능(경제활성화, 도시주택, 지역개발분야)은 정체, 행정관리기능(기획조정, 행정, 재정)크게 감소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능변화는 광역행정, 보완대행기능은 강화되어야 하고, 연락조정, 지휘감독의 기능은 약화되어야 함

현 황		바람직한 방향
◇ 광역행정기능 (약함) ◇ 연락조정기능 (강함) ◇ 보완대행기능 (약함) ◇ 지도감독기능 (강함)	⇨	◇ 광역행정기능 (강화) ◇ 연락조정기능 (약화) ◇ 보완대행기능 (강화) ◇ 지도감독기능 (약화)

〈그림 4-1〉 광역자치단체의 기능변화 방향

광역경제체제 강화 및 행정협력체제 강화

○ 경북도청 신도시조성에 따른 충북, 강원과의 중부내륙권 광역행정체제 구축 필요

○ 생활권과 경제권을 통합하는 대경광역경제권의 거버넌스 구축 및 강원도, 경북, 울산을 잇는 동해연안권 초광역경제권체제 강화도 필요

○ 교육, 도로, 상하수도, 환경부문의 기능조절과 집행을 담당할 대도시권 연합과 특별구 설치 강구

○ 권역별 공동발전과 연구를 위한 동해연안 자치단체모임, 중서부시군협의회와 같은 협의체 구성과 연계협력방안 강구 필요

참여 및 소통 메커니즘의 강화

○ 정보공개에 의한 시민참여 유도 및 투명행정의 추진

○ 공청회, 간담회, 여론조사에서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조직간의 원활한 정보교환, 업무의 표준화, 정보화 및 행정에 대한 내·외적 통제의 필요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행정환경의 변화

세종시의 건설

○ 국가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공주·연기지역에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하여 총 36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

○ 세종시의 건설은 분권, 분산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여 균형발전에 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세종시와 경북 도청 신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문화, 관광 등 고급 여가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차원의 연계협력방안 모색이 필요

경북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 1981년 대구광역시의 승격으로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2008년 6월 도청이전예정지로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원을 지정하여 공고

- 인구 10만명의 행정중심의 복합형 자족도시를 건설하여 2014년 이후 단계별 이전을 추진

○ 경북도청의 이전은 북부지역 발전의 모멘텀 제공 및 새로운 시대의 발전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됨.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종합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므로 대안 도출과 논의시에 주도적 접근 필요

○ 주로 고려해야 부문은 광역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 재정립, 지방분권의 강화,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의 일치, 행정계층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시군구 개편, 시군통합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대도시 특례 발굴 등임.

나. 행정방식의 변화

소통행정

○ 지역간, 계층간, 성별, 세대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정책소통이 중요하므로 정책결정에서부터 집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갈등해소 및 공감과 소통 정도를 판별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 사업과 정책의 갈등 유무를 사전에 예측하고, 그 성격에 따라 예방, 관리, 사후평가 등의 시스템 필요

광역행정의 중요성 증대

○ 5+2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에 따른 상생협력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됨.

○ 따라서 인접한 자치단체간의 연계 협력사업으로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사업의 발굴이 필요

스마트 행정의 강조

○ 정부에서는 201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30%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워크체제에 편입할 예정

- 유연근무, 모바일 오피스,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의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모바일 서비스, 스마트행정, 스마트치안 구현 등 행정에서도 관련 업무를 지원처리하는 시스템 필요

윤리행정 및 경제행정의 요구

○ 행정조직의 맥락과 개별적 공직자의 행태에 대한 비민주성 제거와 행정윤리 확립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각종 자원의 활용에 대한 주민인식이 크게 달라졌으므로 행정의 기능 중복 방지와 행정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 필요

다. 행정수요의 변화

행정수요 확대분야와 감소분야에 대한 대응

○ 행정수요가 확대될 분야는 사회복지, 환경, 일자리창출, 산업지원 분야 등이며, 농업비중의 감소, 정보화에 따른 관리직 수요, 공기업의 민간위탁 등에 해당하는 분야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특히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기준이 되고, 문화, 여가,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행정이 크게 요구되는 시대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행정기구의 재정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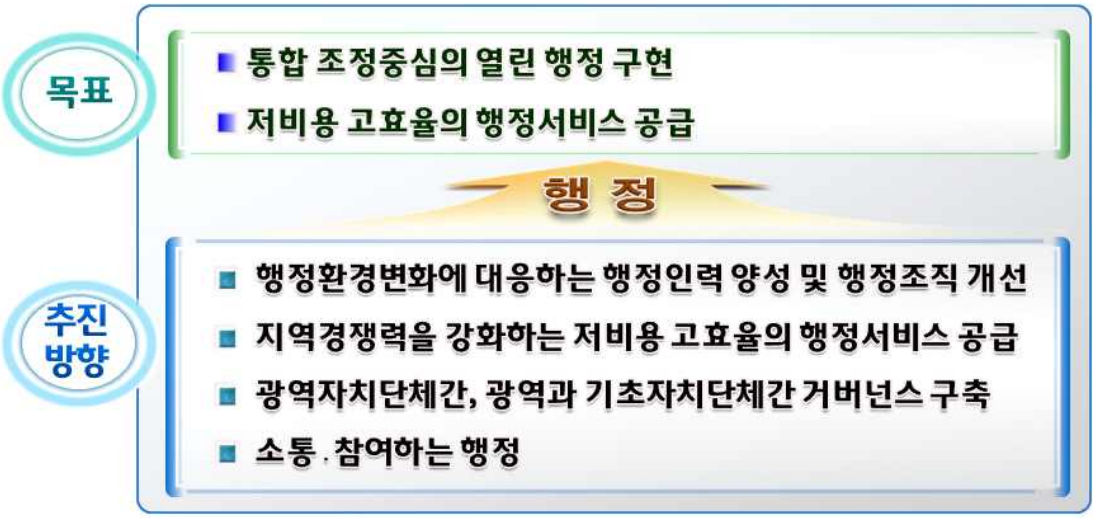
3. 계획 방향

가. 목표

- 통합 조정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
-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 공급

나. 추진방향

- 행정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인력 양성 및 행정조직 개선
-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 공급
- 광역자치단체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거버넌스 구축
- 소통·참여하는 행정



〈그림 4-2〉 행정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행정인력 양성 및 행정조직 개선

○ 적은 자원으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행정인력을

소수 정예화 하여야 하므로 공무원의 충원, 전보, 승진, 교육훈련에서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

○ 전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인사행정을 추진

- 지방공직분류의 세분화 및 직렬별 승진한도 상향 조정, 순환보직 보다는 한자리 장기근무 후에도 같은 직렬내에서 수직 승진기회 확대, 발탁인사 확대, 시험과목 및 교육훈련의 전문화, 보수의 현실화에 의한 이직방지와 사기앙양 등

○ 민간부문 위탁, 해외연수 기회의 확대 등으로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개방형직위를 확대하여 경쟁을 유도

○ 행정조직의 획일성과 조직의 중복을 방지하고, 행정환경과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유연한 체제 강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서비스 공급으로 지역경쟁력 강화

○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을 도입하여 컴퓨터 본체가 없는 그린IT행정인프라 구축

- 모든 PC를 소규모 정보처리 기능의 모니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ID를 입력한 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데스크 탑 가상화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스마트 행정 서비스 환경 조성

○ QR코드,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한 교류 활성화와 도정을 홍보하는 전략 마련

○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문화를 정착시켜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을 지향

○ 결재단계의 단축 등의 행정구조 개선과 청사를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하여 업무환경을 개선

○ 행정서비스 목표설정과 지표화로 서비스 질 제고

-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서비스업무의 책임 운영화, 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행정서비스의 성과측정 지표설정, 서비스 공급과정과 배분과정, 전달과정의 추적과 평가 시스템 구축 등

광역자치단체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거버넌스 구축

○ 공항 건설, 관광벨트, 산업벨트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간 협력하는 정책역량 및 거버넌스 구축 필요

- 동해안 광역권 발전계획(강원, 경북, 울산)
- 남부권 8개 광역자치단체의 협력사업 추진(남부권 신공항 건설 등)
- 대구경북의 협력사업의 선정 및 공동 추진
- 중부내륙권 공동협력(강원, 충북, 경북)
- 백두대간권 협력사업(강원, 충북, 경북, 경남, 전남, 전북)

○ 대경권 협력사업의 선정과 공동추진

- 제7차 세계물포럼 성공적 개최와 물산업 육성
-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및 상설판매장 설치
- 대경권 통합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 대경권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쉬메릭, 실라리안) 공동매장 운영
- 시·도 공무원 및 시·도민 상호교육과 교류활성화 및 귀농 귀촌 지원
- 경북도청 이전 후적지 개발 관련 특별법 개정
- 대구경북 섬유산업 공동 진흥정책 추진
- 한국로봇산업진흥원(대구)과 한국실용로봇연구원(포항)간 협력을 통한 대경로봇산업클러스터 조성
- 대구권 광역철도망 조기 건설 및 대구도시철도 경북근교권 연장

○ 포항·경주·영덕, 김천·구미·상주 등 독단적인 지역개발, 도시계획보단 연계·협력하는 사업의 발굴 및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하는 광역도시계획의 정착을 유도

○ 남부도시권의 경우 대도시권과 교육, 도로, 상하수도, 환경 등의 기능 조정과 집행을 위한 특별구의 설치도 장기적으로 검토

소통·참여하는 행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시에 도민참여 시스템 구축

- 도민의 요구에 대응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 참여의 정책형성 시스템을 구축
- 모든 계획수립과정의 투명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심의회 결과의 공개, 심의위원의 공모제 등을 실시
- 계획수립과 추진에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 마련
- 도민 의견의 제출현황과 그 반영결과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공개

○ 도민의 자주적 활동지원

- 도민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의 자주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 도민의 도정참여방법을 알려주고 도민의 힘을 집결시킬 수 있도록 전문가나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

○ 쌍방향·대화형 소통행정 추진

- 도정 운영방향, 도정 성과위주의 단방향의 의사전달구조가 아니라 도민과의 쌍방향 소통체제를 구축
- 계층별, 연령층별, 직능단체별 주기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기반의 소통정책 기반 마련
-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 등으로 소통과 공감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제2절 재정계획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황

재정규모의 외형적 성장과 규모의 확대

○ 중앙재정 규모의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지방재정의 지속적 증가추세에 따라 경북의 재정 역시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2001년 20,375억원에서 2010년 47,433억원으로 크게 확대

자주재원 비중의 감소와 이전재원의 지속적 증가

○ 지방세수입은 1991년 이후 양적으로 크게 팽창하였으나 그 비중은 계속 낮아져 2010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21.1%를 차지하여 자주재원이 지속적으로 감소

○ 세외수입 비중은 5.2%로 200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편임.

○ 따라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과 세원의 빈약성으로 경북의 자율적 재정운영능력은 감소

- 재정자립도는 2001년 31.3%에서 2006년 37.8%로, 2011년 28.1%로 계속 감소추세

- 재원자주도는 2003년 69.0%에서 2005년 77.5%로 향상 되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2011년 73.6% 수준[9)]

○ 의존자원의 핵심인 지방교부세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은 양적으로나 비율적으로 크게 증가하여 보조금이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56.9%를 차지할 정도로 이전재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9) 재정자립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채/일반회계 세입)는 특별회계의 세입을 제외하고 있고, 세출은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어 최근에는 재원자주도(자체수입+자주재원/일반회계 예산규모)에 집중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체수입은 지방세+세외수입, 자주재원은 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조정교부금을 말함.

〈표 4-3〉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와 추이

(단위 : 억원, %)

구분	1991년	1996년	2001년	2005년	2009년	2010년
합계	7,324 (100.0)	11,741 (100.0)	20,375 (100.0)	27,938 (100.0)	46,761 (100.0)	47,433 (100.0)
지방세	1,691 (23.0)	3,272 (27.9)	4,700 (23.0)	6,260 (22.4)	7,600 (16.2)	10,030 (21.1)
세외수입	1,869 (26.0)	684 (5.8)	915 (4.5)	1,208 (4.3)	2,604 (5.6)	2,465 (5.2)
지방교부세	1,387 (19.0)	2,453 (20.9)	3,870 (19.0)	5,648 (20.2)	8,512 (18.2)	8,837 (18.6)
지방양여금	298 (4.0)	1,298 (11.1)	2,380 (11.7)	-	-	-
보조금	2,077 (28.0)	3,830 (32.6)	8,510 (41.8)	14,812 (53.0)	26,595 (56.9)	25,851 (54.5)
지방채	-	204 (1.7)	-	-	1,450 (3.1)	250 (0.5)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사회개발비의 지속적 증가

○ 세출구조에서 경제개발비는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행정비 및 사회개발비는 규모와 비중에서 계속 증가

○ 2008년 이후 기능별 세출 결산에서 교육, 사회복지, 산업 및 중소기업은 증가 추세에 있음.

〈표 4-4〉 기능별 세출 결산 규모와 추이(일반회계)

(단위 : 억원, %)

구분	1997년	2001년	2007년
합계	14,124 (100.0)	19,728 (100.0)	33,839 (100.0)
일반행정비	894 (6.3)	2,535 (12.8)	4,266 (12.0)
사회개발비	4,463 (31.7)	6,890 (34.9)	13,825 (40.9)
경제개발비	6,657 (47.2)	7,747 (39.3)	11,722 (34.6)
민방위비	651 (4.6)	742 (3.8)	1,410 (4.2)
지원 및 기타	1,439 (10.2)	1,814 (9.2)	2,616 (7.7)

주 : 2008년부터 16개로 세분화되어 세출의 추이분석이나 시계열분석은 불가능
자료 : 경상북도, 「경북통계연보」, 각년도

○ 사회개발비의 지속적 증가는 1996년부터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에 포함되어있던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비가 사회개발비로 편성되면서 그 규모가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회복지비 지출 증가가 원인

재정지표 평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FY2011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 보고서」에 따르면 경상북도의 재정지표에서 우수 지표값은 지방채무잔액지수, 장래세대부담비율, 세외수입채납액 축소 노력도이며, 미흡지표값은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인건비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 절감노력도임.

○ 재정분석의 주요 부문인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계획성 등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동종단체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양호한 수준

- 재정건전성부문에서는 지방 채무는 전국 최저수준의 지방채(60억원)를 발행함으로써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재정계획성부문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기 집행과 이월액 감소 등으로 예산 집행율이 동종단체 중에서 최고 수준

○ 향후 요망되는 개선사항

- 인건비 절약과 효율적 인력활용을 위한 조직진단과 합리적 업무평가, 교육에 대한 생산성 노력이 필요

- 민간이전경비 절감을 위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 등에 대한 자체분석과 사후관리를 강화

- 지방의회경비와 업무추진비의 지속적인 절감노력과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에 중장기 목표설정과 장기적 예산투자 마스터플랜을 수립

나. 과제

재원의 확보

○ 개발계획은 실제재원이 뒷받침될 때 현실로 나타나게 되나 계획상 요구되는 투자재원의 규모와 실제가용한 재원규모는 큰 차이가 나므로 부족한 재원을 파악하여 확충방안을 세워 계획의 실현도 향상

-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필요한 재원의 25%만 조달

재정의 자율성 확보

○ 의존재원이 과다하면 지방의 재정운영이 중앙부처에 포획(capture)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방세수입으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방세목의 조정 등으로 실질적인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보

지출의 책임성과 성과평가 필요

○ 지금까지 지방재정의 개선이 세입부문에 치중하다보니 세출부문의 성과평가와 책임성 확보가 간과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 지역행사 등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와 인식 필요

2. 여건변화와 전망

가. 지방재정 환경의 변화

정치적 측면

○ 광역자치단체장 및 최고통치권자가 다른 정당일 경우 의존재원의 핵심인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가내시 등이 적시에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갈등 조정 비용이 증대될 가능성 존재

○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동일정당이 많을 경우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와 균형기능의 상실 가능성이 존재

경제적 측면

○ 유럽발 재정위기, 국내경제의 불안정성,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 등이 수출입 전반과 외국자본의 유입 및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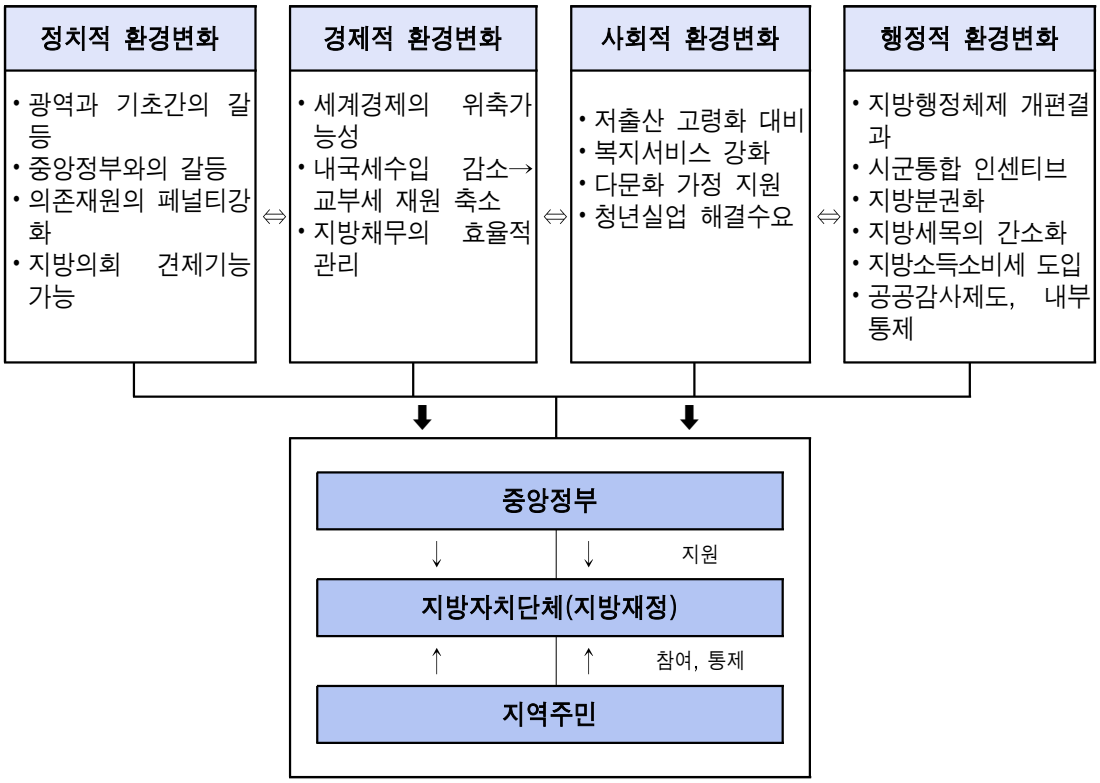
○ 이러한 국내외 상황변화로 경기가 침체되어 내국세 수입감소로 이어질 경우 중앙정부가 경기진작대책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교부세의 감소, 지방채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예방 및 관리차원의 재정운용이 필요

사회적 측면

○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금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보건비,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정책대응 요구 증대

○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과 청년실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큰 재정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

○ 지역주민의 기대수준은 향상되어 양질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조세저항은 강화될 전망



〈그림 4-3〉 지방재정의 환경변화

행정적 측면

○ 지방행정체계의 개편여하에 따라 지방세 체계의 변화 및 광역과 기초간의 기능 및 사무재배분에 따라 재원배분도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이 존재

○ 지방세목 간소화 등으로 야기될 세원의 배분여하에 따른 효과와 분석이 필요

나. 지방재정의 전망

균형개발을 위한 SOC등 기반시설에 대한 재정수요 증가

○ 도청 신도시 조성으로 도내에서도 권역간 균형발전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

○ 지식기반경제, 네트워크 경제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의한 지역산업 발전 재정수요도 변화 예상

복지수요의 증가로 지방재정 부담 가중

○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증가로 복지재정 확대는 불가피 하고, 조세수입에도 영향을 받아 지방재정 부담이 가속화될 전망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확대

○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각종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에 이양하고 있음

- 국고보조사업의 이양과 함께 분권교부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비 부담이 가중
- 지방에서는 자체재원으로 그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어 자체사업의 비중이 줄이거나 정체될 것으로 전망

지방재정 기반의 악화에 의한 사업추진의 애로

○ 고령화 등으로 복지수요는 증가하고, 반대로 세입여력은 약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전망

○ 지방재정 기반이 약화에 따라 지방에서의 사업추진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의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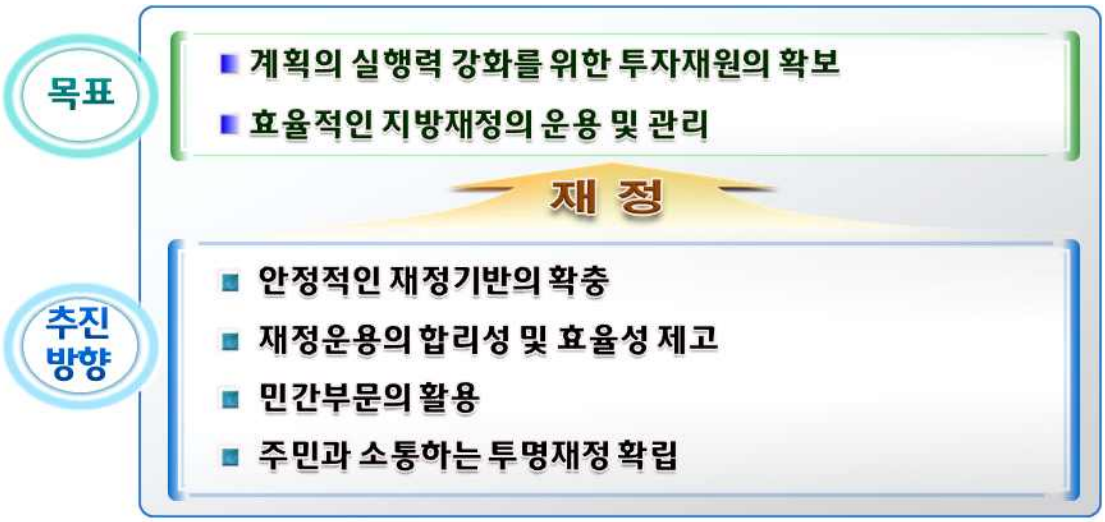
3. 계획 방향

가. 목표

- 계획의 실행력 강화를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
-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 및 관리

나. 추진방향

-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충
- 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 민간부문의 활용
-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재정 확립



〈그림 4-4〉 재정부문 목표와 추진방향

4. 추진계획

가. 투자재원의 확보

- 지방세제의 개편을 통한 재원확보

○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5% 세율을 2013년까지 10%로 확대하게

되어 있으나 2020년까지 20% 상향 조정하는 지방재정력 강화가 필요

○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현 8:2수준이나 일본의 6:4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방재정의 세입세출 괴리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보장

○ 지방세 중 조세탄력성이 낮은 재산과세의 비중이 높고, 탄력성이 높은 소득 및 소비과세의 비중이 취약한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소득과세와 소비과세비율을 높여 자체재원의 확충을 유도

재정조정제도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확충

○ 국세의 지방세 이전시에 경제력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재정력 신장이 제한적이므로 단순한 이전이 아닌 주민최저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보증해주기 위해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시정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조정 책임을 강화

○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이 필요

○ 지방소비세의 배분도 현행처럼 시·도별 가중치를 적용하고 나머지 50%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4~5단계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방소비세의 재정혜택이 수도권과 광역시에 편중되는 역진성을 개선

○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지사업을 기능별로 재분류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조정 및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지방에 이양된 60여개의 복지사업 이양사업도 국고환원의 재검토가 필요

세외수입의 증대방안 모색

○ 공공요금(상하수도 요금, 청소수수료 등)의 현실화

○ 새로운 세외수입원(차량번호판의 경매 등) 발굴

○ 지방채의 의한 사업범위 지정, 발행 제도 개선, 자본예산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지방채 활성화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의 개선

○ 지역공기업의 설립, 민간공동사업의 확충, 수익자부담원칙에 입각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및 육성, 지역개발기금의 설치와 운영 등 지역개발사업의 추진방식 개선에 의한 재원 확충

나.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

정책과 예산이 연계된 자원배분과 운용

○ 투자계획에 대한 재원확보 방향 수립시 국가와 지방의 재정적 연계성 확보

○ 계획의 비전과 정책우선순위를 반영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방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예산배분을 위한 합리성의 강화

- 투자재원 배분,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및 예산집행의 성과평가 활동 강화
-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사업집행에서의 점검과 사후 평가체제 확립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제고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방식의 개선

- 5개년 연동계획에 의한 재정운영 예측 가능성 제고 및 국가사업과 도 현안사업의 연계체제를 강화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지방채 운용의 계획화
- 채무관리계획 수립 등

○ 지방재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재정수지, 채무 증가, 세손 결손 등 주요 재정지표의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위기를 예측할 사전경보시스템 구축
- 도내 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점검 실시

지방재정운용의 참여, 관리, 감독 강화

○ 주민 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도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조례 제정 및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 도민 예산 참여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 예산편성, 집행과정에서의 도민참여 확대

○ 민간이전경비의 책임성 강화

-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에 대한 감독 강화 및 재평가시에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
- 중복 방지, 일몰제의 시행 등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 강구

○ 지방재정 건전성 감독

- 지방채 발행 심사, 방만한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투자효율성을 감안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재정 투융자심사 강화
- 재정상태의 건전성(재정수지, 채무관리, 세입관리)과 효율적 재정운용(낭비성 지출, 세입 확충)에 대한 점검 강화

○ 도비 보조사업의 개선

- 현실과 맞지 않는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 지속 정비
- 시·군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차등 보조사업 발굴 확대
- 도비보조사업 기간예고제 운영 및 투자재원 확보

다. 민간부문의 활용

민간부문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

○ 민간공동사업의 확충

- 투자재원과 기업운영방식을 도입할 민관공동출자형식의 제3섹터 설립 활성화하고, 이를 유인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유인책과 지원책 필요

- 융자나 담보의 조건 완화, 회사채 발생 알선, 이자보조, 부담금의 감면, 건축규제 완화, 부대사업의 겸업허용, 다년도 사업예산제 등

○ BTL 사업의 참여 확대

- 민간부문 자금을 장기 공공투자로 전환하여 부족한 소비와 투자를 보완할 창의적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을 촉진
- 공공시설을 앞당겨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주민요구에 대응

대내외 투자유치 확대

○ 기업의 투자유치로 세수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수도권 등의 국내기업의 유치
- 향토출신 기업가에 대한 투자 유인

○ 외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기반의 확충을 기대

-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 개최와 투자절차, 인센티브, 투자유망분야 안내 등 사이버 상담소 등을 운영
- 유치 타켓 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및 투자환경 개선 및 지원시책의 강구가 필요

라.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재정 확립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 지역개발계획에의 주민참여

- 지역개발계획 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반영하여 공시하는 체계적인 과정 필요

○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정착

-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공청회, 모바일 설문조사, 간담회 등으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재정의 외부효율성을 제고

예산과정의 실질적 공개

○ 매년 재정운영의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

○ 계약과 예산집행과정 관련위원회의 공모와 논의 과정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구축

○ 사업의 타당성 제고, 사업점검, 사업의 원가 및 성과 관리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절감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통합 사업관리 시스템(Integrated Program Management System)을 구축

○ 사업별 예산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의 원가계산, 특정 사업의 수립을 위한 비용편익분석, 행정서비스 결과의 측정과 감사, 성과의 공시, 성과평가에 따른 피드백 등을 시스템적으로 종합화하여 관리

2장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제1절 투자계획

1. 기본방향

가. 재정투자의 방향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적 운용

○ 내외의 경기상황 및 여건변화에 신축적인 재정 운용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

나. 우선순위의 결정

개별사업 우선순위 결정의 고려사항

○ 투자의 기대수익 및 비용

○ 정책의지, 목표, 파급효과

○ 자치단체간 협력연계사업 여부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우선대상

○ 개발수요, 사업간 연계성

사업추진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단계별 선정절차의 추진

○ 1단계 : 기초자치단체 개발수요조사, 대학 및 전문가 의견수렴

○ 2단계 : 분야별 주무부서 및 해당기관의 의견수렴

○ 3단계 : 주무부서와 해당기관의 종합검토 및 합의사항 도출

2. 투자계획

가. 총 투자비

투자규모는 141조 2,779억원

○ 경상북도 종합계획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액은 141조 2,779억원임.

- 사업기간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의 기투자액은 약 17조 9,458억원임.

나.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부문별 투자계획

○ 투자비의 부문별 비중을 보면 교통/물류/정보통신망 부문이 81조 4,977억으로 가장 많고, 자원개발부문이 18조 4,752억원, 지역개발부문이 14조 4,191억원, 산업경제부문이 13조 1,788억원, 문화관광부문이 10조 900억원, 생활복지부문이 2조 4,626억원, 환경방재부문이 1조 1,545억원 순으로 나타남.

〈표 4-5〉 부문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12~2015년 (기투자 포함)	2016~2020년
계	1,412,779	707,410	705,369
지역개발	144,191	100,149	44,042
산업경제	131,788	87,194	44,594
문화관광	100,900	61,915	38,985
교통/물류/정보통신망	814,977	338,220	476,757
생활복지	24,626	11,253	13,373
자원개발	184,752	102,107	82,645
환경방재	11,545	6,572	4,973

재원별 투자계획

○ 투자주체별 분담내역을 보면 국비가 111조 8,816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민간자본이 13조 4,062억원, 그리고 지방비가 15조 9,901억원임.

〈표 4-6〉 부문별·재원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412,779	1,118,816	55,163	104,738	134,062
지역개발	144,191	72,525	11,213	8,637	51,816
산업경제	131,788	68,242	13,270	12,474	37,801
문화관광	100,900	54,121	10,282	23,327	13,171
교통/물류/정보통신망	814,977	797,881	160	82	16,854
생활복지	24,626	12,383	4,320	5,943	1,980
자원개발	184,752	108,016	12,479	53,940	10,317
환경방재	11,545	5,647	3,439	335	2,123

제2절 재원조달계획

1. 재원별 조달계획

국비 확보방안

○ 행정조직 정비로 국비확보를 위한 대응력 강화

- 실과별 국가사업 및 국비보조사업의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및 대응팀 운영

○ 논리 개발과 사업별 예비타당성 검토를 통한 대응력 강화

- 국가사업, 국비보조사업의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별 대응논리 개발을 위한 선제적, 통합적 대응체제 구축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 사업계획의 구체화와 사

업별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응하는 사전 심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

지방비 확보방안

○ 중앙정부 재정운용방식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중앙정부의 재정운용방식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정투자사업을 추진
-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지원효과 분석, 전달체제, 지방비 부담능력 점검 등의 전략적 대응체제 구축

○ 투자사업 적기 대응을 위한 세출구조 재설계

- 신규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재량지출을 Zero-Base에서 재검토하는 방안 검토
- 사업별 우선순위 및 성과, 한시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검토, 경상적 경비의 증가 억제 등의 기존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 개발이익 환수를 통한 재투자 추진

-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재원으로 재투자하는 방안 강구

○ 세외수입의 확충

○ 경영수익사업의 확대

민간자본 확보방안

○ 적극적인 외자 및 민간자본의 유치 확대

2. 지방재정관련 제도개선을 통한 재원확보

단기투자재원 확보방안

○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조정

중장기투자재원 확보방안

○ 새로운 세원 발굴

- 신세원 발굴이 쉽지 않으나 지방탄소세, 관광세 등을 검토

○ 지방교부세 제도의 개선

- 2009년 이후 지방교부세보다 국고보조금 규모가 더 커져 재정운영의 경직성, 행정비용의 증가 등으로 재정자율성을 제약하고 있으므로 지방교부세율의 확대조정이 필요

○ 지방세 탄력세율제도의 확대

- 탄력세율제도를 실시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탄력세율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청

3. 투자사업비 배분

가. 총괄

(단위 : 억원)

구분	총 계	1단계							2단계 (2016년 이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412,779	707,410	179,458	31,119	76,658	149,419	147,481	123,276	705,369	1,118,816	55,163	104,739	134,063
지역개발	144,191	100,149	35,561	14,371	14,734	14,966	10,825	9,692	44,042	72,525.0	11,213.0	8,637.0	51,816.0
산업경제	131,788	87,194	1,339	3,274	12,731	22,518	26,792	20,541	44,594	68,242.2	13,270.0	12,473.8	37,801.5
문화관광	100,900	61,915	4,837	3,061	10,408	12,978	14,889	15,743	38,986	54,121.0	10,282.0	23,327.0	13,171.0
교통물류 정보통신망	814,977	338,220	104,346	100	22,119	78,092	74,549	59,016	476,757	797,881.6	159.8	82.4	16,854.0
생활복지	24,626	11,253	0	160	1,186	2,505	3,559	3,843	13,373	12,383.0	4,320.0	5,943.0	1,980.0
자원개발	184,752	102,107	33,375	10,154	13,923	16,716	15,189	12,750	82,645	108,015.6	12,479.0	53,940.3	10,317.0
환경방재	11,545	6,572	0	0	1,558	1,644	1,678	1,692	4,973	5,647.5	3,439.5	335.0	2,123.0

나. 부문별 사업비 배분

지역개발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20,702	84,400	25,445	13,104	13,384	13,706	9,947	8,814	36,302	61,076	8,290	5,786	45,550
신성장 거점도시 육성		44,992	34,835	16,054	5,600	5,200	5,200	1,400	1,381	10,157	23,915	3,500	1,500	16,077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2008-2027년	25,000	18,000	3,700	4,700	4,300	4,300	500	500	7,000	12,000	1,500	1,500	10,000
경북드림밸리 조기정착 지원	2006-2020년	9,915	9,915	8,579	300	300	300	300	136	-	9,915	-	-	-
김천역세권 개발	2006-2020년	5,017	3,444	1,879	300	300	300	300	365	1,573	1,000	1,000	-	3,017
경주역세권 개발	2006-2020년	5,060	3,476	1,896	300	300	300	300	380	1,584	1,000	1,000	-	3,060
지역간 균형발전 유도		63,414	39,429	7,930	6,543	6,584	6,156	6,119	6,097	23,985	27,561	3,440	2,940	29,473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2005-2035년	779	649	321	86	92	50	50	50	130	583	98	98	-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2008-2014년	1,180	1,180	330	115	135	200	200	200	-	1,180	-	-	-
지방소도읍육성사업	2008-2015년	3,861	3,861	1,787	420	420	400	400	434	-	3,546	157	158	-
도서종합개발사업	2008-2013년	557	557	446	38	36	37	-	-	-	458	49	50	-
개발촉진지구지원사업	2008-2012년	3,837	3,837	2,990	415	432	-	-	-	-	3,837	-	-	-
경산지식복합단지	2011-2020년	5,500	5,500	2,056	700	700	700	700	644	-	2,000	500	-	3,000
신발전지역 종합발전	2011-2020년	47,700	23,845	-	4,769	4,769	4,769	4,769	4,769	23,855	15,957	2,636	2,634	26,473
지역활성화 거점 마련		12,296	10,136	1,461	961	1,600	2,350	2,428	1,336	2,160	9,600	1,350	1,346	-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조성	2009-2014년	2,515	2,515	100	500	515	700	700	-	-	2,515	-	-	-
국립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2009-2014년	1,598	1,598	-	270	500	500	328	-	-	1,598	-	-	-
국립 금강소나무 연구센터 건립	2012-2014년	250	250	-	-	50	150	50	-	-	250	-	-	-
백두대간 산림바이오 테크노파크 조성	2014-2016년	600	400	-	-	-	-	200	200	200	300	150	150	-
낙강지락 산악레포츠벨트 조성	2011-2014년	450	300	-	-	-	100	100	100	150	250	100	100	-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조성	2010-2015년	1,500	1,500	-	-	200	300	500	500	-	800	350	350	-
독립운동 테마파크	2011-2015년	296	296	-	10	100	100	50	36	-	200	50	46	-
낙동강프로젝트	2011-2020년	5,087	3,277	1,361	181	235	500	500	500	1,810	3,687	700	700	-

농어촌 정주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23,489	15,749	10,116	1,267	1,350	1,260	878	878	7,740	11,449	2,923	2,851	6,266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추진		21,249	14,609	10,116	1,039	1,122	1,032	650	650	6,640	10,354	2,333	2,296	6,266
산촌 생태마을 조성	2012-2012년	20	20	-	-	20	-	-	-	-	-	20	-	-
산림탄소순환마을 조성	2011-2012년	50	50	-	10	40	-	-	-	-	50	-	-	-
농촌마을종합개발	2008-2020년	8,100	2,496	993	296	307	300	300	300	5,604	7,262	419	419	-
농촌생활환경정비	2008-2013년	2,122	2,122	962	381	400	379	-	-	-	1,877	122	123	-
어촌종합개발	2008-2016년	767	725	564	35	36	30	30	30	42	518	105	106	38
농어촌주택개량	2008-2018년	9,969	9,075	7,589	292	294	300	300	300	894	547	1,597	1,597	6,228
농어촌 빈집정비	2008-2013년	21	21	8	5	5	3	-	-	-	-	10	11	-
과소지역 집락재편	2011-2020년	200	100	-	20	20	20	20	20	100	100	60	40	-
잘 사는 부자농촌을 위한 여건 마련		1,850	925	-	185	185	185	185	185	925	980	440	430	-
인적자원 개발	2011-2020년	100	50	-	10	10	10	10	10	50	50	30	20	-
관광기반 마련	2011-2020년	700	350	-	70	70	70	70	70	350	400	150	150	-
향토산업진흥	2011-2020년	1,000	500	-	100	100	100	100	100	500	500	250	250	-
도농교류활성화	2011-2020년	50	25	-	5	5	5	5	5	25	30	10	10	-
농어촌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		390	215	-	43	43	43	43	43	175	115	150	125	-
교육기회 보장	2011-2020년	30	15	-	3	3	3	3	3	15	15	15	-	-
교육비 부담경감 및 교육환경 개선	2011-2020년	60	50	-	10	10	10	10	10	10	50	10	-	-
지역사회센터 조성	2011-2020년	250	125	-	25	25	25	25	25	125	50	100	100	-
지역사회변화 대응방안 마련	2011-2020년	50	25	-	5	5	5	5	5	25	-	25	25	-

농림수산업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21,535	11,577	-	467	1,387	2,675	3,171	3,878	9,958	10,426	4,642	4,004	2,462
생명산업 프로젝트 추진		2,799	1,145	-	-	45	325	345	430	1,654	1,271	705	669	154
쌀 가공산업 육성사업	2012~2015년	165	165	-	-	45	45	45	30	-	57	45	45	18
곤충산업 육성 프로젝트	2013~2022년	734	280	-	-	-	80	100	100	454	224	200	174	136
말산업 육성프로젝트 추진	2013~2020년	1,900	700	-	-	-	200	200	300	1,200	990	460	450	-
생명자원 클러스터 구축		2,100	840	-	-	160	210	210	260	1,260	1,800	200	100	-
종보전 및 관리센터 설치	2016~2018년	400	-	-	-	-	-	-	-	400	300	100	-	-
신품종 육종지원센터 설치	2012~2021년	200	40	-	-	10	10	10	10	160	100	50	50	-
국립 약용자원연구원 설립	2012~2021년	1,000	400	-	-	100	100	100	100	600	1,000	-	-	-
한방아로마센터 건립	2010~2017년	500	400	-	-	50	100	100	150	100	400	50	50	-
미래 친환경 축산 허브 구축		1,900	900	-	-	150	230	230	290	1,000	900	850	50	100
친환경 축산 생산기반 조성	2012~2016년	400	300	-	-	50	80	80	90	100	150	100	50	100
친환경 축산클러스터 구축	2012~2021년	1,500	600	-	-	100	150	150	200	900	750	750	-	-
차세대 농업 핵심리더 육성		470	220	-	-	50	55	57	58	250	210	160	100	-
후계 창업농업인 양성	2012~2020년	450	200	-	-	50	50	50	50	250	200	150	100	-
경북농민사관학교 교육지원센터 설치	2013~2015년	20	20	-	-	-	5	7	8	-	10	10	-	-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		2,415	1,800	-	-	120	510	555	615	615	1,115	380	450	470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012~2017년	800	600	-	-	100	100	200	200	200	640	160	-	-
친환경농업연구센터 설치	2012~2013년	100	100	-	-	20	80	-	-	-	50	10	10	30
친환경농산물 생산특화단지 조성	2013~2016년	115	100	-	-	-	30	55	15	15	25	10	40	40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추진	2013~2016년	1400	1000	-	-	-	300	300	400	400	400	200	400	400
지역밀착형 뉴파밍시스템 구축		266	151	-	-	-	9	61	81	115	155	105	6	-
작물재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3~2018년	30	15	-	-	-	5	5	5	15	15	15	-	-
디지털농업모델 개발사업	2014~2016년	200	120	-	-	-	-	50	70	80	140	60	-	-
농가보급형 식물공장 조성사업	2013~2017년	36	16	-	-	-	4	6	6	20	-	30	6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지역전략 식품클러스터 조성		400	150	-	-	-	-	50	100	250	180	100	60	60
권역별 식품클러스터 조성	2015~2019년	300	50	-	-	-	-	-	50	250	120	60	60	60
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치	2014~2015년	100	100	-	-	-	-	50	50	-	60	40	-	-
농산물 내수 촉진 및 수출확대 기반 구축		3,389	2,062	-	467	417	406	386	386	1,327	1,324	512	1,001	552
농산물 상품화시설 설치	2012~2020년	980	480	-	90	70	120	100	100	500	213	181	212	374
농산물 우수브랜드 육성	2012~2020년	61	30	-	6	6	6	6	6	31	-	14	19	28
전자상거래 활성화	2012~2020년	69	23	-	3	5	5	5	5	46	-	69	-	-
농식품 수출기반 확충	2012~2020년	1,262	812	-	162	200	150	150	150	450	700	72	490	-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2012~2020년	217	117	-	6	36	25	25	25	100	111	36	70	-
농수산 가공산업 육성	2012~2020년	800	600	-	200	100	100	100	100	200	300	140	210	150
광역연계 농업소통 프로젝트 추진		168	126	-	-	2	8	58	58	42	9	99	10	50
광역 로컬푸드종합급식 유통센터 설치	2014~2015년	100	100	-	-	-	-	50	50	-	-	50	-	50
도농교류센터 운영	2013~2022년	50	15	-	-	-	5	5	5	35	-	40	10	-
식생활체험 교육 지원사업 추진	2012~2020년	18	11	-	-	2	3	3	3	7	9	9	-	-
귀농귀촌 활성화 대책 추진		100	40	-	-	10	10	10	10	60	25	65	10	-
귀농귀촌활성화센터 운영	2012~2021년	50	20	-	-	5	5	5	5	30	25	25	-	-
귀농귀촌 아카데미 운영	2012~2021년	50	20	-	-	5	5	5	5	30	-	40	10	-
지역 산림자원의 활용		1,130	770	-	-	40	40	260	430	360	565	218	347	-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조성	2016~2017년	80	0	-	-	-	-	-	-	80	40	20	20	-
산림자원유통센터 건립	2014~2015년	400	400	-	-	-	-	200	200	0	200	100	100	-
생태숲공원 조성	2012~2016년	200	160	-	-	40	40	40	40	40	100	30	70	-
약초산채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4~2016년	450	210	-	-	-	-	20	190	240	225	68	157	-
수산업 부가가치 기반 확충		3,768	2,243	-	-	143	592	649	860	1,525	1,557	590	544	1,076
대게 및 과메기 명품화사업	2012~2020년	2,760	1,395	-	-	103	344	369	580	1,365	1,007	350	326	1,076
블루골드 사업 추진	2013~2017년	400	240	-	-	-	80	80	80	160	200	100	100	-
토속어류산업화센터 건립	2012~2013년	108	108	-	-	40	68	-	-	-	50	40	18	-
로하스 식품단지 조성	2013~2015년	500	500	-	-	-	100	200	200	-	300	100	100	-
지방어항건설 등 수산기반시설 확충	2013~2020	2,630	1,130	-	-	250	280	300	300	1500	1,315	658	657	-

제조업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01,154	68,945	1,306	2,780	10,353	18,035	21,653	14,819	32,208	52,393	7,276	6,735	34,750
지역 전략산업 신성장동력화 구축		3,952	2,852	-	54	398	800	800	800	1,100	2,597	232	231	892
탄소복합재 성형 R&D기반 구축	2013-2017년	1,000	600	-	-	-	200	200	200	400	700	50	50	200
에너지 융합섬유소재 개발	2012~2016년	500	300	-	-	-	100	100	100	200	250	25	25	200
다기능성 그래핀 소재 R&D 기반 구축 사업	2013~2017년	1,000	600	-	-	-	200	200	200	400	700	50	50	200
초고순도 산화아연 리사이클링 사업	2012~2016년	500	400	-	-	100	100	100	100	100	300	25	25	150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사업	2011~2015년	952	952	-	54	298	200	200	200	-	647	82	81	142
대경권 선도전략산업 프로젝트	2012~2014년	-	-	-	-	-	-	-	-	-	-	-	-	-
미래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46,517	28,375	-	79	2,459	8,809	8,698	8,332	18,142	23,796	5,042	5,145	12,535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 사업	2011~2015년	1,240	1,240	-	79	481	317	256	107	-	820	105	145	170
첨단 수중 시공로봇 개발 사업	2013~2021년	1,680	672	-	-	168	168	168	168	1,008	827	160	160	533
초광역 3D 융합산업 육성	2012~2016년	919	768	-	-	233	227	156	152	151	679	27	60	154
스마트센서기반 IT융복합 산업 육성	2013~2017년	1,029	672	-	-	-	224	255	193	357	695	60	140	134
원자력산업 클러스터 조성	2013~2017년	22,530	13,518	-	-	-	4,506	4,506	4,506	9,012	7,819	3,733	3,733	7,245
차세대 건설기계부품 특화단지 조성	2012~2018년	6,000	3,381	-	-	762	873	873	873	2,619	2,500	250	250	3,000
항공전자부품 및 시스템 시험평가센터 구축	2012~2016년	350	350	-	-	63	126	126	35	-	270	25	25	30
한국백신종합연구원 설립	2013~2017년	2,000	1,200	-	-	-	400	400	400	800	1,800	100	100	-
국립약용자원 연구원 설립	2012~2021년	1,000	400	-	-	100	100	100	100	600	1,000	-	-	-
약용작물유전자원센터	2013~2017년	100	60	-	-	-	20	20	20	40	50	50	-	-
물산업 부품소재 상용화 단지 조성	2013~2017년	5,000	3,000	-	-	-	1,000	1,000	1,000	2,000	5,000	-	-	-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개발센터 설립	2013~2017년	980	588	-	-	-	196	196	196	392	686	147	147	-
바이오실크 R&DBP 육성사업	2012~2014년	200	200	-	-	70	70	60	-	-	100	35	35	30
수소연료전지 파워밸리 구축 사업	2012~2017년	3,489	2,326	-	-	582	582	582	582	1,163	1,550	350	350	1,239
산업단지 및 경제자유구역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26,382	24,290	1,306	2,396	5,835	3,787	8,216	2,750	2,092	4,520	642	-	21,220
구미QWL 밸리	2011~2016년	450	375	-	75	75	75	75	75	75	270	-	-	180
구미하이테크밸리 사업	2009~2014년	14,723	14,723	886	1,994	4,293	1,973	5,577	-	-	-	-	-	14,723
포항블루밸리 사업	2008~2016년	9,926	7,909	15	66	850	1,739	2,564	2,675	2,017	3,609	-	-	6,317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구축 사업	2010~2013년	1,283	1,283	405	261	617	-	-	-	-	641	642	-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인프라 구축		24,303	13,429	-	252	1,662	4,639	3,939	2,937	10,874	21,480	1,361	1,360	103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건설	2011~2014년	4,260	4,260	-	200	1,560	1,600	900	-	-	4,000	130	130	-
양성자가속기 R&BD단지 구축	2013~2017년	4,685	2,811	-	-	-	937	937	937	1,874	2,300	1,193	1,192	-
양성자 가속기 2단계 건설	2013~2018년	15,000	6,000	-	-	-	2,000	2,000	2,000	9,000	15,000	-	-	-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2011~2014년	358	358	-	52	102	102	102	-	-	180	38	38	103

서비스업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9,100	6,672	33	27	990	1,809	1,969	1,845	2,428	5,423	1,352	1,735	590
경북형 지식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375	357	13	8	111	111	61	53	18	240	75	60	-
지역 착근형 서비스산업 육성	2012~2015년	300	300	-	-	100	100	50	50	-	200	50	50	-
중소기업 녹색인증 컨설팅 사업	2010~2014년	45	45	13	8	8	8	8	-	-	25	10	10	-
지식재산권 창출 사업	2012~2020년	30	12	-	-	3	3	3	3	18	15	15	-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산업 육성		7,275	5,445	-	9	654	1,493	1,703	1,587	1,830	4,358	1,257	1,280	380
경북문화콘텐츠 산업단지 조성	2012~2016년	1,500	1,300	-	-	200	400	400	300	200	750	375	375	-
동화작품 TV애니매이션 제작 및 산업화	2012~2015년	200	200	-	-	20	120	30	30	-	100	50	50	-
역사문화디지털센터 건립	2011~2015년	225	225	-	9	14	73	73	57	-	158	22	45	-
도청이전 신도시 지역 명품 복합 문화단지 조성	2012~2020년	3,350	2,120	-	-	20	500	800	800	1,230	2,350	310	310	380
전통문화산업 육성 단지 조성	2012~2016년	2,000	1,600	-	-	400	400	400	400	400	1,000	500	500	-
청결하고 신뢰받는 소비형 서비스산업 육성		1,400	820	-	-	205	205	205	205	580	800	20	370	210
전통시장 차별화 사업	2012~2020년	1,350	800	-	-	200	200	200	200	550	800	-	350	200
상인서비스 및 사업전환 교육	2012~2020년	50	20	-	-	5	5	5	5	30	-	20	20	10
도내 금융소외계층에 대출지원 확대		50	50	20	10	20	-	-	-	-	25	-	25	-
미소금융사업	2012~2020년	-	-	-	-	-	-	-	-	-	-	-	-	-
햇살론 사업	2010~2016년	-	-	-	-	-	-	-	-	-	-	-	-	-
낙동강 대부 사업	2009~2012년	50	50	20	10	20	-	-	-	-	25	-	25	-

문화기반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053	507	-	105	106	99	99	99	546	236	436	356	25
지역민의 문화예술활동 지원		555	278	-	56	56	56	56	56	278	185	198	153	20
문화예술공동체 지원	2011-2020년	50	25	-	5	5	5	5	5	25	25	25	-	-
문화예술동아리 • 클럽지원	2011-2020년	5	3	-	1	1	1	1	1	3	-	3	3	-
스타 아티스트 1인창조기업 육성	2011-2020년	50	25	-	5	5	5	5	5	25	20	20	-	10
1초등학생 1악기	2011-2020년	300	150	-	30	30	30	30	30	150	90	100	100	10
음악적인 초등학교 만들기	2011-2020년	150	75	-	15	15	15	15	15	75	50	50	50	-
문화예술교육바우처		-	-	-	-	-	-	-	-	-	-	-	-	-
문화기부기업 지정		-	-	-	-	-	-	-	-	-	-	-	-	-
지역사회 중심 문화예술공급기반 구축		423	187	-	37	37	37	37	37	237	35	197	187	5
유휴공간의 창작발표공간화	2011-2020년	10	5	-	1	1	1	1	1	5	-	10	-	-
문화원 컨설팅	2011-2020년	23	12	-	2	2	2	2	2	12	-	12	12	-
도서관 확충 및 서비스 제고	2011-2020년	390	170	-	34	34	34	34	34	220	35	175	175	5
문화예술정보 및 자원에의 접근성 제고		75	43	-	12	13	6	6	6	32	16	42	17	-
문화예술정보시스템 구축	2011-2020년	26	16	-	5	5	2	2	2	10	6	10	10	-
문화예술프로그램은행구축 • 운영	2011-2020년	15	10	-	4	3	1	1	1	5	-	10	5	-
오프라인 문화예술네트워크 구축	2011-2020년	5	3	-	1	1	1	1	1	3	-	3	2	-
문화예술 공동기획 지원	2011-2020년	20	10	-	2	2	2	2	2	10	10	10	-	-
'문화예술로 행복한 이야기' 홍보	2011-2020년	3	2	-	-	-	-	-	-	2	-	3	-	-
소외계층대상문화나눔사업홍보	2011-2020년	2	1	-	-	-	-	-	-	1	-	2	-	-
지역문화실태조사 및 중장기계획 수립	2012/2016년	4	2	-	-	2	-	-	-	2	-	4	-	-

관광기반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99,848	61,408	4,837	2,956	10,302	12,879	14,790	15,644	38,440	53,885	9,846	22,971	13,146
글로벌 수준의 명품 관광자원개발		86,850	52,957	4,837	2,956	9,493	11,079	12,225	12,367	33,893	47,804	8,713	20,325	10,008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2010-2019년	35,472	29,636	1,306	2,550	5,954	6,530	6,588	6,708	5,836	21,675	3,112	7,262	3,423
3대 문화권 글로벌 관광지원체계 구축	2012-2016년	192	149	-	-	23	40	43	43	43	96	29	67	-
강산해 광역관광 자원개발	2009-2021년	3,202	1,857	553	37	331	406	283	247	1,345	1,395	419	975	413
지역 밀착형 관광자원개발	2012-2018년	2,672	2,444	856	-	583	551	310	144	228	1,336	401	935	-
신라천년의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2006-2035년	33,532	12,791	2,122	369	2,575	2,575	2,575	2,575	20,741	17,662	3,540	8,258	4,072
신라문화 창조관광 추진	2013-2019년	7,300	4,700	-	-	-	700	2,000	2,000	2,600	3,900	660	1,540	1,200
내륙 대도시권 광역관광개발	2013-2020년	4,400	1,300	-	-	-	250	400	650	3,100	1,700	540	1,260	900
강산해 광역관광 루트 및 코스	2012-2014년	80	80	-	-	27	27	26	-	-	40	12	28	-
누구나 공감하는 관광브랜드 창조		3,000	1,850	-	-	110	360	660	720	1,150	2,050	240	560	150
글로벌 태권도(화랑)관광	2013-2016년	1,500	750	-	-	-	50	350	350	750	1,200	90	210	-
전통문화 스테이(stay)관광	2012-2017년	1,300	900	-	-	80	250	250	320	400	800	105	245	150
스토리 콘텐츠관광	2012-2015년	200	200	-	-	30	60	60	50	-	50	45	105	-
삶의 질을 높이는 관광일자리 창출		9,498	6,251	-	-	639	1,360	1,815	2,437	3,247	3,843	837	1,955	2,863
컨벤션관광	2012-2016년	1,300	1,150	-	-	250	300	300	300	150	150	-	-	1,150
공연관광	2012-2016년	350	300	-	-	65	80	80	75	50	175	52	123	-
녹색관광	2012-2016년	860	731	-	-	129	215	215	172	129	430	129	301	-
갬블링관광	2012-2020년	5,300	3,050	-	-	180	570	850	1,450	2,250	2,200	540	1,260	1,300
한방힐링관광	2013-2017년	1,600	950	-	-	-	180	350	420	650	850	105	245	400
전문인력 양성	2012-2016년	88	70	-	-	15	15	20	20	18	38	11	26	13
문화 생태 융합형 Fun 관광콘텐츠 개발		500	350	-	-	60	80	90	120	150	188	56	131	125
감성과 스토리가 있는 관광상품개발	2012-2016년	500	350	-	-	60	80	90	120	150	188	56	131	125

교통·물류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813,997	337,523	104,346	100	22,052	77,955	74,274	58,797	476,474	797,143	-	-	16,854
도로 기반 조성		245,721	160,475	33,150	-	13,368	40,523	36,738	36,696	85,246	228,867	-	-	16,854
남북 6축 고속도로(영천~양구)	2013년~	24,000	18,015	10	-	50	5,985	5,985	5,985	5,985	24,000	-	-	-
남북 7축 고속도로(영덕~삼척)	2013년~	30,634	9,456	290	-	90	3,025	3,025	3,025	21,178	30,634	-	-	-
동서4축 고속도로(상주~영덕)	2009~2015년	27,247	27,247	3,876	-	3,500	6,624	6,624	6,624	-	27,247	-	-	-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2003~2014년	16,427	16,427	6,233	-	2,550	7,644	-	-	-	16,427	-	-	-
경부고속도로확장	2010~2015년	4,840	4,840	338	-	338	1,388	1,388	1,388	-	4,840	-	-	-
88고속도로확장	2002~2015년	20,304	20,304	4,712	-	1,933	4,553	4,553	4,553	-	20,304	-	-	-
포항~영덕간 고속도로	2009년~	24,874	10,515	150	-	65	300	5,000	5,000	14,359	24,874	-	-	-
성서~지천간 고속도로	2012년~	4,700	4,700	-	-	-	1,567	1,567	1,567	0	4,700	-	-	-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2011~2017년	20,776	11,470	2,370	-	100	3,000	3,000	3,000	9,306	3,922	-	-	16,854
무주~대구간 고속도로	2013년~	29,392	620	10	-	-	10	100	500	28,772	29,392	-	-	-
김천~거창간 국도4차로 확장	2004~2016년	1,680	1,518	860	-	170	163	163	163	163	1,680	-	-	-
어모~상주간국도 국도4차로 확장	2005~2012년	1,446	1,446	1,242	-	204	-	-	-	-	1,446	-	-	-
경주~감포 국도4차로 확장	2004~2013년	3,224	3,224	2,126	-	575	523	-	-	-	3,224	-	-	-
풍기~도계간 국도4차로 확장	2009~2013년	389	389	297	-	53	39	-	-	-	389	-	-	-
화양~풍각간 국도4차로 확장	2007~2012년	687	687	535	-	152	-	-	-	-	687	-	-	-
남천~청도 국도4차로 확장	2004~2013년	2,708	2,708	2,260	-	448	-	-	-	-	2,708	-	-	-
다인~비안 국도4차로 확장	2007~2016년	1,647	1,360	272	-	227	287	287	287	287	1,647	-	-	-
봉화소천~강원 도계간 국도4차로 확장	2006~2016년	2,657	2,199	673	-	152	458	458	458	458	2,657	-	-	-
쌍림~고령간 국도4차로 확장	2003~2013년	975	975	577	-	130	268	-	-	-	975	-	-	-
왜관~석적간 국도4차로 확장	2009~2012년	1,239	1,239	1,076	-	163	-	-	-	-	1,239	-	-	-
고령~성주간 국도4차로 확장	2006~2016년	2,212	2,009	1,135	-	264	203	203	203	203	2,212	-	-	-
호계~불정간국도	2008~2015년	1,016	1,016	71	-	150	265	265	265	-	1,016	-	-	-
안동~길안 국도4차로 확장	2003~2012년	1,072	1,072	821	-	251	-	-	-	-	1,072	-	-	-
옥계~산동간 국도4차로 확장	2007~2012년	388	388	295	-	93	-	-	-	-	388	-	-	-
봉화~울진간 국도확장	2009~2017년	5,763	4,171	932	-	850	796	796	796	1,592	5,763	-	-	-
감포~구룡포간 국도4차로 확장	2009~2014년	548	548	208	-	94	123	123	-	-	548	-	-	-
흥해~기계간 국도4차로 확장	2011~2015년	2,008	2,008	50	-	96	621	621	621	-	2,008	-	-	-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계~안동간 국도4차로 확장	2011년~	242	242	65	-	44	44	44	44	-	242	-	-	-
오천읍 시가지 국도4차로 확장	2011~2014년	280	280	20	-	42	109	109	-	-	280	-	-	-
농소~외동간 국도건설	2012년~	1,116	840	-	-	10	277	277	277	277	1,116	-	-	-
와룡~법전간 국도4차로 확장	2012년~	1,100	832	20	-	9	268	268	268	268	1,100	-	-	-
예천~지보간 국도4차로 확장	2011년~	1,399	1,054	20	-	-	345	345	345	345	1,399	-	-	-
영천~삼창간 국도4차로 확장	2012년~	436	332	-	-	20	104	104	104	104	436	-	-	-
구미~군위IC간 국도4차로 확장	2012~2018년	450	230	-	-	10	73	73	73	220	450	-	-	-
동명~부계간도로 4차로 확장	2008~2016년	1,857	1,597	626	-	190	260	260	260	260	1,857	-	-	-
청도~경산간도로 4차로 확장	2004~2012년	745	745	524	-	120	101	-	-	-	745	-	-	-
용암~선남간도로 4차로 확장	2006~2014년	854	854	345	-	90	210	210	-	-	854	-	-	-
왜간~가산간도로 4차로 확장	2009~2018년	1,909	1,040	111	-	60	290	290	290	869	1,909	-	-	-
임고~조교간도로 4차로 확장	2012년~	347	264	-	-	15	83	83	83	83	347	-	-	-
동산~각남간도로 4차로 확장	2012~2016년	475	366	-	-	40	109	109	109	109	475	-	-	-
효자~상원간도로 4차로 확장	2012년~	1,658	1,249	-	-	20	410	410	410	410	1,658	-	-	-
철도 기반 조성		568,276	177,049	71,196	100	8,684	37,432	37,536	22,101	391,227	568,276	-	-	-
중부내륙철도 부설	2005-2021년	19,248	1,298	82	100	20	96	200	800	17,950	19,248	-	-	-
대구~광주 철도신설		48,987	-	-	-	-	-	-	-	48,987	48,987	-	-	-
김진선 철도 건설*	2016년~	67,907	-	-	-	-	-	-	-	67,907	67,907	-	-	-
경북선 복선 전철화*	2016년~	27,098	-	-	-	-	-	-	-	27,098	27,098	-	-	-
경북내륙선 철도 건설*	2016~년	29,644	-	-	-	-	-	-	-	29,644	29,644	-	-	-
경부고속철도 2단계 공사	2004~2014년	78,170	78,170	63,111	-	3,477	5,791	5,791	-	-	78,170	-	-	-
KTX포항직결선 건설	2009~2014년	1,734	1,734	313	-	323	549	549	-	-	1,734	-	-	-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2003~2014년	23,431	23,431	1,894	-	2,200	9,669	9,669	-	-	23,431	-	-	-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2002~2016년	28,474	22,400	3,079	-	1,100	6,074	6,074	6,074	6,074	28,474	-	-	-
대구선 복선전철화	2006~2017년	9,880	6,198	276	-	400	1,841	1,841	1,841	3,682	9,880	-	-	-
포항영일신항 인입철도 건설	2010~2016년	1,815	1,398	45	-	100	418	418	418	418	1,815	-	-	-
영천~신경주 복선전철화	2010~2020년	7,620	2,889	10	-	40	946	946	946	4,731	7,620	-	-	-
중앙선 복선전철화	2010~2022년	35,193	10,957	70	-	500	3,462	3,462	3,462	24,236	35,193	-	-	-
대구광역권 전철망구축	2008~2014년	77	77	23	-	-	27	27	-	-	77	-	-	-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경산연장	2006~2012년	2,817	2,817	2,293	-	524	-	-	-	-	2,817	-	-	-
동서횡단 철도망 구축*	2013~2022년	85,500	25,650	-	-	-	8,550	8,550	8,550	59,850	85,500	-	-	-
신도청이전지~행정복합도시 철도망 구축	2016~2022년	93,220	-	-	-	-	-	-	-	93,220	93,220	-	-	-
울진~분천간 철도	2013년~	7,461	30	-	-	-	10	10	10	7,431	7,461			

주 : ＊는 국가철도망계획에 미반영 된 사업으로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

정보인프라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981	697	-	-	67	137	275	219	283	739	160	82	-
도감 오감만족 정보화 서비스 사업 발굴		131	71	-	-	2	9	30	30	60	84	32	15	-
다문화가정 행복지원 서비스	2012~2013년	6	6	-	-	2	4	-	-	-	4	2	-	-
원격진료기반 산모&태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014~2020년	50	20	-	-	-	-	10	10	30	30	10	10	-
주민만족정보화교육	2015~2020년	35	15	-	-	-	5	5	5	20	20	10	5	-
경북 정보화마을 활성화센터 구축	2014~2016년	40	30	-	-	-	-	15	15	10	30	10	-	-
스마트&그린 행정정보화 구현		83	80	-	-	1	35	27	19	3	57	25	1	-
스마트워크센터 구축	2014~2017년	5	3	-	-	-	-	2	1	3	3	2	-	-
정보보안아키텍처 구축	2013~2014년	4	4	-	-	-	2	2	-	-	-	4	-	-
음식물쓰레기 관리시스템	2011~2012년	7	6	-	-	1	3	3	-	-	4	2	1	-
클라우딩 컴퓨팅 환경 구축	2010~2014년	68	68	-	-	-	30	20	18	-	50	18	-	-
지역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정보화 사업 발굴		237	161	-	-	2	4	102	54	75	162	44	31	-
낙동정맥 트래킹로드 스마트투어 정보시스템	2015~2017년	6	2	-	-	-	-	-	2	4	4	2	-	-
스마트기술기반 3대문화체험 서비스	2012~2015년	7	6	-	-	2	2	1	1	-	4	1	1	-
독도사랑서비스	2013~2015년	5	4	-	-	-	2	1	1	1	4	1	-	-
스마트리버 기반조성사업	2014~2018년	220	150	-	-	-	-	100	50	70	150	40	30	-
첨단 안전망 인프라 구축		529	384	-	-	62	90	116	116	145	436	58	35	-
방폐장 안심서비스	2014~2018년	7	2	-	-	-	-	1	1	5	6	1	-	-
문화자산 스마트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13~2020년	50	30	-	-	-	10	10	10	20	30	15	5	-
한국형 원전재해 스마트가드시스템 구축	2012~2017년	420	320	-	-	50	70	100	100	100	370	30	20	-
자녀안심서비스	2012~2020년	52	32	-	-	12	10	5	5	20	30	12	10	-

주택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620	808	-	160	165	161	161	161	812	570	230	190	630
저소득층 주거 복지 지원		200	100	-	20	20	20	20	20	100	140	40	20	-
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확대	2011-2020년	100	50	-	10	10	10	10	10	50	70	20	10	-
사회취약계층 개·보수사업 확대	2011-2020년	100	50	-	10	10	10	10	10	50	70	20	10	-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의 개선		400	200	-	40	40	40	40	40	200	200	100	100	-
농어촌 주택 개량 사업 체계적 추진	2011-2020년	200	100	-	20	20	20	20	20	100	100	50	50	-
기성시가지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2011-2020년	200	100	-	20	20	20	20	20	100	100	50	50	-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		1,000	500	-	100	100	100	100	100	500	230	70	70	630
다양한 유형의 전원주택지 조성	2011-2020년	500	250	-	50	50	50	50	50	250	30	20	20	430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단지 조성	2011-2020년	500	250	-	50	50	50	50	50	250	200	50	50	200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20	8	-	-	5	1	1	1	12	-	20	-	-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2011-2020년	10	5	-	-	5	-	-	-	5	-	10	-	-
주택정보시스템 구축	2011-2020년	10	3	-	-	-	1	1	1	7	-	10	-	-

보건·의료환경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4,400	1,932	-	-	294	438	545	655	2,468	2,795	685	920	-
예방과 건강증진의 선순환 구조 확립		880	390	-	-	80	100	105	105	490	595	135	150	-
건강검진사업 확대	2012~2020년	270	120	-	-	30	30	30	30	150	200	30	40	-
건강증진센터 및 건강상담실 확충	2012~2020년	310	140	-	-	20	40	40	40	170	220	45	45	-
건강증진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2012~2020년	150	60	-	-	15	15	15	15	90	90	30	30	-
건강생활 실천운동 추진	2012~2020년	150	70	-	-	15	15	20	20	80	85	30	35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1,720	690	-	-	130	160	190	210	1,030	950	340	430	-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2012~2020년	620	240	-	-	40	60	70	70	380	350	90	180	-
생애주기별 중점질환관리 사업 추진	2012~2020년	1,100	450	-	-	90	100	120	140	650	600	250	250	-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제고		1,800	852	-	-	84	178	250	340	948	1,250	210	340	-
보건인프라 현대화사업 추진	2012~2020년	660	280	-	-	40	60	80	100	380	480	60	120	-
응급의료인프라 확충	2012~2020년	600	330	-	-	20	60	100	150	270	450	50	100	-
공공의료인프라 기능성제고 사업 추진	2012~2020년	470	210	-	-	20	50	60	80	260	270	80	120	-
u-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12~2020년	70	32	-	-	4	8	10	10	38	50	20	-	-

사회복지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1,267	5,006	-	-	497	1,022	1,552	1,935	6,261	6,056	2,071	2,785	355
합리적인 복지기반 구축		3,648	1,653	-	-	170	482	479	522	1,995	1,989	756	903	-
사회복지인력 전문성 제고	2012~2020년	225	100	-	-	25	25	25	25	125	90	45	90	-
사회복지통합망 활성화	2012~2020년	198	88	-	-	10	32	24	22	110	135	18	45	-
사회복지종사자 고용환경 개선사업 추진	2012~2020년	315	115	-	-	10	25	40	40	200	180	45	90	-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확대	2012~2020년	450	210	-	-	40	50	60	60	240	270	90	90	-
기초보장관리단 운영	2012~2020년	90	50	-	-	5	10	20	15	40	54	18	18	-
복지순환버스 운영	2012~2020년	1,170	410	-	-	20	150	120	120	760	630	270	270	-
이동지원서비스 확대	2012~2020년	360	140	-	-	20	40	40	40	220	180	90	90	-
사회복지시설 확충	2012~2020년	840	540	-	-	40	150	150	200	300	450	180	210	-
자립성 키우는 예방투자사업 강화		1,900	853	-	-	147	215	243	248	1,047	900	385	560	55
경북형 고용복지 추진	2012~2020년	270	120	-	-	30	30	30	30	150	180	45	45	-
자활사업 선진화	2012~2020년	360	160	-	-	40	40	40	40	200	180	90	90	-
출산장려책 강화	2012~2020년	500	200	-	-	50	50	50	50	300	200	100	200	-
공공어린이집 확충	2012~2020년	600	300	-	-	20	80	100	100	300	300	100	200	-
민간복지기동대 구성 및 운영	2012~2020년	120	50	-	-	5	10	15	20	70	30	30	15	45
기부나눔 활성화사업 추진	2012~2020년	50	23	-	-	2	5	8	8	27	10	20	10	10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5,719	2,500	-	-	180	325	830	1,165	3,219	3,167	930	1,322	300
요양보험 서비스 사각지대 지원	2012~2020년	540	190	-	-	30	40	60	60	350	360	90	90	-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2012~2020년	900	340	-	-	60	80	100	100	560	500	100	300	-
노인복합문화시설 확충	2012~2020년	1,000	600	-	-	5	20	225	350	400	400	100	200	300
장애인자립생활 기반 구축사업 추진	2012~2020년	800	330	-	-	5	25	100	200	470	400	200	200	-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	2016~2020년	150	-	-	-	-	-	-	-	150	60	45	45	-
안심아동보호 시스템 구축	2012~2020년	750	275	-	-	15	60	100	100	475	450	150	150	-
위기아동청소년 치료인프라 구축	2014~2015년	550	220	-	-	-	-	20	200	330	400	50	100	-
아동청소년보호위원회 구성 및 확대	2012~2020년	90	35	-	-	5	10	10	10	55	45	15	30	-
보육서비스 강화	2012~2020년	90	35	-	-	5	10	10	10	55	45	15	30	-
여성일자리사업 확대	2012~2020년	450	190	-	-	30	40	60	60	260	270	90	90	-
다문화전담부서 운영	2012~2020년	45	20	-	-	5	5	5	5	25	27	18	-	-
다문화이해교육 확대	2012~2020년	144	70	-	-	15	15	20	20	74	90	27	27	-
다문화체험프로그램 활성화	2012~2020년	210	195	-	-	5	20	120	50	15	120	30	60	-

교육·체육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7,339	3,507	-	-	230	884	1,301	1,092	3,832	2,962	1,334	2,048	995
교육 혁신 지원체계 구축		1,864	1,257	-	-	55	244	516	442	607	640	398	476	350
지역교육발전협의회 운영	2012~2020년	64	32	-	-	3	6	11	12	32	-	18	46	-
교육발전기금 조성	2012~2020년	200	90	-	-	2	18	30	40	110	-	70	80	50
우수 교육인력 지원체계 구축	2012~2020년	250	130	-	-	5	30	40	55	120	130	50	70	-
우수 교육시설 및 기관 확충	2012~2020년	1,100	880	-	-	30	150	400	300	220	400	200	200	300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운영	2012~2020년	150	80	-	-	10	30	20	20	70	60	40	50	-
교육환경 개선사업 추진	2012~2020년	100	45	-	-	5	10	15	15	55	50	20	30	-
교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1,180	680	-	-	85	185	270	140	500	595	300	285	-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내실화	2012~2020년	100	40	-	-	10	10	10	10	60	50	20	30	-
도서관 확충	2012~2020년	650	440	-	-	40	120	200	80	210	350	150	150	-
도서관 중심 통합교육프로그램 운영	2012~2020년	150	70	-	-	10	20	20	20	80	65	55	30	-
폐교시설의 교육적 활용 지원	2012~2020년	100	50	-	-	5	15	20	10	50	40	30	30	-
평생학습 활성화	2012~2020년	180	80	-	-	20	20	20	20	100	90	45	45	-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3,635	1,285	-	-	45	390	440	410	2,350	1,420	515	1,055	645
공공체육시설 확충	2012~2020년	1,550	920	-	-	20	300	300	300	630	800	150	600	-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2012~2020년	120	110	-	-	-	20	60	30	10	30	10	80	-
노후체육시설 정비사업 추진	2012~2020년	250	100	-	-	10	30	30	30	150	100	50	100	-
체육시설 집적지 수익사업 추진	2012~2020년	90	50	-	-	-	20	20	10	40	-	60	30	-
스포츠복합단지 조성	2012~2020년	1,400	30	-	-	-	-	10	20	1,370	400	200	200	600
체육시설 활성화프로그램 운영	2012~2020년	225	75	-	-	15	20	20	20	150	90	45	45	45
생활체육 저변 확대		660	285	-	-	45	65	75	100	375	307	121	232	-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012~2020년	90	65	-	-	5	10	20	30	25	36	18	36	-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2012~2020년	270	120	-	-	30	30	30	30	150	160	40	70	-
스포츠클럽 육성	2012~2020년	210	60	-	-	10	15	15	20	150	75	45	90	-
스포츠클럽 지원서비스 제공	2013~2020년	90	40	-	-	-	10	10	20	50	36	18	36	-

수자원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40,014	69,876	28,332	7,391	8,959	9,768	8,023	7,403	70,138	82,592	7,584	49,804	34
지속가능한 수자원통합시스템 구축		402	352	-	-	126	101	60	65	50	250	152	-	-
경북 수자원 지도 및 관리시스템 구축	2012-2014년	100	100	-	-	25	50	10	15	-	50	50	-	-
경북 수자원통합관리센터 설립	2012-2016년	300	250	-	-	100	50	50	50	50	200	100	-	-
경북 수자원관리종합계획 수립	2012-2013년	2	2	-	-	1	1	-	-	-	-	2	-	-
물산업 에코워터벨트 조성		5,454	2,514	-	-	370	488	592	1,064	2,940	5,227	193	-	34
물산업소재및물재이용기술개발	2012-2015년	102	102	-	-	20	28	32	22	-	-	102	-	-
낙동강 워터 비즈니스 단지 조성	2012-2017년	5,000	2,200	-	-	300	400	500	1,000	2,800	5,000	-	-	-
도청신도시물순환시범도시조성	2012-2020년	250	110	-	-	20	30	30	30	140	175	75	-	-
대경권 블루골드 클러스터 구축	2012-2015년	102	102	-	-	30	30	30	12	-	52	16	-	34
국가하천사업계획		4,268	3,307	-	-	439	836	1,000	1,032	961	4,268	-	-	-
감천	2012-2016년	975	754	-	-	154	200	200	200	221	975	-	-	-
반변천	2012-2015년	769	769	-	-	137	200	200	232	-	769	-	-	-
형산강	2012-2018년	1,788	1,048	-	-	148	300	300	300	740	1,788	-	-	-
내성천	2012-2015년	736	736	-	-		136	300	300	-	736	-	-	-
지방하천정비사업		39,916	14,893	3,391	1,184	1,518	2,600	3,100	3,100	25,023	23,950	7,239	8,727	-
하천재해예방사업	2009-2027년	30,627	9,796	2,484	811	1,001	1,500	2,000	2,000	20,831	18,377	6,125	6,125	-
생태하천조성사업	2009-2027년	3,684	3,031	830	313	388	500	500	500	653	2,210	442	1,032	-
고향의강정비사업	2010-2027년	4,953	1,726	67	50	109	500	500	500	3,227	2,972	594	1,387	-
물순환형하천정비사업	2011-2017년	652	340	10	10	20	100	100	100	312	391	78	183	-
소하천사업		68,462	27,298	19,074	772	1,418	1,751	2,141	2,142	41,164	27,385	-	41,077	-
아름다운소하천가꾸기사업	1995~	68,462	27,298	19,074	772	1,418	1,751	2,141	2,142	41,164	27,385	-	41,077	-
댐 건설		21,512	21,512	5,867	5,435	5,088	3,992	1,130	-	-	21,512	-	-	-
보현산댐	2010~2014년	3,299	3,299	384	1,287	646	500	482	-	-	3,299	-	-	-
성 덕 댐	2002~2013년	2,371	2,371	1,251	454	282	384	-	-	-	2,371	-	-	-
영 주 댐	2009~2014년	10,838	10,838	111	3,338	3,741	3,000	648	-	-	10,838	-	-	-
부 항 댐	2002~2013년	5,004	5,004	4,121	356	419	108	-	-	-	5,004	-	-	-

해양자원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27,019	15,995	207	214	2,380	4,420	4,714	4,060	11,024	17,427	2,395	2,889	4,308
해양과학 R&D 역량 강화		8,342	4,545	100	100	491	1,175	1,450	1,229	3,797	6,118	574	918	732
환동해 해양과학콤플렉스 조성	2012-2020년	3,400	2,000	-	-	200	500	700	600	1,400	2,500	250	250	400
동해 해양에너지연구센터 건립	2013-2017년	500	300	-	-	-	100	100	100	200	250	125	125	-
해수자원활용연구센터 조성	2012-2015년	356	356	-	-	70	120	120	46	-	126	65	65	100
포스텍 해양대학원 건립 및 육성	2009-2018년	820	650	-	-	100	200	200	150	170	-	110	478	232
차세대 레저선박 융복합센터 조성	2013-2028년	2,500	500	-	-	-	100	200	200	2,000	2,500	-	-	-
동해(독도) 전용 해양연구선 건조	2012-2015년	280	280	-	-	50	80	75	75	-	280	-	-	-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 건립	2009-2015년	443	443	100	100	70	70	50	53	-	443	-	-	-
산학연관 다자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사업	2012-2021년	10	4	-	-	1	1	1	1	6	-	10	-	-
해양 교육시스템 구축 및 아카데미 운영	2013-2020년	33	12	-	-	-	4	4	4	21	19	14	-	-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7,595	3,890	-	9	626	1,165	1,095	995	3,705	5,127	490	563	1,415
가스 하이드레이트 상용화 단지 조성	2012-2015년	500	500	-	-	150	150	100	100	-	100	100	100	200
해양심층수산업 집적단지 조성사업	2013-2018년	180	90	-	-	-	30	30	30	90	100	25	25	30
온배수 활용 바다목장 조성	2012-2016년	100	80	-	-	10	30	20	20	20	20	10	10	60
심층수 활용 증양식장 조성	2013-2018년	75	40	-	-	-	10	15	15	35	30	15	15	15
해양 식품소재산업단지 조성	2013-2020년	250	90	-	-	-	30	30	30	160	100	50	50	50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단지 조성	2011-2013년	490	490	-	9	266	215	-	-	-	277	40	113	60
영일만항 해양산업 비즈니스단지 조성	2012-2018년	3,000	1,900	-	-	200	600	600	500	1,100	2,500	-	-	500
新강구항 개발 및 연관 산업단지 조성	2013-2028년	3,000	700	-	-	-	100	300	300	2,300	2,000	250	250	500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해양관광 활성화		11,082	7,560	107	105	1,263	2,080	2,169	1,836	3,522	6,182	1,331	1,408	2,161
해양휴양체험관광벨트 조성	2010-2020년	5,565	3,503	40	63	700	900	900	900	2,062	2,932	738	573	1,322
두호 마리나항 조성	2010-2015년	656	656	-	-	50	200	300	106	-	328	-	-	328
포항구항 해양공원 조성	2012-2013년	270	270	-	-	120	150	-	-	-	270	-	-	-
신라문화탐방 바닷길 조성	2011-2017년	478	321	5	16	60	80	80	80	157	203	51	188	36
동해안 미항 가꾸기 사업	2012-2016년	540	440	-	-	110	110	110	110	100	330	105	105	-
오션월드공원 조성	2013-2017년	200	120	-	-	-	40	40	40	80	100	30	70	-
국립해양역사 • 문화관건립	2013-2016년	800	600	-	-	-	200	200	200	200	600	100	100	-
동해안 안안 녹색길 조성	2013-2016년	457	250	-	-	-	50	100	100	207	148	134	100	75
대게 박물관 조성	2013-2015년	150	150	-	-	-	50	50	50	-	75	38	37	-
후포항 마리나시설 조성사업	2012-2019년	666	350	-	-	50	100	100	100	316	666	-	-	-
울릉 해양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사업	2013-2020년	800	400	-	-	-	100	150	150	400	280	60	60	400
울릉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2010-2014년	300	300	11	-	50	100	139	-	-	150	45	105	-
천부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2008-2012년	200	200	51	26	123	-	-	-	-	100	30	70	-

에너지 및 지하자원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7,719	16,236	4,836	2,549	2,584	2,528	2,452	1,287	1,483	7,997	2,501	1,247	5,975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대		6,255	5,708	1,568	875	875	823	823	743	548	1,649	126	143	4,337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확대	2011~2012년	71	71	-	36	36	-	-	-	-	36	18	17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추진	2008~2020년	14	9	3	1	1	1	1	1	5	-	8	6	-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10~2014년	400	400	80	80	80	80	80	-	-	200	100	100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2011~2012년	33	33	-	17	17	-	-	-	-	13	-	20	-
울릉도독도 녹색섬 조성	2009~2015년	1,400	1,400	400	200	200	200	200	200	-	1,400	-	-	-
도시가스 공급기반 확충	2009~2016년	4,337	3,795	1,084	542	542	542	542	542	542	-	-	-	4,337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703	676	140	143	143	140	65	45	28	265	182	166	90
노후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2010~2013년	302	302	76	76	76	76	-	-	-	105	54	54	90
친서민 생활에너지복지사업 추진	2011~2012년	1	1	-	1	1	-	-	-	-	-	1	-	-
시군 에너지절약대상 추진	2011~2012년	5	5	-	3	3	-	-	-	-	-	5	-	-
고효율 가로등 보급	2010~2014년	100	100	20	20	20	20	20	-	-	70	15	15	-
그린카 보급 확대	2010~2017년	100	75	13	13	13	13	13	13	25	-	50	50	-
자전거 이용 활성화	2010~2015년	165	165	28	28	28	28	28	28	-	75	45	45	-
기업체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2010~2017년	10	8	1	1	1	1	1	1	3	-	10	-	-
그린스쿨 및 복지시설 조성	2010~2015년	20	20	3	3	3	3	3	3	-	15	3	2	-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3,774	2,866	473	473	483	483	482	474	908	2,568	830	376	-
기후에너지자원도 작성	2010~2014년	4	4	1	1	1	1	1	-	-	-	4	-	-
기후변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012~2020년	50	50	-	-	10	10	10	20	-	-	25	25	-
기후변화 기술 및 실천프로그램 개발	2010~2013년	4	4	1	1	1	1	-	-	-	2	2	-	-
산림자원 보호역량 강화	2010~2017년	3,632	2,724	454	454	454	454	454	454	908	2,511	785	336	-
탄소흡수 순환마을 및 바이오순환림 조성	2010~2014년	84	84	17	17	17	17	17	-	-	55	15	15	-
안정적인 자원확보기반 구축		6,986	6,986	2,656	1,058	1,083	1,083	1,083	25	-	3,515	1,362	562	1,548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재활용시설 확충	2009~2014년	2,714	2,714	1,265	362	362	362	362	-	-	1,222	993	426	73
폐자원 에너지화시설 설치	2009~2014년	4,172	4,172	1,391	695	695	695	695	-	-	2,243	319	137	1,475
광물자원 발굴조사 실시	2012~2015년	100	100	-	-	25	25	25	25	-	50	50	-	-

환경보전 및 관리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10,870	6,272	-	-	1,536	1,553	1,587	1,596	4,598	5,467	3,280	-	2,123
탄소가 보이는 지역		31	31	-	-	9	8	8	6	-	16	16	-	-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구축	2012-2014년	6	6	-	-	2	2	2	-	-	3	3	-	-
녹색컨설팅 산업 및 인력양성	2012-2015년	20	20	-	-	5	5	5	5	-	10	10	-	-
기후관련 국제기구 유치	2012-2015년	5	5	-	-	2	1	1	1	-	3	3	-	-
탄소를 줄여가는 지역		7,469	4,817	-	-	1,205	1,204	1,204	1,204	2,652	3,481	1,865	-	2,123
경상북도및시군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및관리	2012-2017년	5	3	-	-	-	1	1	1	2	2	3	-	-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2012-2017년	5	2	-	-	1	1	1	1	3	3	2	-	-
교통부문 온실가스 감축	2012-2017년	10	5	-	-	2	1	1	1	5	5	5	-	-
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2012-2017년	10	5	-	-	2	1	1	1	5	10		-	-
폐기물부문 안정적 처리로 온실가스 감축	2012-2017년	7,434	4,800	-	-	1,200	1,200	1,200	1,200	2,634	3,458	1,853	-	2,123
농어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2012-2017년	5	2	-	-	1	1	1	1	3	3	2	-	-
탄소를 흡수하는 지역		761	395	-	-	65	85	117	128	366	504	257	-	-
저탄소자원순환운동실천 및 폐기물바이오가스 자원화사업	2012-2017년	652	320	-	-	50	70	100	100	332	444	208	-	-
CDM 사업 활성화 및 인증기관 유치	2012-2015년	10	10	-	-	2	2	3	3	-		10	-	-
탄소포인트제도 활성화	2012-2015년	10	10	-	-	2	2	3	3	-	5	5	-	-
기업체 온실가스감축 컨설팅사업 확대	2012-2015년	5	5	-	-	1	1	1	2	-		5	-	-
탄소흡수순환마을 및 바이오 순환림조성	2012-2017년	84	50	-	-	10	10	10	20	34	55	29	-	-
기후변화 예측 및 조기 대응체계 구축		1,007	469	-	-	117	116	118	118	538	346	661	-	-
기후변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	2012-2015년	10	10	-	-	2	2	3	3	-	5	5	-	-
기후변화 조기대응 능력 제고	2012-2018년	22	11	-	-	3	2	3	3	11	10	12	-	-
기후변화대응 사회적 협력네트워크 구축	2012-2015년	4	4	-	-	1	1	1	1	-	2	2	-	-
경상북도 기후변화대응 실천프로그램 개발	2012-2015년	4	4	-	-	1	1	1	1	-	2	2	-	-
기후변화에 대비한 산불 감시시스템 구축 및 훼손산림 복원	2012-2018년	900	400	-	-	100	100	100	100	500	300	600	-	-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기술개발	2012-2017년	67	40	-	-	10	10	10	10	27	27	40	-	-
낙동강수계 수질개선 사업		1,602	560	-	-	140	140	140	140	1,042	1,121	481	-	-
낙동강 수질개선 사업	2012-2020년	203	160	-	-	40	40	40	40	43	142	61	-	-
완충저류시설 설치 확대	2012-2020년	1,399	400	-	-	100	100	100	100	999	979	420	-	-

안전 및 방재 부문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계	연차별								주체별 분담			
			소계	기투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이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계		675	300	-	-	22	91	91	96	375	180	160	335	-
선제적인 재해예방, 신속한 재해대응, 완벽한 복구체계 확립		195	130	-	-	20	35	35	40	65	85	75	35	-
기후변화 대응 안전기준 강화 및 재난예방 사업 추진	2012~2020년	50	25	-	-	-	10	10	5	25	25	15	10	-
종합안전센터 구축사업	2015~2016년	25	10	-	-	-	-	-	10	15	10	15	-	-
지역 방재지도 작성사업	2012~2015년	80	80	-	-	20	20	20	20	-	30	25	25	-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체계 조성 사업	2013~2020년	40	15	-	-	-	5	5	5	25	20	20	-	-
24시간 신속한 화재대응체계 확립		430	150	-	-	-	50	50	50	280	70	60	300	-
재해정보시스템 구축	2016~2018년	30		-	-	-	-	-	-	30	20	10	-	-
안전진단 및 소방점검제도 개선사업	2013~2020년	400	150	-	-	-	50	50	50	250	50	50	300	-
지속적인 재해방지사업의 발굴과 추진		18	8	-	-	2	2	2	2	10	9	9	-	-
실용성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사업	2012~2020년	18	8	-	-	2	2	2	2	10	9	9	-	-
자조 공조를 통한 자주방재의 실현		32	12	-	-	-	4	4	4	20	16	16	-	-
시민 홍보 및 교육 확대사업	2013~2020년	32	12	-	-	-	4	4	4	20	16	16	-	-
지역 재난관리보험 활성화사업	2013~2020년	-	-	-	-	-	-	-	-	-	-	-	-	-
재난관리 인력 혁신사업	~2020년	-	-	-	-	-	-	-	-	-	-	-	-	-
지역 안전 전문가 양성 사업	~2020년	-	-	-	-	-	-	-	-	-	-	-	-	-
관련 민간단체 체계화 및 활성화사업	~2020년	-	-	-	-	-	-	-	-	-	-	-	-	-

제5편 시·군별 발전방향

제1장 북부자원권
제2장 동부해안권
제3장 서부산업권
제4장 남부도시권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1장

북부자원권

1 안동시

1. 기본목표

전통문화 기반의 녹색·문화중심도시
○ 경북의 교통·문화 거점 조성 ○ 고부가가치 녹색 신성장동력 창출 ○ 지역 문화·생태자원의 글로벌 브랜드화 ○ 전통문화기반의 세계적 문화창조도시 도약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신도청 이전을 토대로 (초)광역권 거점 도시로 발전

○ 경북 신도청과 연계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철도 중심의 녹색 교통망을 확충

○ 도청이전 신도시에 지역명품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하여 경북의 신문화 거점으로 육성

○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군부대를 시 외곽 이전을 추진하고, 이전 부지는 시민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활용

연구개발 중심의 녹색성장산업기반 조성

○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 백신종합연구원 및 생물자원 산업개발원 건립을 추진

○ 안동댐 水생태자원 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녹조관련 미세조류 등 자원화 도모

○ 낙동강 Water Business단지 등 물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

○ 에코힐링테라피 테마파크 등 종합보건의료 복합타운 건립을 통해 신한류 및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

전통문화기반 문화산업 육성

○ 경상북도 세계유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세계적 문화자원 확보

○ 전통문화산업육성단지, 경북 문화콘텐츠 산업단지 등 전통 및 미래형 문화산업기반 조성

○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장소성 콘텐츠 육성, 동화작품 TV애니메이션 제작 및 산업화로 안동 문화콘텐츠의 브랜드 확립

유교문화·관광 중심도시 확립

○ 세계유교 선비문화 공원, 한국문화 테마파크, 전통한옥마을 조성 등 3대 문화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세계 유교문화의 거점화 도모

○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에 따라 구 중앙선 역사 및 철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추진

낙동강과 문화가 결합된 생태문화 활성화

○ 뱃길 복원 등 문화가 흐르는 낙동강변 공간을 연출하여 낙동강 수변문화자원 활용을 극대화

2 영주시

1. 기본목표

중부내륙의 중심, 고품격 그린토피아

- ○ 선비정신 기반의 창조도시
- ○ 백두대간 생태거점 도시
- ○ 융합기술 기반의 생명산업도시
- ○ 격조 높은 평생행복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경제·일자리가 풍부한 녹색성장도시 조성

○ 실수요자 중심의 민자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도모

○ 소백산을 중심으로 한 백두대간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추진

○ 3도(경북, 강원, 충북)연결 국가지원 지방도의 조기 정비로 낙후된 중부내륙권 발전 도모

농업의 6차 산업화로 잘사는 부자농촌 건설

○ 댐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 추진

○ 경종(耕種)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법 도입으로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 도모

○ 향토자원인 콩을 건강 및 친환경 녹색성장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콩을 활용한 장류문화와 전국 최고의 주산단지인 사과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를 조성

격조 높은 문화·관광도시 조성

○ 생생한 유불문화자원과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구축한 한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한국문화의 산업화 도모

○ 부석사, 소수서원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독특한 자연지리 콘텐츠 개발로 지리·생태·수변공간을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브랜드로 육성

글로벌 명품교육도시, 창조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과 고품격 교육 특화도시 건설

○ 고품격 도서관을 건립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수준 높은 외국어 학습기회 제공으로 글로벌 인재 조기 육성

시민공감 복지정책으로 더불어 잘사는 웰빙복지 실현

○ 늘어나는 어르신들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증대를 위하여 종합적인 노인복지시스템 구축

○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과 연계하여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추진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

3 문경시

1. 기본목표

백두대간 웰빙·스포츠 활력도시

- ○ 스포츠 활력 건강도시
- ○ 백두대간의 역사와 함께하는 녹색웰빙도시
- ○ 영상문화 중심의 창조적 관광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국가스포츠 활력 인프라 구축

○ 국군체육부대 이전과 2015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계기로 스포츠 복합단지 조성과 관련 메가이벤트 유치 추진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조성

○ 3대 문화권 사업인 녹색문화상생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석탄박물관 일원에 백두대간 생태자원의 핵심콘텐츠와 지역의 이미지가 접목된 녹색에너지, 영상문화 콘텐츠가 결합된 생태·에너지·환경 테마의 복합휴양·문화공간을 조성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와 환경이 결합된 백두대간 회랑길 조성을 통해 길문화 확립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지역연계 도로망 정비

○ 2015년 세계군인체육대회 대비 방문객의 교통 편의 도모를 위해 국지도 32호선의 개량 추진

○ 문경새재권역과 김용사권역을 연결하는 지역도로와 단산터널 개설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교통 불편 해소

중부내륙 관광도시 건설을 위한 네트워크화 및 이미지 형성

○ 철도자전거와 연계하여 우리나라 철도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철도박물관 건립을 추진

○ 백두대간을 따라 누적된 불교역사문화자원을 탐방·체험하는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하여 문화생태관광지로서의 위상 정립

4 의성군

1. 기본목표

풍요로운 삶이 있는 건강도시

- ○ 활력있고 품격있는 지역개발
- ○ 살맛나는 전원도시 조성
- ○ 만족주는 복지사회 구현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지역 농업의 경쟁력 강화

○ 천년초를 이용한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 향토산업 육성

○ 토속어류산업화 센터 건립을 통해 토속어류의 대량 양식기술 개발, 종묘생산·보급체제를 구축

○ 사곡지구 등 상습가뭄지역에 저수지,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업 및 생활용수 확보·공급함으로써 농업생산성 향상

○ 산하지구 등 상습침수지역에 배수장,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정적 영농기반 확충

Unique 관광상품 개발과 세계화

○ 지역 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사라져 가는 향토사 재조명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해 조문국 박물관 건립 지속 추진

○ 신라역사의 근간을 형성한 의성군 조문국의 문화원형을 보존하고 천년 불교경관을 정비하여 청정 자연환경 속에 꽃핀 신라문화의 근원을 탐구할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

○ 山(비봉산)과 江(낙동강)을 연계한 다채로운 생태탐방루트를 조성하여 살아있는 체류형 생태관광 거점지역으로 조성

○ 낙동강·위천변의 산과 평야가 연출하는 풍광, 고유의 옛길, 자연서식지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드 조성 추진

입체형 도로망 구축

○ 병목구간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다인~비안간 국도 4차로 확장은 기간내에 완공하고, 신도청이전지 및 주요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군위~의성간 국도 28호선를 4차로로 확장하도록 추진

녹색산업을 통한 물 문제 해결 도모

○ 지역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조기에 완공

○ 다인·안계면 등 지방상수도 미급수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 지방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한 통합배수지 및 가압장 건설

○ 위천(안계지구)을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자연 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조성

미래 농촌복지 정책의 Role모델 육성

○ 고령친화모델지역 시범사업을 통해 기 구축된 시설과 연계한 고령친화복지교육센터 건립 추진

5 청송군

1. 기본목표

누구나가 행복을 느끼는 솔내음 그윽한 산림휴양도시

- ○ 소득이 보장되는 부자청송
- ○ 웃음이 살아나는 행복청송
- ○ 미래로 도약하는 희망청송
- ○ 누구나 찾고싶은 그린청송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친환경 유기농업의 녹색산업 창조

○ 친환경 유기농업 기반 확충과 활성화 추진

○ 청송사과 브랜드화 추진하고, 새 소득 상품 개발 및 농업기반 육성

녹색문화 및 생태관광기반 구축

○ 3대 문화권 사업인 솔누리느림보세상 조성 적기 추진

○ 사라져가는 소나무 유전자원을 보존·관리 및 자원화하여 학술적·산업적 연구 공간 제공은 물론 지역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특화 자연생태공원 조성

○ 주왕산국립공원과 연접된 용전천을 자연친화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고향의 강' 조성사업 추진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 청송읍내 수해상습 저지대 재개발을 통하여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대외 이미지 제고에 기여

○ 방호정지구 하천환경정비를 통해 생활 및 하천유지용수 확보 및 하류

지역에 용수 공급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SOC 확충

○ 동부 내륙(경북 북부~강원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국가 간선도로인 남북6축 고속도로(청송~영양) 조기 건설 추진

○ 삼자현 터널 건설, 길안~영덕간 국도 4차로 확장, 청송우회도로 건립 추진

따뜻한 복지, 인재 양성 실현

○ 현장중심의 실천복지와 의료시혜를 추진하고, 명품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도모

○ 청소년들에게 애국충정의 산 교육장이자 국학교육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소년 정신문화역사 교육장 건립을 추진

6 영양군

1. 기본목표

산촌문화가 어우러진 청정도시

- ○ 차별화된 산촌문화 휴양도시
- ○ 고부가가치 녹색산업도시
- ○ 경쟁력을 갖춘 청정 농업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산촌문화 및 음식(食)문화의 거점 육성

○ 지역의 청정 이미지를 살려 자연 에너지를 핵심 테마로 한 체험 교육과 관광을 겸한 Green Village 조성 추진

○ 유교적 食문화 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음식디미방을 활용하여 음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지역자원에 기반한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 산채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고품질 산채 자원의 확보와 산촌 소득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산채의 재배·가공·유통·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낙후된 기술 및 경영, 산업화 기반을 혁신하여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재편

○ 영양고추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 가공,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성 홍보 및 다양한 2차, 3차 가공품 개발 추진

○ 지역의 청정 이미지에 적합한 지역단위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구축

청정 환경 및 고유 문화의 관광자원화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을 증식·복원, 교육·연구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멸종위기종 종합복원센터 조성

○ 산촌문화, 식문화, 문학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상품화

○ 지역에 널리 퍼져있는 야생동물을 활용하여 친자연적인 가족단위 여가문화 공간 조성

지역개발 촉진을 유도하는 광역교통망 확충

○ 동서6축 고속도로 나들목 설치 및 간선도로 개설, 남북6축 고속도로 건설, 지방도 918호(창수~영양) 국도 승격 및 확포장, 지방도 920호(청기~안동) 장갈령 도로 개설 등

7 예천군

1. 기본목표

녹색성장의 신 중심, 새천년 희망의 땅! 웅비 예천

- ○ 도청이전 신도시와 상생발전 기반 구축
- ○ 지역 잠재력을 활용한 성장동력 확충
-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기반 조성
- ○ 친환경 농산물 품질고급화 및 관광자원 개발 육성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기반 구축

○ 농식품가공 산업단지 조성으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상승 도모

○ 신규 농공단지 조성을 통한 유망 중소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도청 신도시에 공급할 신선 채소단지 조성으로 맞춤형 농업 실현

○ 대규모로 재탄생한 리모델링 농지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작목을 선정하여 단지화함으로써 신도시 수요 및 조직적 유통에 대응한 신소득지구로 조성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지역특화사업 발굴 육성

○ 한우 직거래 유통시설 조성으로 낙후된 지역경제의 활로 개척

○ 국가 명승 제16호인 회룡포를 찾는 관광객들의 입소문에 의해 전국적으로 알려진 용궁순대를 활용한 먹거리타운을 조성

○ 농업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지역농산물의 체계적인 유통을 취급할 조직적 유통시스템 구축

○ 도청 신도시의 신규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인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공급함으로써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일자리 창출

○ 생산, 가공, 체험, 연구, 전시시설이 융합된 세계적인 규모의 경북능금 멀티 생태공원 조성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대변화에 대응한 문화관광자원 개발

○ 산림자원을 활용한 치유시설 유치로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낙동강 주변의 역사 및 전통 문화유산의 정비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녹색문화의 신성장동력 확충

○ 진호국제양궁장의 기존 인프라를 확대하여 양궁 연수, 양궁산업, 양궁 체험의 국제적 집적지로 육성

○ 예천 천문우주과학관과 연계한 비행체험장 조성으로 관광자원화

○ 백두대간의 울창한 숲이 갖고 있는 산소, 정화의 생명적 요소에 문학적 테마를 가미한 목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

○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인접 관광자원이 풍부한 생태숲 공원을 조성하여 산림생태의 보전 및 생태관광기반 구축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 기반 구축

○ 자연친화형 주거단지 조성으로 건전한 휴양공간과 국민 주거수준의 향상 도모

○ 하천을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여 하천의 기능을 되살리고 지역주민의 문화휴식공간으로 조성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 예천읍~도청신도시 직통도로 개설, 국도34호선 선형개량(용궁~개포)을 통한 타 지역으로의 접근성 개선

8 봉화군

1. 기본목표

대한민국 최고의 산림휴양도시, 파인토피아 봉화

- ○ 대한민국 대표 산림생태도시
- ○ 서민이 잘사는 친환경 경제도시
- ○ 사람중심의 녹색나눔도시
- ○ 향토문화를 즐기는 관광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백두대간의 브랜드화

○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의 원활한 조성 및 이와 연계된 휴양, 체험 및 치유(특히 한(韓)테라피센터, 아토피학교 등)관련 테마가 가미된 지원지구 조성을 추진

○ 솔숲이 지닌 치유기능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자연치유 휴양타운을 조성하고, 낙동정맥의 산림자원과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숲길을 조성하여 생태관광기반을 확충

○ 산림관련 산업박람회를 통한 지역의 우수한 산림자원과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홍보 도모

산림자원 산업화와 농업기반 육성

○ 백두대간의 산림자원이 가진 다양한 약용작물의 성분 및 약재로서의 가치를 파악하여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연구기관 유치 추진

○ 인구유출과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및 전문농업인력 수급을 위해 귀농인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 건립 추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통해 지역 발생 유기자원을 퇴비화하여 양

질의 유기질 비료를 경종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향토자산인 봉화송이를 가공산업으로 개발하여 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을 중심으로 산업적 개념의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백두대간 산림산업벨트를 구축

향토문화와 환경의 자원화

○ 청량산과 낙동강의 우수한 청정 자연환경과 유서깊은 유림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자연친화적인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

○ 수준 높고 다양한 정자건축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문화관광자원으로 연계한 전통건축 테마체험 공간 조성

○ 춘양목 산삼마을을 조성하여 솔과 삼이 함께하는 심신건강체험을 통한 녹색관광인프라 구축

함께 살아가는 녹색복지공동체 기반 구축

○ 청소년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과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웰빙과 테라피 개념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추진

○ 노후된 보건소 신축을 통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여가, 건강, 봉사 등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돌보기 위한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 영·유아 어린이집 확충으로 양질의 보육환경 제공

○ 도시민 유치 전원마을 조성을 통하여 기존 주민과 귀농 귀촌인들이 함께 사는 자연스런 전원농촌 구현

2장

동부해양권

1 포항시

1. 기본목표

환동해 중심도시, 글로벌 포항
○ 국제 물류·교류 거점도시 ○ 첨단과학 산업도시 ○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국제 물류·교류기반 구축

○ 영일만항 건설, 영일만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으로 국제물류·비지니스 중심도시로의 도약기반 마련

○ 환동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로 및 철도망 등 광역 SOC 인프라 조기 구축

○ 건설 중인 동해선 철도의 포항역 개통에 대비하여 신 포항역사 주변 역세권 개발 추진

녹색성장과 지식기반의 첨단과학 산업기반 확충

○ 제4세대 방사광가속기 건설로 기초과학기술 개발 및 선도적 연구지역으로 육성

○ 수소연료전지파워밸리 구축으로 세계적 수소에너지 메카로 육성

○ 포항블루밸리 및 포항테크노파크 2단지 조성으로 첨단 부품소재산업의 생산기반을 구축

활기차고 매력 넘치는 해양문화도시 구현

○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으로 시민들의 지적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 동빈내항 복원, 포항구항 해양공원 등 문화적인 친수공간 조성으로 슬럼화된 구도심 회복 및 시민의 여가휴양 욕구 충족

○ 연오랑세오녀 신화를 토대로 신라문화탐방 바닷길을 조성 추진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녹색환경 조성

○ 형산강 에코트레일 조성, 송도백사장 복원 등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생태형 녹도, 폐 철도부지 도시숲 조성, 시가지 생활권 순환 등산로, 생태하천 등 시민녹색 휴양공간 확충

○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으로 지역의 녹색성장 유도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선진 복지체계 구축

○ 장학기금 조성, 뱃머리 문화관 건립,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 시민행복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간 중심의 복지문화도시 실현

○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시민과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실현

○ 생활체육 활성화로 시민 건강 증진 도모

2 경주시

1. 기본목표

새로운 천년을 만들어가는 녹색산업·문화창조도시

- ○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 ○ 품격이 높은 역사문화관광도시
- ○ 안전하고 행복한 녹색환경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원자력산업 중심의 녹색산업기반 조성

- ○ 울산, 포항 등 공업도시와 인접하여 있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권역별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조성
- ○ 원자력수출산업단지 조성으로 미래산업인 원자력산업 활성화
- ○ 신경주역세권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경주의 부도심 기능을 수행하는 신도시 조성
- ○ 경주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컨벤션산업 활성화
- ○ 국도 7호선 확충으로 원활한 기업 물류수송 제공

도시와 농촌이 공존·상생하는 농어촌 특성화

- ○ 지역별 특화된 대규모 친환경 농산물 재배 특화단지의 조성으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
- ○ 고품질, 위생,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유통망 확충으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정적인 축산물 공급
- ○ 여름을 제외한 관광비수기를 타개하기 위해 해양관광자원과 역사문화를 연계한 해양관광단지 조성

○ 농업테마파크 조성으로 농업 R&D 기능 강화 및 도시 소비자와 함께 하는 농업 실현

천년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도시 만들기

○ 성덕대왕 신종 테마파크 조성으로 도심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재보호구역내 신라문화권유적권 정비로 문화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 신라왕궁 및 황룡사 복원, 신라 6부, 56왕전 건립 등을 통해 신라의 천년고도 경주의 정체성 확립 및 자긍심 고취

○ 조선시대 전형적 반촌인 양동마을을 종합 정비하여 전통문화 계승

○ 예술인마을 조성을 통해 역사문화자원과 지역예술인을 연계함으로써 문화산업기반 마련

역동적이고 품격 높은 레포츠·교육환경 조성

○ 화랑대기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경주국제유소년국제대회 개최 및 동계훈련 선수단 유치 등을 통한 레포츠도시 육성 기반 구축

○ 북부 종합체육시설 및 실내생활체육시설 건립, 외동운동장 조성 등을 통해 생활체육인구 증대 및 건강도시 조성

○ 자율형 사립고 건립으로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행복도시 구현

○ 장수촌(Healing Land) 조성으로 치유여행 관광목적지로 자리매김

○ 시립어린이집 확충 등 공보육 기반 조성

○ 알천, 칠평천 등 문화와 환경요소를 포함한 하천 가꾸기를 통해 자연환경 보존 및 수변휴식공간 제공

○ 개발용수 수요량 증가에 대비한 동해안 지방상수도 확충

3 영덕군

1. 목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그린블루시티

- ○ 해양과 생태가 어우러진 로하스산업 거점
- ○ 특화자원 중심의 해양문화·휴양 명소
- ○ 쾌적하고 살맛나는 창조지역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촉진

○ 산림로하스파크,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송이 클러스터 단지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업 및 휴양거점 확보

○ 제2 농공단지, 로하스 수산식품단지, FTA 대체 과수 재배단지, 로하스 영덕대게 한우단지 등 지역특화자원의 산업화 촉진

○ 미래 해양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급증하는 자연재앙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해양환경관련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

생명을 존중하는 부자 농어촌 조성

○ 돈버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규모 바다목장화 조성, 바다숲 조성,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 임산물 산업화, 한우 비육시설 현대화 및 수급기지 조성, 친환경 농업대학 운영 등을 추진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지역중심거점인 강구면을 종합 정비하여 지역중심거점으로 육성하고, 고래불권역, 옥계권역, 예주권역 등 권역별로 면소재지 및 단위마을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쾌적한 농어촌공간 조성

산, 바다 등 자연자원을 활용한 생태문화관광 활성화

- 구국안보 역산의 산 교육장으로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공원을 조성
- 동해안 연안 녹색길, 해맞이 산책로, 고래불 해양복합타운 등 동해안의 생태·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명소 확보
- 낙동정맥 역사문화 산수길, 수로부인 헌화가 테마사업, 영해부 읍성·관아 복원, 괴시리 고분군 정비 등 지역역사문화자원을 활용 강화

내륙과 해양을 연계한 지역기반 확충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과 업무단지·비지니스 타운을 조성하여 신재생에너지 실증과 이용 보급 확대
- 동서 4축 및 남북 7축 고속도로 적기 개설, 동해중부선 철도 조기 건설 등 광역연계 교통망 확충으로 접근성 제고

4 울진군

1. 기본목표

해양 생태문화 관광도시

- ○ 소통과 화합으로 행복한 지역
- ○ 자연자원과 연계한 전국 최고 생태 문화 관광지
- ○ 광역교통망 조기 확충과 환동해 해양·생태관광 거점
- ○ 원자력 관련 시설 및 연구단지 유치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일자리 창출로 소득증대 기반 구축

○ 원자력 관련 R&D 기반 확충을 위해 원자력에너지 클러스터 유치를 추진

○ 과수경종농업형 녹색농업타운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개발 추진

○ 국가기간 교통망인 울진~봉화 분천간 철도 개설 및 동해안 고속도로(동서7축) 조기 구축

전국 최고의 생태 문화 관광지역 조성

○ 분산된 엑스포공원, 망양정, 성류굴 등을 연계한 명품 관광벨트 구축

○ 신선계곡 생태녹색관광자원화, 울진 숲길 18로 조성, 울진 금강송 생태휴양단지 조성, 왕피천 생태관광벨트 구축 등을 통해 웰빙관광 수요 증가 대비

○ 동해안을 따라 바다낚시공원 및 해변 관광탐방로를 조성하고, 국립해양과학 교육관 건립을 추진

○ 백암·덕구온천지역에 대해 숙박시설 위주의 개별 온천에서 보양과 관

련된 운동·휴양시설을 보완·정비하여 웰빙형 복합 온천관광지로 재구성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풍요로운 지역 개발

○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원년 개최지의 자부심과 울진관광형 바다목장사업과 연계하여 후포항에 마리나시설을 조성하고, 죽변항에는 항만정비 및 기능 활성화를 도모

○ 지역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상수도시설 확충,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왕피천 생태하천 복원 등을 추진

○ 파력, 해상풍력, 바이오, 해수온도차 발전 등 친환경 해양 신재생 에너지 연구개발 기반 구축

품격있는 교육문화와 복지환경 조성

○ 동해의 해양자원에 대한 교육, 연구, 전시, 체험시설인 국립 해양과학교육관을 건립하고, 왕피천 생태학교 조성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국립생태 환경교육센터 설립 추진

○ 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복지관 건립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선진복지 구현

5 울릉군

1. 기본목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삶의 질을 높이는 국제관광 휴양섬

- ○ 지역산업의 특화와 신성장 동력산업 창출
- ○ 지역자원을 통한 녹색성장 추구
- ○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
- ○ 아름다운 청정 환경 유지 및 지속적 관리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친수공간과 녹지공간 활용을 통한 관광휴양섬 건설

- ○ 지역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울릉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 추진 강화
- ○ 천혜의 해상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친수공간 조성사업, 특유의 지형·지질을 대상으로 한 지오투어리즘 관광자원개발을 추진
- ○ 나리자드락길 등 동해안 관광탐방로를 조성하고,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을 조성
- ○ 고급형 해양레저시설인 천부 해양관광단지 조성

독도와 연계한 관광개발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 ○ 안용복 정신 계승 공간인 안용복기념관을 건립하고,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호하기 위한 수토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한 역사문화공간을 조성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새로운 성장기반 마련

- ○ 먹는샘물(생수) 개발, 섬백리향 클러스터, 수산종묘 매입방류 등을 통해 부가가치 높은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역사문화의 보존 및 활용 강화를 통한 문화기반사업 육성

○ 울릉도·독도의 역사관광 거점지로서 울릉도 개척사 테마관광지를 조성하고, 삼국시대 우산국의 역사·전설이 연계된 체험형 교육관광시설을 건립

생활기반 확충을 통한 생활여건 개선

○ 도서지역의 열악한 체육시설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울릉군 공설운동장 건립을 추진

○ 도서종합개발사업,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울릉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시설을 확충

○ 울릉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으로 수도시설의 계획적 정비 추진

3장

서부산업권

1 김천시

1. 기본목표

그린 국토 중심의 신성장 거점
○ 정주형 친환경도시 ○ 십자축 교통물류도시 ○ 녹색문화·교육도시 ○ 고품격의 생태관광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혁신도시 건설의 성공적 추진 및 농촌지역 정주기반 확충

○ 혁신도시는 KTX 역세권 개발 및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혁신 확산을 위한 도시 정주환경 및 지원 기반을 구축

○ 혁신도시내 산·학·연 혁신클러스터의 구축 및 관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이전공공기관과 관련된 특화의료시설을 유치

○ 국도대체우회도로를 조기 건설 및 혁신도시와 김천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를 신설하여 지역간 연결성을 강화

○ 도시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삼애원을 이전하고, 전략적으로 지역밀착형 신시가지로 개발

○ 농촌지역은 생산·유통·정보·복지·여가생활이 결집된 자족적인 커뮤니티

를 형성

생산과 연구가 집적된 지식산업기반 조성

○ 김천1 산업단지의 조기 완공 및 향후 수요를 고려하여 추가로 확대하고, 입주기업과 관련된 R&D 기반 구축

○ 전자부품소재, 물류, 바이오, 문화산업의 4대 성장주도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 인프라 확충

자연과 역사가 체화된 복합관광지대 조성

○ 3道가 함께하는 삼도봉 복합문화·생태단지를 조성하고, 3대 문화권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을 조기에 완공

○ 스포츠문화예술타운 주변 개발과 특색있는 도시문화공간 확충

○ 역사문화유적과 무형문화재를 보전·계승할 수 있는 역사문화기반 구축

녹색교통·물류기반 확충

○ 신국토축인 동서 4축과 남북 4축의 광역교통망과 연계하여 김천~진주간 철도를 건설하고,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경북내륙선 철도 신설, 기존 경북선 철도 복선화 등을 추진

지속가능한 생태환경도시 건설

○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생태자원과 산악경관, 부항댐, 도심천 등의 수변경관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하기 위한 생태경관계획 마련

○ 국가하천 정비사업의 일환인 감천 친수환경 정비를 통해 종합문화공간으로 재창출

2 구미시

1. 기본목표

글로벌 미래를 선도하는 명품 기업도시

- ○ 차세대 IT중심 신산업 도시
- ○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 ○ 창조적 문화교육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미래형 첨단 R&D 및 산업인프라 구축

○ 산업용지 신규수요 대처 및 변화하는 하기 위해 구미하이테크밸리(5단지) 개발,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국가산단 1단지 구조고도화(QWL) 시범단지 등 산업인프라를 조기 구축

○ R&D기반이 취약한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디지털산업지구 조성, 과학연구단지 육성 등 추진

○ 구 금오공대 캠퍼스내에 IT융합기술단지 및 산학융합지구(QWL 밸리) 조성하여 신성장산업의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

○ 지역 IT산업 기반의 경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항공관련 전자부품산업 특성화단지 조성을 추진

그린에너지 산업단지 조성 및 IT융·복합 산업 육성

○ 태양광 핵심부품소재 중심의 대경권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대중소 연계형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사업을 추진

○ 광주권 光산업과 연계한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을 육성

○ IT융·복합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산업을 육성하고,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산업화 기반 구축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및 자연과 조화로운 도시공간 조성

○ 국도대체 우회도로(33호선, 67호선) 우회도로 개설, KTX역~5공단 연결도로 조기 건설, 경부선철도 KTX역 연계 이설 등을 통해 지역 교통체계 개선 도모

○ 도농복합도시로서 특성을 살려 대표적 농촌지역인 선산읍소재지를 종합정비하고, 물순환형 수변도시 기반 구축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공생 도모

구미문화 트랜드화 및 생명이 숨쉬는 탄소제로도시 조성

○ 글로벌 새마을운동의 새로운 발전모델인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박대통령 기념공원을 건립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조성된 낙동강 친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수상경비행장 및 마리나시설, 오토캠핑장 등으로 구성된 수변 복합레저파크 조성을 추진

○ 선산을 중심으로 한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역사문화디지털센터를 건립하고, 불교문화 초전지를 조성

통합복지서비스체계 구축 및 지식창조형 명품교육도시 조성

○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도시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시민의 평생건강관리 체계를 구축

○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 구미장학재단 기금조성 및 운영, 시민과 함께하는 평생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교육역량을 강화

3 상주시

1. 기본목표

꿈이 있는 행복도시, 세계 속의 으뜸상주

- ○ 생동하는 지역경제 도시
- ○ 고부가가치 농산물의 선진농업 도시
- ○ 낙동강 역사를 품은 문화관광 도시
- ○ 나눔있는 건강복지 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으로 농업 수도 건설

○ 국립 농업생명미래관 건립으로 동·식물자원사업, 생명산업 등을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

○ 웰빙친환경 과채류 단지, 벼재배단지 등 거점농업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누에고치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을 추진

○ 국내 및 세계의 술을 테마로 한 술문화 풍류체험마을 조성

백두대간과 낙동강이 어우러진 생태관광명소 개발

○ 국가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조사 및 보전을 위한 국립 낙동강생물자원관 건립

○ 낙동강변에 낙동강 이야기나라, 백두대간에 거꾸로 옛이야기나라 숲 및 시어동 휴양체험단지 등 이색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시설을 조성

슬로시티 인프라 구축과 스포츠·문화도시 육성

○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인프라와 연계한 곤충자원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 전통문화 및 향토자원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고, 100년 전통의 상주 양잠역사를 재조성하기 위해 바이오실크 R&DBP를 육성

○ 낙후된 지방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

편리한 교통·물류기반 및 선진도시기반 확충

○ 상주~영덕(동서4축)간, 상주~영천(민자도로)간 고속국도 건설 및 국도 3호선(거창~가장) 건설

○ 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우선 공급하고, 경북대 상주캠퍼스 주변개발 등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생활편의 및 문화공간 제공

미래성장산업 육성과 행복한 복지도시 건설

○ 교통 요충지로의 부상 및 늘어나는 산업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공성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신규로 조성

○ 2015년 세계물포럼, 2015 세계군인올림픽 등 각종 국제행사에 맞추어 국립 낙동강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추진

○ 상주 화령장전투 전승기념공원 조성을 통해 청소년 호국안보교육장으로 활용

4장

남부도시권

1 영천시

1. 기본목표

기업하기 좋은 신산업도시
○ 지식기반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한방, 승마, 레포츠 등이 결합된 신복합레저 건강도시 ○ 대구대도시권의 거점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첨단산업과 향토산업의 조화로운 발전

○ 영천국가산업단지, 영천일반산업단지, 고경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생산기반 확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하이테크파크지구, 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 항공, 바이오메디컬, 자동차 및 로봇 관련 R&DB기능 강화로 항공우주산업, 의료산업 등 첨단산업 발전기반 구축

○ 기능성 양잠산물 시범단지 조성, 한국본초학교, 한방자원식물원, 경북천연염색산업연구원 건립 등을 통해 향토산업 육성

말, 와인 등 지역특화자원의 다각적 활용 촉진

○ 승용말 육성 및 비육말 보급, 영천경마공원 및 기마 역사·문화 대공원 조성, 운주산 승마장 활성화 등을 통해 말의 식품·관광·레저자원화

○ 와인학교, 와이너리 시설, 와인연구소, 와이너리 민박시설 등 와인특화 지구를 조성하여 와인산업 육성 및 관광 활성화

역사·레저 및 녹색 관광기반 구축

○ 영천전투 메모리얼파크 조성, 임고서원 및 최문선장군성역화 등을 통해 역사적 정체성 확립 및 테마형 관광콘텐츠 개발

○ 보현산 별빛테마마을, 치산관광지 휴양단지, 은해사 집단시설지구 등을 조성하여 머물고 가는 체류형 관광지 육성

○ 영천댐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낙동정맥 트레일, 산림문화레포츠센터, 생태하천 조성 등 녹색관광기반 구축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발전

○ 도심재생사업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로 도심과 주변의 균형발전 도모

○ 권역별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통해 농촌마을의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도시내, 도시간 교통네트워크 구축

○ 대구선(동대구~영천), 중앙선(도담~영천) 및 영천~신경주의 복선전철화, 경북고속도로 구간확장(영천~언양) 및 영천~상주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등으로 편리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물류망 구축

열린 복지 및 녹색 친환경 만들기

○ 종합복지타운, 경북 동남권 여성발전통합센터, 영천인재양성원 등의 건립으로 열린 복지 및 인재육성 도모

○ 영천댐 및 보현산 다목적댐 일원 종합정비, 수해상습지 등의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을 통해 안전한 녹색 친환경 조성

○ 환경기초시설 집단화,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농가형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확대 등으로 오염물질 통합처리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

2 경산시

1. 목표

기업과 인재가 도약하는 학원연구도시

○ 대학과 R&D기관 중심의 지식산업 선도도시
○ 주거, 생산, 교육, 연구·개발이 충족된 정주환경 명품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지식산업 인프라 구축

○ 대구 R&D특구 육성,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 등을 통해 첨단산업 발전 토대 마련

○ 경산4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종묘기술개발센터, 종묘유통센터 등으로 이루어진 종묘산업특구를 조성하여 종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

역사·문화·레저 인프라 확충

○ 삼성현문화관, 국궁장 등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삼성현 관련 콘텐츠 개발로 성현의 정신 계승 및 정체성 확립

○ 경산삽살개 테마공원, 코발트광산 역사체험 관광지, 왕재둘레길 관광자원 개발 등 경산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학습관광 활성화

○ 경산시민운동장 조성, 경산생활체육공원 내 수영장 건립, 장애인종합체육관 등 체육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의 체육활동 진흥

○ 경산한방휴양지구 조성, 국가자전거도로 정비 및 신설 등으로 시민 건강 증진 및 레저도시 조성

자연친화적 생태환경 조성

○ 남매공원 및 경산시립수목원 조성으로 자연친화적인 복합생태문화공간 조성

○ 자원회수시설(대형소각시설) 설치·운영으로 매립폐기물 감량 및 재생에너지 생산

순환형 교통망 구축

○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 연장으로 광역교통망 확충

○ 관내 고속도로(대구~포항, 신대구~부산, 경부고속도로) 및 국도(4호선, 25호선)를 연결하는 간선 도로망 건설로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와의 연계 강화

지역 우수인력 양성 및 평생학습 문화 확산

○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장학금 조성 및 지급 등 지역인재 양성 환경 구축

○ 읍면동 학습관 운영, 삼성현 아카데미 및 여성대학 운영 등 지역의 평생학습문화 확산

3 군위군

1. 목표

생동하는 휴양·위락·전원의 복합도시

- ○ 대도시 배후 친환경 농업휴양도시
- ○ 문화와 경제가 살아있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 ○ 청정전원의 대도시 배후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대구근교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 구미, 대구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주~영천간 고속도로 조기 개설 및 군위~구미(국가산업단지)간 도로를 확·포장

○ 부계~동명간 도로 조기 완공, 팔공산 터널 개설 등으로 주변 대도시 정주인구 유도

유기농업 및 유통단지 중심의 산업기반 구축

○ 친환경 우리밀 및 파프리카 등을 중심으로 유기농업단지 및 농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지역에 맞는 고소득 농산물 가공 및 유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농축산물 유통기지 조성, 농산물(과채류) 가공공장 건립 등을 추진

근교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위락형 관광기반 확충

○ 삼국유사의 고장으로서 대표적 브랜드 창출을 위해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을 현실화하고, 인각사 일원에 일연공원을 조성

○ 김수환 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을 조성하여 한국 최초 추기경을 추모하고 문화공간으로 활용

○ 대도시 근교로서 잠재력을 살려 레포츠 Complex 조성, 친수레저루트

개발 등 위락기능을 강화하고, 녹색관광체험마을을 육성

자연경관과 조화된 휴양형 사회복지시설 확충

○ 휴양형 실버타운 조성, 미래형 전원주택단지 조성 등 대도시 근교 휴양도시 인프라를 구축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환경기반 정비

○ 군위읍 소도읍 육성 사업, 농촌 생활환경 정비, 통합상수도 건설 등 시가지 정비 및 개선을 도모

4 청도군

1. 목표

세계 일류 살맛나는 전원도시

- ○ 활기찬 부자농촌도시
- ○ 자연과 함께하는 고품격 전원도시
- ○ 주말형 생태문화 관광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경쟁력 있는 농촌경제 기반 구축

○ 청도브랜드 명품화 농업 육성을 위해 청도·한재미나리 산업화 클러스터 구축, FTA 과수경쟁력 제고, 약선가공식품 명품화를 추진

○ 살맛나는 부자농촌 건설을 위해 청도반시 산업화, 중대형 거점 APC 건립, 농기계 임대센터 건립, 한재지구 특화품목지역 종합개발을 추진

○ 농산물식품가공산업 육성, 청도반시나라 특구 지정 운영 등을 통해 지역특산물 고부가가치화 도모

○ 안정적이고 저렴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

살고 싶은 전원도시 만들기

○ 행복지수를 높이는 지역개발을 위해 천연도시가스 공급,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을 확충

○ 덕절산 자연생태공원 조성, 유호폐철도 생태공원 조성, 남성현감꽃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수월 21ART전원마을 조성, 금천·풍각 면소재지 종합정비, 유천·삼계 권역 종합정비 등을 통해 청정 녹색지역을 구현

○ 맑고 깨끗한 친환경 하천관리를 위해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 동창천 자연생태공원 조성, 청도천 ‘고향의 강’ 정비, 소규모마을 하수도처리

시설을 설치

○ 청도·화양·풍각 시가지 도로망 정비, 국도20호선 및 25호선 확장, 국도20·25호선 남성현·곰티재 터널 개설, 국도20호선 마령재 터널 및 국지도69호선 운문령터널 개설, 대구광역권 전철망 조기 구축 등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발전 가속화를 도모

품격 높은 문화관광 기반 구축

○ 문화와 예술의 청도축제 활성화, 청도소싸움경기사업 시행, 청도향토사료관 건립, 청도읍성 관광자원화, 세계 교량 전시·체험장 조성, 전통싸움소 연구센터 설치, 오례산성 새천년캠프타운 조성, 이서국 역사테마파크 조성 등을 통해 문화관광벨트를 구축

○ 비슬산 산림치유센터 조성, 백두대간 산채식품벨트 조성, 백두대간 Greenmine비즈니스 구축, 한방 치유 테라피존 조성 등을 통해 늘 푸른 클린 산림비즈니스 추진

우리정신의 세계화 추진

○ 새마을운동 시범단지 조성, 신도새마을발상지 테마파크 조성으로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 위상 강화하고, 우리정신 글로벌화를 위한 교육특구 지정을 추진

○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신화랑 에코트레일 조성을 통해 신화랑 체험·관광의 메카로 육성

행복하고 안전한 마을공동체 구현

○ 동곡마을복지회관 건립, 찾아가는 장수웰빙대학 운영 등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

○ 청도천 수해상습지 개선, 고수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송서지구·흑석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 청도군 소방청사 건립, 운문댐물 공급 등을 통해 지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조성

5 고령군

1. 목표

역사와 산업이 어우러진 도시

- ○ 새롭게 도약하는 활기찬 경제도시
- ○ 다시 찾고싶은 역사체험·관광도시
- ○ 건강하고 살맛나는 행복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지역자립기반 구축 및 제조업의 전문화

○ 개발촉진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간, 지역내 도·농간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

○ 뿌리산업 중심의 산업활동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

가야문화 활성화 및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육성

○ 가야문화권 특정지역 지정사업 지속적 추진

○ 가야국 역사루트 재현, 대가야 문화밸리 조성 등 통합적 역사관광기반 구축

○ 대가야체험축제 성공적 개최 및 지산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미래지향적 도시기반과 매력있는 녹색도시 건설

○ 남부내륙 철도건설 사업 조기 착공, 88고속도로 확장 등으로 지역개발을 촉진

○ 좌학근린공원 조성, 산서 등 읍·면 상수도 공급, 도시가스 조기 공급 등 생활기초 기반시설 확충

특화 농업 육성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

○ 농가소득 전국 1위 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의 본격적 추진

○ 예마을권, 도진권, 성산면소재지에 대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건강하고 살맛나는 행복도시 추진

○ 문화시설 소외감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복지관 및 군립도서관 건립 등을 추진

○ 대가야교육원 운영 활성화로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

6 성주군

1. 기본목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STAR 성주!

- ○ 살맛나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 ○ 번영하는 첨단농업 특화도시
- ○ 매력있는 전원형 복지도시
- ○ 뿌리깊은 역사 · 문화 · 관광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 생생도시 건설

○ 성주군의 중심지로서 정체성 확립을 위해 성주읍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성주읍율 유하하는 이천은 하천 복원을 통해 생태하천으로 조성

○ 성주체육공원(공설운동장) 건립으로 주민 화합의 장 마련

친환경 그린바이오 벨트 구축

○ 낙동강변에 IT, BT 등 과학기술과 결합된 첨단농업단지를 조성하고, 미래 농업 CEO 양성 특성화 대학인 국립 농업농촌대학을 유치

○ 참외 등 특용작물과 채소, 화훼 등을 포함된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국립 육종센터를 유치하고, 민간 육종 연구단지를 조성·운영

○ 참외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생산 강화를 위한 농특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고, 성주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한 자원순환형 농업연구센터를 건립하여 소각로의 폐열을 식물공장의 보온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전원과 도시가 공존하는 복지도시 조성

○ 낙동강 유역에 전통민속과 접목된 강촌 문화체험형 관광지인 무릉도원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성주호 주변에 휴양·레저형 관광지인 모험레포츠 관광단지 조성을 추진

○ 성주 가야산에 난치성 질환자의 심신을 전인적 치료를 위해 힐링센터를 건립하고, 대구에서 성주로의 진입부에 성주 상징 관문테마공원을 조성

산림휴양 · 체험의 허브 구축

○ 가야산을 산림문화 및 산악관광의 중심지로 육성시키기 위해 로프웨이 설치, 가야산 휴양·레저관광 클러스터 조성, 국립공원 주변 산림자원 관련 산업 육성, 야생동물원 유치 등을 추진

한(韓)문화 르네상스 육성

○ 세종대왕태실을 중심으로 한국 생활사문화체험 및 관광자원을 개발

○ 흩어지고 구전되는 한문화의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한 국립 한문화예술대학을 유치

도 · 농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SOC 기반 조성

○ 대구와의 광역적 교통체계 형성을 위해 대구~성주간 국도 30호선 및 성주대교를 확장

○ 영호남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무주간 동서3축 고속도로를 조기 개설

○ 편리한 철도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김천~진주간 철도 개설 및 역사를 유치

7 칠곡군

1. 기본목표

쾌적한 환경과 첨단산업이 조화된 호국의 고장

- ○ 칠곡보를 중심으로 낙동강 친수공간지대 조성
- ○ 친환경 웰빙 농산물의 집산지
- ○ 첨단 IT산업벨트의 중심지
- ○ 아시아 평화관광지대 조성
- ○ 영남내륙권의 물류거점 도시

2. 발전방향 및 주요과제

칠곡보 주변지역 효율적 개발

○ 칠곡보에 접하여 물과 인간이 호흡하는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낙동강 역사너울길 조성사업을 통해 타 지역과 연계한 생태문화탐방벨트를 구축

대도시권 배후 전원도시 기능 강화

○ 왜관읍 소재지 정비, 약목, 동명 면소재지 종합정비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권역별 사업 추진

○ 가산지역을 중심으로 가산산성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을 추진하고 전원마을을 조성

첨단 지식기반산업 육성

○ 바이오에너지 관련기술 및 상용화에 대한 연구를 위한 담수미세조류 바이오에너지 연구센터 설립 추진

○ 영남권 내륙화물기지 조성에 따른 배후 산업단지로 왜관 제3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와 연계하여 북삼오평 일반산업단지를 조성

호국 및 문화·관광자원의 융합화

- 낙동강과 자고산에 전쟁·호국·평화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인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을 조성
- 국제평화빌리지 조성을 통해 주한미군(가족)과 지역민이 함께 거주하는 'One-Step Life' 시스템 구축
- 역사적 의의를 가진 관호(백포)산성 일원을 공원화하여 지역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
- 전통한옥마을을 중심으로 한옥체험마을을 조성하고 관광자원화 추진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물류망 구축

- 국도4호선 관호오거리 고가차도 설치, 국도4호선~국지도67호선 연결도로 개설, 구포~덕산간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 등 연결도로망 확충
- 왜관 소재지 통과 교통량의 상습 지·정체 해소를 위해 (신)왜관교 설치 추진

부 록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
과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의 비교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부록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20)과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의 비교

명칭	제3차 경상북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2008~2020)	경상북도 종합계획(2012~2020)
기간	▸ 2008~2020	▸ 2012~2020
비전 목표	▸ 비전 : 환동해 경제권의 중심, 경북건설 ▸ 목표 : - 튼튼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경제 - 활기차고 살기좋은 지역균형발전 -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 - 아름답고 깨끗한 청정환경 - 열려있고 신뢰하는 교류 · 협력	▸ 녹색·창조·통합의 새경북 -강·산·해가 어우러진 희망 경북- ▸ 목표 : - 튼튼하고 희망이 있는 녹색산업경제 - 활력 넘치고 살기좋은 지역균형발전 -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복지 공동체 - 아름답고 지속가능한 그린 청정환경 - 소통하고 신뢰하는 연계·협력
공 간 구 조	▸ 동서 3개축과 남북 3개축이 교차하는 격자형 발전축 ▸ 동서 3개축 - 생태자원축, 지식융합축, 혁신지향축 ▸ 남북 3개축 - 특화지향축, 지식기반축, 해양개방축	▸ 江(낙동강)·山(백두대간)·海(동해)와 더불어 韓(3대 문화), 경제산업(경부축)을 기본 골격으로 각각의 요소들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발전축 ▸ 3대 초광역축 - 낙동강축, 동해안축, 백두대간축 ▸ 4대 지역발전축 - 산악생태축, 문화경제축, 경제산업축, 해양과학축
권역 설정	▸ 북부자원권(7) - 북북권(4) : 영주, 문경, 예천, 봉화 - 북남권(3) : 안동, 청송, 영양 ▸ 동부연안권(5) - 연안북권(3) : 울진, 영덕, 울릉 - 연안남권(2) : 포항, 경주 ▸ 중서부내륙권(5) - 강서내륙권(2) : 김천, 상주 - 강동내륙권(3) : 구미, 의성, 군위 ▸ 남부도시권(6) - 동부권(3) : 경산, 영천, 청도 - 서부권(3) : 칠곡, 성주, 고령	▸ 북부자원권(8) - 북북권(4) : 영주, 문경, 예천, 봉화 - 북남권(4) : 안동, 청송, 영양, 의성 ▸ 동부해양권(5) - 연안북권(3) : 울진, 영덕, 울릉 - 연안남권(2) : 포항, 경주 ▸ 서부산업권(3) - 강서내륙권(2) : 김천, 상주 - 강동내륙권(1) : 구미 ▸ 남부도시권(7) - 동부권(4) : 경산, 영천, 청도, 군위 - 서부권(3) : 칠곡, 성주, 고령
발전 방향	▸ 8대 추진전략 ①활력 넘치고 살기좋은 지역구현	▸ 7대 추진전략 ①네트워크형 도시개발 및 농어촌

		②경쟁우위의 지식기반형 산업 진흥 ③한국 속의 문화관광지대 조성 ④편리한 네트워크형 교통・물류망 구축 ⑤건강하고 여유로운 복지생활환경 조성 ⑥지속가능한 자원의 개발과 관리 ⑦청정하고 아름다운 환경보전 ⑧안전한 지역 방재체계 구축	정주기반 강화 ②전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형 녹색 기술·산업 육성 ③강·산·해와 한(韓)문화가 어우러진 문화관광지대 실현 ④사통팔달 녹색교통·물류 및 정보통신망 확충 ⑤쾌적한 생활 및 서민이 행복한 복지체계 구축 ⑥녹색성장지향형 지역자원의 개발과 효율적 관리 ⑦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보전·관리 및 재해안전지역 구현
부문별 추진방향	지역개발	▶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과 정비 - 미래에 대비한 성장관리체계 및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역동적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신개념의 거점 개발 - 저성장 시대에 대비한 중심시가지 활성화와 도시환경 정비 -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한 협력적 도시계획 체계 구축 ▶ 농산어촌의 정주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농어업인 등의 복지증진과 실질적인 생활안정에 기여 -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획기적 개선 -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 농산어촌 복합산업 활성화 ▶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수지역 개발 및 정비 - 낙후지역 발전역량 강화 - 시・도간 연계강화	▶ 협력과 기능 재편을 통한 네트워크형 도시 개발과 정비 - 성공적인 도청신도시의 조성 - 도시간 연계를 통한 상생발전체계 구축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신성장도시 조성 - 권역별로 특성화된 중심도시 조성 ▶ 농산어촌의 정주기반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 농산어촌형 지역개발 추진 - 농어촌 복지 및 교육여건 개선 - 잘사는 부자농촌을 위한 여건 마련 - 귀농·귀촌인의 농어촌 정착 지원 강화
	산업경제	▶ 디지털 농업에 기반한 경북의 맞춤형 농정 추진 - 농업인력확보와 생산기반구축 - 첨단 친환경농업 육성 - 지식정보형 신유통체계 구축과 농촌정보환경 개선 - 소비촉진형 농산물 개발・가공 및 농촌환경 개선 ▶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체계 확립 - 그린파트너제 도입을 통한 복합산업화 - 산림자원의 환경생태자원화	▶ 지식기반형 친환경 생명산업의 선도지대 - 지속가능한 농수산업 육성 - 친환경 생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디지털농업 기반기술의 확대 - 경북형 미래축산 기반 구축 - 가공을 통한 수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 산림의 공익적 기능 유지와 활용방안 모색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업 활성화 - 어업인 육성과 어가소득 증대방안 모색 - 수산유통시설 및 직거래 기반 확충 - 수산업의 기술기반 확충과 복합해양산업화 - 수산물 유통정보 인프라 구축 및 물류 표준화 ▸ 미래의 성장동력 전략특화산업의 집중 육성 - u-경북 실현을 위한 전자·정보기기 산업기반 강화 - 세계적인 신소재·부품산업의 메카 형성 - 생물·한방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구조 고도화 - 다시 찾고 싶은 경북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 환경·에너지산업 육성 - 토착적인 경쟁력을 통한 세계적 명품으로서의 향토산업 육성 ▸ 경제성장의 밑거름 산업인프라 구축 - 산업입지 및 산업집적 인프라 구축 - 산업인력공급 인프라 강화 - 연구개발 및 산업기술공급 인프라 확충 ▸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 생산자 서비스업의 육성 - 유통서비스업의 육성	▸ 산업경제 발전과 거대과학 인프라 중심 거점 - 지역 주력산업의 신성장동력화 - 미래 유망산업 발굴 및 육성 - 산업단지 내실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인프라 확충 ▸ 서비스산업 고부가가치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강점형 서비스산업 발굴 및 육성 -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 - 청결하고 신뢰받는 소비형 서비스산업 육성 - 서민밀착형 금융산업 육성
	문화관광	▸ 특성화된 관광자원의 지속적 개발 - 관광중심지 재정비 및 관광명소 발굴·육성 -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개발 - 관광안내시설 및 홍보서비스 체계 정비 ▸ 체계화된 문화자원 개발 및 기반조성 - 역사·문화자원의 체계적인 정비·복원 - 특화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협력체계 구축 - 메가 이벤트의 지속적 개최 및 축전화	▸ '문화예술을 즐기는 도민, 문화예술로 활기찬 경북' 만들기 - 문화예술 향유 및 창조활동 기회 확대 - 지역사회 중심 문화예술공급기반 구축 - 문화예술 정보 및 자원에의 접근성 제고 ▸ 전통과 자연, 인간이 빚어낸 한국 대표 문화관광지대 조성 - 3대문화권 글로벌관광 기반 조성 - 강·산·해 융합형 광역관광개발 추진 - 관광트렌드 선도형 문화브랜드 발굴 및 육성 - 지역특화산업 연계 관광비즈니스 육성 - 재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수용태세 확립
	교통물	▸ 내륙과 해안·해상을 연결하는 다종·다층적 교통망의 구축 - 내륙과 해안·해상을 연결하는	▸ 광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편리한 교통네트워크 구축 - 대경권 2시간 이내 접근가능한

	류	네트워크형 교통망 구축 - 지역균형발전과 통일에 대비한 철도망 확충 - 동해연안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항 확충 - 환동해 경제권의 중추항만 건설 ▶ 환동해권 시대에 대비한 물류운송시스템 조성 - 환동해권 물류거점 확보 - 산업물류혁신을 위한 종합물류정보시스템 구축 - 물류대행 서비스센터 지원 ▶ 유비쿼터스를 활용한 지역정보화 실현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유비쿼터스 활용 -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모델 개발 - 유비쿼터스 시범도시 조성 - 기술과 자본 확보를 위한 민간기업 참여 유도	교통네트워크 구축 - 광역권 철도망 구축 - 복합환승센터 및 물류거점 지정을 통한 환승편의 도모 ▶ 21세기 경북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류화 - 물류서비스 고도화에 대응한 물류시설 정비 - 환경친화적 물류시책사업 구현 - 민간 물류활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 행복과 희망의 Smart & Green IT 중심 경북 - 도민 오감만족 정보화 서비스 개발 - 스마트 & 그린 행정정보화 서비스 개발 - 지역 국책사업과 연계한 정보화사업 발굴 - 첨단 안전망 인프라 구축
	생활복지	▶ 정주권 안정과 다양한 주택공급 확대 -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 향상 및 정주권 안정 - 지역특성과 발전을 고려한 안정적인 주택공급 확대 - 기존 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하수도체계 구축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도의 원활한 공급 - 자원재활용을 위한 중수도 도입과 빗물 활용 -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도시설 확충 ▶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한 보건의료사업 확충 - 공공보건 및 의료기반 확충 - 지역의료지원 인프라 개선 및 공공보건기관의 확대 -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 더불어 사는 맞춤형 사회복지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복지정책 마련 - 주민만족형 복지기반 확충 - 외국인·새터민·이주배우자의 지역사회정착 지원 ▶ 평생교육 실현과 문화·체육생활의 향유 - 교육여건의 개선과 평생교육체제 확립	▶ 도민이 행복한 주거문화 실현 - 저소득층 주거 복지 지원 - 지역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의 개선 -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계획 수립 ▶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관리 선진지역 - 지속가능한 물관리 통합관리환경 조성 -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 추진 - 하수처리시설 최적화 및 차세대 하수도시스템 구축 -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정보 DB 구축 ▶ 도민의 365일 건강생활권 보장 - 예방과 건강증진의 선순환 구조 확립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보건의료기관 접근성·전문성 제고 ▶ 가가호호 행복 보장하는 선진복지사회 - 합리적인 복지기반 구축 - 자립성 키우는 예방·투자사업 강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 발전 선도하는 교육·체육 환경 조성 - 교육 혁신 지원체계 구축

		-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예술활동 -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 교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 생활체육 저변 확대
	지역자원개발	▶ 계획적 토지이용과 합리적 관리체계 구축 - 환경변화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통합적 토지이용계획 수립으로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 - 보전을 위한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강화 ▶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관리 - 친환경적 발전설비 확충 - 비석유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개발 - 산업용 신재생에너지 활용 촉진 및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 유도 ▶ 지하자원의 적극적인 개발 -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 대륙붕의 석유·천연가스 개발 - 대륙붕·심해자원개발 기술확보 ▶ 안정적인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 - 안정적인 수자원 공급체계 구축 - 효율적인 수자원 이용과 관리 - 체계적인 지하수 이용과 보전 -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및 물순환 촉진 ▶ 개발과 보전이 조화된 연안의 정비 및 관리 - 효율적인 연안보전사업 실시 - 생태계 보전 및 환경관리해역 지정 - 친수연안공간 조성 및 연안접근권 개선	▶ 녹색성장지향형 토지이용과 관리체계 구축 - 수요지향적 산업입지 공급체계 마련 - 광역적 통합 토지이용계획 수립 - 녹색성장형 토지이용체계 구축 - 통합적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 난개발 방지시스템 구축 - 농지 및 산지 계획적 관리 규정 마련 ▶ 풍부한 수자원확보를 통한 물산업 선도 -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수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 - 국가 물산업 선도하는 경북 '에코 워터벨트' 조성 - 수(水) 및 수생태 자원 관광마케팅화 - 기후변화에 대비한 수자원계획 수립 ▶ 해양자원의 차세대 성장동력화를 주도하는 해양경북 - 해양과학 R&D 역량 강화 - 해양자원의 부가가치 제고 - 해양관광 활성화 ▶ 대한민국 녹색수도, 경상북도 - 신재생에너지 등 보급 확대 -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 -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 구축
	환경경관	▶ 청정한 자연생태 보전과 관리 - 자연생태녹지공간의 네트워크 구축 - 자연생태자원의 보전과 복원 - 쾌적한 도심환경을 위한 녹지지대 조성 ▶ 환경오염 저감 및 관리방안강구 - 토양오염방지 종합대책 수립 - 지속적인 대기오염 감시로 대기질 개선 -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오염원의 근원적 차단 - 연안환경관리체계 확립과 해양환경감시 강화 ▶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 -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정비 - 환경기초시설 운영체계 개선과 관리	▶ 맑고 깨끗한 Green&Clean! 경북 - 환경과 개발이 상생하는 기본 틀 마련 - 지속적인 자연 생태계 보전 및 복원과 자연환경운동 활성화 - 도민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공기 조성 - 물환경 보전 및 지역 발전 도모 - 지역이 상생하는 자원순환형 청정 제로 사회 -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관리 대책 마련 ▶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이 상생하는 경북형 경관 창조 - 경관 권역·축·거점 특화 - 전략적 특정경관 보전·관리 - 경관중점관리구역 지정·관리

		- 자원 재순환시스템 구축 및 폐기물처리자원화 기술 개발	- 도청신도시 녹색경관 창출 - 통합된 경관행정지원체계 마련 - 경관협정에 의한 자치적 관리체제 구축
	안전방재	▸ 재해 예방 및 응급대책 수립과 복구체계 확립 ▸ 효율적인 화재 예방과 진화 ▸ 지속적인 재해방지 사업 추진	▸ 안전·안심지역 창조 - 선제적인 재해예방, 신속한 재해대응, 완벽한 복구체계 확립 - 24시간 신속한 화재대응체제 확립 - 지속적인 재해방지사업의 발굴과 추진 - 자조(自助)·공조(共助)를 통한 자주방재의 실현
재정 · 집행		▸ 총투자규모 118조 6,118억원 ▸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 ▸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 ▸ 세제개편을 통한 재원 확충 ▸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영 및 관리 ▸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 지방채시장의 활성화	▸ 총투자규모 141조 2,779억원 ▸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충 ▸ 재정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 ▸ 민간부문의 활용 ▸ 주민과 소통하는 투명재정 확립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적 운용 ▸ 내외의 경기상황 및 여건변화에 신축적인 재정 운용 ▸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 확보

참여연구진

연 구 책 임	서 찬 수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 구 총 괄	임 성 호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용 준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최 정 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부 문 연 구

지역개발/정주기반	이 동 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기 철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원)
농림수산업	유 병 규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제조업/서비스산업/정보인프라	윤 상 현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문화	최 정 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관광	송 재 일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교통 · 물류	한 근 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에너지자원	설 홍 수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주택	조 득 환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상 · 하수도/수자원/환경보전	김 기 호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건의료/사회복지/교육 및 체육	안 지 민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해양자원	이 동 형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토지이용/경관	임 성 호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안전과 방재	최 용 준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행 · 재정	서 찬 수 (대구경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